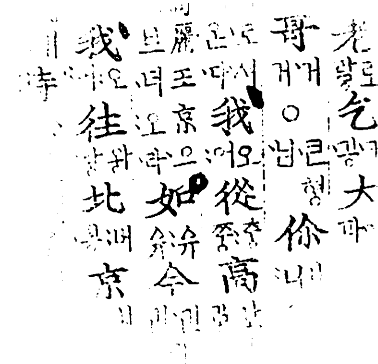
100대 한글 문화유산 —45
(재)한국어세계화재단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정 광 지음



신구문화사



발간사

21세기는 흔히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와 인터넷은 빨라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또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새로운 신조어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요즘은 국어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어는 우리 민족의 근간이고, 한국문화의 기초이며, 역사의 전승 도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에 학계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한글 문화유산 목록을 추천 받아 그 중에서 주요한 한글 문화유산 100종을 '100대 한글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100대 한글 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선정된 자료들은 주로 문자·언어, 유학서, 종교서, 역학서, 기술서, 문학서, 생활사 자료 등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선정된 서적들입니다. 이 선정된 자료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우선 디지털화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역주와 해설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사업의 결과가 책자로도 출판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온라인으로도 원전을 보고, 역주와 해설을 볼 수 있으며, 인쇄된 책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기관들에서도 국어 고전 자료에 대한 많은 책자들을 발간한 바 있으나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단에서 출판하는 책자들은 국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해제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책자들은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재외동포나 해외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에 더욱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한류로 하여 모처럼 일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학을 전공하겠다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책자들이 안으로는 선조들이 남기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밖으로는 한국어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러한 사업에 기꺼이 뜻을 같이 하고 땀흘려주신 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국어 고전 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의 주요 국어 자료들도 세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20일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박영순

머리말

이 책은 1515년경에 최세진의 번역으로 알려진 {번역}『노걸대』와 1670년에 교서관에서 戊申字 활자본으로 간행된『노걸대언해』를 현대 우리말로 역주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대 한글 문화유산의 정비 사업'으로 편찬되게 되었다.

『번역노걸대』는 국어의 역사적 연구 자료 가운데 가장 난해한 것으로 필자는 이미 1995년에『번역노걸대』의 역주에 관여한 일이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강독을 시도한 일이 있었고 그 때의 강독한 노트를 서울의 어떤 출판사가 公刊하면서 필자의 監修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디까지나 대학원생들의 스터디 그룹에서 강독한 것이기 때문에 역주가 불충분하고 더러는 오류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필자는 많은 문의와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물론 감수의 책임은 크다고 하겠으나 직접 역주에 참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난은 참으로 당황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때에 새로운 주석서를 편찬하는 것이 이러한 독자들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8년에 원본으로 보이는『老乞大』가 발견되었고 필자가 그 중국어 원문을 주석하고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후대에 편찬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註釋의 즐거움도 함께 터득했던 것이다.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난해어, 난해구들이 이 사전, 저 사전을 뒤져서 드디어 그 의미를 알게 되

었을 때의 喜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 사업'으로 {번역}『노걸대』 역주를 선정하였고 필자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 때에 필자는 두 말없이 승낙한 것은 다시 한번 주석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작업에서도 역시 어려운 언해문을 해독하면서 먼저와 같은 譯註의 法悅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한국어 세계화재단이 구상한 좋은 사업에 감사를 드리며 필자가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도 미상으로 남아있는 몇몇 난해어와 난해구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바란다.

2006년 1월 20일
佛岩齋에서 역주자 씀

차 례

발간사 …… 3
머리말 …… 5
일러두기 …… 9

제1장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해제 …… 11

1. 『노걸대』란 무엇인가? …… 11
2. {원본}『노걸대』의 편찬 …… 14
   1) 원대(元代) 한아언어(漢兒言語)의 등장 …… 14
   2) 한아언어(漢兒言語)의 교육 …… 18
   3) {원본}『노걸대』 …… 24
3.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의 편찬 …… 27
   1) {번역}『노걸대』 …… 30
   2)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 31
4. 『노걸대』의 제이본 …… 32
   1) 현전(現傳)『노걸대』의 제 판본(板本) …… 32
   2) 『번역노걸대』와『노걸대언해』의 원문대조 …… 34

11606103

제2장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주석 ···················· 43

1. 만 남 ···················· 43
2. 와점(瓦店)에서의 숙박 ···················· 92
3. 자, 북경(北京)으로! ···················· 149
4. 북경(北京)에서의 장사와 생활 ···················· 217
5. 사람 사는 도리 ···················· 349
6. 귀국을 향하여 ···················· 385

제3장 원문 각주 색인 ···················· 431

제4장 언해문 각주 색인 ···················· 441

일러두기

1. 이것은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의 본문과 언해문을 주석하고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원문의 주석은 김문경 외(2002)와 정광(2004)을 참고하였다.

2. {飜譯}『老乞大』는 원문과 언해문을 모두 주석하고 현대어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老乞大諺解』는 언해문을 {飜譯}『老乞大』와 다른 것만 적시(摘示)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주석을 붙였다.

3. 약호는 다음과 같다.

{原本}『老乞大』 - <原老>　　{飜譯}『老乞大』 - <飜老>
{刪改}『老乞大』 - <刪老>　　『老乞大諺解』 - <老諺>
『新釋老乞大』 - <新老>　　『新釋老乞大諺解』- <新老諺>
『重刊老乞大』 -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重老諺>

4. 원문의 띄어쓰기는 <飜老>에서 띄어 쓴 구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쉼표로 표시한다. 다만 <飜老>의 띄어쓰기가 틀렸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를 붙이고 고쳐서 쉼표로 표시한다. 문장이 끝났을 경우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언해문의 띄어쓰기는 현대 국어의 표기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구두점도 거기에 맞춘다.

예 "你每日做甚麼工課 ○:네:미·실ᄆᆞ·슴:이·력·ᄒᆞ·ᄂᆞ·다 每日清早晨起來 ○:미·실이른새배니·러 到學裏 ○·ᄒᆞᆨ당·의·가 師傅上受了文書 ○스승·님·ᄭᅴ·글듣:ᄌᆞᆸ·고 放學 ○·ᄒᆞᆨ당·의·노·하·든 到家裏喫飯罷 ○지·븨·와·밥머·기뭇·고"의 경우에 원문과 언해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원문 띄어쓰기의 예. 你每日做甚麼工課? 每日清早晨起來, 到學裏, 師傅上受了文書. 放學, 到家裏喫飯罷,

언해문의 예. :네 :미·실 ᄆᆞ·슴 :이·력 ·ᄒᆞ·ᄂᆞ·다? :미·실 이른 새배 니·러 ·ᄒᆞᆨ당·의 ·가, 스승·님·ᄭᅴ ·글 듣:ᄌᆞᆸ·고 ·ᄒᆞᆨ당·의 ·노·하·든 지·븨 ·와 ·밥 머·기 뭇·고,

5. 현대어 대역(對譯)의 <現代譯>은 <飜老>의 언해문을 가능한 한 현대 국어로 직역한다. 다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역(意譯)하기도 한다.

6.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의 언해문에 대한 현대어 대역은 하지 않는다.

7. 주석(註釋)은 <飜老>의 원문과 언해문의 난해구(難解句), 난해어(難解語)를 모두 주석하는데 표제어를 ' ' 안에 넣고 해석한 말은 " " 안에 넣는다.

8. <老諺>의 난해구, 난해어의 주석(註釋)은 하지 않고 다만 언해문에서 <飜老>와의 차이만을 밝힌다.

9. 언해문의 우리말 형태 분석은 ' ' 안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형태 결합은 '+'로 표시한다.
  예 '쥬신(主人) + 하(존칭호격)'
- 체언의 어간은 자립형식임으로 그대로 적고 ( ) 안에 한자로 의미를 적는다.
  예 ':사·룸(人)'.
- 용언의 어간은 의존형식임으로 어간 다음에 '-'을 붙이고 ( ) 안에 한자로 의미를 적는다.
  예 ':살-(生)'.
- 격조사는 의존형식임으로 앞에 '-'을 붙이고 그 문법적 의미를 밝힌다.
  예 ':사·룸(人) + -·이(주격)'.
- 어미는 의존형식임으로 앞에 '-'을 붙이고 그 문법적 의미를 밝힌다,
  예 '넙-(廣) + -:으·니(연결어미)'.
- 선어말 어미는 의존형식임으로 앞과 뒤에 '-'을 붙이고 그 문법적 의미를 밝힌다.
  예 '꾀-(誘) + -·오-(사역형) + -·디(부정)'.

10. 문법 용어에서 "계사"는 "서술격 조사"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사이시옷은 '무정체 속격'을 밝혀야 할 때는 이를 써 주고,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이 ㅅ'으로 표기하였다.

11. 경어법은 "大哥"와 같은 높임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의 현대역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12. <노걸대>의 주인공은 두 사람으로 고려 상인 '이씨(李氏)'와 중국 요동성(遼東城) 거주의 중국 상인 '왕씨(王氏)'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원문과 언해문에서는 '[高]', 현대역(現代譯)에서는 [고려인]으로 하고 후자는 '[漢]', [중국인]으로 하였다. 그 외에 민박할 때의 민박집 주인을 '[主]', '[집주인]'으로, 여관에 묵거나 점포에서 물건을 살 때의 주인은 '[主]', '[점주인]'으로 하였다. 기타 중개인은 '[牙]', '[중개인]'으로 하고 고려인에게 물건을 사려고 온 중국 상인들은 '[客]', '[말장수]', '[베장수]' 등으로 줄여 불렀으며 기타 고려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金]', '[김씨]' 등으로 적당히 약칭하였다.

제1장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해제

1. 『노걸대』란 무엇인가?

『노걸대(老乞大)』는 『박통사(朴通事)』와 함께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던 한어 교과서다. 한어도감이나 통문관, 사역원에서 이것을 한어 교재로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조선조에서는 건국(建國) 초기부터 사역원에서 『노걸대』를 『박통사』와 더불어(중국어 교재)로써 사용하였고 그곳에서 통사과(通事科), 역과(譯科) 등의 한어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임을 『조선왕조실록』이나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에 명기하였다. 또 이러한 한어 교재를 민간인이 편찬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걸대(老乞大)'의 '乞大'는 'Kitai', 또는 'Kitat'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원래 이 말은 10세기 초부터 200여 년에 걸쳐 몽골, 구만주(舊滿洲) 및 북중국의 일부를 영유하여 국가를 건설한 요(遼, 916~1125)의 몽골계 민족, 즉 거란인(契丹人)을 가르친다. 거란(契丹)의 'Kitan'은 복수형이고 'Kitai, Kitat'는 단수형이다. 이 명칭은 요(遼)가 여진족의 금(金)에 의하여 멸망한 후에도 북중국 및 그 주민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윽고 몽골인이 여진족의 금(金)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대하여 원(元)을 세운 다음에는 중국 및 중국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원조비사(元朝秘史)』, 『화이역어(華夷譯語)』 등 후세 자료에서 북방 중국인(漢人, 漢兒)을 가리키는 '乞塔·乞臺·奇塔' 등의 표기는 모두 '乞大'처럼 'Kitai, Kitat'의 음차(音借) 표기이다. 또한 이 말은 西方의 터키어, 페르시아어

등에 전달되어 서방 세계에서 중국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현재 러시아어에서는 중국을 키타이 'Китай'라고 한다든지 또 영어에서는 중국을 '캐테이(Cathay)'로 부르는 것이 이 말에서 연유된 것이다.

다음으로 '老'는 영어의 'old'와 같이 중국어에서도 애칭 혹은 경칭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왕(王)씨를 '老王'이라고 부르는 경우, 그리고 스승(師)을 '老師(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의 '老'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는 몽골어에서 '진실한'이란 뜻의 'lab'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현대 중국어에서 북경(北京)을 잘 아는 사람을 '노북경(老北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노걸대(老乞大)'는 중국 사정에 훤한 '중국통(中國通)'이란 뜻으로 일단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책의 내용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필자는 졸고 Chung(2003)에서 〈老乞大, Lao Qida〉를 "Mr. Cathayan"으로 영역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이 책의 편찬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으나 고려말, 다음에 더 상세한 편찬경위를 소개하겠지만 대체로 원(元)의 지정(至正) 병술(丙戌, 1346)에 중국을 여행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역원(司譯院) 등에서 한어 교재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노걸대』는 조선 성종(成宗) 14년(1483)에 한인(漢人) 갈귀(葛貴) 등이 명대(明代) 북경관화(北京官話)로 고치고 내용의 일부를 줄이거나 늘린 것이다. 이런 작업을 산개(刪改)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러한 개정본을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 또는 『노걸대』의 '산개본(刪改本)'으로 불렀다.

후에 다시 이것을 조선 영조(英祖) 37년(1761)에 김창조(金昌祚)·변헌(邊憲) 등이 청대(淸代) 북경 만다린으로 새롭게 해석한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이 있고 이것이 지나치게 비속한 언어를 반영한다고 하여 조선 정조(正祖) 19년(1795)에 이수(李洙) 등이 신석(新釋)본을 다시 아어(雅語)로 수정하여 중간한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가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가장 오래된 『노걸대』로서는 널리 이용된 것은 중종(中宗) 10년(1515) 경에 최세진(崔世珍)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번역}『노걸대』(이하 <飜老>로 약칭)로서 상·하 2권 2책의 목판본이며 모두 1970년대에

발굴된 것이다.

『노걸대』는 초급 한어 교재이었으며 이보다 조금 고급 교재로서 『박통사(朴通事)』가 있었다. 이 『박통사』도 『노걸대』와 같은 시기에 한인(漢人) 갈귀(葛貴) 등에 의하여 산개(刪改)되었고 역시 <飜老>와 비슷한 시기에 최세진에 의하여 조선어로 번역되어 을해자(乙亥字)로 인간(印刊)되었는데 그 책의 복각본(覆刻本) 상권이 오늘날 전해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飜老> 상·하 2권과 현전하는 {번역}『박통사』상(이하 <飜朴>으로 약칭)은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노걸대』·『박통사』로 널리 애용되었다. 그 이유는 최세진의 번역이 단순히 한어 본문의 언해만이 아니라 한자 하나하나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에 고려말에 편찬되어 원대(元代) 북경지역의 한아언어(漢兒言語)를 반영하는 『원본노걸대(原本老乞大)』가 필자에 의하여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져 이웃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필자는 최근에 발표한 몇몇 논문에서 이 책이 『노걸대』의 원본(原本)임을 주장하였고 중국 북경(北京)에서 필자의 해제를 붙인 영인본을 간행하면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였다(鄭光 主編: 2002). 이 책이 간행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최근에 많은 연구 논문이 중국과 일본에서 속출하였다. 『원본노걸대』의 발굴로 인하여 기대되는 연구 분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어 학습 교재로서 『노걸대』 류의 교재 편찬과 그 후대의 수정본(修訂本)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4. 『노걸대』의 제이본'에서 상론될 것이다. 둘째는 『원본노걸대』를 통하여 원(元)과 고려의 교역(交易)에 대하여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이 만들어진 당시의 원대(元代) 물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주로 상고(商賈)들이 물건을 파고 사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2. {원본}『노걸대』의 편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셋째는 원대(元代) 공용어(公用語)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동

안 원대에 사용된 언어에 대하여 중국어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가설만이 난무하였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효경직해(孝經直解)』, 『원전장(元典章)』 등에 보이는 원대 한어(漢語)가 그 동안 몽문직역체(蒙文直譯體)로 알려져 왔는데 이 『노걸대』의 원문을 통하여 이 언어들은 문어로써 당시 일상회화에 사용되는 구어(口語)의 한아언어(漢兒言語)를 바탕으로 한 구어체(口語體)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일본의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노걸대』의 원본이 몽문직역체의 문장으로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노걸대』는 문어(文語)를 학습하는 교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어(口語)를 학습하는 교재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 자료를 통하여 중국 원대(元代)의 의식주(衣食住)에 관련된 여러 생활상이나 당시의 풍속과 상품의 매매 등의 사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노걸대』는 14세기에 고려 상인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당시 사용되는 생생한 대화체의 구어(口語)로 기록한 여행기(旅行記)이기 때문이다.

2. {원본} 『노걸대』의 편찬

1) 원대(元代) 한아언어(漢兒言語)의 등장

중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몽고족에 의하여 건립된 元의 건국으로 인하여 언어 중심지가 북방(北方)의 북경(北京)으로 옮겨진 것이다. 쿠빌라이칸(忽必烈汗), 즉 원(元) 세조(世祖)가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北京)에 도읍을 정할 때에 이 지역은 동북아의 여러 이민족이 한족(漢族)과 각축을 벌리던 곳이어서 여러 언어가 혼용(混用)되었다. 13세기 초에 몽고족이 세력을 얻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몽고어가 많이 혼입된 형태의 중국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종래 몽문직역체(蒙文直譯体), 또는 한문이독체(漢文吏牘体)로 불리던 한

아언어(漢兒言語)다.[1] 이 언어는 종래의 아언(雅言)이나 통어(通語)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다른 언어이었던 것이다.

김문경 외(2002/369~370)에서는 북송(北宋)의 허항종(許亢宗)이 선화(宣和) 7년(1125)에 금(金) 태종(太宗)의 즉위식(卽位式)에 축하의 사절(使節)로 다녀오면서 쓴 여행기 『허봉사행정록(許奉使行程錄)』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언어가 생겨났는지를 소개하였다. 즉 허봉사(許奉使) 일행이 요(遼)의 황용부(黃龍府)(지금 하얼빈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지점) 부근을 지날 때의 기록으로 "契丹이 强盛했을 때에 이 부근으로 여러 민족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풍속이 섞여있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漢兒言語'를 써서 처음으로 의사가 소통했다는 기록이 있다"(『三朝北盟會編』 권20)고 하여 이 지역에 이주해온 여러 이민족들이 한아언어(漢兒言語)로 의사를 소통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북경지역에 모여 살게 된 동북아 여러 민족들이 일종의 코이네(Koinē)로써[2] 한아언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종래 중원(中原)의 공용어이었던 장안(長安)의 언어를 기본으로 한 통어(通語)와는 매우 다른 엉터리 중국어이었던 것이다.

---

1) '漢兒言語'는 본 연구자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진 元代 北京지역의 口語로서 실제 이 지역의 공통어이었다. 元代 高麗에서는 이 언어를 학습하는 '漢語都監'을 두었고(졸저:1988) 이 언어를 학습하는 『老乞大』, 『朴通事』를 편찬하였는데 조선 太宗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老乞大』가 최근 발견되어 소개되었고 필자에 의하여 이것이 漢兒言語를 학습하던 교재이며 거의 原本으로 추정되었다(졸저: 2004). 『原本老乞大』의 발견과 이것이 漢兒言語의 교재라는 주장은 중국과 일본의 중국어 역사를 전공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이미 中宗조에 崔世珍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는 元代 漢兒言語와 그 교재의 존재에 대하여는 졸고(1999, 2000, 2003, 2004)에 의해서 여러 차례 주장되었고 이제는 많은 중국어 연구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金文京 외:2002). 졸고(1999)는 일본어로 동경에서, 졸고(2000)는 국어로 서울에서, 그리고 Chung(2003)은 영어로 ICKL에서 발표한 것이며 졸고(2004)는 중국어로 北京에서 발표되었다.

2) 코이네(κοινη, Koinē)는 알렉산더대왕 이후 지중해 지역을 석권한 대 희랍제국의 공용어로서 아티카 방언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이로부터 大帝國의 공용어를 '코이네'라고 한다.

한아언어(漢兒言語)는 홍매(洪邁, 1123~1201)의 '거란송시(契丹誦詩)'(졸저:2004)와 같이 몽고어의 어순에 맞추고 몽고어의 조사와 어미를 삽입한 상태의 언어로서 졸저(2004)에서 본 연구자는 일종의 크레올로 보았고 김문경(金文京) 외(2002)에서는 이를 '호언한어(胡言漢語)'라 불렀다.[3] 원(元)에서는 이 언어를 공용어로 하여 고려가 중국과의 교섭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원이 건국한 이후에 한어도감(漢語都監)을 두어 이 언어를 별도로 교육하게 되었다.[4]

원(元)은 몽고(蒙古)인에 의하여 국가가 통치되었지만 실제 한족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한인(漢人)들이었고 몽고인들은 이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5] 따라서 한인(漢人)들은 몽고인 통치자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사용된 것은 고문(古文)이 아니라 한아언어(漢兒言語)를 모태로 하여 새롭게 형성된 문어(文語)이었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문어(文語)를 그동안 '한문이독체(漢文吏牘体)', 또는 '몽문직역체(蒙文直譯体)'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하여 전게한 김문경(金文京) 외(2002/372)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金의 王族은 몇 마디라도 '漢語'를 말할 줄 알았지만 몽고의 王族이나 貴族은 일반적으로 漢語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배울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汗의 命令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汗이 말한 몽고어로 번역하여 기록할 필요가 생겨났다. 거기에는 원래 엉터리 중국어이었던 '漢兒言語'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였고 또 정확하였을 것이다. 만일 정규 중국어, 혹은 文言(古文이나 후대의 백화문 등)으로 번역하려고 생각하면 意譯에 의하여 의미의 어긋남이 없을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契丹人, 女眞人 등 漢兒言語를 사용하고 있을 '漢人'들이었다. 이리하여 '漢兒言語'는 口語에서 文章語가 되었다. 소위 '蒙文直譯体'라는 漢文이 바로 그것이다(번역 저자).

3) 金文京 외(2002/370~371)에 '胡言漢語'에 대하여 "南宋人이 '漢人', '漢兒'라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반드시 北方의 金나라 治下에 있는 중국인을 가르친다. 따라서 '漢語'도 북방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의미하지만 그 언어는 南宋人에게는 奇妙한 말로 들린 것 같다. 南宋의 저명한 철학자 陸九淵(1139~1193)의 『象山語錄』(卷下)이나 禪僧의 傳記集인 『五灯會元』(卷16) '黃檗志因禪師' 조 등에 "엉터리, 이상한 말이라는 의미로 '胡言漢語'라는 말투가 보인다"라고 기술하였다.

4) 고려시대의 '漢語都監' 및 '吏學都監'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졸고(1987, 1990) 및 朴龍雲(근간)을 참고할 것.

5) 예를 들면 元代 各省에는 몽고인의 감독관이 있어 漢人 官吏를 지휘하였는데 大都省에는 '札魯花赤, 首領官, 六部官, 必闍赤人' 등의 몽고인이 있어 漢人 官吏를 감독하게 되었으나 『元典章』 延祐 7년(元 英宗 卽位年, 1320)의 '中書省 奏過事內 1件에 이들이 출근을 게을리 하므로 皇帝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것을 申飭하는 聖旨가 실려 있다. 여기서 '札魯花赤'는 "몽고인 斷事官"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이 문장어가 모두 한아언어(漢兒言語)라는 당시 실존한 구어(口語)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看過)한 것으로 이제는 빛바랜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본 연구자의 여러 논저(졸고:1999, 2000, 2004)에서 당시 한아언어와 몽고어가 혼효(混淆)된 한어가 일종의 코이네(공통어)로서 실제로 존재하였고 '몽문직역체(蒙文直譯体)'란 이 구어(口語)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며 한문이독체(漢文吏牘体)는 한어(漢語)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형성되어 사법(司法)과 행정(行政)에서 사용된 문장어(文章語)의 문체, 즉 吏文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몽고제국(蒙古帝國)의 제2대 대한(大汗)인 태종(太宗) 오고타이(窩闊大)가 몽고인 서기관(書記官, 必闍赤人)의 子弟에게는 '한아언어(漢兒言語)'와 그 문서를, 그리고 한인(漢人)의 자제에게는 몽고어를 학습시키라는 성지(聖旨)를[6] 내린 것은 이 한(漢)·몽(蒙) 관리(官吏)들이 몽고어와 그를 번역할 한아언어와 그 문어를 서로 학습하여 의사소통에 지

6) 이 오고타이 大汗의 聖旨는 北京의 地誌인 『析津志』(『析津志輯佚』, 北京古籍出版, 1983)에 실려 있으며 元 太宗 5년(1233)에 내린 것이다. 그 내용은 燕京(元의 首都)에 '四教讀'이란 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몽고인 必闍赤의 子弟 18인과 중국인의 자제 22인을 함께 起居시키면서 몽고인의 자제에게는 '漢兒言語·文書'를, 중국인의 자제에게는 몽고어와 弓術을 교육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漢兒言語'는 당시 漢人들의 口語를 말하며 또 '文書'는 文語인 吏文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金文京 외(2002) 참조.

장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내린 것이었다.

2) 한아언어(漢兒言語)의 교육

고려와 원(元)과의 접촉은 고종 18년(1231)에 몽고군(蒙古軍)의 침입으로 시작된다. 여러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는 드디어 원에 무릎을 꿇고 부마국(駙馬國)으로서 80년에 가깝도록 원의 간섭을 받았다. 이러한 원과의 밀접한 접촉에서 고려는 몽고어와 더불어 중국어의 한어 학습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고려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한문도감(漢文都監)에서 이루어졌으나 충렬왕 2년(1276)에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여 전술한 한어와 몽고어를 교육하였다.

이것은 원(元)의 새로운 교육제도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의 서울인 대도(大都)의 지리지(地理誌)『석진지(析津志)』에 몽골의 제2대 한(汗)인 태종(太宗) 오고타이(窩闊臺)가 1233년에 발표한 성지(聖旨)의 비문(碑文)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연경(燕京-大都의 구칭)에 '사교독(四教讀)'이라는 학교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몽골인 피샤치(必闍赤-書記官)의 자제들 18명과 중국인 자제 22명을 함께 기거(起居)시키면서 몽골인 자제에게는 "한아언어(漢兒言語)와 문서(文書)'를, 그리고 중국인 자제에게는 몽고어와 궁술(弓術)을 배우게 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이다.『노걸대』원본의 주인공이 다니던 학교가 고려인과 중국인이 거의 반반씩이라는 대화 내용은(제5화) 사교독(四教讀)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언어교육의 학교가 원(元)에는 많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말기에는 역관(譯官)들이 원(元)에 유학하여 몽골어와 한아언어를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태종실록』태종 12년(1412) 10월조에 의사(醫師), 악인(樂人), 역관(譯官)을 중국에 파견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진언(進言)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태종은 "지금의 황제(明의 永樂帝)는 의심이 많아서 본조(本朝, 조선을 말함)의 사람이 오면 반드시 내수(內竪-환관을 말함)를 시켜서 암찰(暗察)할 것이니 원과 조선이 혼일(混一)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운운"이라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보면 고려말기에는 역관을 유학시켜 언어를 배우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노걸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주인공의 중국 유학(留學)이 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제4화).『세종실록』세종 15년(1433) 9월조에 고려 공민왕(恭愍王) 21년(1372)에 고려가 유학생을 남경에 파견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명(明)의 태조(太祖)가 답을 하는 성지(聖旨)가 인용되었다. 거기에서 태조는 고려의 자제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만일 부모된 자가 자제를 입학시키고자 원한다면 자식된 자는 부모의 명을 듣고 와서 공부할 수 있으니 고려 국왕이 그들을 보내도 좋다고 말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은 물론 명 태조가 조선의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구실(口實)로 한 말이었지만『노걸대』의 주인공이 부모의 명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몽고어, 왜어(倭語), 여진어 또는 만주어와 함께 한어(漢語, 중국어)를 교육하는 제도는 고려의 것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고려의 전신이었던 태봉(泰封)의 궁예(弓裔)는 사대(史臺)를 두어 제방(諸方)의 역어(譯語)를 담당하게 하였으며[7] 고려가 건국한 뒤에도 역어의 교육은 계속되었다. 고려의 후기에는 통문관을 설치하여 한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국가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것이 후일 사역원(司譯院)으로 개명(改名)되어 역어(譯語)를 관장하였다. 즉『고려사(高麗史)』(卷76)「백관지(百官志)」1 '통문관(通文館)' 조에

通文館 忠烈王二年始置之 令禁內學官等參外年未四十者習漢語 時舌人多起微賤 傳語之間多不以實 懷奸濟私 參文學事金坵建議置之 後置司譯院以掌譯語 —통문관은 충렬왕 2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금내학관 등 참외로 나이가 40 미만인 자에게 한어를 학습시켰다. 그 때에는 설인(역관을 말함-필자 주)들이 미천한 신분에서 나와서 통역을 할 때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간사하게 사사로

7)『三國史記』(卷46) '弓裔所制官號'條에 "史台掌習諸譯語"라는 기록과 同卷50「列傳」'弓裔'條에 "又置史台 掌習諸譯語"라는 기사 참조.

운 일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문학사 김구가 건의하여 설치하였고 후에 사역원을 두어 역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라 하여 충렬왕 2年(1276)에 참문학사(參文學事) 김구(金坵)의 건의로 통문관(通文館)을 처음 설치하고 금내학관(禁內學官)[8] 중에서 참외(參外)로[9] 40세 미만인 자에게 한어를 학습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려에서는 한문도감(漢文都監)을 두어 전통적인 중국어를 학습시켰고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이를 한어도감(漢語都監)으로 개칭하고[10] 한어 교육을 전담시켰으며 통문관의 후신인 사역원에서는 한어보다는 이문(吏文) 교육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사(高麗史)』(권77) 「백관(百官)」 2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 '십학(十學)'조에

恭讓王元年置十學 教授官分隸 禮學于成均館 樂學于典儀寺 兵學于軍候所 律學于典法司 字學于典校寺 醫學于典醫寺 風水陰陽等學于書雲觀 吏學于司譯院 —공양왕 원년에 십학을 두고 교수관을 나누어 예학은 성균관에, 악학은 전의시에, 병학은 군후소에, 율학은 전법사에, 자학은 전교시에, 의학은 전의시에, 풍수음양학은 서운관에, 이학은 사역원에 소속시켰다—

이라 하여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 예학(禮學), 악학(樂學),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의학(醫學), 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 이학(吏學)의 십학(十學)을 두고[11] 교수관(教授官)을 각사(各司)에 분예(分隸)하

8) 禁內學官은 秘書, 史館, 翰林, 寶文閣, 御書, 同文院의 文官을 말하며 式目, 都兵馬, 迎送을 합하여 禁內九官이라 하였다. 『高麗史』(卷76) 「志」 卷第31 '百官'二 '通文館'조 참조.

9) '참외(參外)'는 6품 이하의 하급관리, 즉 참하(參下)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조선조에서는 관리의 계급을 크게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6품 이하의 참하(參下)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10) 『高麗史』(卷77) 「志」 卷第31 '百官'二 '諸司都監各色'조에 "漢文都監 恭讓王三年改漢語都監 爲漢文置 教授官"이란 기록 참조.

11) 『高麗史』의 十學은 成均館 等 八司에 나누어져 있고 風水陰陽學을 둘로 나누어도 九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增補文獻備考」에서도 "古謹按麗史十學教授分隸于各司 而所臚列者 只是八司 雖以風水陰陽分爲二學 猶不滿十學之數 可疑"라 하여 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역학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한다.

였는데 이학(吏學)은 사역원(司譯院)이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이학(吏學)을 이문(吏文)의 교육으로 본다면 이문이란 중국에 보내는 사대문서(事大文書)에 사용된 독특한 한문체로 원대의 공문서에 널리 사용된 것이다. 즉 원대의 『대원통제(大元通制)』, 『지정조격(至正條格)』, 『원전장(元典章)』 등에 사용한 한어 문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문(古文)이나 백화문(白話文)과는 다른 엉터리 구어(口語)인 한어에 근거하여 발생한 문어(文語)로서 몽문직역체(蒙文直譯體)라고도 하며 주로 행정 문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문(吏文)이라고도[12] 한다.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문서감(文書監)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의 문서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후일 이것이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로 개칭되어 조선시대에 승문원(承文院)의 기원이 되었다. 또 별도로 충혜왕(忠惠王) 원년(1340)에 이학도감(吏學都監)을 두고 이문(吏文)을 교육하였으나,[13] 사역원에서도 이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었으므로 이문의 교육이 여기서도 실시되었다. 고려에서는 사역원이 통문관의 전통을 이어받아 단순한 역관(譯官)의 양성이 아니라 금내학관(禁內學官)에게 한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한문[古文]과 이문[實用文] 그리고 한어[會話]까지 할 수 있는 외교관의 양성이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단순한 통역을 담당하는 설인(舌人)은 한어도감(漢語都監)에서 배출되었을 것이다.

12) 이문(吏文)은 이두문(吏讀文)과 혼동됨으로 한이문(漢吏文)이라 부르기도 한다.

13) 『增補文獻備考』(卷221) 「職官考」 '承文院' 조에 "高麗置文書監進色 掌事大交隣文書 有別監 後改稱文書應奉司 有使副使判官 皆以他官兼 本朝國初仍麗制 太宗九年改置知事僉知事 檢討官 校理修撰官書記 而各有權知 十年改置承文院 置判事知事僉知事各一員 校理副校理正字副正字 各二員 十五年增置博士 著作各二員(下略)(30a 8~35a 10行)"라고 한 記錄으로 承文院의 前身이 高麗의 文書監進色임을 알 수 있고 또 『高麗史』에 의하면 忠惠王 元年(1340)에 吏學都監을 두고 忠穆王 4年(1348)에 永山君 張沆, 僉議參理 金允臧 等 判事 7人과 副使 3人, 判官 3人, 錄事 4人을 두어 吏學을 振興시켰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卷37) 「世家」 卷第37 '忠穆王 四年'條와 『高麗史』(卷77) 「志」 第31 '百官'二 '諸司都監各色'조 참조.

이와 같은 사역원의 전통은 조선의 건국 초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태조(太祖) 2년(1393) 9月에 사역원을 설치하고[14] 화언(華言-중국어)을 이습(肄習)하게 하였는데 이때에도 역어(譯語)와 이문(吏文)을 동시에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실록(太祖實錄)』(卷6) 태조 3년 11월 을묘(乙卯)조의 기사에

司譯院提調偰長壽等上書言 臣等竊聞 治國以人才爲本 而人才以敎養爲先 故學校之設乃爲政之要也 我國家世事中國 言語文字不可不習 是以肇國之初 特設本院 置祿官及敎官敎授生徒 倚習中國言語音訓文字體式 上以盡事大之誠 下以期易俗之效(下略) (低線筆者)—사역원 제조 설장수 등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듣기에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인재가 근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인재는 교양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정사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서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학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처음 나라를 세울 때에 특히 본원을 설치하여 녹관과 교관, 교수, 생도를 두어 중국의 언어와 음훈, 문자, 체식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위로는 사대의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쉽게 효과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략)—

라 하여 사역원에서 중국의 언어, 음훈(音訓), 문자, 체식(體式)을 비습(俾習)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의 체식(體式)은 이문(吏文)의 독특한 여러 문장 형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역원이 설치된 태조 2년 10월에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산학(算學)'의 육학(六學)을 두어[15] 양가자제(良家子弟)로 하여금 이들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이 중 역학(譯學)의 교육은 이보다 1개월 전에 설치된 사역원에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태종 6년(1406)에는 상술한 육학(六學) 이외에 하륜(河倫)의 계(啓)에 의하여 '유학(儒學), 이학(吏學), 음양풍수(陰陽風水), 악학(樂學)'의 사학(四學)을

14)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9月辛酉'條에 "置司譯院 俾習華言"이란 기사 참조.
15) 『太祖實錄』(卷2) 太祖 2年 10月 己亥조에 "設六學 令良家子弟俾習 一兵學, 二律學, 三字學, 四譯學, 五醫學, 六算學"이란 기사 참조.

추가하여 십학(十學)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고려 공양왕 때의 십학(실은 8학)에 역학(譯學)과 산학(算學)이 추가된 것이며 태조조의 육학(六學)에 비하면 병학(兵學)이 무학(武學)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16] 태종조의 십학에 추가된 이학(吏學)도 초기에는 사역원에서 교육되었을 것이나 태종 10년(1410)에 승문원(承文院)이 설치되자 이학은 승문원에서 교육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반계수록(磻溪隨錄)』(권15) 「직관지제(職官之制)」上 '승문원(承文院)' 조에

掌事大交隣文書及通習漢語吏文(中略) 文官五品以下 每冬會本院 講漢語(二書)或吏文 皆定所業 吏文則無過二十人 漢語勿限數 五分以上賞加一階 不通者降一階 其無故不參者罷職(下略)—[승문원은] 사대교린의 문서를 관장하고 한어와 이문을 학습한다. 문관 5품 이하는 매 겨울 본원에서 모여 한어{2서-『노걸대』, 『박통사』를 말함-필자 주} 혹은 이문을 강한다. 모두 소업을 정하여 이문은 20인이 넘지 않게 하고 한어는 제한된 숫자가 없다. 5분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는 품계를 하나 올리고 불통자는 품계를 하나 내린다. 연고 없이 불참한 자는 파직한다. (하략)—

라는 기사가 있어 승문원에서 한어와 이문을 오품(五品) 이하의 문관에게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17]

16)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11月 '辛未'조에 "置十學 從左政承河崙之啓也 一曰儒 二曰武 三曰吏 四曰譯 五曰陰陽風水 六曰醫 七曰字 八曰律 九曰算 十曰樂 各置提調官 其儒學只試具任三館七品以下 餘九學勿論時散自四品以下 四仲月考試第其考下以憑黜陟"라는 기사가 있어 太宗조의 十學이 儒, 武, 吏, 譯, 陰陽風水, 醫, 字, 律, 算, 樂을 말하며 儒學은 三館의 7品 이하에게, 그리고 나머지 九學은 4品 이하에게 考試하여 黜陟의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7) 『經國大典』(卷1) 「吏典」 '正三品衙門' '承文院'조에 "承文院掌事大交隣文書 並用文官(中略) 吏文習讀官 二十員(下略)"이라는 기사와 同 「禮典」 '獎勸' 조에 "承文院官員 每旬提調講所讀書 詩, 書, 四書, 魯齋大學, 直解小學, 成齋孝經, 少微通鑑, 前後漢書, 吏學指南, 忠義直言, 童子習, 大元通制, 至正條格, 御制大誥, 朴通事, 老乞大, 吏文謄錄"이라 하여 經史類(詩, 書, 四書, 魯齋大學, 直解小學, 成齋孝經, 少微通鑑, 前後漢書)와 譯語類(朴通事, 老乞大) 이외에 '吏學指南, 忠義直言, 童子習, 大元通制, 至正條格, 御制大誥, 吏文謄錄' 등의 吏學類가 揭載되었다. 또 同

세종(世宗)조에는 '유학(儒學), 무학(武學), 한이학(漢吏學), 자학(字學), 역학(譯學), 음양학(陰陽學), 의학(醫學), 악학(樂學), 산학(算學), 율학(律學)'의 십학(十學)이 완비되었다. 이때에도 역학은 사역원에서, 이학(吏學)은 승문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하였으나 사역원에서도 이문(吏文)을, 승문원에서도 한어를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18] 또 이문을 시험한 한이과(漢吏科)와 한어를 시험한 통사과(通事科)에서도 구어인 한어와 문어인 이문이 서로 교체되어 출제된다는 기록이 실록에 전해지므로 사역원에서도 이문의 교육이 있었고 승문원에서도 『노걸대』, 『박통사』를 통한 한어의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원본} 『노걸대』

『노걸대』의 원본이 편찬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또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原老>의 본문에 "伴當恁從那裏來 俺從高麗王京來 如今那裏去 俺往大都去(<原老> 1앞 2~3행)[19]라는 구절에 '高麗'와 '元 大都'라는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이 있어 원대, 즉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본문에 "如今朝廷一統天下 世間用著的是漢兒言語"(<原老> 2앞 5~6행)라는 구절의 '一統天下'가 蒙古의 쿠빌라이칸(忽必烈汗), 즉 원 세조(世祖)가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중원(中原)을 통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 세조 이후, 고려 충렬왕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걸대』의 마지막 부분에 고려 상인(商人)들이 귀국하는 길일(吉日)을 선택하러 점술가(占術家) 오호(五虎) 선생을 찾아가 운세(運勢)를 본 것으로 "今年交大運 丙戌已後財帛大聚 强如已前數倍(<原老> 39뒤 2~3행)이란 구절이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여기에 나오는 '丙戌'을 원(元) 순제(順帝)의 지정(至正) 병술(丙戌, 고려 忠穆王 2년, 1346)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 중국을 여행한 누군가에 의해서 『노걸대』는 저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0]

그 뿐만 아니라 『노걸대』와 자매 관계에 있는 『박통사(朴通事)』의 경우에는 이 책의 편찬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남겨놓았다. 즉, 최세진의 <飜老>(上 74앞 9행~75뒤 1행))에 "南城永寧寺裏 聽說佛法去來 一箇見性得道的高麗和尙 法名喚步虛"이라 하여 고려승(高麗僧) '보허화상(步虛和尙)'이란 이름이 나온다.[21] 민영규(1964)에서는 이 '보허(步虛)'를 고려의 명승 '보우(普愚)'로 보고 그가 원의 연경(燕京)에 머문

'勸奬' '寫字' 조에 "漢語吏文寫字特異者雖犯罪作散 除重犯私罪外仍仕— 한어 이문에 뛰어난 자는 비록 범죄를 저질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더라도 중범이나 사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계속 근무하게 한다—"라는 기사가 있어 承文院에서 吏文의 교육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알 수 있다.

18) 『世宗實錄』(卷47) 世宗 12年 庚戌 3月 戊午 '諸學取才' 조에 詳定所에서 정한 吏學과 譯學漢訓의 經書 및 諸藝數目이 등재되었는데 吏學은 經史類 이외에 『朴通事』, 『老乞大』의 漢語가 포함되었다. 또 具允明의 『典律通補』(1786) 「禮典」 '漢語吏文'조에 "漢語吏文 文臣令槐院抄二十九歲以下人習漢語 三十九歲以下人習吏文 並四十九許頃本院褒貶 坐起三處 (中略) 考講三處 (下略)'이라 하여 承文院의 文臣들로 하여금 39세 이하는 吏文을 학습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中宗조 崔世珍의 飜譯본에서는 이 부분이 "我從高麗王京來—내 高麗 王京으로셔브터 오라—"(<飜老> 上 1앞 2~3행)이고 英祖 37년(1761)의 간기를 갖고 있는 『老乞大新釋』에서는 이 부분이 "我朝鮮王京來"와 같이 '朝鮮'으로 바뀌었다.

20)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金文京 外(2002)에서는 『노걸대』 원본의 "今年交大運 丙戌已後財帛大聚"(제105화)를 "금년은 대운(大運)이 변하기 때문에 병술(丙戌) 이후에 재산이 크게 모인다"로 해석해야 하지만 <飜老>에서는 "올히 대운이 병슐에 다드라 이시니 이후애는 천량이 만히 모다"라고 해석되었으므로 '병술(丙戌)'을 1년의 간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丙戌이 1년의 간지가 아니더라도 그 해의 간지인 '丙戌'을 빌어 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는 至正 丙戌(1346)에 가까운 시기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의 소작이라는 필자의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다.

21) 『老朴集覽』('老乞大集覽' 15뒤)에는 이 步虛和尙에 대하여 "步虛 俗姓洪氏 高麗洪州人 法名普愚 初名普虛 号太古和尙 有求法於天下之志 至正丙戌春入燕都 聞南朝有臨濟正脈 不斷可往印可 蓋指臨濟直下雪嵒嫡孫石屋和尙淸珙也 遂往湖州霞霧山天湖庵謁和尙 嗣法伝衣 還大都 時適丁太子令辰十二月二十四日奉伝聖旨住持永寧禪寺 開堂演法 …"이란 해설을 붙였는데 이에 의하면 步虛는 고려 명승 태고화상 普愚(1301~1382)이며 그가 元의 大都(지금의 北京)에 체류한 것은 至正 6년(1346)에서 至正 8년(1348)의 일로 『朴通事』는 이 시기에 중국을 여행한 고려인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사가 『朴通事諺解』(상 65a 8~65b 2)에도 협주로 附載되었다.

것은 지정(至正) 병술(丙戌 원 順帝 7년, 1346)의 일로써 『노걸대』에서 거론된 병술(丙戌)의 해가 다시 등장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즉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에 『노박』은 집필된 것으로 보았다(졸고:1995).[22)]

다음으로 이 책의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노걸대』의 간행에 대한 기사(記事)는 세종(世宗)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卷20) 세종 5년 8월 丁丑조에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朴通事·前後漢·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23)]"라는 기사가 지금까지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또한 『세종실록』(卷64) 세종 16년 8월 병인(丙寅)조에는 "頒鑄字所印老乞大朴通事于承文院司譯院 此二書譯中國語之書也"라 하여 『노걸대』를 인쇄하여 승문원(承文院)과 사역원(司譯院)에 배부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 이상의 두 기록으로 미루어 세종 때에 이미 『노걸대』가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광·남권희·梁伍鎭(1999)에서 소개된 『老朴集覽』의 『구본노걸대(舊本老乞大)』는 『원본노걸대(原本老乞大)』를 지칭한 것으로 이 시대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 즉 조선 태종(太宗) 조에 간행한 것으로[24)] 보이며 원대

22) 이에 대하여 이돈주(1989)에서는 "그리고 같은 책에 見性得道한 高麗의 한 和尙을 말한 대화 중에 '法名喚步虛'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그 下註에 '步虛 俗姓洪氏 高麗洪州人 法名普愚 初名步虛 号太古和尙 有求法於天下之志 至正丙戌春入燕都云云'라고 하였다. 여기에 등장한 普愚(1301~1382)는 고려의 승려로서 한국 臨濟宗의 시조인 바 号는 太古, 諡号는 圓証, 俗姓은 洪氏이며 한 때 辛旽의 투기로 俗離山에 금고되었다가 그가 죽은 뒤 다시 國師가 된 사람이다. 또 註中의 '至元'은 元나라 順宗의 연호(1341~1367)이며 丙戌은 1346년이다. 이를 보아서 『老·朴』은 적어도 1346년 전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다.

23) 『直解孝經』은 위글人 貫雲石(1286~1324)이 『成齋孝經』을 元 至大 元年(1308)에 元代 북경어, 즉 漢兒言語로 번역한 것으로 『元典章』과 더불어 당시 북경어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長澤規矩也·阿部隆一(1933) 참조.

24) 정광·남권희·梁伍鎭(2000/10)에서는 이 『노걸대』의 원본이 판식과 지질, 서체, 그리고 판각 등의 특징이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니산본 『三國遺事』나 태종연간에 간행된 『鄕藥濟生集成方』과 유사함으로 적어도 태종연간,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았다.

의 공용어인 한아언어(漢兒言語)를 학습하기 위하여 편찬된 『노걸대』의 원본(原本)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후에 간행된 것은 모두 이의 개정본(改訂本)이 될 것이다.

3. {번역} 『노걸대』, 『노걸대언해』의 편찬

졸고(2000)에서는 현전하는 『老乞大』를 정리하여 다음 4종으로 나누었다. 우선 원대(元代) 한아언어(漢兒言語)를 텍스트로 한 『원본노걸대(原本老乞大)』(1346년 경 편찬, 이하 <原老>로 약칭)가 있고 이를 성종 조(成宗朝)에 한인(漢人) 갈귀(葛貴) 등이 명대(明代) 북경관화(北京官話)로 교정한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1483년 수정, 이하 <刪老>로 약칭)가 있으며 또 다시 이것을 조선 영조(英祖) 때에 김창조(金昌祚)·변헌(邊憲) 등이 청대(淸代) 만다린으로 새롭게 해석한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1761년 신석, 이하 <新老>로 약칭)이 있고 이것이 지나치게 비속한 언어를 반영한다고 하여 조선 정조(正祖) 때에 이수(李洙) 등이 다시 아어(雅語)로 수정하여 중간한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1795년 중간, 이하 <重老>로 약칭)가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한어 원문의 제1권 첫 구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飜老>	伴当恁從那裏來 俺從高麗王京來 如今那裏去 俺往大都去
<刪老>	大哥你從那裏來 我從高麗王京來 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新老>	阿哥你打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 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重老>	大哥你從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 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이 한문본 『노걸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번역, 또는 언해되었는데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번역본은 중종조 최세진(崔世珍)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번역(飜譯)} 『노걸대(老乞大)』(1515년경, 이하 <飜老>로 약칭)로

서 전술한 『노걸대』의 산개(刪改) 본을 저본으로 하여 발음을 붙이고 뜻을 풀이하였다. 최세진의 『老朴集覽』에 의하면 산개 본을 번역할 때에 구본(舊本), 즉 원본(原本)도 함께 참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졸고:2000).

최세진의 번역으로 추정되는 <飜老>(상·하권)이 1970년대에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으나 서(序)와 발(跋)이 없어 누구의 저작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종(中宗)조 최세진(崔世珍)이 『노걸대』와 『박통사』를 번역하였고 그 번역의 범례를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이하 '飜譯凡例'로 약칭함)라는 이름으로 그가 편찬한 『사성통해(四聲通解)』(1517)의 말미(末尾)에 부재하였기 때문에 '번역노걸대(飜譯老乞大)'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최세진이 『노걸대』에 한자음을 정음으로 표음하고 본문을 당시 우리말로 언해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현전하는 언해된 목판본의 『노걸대』를 최세진의 번역본으로 간주한 것이다.[25)]

임진왜란 이후에 현종(顯宗) 11년 경술(庚戌, 1670)에 『노걸대』는 사역원의 역관(譯官)들에 의하여 다시 언해되었고 최세진의 표음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현종(顯宗)조에 간행된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이하 <老諺>으로 약칭)와 숙종(肅宗)조에 간행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이하 <朴解>로 약칭)는 모두 왜란(倭亂)과 호란(胡亂) 이후에 간행된 {산개(刪改)} 『노걸대』·『박통사』(이하 <刪老朴>으로 약칭)의 언해로서 조선 숙종(肅宗) 정사(丁巳, 1677)에 이담명(李聃命)이 쓴 '朴通事諺解序'에 의하면 최세진의 번역본이 두 차례의 전란에 인멸(湮滅)되었지만 그가 <刪老朴>을 번역할 때에 저술한 『老朴集覽』을 참고하여 邊暹, 朴世和 등 12人이 언해한 것임을 밝혔다.

---

25) <飜老>의 상권(上卷) 1책은 고(故) 백순재(白舜在)씨가 고서점에서 구득(購得)하여 소장했던 것으로 고(故) 남광우(南廣祐) 박사가 해제를 붙여 1972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인되었다. 또 하권 1책은 고서박물관(古書博物館)의 조병순(趙炳舜) 관장(館長)이 수집하여 동 박물관의 성암문고(誠庵文庫)에 소장한 것으로 1975년 역시 남광우 박사의 해제와 더불어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 출간(出刊)되어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담명의 서문에 따라 <老朴>의 언해가 최세진의 번역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중국어의 발음 표기도 전혀 새롭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飜老>의 언해문을 <老諺>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간행되는 역주<飜老>, <老諺>의 언해문 역주를 보면 이 양자가 얼마나 긴밀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老諺>는 그 후 여러 차례 개편되었으며 한어(漢語)의 주음(注音)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나 중국어 원문은 그대로 <刪老>의 것을 유지하면서 100여 년을 사역원에서 한어 교재로 사용되었다. 영조(英祖) 때에 {산개} <노박>의 중국어가 청대(淸代) 만다린으로 신석(新釋)되기 직전인 영조 21년(1745)에 신성연(申聖淵)·변익(卞熤) 등이 <老諺>을 수정하여 평양 감영(監營)에서 중간(重刊)하였다. 이것은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평양 감영(監營)판(이하 <老諺>平으로 약칭)으로 졸저(2002)에 의하면 약간의 차이가 언해문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영조 37년(1761)에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이하 <新老>로 약칭)이 편찬되어 한어 원문이 바뀌자 이에 대한 언해가 영조 39년에 이루어져서 『신석노걸대언해(新釋老乞大諺解)』(이하 <新老諺>으로 약칭)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정조(正祖)조에 이수(李洙) 등에 의하여 다시 원문인 한어가 교정된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이하 <重老>로 약칭)도 곧 다시 우리말로 언해되어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이하 <重老諺>으로 약칭)가 간행되었다.

따라서 『노걸대』의 언해본으로는 <刪老>를 훈민정음으로 발음 표기하고 뜻을 풀이한 중종(中宗)조 최세진의 {번역(飜譯)} 『노걸대(老乞大)』(<飜老>, 1515년경)를 시작으로 하여 <老朴>의 난해어(難解語)·난해구(難解句)를 풀이한 『老朴集覽』이 있고 이어서 현종 11년(1670)에 정태화(鄭太和)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이담명(李聃命) 등이 서문을 붙이고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老諺>)가 있으며 이를 다시 수정하여 영조 21년(1745)에 신성연·변익 등이 평양 감영에서 중간한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老諺>平)도 있다. 그리고 영조 39년

(1763)에 김창조(金昌祚)·변헌(邊憲) 등이 신석하여 언해한 『신석노걸대언해(新釋老乞大諺解)』(<新老諺>)가 있으며, 끝으로 정조 19년(1795)에 이수 등이 중간하여 언해한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重老諺>)가 현전하고 있다.

1) {번역}『노걸대』

남광우(1972)에서는 최세진의 『노걸대』 번역본으로 목판본인 백순재(白淳在)씨 소장의 『老乞大 潮』(표지서명, 권수서명은 '老乞大 上')를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책에 대한 서지 해제뿐만 아니라 현종(顯宗) 연간에 간행된 언해본과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 고서박물관(古書博物館)의 조병순(趙炳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老乞大 汐』(표지서명, 권수서명은 '老乞大 下')도 남광우(1975)의 해제를 붙여 인하(仁荷)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본으로 출판하였다. 『노걸대(老乞大)』의 '조(潮)·석(汐)'(판심서명은 '老乞大 上·下')은 바로 『노걸대 상』과 『노걸대 하』로서 요질(僚帙)로 보이며 모두 목판본이다. 이것은 최세진의 『老朴集覽』 범례(凡例)에 "兩書諺解簡帙重大 故朴通事分爲上中下 老乞大分爲上下 以便繙閱(두 책의 언해가 매우 많아서 박통사는 상·중·하로 나누고 노걸대는 상·하로 나누어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힌 것처럼 '노걸대'를 상·하 2권으로 나눈 그 두 책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두 책에 간기(刊記)나 서발(序跋)이 없어 이 책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의 판본이어서 최세진의 번역본을 후대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찰(推察)할 뿐이다. 최세진의 『노걸대』 번역은 『박통사』와 함께 『사성통해(四聲通解)』(2권, 1517)보다 몇 년 앞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26] 그

서지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飜老> 上 표지서명: 老乞大 潮, 판심서명: 老乞大 上
著者: 崔世珍?, 刊年未詳, 1책(71葉), 木版本(甲寅字 飜刻本) 33.0 × 22.0 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4 × 18.8 cm, 有界, 9行 19字
版心: 上下黑口 上下黑魚尾, 表題: 老乞大 上
所藏: 故 白淳在氏 舊藏本[27]

<飜老> 下 표지서명: 老乞大 汐, 판심서명: 老乞大 下
著者: 崔世珍?, 刊年未詳, 1책(73葉), 木版本(甲寅字 飜刻本) 33.0 × 22.0 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4 × 18.8 cm, 有界, 9行 19字
版心: 上下黑口 上下黑魚尾, 表題: 老乞大 下
所藏: 古書博物館 誠庵문고 소장

2)『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는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것과 이를 평양 감영에서 중간한 것이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는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라는 표제를 가진 것으로 활자본과 목판본의 두 종류가 있고 '무신자(戊申字)'로 된 활자본은 4종(규 1528, 2044, 2304, 2347)이 있으며 모두 간기(刊記)나 서, 발(序, 跋)이 없지만 같은 판본이고 『통문관지(通文館志)』(권8) 「서적(書籍)」 '內賜老乞大諺解二本'조에 "康熙庚戌陽坡鄭相國啓 令芸閣鑄字印行"이란 기사로부터 현종(顯宗) 11년(康熙 庚戌, 1670)에 사역원 도제조로서 영의정으로 있

26) 졸저(2002)에서는 최세진의 <노박>의 번역이 그가 비교적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1509년부터 1517년 사이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7) 졸저(2002)에 의하면 고 백순재 씨 구장본이 모두 아단(阿丹)문고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책은 제외되어 이 문고에 없다고 한다.

던 정태화(鄭太和)의 계청(啓請)으로 『노걸대언해』가 교서관에서 활자로 인행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양 감영 중간본(重刊本)은 이를 수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었다(奎 2303).

이 각각의 서지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老諺> 표지서명: 老乞大諺解, 판심서명: 老乞大諺解 上, 下
鄭太和 撰, 1670(顯宗 11년), 활자본(戊申字)
규(1528) 33.8 × 21.8cm, 규(2044, 2304, 2347) 35.6 × 22.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7 × 17.0cm, 有界 10행 19字, 註: 雙行
版心: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所藏: 奎章閣, 대구 가톨릭대학 도서관 소장(내사본),

<老諺>(평) 표지서명: 舊刊老乞大, 판심서명: 老乞大諺解
申聖淵 等撰, 1745(영조 21년), 목판본
규(2303) 36.0 × 23.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0 × 16.8cm, 有界 10행 19字, 註: 雙行
版心: 上下花紋黑魚尾, 版心題: 老乞大諺解 上, 下.
序: 歲乙丑仲秋上澣 校正官 卞煜 謹序
刊記: 平壤監營重刊, 奎章閣 소장

4. 『노걸대』의 제이본

1) 현전(現傳) 『노걸대』의 제 판본(板本)

원래 사역원(司譯院)에서 중국어 학습에 사용되던 『노걸대(老乞大)』는 고려 상인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학습내용으로 하는 중국어 회화교재로서 『박통사(朴通事)』와 더불어 조선시대 사역원의 한어(漢語)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의 하나였다. 이제까지 전해지는 판본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안병희(1996) 이외에는 별로 거론할 것이 없으나 대체로 현전하는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類形	書名	刊行(추정)年代	版式		소장처	비고
			行 및 字數	版心		
漢語本	老乞大(不分單卷)	(壬亂 이전)	10行 17字	白口	山氣文庫	甲寅字覆刻本
	上同	(上同)	10行 17字	大黑口	奎章閣	木版本
	上同	(上同)	10行 17字	大黑口	嶺南大	판식이 다름
	上同	(壬亂 이후)	10行 17字	大黑口	奎章閣, 嶺南大, 啓明大	목판본
	老乞大新釋	英祖 37(1761)	10行 20字		奎章閣, 연세대	목판본
	重刊老乞大	正祖 19(1795)	10行 20字		奎章閣	목판본
飜譯本	老乞大(上·下)	임란이전(中宗12: 1517?)	9行字數不同	黑口細花紋魚尾	上; 白淳在 下; 趙炳舜	목판본
諺解本	老乞大諺解(上·下)	憲宗 11(1670)	10行字數不同	戊申字	不傳	활자본
	上同	英祖 21(1745)	上同	花紋魚尾	奎章閣	목판본
	老乞大新釋諺解(上·下)	英祖 39(1763)	上同		콜럼비아대 東亞言語文化科	목판본
	重刊老乞大諺解(上·下)	正祖 19(1795)	上同	上黑口細花紋魚尾	奎章閣 등 여러 곳	목판본

이 표를 보면 오늘날 남아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전술한 최세진의 {번역} 『老乞大』[28]임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老乞大'란 이름의 漢語 교재는 한어 원문만 있는 '漢語本'과 중종조 최세진이 각 한자의 발음과 그 뜻을 번역하고 언해한 '번역본' 및 후대의 '언해본'이 있다. 한어본으로 가장 오래된 갑인자(甲寅字) 복각본(覆刻本)은 1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갑인자본(甲寅字本)을 복각한 것으로 16세기 전반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최고(最古)의 한어본(漢語本) 『노걸대(老乞大)』는 모두 48장의 단권(單卷)으로[29] 통문관(通文館)에 소장되었다. 아마도 이번에 발견된 『老乞

28) <老朴>의 최세진 번역본은 그 서명이 '老乞大 上·下', '朴通事 上·中·下'로 되었다. 그러나 최세진이 저작한 『사성통해(四聲通解)』 권말에 '老朴凡例'가 부재되어 최세진이 <老朴>을 번역할 때의 기준을 범례로 싣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최세진의 번역본을 편의상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로 불러 왔다(정광:1974).

29) 통문관주(通文館主) 산기(山氣) 이겸로(李謙魯) 옹(翁)의 소장본인 한어 『노걸대』는 안미경(1989)에 의하여 학계에 소개된 것으로 안병희(1996)에 의하면 이 판본은 갑인자(甲寅字)의 복각(覆刻)이나 4, 47, 48엽의 3장만은 새로 쓴 것이어

大』를 저본으로 하여 후대에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2)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원문대조

김현주 · 정경재(2006)에서 『노걸대언해』와 번역 『노걸대』 · 산개 『노걸대』의 한문 원문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노걸대언해』에서는 번역 『노걸대』가 바로잡은 산개 『노걸대』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번역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에서 유사한 의미의 다른 한자가 쓰인 경우라도, 번역 『노걸대』보다 산개 『노걸대』가 더 적절한 경우에는 『노걸대언해』에서 산개 『노걸대』의 원문을 취하고, 번역 『노걸대』보다 산개 『노걸대』가 덜 적절한 경우에는 번역 『노걸대』의 원문을 취하는 경향성이 포착된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노걸대언해』가 번역 『노걸대』나 산개 『노걸대』와 차이가 나는 원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제일 우측 '『노걸대언해』'의 '한문 원문' 칸에서 보였다. 그리고 그 경우에, 『노걸대언해』가 번역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 중 어느 쪽의 원문을 따르고 있는지를 '동일책(同一冊)' 칸에 보였다. 또한 번역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의 원문이 다른 경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 칸에 보였는데, 『노걸대언해』가 번역 『노걸대』와 산개 『노걸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 칸과 '동일책(同一冊)'을 비교해 알 수 있다.

※ 刪老(← 刪改『老乞大』), 飜老(←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刪改『老乞大』	의미	『老乞大諺解』	
언해	한문 원문	한문 원문		한문 원문	同一冊
:져·그·나/:쟉·다/:쟉·거·든	少	小	유사	少	飜老

서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 판식(板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의 크기가 24.6 × 16.8cm이며 有界에 1행 17자로 되었고 판심(版心)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아미(魚尾) 사이에 版心題인 '老乞大'와 張次가 표시되었다고 한다(안병희:1996/3).

소옴	緜	綿	유사	綿	刪老
필/빌	匹	疋	유사	匹	飜老
말숨 즈·슴 아니ᄒᆞᄂᆞ니	不隔話	不膈話	刪老 오류	不隔話	飜老
그저/:다·믄/다·몬/그져/:뿐/오직	只	則	유사	只	飜老
좃·답	秆草	秆草		稈草	단독
작도/쟉도	(桀+刂)	(金+算+刂)	유사	(金+算+刂)	刪老
:네 콩 쇼·기 아·디 :몯·ᄒᆞ·ᄂᆞᆫ ·둧ᄒᆞ·고·나	你敢不會煮料	你敢不會煮料		你敢不會煮了	단독
·져·로 두의저·텨	着筯子攪動	着筯子攪動		着筯子攪動	단독
훍 구·드·레	上炕	上炕		土坑	단독
어·렵·다 ·ᄒᆞᄂᆞ·다/어·렵거니	澁	澁	유사	澁	飜老
죠·히	紙	紙		紙(보무라지)	단독
의·심·ᄒᆞ·야 ·텨 져·주·니	涉疑打拷	涉疑打栲	刪老 오류	涉疑打拷	飜老
막대	拄杖	柱杖	刪老 오류	拄杖	飜老
·벽	塼	磚	유사	塼	飜老
:뒷·간·의 :가·미 어·렵·다	東廁裏難去	東厠裏難去		東厠裏難去	단독
몰 기·르마 진·노·라 ᄒᆞ·면	鞁了馬時	鞴了馬時	유사	鞁了馬時	飜老
:널 ·ᄯᅵ·라 잇·고	板輓了	板幔了	飜老 오류	板輓了	飜老
:권·ᄌᆞ	罐	礶	유사	罐	飜老
	(없음)	知他		知他	刪老
네 밧·고·아 왓·ᄂᆞᆫ ᄡᆞᆯ·래·셔	你糴來的米裏頭	你糴米的米裏頭	刪老 오류	你糴來的米裏頭	飜老
설어·저 ·짐시·리 ᄒᆞ·라	行李打駝馱	行李打駝馱		行李打駝駄	단독
:잠·싼더·디·나	暫時間	暫時間		蹔時間	단독
수울 홀·리·디 :마·져	休留底酒	沐留底酒	刪老 오류	休留底酒	飜老
네 ·이 지·븨 ·우·리·를 브·리·우·거니·와	你這房兒也下的我	這房兒也下的我		你這房兒也下的我	飜老
내 너 보·내·라 밧·긔 :가마	我送你到外頭去·	我送到你外頭去	刪老 오류 (어순)	我送你到外頭去·	飜老
ᄒᆞ나·흔 지·페딘 몰	一箇熟瘸	一箇熟蹶	유사	一箇熟瘸	飜老

·이 ·열 사·오·나·온 몰게·는	這十箇歹馬	這十周歹馬	刪老 오류	這十箇歹馬	飜老
오직 ᄒᆞᆫ 가·짓 ᄂᆞᆺ가온 은·으·란	銀子	銀子		好子	단독
·즈름	牙家	我家	刪老 오류	牙家	飜老
시·딕갑·스·로	時値價錢	時値價錢		時直價錢	단독
	(없음)	有甚麽病		有甚麽病	刪老
·하·츄·에 草料 쟝·망ᄒᆞ·라 ·가·노·라	草料	車料	刪老 오류	草料	飜老
·살 흥졍ᄒᆞᄉᆞ·몰	買貨物	買貨物	유사	買貨物	飜老
거·리·예 ·가 ·셔·실ᄉᆞ·이·예	到街上立地其間	到街上立地的其間		到街上立地的其間	刪老
:연류:황비체 ·붇곳(문ᄒᆞᆫ :비·단)	閃黃筆管花	閃黃筆管花	飜老 오류	閃黃筆管花	刪老
노ᄅᆞᆫ ·차·할 편:비·단	密褐光素	蜜褐光素	飜老 오류	蜜褐光素	刪老
嘉興·	嘉興	喜興	刪老 오류	嘉興	飜老
:됴·ᄒᆞᆫ 은 골·히여 가져오·라	揀好銀子來	撿好銀子來	유사	揀好銀子來	飜老
내 貨物 :아노·라	我識貨物	我識貨物		我織貨物	단독
:둥피	鐙鞦皮	鐙折皮	刪老 오류	鐙鞦皮	飜老
·이 화·리 :쥘·동·이 므르·니	這弓弝裏軟	這弓把裏軟	유사	這弓弝裏軟	飜老
·:ᄒᆞ·나·ᄆᆞ·라ᄂᆞ·다	包彈	駁彈	유사	駁彈	刪老
ᄊᆞ·론 ·힘 :뵈오	上鋪的劤	上鋪的筋	유사	上鋪的筋	刪老
고·재 뎌ᄅᆞ·다	弰兒短	梢兒短	刪老 오류	弰兒短	飜老
·ᄎᆞ·긔 사뎝·시	瓷楪子	磁楪子	유사	瓷楪子	단독
	(없음)	銅筯		銅筯	刪老
시·르	甑兒	鎗兒	刪老 오류	甑兒	飜老
사·회	女婿	女婿		女壻	단독
ᄌᆞᆺ ·와 문 ·들·어·든 순비 ᄒᆞᆫ ·잔곰 ·받ᄌᆞ·오·라	攔門盞兒都把了	欄門盞兒都把了		欄門盞兒都把了	刪老
술·윗 바·횟 밧돌·이	車網子	車網子		車輞子	단독
:세 :젼동 ·살·로	三掤兒箭	三棚兒箭	刪老 오류	三掤兒箭	飜老
이바·디	筵席	宴席	유사	筵席	飜老
:셋·재·ᄂᆞᆫ ·ᄃᆞᆰ:탕	第三道雞兒湯	第三道雞湯		第三道雞湯	刪老
안·쥬	按酒	安酒	刪老 오류	按酒	飜老
삭삭ᄒᆞᆫ ·ᄲᅧᆺ·근	脆骨	搶骨	刪老 오류	脆骨	飜老

사탕	粆糖	粆糖		砂糖	단독
ᄆᆡᆨ 자·펴 ·보·아지·라	診候脉息	胗候脉息	유사	診候脉息	飜老
ᄌᆞᆺ ·쥭 머구·니	纔喫些粥	纔喫了些粥		纔喫了些粥	刪老
(됴ᄒᆞᆫ 겨집도) 다ᄅᆞ·니 :얻·ᄂᆞ·니	別人取了	別人娶了	유사	別人娶了	刪老
:됴·히 ᄆᆡ·오	好生絟着	好生詮着	刪老 오류	好生絟着	飜老
·우·리 :번 지·ᅀᅥ ᄃᆞᆫ·롤·디·면	咱們結相識行時	咱們結相識行		咱們結相識行時	飜老
·ᄒᆞ·야ᄇᆞ·리·디 :말·오	休壞了	休壞了		休環了	단독
믈읫 :이·롤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凡事要謹愼行時	凡事要的愼行時		凡事要謹愼行時	飜老
:더·러·이·면	辱磨了時	辱磨了時		辱麽了時	단독
·부·뫼	爺孃	爺孃		爺娘	단독
여ᅀᆞ ·벋 지·ᅀᆞ·며 가·히·와 ·믈 지·ᅀᅥ	狐朋狗黨	狐朋狗黨	刪老 오류	狐朋狗黨	飜老
ᄀᆞ:장 :건·ᄂᆞᆫ ᄆᆞ·리·오	好??行馬(飜老의 한자에는 왼쪽에 馬가 있음. p.82)	好??行馬		好??行馬	刪老
:대·되 마·ᅀᆞᆫ 량 은·ᄡᅢ 잇·고	通使四十兩銀	通使四十兩銀		通是四十兩銀	단독
:됴·ᄒᆞᆫ ·야·쳥 로 이·삭·딕·녕·에	好靑羅曳撒	好靑羅曳撒		好靑羅衣撒	단독
ᄑᆞᆫ:류·쳥 로 ·ᄀᆞ·ᄂᆞᆫ 주·롬 텬·릭·이·오	柳綠羅細摺兒	柳綠羅細摺兒		柳綠羅細褶兒	단독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젹삼·애	好極細的毛施布布衫	好極細的毛施布布衫		好極細皆毛施布布衫	단독
총ᄉᆞ무	鬉眼	綜眼	유사	綜眼	刪老
:솔·오·ᄌᆞᆫ ·ᄀᆞ·롤·오노·ᄒᆞᆫ :굴·그·니	錐兒細線䌰	錐兒細線䌰	유사	錐兒細線䌰	단독
ᄃᆞᆼ간·애 :반·이·나 ·ᄀᆞ·려내·여	中間剋落了一半兒	中間剋落了一半兒		中間剋落了一半兒	단독
:졈·졈 :업·서	漸漸的消乏了	漸漸的消乏了		漸漸的消之了	단독
노ᄅᆞᆺ·ᄒᆞ·던 그 ·놈·돌·히	幇閑的那廝們	幇閑的那廝門	刪老 오류	幇閑的那廝們	飜老
·ᄀᆞᆮ·디 아·니ᄒᆞ·니	不等	不等	유사	不等	飜老
야·ᄌᆞ·와 ·보·ᄂᆞᆫ ·디	牙家眼同看了	牙家眼司看了	刪老 오류	牙家眼同看了	飜老

흠믜 보·라	着	着		着	
·우·리 ·황·호 :다 ·풀 ·오	我貨物都賣了	我貨物都賣了		我貨要都賣了	단독
·마·치 :됴·히 ·네 올 ·셔	恰好你來到	拾好你來到	刪老 오류	恰好你來到	飜老
:다·믄 :쳔·흔 거·술 :골·와 ·사·ᄂᆞ·니	只揀賤的買	則揀賤的買	유사	只揀賤的買	飜老
총·갇	結椶帽兒	結椶帽兒	유사	結椶帽兒	飜老
:미·레 든 연지 ·	蠟臙脂	蠟臙脂		臘臙脂	단독
감·차할 런·디	茶褐帶帶	茶褐欒帶	유사	茶褐欒帶	刪老
·더 큰 저·울 져근 저·울·돌·히 ·다 구 의·예·셔 밍·ᄀᆞ니·오	那秤等子都是官做的	那秤等子老是官做的	유사	那秤等子都是官做的	飜老
필	疋	四	刪老 오류	匹	단독

참고 문헌

(1) 영인본 목록

『老乞大諺解』; 末松保和 해제, 奎章閣叢書九, 京城帝大法文學部, 1944.

『飜譯老乞大』(上); 南廣祐 해제, 中央大學校 出版局 영인본, 1972.

『飜譯老乞大』(下); 南廣祐 해제, 仁荷大學校 出版部 영인본, 1975.

『重刊老乞大諺解』; 金文雄 해제, 弘文閣 영인본, 1984.

『老朴集覽』; 李丙疇 編校: 「老朴集覽考」, 進修堂 1966.

『元典章』;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 劉堅 蔣紹愚 編, 北京 商務印書館 1995.

『元朝秘史』;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 劉堅 蔣紹愚 編, 北京 商務印書館 1995.

『孝經直解』;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 劉堅 蔣紹愚 編, 北京 商務印書館 1995.

이하 생략

(2) 역주 및 연구 목록

강신항(1974); "飜譯老乞大 · 朴通事의 音系," 『震檀學報』(震檀學會), 제38호.

______(1978);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書』, 탑출판사, 서울.

______(1985);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탑출판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1987); 『國史館開館紀念 史料展示會 目錄 및 解題』,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金文京 외(2002); 『老乞大一朝鮮中世の中國語會話讀本一』, 金文京 · 玄幸子 · 佐藤晴彦 譯註, 鄭光 解說, 東洋文庫 699, 平凡社, 東京.

金良洙(1985); "朝鮮後期譯官家門의 研究," 『白山學報』(白山學會), 제32호.

김완진(1966); "續添洪武正韻에 對하여," 『震檀學報』(震檀學會), 제29 · 30호.

金炫榮(1981); "朝鮮後期 中人의 家系와 經歷 -譯官 川寧玄氏家 古文書의 分析-," 『韓國文化』 제8호.

김현주 · 정경재(2006); "<老乞大> 류 역학서의 漢文原文 對照,"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솔미 정광 선생 퇴임기념논문집)』, 태학사.

羅錦堂(1978); "『老乞大諺解 · 朴通事諺解』 影印本 刊行 序文", 聯經出版事業公司, 臺北.

남광우(1972); "新發見인 崔世珍 著 <飜譯老乞大> 卷上을 보고,"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제55~57호.

______(1975); "飜譯老乞大 解題" 『老乞大 下』(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영인), 인하대학교출판부, 서울.

梅祖麟(1984). "從語言史看幾本元雜劇賓白的寫作時期", 『語言學論叢』 第13輯, 北京大學 中文系, 北京.

민영규(1943); "老乞大について," 『大正大學學報』(일본 大正大學), 제36집.

______(1964); "老乞大辯疑," "解題 『淸語老乞大>," 『人文科學』(연세대) 제5호.

______(1966); "朴通事著作年代," 『東國史學』(동국대), 제9 · 10집.

孫錫信(1992); "<老乞大> <朴通事>中的一些語法現象", 『近代漢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安美璟(1989); "朝鮮朝 譯學書의 版種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安秉禧(1996);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논총』(서울大學校 人文學研究所) 제35집.

梁伍鎭(1998); "老乞大 朴通事 研究-漢語文에 보이는 語彙와 文法의 特徵을 中心으로-", 高麗大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楊聯陞(1957);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慶祝趙元任先生六十五世論文集」 上冊, 臺北.

呂叔湘(1985); 『近代漢語指代詞』, 上海: 學林出版社.

______(1987); "<朴通事>里的指代詞", 『中國語文』 1987-6, 北京: 中國語文雜誌社.

余志鴻(1983); “元代漢語中的後置詞‘行’”, 『語文硏究』 1983-3, 北京.
______(1987); “元代漢語‘-行’的語法意義”, 『語言硏究』 1987-2, 北京.
______(1988); “『蒙古秘史』的特殊語法”, 『語言硏究』 1988-1, 北京.
______(1992); “元代漢語的後置詞系統”, 『民族語文』 1992-3, 北京.
劉公望(1987); “<老乞大>里的語氣助詞‘也’”, 『漢語學習』 1987-5.
일본 陸軍省 編(1933); 『蒙古語辭典』, 國書刊行會, 東京.
李學智(1981); “老乞大一書編成經過之臆測”, 『中韓關係史硏討會發表論文』, 臺北中央硏究院.
林 燾(1987); “北京官話溯源”, 『中國語文』 1987-3, 北京: 中國語文雜誌社.
蔣紹愚(1994); 『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졸 고(1974); “飜譯老乞大朴通事의 中國語音 표기연구”, 『국어국문학』 제64호.
졸 저(1988); 『司譯院倭學硏究』, 太學社, 서울.
졸 고(1989); “譯學書의 刊板에 대하여”, 『周時經學報』(周時經硏究所) 제4집.
______(1995); “飜譯<老乞大> 解題”, <譯註飜譯老乞大>(국어사자료연구회 편), 태학사.
______(1999); “新發見<老乞大>について,” 日本大阪市立大學文學部, 中國學・朝鮮學敎室 招請講演, 일본 大阪市立大學 講堂 日時:1999年 6월 6일 오후 2시-5시.
______(2000); “<노박집람>과 <노걸대>・<박통사>의 舊本,” 『震檀學報』(진단학회), 제89호.
______(2004); “朝鮮時代的漢語敎育与敎材-以<老乞大>爲例-” <國外漢語敎學動態>(北京外國語大學), 總第5期.
졸 저(2004); 『역주 노걸대』, 김영사, 서울.
정광 主編(2002); 『原本老乞大』(解題・原文・原本影印・併音索引) 編者 梁伍鎭, 鄭丞惠, 外語敎學与硏究出版社, 北京.
丁邦新(1978); “<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 影印本刊行序文”,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程湘淸 編(1992); 『宋元明漢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曹廣順(1995); 『近代漢語助詞』, 北京 語文出版社.
朱德熙(1958); “<老乞大><朴通事>書後”, 『北京大學學報』 1958-2.
陳志强(1988); “<老乞大>‘將’‘的’初探”, 『廣西師院學報』 1988-1.
祝敏徹(1996); 『近代漢語句法史稿』, 中州古籍出版社.
胡明揚(1984); “<老乞大>複句句式”, 『語文硏究』 1984-4, 北京: 中國語文雜誌社.
胡竹安 외(1992); 『近代漢語硏究』, 北京: 商務印書館.

入矢義高(1973); 陶山信男 “<朴通事諺解 老乞大諺解語彙索引>序”, 采華書林.
田中謙二(1962); “元典章における蒙文直譯體の文章”, 『東方學報』, 1962年 第32冊.
志村良治(1995); 『中國中世語法史硏究』 中文版, 北京: 中華書局.
太田辰夫(1953); “老乞大の言語に ついて”, 『中國語學硏究會論集』 1.
______(1954); “關於漢兒言語”, 『神戶外大論叢』 5-3.
______(1991); 『漢語史通考』 中文版(日文原版: 1988), 重慶出版社.
______(1987); 『中國語歷史文法』 中文版(日文原版: 1958), 北京大學出版社.
Chung(2003), Kwang Chung; “On Lao Qida(“Mr. Cathayan”), a 14th Century Chinese Language Primer in Korea”, Seminar for Spring 2003,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2Noon - 1.00 p, 17 Feb, 2003, Rm 101, International Studies Building,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oppe(1954),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Otto Harrassowitz, Wiesbaden.
Street(1957), John Charles Street; *The Language of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New Haven.

제2장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주석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원문과 대역문을 모두 6장으로 나누어 어려운 구절을 주석한다.

1. 만 남

이 장면은 중국으로 장사를 떠난 고려 상인들이 북경(北京)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 만주지역의 요양성(遼陽城)에 사는 중국인 상인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동행을 요청하는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原文 제1화 你從那裏來?

[漢] 大哥, 你從那裏來?

[高] 我從高麗王京[1]來.

[漢] 如今[2]那裏去?

[高] 我往北京去.

[漢] 你幾時離了王京?

[高] 我這月初一日[3]離了王京.

---

1) 왕경(王京)은 그 나라의 수도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開京)을 이른다. 여기서는 "고려 서울", 또는 그대로 "서울"로 역주(譯註)하였다.

2) '如今'은 "지금"이란 뜻으로 현대 중국어의 '現在'(지금)와 '如今'(昨今)의 의미를 겸한다.

3) '初一日'의 '初'는 음력의 1일부터 9일까지의 앞에 붙는 말이다. <原老>의 제57화부터 유추하면 이들이 출발한 것은 7월 1일이 된다.

[漢] 旣是這月初一日離了王京, 到今半箇月, 怎麽纔到的[4]這裏?

[高] 我有一箇火伴, 落後了來. 我沿路上慢慢的行着等候來.[5] 因此上, 來的遲了.

[漢] 那火伴如今赶上來了不曾[6]?

[高] 這箇火伴便是, 夜來[7]纔到.

[漢] 你這月盡頭,[8] 到的北京麽, 到不得?

[高] 知他[9]? 那話怎敢說? 天可憐見,[10] 身己[11]安樂[12]時, 也到.

(飜老) 제1화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漢] ·큰형·님,[13]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14]

4) '到的'의 '~的'은 '得'과 같다. 완료, 가능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완료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飜老>에서는 "앗가·ᅀᅡ 예 오·뇨?"로 언해하였고 언해본에서는 "엇디 ᄀᆞᆺ 여긔 오뇨?"로 해석하였다.

5) '等候來'에 대해 <飜老>의 언해는 '기들워 오노라 ᄒᆞ니', 즉 '기다려서 오려고 하니'라고 되어 있다. '等候來'에서 '來'는 동사 '오다'로 해석하기보다 경험하였거나 시간적으로 경과된 사실을 나타내는 어기조사(語氣助詞)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6) '不曾'은 현대어의 동사 부정에 사용되는 '沒有'에 해당된다. '沒有'로 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명대(明代)부터이며, 이 시기에는 아직 이런 용법이 없었다.

7) '夜來'는 원래 "지난밤"이란 뜻이지만, '어제[昨日]'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原老>에서도 '어제[昨日]'의 뜻으로 사용된 바가 있다. 현재 중국 산동성(山東省) 연대(烟台) 지방의 방언에 이 용법이 있다.

8) '月盡頭'의 '盡頭'는 "끝, 마지막 자리, 최후의 장소"란 뜻이다. 그러므로 '月盡頭'는 "월말(月末)"을 의미한다.

9) '知他'는 "알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他'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없는 소위 허지(虛指)이며, 독백과 같은 뉘앙스가 있다.

10) '可憐見'은 "불쌍히 여기다, 돌봐주다"라는 뜻의 동사적 표현이다.

11) '身己'는 두 글자로 "몸"이란 뜻을 나타낸다. '身起'로도 쓴다.

12) '安樂'은 "몸이 건강한 것"을 말한다.

13) 원문 '大哥'는 글자 그대로 "큰 형님"이란 호칭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존칭으로 '哥哥'보다는 존경의 뜻이 더 담긴 호칭으로 쓰였다. 당시 한어(漢語)에는 대명사에 존칭의 '니(您)'와 평칭의 '니(你)'의 구별이 없어 언해문에서는 직역하여 '你'를 '너'로 풀이하였다.

[高] ·내 高麗王京[15]·으·로셔브·터 :오·라

[漢] ·이·제 어·드·러 ·가·는·다?

[高] :내 北京[16] :향·ᄒᆞ·야 ·가노·라.

[漢]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

[高] ·내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ᆺ·날 王京·의·셔 ·ᄠᅥ:나·라.

[漢]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ᆺ날 王京·의·셔 ·ᄠᅥ·나거·니, ·이·제 :반 ·ᄃᆞ·리로ᄃᆡ :엇·디 앗가·ᅀᅡ[17] 예 오·뇨?

[高] ·내 ᄒᆞᆫ :버·디 ·ᄠᅥ·디·여 올·ᄉᆡ ·내 ·길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ᄒᆞ·니,[18] 이·런 젼·ᄎᆞ·로 :오:미 더·듸요·라.

[漢] 그 :버·디 ·이·제 미·처 올·가? :몯 올·가?[19]

[高] ·이 :버·디 곧 :긔·니 어·재 ᄀᆞᆺ 오·다.

[漢] :네 ·이 ·ᄃᆞᆯ ·그·믐·ᄭᅴ[20] 北京의 갈·가 가·디 :몯홀·가?

14) 한어(漢語)에서는 경어법이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큰 형님(大哥)'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법의 '-으시-'를 붙이지 않았다. 중국어의 문법에 맞춘 번역으로 당시 국어의 경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모든 한학서(漢學書, 중국어 교재)의 언해에서 나타난다. 역학서(譯學書) 가운데 경어법이 언해문에 나타나는 것은 『첩해신어(捷解新語)』와 같은 왜학서뿐이다.

15) 주1 참조.

16) <原老>에는 '대도(大都)'이었는데 <刪老> 이후에 '북경(北京)'으로 바뀌었다. 원(元)의 수도 연경(燕京)을 말하며 당시는 '대도(大都)'라 불렀다. 명대(明代)에 다시 수도가 되면서 북경(北京)으로 부르게 되었다. <飜老>와 <老諺>에서는 언해에서 '北京'이라 하였고 그대로 '京'인 경우에는 '셔울'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이 역주에서는 '北京, 京'을 '북경, 셔울'로 언해하였다 하더라도 '북경'으로 통일하고 '왕경(王京)'을 "고려 서울", 또는 "서울"로 풀이한다.

17) '앗가ᅀᅡ'는 '앗가(이제, 지금)+ᅀᅡ(강세첨사)'의 형태 구조로서 현대어에서는 "이제야"의 의미다. '앗가>아까'가 "전에"라는 의미로 바뀐 것은 근대 국어 이후의 일이다. 『老諺』에서는 '엇디 ᄀᆞᆺ(어찌 겨우)'으로 풀이하였다.

18) 원문은 '等候來'이며 따라서 원문의 뜻은 "기다렸었다"로 볼 수 있다. "等候來"의 '來'는 현대 중국어의 '來'나 '着'에 해당한다. 현대역은 중국어 원문(原文)의 뜻에 따라 '오기를 기다리니'로 하였다. 주5를 참조.

19) 이 부분의 언해는 중국어의 의문문 형식 중의 하나인 정반(正反) 의문문을 그대로 직역한 문장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에서 '몯 올가'는 원문에 의하면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의문을 나타낸다.

20) 원문은 '月盡頭'이며 "이 달 그믐께"의 뜻. 주8을 참조.

[高] 모·로·리로·다[21] 그 :마·롤 :엇·디 니ᄅᆞ·리·오? 하ᄂᆞᆯ·히 :어·엿·비[22] 너·기·샤 ·모·미 편안ᄒᆞ·면 가·리·라.

(老諺) 제1화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漢] 큰 형아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高] 내 高麗王京으로셔브터 오롸.[23]

[漢] 이제 어드러 가ᄂᆞ다?

[高] 내 北京으로[24] 향ᄒᆞ야 가노라.

[漢] 네 언제 王京의셔 ᄠᅥ난다?

[高] 내 이 ᄃᆞᆯ[25] 초ᄒᆞ론날[26] 王京셔[27] ᄠᅥ난노라.[28]

[漢]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론날[29] 王京의셔 ᄠᅥ나시면[30] 이제 반ᄃᆞᆯ에 다ᄃᆞ라써 든[31] 엇디 ᄀᆞᆺ 여긔[32] 오뇨?

[高] 내 ᄒᆞᆫ 벗이 이셔[33] ᄠᅥ디 오매[34] 내 길흘 조차 날호여 녜[35] 기ᄃᆞ려 오노라 ᄒᆞ니[36] 이런 젼ᄎᆞ로 오미 더듸여라.[37]

---

21) 원문은 '知他'이며 "모르겠습니다"의 뜻. 주9를 참조.
22) '어엿비'는 '어엿브-(可憐)'의 부사형으로 "불쌍하게"란 뜻이다. '어엿브-(可憐)'이 '예쁘-(美)'로 변한 것은 근대국어 이후의 일이다.
23) '오롸'는 '오라'에 일인칭 선어말의 '-오-'가 삽입된 형태임.
24) <飜老>에서는 '北京 :향·ᄒᆞ·야'임.
25) <飜老>에서는 'ᄃᆞᆳ'임.
26) <飜老>에서는 '초ᄒᆞᄅᆞᆺ·날'임.
27) <飜老>에서는 '王京·의·셔'임.
28) <飜老>에서는 '·ᄠᅥ:나·라'임.
29) <飜老>에서는 '이 ·ᄃᆞᆳ 초ᄒᆞᄅᆞᆺ날'임.
30) <飜老>에서는 '·ᄠᅥ·나거·니'임.
31) <飜老>에서는 '·이·제 :반 ·ᄃᆞ·리로ᄃᆡ'임.
32) <飜老>에서는 '앗가·ᅀᅡ 예 오·뇨'와 같이 "예(여기)"로 풀이함.
33) <飜老>에서는 ':버·디'임.
34) <飜老>에서는 '·ᄠᅥ·디·여 올·ᄉᆡ'임.
35) <飜老>에서는 '·내 ·길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임. 즉 '·길조·차'가 "길흘 조차"로, '날회여'가 "날호여"로, '·녀'가 "녜"로, '기·들·워'가 "기ᄃᆞ려"로 바뀌었다.

[漢] 그 벗이[38] 이제 미처 올가 몯 올가?[39]

[高] 이 벗이[40] 곧 긔니 어재[41] ᄀᆞᆺ 오니라.[42]

[漢] 네 이 ᄃᆞᆯ 그ᄆᆞᆷᄭᅴ[43] 北京의 갈가 가디 못 ᄒᆞᆯ가[44]?

[高] 모로리로다.[45] 그 말을[46] 엇디 니ᄅᆞ리오 하ᄂᆞᆯ이[47] 어엿비 너기샤 몸이[48] 편안ᄒᆞ면 가리라.

(現代譯) 제1화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인] 형님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고려인] 나는 고려의 서울에서 왔습니다.

[중국인]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려인] 나는 북경을 향하여 갑니다.

[중국인] 당신은 언제 서울을 떠났습니까?

[고려인] 나는 이 달 초하룻날 서울을 떠났습니다.

---

24) <飜老>에서는 '기·들·워 ·오·노·라 ᄒᆞ·니'이고 주5를 참조할 것.
37) <飜老>에서는 '더·듸요·라'임.
38) <飜老>에서는 '그 :버·디'임.
39) 이 부분의 諺解는 중국어의 의문문 형식 중의 하나인 정반(正反)의문문을 그대로 直譯한 문장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에서 '몯 올가'는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고 단순한 의문을 나타낸다.
40) <飜老>에서는 '·이 :버·디'임.
41) <飜老>에서는 '어·재'임.
42) <飜老>에서는 '오·다'임.
43) <飜老>에서는 '·이 ·ᄃᆞᆳ ·그·믐·ᄭᅴ'임.
44) <飜老>에서는 ':몯ᄒᆞᆯ·가'임. 이미 'ㅅ'의 음절말 중화현상이 『노걸대언해』에서는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45) 이 부분에 해당하는 중국어 原文과 諺解는 '到不得/가디 몯ᄒᆞᆯ가, 知他/모로리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장을 '到, 不得知他'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도착하는 것은 알 수 없다'로 번역된다.
46) <飜老>에서는 '그 :마·롤'임.
47) <飜老>에서는 '하ᄂᆞᆯ·히'임.
48) <飜老>에서는 '·모·미'임.

[중국인] 이미 이 달 초하룻날 서울을 떠났다면, 지금 반달이 되었는데, 어찌 이제야 여기 까지 왔습니까?

[고려인] 내 벗 하나가 뒤쳐져 와서 내가 길을 천천히 걸으며 기다려서 오려니, 이런 까닭으로 오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중국인] 그 벗이 이제 따라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고려인] 이 친구가 곧 그 사람인데, 어제 막 왔습니다.

[중국인] 당신들은 이 달 그믐쯤 북경에 갈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고려인]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불쌍히 여겨서 몸이 괜찮으면 가겠지요.

(原文) 제2화 你學甚麼文書來?

[漢] 你是高麗人, 却怎麼漢兒言語[1)]說的好?

[高] 我漢兒人上學文書[2)] 因此上[3)] 些小[4)]漢兒言語省的.[5)]

[漢] 你誰根底[6)] 學文書來?

---

1) '漢兒言語'의 '한아(漢兒)'란 원대(元代)에 북경 주변에 살고 있던 북방(北方) 민족들을 말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아언어(漢兒言語)'라고 하였다. 장강(長江) 이남의 '오아(吳兒)'가 통어(通語)를 사용함에 비하여 이들의 한아언어는 몽고어가 혼입(混入)된 독특한 중국어이었다. 후일 북경관화(北京官話)의 모태가 된 언어로서 <原老>의 원문이 이 언어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해설 참조.
2) '學文書'의 '문서(文書)'는 "서류", 또는 "서책"을 말한다. 여기서는 '서책(書冊)'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3) <原老>에서는 "來的上頭"로 된 부분인데 몽문직역체의 이 문장을 "因此上(이런 이유로)"으로 고쳤다.
4) '些小'는 조금이란 뜻으로 현대 중국어의 '一點儿'과 같다. <飜老>처럼 '些少'라고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原老>에서처럼 '少'를 '小'로 쓰는 경우가 많다.
5) '省的'은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다. '的'은 '得'과 같다.
6) '根底'는 "~밑에서, ~가 있는 곳에서"라는 뜻을 갖는다. 이 말도 '한아언어(漢兒言語)'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다만 이러한 경우는 '~로, ~에'와 같은 격조사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跟底'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原老>에서는 '根底'로 통일되었다.

[高] 我在漢兒學堂[7)]裏 學文書來.

[漢] 你學甚麼文書來?

[高] 讀論語孟子小學.

[漢] 你每日做甚麼工課?[8)]

[高] 每日清早晨起來 到學裏 師傅上[9)]受了文書[10)] 放學 到家裏喫飯罷 却到學裏寫倣書[11)] 寫倣書罷對句 對句罷吟詩[12)] 吟詩罷師傅前講書.[13)]

[漢] 講甚麼文書?

[高] 講小學論語孟子.[14)]

---

7) '學堂'은 원대(元代)에 "아동들을 가르치는 민간 학교", 즉 "서당(書堂)"을 말한다. 『합동문자(合同文字)』「잡극(雜劇)」'이절(二折)'의 대사에 "開着個學堂, 教幾個蒙童過日-학당을 열고, 몇 명의 아이를 가르치며 날을 보낸다-"라는 예가 있다. 학교에 대하여는 <飜朴> 上에도 실렸다.
8) '工課'는 "수업하다"란 뜻이다. 현재는 '功課'라고 쓰는 것이 보통이다.
9) "師傅上"의 '上'은 "~에게서"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師傅行"으로 이때의 '~行'은 "~가 있는 곳에, ~에"라는 뜻이다. 졸저(2004) 제2화 주9 참조.
10) "文書"는 배우는 서책, 즉 교과서를 말한다. <原老>에는 "生文書"로 되었는데 이때의 '生'은 "생소하다"란 뜻으로 교과서 중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11) '寫倣書'는 "습자(習字)하다"를 의미한다. 원래의 뜻은 글씨본 위에 종이를 얹고 그에 따라 덧쓰는 영사(影寫)를 말하는데 전술한 『정씨가숙독서분년일정(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에 "사자(寫字)를 배우기에 앞서 필히 나홀 가운데 하루를, 지영(智永)의 천자해서(千字楷書)를 영사(影寫)하게 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12) '對句·吟詩'는 "시(詩)를 짓는 것"을 말한다. 전게한 『정씨가숙독서분년일정(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에서 "매일 작시(作詩), 작대(作對)를 하는 것은 금함"이라는 기사가 있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작시(作詩), 작대(作對)'의 수업이 매일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음시(吟詩)'는 단순히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작시(作詩)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주12 참조.
14) '論語, 孟子, 小學'은 모두 유가(儒家)의 교과서이다. 이 가운데 '小學'은 주자(朱子)의 편이라고 칭하는데, 실은 주자의 문인(文人) 유자징(劉子澄)이 스승의 지시에 의하여 편찬한 것이다. 아동들에게 예의범절이나 도덕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된 책이며 중국과 한국에서 초학용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원대(元代) 민간 학교의 실태에 대하여 소개한 자료로서 전술한 정단례(程端禮)의 『정씨가숙독서분년일정(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이 있으며, 그에 의하면 당시 서민의

(飜老) 제2화 네 뉘손디 글 비흔다?

[漢] 너·는 高麗ㅅ:사·ᄅᆞ·미어시·니[15] ·ᄯᅩ :엇·디 漢語[16] 닐·오·미 잘 ·ᄒᆞ·ᄂᆞ·뇨?

[高] ·내 漢兒人의:손·ᄃᆡ ·글 ᄇᆡ·호·니[17]·이·런 젼·ᄎᆞ·로[18]:져·그·나[19] 漢語 ·아·노·라.[20]

[漢] :네 :뉘·손·ᄃᆡ[21] ·글 ᄇᆡ·혼·다?

[高] ·내 :되 ·ᄒᆞᆨ당·의·셔[22] ·글 ᄇᆡ·호·라.

[漢] :네 므·슴 ·그·를 ᄇᆡ·혼·다?

[高] 論語 孟子 小學·을 닐·고라.

[漢] :네 므·슴 ·그·를 ᄇᆡ·혼·다?

[高] 論語 孟子 小學·을[23] 닐·고라.

[漢] :네 :ᄆᆡ·실 므·슴 :이·력[24] ·ᄒᆞ·는·다?

[高] :ᄆᆡ·실 이른 새배[25] 니·러 ·ᄒᆞᆨ당·의 ·가 스승·님·ᄭᅴ ·글 듣:ᄌᆞᆸ·고 ·ᄒᆞᆨ

자제들은 여덟 살에 입학한 후에, 『소학』, 『대학(大學)』, 『논어(論語)』, 『중용(中庸)』의 순으로 배우게 되어 있다.

15) '高麗ㅅ:사·ᄅᆞ·미어시·니'에서의 'ㅅ'은 무정체(無情體)에 붙는 속격으로 "고려 사람이시니, 고려 사람이신데"의 뜻이다.

16) 여기서 '漢語'는 '한아언어(漢兒言語)'를 말한다. 주1 참조.

17) 원문 "學文書"의 '문서(文書)'는 '서류, 책'을 말하나 여기서는 "글"로 의역(意譯)하였다. 주2 참조.

18) 원문은 '因此上'로서 "이런 때문에"의 뜻이다. 주3 참조.

19) 원문은 '些小'로서 "조금"이란 뜻이다. 주4 참조.

20) 원문은 '省的'로서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다. 주5 참조.

21) 원문은 '根底'로서 "~ 밑에서, ~가 있는 곳에서"라는 뜻을 갖는다. 주6 참조.

22) 원문은 '學堂'으로 원대(元代) 학당(學堂)은 "아동들을 가르치는 민간 학교", 즉 "서당(書堂)"을 말한다. 주7 참조.

23) 주14 참조.

24) '이력'은 "공부"를 말함.

25) '새배'는 현대어의 "새벽, 이른 아침"을 말함. "'새배/새박"이 방언의 차이로 존

당·의 ·노·하·든[26] 지·븨 ·와 ·밥 머·기 ᄆᆞᆺ·고[27] ·ᄯᅩ ·ᄒᆞᆨ당·의 ·가 셔·품 ·쓰·기[28] ᄒᆞ·고 셔·품 ·쓰·기·ᄆᆞᆺ·고 년·구ᄒᆞ·기[29]ᄒᆞ·고 년·구ᄒᆞ·기 ᄆᆞᆺ·고 ·글 이·피 ᄒᆞ·고[30] ·글 입·피 ᄆᆞᆺ·고 스승·님 ᅀᅡᇇ·ᄑᆡ[31] ·글 :강·ᄒᆞ·노·라.

[漢] 므·슴 ·그·를 :강·ᄒᆞ·ᄂᆞ·뇨?

[高] 小學 論語 孟子·를[32] :강·ᄒᆞ·노·라.

(老諺) 제2화 네 뉘손ᄃᆡ 글 ᄇᆡ혼다?

[漢] 너는 高麗ㅅ 사ᄅᆞᆷ이어니 ᄯᅩ 엇디 漢語 니ᄅᆞᆷ을 잘 ᄒᆞᄂᆞ뇨?

[高] 내 漢ㅅ 사ᄅᆞᆷ의손ᄃᆡ 글 ᄇᆡ호니 이런 젼ᄎᆞ로 져기 漢ㅅ 말을 아노라.

[漢] 네 뉘손ᄃᆡ 글 ᄇᆡ혼다?

[高] 내 漢ᄒᆞᆨ당의셔 글 ᄇᆡ호라.

[漢] 네 므슴 글을 ᄇᆡ혼다?

[高]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롸.

[漢] 네 每日 므슴 공부 ᄒᆞ는다?

[高]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ᄭᅴ 글 ᄇᆡ호고 學堂의셔 노하

재한 것으로 보인다.

26) 원문은 '放學'으로 글자 그대로 "ᄒᆞᆨ당의 노하든"으로 해석되었다. '방(放)'의 새김이 "놓다"이기 때문이다. <原老>는 '下學'이었는데 학교가 파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放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27) 'ᄆᆞᆺ고'는 'ᄆᆞᆾ-(終, 마치다)'를 '八終聲可足用'에 따라 받침을 'ㅊ > ㅅ'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마치고"의 뜻이다.

28) '셔품쓰기'는 "습자(習字)하다"를 말한다. 원문 '寫倣書'의 본 뜻은 글씨본 위에 종이를 얹고 그에 따라 덧쓰는 영사(影寫)를 말한다. 주11 참조.

29) '년구ᄒᆞ기'는 원문이 "對句"인 것으로 보아 한문의 작법에서 "聯句"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30) '글 이피ᄒᆞ기'는 원문이 '吟詩'이므로 "글 읊기"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시문을 외우는 것'으로 보인다.

31) 원문 '師傅前'을 직역한 것으로 "스승 앞에서"의 뜻이다.

32) 이 漢語 교재에 대하여는 주14 참조.

든 집의 와 밥먹기 뭋고 ᄯᅩ ᄒᆨ당의 가 셔품쓰기 ᄒᆞ고 셔품쓰기 뭋고 년구ᄒᆞ기 ᄒᆞ고 년구ᄒᆞ기 뭋고 글읇기 ᄒᆞ고 글읇기 뭋고 스승 앏피셔 글을 강ᄒᆞ노라.

[漢]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뇨?

[高] 小學 論語 孟子을 강ᄒᆞ노라.

(現代譯) 제2화 누구에게 공부하였소?

[중국인] 당신은 고려 사람이신데 어떻게 한어(漢語)를 잘하시는가?

[고려인] 저는 중국인한테서 글을 배워서 그 때문에 조금이나마 한어를 압니다.

[중국인] 당신은 누구한테 배웠소?

[고려인] 저는 한인(漢人) 학당(學堂)에서 배웠습니다.

[중국인] 무슨 책을 공부하였소?

[고려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소학(小學)』을 읽었습니다.

[중국인] 매일 어떤 공부를 하시었는가?

[고려인]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스승한테 가서 글을 듣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습자(習字)를 하고 습자가 끝나면 대구(對句)를 하고 대구가 끝나면 시(詩)를 읊고 시 읊기 끝나면 스승한테서 배운 책을 강독(講讀)합니다.

[중국인] 어떤 책을 강독하는가?

[고려인] 『소학(小學)』,[33]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읽습니다.

33) '小學'은 책이름이다. 주14를 참조.

(原 文) 제3화 做甚麽工課?

[漢] 說書罷[1]又做甚麽工課?

[高] 到晚 師傅前撤簽[2]背念書[3] 背過的 師傅與免帖[4] 一箇 若背不過時 教當的直學生 背起[5] 打三下.

[漢] 怎的是撤簽背念書 怎的是免帖?

[高] 每一箇竹簽上 寫着一箇學生的姓名 衆學生的姓名 都這般寫着 一箇簽筒[6]兒裏盛着 教當直的學生 將簽筒來搖動 內中撤一箇 撤着誰的 便着那人背書 背念過的 師傅與免帖 一箇 那免帖上 寫着免打三下[7] 師傅上頭

1) '說書罷'의 '說書'는 '강서(講書)'와 같음. 전술한 『정씨가숙독서분년일정(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에서 '說書'는 책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함. 후대에는 '강서(講書)'라고 함.

2) '撤簽'은 '추첨(抽籤)'과 같은 뜻이다. 가늘고 긴 죽편(竹片)을 뽑아서 추첨하는 것을 말함. 『주자어류(朱子語類)』(권106) 제39조에 "학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뽑아 '大學'의 강의를 시켰다"는 기술이 있다.

3) '背念書'는 "책을 암송하다"는 의미다. '배(背)'는 "등지다"는 뜻이 있으므로 "책을 보지 않고 암송하다"는 것이며 배송(背誦), 배강(背講)과 같은 뜻이다. 전술한 『정씨가숙독서분년일정(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에 "스승은 昨日의 書를 倍讀함을 시험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倍'는 '背'와 동음이고 '배독(倍讀)'도 암송을 가리킨다.

4) '免帖'은 "벌(罰)을 면하다"는 증명서. 옛 서당(書堂)에서도 이러한 습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5) '背起'는 <飜老>의 언해문에서 '엎드리게 하다'라고 되었으나 아마도 '돌려세우다'의 뜻일 것이다. '背'에는 "등을 돌리게 하다"는 뜻이 있고 조선시대의 서당(書堂)에서는 학생들의 체벌(體罰)을 반드시 돌려세워서 종아리를 쳤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 북경(北京)에서 열린 학회에서 『노걸대』의 대가(大家)인 중국 인민(人民)대학의 후밍양(胡明揚) 교수로부터 '背起'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국인 학자가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의 어휘를 한국인인 필자에게 묻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조선에서는 학생을 벌 줄 때에 반드시 돌려 세워서 종아리를 치는데 '背起'는 그 때에 '돌려 세우다'란 뜻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후 교수는 파안대소(破顔大笑) 하면서 "아! 이제야 알겠다. 중국에서는 벌을 줄 때에 손바닥을 때리니 뜻이 맞지 않아."라고 하였다.

6) '簽筒'은 제비뽑기를 위하여 만든 통. 학생의 이름을 쓴 대나무 조각을 넣는다.

畫着花押[8] 若再撤簽試不過 將出免帖來毁了 便將功折過[9]免了打 若無免帖 定然喫打三下[10]

飜老 제3화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漢] ·글 사·김ᄒᆞ·기[11] ᄆᆞᆺ·고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高] 나죄[12] 다ᄃᆞᆮ거·든 스승·님 앏·픠·셔[13] 사·술[14] ·ᄲᅢ·혀 ·글 외·오·기 ·ᄒᆞ·야 외·오니·란[15] 스승·님·이 免帖 ᄒᆞ나·ᄒᆞᆯ ·주·시·고 ·ᄒᆞ·다·가[16] 외·오·디 :몯·ᄒᆞ·야·든 ·딕·실션·ᄇᆡ[17] ·ᄒᆞ·야 어·피·고 :세 ·번 ·티·ᄂᆞ니·라.

[漢] :엇·디ᄒᆞᆯ ·시[18] 사·술 ·ᄲᅢ·혀 ·글 외·오기·며 :엇·디ᄒᆞᆯ ·시 免帖·인·고?

7) '免打三下'의 '下'는 형벌로서의 곤장을 때릴 때에 횟수를 세는 말이다. <原老>에서는 이 부분이 "免決三下"인데 '決'은 "판결(判決)"의 '결(決)'로 법률용어다. '決~下'는 『원전장(元典章)』 등에 보이는 한이문(漢吏文) 판결문의 상투어이었는데 <飜老>에서는 한이문 문투의 '決'이 없어졌고 "타(打, 때리다)"로 바뀌었다.

8) '花押'은 수결(手決), 즉 서명을 말한다. 명대(明代)에 수결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식을 붙여 '화압(花押)'이란 이름을 얻었다. <原老>에서는 '押字'로 되었다. 역시 같은 뜻인데 화압(花押)은 일본어에 차용되어 사용된 것이다.

9) '將功折過'은 "공을 세웠으므로 죄를 상쇄(相殺)한다"는 뜻이다. '장공절죄(將功折罪)'와 같다.

10) '定然喫三下'의 '喫'은 수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당하다"는 뜻이 있다. <飜老>의 언해문은 "일뎡 세 번 마조믈 니브리라"로 역시 피동으로 번역하였다.

11) 원문은 '說書罷'이며 이때의 '說書'는 '講書'와 같다. 주1 참조. '사김'은 '강(講)하다'의 뜻으로 현대어에서 "글을 새기다"와 같이 쓴다.

12) '나죄'는 "저녁"을 말함. '나죻 > 나조 > 나죄'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13) 원문은 '師傅前'이므로 "스승님 앞에서"의 뜻이다. '앒(前) + -의(처격) + 셔(후치사) > 앞 + -에서'의 변화를 겪었다.

14) '사술'은 "서표, 제비, 글이 써 있는 대쪽"을 말한다. 현대어에서 "제비 뽑다"의 '제비'에 해당한다.

15) '외오니란'은 '외오-(暗誦) + -ㄴ(관형사형) + 이(의존명사) + -란(주제격)'의 형태 구조로서 "외운 사람은"의 뜻이다.

16) 'ᄒᆞ다가'는 '만일'이란 뜻.

17) '딕실션ᄇᆡ'는 "직일(直日) = 당직(當直)" 선비로서 당직 학생을 말한다.

18) '시'는 'ᄉᆞ(형식명사) + -이(주격)'의 형태 결합으로 "것이"의 뜻이다.

[高] :ᄆᆡ ᄒᆞᆫ ·대ᄧᅩᆨ·애 ᄒᆞᆫ 션·ᄇᆡ 일·훔 ·쓰·고 모·든 션·ᄇᆡ 일·후·믈 :다 ·이·리 ·써 ᄒᆞᆫ 사·술 통·애 ·다·마 ·딕·실션·ᄇᆡ ·ᄒᆞ·야 사·술·통 가·져다·가 흔·드러 그 ·듕·에 ᄒᆞ나 ·ᄲᅢ·혀 ᄲᅢ·혀·니[19] ·뉜·고 ·ᄒᆞ·야 믄·득 그 :사·ᄅᆞᆷ ·ᄒᆞ·야 ·글 외·오요·ᄃᆡ 외·와·든 스승·이 免帖 ᄒᆞ나·ᄒᆞᆯ ·주ᄂᆞ·니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조·ᄆᆞᆯ :면·ᄒᆞ·라[20] ·ᄒᆞ·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21] ·두·ᄂᆞ니·라. ·ᄒᆞ다·가 다·시 사·술 ·ᄲᅢ·혀 외·오·디 :몯·ᄒᆞ·야·도 免帖 내·여 ·ᄒᆡ·야 ᄇᆞ·리·고[22] :아·ᄅᆡ[23] 외·와 免帖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몯 외·온 :죄·를 마·초·와 ·티·기·를 :면·ᄒᆞ·거니·와 ·ᄒᆞ·다·가 免帖·곳 :업·스·면 ·일·뎡 :세 ·번 마·조·믈 니·브리·라.

老諺 제3화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漢] 글 니ᄅᆞ기를 ᄆᆞᆺ고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高] 나죄 다ᄃᆞᆺ거든 스승 앏픠셔 사술 ᄲᅢ혀 글 외오기 ᄒᆞ야 외오니란 스승이 免帖 ᄒᆞ나ᄒᆞᆯ 주고 ᄒᆞ다가 외오디 못ᄒᆞ여든 딕일 션ᄇᆡᄒᆞ여 어피고 세ᄒᆞᆯ 티ᄂᆞ니라.

[漢] 엇디ᄒᆞᆯ ᄉᆞᆫ 사술 ᄲᅢ혀 글 외오기며 엇디ᄒᆞᆯ ᄉᆞᆫ 免帖인고?

[高] 每 ᄒᆞᆫ 대ᄧᅩᆨ에 ᄒᆞᆫ 션ᄇᆡ 일홈을 쓰고 모든 션ᄇᆡ 일홈을 다 이리 써 ᄒᆞᆫ 사술 통애 ᄃᆞᆷ아 딕일 션ᄇᆡᄒᆞ여 사술통 가져다가 흔드러 그 듕에 ᄒᆞ나ᄒᆞᆯ ᄲᅢ혀 ᄲᅢ히니 뉜고 ᄒᆞ야 믄득 그 사ᄅᆞᆷᄒᆞ여 글 외오ᄃᆡ 외온 이ᄂᆞᆫ 스승이 免帖 ᄒᆞ나ᄒᆞᆯ 주ᄂᆞ니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즈믈 면ᄒᆞ라 ᄒᆞ여 쓰고

19) 'ᄲᅢ혀니'는 '뽑은 사람'으로 피동의 의미는 없다. <老諺>에는 'ᄲᅢ히니'이어서 'ᄲᅢ혀- + -이-(피동)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 = 뽑힌 사람'과 같이 피동형으로 언해되었다.

20) 중국어 原文의 내용은 명령의 뜻이 없는데 언해에서는 '면하라'라고 언해했다.

21) 원문은 "畫着花押"이어서 "화압(花押-수결, 사인, 주8 참조)을 그려둔다"인데 "우희 쳐 두ᄂᆞ니라-우에 [인을] 쳐 두나니라"로 언해하였다. 아마도 '인(印)'이 빠진 것 같다.

22) 'ᄒᆡ야 ᄇᆞ리고'는 "없애 버리고"의 의미임.

23) '아ᄅᆡ'는 "전에, 예전에"의 뜻. 근대국어 전기까지 사용됨.

스승이 우희 도셔 두ᄂᆞ니라 ᄒᆞ다가 다시 사술 ᄲᅢ혀 외오디 몯ᄒᆞ여도 免帖 내여 해여 ᄇᆞ리고 곳 功을다가 過에 마초아 마즘을 면ᄒᆞ거니와 ᄒᆞ다가 免帖곳 업스면 일뎡 세 번 마즘을 닙ᄂᆞ니라.

(現代譯) 제3화 또 무슨 공부를 하는가?

[중국인] 글을 새기고 나면 또 무슨 공부를 하시는가?

[고려인] 저녁이 되면 스승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글을 외웁니다. 외운 사람은 스승이 면첩(免帖)을 하나 주시고 외우지 못하면 당직(當直) 학생을 시켜서 돌려 세워 세 번을 때립니다.

[중국인] 어떻게 하는 것이 제비를 뽑아 글을 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면첩(免帖)인가?

[고려인] 대나무 막대기 한 쪽에 한 사람씩 학생 이름을 적습니다. 모든 학생 이름을 다 이와 같이 써서 한 추첨 통에 담습니다. 그 날 당직 학생을 시켜 제비뽑기 통을 가져다가 흔들고, 그 속에서 하나를 뽑아 뽑힌 사람이 누구인가 하여 갑자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외우도록 하되 외우면 스승님이 면첩 하나를 주는데 그 면첩 위에는 '세 번 맞기를 면함'이라고 쓰고 스승이 위에 서명합니다. 만일 다시 제비에 뽑혀 외우지 못하여도 면첩을 내어 없애버리고 먼저 외워서 면첩을 타 두었던 공으로 이번에 못 외운 죄를 맞추어 때리기를 면하거니와 만일 면첩이 없으면 반드시 세 번 맞게 됩니다.

(原 文) 제4화 學他漢兒文書怎麽?

[漢] 你是高麗人 學他[1]漢兒文書怎麽?

1) '學他'의 '他'는 허지(虛指)이어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없다. 우리말의 '따위'에 해당하는 뉘앙스를 가졌을 뿐이다.

[高] 你說的也是 各自人都有主見.[2]

[漢] 你有甚麽主見? 你說我聽着.

[高] 如今朝廷一統天下[3] 世間用着的是漢兒言語 我這高麗言語 只是高麗地面[4]裏行的 過的義州[5]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有人問着一句話 也說不得時 別人將咱們[6] 做甚麽人看.

[漢] 你這般學漢兒文書時 是你自心裏學來? 你的爺娘[7]教你學來?

[高] 是我爺娘教我學來.

[漢] 你學了多少時節?

[高] 我學了半年有餘.

[漢] 省的那省不的?

[高] 每日和漢兒學生們 一處學文書來 因此上 些少理會的.

(飜 老) 제4화 漢人의 글 ᄇᆡ화 므슴홀다?

[漢] 너·는 高麗ㅅ:사·ᄅᆞ·미어시·니 漢人의 ·글 ᄇᆡ·화 므·슴홀·다?

[高] 네 닐·옴·도[8] ·올·타커·니·와 ·각·각 :사·ᄅᆞ·미 :다 웃듬·오·로 ·보·미[9]

2) '主見'은 "(자신의) 생각"이란 뜻이다. <飜老>의 언해문에서는 "웃듬 보기"로 직역하였다.

3) '一統天下'는 원(元) 세조(世祖)가 1279년에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것을 말한다. 梁伍鎭(1999) 참조.

4) '高麗地面'는 '고려의 땅'이란 뜻이다. <原老>에서는 "高麗田地"이었는데 '~田地'는 지명에 붙여 써서 '땅'이란 의미를 갖는다. 현대 중국어는 '~地方', '~地面'이 있으나, 원대(元代)에는 '~田地', '~地面'이 같이 사용되었다.

5) '義州'는 고려와 원(元)과의 국경인 압록강(鴨綠江) 연안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었는데 철도가 신의주(新義州)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작은 마을로 남아있다.

6) '咱'은 일인칭 대명사로서 '俺'과 같이 '나, 우리'를 지칭한다. '們'은 현대 중국어에서와 같이 복수를 표시하는데 <原老>에서는 '咱每'이어서 '每'가 복수를 나타내었다. '咱們'은 '우리들'을 말한다.

7) '爺娘'의 '爺'는 "아버지", '娘'은 "어머니"를 가리키므로 '爺娘'은 "부모"를 말한다.

8) '닐·옴·도'는 '니르-(云) + -옴(명사형) + 도(후치사)'의 형태 구조다. '말하는 것도'의 뜻임.

잇ᄂᆞ·니·라.

[漢] :네 므·슴 읏듬:보·미 잇ᄂᆞ·뇨? :네 니ᄅᆞ·라 내 드로마.

[高] ·이·제 됴뎡·이[10] 텬·하·를 一統·ᄒᆞ·야 :겨·시·니 :셰·간·애 ·ᄡᅳ·노·니[11] 漢人·의 :마리·니 ·우·리 ·이 高麗ㅅ:말·소·ᄆᆞᆫ[12] :다·ᄆᆞᆫ 高麗ㅅ·ᄯᅡ·해·만 ·ᄡᅳ·ᄂᆞᆫ 거·시·오 義州 :디·나 中朝[13] ·ᄯᅡ·해 오·면 :다 漢語·ᄒᆞ·ᄂᆞ·니 :아:뫼·나 ᄒᆞᆫ :마를 무·러·든 ·ᄯᅩ ·ᄃᆡ:답·디 몯ᄒᆞ·면 다ᄅᆞᆫ :사·ᄅᆞ·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ᄅᆞ·ᄆᆞᆯ 사·마 보·리·오.[14]

[漢] :네 ·이·리 漢人·손ᄃᆡ ·글 ᄇᆡ·호거·니[15] ·이[16] 네 ᄆᆞᅀᆞ·모·로 ᄇᆡ·호ᄂᆞᆫ 디 네 어버ᅀᅵ 너·를 ·ᄒᆞ·야 ᄇᆡ·호·라 ·ᄒᆞ·시ᄂᆞ·녀?

[高] ·올·ᄒᆞ·니. ·우·리 어버·ᅀᅵ :나·를 ·ᄒᆞ·야 ᄇᆡ호·라 ·ᄒᆞ·시ᄂᆞ·다.

[漢] :네 ᄇᆡ·환 ·디 :언·머 오·라·뇨?

[高] ·내 ᄇᆡ·환 ·디 :반 ·ᄒᆡ 남즉ᄒᆞ·다.

[漢] :알리·로소·녀? :아·디 :몯ᄒᆞ·리·로소·녀?

[高] :ᄆᆡ·실 漢兒션·ᄇᆡ·ᄃᆞᆯ·콰 ·ᄒᆞ·야 ᄒᆞᆫ·ᄃᆡ·셔 ·글 ᄇᆡ·호·니 ·이·런 젼·ᄎᆞ·로 :져·기 :아·노·라.

9) '읏듬오로 보미'는 원문 '主見'을 직역한 것이다. "으뜸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장기(長技)를 말한다. 주2 참조.
10) '됴뎡이'는 '조정(朝廷)이', 즉 원조(元朝)를 말한다.
11) '·ᄡᅳ·노·니'는 'ᄡᅳ-(用) + -ᄂᆞ-(현재형) + -오-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의 뜻이다.
12) ':말·소·ᄆᆞᆫ'은 '말솜 + 은(주제격)'의 형태구성이다. "말씀은"의 뜻임.
13) '中朝'는 "中國(중국)"을 말함.
14) '므·슴 :사·ᄅᆞ·ᄆᆞᆯ 사·마 보·리·오'는 "무슨 사람을 삼아 보겠는가?", 즉 "무슨 사람으로 보겠는가?"의 뜻임.
15) 원문 '學漢兒文書'는 "漢人·손ᄃᆡ ·글 ᄇᆡ·호거·니(중국인에게 글을 배웠거니)"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의 글을 배웠다'는 뜻이므로 오역이다. <老諺>에서는 "漢ㅅ 글을 ᄇᆡ홀쟉시면"으로 바로 잡혔다.
16) 原文의 '是'를 '이'로 諺解하였는데, 이것은 '-이다'로 現代譯해야 한다.

(老諺) 제4화 漢ㅅ 글 ᄇᆡ화 므슴ᄒᆞᆯ다?

[漢] 너ᄂᆞᆫ 高麗ㅅ 사ᄅᆞᆷ이어니 뎌 漢ㅅ 글 ᄇᆡ화 므슴ᄒᆞᆯ다?

[高] 네 니ᄅᆞᆷ도 올커니와 각각 사ᄅᆞᆷ이 다 主見이 잇ᄂᆞ니라.

[漢] 네 므슴 主見이 잇ᄂᆞ뇨? 네 니ᄅᆞ라 내 드ᄅᆞ마.

[高] 이제 朝廷이 天下ᄅᆞᆯ 一統ᄒᆞ여시니 셰간에 ᄡᅳᄂᆞᆫ 거슨 한말이니 우리 이 高麗ㅅ 말은 다만 高麗ㅅ ᄯᅡ히만 ᄡᅳ고 義州 디나 漢ㅅ ᄯᅡ히 오면 다 한말이라. 아믜나 ᄒᆞᆫ 말을 무러든 ᄯᅩ ᄃᆡ답디 못ᄒᆞ면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우리ᄅᆞᆯ다가 므슴 사ᄅᆞᆷ을 사마 보리오.

[漢] 네 이리 漢ㅅ 글을 ᄇᆡ홀 쟉시면 이 네 ᄆᆞ음으로 ᄇᆡ호ᄂᆞᆫ다? 네 어버이 널로 ᄒᆞ야 ᄇᆡ호라 ᄒᆞᄂᆞ냐?

[高] 올ᄒᆞ니 우리 어버이 날로 ᄒᆞ여 ᄇᆡ호라 ᄒᆞᄂᆞ니라.

[漢] 네 ᄇᆡ환디 언머 오라뇨?

[高] 내 ᄇᆡ환디 반 ᄒᆡ 남즉ᄒᆞ다.

[漢] 알리로소냐? 아디 못ᄒᆞ리로소냐?

[高] 每日에 漢ㅅ 션ᄇᆡ들과 ᄒᆞᆫᄃᆡ셔 글 ᄇᆡ호니 이런 젼ᄎᆞ로 져기 아노라.

(現代譯) 제4화 한어 글을 배워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인] 그대는 고려 사람이신데, 한인의 글을 배워 무엇 하려는가?

[고려인] 당신이 이르는 말도 옳지만 사람은 각기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중국인] 그대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대 이야기 해 보시게. 내 들어보겠네.

[고려인] 이제 조정이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세간에서 쓰는 것은 한인(漢人)의 말입니다. 우리 고려의 말은 단지 고려 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의주(義州)를 지나 중국 땅에 오면 모두 한어를 사용합니다. (중국

에서) 아무나 말을 한마디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소?

[중국인] 그대가 그렇게 한인(漢人)의 글을 공부하게 된 것이 당신 마음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그대에게 시켜서 배우게 한 것인가?

[고려인] 옳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시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인] 그대는 배운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고려인] 내가 배운 지 반년 남짓 합니다.

[중국인] 알 수 있던가? 알지 못하겠던가?

[고려인] 매일 한인 학생과 한 곳에서 함께 글을 배우니 이런 이유로 조금은 압니다.

(原文) 제5화 你的師傅是甚麽人?

[漢] 你的師傅是甚麽人?

[高] 是漢兒人有.[1]

[漢] 多少年紀?

[高] 三十五歲了.

[漢] 耐繁[2]教那不耐繁教?

[高] 我師傅性兒溫克[3] 好生[4]耐繁教.

---

1) '~有'가 문말(文末)에 사용되는 것은 '한아언어(漢兒言語)'의 특유한 표현으로 몽고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原老>에서는 문장 종결로 '有'의 사용이 매우 많으나 『老朴集覽』에서는 이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飜老>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해설 참조. 다만 <飜老>에 <原老>의 것을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 기운데 하나다.

2) '耐繁'은 "인내심이 많다"는 뜻이다. '耐煩'이라고도 쓴다. 원대(元代)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권8)에 "不耐煩의 三字는 宋書 庾登之의 弟 仲文傳에 보임"이라는 기사가 있어 당시에는 '耐煩' 또는 '耐繁'이란 말이 자주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 '溫克'은 원대(元代)에 유행하던 어휘로서 <原老>에도 쓰였던 말이다. 『서상기

[漢] 你那衆學生內中 多少漢兒人多少高麗人?

[高] 漢兒高麗中半.[5]

[漢] 裏頭也有頑的[6]麽?

[高] 可知[7]有頑的 每日學長[8] 將那頑學生 師傅上稟了 那般打了時 只是[9] 不怕 漢兒小廝們 十分頑 高麗小廝[10]們較好些.

(飜老) 제5화 네 스승이 엇던 사름고?

[漢] 네 스승·이 :엇던 :사·름·고?

[高] ·이 漢人이·라.[11]

[漢] ·나·히 :언·메·나 ᄒᆞ·뇨?

[高] 설·흔 다·ᄉᆞ·시·라.

[漢] ·즐·겨[12] ᄀᆞᄅᆞ·치·디 아·닛ᄂᆞ·녀?[13] ·즐·겨 ᄀᆞᄅᆞ·치·디 아·닛ᄂᆞ·녀?

(西廂記)』 2本 1折 「기생초(寄生草)」에 "性兒溫克情兒順-성은 온극, 정은 순함-"이라는 기사가 있어, 성격이 온화한 것을 말하는 구어(口語)임을 알 수 있다. 원래는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소완(小宛)'에 "飮酒溫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老朴集覽』(「老覽」상 1-1)에 "詩傳云 克勝也 猶溫恭自持以勝也-시전에 말하기를 克은 勝이니라, 溫恭自持로 이김"이라는 구절은 주자(朱子)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 있는 주석을 옮긴 것이다.

4) '好生'은 "상당히, 아주", 또한 "확실히, 착실히"라는 뜻이다.

5) 한인 학생과 고려 학생이 반반씩 있는 학교를 말함. 당시 한인(漢人)과 몽골인 학생을 반씩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해설을 참조할 것. 실제로 고려인과 한인(漢人)이 반반씩인 학교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6) '頑的'은 "장난꾸러기"임. '頑'은 '頑皮(장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7) '可知'는 "물론 ~하다"란 뜻으로 쓰임.

8) '學長'은 학생 가운데 연장자, 혹은 반 대표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

9) '只是'는 "아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原老>에서는 '則是'이었으며 이때의 '則'은 '只'와 같다. 원곡(元曲) 등에 쓰이는 이 시대의 용자법의 통례이다. <原老>에서도 '則'은 거의 '只'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0) '小厮'는 원대(元代) 한아언어(漢兒言語)에서 사용되던 말로 '소아(小兒), 아이'를 말한다.

11) 중국어 原文의 '是'는 여기에서 '-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12) 중국어 原文에서 '耐'를 '즐겨'로 언해(諺解)하였는데, '즐기다'는 뜻과는 다소 차

[高] ·우·리 스승·이 :셩·이 온화ᄒᆞ·야 ᄀᆞ·장 ·즐·겨 ᄀᆞᄅᆞ·치ᄂᆞ·다.

[漢] 네 모·든 션·비 듕·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ㅅ:사·ᄅᆞᆷ·고?

[高] 漢兒·와 高麗 :반·이·라.

[漢] 그 듕·에 골·외ᄂᆞ·니14) 잇ᄂᆞ·녀?

[高] 골·외ᄂᆞ·니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15) :ᄆᆡ·실 學長·이 골·외·ᄂᆞᆫ 學生·을 다·가 스승·님ᄭᅴ :ᄉᆞᆲ·고 그·리 ·텨·도 다·함16) 저·티17) 아닌·ᄂᆞ·니·라. 漢兒 아ᄒᆡ·둘·히 ᄀᆞ·장 골·외거·니·와18) 高麗ㅅ아·ᄒᆡ·둘ᄒᆞᆫ ·져·기 ·어·디니:라.

(老諺) 제5화 네 스승이 엇던 사ᄅᆞᆷ고?

[漢] 네 스승이 엇던 사ᄅᆞᆷ고?

[高] 이 漢ㅅ 사ᄅᆞᆷ19)이라.

[漢] 나히 언머나 ᄒᆞᆫ뇨?

[高] 셜흔 다ᄉᆞᆺ시라.

[漢] 즐겨 ᄀᆞᄅᆞ치ᄂᆞ냐? 즐겨 ᄀᆞᄅᆞ치디 아니 ᄒᆞᄂᆞ냐?

[高] 우리 스승이 셩이 온화ᄒᆞ여 ᄀᆞ장 즐겨 ᄀᆞᄅᆞ치ᄂᆞ니라.

[漢] 네 뎌 모든 션븨 듕에 언머는 漢ㅅ사ᄅᆞᆷ이며20) 언머는21) 高麗ㅅ 사ᄅᆞᆷ고?

[高] 漢과 高麗ㅣ 바로 반이라.

[漢] 그 듕에 ᄀᆞ래ᄂᆞ니 잇ᄂᆞ냐?

[高] 그리어니 ᄀᆞ래ᄂᆞ니 잇ᄂᆞ니라.22) 每日 學長이 뎌 ᄀᆞ래ᄂᆞᆫ 學生을다가 스승ᄭᅴ ᄉᆞᆲ고 그리 티되 그저23) 젓티 아니 ᄒᆞᄂᆞ니라 漢ㅅ24)아ᄒᆡ들은 ᄀᆞ장 ᄀᆞ래거니와 高麗ㅅ 아ᄒᆡ들은 져기 어디니라.

(現代譯) 제5화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나?

[중국인] 그대의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려인] 한인(漢人)이셨습니다.

[중국인] 나이가 얼마나 하는가?

[고려인] 서른다섯 살이었습니다.

[중국인] 즐겨 잘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던가?

[고려인] 제 스승은 성격이 온후하여 정말 잘 가르칩니다.

[중국인] 그대들 학생 중에서 얼마가 한인이고 얼마가 고려인인가?

[고려인] 한인과 고려인이 반반이었습니다.

[중국인] 그 중에는 말썽꾸러기도 있었는가?

[고려인] 물론 장난꾸러기도 있었습니다. 매일 반장이 말썽꾸러기를 스승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한인 아이들이 매우 심하게 말썽을 부리지만 고려인 아이들은 비교적 얌전합니다.

이가 있어, '참을성 있게'로 언해하는 것이 옳으나 언해문대로 '즐겨'로 번역한다.

13) 'ᄀᆞᄅᆞ·녀'는 "가르치는가?"의 뜻으로 'ᄀᆞᄅᆞ-(敎) + -ᄂᆞ녀(의문형)'의 형태구성을 보인다. 'ᄀᆞᄅᆞ- > 가르-'의 변화는 후기 중세국어 시대의 일로 보인다.

14) '골·외ᄂᆞ·니'는 '갈외-(頑) + -ᄂᆞ-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을 보이며 "싸움질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15) '골외ᄂᆞ니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는 직역하면 '말썽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하겠습니까?'이지만, '당연히 있고 말구요.'라는 속뜻을 갖는 반어적 표현이다.

16) '다함'은 '다하'로도 쓰이며 "그래도, 도리어, 또한"의 뜻이 있었다.

17) '저티'는 "저어하지, 두려워하지"의 뜻으로 '젛-(懼) + -디(부정)'의 형태구성이다.

18) '골·외거·니·와'는 "말썽을 부리거니와"의 뜻으로 '골외-(頑) + -거니와'의 형태구성이다.

19) <飜老>에서는 '漢人'임.

20) <飜老>에서는 '漢兒人이며'임.

21) <飜老>에서는 ':언·메·나'임.

22) <飜老>에서는 '골·외ᄂᆞ·니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임.

23) <飜老>에서는 '다·함'임.

24) <飜老>에서는 '漢兒'임.

(原 文) 제6화 做火伴去?

[高] 大哥[1] 你如今那裏去?

[漢] 我也往北京去.

[高] 你旣往北京去時[2] 我是高麗人 漢兒地面裏不慣行 你好歹拖帶我 做火伴[3]去?

[漢] 這們時 咱們一同去來.

[高] 哥哥 你貴姓?

[漢] 我姓王?

[高] 你家在那裏住?

[漢] 我在遼陽城[4]裏住.

[高] 你京[5]裏有甚麽勾當[6]去?

[漢] 我將這幾箇馬賣去.

[高] 那般時最好 我也待賣這幾箇[7]馬去 這馬上馳着的些少毛施[8]布 一就[9]

---

1) 제1화 주13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는 '大哥'가 존경의 호칭으로 쓰였다. <原老>에서는 "伴當, 恁如今那裏去?"와 같이 '伴當'으로 되어 "동행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2) 이 부분은 <原老>에서 "旣恁投大都去時"로 되었던 것을 北京 官話語의 문법에 맞추어 고친 것이다. <原老>의 "旣恁投"의 '投'는 "~로 향하여"라는 전치사로서 한아언어(漢兒言語)에서 잘 쓰는 표현이었다. 여기서는 관화(官話)에 맞추었을 뿐 아니라 '대도(大都)'를 '북경(北京)'으로 "旣恁投"를 "你旣往'으로 수정하였다.

3) '火伴'은 "일행, 동행, 동료"의 뜻이 있다. <原老>에서는 '伴當'을 썼는데 이 어휘는 "일행, 동료" 이외에 "종, 노복"의 뜻이 있다. <飜老>에서 <原老>의 '伴當'을 모두 '火伴'으로 교체하였다.

4) '遼陽'은 현재 중국의 만주(滿洲) 요녕성(遼寧省) 요양현(遼陽縣)을 말함. 요대(遼代)에 요양로(遼陽路)로 번성하여 일시 남경(南京), 후에 동경(東京)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은 원대(元代)에도 일시 동경로(東京路)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후일에 다시 요양로(遼陽路)가 되었다.

5) 이때의 '京'은 "북경(北京)"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대도(大都)'이었다.

6) '勾當'은 "사항, 사건, 일"이란 뜻이다.

7) '箇'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수량사(數量詞)다. 말은 보통 '필(匹)'로 세지만,

待賣去.

[漢] 你旣賣馬去時 咱們恰好做火伴去.

(飜 老) 제6화 벋 지ᅀᅥ 가고려.

[高] ·큰형님[10] :네 ·이·제 어·듸 ·가·ᄂᆞᆫ·다[11]?

[漢] 나·도 北京 :향·ᄒᆞ·야 ·가·노·라.

[高] :네 ᄒᆞ·마 北京 :향·ᄒᆞ·야 ·가·거·니 ·나·ᄂᆞᆫ 高麗ㅅ:사·ᄅᆞ·미·라 :한ᄯᅡ·해[12] 니·기 ᄃᆞᆫ·니· 디[13] :몯·ᄒᆞ·야 잇·노·니 :네 모·로·매 ·나·를 ᄃᆞ·려 :벋 지·ᅀᅥ 가·고·려.[14]

[漢] ·이·러·면 우·리 ᄒᆞᆷ·ᄭᅴ 가·져.

[高] 형·님 네 :셩·은?

[漢] 내 :셩·이 王:개로·라.[15]

여기서는 모두 '개(箇)'를 사용하였다. <原老>에서도 같았으므로 이것은 아마도 '한아언어(漢兒言語)'의 특징일 것이다.

8) '毛施'는 "저마(苧麻), 모시"를 말한다. 모시는 쐐기풀과의 다년초(多年草)이며 그 줄기의 껍질에서 실을 만든다. '毛施'는 우리말의 '모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그 이외에 '木絲', '沒絲' 등으로도 쓴다. 고려의 특산이기 때문에 중국인도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朴覽』 上 참조. 『어초기(魚樵記)』 「잡극(雜劇)」 2折의 대사(臺詞)에는 '高麗毯絲布'라고 보인다. 또한 일본어 '가라무시'의 '무시'도 조선어 기원으로 생각된다. 원대(元代) 왕정(王禎)의 『농서(農書)』 「農器圖譜集之二十・布機」 '毛絁布法'에 그 상세한 제조법을 게재하였다.

9) '一就'는 "~같이, ~하는 김에, 차라리"의 뜻이다.

10) 주1 참조.

11) 제1화 주14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어(漢語)에는 경어법이 없어서 행동주가 상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로 '너', 그리고 존경의 선어말 '-시-'가 없이 "네 이제 어듸 가ᄂᆞᆫ다?"와 같은 표현을 보인다. 한어 교재의 언해문에 보이는 특징이다.

12) ':한ᄯᅡ·해'는 '한(漢) + -ㅅ(무정체 속격) + ᄯᅡㅎ(地) + -애(처격)'의 형태구성을 보이는데 "중국의 땅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13) '니·기 ᄃᆞᆫ·니·디'는 '니기(익히, 익숙하게) + ᄃᆞᆫ니-(다니다) + -디(부정)'의 형태구성으로 "익숙하게 다니지"의 뜻이다.

14) '-고려'는 청유(請誘)를 나타내는 문장 종결어미. "벋 지ᅀᅥ 가고려"는 "벗 지어(동행해서) 갑시다"의 뜻.

[高] 네 지·비 어·듸·셔 :사·는·다?

[漢] ·내 遼陽·잣[16] 안·해·셔 :사노·라.

[高] :네 :셔·울[17] 므·슴 ·일 이·셔 ·가·는·다?

[漢] ·내 아·니 여·러 뭘[18] 가·져 ·풀·라 ·가·노·라.

[高] 그·러·면 ᄀ·장 :됴·토·다 나·도 ·이 여·러 뭘 ·풀·라 가·며 ·이 뭘 우·희 시·론[19] 아·니 ·한[20] 모시·뵈[21]·도 이·믜·셔 ·풀·오·져[22] ·ᄒ·야 ·가·노·라.

[漢] :네 ᄒ·마 뭘 ·풀·라 ·가거·니 ·우·리 :번 ·지·ᅀᅥ :가·미 ·마·치 :됴·토·다.

(老諺) 제6화 벗지어 가고려.

[高] 큰 형아 네 이제 어듸 가는다?

[漢] 나도 北京 향ᄒ야 가노라.

[高] 네 이믜 北京을 향ᄒ야 갈 쟉시면 나는 高麗ㅅ 사룸이라 漢ㅅ ᄯ히 니기 ᄃ니디 못ᄒ엿노니 네 모로미[23] 나를ᄃ려 벗지어[24] 가고려.

15) '王개로라'는 '왕(王) + 가(姓) + -로-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왕가이다"의 뜻.

16) '遼陽잣'은 "遼陽城"을 말한다. '遼陽城(요양성)'에 대하여는 주4를 참조할 것.

17) 여기에서 '서울'이란 원문의 '京'을 직역한 것으로 明(명)의 서울, 즉 北京(북경)을 가리킨다.

18) '아·니 여·러 뭘'은 "여럿이 아닌 말, 얼마 되지 않는 말"의 뜻이다. <老諺>에서는 "여러 뭘"로 언해되었다. 원문은 '幾箇馬'인데 "몇 마리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9) '시·론'은 '실-[載] + -오-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말에) 실은"의 뜻이다.

20) '아니 한'도 주18의 표현과 같이 "많지 않은"의 뜻이다. <飜老>의 언해문은 이러한 표현이 특징적이다. <老諺>에서는 "져근"으로 언해되었다.

21) '모시뵈'는 "모시베", 즉 "모시"를 말한다. 주8 참조.

22) '·풀·오·져'는 "팔고져"로서 'ㄹ 다음에 ㄱ 묵음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이 시대까지 이 현상은 있었고 <老諺>에서는 이미 "풀고져"로 'ㄱ묵음화 현상'은 없어졌다.

23) <飜老>에서는 '모·로·매'임.

[漢] 이러면 우리 홈ᄢ 가쟈.

[高] 형아 네 셩이여?[25]

[漢] 내 셩이 王개로라.

[高] 네 집이 어듸셔 사는다?

[漢] 내 遼陽 잣 안해셔 사노라.

[高] 네 셔울 므슴 일 이셔 가는다?

[漢] 내 이 여러 뭘 가져[26] 풀라 가노라.

[高] 그러면 ᄀ장 됴토다. 나도 이 여러 뭘 풀라 가며 이 뭘께 실은 져근 모시뵈도 이믜셔 풀고져 ᄒ야 가노라.

[漢] 네 이믜 뭘 풀라 가거든 우리 벗지어 가미 마치 됴토다.

(現代譯) 제6화 동행하여 갑시다.

[고려인] 형님이시여,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중국인] 나도 북경 향하여 간다네.

[고려인] 당신이 이미 북경 향하여 가신다면 나는 고려 사람이라 중국 땅에는 익숙하게 다니지 못하니 당신이 모름지기 나와 동행하여 가 주십시오.

[중국인]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갑시다.

[고려인] 형님, 당신의 성(姓)은?

[중국인] 내 성은 왕(王)가라오.

[고려인] 당신 집은 어디에 사시나요?

[중국인] 나는 요양(遼陽) 성에 살고 있다오.

[고려인] 당신은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십니까?

[중국인] 이 몇 마리의 말을 가져다가 팔러 갑니다.

24) <飜老>에서는 ':번 지·ᅀᅥ'임.

25) <飜老>에서는 '네 :셩·은'임.

26) <飜老>에서는 '아·니 여·러 뭘 가·져'임.

[고려인] 그러면 매우 좋습니다. 나도 이 몇 마리의 말을 팔러가며 또 말에 싣고 있는 많지 않은 모시도 이제 팔려고 해서 갑니다.

[중국인] 당신들 이제 말을 팔러 간다니 우리 동행하는 것이 참 좋소이다.

(原文) 제7화 京裏價錢

[高] 哥哥 曾[1]知得 京裏馬價如何?

[漢] 近有相識人[2]來說 馬的價錢 這幾日好 似這一等的馬 賣十五兩[3]以上 這一等的馬 賣十兩以上.

[高] 曾知得 布價高低[4]麽?

[漢] 布價[5]如往年的價錢一般

[高] 京裏喫食貴賤?

[漢] 我那相識人曾說 他來時 八分[6]銀子一斗[7]粳米 五分一斗小米 一錢銀

1) '曾'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다. '曾知得'이라면 "확실히 아시는가"에서의 '확실히'정도에 해당된다. <飜老>의 언해문에는 '일즉'으로 하였으나 '일찍이'라는 뜻은 없다. 여기서는 "잘 아시는가"의 '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相識人'은 '아는 사람', 즉 '친구'를 말한다.

3) '兩(냥)'은 무게의 단위이면서 화폐의 단위. 무게의 단위로서는 10돈이 1냥이고 16냥이 한 근(斤)이다. 화폐의 단위로서는 한(漢) 때의 오수전(五銖錢)의 단위로서 24수(銖)가 1냥이었다. 명대(明代)에는 은자(銀子)의 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원대(元代)에는 보초(寶鈔)라는 지폐를 사용하였고 화폐 단위도 '정(定), 정(錠)'을 사용하였다. '定'은 '錠'의 약자로서 원래는 은(銀)의 무게를 다는 단위였으나 원에서 사용되는 지폐의 단위가 되었다. 1정은 50량이었는데 중통초(中統鈔)라는 원(元)의 지폐 단위로 사용되었다. 1량은 중통초의 1관(貫), 1정은 50관을 말한다. 해설 참조. <飜老>에서의 값은 명대(明代)의 은(銀)에 의한 화폐 단위이므로 <原老>의 그것과 맞지 않는다.

4) '高低'는 '얼마' 혹은 '높이'를 말함. 형용사의 반대 개념인 말을 병렬시키면 의문사 혹은 추상명사가 된다. '貴賤'도 '얼마' 혹은 '높이'를 가리킨다.

5) '布價'의 '布'는 <原老>에서는 고려에서 가져간 모시와 베를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포가(布價)는 '천 값'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飜老>에서는 처음부터 '모시베' 뿐이었으므로 '뵛갑'으로 언해하였다.

6) '分'은 화폐의 단위. 은자 1돈의 10분의 일.

子十斤[8]麵 二分銀子一斤羊肉

[高] 似這般時 我年時[9]在京裏來 價錢都一般

(飜老) 제7화 셔울 물갑시 엇더혼고?

[高] 형·님 일·즉[10] :아·ᄂᆞ·니 :셔·울 ᄆᆞᆯ·갑·시 :엇·더ᄒᆞᆫ·고?

[漢] ·요·ᄉᆞ·ᅀᅵ·예 사·괴·ᄂᆞᆫ :사·ᄅᆞ미[11] ·와 닐·오·ᄃᆡ ᄆᆞᆯ·갑·시 요ᄉᆞ·ᅀᅵ :됴·호·모·로[12] ·이 ᄒᆞᆫ :둥·엣[13] ᄆᆞ·ᄅᆞᆫ ·열닷 량 우·후·로 ·풀·오[14] ·이 ᄒᆞᆫ :둥·엣 ᄆᆞ·ᄅᆞᆫ ·열 량 우·후·로 ·풀·리·라 ·ᄒᆞ더·라

[高] 일·즉 :아·ᄂᆞ·니 ·뵛·갑·슨 ·ᄡᆞ·던·가 ·디·던·가[15]?

[漢] ·뵛·갑·슨 ·니·건 ·ᄒᆡᆺ[16] ·갑·과 ᄒᆞᆫ 가·지·라 ·ᄒᆞ·더·라.

[高] :셔·울 머·글 거·슨 :노·던·가 흔·턴·가[17]

7) '一斗'는 '한 말'. 구광명(丘光明) 편(編)의 『중국역대도량형고(中國歷代度量衡考)』(科學出版社, 北京, 1992)에 의하면, 원대(元代)의 '一斗'는 '8.3리터'라고 한다. 우리의 '한 말'과 다르나 <飜老>와 <老諺>에서 달리 마땅한 언해가 없어 '한 말'로 하였다.

8) '斤'은 전술한 『중국역대도량형고(中國歷代度量衡考)』에 의하면 원대(元代)의 '一斤'이 약 650그램이었다고 한다. 역시 지금의 한 근과는 차이가 있다.

9) '年時'는 '작년'을 가리킨다. 속된 말로 전년(前年)을 '年時, 上年, 年裏'이라 하고, 지나간 해를 통칭할 때에는 '往年, 舊年'이라고 한다(『老朴集覽』). 현재는 중국의 일부 방언에 이 용법이 남아 있다.

10) 원문은 '曾'인데 '曾知得'에서는 '일찍'의 뜻이 없고 "잘 아시다"에서의 '잘'의 뜻이다. 여기서 '일즉'은 직역이거나 오역으로 보인다. 주1 참조.

11) '사·괴·ᄂᆞᆫ :사·ᄅᆞ미'는 원문 '相識人'의 번역이다. 주2 참조.

12) ':됴·호·모·로'는 '둏-(好) + -옴(명사형) + -오로(-ᄋᆞ로)'의 형태구성으로 "좋으므로"의 뜻이다.

13) 'ᄒᆞᆫ :둥·엣'은 'ᄒᆞᆫ(一) + 둥(等) + -에 + -ㅅ'의 형태구성으로 "1등의" 뜻이다.

14) '풀오'는 "팔고"의 'ㄱ 묵음화(默音化)' 현상임.

15) 原文은 '비쌉니까, 쌉니까?'인데, 이것은 '비싼지 싼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값이 얼마인가"를 묻는 말이다.

16) '니건 ᄒᆡ'는 "지난 해"이다. 원문은 '往年'임.

17) 諺解는 '노던가 흔턴가'라고 하여 "귀하던가, 흔하던가"로 直譯이 되지만 문맥상 "비싸던가, 싸던가"라는 뜻이 된다.

[漢] 내 ·더 사·괴·ᄂᆞᆫ :사·ᄅᆞ·미 일·즉 닐·오·ᄃᆡ :제[18] 올 저·긔 여·듧 :푼 은·에 ᄒᆞᆫ ·말 :경·미·오,[19] 닷 :분·에 ᄒᆞᆫ ·말 조·ᄡᆞ리·오, ᄒᆞᆫ :돈 은·에 ·열 근 ᄀᆞᆯ·이·오,[20] :두 :푼 은·에 ᄒᆞᆫ 근 양·육·이라 ·ᄒᆞ·더·라

[高] ·이·러·ᄐᆞᆺ ᄒᆞ·면 ·내 ·니·건 ·ᄒᆡ :셔울 잇·다·니 ·갑·시 :다 ᄒᆞᆫ 가지로·다

老諺 제7화 셔울 ᄆᆞᆯ 갑시 엇더ᄒᆞᆫ고?

[高] 형은[21] 일즉 아ᄂᆞ니 셔울 ᄆᆞᆯ 갑시 엇더ᄒᆞᆫ고?

[漢] 요ᄉᆞ이 서ᄅᆞ 아ᄂᆞᆫ 사ᄅᆞᆷ이[22] 와 니ᄅᆞ되 ᄆᆞᆯ 갑시 요ᄉᆞ이 됴ᄒᆞ니 이 ᄒᆞᆫ 등엣 ᄆᆞᆯ은 열닷 냥 우흐로 ᄑᆞᆯ고[23] 이 ᄒᆞᆫ 등엣 ᄆᆞᆯ은 열 량 우흐로 ᄑᆞᆯ리라 ᄒᆞ더라.

[高] 일즉 아ᄂᆞ니 뵛 갑시 ᄡᆞ던가 디던가?

[漢] 뵛 갑슨 往年[24] 갑과 ᄒᆞᆫ 가지라 ᄒᆞ더라.

[高] 셔울 머글 거시 노든가 흔튼가?

[漢] 내 더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일즉 니ᄅᆞ되 제 올 저긔 팔 푼 은애 ᄒᆞᆫ 말 경미오 오 푼애[25] ᄒᆞᆫ 말 조ᄡᆞᆯ이오 ᄒᆞᆫ 돈 은애 열 근 ᄀᆞᆯ리오[26] 두 푼 은애 ᄒᆞᆫ 근 羊肉이라 ᄒᆞ더라.

[高] 이러ᄐᆞᆺ ᄒᆞ면 내 前年에[27] 셔울 잇더니 갑시 다 ᄒᆞᆫ가지로다.

---

18) ‘:제’는 “자기가, 제가”의 뜻을 갖는 재귀대명사.
19) ‘경미오’는 “갱미(粳米, 멥쌀)이고”의 뜻.
20) ‘ᄀᆞᆯ이오’는 “가루이고”의 뜻. ‘ᄀᆞᆯ’, 즉 ‘ᄀᆞᄅᆞ’는 ‘면(麵, 밀을 빻아서 만든 가루)’의 번역임.
21) <飜老>에는 ‘형님’임.
22) <飜老>에는 ‘사괴ᄂᆞᆫ 사ᄅᆞ미’로 됨. 주2, 11 참조.
23) <飜老>에는 ‘ᄑᆞᆯ오’임.
24) <飜老>에는 ‘니건 ᄒᆡ’임.
25) <飜老>에는 ‘닷 분에’로 되었음.
26) <飜老>에는 ‘ᄀᆞᆯ이오’임.
27) <飜老>에는 ‘니건 ᄒᆡ’임.

現代譯 제7화 서울의 말 값이 어떠한가?

[고려인] 형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말 값이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중국인] 요새 아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말 값이 요즘 좋으므로 이 1등 말은 15냥 이상으로 팔고 저쪽 1등 말은 열 냥 위로 팔릴 것이라고 하네.

[고려인] 잘 알겠지만 베 값은(布價) 얼마나 합니까?

[중국인] 베 값은 작년 값과 한가지라 하더군.

[고려인] 서울의 먹을 것은 귀하던가, 흔하던가?

[중국인] 내 그 아는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가 올 때에는 8푼 은자에 멥쌀 한 말(斗)이고 5푼에 좁쌀 한 말이고 1돈 은자에 밀가루 열 근이고 2푼 은에 양고기 한 근이라고 하네.

[고려인] 그렇다면 내가 작년에 서울에 있을 때와 값이 한가지로다.

原文 제8화 那裏宿去?

[高] 咱們今夜那裏宿去?

[漢] 咱們往前行的 十里來田地[1]裏 有箇店子 名喚瓦店[2] 咱們到時 或早或晚 只那裏宿去 若過去了時 那邊[3]有二十里地 沒人家.

[高] 旣那般時 前不着村 後不着店[4] 咱們只投那裏宿去.

---

1) ‘十里來田地’에서의 1리(里)는 대체로 550미터이고 ‘來’는 “대략”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田地’는 거리를 나타내는 원대(元代)의 독특한 용법으로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4화 주4를 참조.
2) ‘瓦店’은 이 책에 의하면 북경(北京)까지 300킬로미터 좀 못 되는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료(史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 ‘那邊’은 <原老>에서 원문 ‘那壁’이었는데 “저쪽, 그쪽”의 뜻으로 ‘那壁廂’이라고도 한다.

[漢] 到那裏 便早時也好 咱們歇息頭口[5] 明日早行.

[高] 這裏到京裏 有幾程地?

[漢] 這裏到京裏 還有五百里之上 天可憐見 身子安樂時 再着五箇日頭到了.

[高] 咱們到時 那裏安下[6]好?

[漢] 咱們往順城門[7]官店[8]裏下去來 那裏就便投馬市[9]裏去却近些.

[高] 你說的是 我也心裏這般想着 你說的恰和我意同 只除那裏好 但是遼東去的客人們 別處不下 都在那裏安下 我年時也在那裏下來 十分便當.[10]

---

4) '前不着村, 後不着店'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나아가도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뒤 돌아와도 숙소에 도착하지 못하다"는 속담이다. 여행길에서 전후에 인가가 없는 곳에 이르러 망연자실한 모습을 말하는 고사성어(古事成語)이며, 소설, 희곡 등의 상투적 표현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벽암록(碧巖錄)』에 "前不搆村, 後不迭店"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搆', '迭'은 모두 '도달하다'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前不著村, 後不著店'이며 <原老>의 '著'은 <飜老>에서 모두 '着'으로 교체되었다.

5) '頭口'는 본래 가축(家畜)을 셀 때에 쓰이는 단위 명사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을 헤아릴 때에 이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朴覽』 上에 "말, 소, 돼지, 양을 셀 경우 돼지와 소는 두(頭)로, 양은 구(口)로, 노루(獐)도 구(口)로 센다. 그래서 가축 전체를 칭할 경우에는 두구(頭口)라고 한다. 우마(牛馬)는 또 두필(頭疋)이라고도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언해에서는 '마쇼(말과 소)'로 하였다.

6) '安下'는 숙소에 묵는 것. '下'만으로도 "머물다"는 의미가 된다.

7) '順城門'은 원래 '順承門'이었으며 북경의 서남 쪽 문을 말하는데 명·청대(明·清代)의 북경시 선무문(宣武門)에 해당된다. 명대(明代)의 속칭으로는 '순성문(順城門)'이었으며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권3) 등의 명대 소설에 그 이름이 보인다.

8) '官店'은 <原老>에서 '關店'이었다. 아마도 "정부가 경영하는 숙소"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인감(印鑑)의 관방(官防)'을 '關防'이라고도 쓴다. 혹은 '關廂'(성밖의 거리)에 있는 숙소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老諺>에서는 '官店'으로 교체한 것 같다. 제54화 주9를 참조.

9) '馬市'는 '말 시장'. 원대(元代) 대도(大都)의 지리서(地理書)인 원(元) 웅몽상(熊夢祥)의 『절진지(析津志)』(『析津志輯佚』 北京古籍出版社, 1983에 의함) 「성지가시(城池街市)」에 '마시(馬市)'는 '양각시(羊角市)' 일대에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즉 '安富坊은 順承門의 羊角市에 있음'이라는 기사가 있어 '순승문(順承門)', 즉 순성문(順城門)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10) '便當'은 "편리하다"는 의미이다.

(飜老) 제8화 어듸 가 자고 가료?

[高] ·우·리 오·ᄂᆞᆳ바·ᄆᆡ[11] 어·듸 ·가 자·고 가·료?

[漢] ·우·리 앒·프·로 나·ᅀᅡ·가 ·십·리·만 ᄯᅡ·해 ᄒᆞᆫ ·뎜·이 이·쇼·ᄃᆡ 일·호·믈[12] 瓦店·이·라 ·ᄒᆞ·야 브르ᄂᆞ·니 ·우·리 가·면 ·혹 이르거·나 ·혹 늣거·낫 듕·에[13] 그저 뎨[14] ·가 자·고 가·져. ·ᄒᆞ다·가 :디·나가·면 뎌 녀·긔[15] :ᅀᅵ·십 :릿 ᄯᅡ·해 人家ㅣ :업·스니·라.

[高] ᄒᆞ·마 그·러ᄒᆞ·면 앒·프·로 촌·애 다ᄃᆞᆮ·디 ·몯ᄒᆞ·고 :뒤·후로·ᄂᆞᆫ :뎜·에 다ᄃᆞᆮ·디 :몯ᄒᆞ ·리·니 ·우·리 그저 뎨 ·드·러 자·고 가·져.

[漢] 뎨 ·가[16] ·곧 일·어·도 ·ᄯᅩ :됴·ᄒᆞ·니 ·우·리 ᄆᆞ·쇼[17] 쉬·워[18] ᄂᆡ·실 ·일 녀·져.

[高] 예·셔 :셔·울 :가·매 ·몃 즘·겟[19] ·길·히 잇ᄂᆞᆫ·고?

[漢] 예·셔 :셔·울 :가·매 당시·론[20] 五百里 우·호·로 잇ᄂᆞ·니 하·ᄂᆞᆯ·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ᄒᆞ·면 ·엳닷·쇄·만[21] 두·면 가·리·라.

---

11) '오·ᄂᆞᆳ바·ᄆᆡ'는 '오ᄂᆞᆯ(今日) + -ㅅ(사이 ㅅ) + 밤(夜) + -ᄋᆡ(처격)'의 형태구성으로 "오늘 밤에"의 뜻임.

12) '일·호·믈'은 '이름을'임.

13) '혹 이르거나 혹 늣거낫 듕에'는 "이르거나 늦거나 간에 그 가운데"의 뜻으로 '혹'이 어미 '-거나'와 함께 쓰여 그 의미가 반복된 것이다. "이르게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거나 그 중에"의 뜻임.

14) '뎨'는 현대어의 '저기'에 해당하나 당시는 '뎨'가 중칭(中稱)의 '거기'이었을 것이다.

15) '뎌 녀·긔'는 '뎌 + 녁 +-의(처격)'의 형태구성으로 "저 쪽에"의 뜻이나 현대어에서는 "그 쪽에"가 된다.

16) '뎨 ·가'는 "거기에 가서"의 뜻임.

17) 원문은 '頭口'이며 주로 가축을 셀 때에 붙이는 단위 명사다. 실제로 그들은 '소'가 없지만 언해문이 '마쇼(말과 소)'로 되었음. 주5 참조.

18) 'ᄆᆞ·쇼 쉬·워'는 'ᄆᆞ·쇼(牛馬) + 쉬-(息) + -우-(사동) + -어' "말과 소를 쉬게 하여"의 뜻임.

19) '즘·겟'은 "30리(里) 가량의 거리"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간의 거리"를 말함.

20) '당시·론'은 '아직은, 그래도'의 뜻임.

21) '·엳닷·쇄·만'은 '엳(6) + 닷(5) + 쇄(日) + 만'의 형태구성으로 "5, 6일 만에"의 뜻임.

[高] ·우·리 가·면 어·듸 ·브·리·여·ᅀᅡ[22] :됴·ᄒᆞᆯ·고?

[漢] ·우·리 順城門·읫 :뎜·에 ·가 브·리·엿·져. 데:셔 ·곧 ᄆᆞᆯ져·제 :감·도[23] ·ᄯᅩ 갓가·오니·라.

[高] 네 닐·오·미 ·올·타! 나·도 ᄆᆞᅀᆞ·매 ·이·리 너·기노·라. 네 닐·오·미 내 ·ᄠᅳᆮ·과 ·ᄀᆞᆮ·다. :다·ᄆᆞᆫ 게·만 :됴·ᄒᆞ·니 믈읫 遼東[24]·ᄋᆞ·로·셔 간 나·그·내·ᄃᆞᆯ·히 년 ·ᄃᆡ[25] 브·리·디 ·아·녀 :다 데 ·가 브·리ᄂᆞ·니 나·도 젼년·희 데 브·리·엿다·니 ᄀᆞ·장 편안·ᄒᆞ·더·라.

(老諺) 제8화 어듸 자고 가료?

[高] 우리 오늘밤의 어듸 자고[26] 가료?

[漢] 우리 앏흐로 향ᄒᆞ여 녜여[27] 十里는 ᄒᆞᆫ ᄯᅡ희 ᄒᆞᆫ 店이 이쇼ᄃᆡ 일홈을 瓦店이라 브르ᄂᆞ니 우리 가면 혹 일으나 혹 느즈나[28] 그저 뎌긔 자고 가쟈[29] ᄒᆞ다가 디나가면 뎌 편[30] 二十里 ᄯᅡ희 人家ㅣ 업스니라.

---

22) '·브·리·여·ᅀᅡ'는 '브리-(下) + -어(연결어미) + ᅀᅡ(강세 첨사)'의 형태구성으로 "하처해야, 여관에 들어야"의 뜻임.

23) 'ᄆᆞᆯ져·제 :감·도'은 'ᄆᆞᆯ(馬) + 저·제(市場) + 가-(去) + -·암(명사형) + -·도'의 형태구성으로 "말 시장에 가는 것도"의 뜻임.

24) <原老>에서는 '直東'이었는데 '遼東'으로 바뀌었음. <原老>의 '直東'은 '直'이 방향을 표시하는 접두어이어서 위를 '直上', 아래를 '直下'라고 한다. 원간본(元刊本)『장천체살처(張千替殺妻)』「잡극(雜劇)」'일절(一折)'의 대사에 "哥哥往直西去, 早半年-형님은 '直西'에 가서 벌써 반년이 되었네-"가 있고 또한『대원마정기(大元馬政記)』의 지원(至元) 6년 조에 "直北의 蒙古 千戶, 百戶, 牌甲"이라는 기사가 있다. 당시 元의 대도(大都)를 중심으로 사방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直東'은 요동(遼東)이나 고려 방면을 말할 것이다. 금대(金代)의『동서상(董西廂)』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 <刪老>에서는 '요동(遼東)'으로 수정하였고 <飜老>도 이를 따랐다.

25) '년 ·ᄃᆡ'는 "다른 곳에"의 뜻. <老諺>에서는 "다ᄅᆞᆫ ᄃᆡ"임.

26) <飜老>에서는 '어·듸 ·가 자·고'임.

27) <飜老>에서는 '앏·프·로 나·ᅀᅡ·가'임. '녜여'는 "가서"임.

28) <飜老>에서는 '·혹 이르거·나 ·혹 늣거·낫 듕·에'임.

29) <飜老>에서는 '그저 데 ·가 자·고 가·져'임.

30) <飜老>에서는 '뎌 녀·긔'임.

[高] 이믜 그러면 앏흐로 村애 다ᄃᆞᆺ디 못ᄒᆞ고 뒤흐로 뎜에 다ᄃᆞᆺ디 못ᄒᆞ리니 우리 그저 뎌긔 드러 자고 가쟈.

[漢] 뎌긔 가 곳 일러도 됴흐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녜쟈.

[高] 예셔 셔울 가기[31] 몃 즘게 길히 잇ᄂᆞ뇨?

[漢] 예셔 셔울 가기 당시롱 五百里 우흐로 잇ᄂᆞ니 하늘이 어엿비 너기샤 몸이 편안ᄒᆞ면 ᄯᅩ 닷쇄만[32] ᄒᆞ면 가리라.

[高] 우리 가면 어듸 브리워야 됴ᄒᆞᆯ고?

[漢] 우리 順城門읫 官店을 향ᄒᆞ야 브리오라 가쟈.[33] 뎨셔 곳 ᄆᆞᆯ 져제 가미 ᄯᅩ 갓가오니라.

[高] 네 니ᄅᆞ미 올타. 나도 ᄆᆞ음애 이리 ᄉᆡᆼ각ᄒᆞ엿더니[34] 네 닐오미 맛치 내 ᄠᅳᆺ과 ᄀᆞᆺ다. 다만 게만 됴흐니 믈읫 遼東으로셔 가ᄂᆞᆫ 나그내들히 다ᄅᆞᆫ ᄃᆡ[35] 브리오디 아니ᄒᆞ고[36] 다 뎌긔 브리오ᄂᆞ니 나도 져년에 뎌긔 브리웟더니[37] ᄀᆞ장 편당ᄒᆞ더라.

(現代譯) 제8화 어디 가서 자고 갈까?

[고려인] 오늘밤에 어디 가서 자고 갈 것인가요?

[중국인] 우리 앞으로 가면 10리쯤 되는 곳에 한 여관이 있는데 이름을 와점(瓦店)이라고 부른다네. 우리가 혹시 이르게 가거나 혹시 늦게 가더라도 그저 거기서 자고 가세. 만일 거기를 지나가면 그 쪽에는 20리 땅에 인가가 없다네.

[고려인]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가도 마을에 이르지 못하고 뒤 돌아와도

---

31) <飜老>에서는 ':셔·울 :가·매'임.

32) <飜老>에서는 '·열닷·쇄·만'임.

33) <飜老>에서는 ':뎜·에 ·가 브·리·엿·져'임.

34) <飜老>에서는 '너·기노·라'임.

35) <飜老>에서는 '년 ·ᄃᆡ'임.

36) <飜老>에서는 '브·리·디 ·아·녀'임.

37) <飜老>에서는 '데 브·리·엿다·니'임.

숙소에 도착하지 못 한다'라는 것이니 우리 그저 거기 들어가서 자고 갑시다.

[중국인] 거기에 일찍 도착해도 또 좋으니 우리의 말과 소를 쉬게 하고 내일 일찍 가세.

[고려인] 여기서 서울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중국인] 여기서 서울 가기에는 아직도 500리 이상이 있는데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몸이 편안하면 5~6일 만에 갈 수 있네.

[고려인] 우리 가면 어디서 여관을 잡으면 좋을까요?

[중국인] 우리 순성문(順城門)의 여관(店)에 묵도록 하세. 거기에서 말 시장(馬市)에 가기에도 가깝다네.

[고려인] 당신 말이 옳아요. 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당신이 하는 말이 내 뜻과 같네요. 거기가 제일 좋은데요 무릇 요동(遼東)에서 간 나그네들이 다른 곳에 묵지 않고 다 거기 가서 묵으니 나도 지난해에 거기 묵었는데 제일 편안했습니다.

原文 제9화 草料多少錢?

[漢] 你這幾箇頭口1) 每夜喫的草料2) 通該多少錢

[高] 這六箇馬3) 每一箇五升4)料一束草 通筭過來 盤纏5)着二錢銀子

1) '頭口'에 대한 언해를 '마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결국 "말"을 지칭한다. 제8화 주5 참조.

2) '草料'는 말꼴(馬草)과 곡식을 말함. 말의 먹이에는 마초(馬草) 이외에 '검은콩'(黑大豆)나 '서속'(玉蜀黍) 등의 곡식도 주는데 이를 일괄하여 '料'라고 한다. 『老朴集覽』「單字解」 참조. 언해에서는 '먹·논 ·딥·과 콩'으로 되었음.

3) '六箇馬'는 <飜老>에서는 매일 저녁의 '초료(料草)'가 일정한 여섯 마리와 그렇지 않은 여섯 마리, 합 열두 마리의 말이 있는 것처럼 언해하였으나, 제14화에 의하면 고려인과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말은 전부 해서 열한 마리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는다. 여기서는 여섯 마리가 고려인의 것으로 보고 이 말들의 먹이 값에 차이가 있음을 중국인이 충고해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漢] 這六箇馬 每夜喫的草料不等 草料貴處 盤纏三四錢銀子 草料賤處 盤纏二錢銀子 這箇馬也 行的好

[高] 可知有幾步慢竄6) 除了這箇馬 別箇的都不好

[漢] 你這馬和布子 到北京賣了時 却買些甚麽貨物 迴還高麗地面裏賣去

[高] 我往山東7)濟寧府8)東昌9)高唐10) 收買些絹子綾子11)綿子 迴還王京賣

4) '升'은 곡식류의 양을 되는 기구로서 원대(元代)의 1升을 전술한 『중국역대도량형고(中國歷代度量衡考)』에서 찾아보면 현재의 836dℓ이다.

5) '盤纏'은 원래는 "여비, 생활비"를 가리켰는데, "비용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사용된다. 여기서도 동사의 예로 쓰였다. 『朴覽』 上 참조.

6) '慢竄'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慢'은 '느리다'이고 '竄'은 '빠르다'인데 반대 개념의 조어법에 의하여 형성된 어휘다. 그 의미는 그 한 쪽만을 취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竄' 쪽에 주의미가 있다고 보아 '빠른 것'으로 일단 해석하였다. 언해에서는 'ᄌᆞ늑ᄌᆞ늑·호·ᄃᆡ :재·니·라(걸음은 느리지만 빠르다)'라고 어색한 언해를 하였다.

7) '山東'은 중국 동부의 황해 연안 지역. 명주의 명산지로 알려짐. <原老>에서는 제9화, 60화, 67화에 '直南'이 보이며 모두 <飜老>에서는 '山東'으로 바뀌었음.

8) '濟寧府'는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서남부에 있는 제녕시(濟寧市)와 그 일대를 말한다. 원 지원(至元) 8년(1271)에 제녕부(濟寧府)를 설치하고 동 16년에 제녕로(濟寧路)로 승격시켰다. 그 치소(治所)는 거야(鉅野, 현재의 巨野縣)와 그 동쪽의 임성(任城, 현재의 濟寧市) 사이에서 종종 이동이 있었으나, 원말(元末)의 제녕로(濟寧路)의 총관부(總管府)는 거야(鉅野)에 있었다(『元史』 권58 '地理志'). 그러나 임성(任城, 당시의 호칭으로는 濟州)은 남북을 관통하는 대운하(大運河)의 일부인 제주하(濟州河)에 인접한 상업도시였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도 'Sinjumatu(濟州馬頭, 濟州의 埠頭를 의미함)'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려고 하는 곳도 이쪽일 가능성이 있다. 이 일대가 비단의 명산지였던 것은 『동방견문록』의 '동평(東平, 濟寧의 바로 북쪽)조'에 보인다.

9) '東昌'은 현재의 산동성(山東省) 요성현(聊城縣)을 말한다. 제녕(濟寧)의 북쪽에 있으며 역시 제주하(濟州河)에 인접해 있다. 원 지원(至元) 13년에 박주로(博州路)가 동창로(東昌路)로 개명되었다(『元史』 '地理志').

10) '高唐'은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고당현(高唐縣)을 말함. 동창(東昌)에서 더 북쪽에 위치한다. 원 지원(至元) 7년에 고당현(高唐縣)에서 고당주(高唐州)로 승격되었다(『元史』 '地理志'). 『老朴集覽』에는 "在東昌府域東北一百二十里 本春秋時齊之高唐邑 元改爲州 今仍之"(<老集上1a-8>)이라 하여 동창부(東昌府)에 속하며 동북쪽으로 120리 지역에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 책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이들 땅에 가지 않고 북경(北京)에서 직접 귀국하였다.

11) '絹子, 綾子'는 비단의 일종으로 여기서는 '絹子(=깁)'과 '綾子(=고로)'로 구분하였다. <新老>와 <重老>에서는 이 외에 주자(紬子)까지 구별하였다. 즉 <重老>

去

[漢] 到你那地面裏 也有些利錢麽

[高] 那的也中 我年時 跟着[12]漢兒火伴 到高唐 收買些緜絹 將到王京賣了 也尋了些利錢

(飜老) 제9화 딥과 콩이 대되 언머만 젼이 드는고?

[漢] 네 ·이 여·러 ᄆᆞ·쇼·둘·히 ·밤:마·다 먹·논 ·딥·과 콩·이[13] :대·되[14] :언·머·만 :젼·이[15] ·드·ᄂᆞᆫ·고?

[高] ·이 여·슷 ᄆᆞ·리 :ᄆᆡ[16] ᄒᆞᆫ나·히 콩 닷 ·되, 딥 ᄒᆞᆫ ·뭇·곰 ·ᄒᆞ·야 통히 혜·요니 은 :두 ·돈·을 ·ᄡᅳ·고,

[漢] ·이 여·슷 ᄆᆞ·리 ·밤:마·다 먹·논 ·딥·과 콩·이 ᄒᆞᆫ·ᄆᆡ[17] 아·니·니 콩·딥 :논 ·ᄃᆡᆫ[18] :서·너 :돈 은·을 ·ᄡᅳ·고 콩·딥 흔ᄒᆞᆫ ·ᄃᆡᆫ :두 ·돈 은·을 ·ᄡᅳ·ᄂᆞ니·라. ·이 ᄆᆞᆯ·도 거·르·미 :됴·코·나.

[高] 그·리어·니 여·러 ·거·름곰 즈늑즈늑·호·ᄃᆡ :재·니·라[19] ·이 ᄆᆞᆯ :외·예

의 "收買些絹疋綾子凉花紬子"(4뒤, 7~8행)가 그것인데 이에 대하여 <重老諺>의 언해문은 "져기 깁과 綾과 소옴과 비단을 거두어 사"(<重老諺>上 11앞)로 언해하여 '견자(絹子)'는 '깁'으로 '능자(綾子)'는 '능(綾)'으로, '주자(紬子)'는 '비단'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飜老>와 <老諺>에서는 '견자(絹子=깁)', '능자(綾子=고로)'의 둘로 구분하였다. '능자(綾子)'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풀이한다. '綾子'는 윤자(綸子)를 말하며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原老>에서는 '根著'이며 이때의 '根'은 "따르는 것, 따라가는 것'이란 의미. <飜老>에서는 현대어처럼 '跟'으로 고쳤다.

13) '짚과 콩'은 말이 먹는 사료, 즉 '草料'를 말한다. 주2 참조.

14) '대되'는 "모두"의 뜻임.

15) ':젼·이'는 "돈이"의 뜻. ':젼(錢)'이 당시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16) ':ᄆᆡ'는 '매(每)'임.

17) 'ᄒᆞᆫ·ᄆᆡ'는 '不等'의 번역으로 "한 가지"란 뜻.

18) ':논 ·ᄃᆡᆫ'는 '노-(貴) + -ㄴ(관형사형) + ᄃᆡ(處) + -ㄴ(주제격)'의 형태구성으로 "귀한 곳은"의 뜻임. "갑 노다(價貴)(『同文類解』 下 26).

19) 이 말은 "慢竄"의 번역으로 아마도 "동작은 굼뜨지만 속도는 빠르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6 참조.

년·근[20] :다 :됴·티 아·니·타.

[漢] 네 ·이 ᄆᆞᆯ·와 ·뵈·를 北京·의 ·가 ·풀·오 ·ᄯᅩ ·므·슴 홍졍ᄀᆞᅀᆞᆷ[21] ·사 高麗ㅅ짜·해 도·라· 가 ·ᄑᆞ·ᄂᆞ·뇨?

[高] ·내 山東[22] 濟寧府[23]·엣 東昌[24] 高唐[25] :근·처·둘:해 ·가 :깁·과 고·로·와[26] 소옴[27]·둘 거·두·워 ·사 王京·의 도·라·가 ·풀·라 ·가·노·라.

[漢] 네 짜·해 ·가 :져·그·나 ·니:쳔[28] 잇ᄂᆞ·녀?

[高] :긔·ᅀᅡ 잇ᄂᆞ·니·라 ·내 젼년·희 :되·번[29] 조·차 高唐[30]·의 ·가 소옴·과 :깁·둘 거·두워 ·사 王京·의 가·져가 ·ᄑᆞ·라 :져·기 니:쳔 :어·두·라.

(老諺) 제9화 딥과 콩이 대되 돈이 언메나 ᄒᆞᆫ고?

[漢] 네 이 여러 ᄆᆞ쇼둘히 밤마다 먹ᄂᆞᆫ 딥과 콩이 대되 돈이 언메나 ᄒᆞᆫ고?[31]

[高] 이 여슷 ᄆᆞᆯ이 ᄆᆡ ᄒᆞᆫ나헤 닷 되 콩과 ᄒᆞᆫ 뭇 딥식 ᄒᆞ여[32] 통ᄒᆞ여 혜오니 은 두 돈을 ᄡᅳ고,

[漢] 이 여슷 ᄆᆞᆯ이 每夜의[33] 먹ᄂᆞᆫ 딥과 콩이 ᄒᆞᆫ가지[34] 아니라 콩딥 귀ᄒᆞᆫ

20) '년·근'은 '녀(他) + -은(주제격)'의 형태구성으로 '別箇'를 언해한 것이므로 "다른 것"의 뜻.

21) '홍졍ᄀᆞᅀᆞᆷ'은 "홍정(매매) 감(자료)", 즉 "화물(貨物)"을 말함.

22) 주7 참조.

23) 주8 참조.

24) 주9 참조.

25) 주10 참조.

26) '깁'은 '絹子', '고로'는 '綾子'를 말하며 모두 비단의 일종이다. '고로(綾子)'는 "무늬가 있는 비단"을 말한다. 주11 참조.

27) '소옴'은 "솜(緜子)"을 말함.

28) '·니:쳔'은 '이전(利錢)'을 말하며 "장사하여 남는 이익"을 말함.

29) ':되·번'은 '漢兒火伴'의 번역으로 "중국인 친구"를 말함.

30) 주10 참조.

31) <飜老>에서는 ':언·머·만 :젼·이 ·드·ᄂᆞᆫ·고'임.

32) <飜老>에서는 'ᄒᆞᆫ나·히 콩 닷 ·되, 딥 ᄒᆞᆫ ·뭇·곰 ·ᄒᆞ·야'임.

33) <飜老>에서는 '·밤:마·다'임.

곳은[35] 서너 돈 은을 쓰고 콩딥 흔흔 곳은 두 돈 은을 쓰ᄂᆞ니라. 이 ᄆᆞᆯ도 거름이 됴코나.

[高] 그리어니 여러 거름이 즈늑즈늑호ᄃᆡ 재니라 이 ᄆᆞᆯ을 덜고ᄂᆞᆫ 다ᄅᆞ니ᄂᆞᆫ[36] 다 됴티 아니타.

[漢] 네 이 ᄆᆞᆯ과 뵈롤 北京의 가 ᄑᆞᆯ고 ᄯᅩ 므슴 貨物을[37] 사 高麗ㅅ 짜히 도라가 ᄑᆞᄂᆞ뇨?

[高] 내 山東 濟寧府엣 東昌, 高唐의 가 깁과 능과[38] 소옴을 거두어 사 王京의 도라가 ᄑᆞᆯ라 가노라.

[漢] 네 더 짜히 가 져그나 니쳔 인ᄂᆞ냐?

[高] 그는 ᄯᅩ 무던ᄒᆞ니[39] 내 젼년의 漢ㅅ 벗[40] 조차 高唐의 가 소옴과 깁을 거두어 사 王京의 가져가 ᄑᆞ라 져기 니쳔 어드롸.

(現代譯) 제9화 말먹이 값은 얼마?

[중국인] 자네들, 이 몇 마리 말들이 밤마다 먹는 짚과 콩이 모두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가?

[고려인] 이 여섯 마리의 말이 매 한 마리에 콩이 다섯 되(升), 짚 한 뭇씩이니 합해서 계산하니 은 두 돈을 쓰고,

[중국인] 이 여섯 마리가 밤마다 먹는 짚과 콩이 한가지가 아니니 콩과 짚이 귀한 곳에서는 3~4돈 은을 쓰고 콩과 짚이 흔한 곳은 두 돈 은을 쓰느니라. 이 말도 걷는 것이 좋구나.

[고려인] 그렇습니다. 몇 걸음은 느직느직하되 빠릅니다. 이 말 이외의 다

34) <飜老>에서는 'ᄒᆞᆫ·ᄆᆡ'임.
35) <飜老>에서는 ':논·ᄃᆞᆫ'임.
36) <飜老>에서는 '이 ᄆᆞᆯ :외·예 년·근'임.
37) <飜老>에서는 '홍졍ᄀᆞᅀᆞᆷ'임.
38) <飜老>에서는 '고·로·와'임.
39) <飜老>에서는 ':괴·ᅀᅡ 잇ᄂᆞ·니·라'임.
40) <飜老>에서는 ':되·벋'임.

른 것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중국인] 자네들 이 말과 베를 북경(北京)에 가서 팔고 또 무슨 물품을 사서 고려 땅으로 돌아가 팔 생각인가?

[고려인] 나는 산동(山東)의 제녕부(濟寧府), 동창(東昌), 고당(高唐)에 가서 깁 비단 (絹子)이나 무늬가 있는 비단(綾子), 그리고 목화를 거두어 사서 왕경(王京)에 돌아가 팔러갑니다.

[중국인] 당신네 땅에 가서 조금이라도 이익(利益)이 있었는가?

[고려인] 그거야 있지요. 내가 작년에 중국인 동행을 따라 고당(高唐)에 가서, 무명이나 깁 비단을 거두어 사서 서울로 가져가 팔았는데, 조금은 돈을 벌었소.

(原文) 제10화 綾絹綿子多少價錢?

[漢] 你那綾絹緜子[1] 就地頭[2]多少價錢買來 到王京多少價錢賣.

[高] 我買的價錢 小絹一匹[3]三錢 染做小紅[4]裏絹 綾子每匹二兩家 染做鴉青[5]和小紅 絹子每匹 染錢二錢 綾子每匹染錢 鴉青的三錢 小紅的二錢

1) '綾絹綿子'은 『老乞大』에서는 제9화의 주8처럼 중국 비단의 종류를 '능자(綾子), 견자(絹子), 주자(紬子)'의 셋으로 크게 나누었으나 <原老>의 제10화에서는 능(綾)과 견(絹)만을 구별하였고 이에 대하여 <飜老>에서는 이들을 각기 '고로', '깁'으로 번역하였다. 주(紬)는 <原老>에 '면주(綿紬)'로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명주'는 여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견(絹)은 현대국어의 비단과 같이 모든 견직물(絹織物)을 총칭하지만 『老乞大』에서는 위의 셋을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地頭'는 '그 땅', '현지'의 뜻이다. 『속어고원(俗語考原)』에 "지금의 속어에서는 소재의 땅을 일러 '地頭'라고 한다"라는 풀이가 있다.
3) '匹'은 옷감을 재는 단위 '필'을 말하는데 말이나 소를 셀 때에도 쓴다. 원래는 '疋'이었으며 한 필(疋)은 4장(丈)으로 약 12미터 길이의 옷감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疋'이다.
4) '小紅'은 진홍(眞紅)색의 '大紅(다홍)'에 대하여 엷은·붉은 색, 즉 분홍색을 말할 때에 사용된다.

又緜子每一斤 價錢六錢銀子 到王京 絹子一匹 賣細麻布兩匹 折銀一兩二錢 綾子一匹 鴉青的賣布六匹 折銀子三兩六錢 小紅的賣布五匹 折銀子三兩 緜子每四兩 賣布一匹 折銀子六錢 通滾[6]筭着 除了牙稅[7]繳計[8]外 也尋了加五利錢.[9]

(飜老) 제10화 고로와 깁과 소옴ᄃᆞᆯ홀 :언·머·의 ·ᄑᆞ·ᄂᆞᆫ·다?

[漢] 네 ·뎌 고·로·와 :깁·과 소옴ᄃᆞᆯ·홀 밋ᄡᅡ·해·셔[10] :언멋 ·갑·소·로 ·사 王京·의 ·가 ·갑·슬 :언·머·의 ·ᄑᆞ·ᄂᆞᆫ·다?

[高] 내 ·사·ᄂᆞᆫ ·갑·ᄉᆞᆫ 효·근[11] :깁 ᄒᆞᆫ 피·렌 :세 ·돈 주·고 ·사 :쇼홍·믈

---

5) ‘鴉靑’ 색은 ‘검은 빛을 띤 푸른색’을 말하며 ‘아청’으로도 불린다. 『철경록(輟耕錄)』(권11) ‘채회법(采繪法)’에는 여러 가지 안료(顔料)를 열거한 가운데 “아청(鴉靑)은 소청(蘇靑)으로 돋보이게 하고, 나청(螺靑)으로 덮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원나라 시대의 새 지폐를 ‘아청료초(鴉靑料鈔)’라고 불렀는데 돈의 문자가 이 색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6) ‘通滾’은 ‘전부 합쳐서, 통산하여’의 뜻이다. 원(元) 위초(魏初)의 『청애집(靑崖集)』(권4) ‘주의(奏議)’의 지원(至元) 5년 7월 15일 조에 “上戶와 通滾에 品答均科함”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通滾算’을 <飜老>에서는 “뫼·화 혜니”로 번역하였다.

7) ‘牙稅’는 ‘아인(牙人)’(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아전(牙錢)’(즈름값, 수수료)과 관청에 납부하는 세금(稅金)을 말함.

8) ‘繳計’의 ‘격(繳)’은 ‘일의 결말을 내다’는 뜻이고, 상사(上司)에게 보고하는 것을 ‘격보(繳報)’라고 한다(『老朴集覽』). ‘繳’에는 ‘납입하다’는 뜻도 있으니 납입해야 할 세금 등을 결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飜老>에는 “마몰·와 :혜·니”로 번역하였다.

9) ‘加五’는 5할의 증가, 즉 반의 이익을 말한다. 10分을 밑천으로 5分의 이익을 올리면 10分 이외에 5分이 더해지는 계산이 되어 ‘가오(加五)’라고 한 것이다. 기타 ‘加一’, ‘加二’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老朴集覽』). 본문에 의하면 깁은 석 돈으로 사서 한 냥 두 돈으로 팔고, 야청색의 비단은 석 돈으로 사서 은자 석 냥 여섯 돈으로 팔았으며, 분홍색의 비단은 은자 석 돈에 사서 석 냥으로, 솜은 여섯 돈으로 사서 여섯 돈으로 팔았으니 솜 이외는 모두 몇 배로 판 것이다. <原老>와 화폐 단위가 달라져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세전(牙稅錢)’을 제외하면 5할의 이익이 넘을 것이다.

10) ‘밋ᄡᅡ·해·셔’는 원문 ‘地頭’의 번역이므로 “원산지에서”의 뜻이다. ‘밋ᄡᅡ셧(地頭的)’(『역어유해』 상 99). ‘地頭’는 주2 참조.

:드·려[12] 앉·깁[13] :삼·고, 고·로·ᄂᆞᆫ :ᄆᆡ ᄒᆞᆫ 피·레 :두 ·량·식 주·고 ·사 ·야청·과[14] :쇼홍 ·드·리노·라. :깁 :ᄆᆡ ᄒᆞᆫ 피·레·ᄂᆞᆫ ·믓·갑·시[15] :두 ·돈·이·오, 고·로 :ᄆᆡ ᄒᆞᆫ 피레 ·믓·갑·슨 ·야청·앤 :세 ·돈·이·오, :쇼홍·앤 :두 ·돈·이·오, ·ᄯᅩ 소옴 :ᄆᆡ ᄒᆞᆫ 근·에 ·갑·슨 엿 :돈 은·이·니 王京·의 ·가 :깁 ᄒᆞᆫ 피:레·ᄂᆞᆫ 가·ᄂᆞᆫ ·뵈[16] :두 ·피·레 ·ᄑᆞ·라 은 ᄒᆞᆫ 량 :두 ·돈·애 :헤·오, 고:로 ᄒᆞᆫ 피·렌 ·야청·의·ᄂᆞᆫ ·뵈 엿 비·레[17] ·ᄑᆞ·라 은 :석 ·량 엿 :돈·애 :헤오, :쇼홍·앤 ·뵈 닷 비·레 ·ᄑᆞ·라 은 :석 량·에 :헤·오, 소오·믄 :ᄆᆡ :넉 ·량·의 ·뵈 ᄒᆞᆫ 피·레 ·ᄑᆞ·라 은 엿 :돈 :애 :헤ᄂᆞ·니 뫼·화[18] 헤니 즈릆·갑과[19] :세 ·무·논 것·돌 마몰·와 :헤·니[20] :말오 그 :외 ·예 허 ·우·ᄂᆞᆫ[21]니:쳔을[22] :언·노·라.

(老諺) 제10화 능, 깁과 소옴의 값

[漢] 네 뎌 능과[23] 깁과 소옴을 밋 ᄡᅡ히셔 언멋 갑스로 사 王京의 가 언멋

---

11) ‘효·근’은 “작은”임.

12) ‘:쇼홍·믈 :드·려’는 ‘소홍(小紅) + 믈 들여’로서 “분홍 물감을 드려”의 뜻임. 소홍(小紅)에 대하여는 주4 참조.

13) ‘앉·깁’은 ‘裏絹’의 번역으로 “옷의 안감”을 말함.

14) ‘·야청’은 ‘鴉靑’이 외래어로 사용된 것. ‘鴉靑’은 주5 참조.

15) ‘믓·갑·시’는 ‘染錢’의 번역으로 “물들이는 값”을 말함.

16) ‘가·ᄂᆞᆫ ·뵈’는 ‘細麻布’의 번역임.

17) ‘비·레’는 “필(匹)에”의 뜻. ‘비레 ~ 피레’가 혼동된 것으로 보임.

18) ‘뫼·화’는 “모아서”의 뜻. 원문 ‘通滾’의 번역이다. ‘通滾’에 대하여는 주6 참조.

19) ‘즈릆·갑’은 “중개료, 구문”을 말함.

20) ‘마몰·와 :헤·니’는 ‘繳計’의 번역으로 ‘마몰·오-(繳, 마무르다) + -아(연결어미) + :헤-(計)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결산한 것’의 뜻이다. ‘繳計’에 대하여는 주8 참조.

21) ‘혀:즤·우·ᄂᆞᆫ’은 “커다란, 큰”의 뜻이다. 원문은 ‘加五’은 5할의 증가, 즉 배의 이익이 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저 ‘큰 이익’이라고 하여 되도록 상고(商賈)의 말을 피하려고 하였다.

22) ‘니:쳔’은 ‘利錢’의 차용어, 즉 이익을 말함.

23) <飜老>에서는 ‘고·로·와’임.

갑시 ᄑᆞᄂᆞᆫ다?

[高] 내 사ᄂᆞᆫ 갑ᄉᆞᆫ 小絹[24] ᄒᆞᆫ 필앤 서 돈에 ᄒᆞ여[25] 小紅 드려 안찝 삼고 능[26] ᄆᆡ ᄒᆞᆫ 필에 두 냥식 ᄒᆞ여 야청과 쇼홍 드리노라. 깁 ᄆᆡ ᄒᆞᆫ 필에ᄂᆞᆫ 믈 갑시[27] 두 돈이오, 능 ᄆᆡ ᄒᆞᆫ 필에 믈 갑ᄉᆞᆫ 야청앤 서 돈이오 小紅앤 두 돈이오, ᄯᅩ 소옴 ᄒᆞᆫ 근에ᄂᆞᆫ 갑시 엿 돈 은이오, 王京의 가 깁 ᄒᆞᆫ 필에ᄂᆞᆫ 가ᄂᆞᆫ 뵈 두 필에 ᄑᆞ라 銀 ᄒᆞᆫ 냥 두 돈애 혜고, 綾 ᄒᆞᆫ 필엔 야청의ᄂᆞᆫ 뵈 엿 ᄡᅢᆯ에[28] ᄑᆞ라 銀 석 냥 엿 돈에 혜고, 小紅의ᄂᆞᆫ 뵈 닷 ᄡᅢᆯ에 ᄑᆞ라 銀 석 냥에 혜고 소옴은 每 넉 냥의 뵈 ᄒᆞᆫ ᄡᅢᆯ에 ᄑᆞ라 銀 엿 돈에 혜여 모화 혜니 즈ᄅᆞᆷ 갑[29] 셰물 ᄡᅳᆫ[30] 마몰라[31] 혜여 덜온 밧긔 ᄯᅩ 혀ᄌᆞᆫ 니쳔을 어들러라.[32]

(現代譯) 제10화 비단과 무명은 얼마에 파는가?

[중국인] 당신들은 저 무늬가 있는 비단과 깁과 그리고 솜을 원산지에서 얼마 값에 사서 고려 王京에 가서 값을 얼마로 하여 파는가?

[고려인] 내가 사는 값은 얇은 깁이 한 필에는 세 돈을 주고 사서 분홍색 물을 들여 안감으로 삼습니다. 무늬가 있는 비단이라면 매 한 필에 두 량씩 주고 사서 아청(鴉青)색이나 분홍색 물감을 들입니다. 깁은 매 한 필에 물들인 값이 두 돈이고 고로는 아청에는 석 돈이고 분홍색엔 두 돈이며 또 솜은 매 한 근의 값이 은자 여섯 돈입니다. 이것을 고려의 서울에 갖고 가면 깁은 한 필에 가는 베 두 필에 팔아 은 한 냥 두 돈으로 계산이 되고 고로 한 필에는 아청에는 베 여섯 필에 팔아 은 석 냥 여섯 돈으로 계산이 되고 분홍색으로는 베 다섯 필에 팔아 은 석 냥으로 계산되고 솜은 매 넉 냥에 베 한 필에 팔아 은 여섯 돈으로 계산이 되니 모두 합산하면 중개료와 세금 문 것을 결산한 것은 빼고도 그 외에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原文) 제11화 住了多少時?

[漢] 你自來 到京裏 賣了貨物 却買紬絹 到王京賣了 前後住了多少時?

[高] 我從年時正月裏 將馬和布子 到京都賣了 五月裏到高唐 收起紬絹 到直沽[1]裏上船過海 十月裏到王京 投到年終 貨物都賣了 又買了這些馬并毛施布來了.

(飜老) 제11화 언메나 오래 머므ᄂᆞᆫ다?

[漢] :네 본·ᄃᆡ :셔·울 ·가 :쳔량[2] ·ᄑᆞ라 ·ᄯᅩ 소옴 :깁 ·사 王京·의 ·가 ·ᄑᆞ·노·라 ·ᄒᆞ·야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므ᄂᆞᆫ다?

[高] ·내 젼년 正月·에브·터 ᄆᆞᆯ·와 ·뵈 가·져 :셔·울 ·가 :다 ·ᄑᆞᆯ·오 五月·에 高唐·의 ·가 소·옴·과 :깁·돌 ·거·두·워 直沽[3]·애 ·가 ·ᄇᆡ ·타 바·다 :건·너

---

24) <飜老>에서는 '효·근 :깁'임.
25) <飜老>에서는 ':세 ·돈 주·고'임.
26) <飜老>에서는 '고·로·ᄂᆞᆫ'임.
27) <飜老>에서는 '·믓·갑·시'임.
28) <飜老>에서는 '엿 비·레'임.
29) <飜老>에서는 '즈ᄅᆞᆷ·갑과'임.
30) <飜老>에서는 ':세 ·무·논 것·돌'임.
31) <飜老>에서는 '마몰·와'임.
32) <飜老>에서는 ':얻·노·라'임.

1) '直沽'는 지금 중국의 천진(天津)으로 원대(元代)에는 남방(南方)에서 해로(海路)로 곡물(穀物) 등을 북경(北京)에 운반하는 해상수송의 요충(要衝)이었다. 연우(延祐) 3년(1316)에 해진진(海津鎮)으로 개칭되었는데 이후에도 이 이름은 통칭으로 남았다. 『老覽』에 "在武昌縣東南 衛河白河丁字沽 合流于此 入于海 質問云海口也 離京南去四五日程 天津 衛地方南來 河水北去 河水俱東入海-武淸(昌으로 잘못함)縣의 東南이고, 衛河와 白河, 丁字沽가 여기서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老集上1b-2>라고 한 것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권1)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2) ':쳔량'은 '貨物'의 번역이므로 여기서는 "팔 물건"을 말한다. ':쳔량(錢糧)'은 원래 "돈과 곡식"으로 "재산"을 의미한다. <老諺>에서는 '화물(貨物)'로 언해하였다.

·시·워·레 王京·의 ·가 年終·애4) 다드·라 :포·믈·돌5) :다 ·폴·오 ·또 ·이 몰·와 모시·뵈 ·사오노·라.

老諺 제11화 언메나 오래 머믈러뇨?

[漢]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6) 프라 또 소옴과 깁을 사 王京에 가 프노라 호면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믈러뇨7)?

[高] 내 젼년 正月브터 물과 뵈를 가져 셔울 가 다 풀고 五月에 高唐의 가 소옴과 깁을 거두워 直沽에 가 빈 타 바다 건너 十月에8) 王京의 가 年終에 다드라 貨物을9) 다 풀고 또 이 몰과 모시뵈를 사오노라.

現代譯 제11화 얼마나 오래 머물겠소?

[중국인] 당신들은 본래 북경에 가서 물품을 팔고 다시 솜이나 비단을 구입하여 고려 서울에 돌아가서 팔려고 하면 그 전후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고려인] 내가 작년 정월에 말과 베를 갖고 북경에 가서 다 팔고 5월에는 고당(高唐)에 가서 솜과 비단을 거두어 직고(直沽, 지금의 天津)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10월에 고려 서울에 도착해서 연말까지 물품을 모두 팔고, 또 이 말과 모시 베를 사 왔습니다.

---

3) 지명(地名)으로 지금의 천진(天津)을 말한다. 주1 참조.
4) '年終·애'는 "연말(年末)에"임.
5) ':포·믈·돌'은 "화물(貨物)"을 말함. <老諺>에는 '貨物'임.
6) <飜老>에서는 ':천량'임.
7) <飜老>에서는 '머:므는다'임.
8) <飜老>에서는 '·시·워·레'임.
9) <飜老>에서는 ':포·믈·돌'임.

原文 제12화 這三箇火伴 是你親眷那?

[漢] 這三箇火伴 是你親眷那? 是相合來的 都不曾問 姓甚麽?

[高] 這箇姓金 是小人1)姑舅哥哥2) 這箇姓李 是小人兩姨兄弟3) 這箇姓趙 是我街坊.4)

[漢] 你是姑舅弟兄5) 誰是舅舅上孩兒 誰是姑姑上孩兒?

[高] 小人是姑姑生的 他是舅舅生的.

[漢] 你兩姨弟兄 是親兩姨那 是房親兩姨6)?

[高] 是親兩姨弟兄 我母親是姐姐 他母親是妹子.

[漢] 你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穢語7)不迴避?

---

1) '小人'은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일인칭.
2) '姑舅哥哥'는 "고종사촌 형"을 말한다. 언해는 '아븨 동싱 누의와 어믜 동싱 오라븨게 난 형', 즉 '고모와 외삼촌에게서 난 형'이라고 했다. 중국어에서는 부계(父系)의 자매에 해당되는 고모를 '姑姑', 모계(母系)의 형제에 해당되는 외숙을 '舅舅'라고 한다. 한 쪽의 부친과 또 한 쪽의 모친이 형(兄)과 매(妹), 자(姉)와 제(弟)의 관계가 되는 사촌을 고구형제(姑舅兄弟)라고 한다. '哥哥'는 형(兄)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김(金)의 아버지가 자(姉)와 제(弟) 또는 매(妹)와 형(兄)의 관계인 것을 다음에 오는 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주인공은 김(金)의 아버지를 '舅舅', 金은 주인공의 어머니를 '姑姑'라고 부르는 관계인 것이다.
3) '兩姨兄弟'는 "이종사촌 동생"을 말함. 즉 어머니끼리 자매 사이인 사촌을 양이형제(兩姨兄弟)라고 한다. '고구(姑舅)'와 '양이(兩姨)' 사이의 사촌은 성씨가 같이 않다는 점에서 부친끼리 형제인 동성(同姓)의 사촌과 구별된다. 중국에서도 동성혼(同姓婚)을 타부시하지만 성씨가 다르면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성씨는 김(金)도 이(李)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兄弟'는 이 시대의 구어(口語)로 '동생'을 가리키며, 오늘날처럼 형제(兄弟)를 뜻하지는 않는다.
4) '街坊'은 "근처, 동네", 또는 "그 곳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5) '弟兄'은 구어(口語)로 "형제"를 가리킨다. '兄弟'가 "동생"의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순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6) '房親兩姨'는 사촌간이 아니라 육촌 간을 말하는 것임.
7) '穢語'는 천한 말씨, 특히 욕하는 말(罵言)을 말한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권504)에 "소주(蘇州)의 장관이었던 고청(賈靑)이 포고를 내어 '예어(穢語)'를 사용한 사람한테서 벌금을 걷었더니 빈민 중에서 자살하는 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어에는 욕(罵言)에 비어(鄙語)가 많으며, 특히 '人

[高] 我一們不會體例8)的人 親弟兄也不隔話9) 姑舅兩姨更那裏問.

(飜老) 제12화 이 세 버디 이 네 아숨가?

[漢] ·이 :세 :버·디 ·이 네 아·숨10)·가? ·이 몯ᄃᆞ·라 오·니·가11) :다 일·즉 :묻·디 아·니 ·ᄒᆞ·야 잇·다·니 :셩·이 므·스것·고?

[高] 이·ᄂᆞᆫ :셩·이 金:개·니 ·이·ᄂᆞᆫ 내 아·븨 동ᄉᆡᆼ 누의·와 ·어믜 동ᄉᆡᆼ ·오·라·븨게 난 형·이·오12) ·이·ᄂᆞᆫ :셩·이 李·개·니 ·이·ᄂᆞᆫ ·우·리 :어·믜 ·동ᄉᆡᆼ13)·의·게 :난 아·ᅀᆞ·오14) ·이·ᄂᆞᆫ :셩이 趙·개·니 ·이 내 ·이·우 지·라.15)

[漢] :네 異姓四寸兄弟·어시·니 ·누·구·ᄂᆞᆫ ·어·믜 ·오라·븨·게 난 ·ᄌᆞ·식 ·누·구ᄂᆞᆫ 아·븨 누의 ·게 난 ᄌᆞ·식·고?

[高] 小人·은 아·븨 누의게 나·니·오 ·뎌·ᄂᆞᆫ ·어·믜 ·오·라·븨게 나·니이·다.

他娘(제 어미 붙을)'과 같은 성적 금기에 관한 것도 있어서 가족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8) '體例'는 공사(公私)에서 널리 통행되고 있는 "관례"를 말한다. 『朴覽』(上:12앞) 참조.

9) '隔話'는 연령이나 신분 등의 차이에 의하여 말을 공대한다는 뜻으로 보이나 다른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휘다. 아마도 중국어에는 경어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10) '아·숨'은 "친척, 집안사람"을 말함. <老諺>에서는 '권당'으로 언해하였음.

11) '몯ᄃᆞ·라 오·니·가'는 '몯돌-(集) + -아 + 오(來)-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 + -가(의문)'의 형태구성으로 "모여 달려 온 사람들인가"의 뜻이다. 원문 "是相合來的"의 '相合'은 "합류하다. 모이다"의 뜻이 있다.

12) 原文의 '姑舅哥哥'는 '고종사촌 형'이란 말인데, 언해에는 '아븨 동ᄉᆡᆼ 누의와 어믜 동ᄉᆡᆼ 오라븨게 난 형', 즉 '고모와 외삼촌에게서 난 형'이라고 했다. 원래 '고종사촌 사이'라고 하면 한 쪽에서는 상대가 '고모의 자식'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대가 '외삼촌의 자식'이 되므로 언해가 틀린 것은 아니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姑舅哥哥'에 대하여는 주1 참조.

13) 원문은 '兩姨兄弟'로서 이종사촌 동생을 말한다. 주2 참조.

14) '아·ᅀᆞ·오'는 '아ᅀᆞ + 이- + -오(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며 "아우이고, 동생이고"의 뜻임.

15) '·이·우지·라'는 원문은 '街坊'으로 "이웃사람, 동네사람"이란 뜻임. 주3 참조.

[漢] 너희 兩姨에·셔 난 형·뎨·라 ᄒᆞ·니 ·이 친동ᄉᆡᆼ 兩姨가? ·이 동·셩 륙·촌 兩姨·가?16)

[高] ·이 친동ᄉᆡᆼ 兩姨·에;셔 난 형·뎨로·니 ·우·리 ·어·미·ᄂᆞᆫ 형·이:오 ·뎌·의 ·어·미·ᄂᆞᆫ 아·ᅀᆞ·라.

[漢] 너:희 ᄒᆞ·마 姑舅兩姨·에·셔 난 형·뎨로·ᄃᆡ :엇·디 ·길 조·차·셔 :더·러·운 :말·소·믈17) 회피·티 아·니·ᄒᆞ·ᄂᆞᆫ·다?

[高] ·우·리 ᄒᆞᆫ가·짓 :ᄉᆞ·톄18) 모·ᄅᆞ·ᄂᆞᆫ :사·ᄅᆞᆷ·ᄃᆞᆯ·히 친동ᄉᆡᆼ 형·뎨·도 :말·ᄉᆞᆷ 즈·ᅀᅳᆷ19) 아·니 ·ᄒᆞ·ᄂᆞ·니 姑舅兩姨 ᄉᆞ·ᅀᅵ예 ·쏘 어·듸 무·르·료?20)

(老諺) 제12화 이 세 벗이 이 네 권당가?

[漢] 이 세 벗이 이 네 권당가?21) 이 서ᄅᆞ 못다ᄅᆞ 오니가22) 다 일즉 뭇디 아니ᄒᆞ엿더니 姓이 므스 것고?

[高] 이ᄂᆞᆫ 姓이 金개니 이ᄂᆞᆫ 小人23)의 아븨 누의24) 어믜 오라븨게25) 난

---

16)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은 '是親兩姨那, 是房親兩姨'이다. 이 말은 '어머니끼리 친형제(親兩姨)인지, 사촌형제(房親兩姨)인지'를 묻는 것이다. 언해는 '친동ᄉᆡᆼ 兩姨가 동셩 륙촌 兩姨가'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친형제인 두 이모에게서 난 사이냐, 성(姓)이 같은 두 이모에게서 난 육촌 사이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육촌'은 어머니끼리 육촌이 아니라, 이종 형제끼리 육촌인 것을 가리킨다. 즉, '이종사촌이냐, 이종육촌이냐'를 묻는 말이다.

17) 원문은 '穢語'인데 '더러운 말'로 언해되었다. 주로 반말이나 욕지거리 등을 일컫는다.

18) ':ᄉᆞ·톄'는 '사체(事體)', 즉 "사리와 체면"이란 뜻으로 "언행이 이치에 합당하며 체면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19) ':말·ᄉᆞᆷ 즈·ᅀᅳᆷ'은 원문 "隔話"를 직역한 것으로 '즈·ᅀᅳᆷ'은 "사이, 간격"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말에 사이를 두다. 경어를 쓰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0) "친형제도 말공대를 아니 하는데 사촌 사이에는 물을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1) <飜老>에서는 '네 아·숨·가'임. '권당'은 한자어 "권당(眷黨, 일가 친척)"을 말함.

22) <飜老>에서는 '·이 몯ᄃᆞ·라 오·니·가'임. <老諺>의 "서ᄅᆞ 못다ᄅᆞ 오니가"는 <飜老>의 '몯돌-(集)'이 "못닫-"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주11 참조.

23) <飜老>에서는 '내'로 되었음. '小人'에 대하여는 주5 참조.

24) <飜老>에서는 '아·븨 동ᄉᆡᆼ 누의'임.

형이오 이ᄂᆞᆫ 姓이 李개니 이ᄂᆞᆫ 小人의[26] 어믜 동ᄉᆡᆼ의게 난 아이오[27] 이ᄂᆞᆫ 姓이 趙개니 이 내 이우지라.

[漢] 네 이 姑舅의게 난 弟兄이어니[28] 누구ᄂᆞᆫ 어믜 오라븨게 난 ᄌᆞ식이며 누구ᄂᆞᆫ 아븨 누의게 난 ᄌᆞ식고?

[高] 小人은 姑姑의[29] 난 이오 뎌ᄂᆞᆫ 舅舅의 난 이라.[30]

[漢] 너희 兩姨의게 난 兄弟라 ᄒᆞ니 이 친동ᄉᆡᆼ 兩姨가? 이 同姓 六寸 兩姨가?

[高] 이 親同生 兩姨의게 난 弟兄[31]이로니 우리 母親은 형이오 뎌의 母親은 아이라.

[漢] 너희 이믜[32] 姑舅 兩姨예 난 弟兄일쟉시면[33] 엇디 길흘 조차셔 더러온 말을[34] 회피티 아니 ᄒᆞᄂᆞ뇨?[35]

[高] 우리 ᄒᆞᆫ 뉴ᄂᆞᆫ[36] 體例[37]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즈음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ᄯᅩ 어듸 무로리오.

(現代譯) 제12화 이 세 벗이 친척인가?

[중국인] 이 세 벗이 당신의 친척인가? 아니면 모여 따라 온 사람인가? 모두 일찍이 묻지 않았는데 성(姓)이 무엇인고?

25) <飜老>에서는 '·어믜 동ᄉᆡᆼ ·오·라·븨게'임.
26) <飜老>에서는 '·우·리'임.
27) <飜老>에서는 '아·ᅀᅵ·오'임.
28) <飜老>에서는 '異姓四寸兄弟·어시·니'임.
29) <飜老>에서는 '아·븨 누의게'임.
30) <飜老>에서는 '어·믜 ·오·라·븨게 나·니이·다'임.
31) <飜老>에서는 '형·뎨'임.
32) <飜老>에서는 'ᄒᆞ·마'임.
33) <飜老>에서는 '형·뎨로·듸'임.
34) <飜老>에서는 ':말·ᄉᆞ·믈'임.
35) <飜老>에서는 '아·니·ᄒᆞ·ᄂᆞ·다'임.
36) <飜老>에서는 'ᄒᆞᆫ가·짓'임.
37) <飜老>에서는 ':ᄉᆞ·톄'임. ':ᄉᆞ·톄'에 대하여는 주18 참조.

[고려인] 이는 성이 김(金)가이고 나의 고종사촌 형님이며 이쪽은 성이 이(李)가이니 우리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이쪽은 성이 조(趙)가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중국인] 당신들이 이성(異姓) 사촌 형제 사이라면 어느 쪽이 외숙부의 자식이고, 어느 쪽이 고모의 자식인고?

[고려인] 소인(小人)이 고모에게서 난 사람이고, 저쪽은 외숙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중국인] 당신 둘은 이모끼리의 난 형제 사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친자매인 이모인가, 육촌 사이의 이종인가?

[고려인] (어머니와) 친자매인 이모 사이에 난 형제이니 우리 어머니가 언니이고 저쪽의 어머니가 아우입니다.

[중국인] 당신들은 친사촌, 이종사촌 사이의 형제인데, 어째서 길에서까지 막말을 피하지 않는가?

[고려인] 우리는 모두가 사체(事體)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친동생 형제들도 말공대를 하지 않는데 사촌 간에 또 어찌 상관하리오?

2. 와점(瓦店)에서의 숙박

이 장면은 중간 기착지인 와점(瓦店)에서 일행들이 여관에 머물고 말에 먹이를 주기도 하며 하룻밤을 지내는 모습을 대화로 엮은 것이다.

(原 文) 제13화 草料多少?

[漢] 咱們閑話且休說. 那店子便是瓦店,[1] 尋箇好乾淨店裏下去來, 歇頭口着. 街北這箇店子, 是我舊主人家, 咱們只這裏下去來. 拜揖,[2] 主人家哥!

[主] 噯, 却是王大哥! 多時不見, 好麽? 好麽? 你這幾箇火伴 從那裏合將來?

[漢] 我沿路相合[3]着, 做火伴北京去. 你這店裏草料都有阿沒?

[主] 草料都有. 料是黑豆, 草是稈草.[4]

[漢] 是稈草好. 若是稻草[5]時, 這頭口們多有不喫的. 黑豆多少一斗? 草多少

1) 와점(瓦店)은 "기와로 된 상점"이란 뜻이어서 여관의 이름으로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고 북경(北京)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전부터 이곳에는 아마도 기와집으로 된 여관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얻은 것 같다.

2) '拜揖'은 원래는 "머리 숙여 절한다"는 뜻이지만, 원대(元代)에는 인사말로 사용되었다. 『악양루(岳陽樓)』「잡극(雜劇)」三折의 대사에 "社長, 拜揖了"(면장님, 안녕하세요), 또 『朴通事』 上에도 "拜揖, 哥哥那裏去來"(안녕하세요, 형님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예가 있다.

3) '相合'은 "합류해서, 만나서"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厮合'인데 '厮'는 '相'과 같은 뜻이며 제12화의 '相合'과 같이 사용된다. 제12화 주11 참조.

4) '稈草'의 '稈'은 '稈'과 같다. <原老>에서는 '稈草'로 되었다. '稈草'의 '稈'은 농작물의 줄기, 특히 중국 북방에서는 좁쌀, 즉 서속의 줄기를 말한다(『朴覽』 中).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1) '외제사(外諸司)'에 '粟稈草'가 바로 서속 짚으로 간초(稈草)와 같은 뜻이다.

5) '稻草'는 '볏짚'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稻穰'인데 명(明) 초횡(焦竑)의 『속서간오(俗書刊誤)』(권11)에 "稻草를 穰草라고 일컬음"이라는 구절이 있어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一束?

[主] 黑豆五十箇錢一斗, 草一十箇錢一束.

[漢] 是眞箇麽? 你却休瞞我.

[主] 這大哥 甚麽言語? 你是熟客人, 咱們便是自家裏一般. 我怎麽敢胡說? 怕[6]你不信時, 別箇店裏試商量.[7]

[漢] 去 我只是這般說.

(飜 老) 제13화 콩은 언머의 ᄒᆞᆫ 마리며 딥픈 언머의 ᄒᆞᆫ 뭇고?

[漢] ·우·리 ·잡·말 안·직 니ᄅᆞ디 :마·져. ·뎌 :뎜·이[8] ·곧 瓦店[9]·이·니 ·조·ᄒᆞᆫ[10] :뎜 ᄀᆞᆯ·ᄒᆡ·여 브·려·셔[11] 즘승 쉬·우·져. 거·릿 ·븍녀·긔 잇ᄂᆞᆫ :뎜은 ·이 내 :녯 쥬ᅌᅵᆫ 지·비·니[12] ·우·리 그저 여·긔 브·리·져. ·읍·ᄒᆞ·노이·다.[13] ·쥬ᅌᅵᆫ 형·님!

[主] ·애 ·ᄯᅩ[14] 王가 형·님·이·로·괴·여![15] 오래 :몯 ·보·왜.[16] 이·대 이·대,[17] 너희 ·이 여·러 :벋·둘·히 어·듸브·터·셔 모·다[18] 오·뇨?

6) '怕'은 "무서워하다"가 원래의 뜻이지만, "아마"라는 의미도 있어서 여기서는 "만일"의 뜻으로 쓰였다.

7) '商量'은 "상의하다, 생각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값을 교섭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8) '·뎌 :뎜·이'의 뜻은 "저 상점이, 저 여관이"의 뜻이나 이것은 '那店子'를 직역한 것으로 보아서 "저 곳이"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9) 주1 참조.

10) '·조·ᄒᆞᆫ'은 '조ᄒᆞ-(淨)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깨끗한"의 뜻이다.

11) '브·려·셔'는 "여관을 잡고 짐을 부려서"의 뜻임.

12) ':녯 쥬ᅌᅵᆫ 지·비·니'는 "옛 주인의 집이니"란 말이나 의미는 "옛날에 묵었던 여관"이란 뜻임.

13) '·읍·ᄒᆞ·노이·다'는 '拜揖'의 직역으로 "인사드립니다."의 뜻임.

14) '·애 ·ᄯᅩ'는 원문 '噯却'을 직역한 것으로 "아이고 또"의 뜻이다. '·애'는 감탄사.

15) '형·님·이·로·괴·여'는 "형님이로구나!"의 뜻을 갖는 감탄문.

16) '·보·왜'는 "보았네" 정도의 반말임. 친숙함을 나타내려고 쓴 말로 보임.

17) '이·대 이·대'는 "좋아 좋아"의 뜻으로 "好麽好麽"를 직역한 것임. '이대'는 "잘, 좋게"의 뜻임.

[漢] ·우·리 ·길 조·차 ·서르 모·다 :벋 ·지·ᅀᅥ 北京으·로 ·가노·라. 네 ·이 :뎜·에 콩 ·딥 :다 잇ᄂᆞᆫ·가 :업·슨·가?

[主] 콩 ·딥 :다 잇·다. 콩·은 거·믄 콩·이·오 ·딥·픈 좃·딥·히·라.19)

[漢] 좃·딥·피·ᅀᅡ :됴ᄒᆞ·니 ·ᄒᆞ·다·가 ·벗·딥·피·면 ·이 즘ᄉᆞᆼ·ᄃᆞᆯ·히 먹·디 아·니ᄒᆞ·리 :만ᄒᆞ·니·라. 콩·은 :언·머·의 ᄒᆞᆫ ·마리·며 ·딥·픈 :언·머·의 ᄒᆞᆫ ·뭇20)·고?

[主] 콩·은 :쉰 ·낫 :돈·애 ᄒᆞᆫ ·마리·오 ·딥·픈 ·열 ·낫 :돈·애 ᄒᆞᆫ ·무시·라.

[漢] ·이 ·올·ᄒᆞ·녀?21) :네 ·ᄯᅩ :날 소·기·디 :말·오·려!

[主] ·이 형·님 므·슴 :말·오? 너·ᄂᆞᆫ 니·기 ᄃᆞᆫ·니·ᄂᆞᆫ 나·그·내·니22) ·우·리 ·곧 내 집 ᄒᆞᆫ 가·지·니 ·내 어·듸·ᄯᅡᆫ 간:대·옛 :말23) ᄒᆞ·리·오 너옷24) 믿·디 :몯·ᄒᆞ·야 ·ᄒᆞ·거·든 다ᄅᆞᆫ :뎜·에 :의·론25)·ᄒᆞ·야 보라.

[漢] :가·듸·여!26) ·나·ᄂᆞᆫ 그저 ·이·리 닐·오리·라.

(老諺) 제13화 콩은 언머의 ᄒᆞᆫ 말이며 딥픈 언머의 ᄒᆞᆫ 뭇고?

[漢] 우리 잡말 아직 니ᄅᆞ디 마쟈. 뎌 店은 곳 瓦店이니 ᄀᆞ장 乾淨ᄒᆞᆫ27) 店을 어더28) 브리 우라 가 즘승들 쉬우쟈. 거릿 븍녁킈 이 店은 이 내 녯 主人 집이니 우리 그저 여긔 브리 오라 가쟈.29) 拜揖ᄒᆞ노니30) 主人 형아!

[主] 애 ᄯᅩ 王가든 형이로괴야! 오래 보디 못ᄒᆞ엿더니31) 이대 이대 너희 이 여러 벗이 어듸 셔브터 못ᄃᆞ라32) 오뇨?

[漢] 우리 길흘 조차 서ᄅᆞ 모다 벗 지어 北京으로 가노라. 네 이 店에 딥과 콩이 다 잇ᄂᆞᆫ가 업슨가?

[主] 딥과 콩이 다 이시되33) 콩은 거믄 콩이오 딥픈 좃딥피라.

[漢] 이 좃딥피 됴ᄒᆞ니 ᄒᆞ다가 닛딥피면34) 이 즘승들히 먹디 아니ᄒᆞ리 만ᄒᆞ니라. 거믄 콩은 언머의 ᄒᆞᆫ 말이며 딥픈 언머의 ᄒᆞᆫ 뭇고?

[主] 거믄 콩은 쉰 낫 돈애 ᄒᆞᆫ 말이오 딥픈 열 낫 돈애 ᄒᆞᆫ 무시라.

[漢] 이 진실로야!35) 네 ᄯᅩ 날을 소기디 말라!

[主] 이 큰 형아 므슴 말고? 너ᄂᆞᆫ 니기 ᄃᆞᆫ닌 나그내니 우리 곳 내 집 ᄒᆞᆫ가지라. 내 엇디 敢히 간대로 니ᄅᆞ리오?36) 저컨대37) 네 밋디 아니커든 다ᄅᆞᆫ 뎜에 시험ᄒᆞ여 商量ᄒᆞ라.38)

[漢] 가라!39) 나ᄂᆞᆫ 그저 이리 니ᄅᆞ리라.

(現代譯) 제13화 콩은 얼마에 한 말이며 짚은 얼마에 한 뭇인고?

[중국인] 우리 잡담은 이제 하지 맙시다. 저 곳이 와점(瓦店)이니 깨끗한

18) '모·다'는 "모여서, 합류해서"의 뜻임. 주3 참조.
19) '좃·딥·히·라'는 '조(粟) + ㅅ(무정체 속격) + 딥ㅎ(稈) + 이-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조의 짚"을 말함.
20) '·뭇'은 "다발, 한 번 묶은 정도의 짚뭇(束)"을 말함.
21) '·이 ·올·ᄒᆞ·녀'는 원문 '是眞箇麽'를 직역한 것으로 "이것이 사실인가?"의 뜻임.
22) '니·기 ᄃᆞᆫ·니·ᄂᆞᆫ 나·그·내·니'는 '熟客人'의 번역으로 "단골손님"을 말함.
23) '간:대·옛 :말'은 '간대(망령, 미혹) + -에(처격) + -ㅅ(속격) + 말(言)'의 형태구성으로 "헛된 말"이란 뜻.
24) '너옷'의 '옷'은 강세첨사. "너야말로"의 뜻임.
25) ':의·론'은 '商量'을 직역한 것. 주7 참조.
26) ':가·듸·여'는 "가시오"의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만 두시오"란 의미의 감탄사로 쓰였다.
27) <飜老>에서는 '·조·ᄒᆞᆫ'임.
28) <飜老>에서는 'ᄀᆞᆯ·희·여'임.

29) <飜老>에서는 '여·긔 브·리·져'임.
30) <飜老>에서는 '·읍·ᄒᆞ·노이·다'임.
31) <飜老>에서는 ':몯 ·보·왜'임.
32) <飜老>에서는 '모·다'임.
33) <飜老>에서는 ':다 잇·다'임.
34) <飜老>에서는 '·벗·딥·피·면'임.
35) <飜老>에서는 '·이 ·올·ᄒᆞ·녀'임.
36) <飜老>에서는 '간:대·옛 :말 ᄒᆞ·리·오'임.
37) '저컨대'는 원문 '怕'을 직역한 것으로 "두려워하건대"의 뜻이다. <飜老>에서는 이에 대한 번역이 없다.
38) <飜老>에서는 ':의·론·ᄒᆞ·야 보라'임.
39) <飜老>에서는 ':가·듸·여'임. ':가·듸·여'에 대하여는 주26 참조.

여관을 골라서 짐을 풀고 말을 쉬게 합시다. 거리의 북쪽에 있는 저 여관은 나의 단골 여관이니 우리 그저 거기서 짐을 풉시다.

—여관에 도착하여—

[중국인] 안녕하십니까? 주인 형님!

[점주인] 아이고, 또 왕씨 형님이시구료! 오래 못 보았으이. 좋고 좋아요, 당신들 여러 친구들이 어디서부터 모여서 오셨습니까?

[중국인] 우리가 길에서 서로 모여 동행이 되어 북경(北京)으로 갑니다. 당신네 이 여관에는 콩과 짚이 모두 있는가?

[집주인] 콩과 짚이 모두 있습니다. 곡식은 검은콩이고, 짚은 서속 짚입니다.

[중국인] 서속 짚이라야 좋으니 만일 볏짚이라면 이 말들이 먹지 않으려는 놈이 많아요. 콩은 얼마에 한 말이고, 짚은 얼마에 한 뭇인가?

[집주인] 콩은 50돈에 한 말이고 짚은 10돈에 한 뭇이요.

[중국인] 그게 옳은가? 당신 나를 속이지 말구려.

[집주인] 형님 무슨 말씀이오? 당신은 단골손님이니 우리 곧 내 집과 같으니 내가 어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꼭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여관에 가서 물어보시죠.

[중국인] 됐어요. 내가 그저 그렇게 말해본 것뿐일세.

(原文) 제14화 切草料

[漢] 我共通十一箇馬,[1] 量着六斗料與十一束草着. 這制刀[2]不快[3] 許多[4]草

1) '十一箇馬'는 열한 마리의 말인데 제9화에서 고려인의 말은 6마리였기 때문에, 중국인 왕(王)상인의 말은 5마리가 된다.
2) '制刀'는 <原老>에서는 '鏝刀'이었다. 이때의 '鏝'은 미장이가 흙벽을 칠 때에 사용하는 흙손을 가리키지만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는 짚을 써는 데 사용하는 칼로 보인다. '鍘'(작두)의 誤字일 수 있는데 <飜老>에서는 그저 '制刀'일 뿐으로 언해는 '작·도 + -ㅣ(주격)'로서 현대어의 '작두'다.
3) '快'는 "칼날이 매우 날카롭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快刀亂麻'의 '快'와 같고 반

幾時切得了? 主人家 別處快制刀借一箇[5]來.

[主] 這們時, 我借去.

這制刀是我親眷家的, 他不肯,[6] 我哀告借將來[7] 風刃[8]也似快, 你小心些使, 休壞了他的.

[漢] 這火伴, 你切的草忒麤, 頭口們怎生喫的? 好生細細的切着.

這火伴, 你敢[9]不會煮料.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10] 但滾的一霎兒, 將這切了的草, 豆子上盖覆了, 休燒火, 休敎走了氣, 自然熟了.

(飜老) 제14화 한 디플 어느 제 사홀료?

[漢] ·우·리 :대·되[11] ·열 혼 :낫 므·리·니[12] :헤·어·든 엿 ·맔 콩·과[13] ·열 혼 ·뭇 ·디·피로·다.

대말은 '鈍'이다.
4) '許多'는 "많다"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若干'이었는데 이때의 '若干'은 원래는 부정수(不定數)를 표시하지만, <飜老>의 '許多'와 같이 "많이"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5) '一箇'는 "칼 하나"라는 뜻이다. 칼은 '把'로 세지만, 여기서는 말의 경우와 같이 '箇'가 사용되었다.
6) '他不肯'은 "그가 좋아하지 않지만"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不付能'이었는데 이것은 "겨우"라는 뜻으로, '不甫能'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 '不'를 붙이지 않아도 같은 의미가 된다.
7) '借將來'의 '將'은 근세어에서 자주 사용된 말이다. 동사와 방향동사 사이에서 사용되며 실제의 뜻은 별로 없다. 현대어에서 동사와 방향동사 사이에 사용되는 '了'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8) '風刃'은 날카로운 칼날이다. '잘 잘리다'를 '風快'라고도 하기 때문에 "바람이 획 부는 것처럼 싹싹 잘리다"라고 하는 데에서 왔을 것이다.
9) '敢'은 "아마도"의 뜻으로, 추정(推定)을 나타내며 "일부러"라는 뜻은 아니다.
10) '下上豆子'는 "콩을 넣다"는 뜻이다. '下'가 동사로서 "넣다"는 뜻이며 '上'은 방향동사이고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다.
11) 원문은 '通'으로 '모두, 대저'의 뜻이다.
12) '·열 혼 :낫 므·리·니'는 '十一箇馬'를 직역한 것으로 원문이 '箇'이므로 '마리'가 아니라 ':낫'으로 번역하였다.
13) '엿 ·맔 콩·과'는 '엿(6) + ·말(斗) + -ㅅ(무정체 속격) + 콩(豆) + ·과(공동격)'의 형태구성으로 "여섯 말의 콩과"라는 뜻임.

·이 작·되 ·드·디 아·니 ·ᄒᆞ·ᄂᆞ·다. 하·나·한[14] ·디·플 어·느 ·제[15] 사·ᄒᆞᆯ·료?[16]

·쥬ᅀᅵᆫ·하 다ᄅᆞᆫ ·ᄃᆡ ·드·ᄂᆞᆫ 쟉도 ᄒᆞ나 비·러 오·고·려.

[主] ·이·러·면 ·내 :빌·라 :가·마.

·이 쟉도·ᄂᆞᆫ ·이 ·우·리 아·ᅀᆞ·ᄆᆡ[17] ·짓 거·시·니[18] ·뎨 ·즐·겨 주·디 아·니커늘 ·내 ᄆᆞᆯ·이 닐·어[19] 비·러 오·니 ᄇᆞᄅᆞᆷ·ᄂᆞᆯ·ᄋᆞ·티[20] ·쾌ᄒᆞ·니 :네 :조·심·ᄒᆞ·야 ·ᄡᅳ·고 ᄂᆞ·ᄆᆡ 것 ·ᄒᆞ·야ᄇᆞ·리·디[21] :말·라.

[漢] ·이 :버·다! 네 사·ᄒᆞ ·논[22] ·딥·피 너므 :굵·다. 즘숭·돌·히 :엇·디 머·그·료? ᄀᆞ·장 ·ᄀᆞ·ᄂᆞ·리 사·ᄒᆞᆯ·라.

·이 :버·다! :네 콩 ᄉᆞᇝ·기 아·디 :몯·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고·나. :네 가·마·의 ·블 디·더[23] ᄀᆞ·장 글커·든[24] 콩 녀·허 두·고 믈읫 ᄀᆞ·장 것글·후·미[25] ᄒᆞᆫ 디·위:만 ·ᄒᆞ·거·든 ·이 사·ᄒᆞ·론 ·디·플다·가 콩 우·희 둡·고 ·블 딛·디

14) '하·나 ·한'은 "많고 많은"의 뜻임.
15) '·제'는 '時'의 번역으로 "(어느) 때"의 뜻임.
16) '사·ᄒᆞᆯ·료'는 "썰겠는가?"의 뜻.
17) '아·ᅀᆞ·ᄆᆡ'는 '아·ᅀᆞᆷ(親眷) + -ᄋᆡ(유정체 속격)'의 형태구성으로 "친척의"의 뜻이다.
18) '·짓 거·시·니'는 '·집(家) + -ㅅ(사이 ㅅ) + 것 + ·이-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집의 것이니" 뜻이다. 15~16세기에는 '사이 ㅅ' 앞에서 앞의 체언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다. <老諺>에서는 "집 거시니"로 되어 이러한 음운 현상이 근대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 'ᄆᆞᆯ·이 닐·어'는 원문 '哀告'를 언해한 것이다. "간곡하게, 애닯게 말하여"의 뜻으로 보인다. <老諺>에서는 "ᄆᆡ이 닐너"이어서 'ᄆᆞᆯᄫᅵ > ᄆᆞᆯ이 > ᄆᆡ이'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에서는 없어졌다. "王이 ᄆᆞᆯᄫᅵ 너기샤 니ᄅᆞ샤ᄃᆡ(『月印釋譜』 권11 10엽)".
20) 'ᄇᆞᄅᆞᆷ·ᄂᆞᆯ·ᄋᆞ·티'는 '風刃'을 직역한 것으로 'ᄇᆞᄅᆞᆷ·ᄂᆞᆯ(風刃) + -·ᄋᆞ·티(같이)'의 형태구성이며 "바람 날같이(날카로운)"의 뜻이다.
21) '·ᄒᆞ·야ᄇᆞ·리·디'는 '(休)壞'의 번역으로 "부숴버리지(말라)"의 뜻임.
22) '사·ᄒᆞ ·논'은 "썰어 놓은"의 뜻.
23) '·블 디·더'는 '블(火) + 딛-(燃)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불 때어, 불 지펴"의 뜻.
24) '글커·든'은 "끓거든"의 고형임.
25) 'ᄀᆞ·장 것글·후·미'는 'ᄀᆞ·장 것 + 글ㅎ-(沸) + -움(명사형) + -·ㅣ'의 형태구성으로 "한껏 많이 끓었을 때"의 뜻.

:말·오 :김 나·게 :말·라. ·ᄌᆞ연·히 니그리·라.

(老諺) 제14화 하나한 딥흘 언제 싸ᄒᆞᆯ뇨?

[漢] 우리 대되 열 ᄒᆞᆫ 낫 ᄆᆞᆯ이니 혜아리니 엿 말 콩과 열 ᄒᆞᆫ 뭇 딥히로다. 이 쟉되 드디 아니ᄒᆞ니 하나한 딥흘 언제[26] 싸ᄒᆞᆯ뇨?

쥬인아[27] 다ᄅᆞᆫ ᄃᆡ 드ᄂᆞᆫ 쟉도 ᄒᆞ나흘 비러 오라.

[主] 이러면 내 빌라 가마.

이 쟉도ᄂᆞᆫ 이 우리 권당의 집[28] 거시니 뎨 즐기디 아니커늘 내 ᄆᆡ이[29] 닐너 비러오니 ᄇᆞᄅᆞᆷ놀 ᄀᆞᆺ티 쾌ᄒᆞ니 네 조심ᄒᆞ여 ᄡᅳ고 ᄂᆞᄆᆡ 것 해여ᄇᆞ리디[30] 말라.

[漢] 이 버다! 네 싸ᄒᆞᄂᆞᆫ 딥히 너모 굵다. 즘싱들히 엇디 먹으리오? ᄀᆞ장 ᄀᆞᄂᆞᆯ게[31] 싸흘라.

이 벗아! 네 콩 ᄉᆞᇝ기ᄅᆞᆯ 아디 못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다. 네 블 ᄣᅵ더[32] 가매 ᄭᅳᆯ커든 콩을 녀허 두고 믈읫 ᄭᅳᆯ키[33] ᄒᆞᆫ 디위만 ᄒᆞ거든 이 싸흔[34] 딥흘다가 콩 우희 덥고 블 ᄣᅵᆺ디 말고[35] 김나게 말라. 白然히 니그리라.

(現代譯) 제14화 이 많은 짚을 언제 썰겠소?

[중국인] 우리는 전부 합쳐 11마리의 말이니 여섯 말의 콩과 열한 뭇의

26) <飜老>에서는 '어·느 ·제'임.
27) <飜老>에서는 '·쥬ᅀᅵᆫ·하'임.
28) <飜老>에서는 '아·ᅀᆞ·ᄆᆡ ·짓'임.
29) <飜老>에서는 'ᄆᆞᆯ·이 닐·어'임.
30) <飜老>에서는 '·ᄒᆞ·야ᄇᆞ·리·디'임.
31) <飜老>에서는 '·ᄀᆞ·ᄂᆞ·리'임.
32) <飜老>에서는 '·블 디·더'임.
33) <飜老>에서는 'ᄀᆞ·장 것글·후·미'임.
34) <飜老>에서는 '사·ᄒᆞ·론'임.
35) <飜老>에서는 '·블 딛·디 :말·오'임.

짚을 준비해주게. 이 작두가 잘 들지 않으니 많고 많은 짚을 언제 썰겠는가? 주인 아저씨! 다른 데서 잘 드는 작두를 하나 빌려 오시오.

[집주인] 그렇다면 내가 빌리러 가겠습니다.

—작두를 빌려와서—

[집주인] 이 작두는 우리 친척집의 것인데 그가 잘 주지 않으므로 내가 많이 일러서 빌려 왔습니다. 바람 날같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서 쓰시고 남의 것이니 부숴버리지는 마십시오.

—고려인이 말꼴을 자르는 것을 보고—

[중국인] 이 친구야! 당신이 썬 짚이 너무 굵구나. 말들이 어떻게 먹겠나? 아주 가늘게 썰게.

—또 다른 고려인이 곡식을 삶는 것을 보고—

[중국인] 이 친구야! 자네는 아마도 콩 삶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하구나. 자네는 가마솥에 불을 때어 매우 끓거든 콩을 넣어 두고 한참 끓거든 바로 이 썬 짚을 콩 위에 덮어 두고 불 때지 말고 김나게 하지 말게. 자연히 익을 걸세.

(原文) 제15화 打火

[主] 客人們, 你打火[1]那不打火?

[漢] 我不打火, 喝風[2]那? 你疾快[3]做着五箇人的飯着.

1) '打火'는 여행 도중에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림광기(事林廣記)』(和刻本) 「경집(庚集)」(권2) '여행잡기(旅行雜記)'에 "午炊을 속된 말로 打火라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2) '喝風'은 먹을 것이 없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이다. 『서유기(西遊記)』 제8회에 "若依你, 叫我喝風-너의 말대로 하면 굶어죽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喝西風', '喝西北風'이라고도 한다.
3) '疾快'는 "빨리, 급히, 서둘러"의 뜻이다. '快' 한 글자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당대(唐代)부터이다. '疾快'로서 이 뜻을 나타낸 것은 약간 늦어서 송원(宋元) 때부터인 것 같다. 『영락대전(永樂大典)』 「희문삼종착립신(戲文三種錯立身)」에

[主] 你喫甚麽飯?

[漢] 我五箇人打着三斤麵的餅[4]着, 我自買下飯[5]去.

[主] 你買下飯去時, 這間壁[6]肉案[7]上買猪肉去, 是今日殺的好猪肉.

[漢] 多少一斤?

[主] 二十箇錢一斤.

[漢] 你主人家 就與我買去, 買一斤肉着. 休要十分[8]肥[9]的, 帶肋條[10]的肉買着. 大片兒切着, 炒將來着.

(飜老) 제15화 네 쌀리 밥 지스라

[主] 나·그·내·네 :네 ·블 디·디[11] ·ᄒᆞ·ᄂᆞᆫ·다? ·블 디·디 :몯·ᄒᆞ·ᄂᆞᆫ·다?

[漢] ·내 ·블 디·디 :몯ᄒᆞ·고 ᄇᆞᄅᆞᆷ 마·시·려?[12] :네 ᄲᆞᆯ·리 다·ᄉᆺ :사·ᄅᆞ·ᄆᆡ ·밥 지·ᅀᅳ·라.

[主] :네 므·슴 ·밥·을 머·글·다?

[漢] ·우·리 다·ᄉᆺ :사·ᄅᆞ·ᄆᆡ :서 ·근 ᄀᆞᄅᆞ·잇 ·ᄯᅥᆨ[13] ᄆᆡᇰ·ᄀᆞᆯ·라. ·나·ᄂᆞᆫ ·차·반[14]

"是必敎他疾快來-꼭 서둘러 오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4) '餠'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만들어 굽거나 찐 것이다. "떡"이란 뜻은 아니다.
5) '下飯'은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다. '下酒'는 술안주이다.
6) '間壁'은 "이웃"이란 뜻이다. 현대어의 '隔壁'과 같다.
7) '肉案'은 "정육점"이다. 원래는 고기를 늘어놓는 탁자이었으나 점차 정육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4) '육행(肉行)'에 "坊巷橋市에 모두 肉案이 있음"이란 구절이 보인다.
8) '十分'은 "거의 모두"란 뜻. <原老>에는 '底似'인데 "대단히, 의외로"의 뜻이다. 원래 이 단어는 '抵死'로 쓰이면서 '必死'의 의미를 가졌으나 후에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9) '肥'는 고기의 비계를 말하며, '肥肉'이다. 살코기는 '瘦肉'이라고 한다.
10) '肋條'는 "갈빗대"를 가리킴. <原老>에서는 '脇條'로 쓰였음.
11) '打火'의 번역임. 주1 참조. '·블디·디'는 '·블 딛-(燃) + -이(명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불 피우기, 불 때기"의 뜻이다.
12) 'ᄇᆞᄅᆞᆷ 마·시·려'는 원문 '喝風那'를 직역한 것으로 원래 의미는 "바람을 마시겠는가?"란 뜻이다. 여기서는 "그것도 못하면 굶어 죽지 않겠나?"란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 주2 참조.

사·라 :가·마.

[主] :너 ·차·반 사·라 가·거·든 ·이 ᄇᆞ롬 ᄉᆞ·싓 짓[15] 도·마 우·희[16] 도·틔 고·기 사·라 가·라. ·이 오놀 주·긴 :됴·ᄒᆞᆫ 도틔 고·기·라.

[漢] :언·머·의 ᄒᆞᆫ 근고?

[主] ·스·므 :낫 :돈·애 ᄒᆞᆫ 근·시·기·라.

[漢] 너 쥬신·하! ·즉·재 :날 :위·ᄒᆞ·야 사·라 가·라. ᄒᆞᆫ 근 고·기·를 :사·듸 ᄀᆞ·장 ·술·지·니·란[17] :말:오 ·넙·발·치[18] 조·ᄎᆞᆫ[19] 고·기·를 ·사·다·가 ·편 :굵·게 사·ᄒᆞ·라 봇·가 ·오·라.

(老諺) 제15화 네 ᄲᆞᆯ리 밥을 지으라

[主] 나그ᄂᆡ네 네 블 ᄡᅵᆺ기[20] ᄒᆞᄂᆞᆫ다? 블ᄡᅵᆺ기 못ᄒᆞᄂᆞᆫ다?

[漢] 내 블 ᄡᅵᆺ기 못ᄒᆞ고 ᄇᆞ롬 마시랴! 네 ᄲᆞᆯ리 다ᄉᆞᆺ 사ᄅᆞᆷ의 밥을 지으라.

---

13) ':서 ·긊 ᄀᆞᆯ·잇 ·ᄯᅥᆨ'은 ':서 ·근(3斤) + -ㅅ(사이 ㅅ) + ᄀᆞᆯ·잇 ·ᄯᅥᆨ(가래떡)'의 형태구성으로 "세 근어치 가래떡"이란 뜻.

14) '·차·반'은 "음식". "饌 반찬 찬 膳 챠반 선"(『新增類合』 上:30).

15) 'ᄇᆞ롬 ᄉᆞ·싓 짓 도·마'는 'ᄇᆞ롬(壁) + ᄉᆞ·ᅀᅵ(間) + -ㅅ(사이 ㅅ) + 집(家) + -ㅅ(사이 ㅅ) + 도·마(案)'의 형태구성으로 "벽을 사이에 둔 이웃집의 도마"란 뜻이며 '집(家) + -ㅅ(사이 ㅅ) + 도·마'에서 "짓 도·마"가 된 것은 '사이 ㅅ' 앞 체언의 받침이 없어지는 15~16세기 국어의 음운 현상이다. 제14화 주18 참조. 'ᄇᆞ롬 ᄉᆞ·싓 짓 도·마'는 원문 '間壁肉案'을 직역한 것인데 직역을 하다보니 알기 어렵게 되었다. <老諺>에서는 "ᄇᆞ롬 ᄡᅵᆺ 집 도마"로 되었다. 주6 참조.

16) '도·마 우·희'는 원문 '肉案'을 언해한 것으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전시한 곳을 '도마'라고 하고 "(정육점) 도마 위에 있는 (고기)"란 뜻으로 쓴 것이다. '肉案'의 '案'이 '도마'인 것은 "案 글월 안 文案又書案 셔안 又机案 도마"(『訓蒙字會』(초간본, 상:18)을 참조.

17) 'ᄀᆞ·장 ·술·지·니·란'은 "十分肥的"을 직역한 것으로 'ᄀᆞ·장(十分) + ·술·지-(肥) + -ㄴ(관형사형) +이(형식명사) + ·란'의 형태구성으로 "거의 전부가 비계인 것은"의 뜻이다.

18) '·넙·발·치'는 '갈비'를 말함. "肋 넙발치 륵 俗稱肋扇肋骨"(『訓蒙字會』(초간본, 상:13).

19) '조·ᄎᆞᆫ'은 "조출ᄒᆞᆫ"으로도 쓰며 "깨끗한"의 뜻이다.

20) <飜老>에서는 '·블 디·디'임.

[主] 네 므슴 밥을 머글다?

[漢] 우리 다ᄉᆞᆺ 사ᄅᆞᆷ에 서 근 ᄀᆞᆯ릐ᄯᅥᆨ[21] ᄆᆡᆼ글라. 나는 반ᄎᆞᆫ[22] 사라 가마.

[主] 네 반찬 사라 가거든 이 ᄇᆞ롬 ᄡᅵᆺ집[23] 도마엣[24] 猪肉을[25] 사라 가라. 이 오놀 주긴 됴ᄒᆞᆫ 猪肉이라.

[漢] 언머의 ᄒᆞᆫ 근고?

[主] 스므 낫 돈에 ᄒᆞᆫ 근식이라.

[漢] 너 主人아! 이믜셔[26] 나를 위ᄒᆞ여 사라 가라. ᄒᆞᆫ 근 고기를 사되 ᄀᆞ장 술지니란 말고 넙팔지 브튼[27] 고기를 사다가 편 굵게 싸흐라 봇가 가져 오라.

(現代譯) 제15화 자네 빨리 밥을 지어라

[점주인] 나그네들, 당신들 불 땔 줄 아는가, 불 땔 줄 모르는가?

[중국인] 내가 불 땔 줄 모르면 굶으란 말인가? 주인, 빨리 다섯 사람 분의 밥을 지으시게.

[점주인] 당신들 무슨 밥을 먹겠는가?

[중국인] 우리 다섯 사람에게 세 근 분의 가루 떡을[28] 만들게. 나는 반찬을 사러 가마.

[점주인] 당신이 반찬을 사러 가신다면 바로 옆집 정육점에 돼지고기를 사러 가시오. 오늘 잡은 좋은 돼지고기이거든요.

[중국인] 얼마에 한 근인고?

---

21) <飜老>에서는 ':서 ·긊 ᄀᆞᆯ·잇 ·ᄯᅥᆨ'임.

22) <飜老>에서는 '·차·반'임.

23) <飜老>에서는 'ᄉᆞ·싓 짓'임.

24) <飜老>에서는 '도·마 우·희'임.

25) <飜老>에서는 '도·틔 고·기'임.

26) <飜老>에서는 '·즉·재'임.

27) <飜老>에서는 '·넙·발·치 조·ᄎᆞᆫ'임.

28) 원문 '餠'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만들어 굽거나 찐 것이다. "떡"이란 뜻은 아니다.

[점주인] 스무 돈에 한 근씩입니다.

[중국인] 당신 주인 양반! 지금 나를 위하여 사러 가시오. 한 근 고기를 사되 거의가 비계인 것은 말고 갈비 살로 깨끗한 고기를 사다가 크게 썰어서 볶아주게.

原文 제16화 炒肉

[漢] 主人家, 迭不得[1]時, 咱們火伴裏頭, 教一箇自炒肉.

[高] 我是高麗人, 都不會炒肉.

[漢] 有甚麽難處? 刷了鍋着,[2] 燒的鍋熱時, 着上半盞香油,[3] 將油熟了時, 下上肉, 着些塩, 着筯子攪動, 炒的半熟時, 調上些醬水,[4] 生葱, 料物[5]拌了. 鍋子上盖覆了, 休着出氣, 燒動火, 一霎兒熟了.

[高] 這肉熟了. 你嘗看, 鹹淡如何?

[漢] 我嘗得, 微微的有些淡, 再着上些塩着. 主人家, 餅有了不曾?

[主] 將次有了. 你放卓兒先喫, 比及[6]喫了時, 我也了了.

---

1) '迭不得'은 "시간에 대지 못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문맥으로 보아 "늦을 것 같다"의 뜻으로 쓰였다.

2) '刷了鍋着'의 '鍋'는 '냄비'가 맞겠으나 당시에는 솥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솥"으로 번역하였다. <飜老>의 '·가·마'로 언해하였다.

3) '香油'는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참기름'을 말한다. <飜老>에는 '·ᄎᆞᆷ기·름'으로 되었다.

4) '醬水'는 "된장의 국물"로 보인다. 명(明) 高濂(고렴)의 『준생팔전(遵生八錢)』(권11) '소골어(酥骨漁)'에 "생선을 처리한 후, '醬水'와 술, 紫蘇의 잎 등을 넣고 삶는다"는 기사가 있다. 이 책에는 '醬油'도 있어서 이것이 간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醬水'는 "된장 국물"로 볼 수밖에 없다.

5) '料物'은 "조미료, 양념"을 말함.

6) '比及'은 "(그 때쯤)이 될 때까지"의 뜻이다.

飜老 제16화 고기 봇기

[漢] 쥬신·하! 밋·디 :몯ᄒᆞ·거·든[7] ·우·리 :버듸 듕에 ᄒᆞ나 ·ᄒᆞ·야[8] :제 고·기 봇·게 ᄒᆞ·라.

[高] ·나·ᄂᆞᆫ[9] 高麗ㅅ :사·ᄅᆞ·미·라 :다 고·기 봇·기 모·로노·라.

[漢] ᄆᆞ·슴 어·려·운 ·고·디 이시·리·오? 가·마 긁싯고,[10] ·가·마·애 ·블 디:더 :덥·거·든 :반 ·잔:만 ·ᄎᆞᆷ기·름 두·워, 기·르·미 닉거든 고·기 녀·허 두의·저티·며,[11] 소곰 두·고 ·져·로[12] 두의저·텨 봇·가 :반·만 닉거·든 :쟝·믈·와 ·파·와 ·약·돌[13] ·빠 노·하[14] 젓·고 가맛 우흘[15] 둡·고, :김 나·게 :말·오 ·블 디·더 두·면 아·니 ·한[16] ᄉᆞ·ᅀᅵ·예 닉ᄂᆞ·니·라.

[高] ·이 고·기 닉거·다. :네 ·맛보·라. ·ᄧᆞ·녀 슴거·우·녀? :엇·더ᄒᆞᆫ·고?

[漢] ·내 ·맛보·과라. :져·기 슴거·운 ·주·리 잇다. 다·시 :져·기 소곰 두·라. ·쥬신·하 ·떡 잇ᄂᆞ·녀? :몯 ·ᄒᆞ·얏ᄂᆞ녀?[17]

[主] 쟝·춧 이시·리·라. :네 상 노·코 몬져 머·그·라. 머·글 ·만 다ᄃᆞᄅᆞ·면 나·도 ᄆᆞ·ᄎᆞ·리로·다.[18]

---

7) '밋·디 :몯ᄒᆞ·거·든'은 "迭不得時"의 번역으로 "미치지 못하면, 시간에 대지 못하면"의 뜻이다. '迭不得'에 대하여 주1 참조.

8) '·ᄒᆞ·야'는 "시켜서"의 뜻.

9) '·나·ᄂᆞᆫ'은 '我(是)'를 직역한 것으로 실제로는 '우리는'이 되어야 한다.

10) '긁싯고'는 "刷了(鍋着)'의 직역으로 '긁-(刷) + 싯-(洗) + -고(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두 어간이 직접 결합한 복합동사 형태를 보인다. "긁어서 씻고"의 뜻이다.

11) '두의·저티·며'는 "뒤집으며"의 뜻.

12) '·져·로'는 "젓가락으로"의 뜻.

13) '·약·돌'은 '料物'의 번역으로 '양념들'을 말함. '料物'에 대하여는 주5 참조.

14) '·빠 노·하'는 "타서 놓다, 섞어 놓다"의 뜻. '·쁘-(拌) + -아(연결어미) + 놓-(置) +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임.

15) '가맛 우ㅎ'은 '가마(鍋) + -ㅅ(무정체 속격) + 우ㅎ(覆)'의 형태구성으로 '솥뚜껑'을 말함.

16) '아·니 ·한'은 "많지 않은, 길지 않은"의 뜻.

17) ':몯 ·ᄒᆞ·얏ᄂᆞ녀'는 '不曾'에 대한 직역이다. "아직 되지 않았느냐"의 뜻이다.

18) 'ᄆᆞ·ᄎᆞ·리로·다'는 "마칠 것이다"의 뜻. "'가루떡(餠)'을 만드는 일이 마칠 것이

(老諺) 제16화 고기 봇기

[漢] 主人아 밋처 못ᄒᆞ거든 우리 벗 듕에 ᄒᆞᆫ나ᄒᆞ로 ᄒᆞ여 손조 고기 봇게 ᄒᆞ쟈

[高] 나ᄂᆞᆫ 高麗ㅅ 사ᄅᆞᆷ이라 다 고기 봇기 아디 몯ᄒᆞ노라

[漢] 므슴 어려온 고디 이시리오 가마 긁싯고 블 찌더 가매 덥거든 반 잔 춤기름을 두어 기름이 닉거든 고기 녀허 뒤이즈며 져기 소곰 두고 저로 뒤저어 봇가 반만 닉거든 쟝믈의 파와 교토를 빠 노하 섯고 가마 두에 덥고 김나게 말고 블 찌더 ᄒᆞᆫ 디위만 ᄒᆞ면 닉ᄂᆞ니라

[高] 이 고기 닉거다 네 맛보라 鹹淡이 엇더ᄒᆞ뇨

[漢] 내 맛보니 져기 슴거옴이 잇다 다시 져기 소곰 두라 主人아 썩 잇ᄂᆞ냐 몯ᄒᆞ얏ᄂᆞ냐

[主] 쟝ᄎᆞ 이시리라 네 상 노코 몬져 머그라 머글만 다ᄃᆞ라면 나도 ᄆᆞᆺᄎᆞ리라

(現代譯) 제16화 고기 볶는 방법

[중국인] 주인아저씨! 시간에 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동행 가운데 하나를 시켜서 그가 고기를 볶게 하시오.

[고려인] 우리는 고려 사람이라 다들 고기 볶는 것을 모릅니다.

[중국인] 뭐 어려울 게 있겠소? 솥을 긁어 씻고 가마솥에 불을 때어서 뜨거워지면 반잔쯤 참기름을 붓고 기름이 익거든 고기를 넣고 뒤집으며 소금을 치고 젓가락으로 뒤집어 볶아서 반쯤 익으면 된장을 푼 물과 생 파, 양념을 타서 넣고 다시 젓게. 그리고 솥뚜껑을 덮고 김이 나가지 않게 하고 불을 지펴두면 멀지 않은 사이에 익는다네.

다"의 뜻.

[고려인] 이 고기가 다 익었소. 당신 맛 좀 보시오. 짠가요? 싱거운가요? 어떤가요?

[중국인] 내가 맛을 보겠소. 약간 싱거운 것 같네. 다시 조금 소금을 넣게. 주인아저씨, 떡(餠)은 다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점주인] 이제 곧 됩니다. 당신들 상 놓고 먼저 드시오. 먹을 때쯤 되면 나도 (떡) 만드는 것을 마칠 것입니다.

(原文) 제17화 盤纏

[漢] 主人家, 我明日五更頭[1]早行. 咱們筭了房錢火錢[2]着. 我這一宿人馬, 盤纏通該多少?

[主] 你稱了三斤麵, 每斤十箇錢, 該三十箇錢. 切了一斤猪肉, 該二十箇錢, 四箇人,[3] 每人打火, 房錢十箇錢, 該四十箇錢, 黑豆六斗, 每斗五十箇錢, 該三百箇錢, 草十一束, 每束十箇錢, 該一百一十錢, 通該五百箇錢.

[漢] 我草料麵, 都是你家裏買來的, 你減了些箇如何?

[主] 罷罷, 只將四百五十箇錢來.

[漢] 旣這般時, 火伴你三箇, 一發都出了着. 記着數目, 到北京時, 一發[4]筭除.

---

1) '更頭'는 "경쯤"이다. 경(更)은 하루 밤을 2시간씩 다섯으로 나누고, 1경에서부터 5경까지 센다. 오경(五更)은 밤이 끝날 무렵, 즉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를 말한다. '更頭'는 경(更)의 구어적인 말투이거나 혹은 오경(五更)의 첫머리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일지 모른다.

2) '房火錢'은 '房錢'(방 값)과 '打火錢'(연료비)을 가리킨다. 연료비는 식사의 재료값을 따로 지불했기 때문에 주로 땔나무 값을 말한다. 언해문에서는 "밥 지은 값"으로 하였다. 다음의 '打火房錢'도 마찬가지다.

3) '四箇人'은 고려인 3명과 중국인 1명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제12화에서는 고려인 주인공과 그의 고종사촌 김(金), 이종사촌 이(李), 그리고 동네 사람 조(趙)가 있어 고려인이 4명이고 왕(王)이란 중국인이 하나 있어서 모두 다섯이었다. 여기서 한 사람 모자란 것은 고려인 주인공과 동네 사람인 조(趙)씨가 추가된 것을 잊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제58화 참조.

4) '一發'은 "같이, 더더욱, 차라리" 등의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같이"라는 뜻으

[高] 那般時, 我都與他.

(飜老) 제17화 우리 집삭시며 밥 지은 갑돌 혜져

[漢] ·쥬신·하! ·내 너·실 :오·경두[5]·에 ·일 :가·리·라. ·우·리 집삭·시·며 ·밥 지은 ·갑·돌 :혜·져. ·우·리 이 ᄒᆞᆯ랏·밤 자·기·에 :사·롬·과 ᄆᆞᆯ·돌·해 ·쁜 거·시 모·도·와 :언·맨·고?

[主] :네 ᄃᆞ·로·니[6] :서 ·긼 ᄀᆞᆯᄋᆡ[7] ·ᄆᆡ ᄒᆞᆫ 근·에 :돈 ·열·시·기·면 ·ᄒᆞ·요·니 :돈·이 셜·흐니· 오. 사·ᄒᆞ로·니 ᄒᆞᆫ ·근 猪肉·에 ·ᄒᆞ·요·니 :돈 ·스·므 :나·치·오. :사·롬 :네·헤[8] :ᄆᆡ ᄒᆞᆫ :사·ᄅᆞ:ᄆᆡ게 집·갑 ·븘·갑·시 :돈 ·열·히·니 ·ᄒᆞ·요·니 :돈 마·은 :나·치·오. 콩 엿 ·마·래 :ᄆᆡ ᄒᆞᆫ 마·래 :돈 :쉰·시·기·니[9] ·ᄒᆞ요·니 :돈 삼·빅 :나·치오. ·딥 ·열 ·ᄒᆞᆫ 무·세 :ᄆᆡ ᄒᆞᆫ 무·세 ·돈 열·시 기·니, ·ᄒᆞ·요·니 :돈 ·일·빅· 열·히·로소·니, :대·되 :돈 五百 :나·치 로·다.

[漢] ·우·리 ·딥·과 콩·과 ᄀᆞᆯ·을 :다 네 지·븨 ·와 산 거·시·니 :네 :져·그·나 더·로·딕 :엇·더ᄒᆞ·뇨?

[主] ·두·워 ·두·워[10] :돈 四百 :쉰 ·낫·만 가·져·오·라

[漢] 이·믜 ·이·러·면 :버·다 너·희 ·세·히 홈·ᄢᅴ :다 :내오 :수 더·거 둣다·가 北京·의 가·면 홈·ᄢᅴ :혜·여 :덜 거·시·라.

[高] 그·리·면 ·내 :다 ·더·를 :주·마.

로 사용되었다.

5) ':오·경두'는 "五更頭"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1을 참조.

6) ':네 ᄃᆞ·로·니'는 '你稱了'를 언해한 것으로 "네가 단 것이, 네가 측량한 것이"의 뜻. '너 + -ㅣ(주격) ᄃᆞᆯ-(稱) + -오-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임.

7) ':서 ·긼 ᄀᆞᆯᄋᆡ'는 ':서(三) + ·근(斤) + -ㅅ(속격) + ᄀᆞᄅᆞ(粉) + -ᄋᆡ(처격)'의 형태구성으로 "세 근의 가루에"의 뜻.

8) ':사·롬 :네·헤'는 주3 '四箇人' 참조.

9) '돈 :쉰·시·기·니'는 "쉰 돈씩이니"의 뜻.

10) '·두·워 ·두·워'는 '罷罷'를 언해한 것으로 "그만두자, 끝내자"의 뜻이다.

(老諺) 제17화 우리 집의 잔 갑과 밥지은 갑 혜쟈

[漢] 主人아! 내 닉일 오경 두에 일 갈 거시니 우리 집의 잔 갑과[11] 밥지은 갑 혜쟈. 우리 이 ᄒᆞᆯ랏밤 잔 人馬에[12] 쁜 거시 통ᄒᆞ여[13] 혀오니 언머고?

[主] 네 ᄃᆞ론 서 근 ᄀᆞᄅᆞ는[14] 每 斤에[15] 열 랏 돈 식ᄒᆞ니[16] 혀오니 셜흔 낫 돈이오 싸흔[17] ᄒᆞᆫ 근 猪肉에 혀오니 스므 낫 돈이오[18]사롬 네헤 每人에[19] 집 갑 블 ᄡᅡᆸ시 열 랏 돈이니 혀오니 마은 낫 돈이오 거믄 콩 엿 말엔 每斗에[20] 쉰 낫 돈이니 혀오니 三百 낫 돈이오 딥 열 ᄒᆞᆫ 뭇센 每束에 열 랏 돈이니 혀오니 돈이 百 열히로소니 대되 五百 낫 돈이로다.

[漢] 우리 딥과 콩과 ᄀᆞᆯ롤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네 져기 더로미 엇더ᄒᆞ뇨?

[主] 두워 두워 그저 四百 쉰 낫 돈을 가져 오라.

[漢] 이믜 이러면 벗아 너희 세히 홈ᄢᅴ 다 내고 數目[21] 더것다가[22] 北京의 가든 홈ᄢᅴ 혀어 더쟈.[23]

[高] 그러면 내 다 더를 주마.

---

11) <飜老>에서는 '집삭·시·며'임.

12) <飜老>에서는 ':사·롬·과 ᄆᆞᆯ·돌·해'임.

13) <飜老>에서는 '모·도·와'임.

14) <飜老>에서는 ':서 ·긼 ᄀᆞᆯᄋᆡ'임.

15) <飜老>에서는 '·ᄆᆡ ᄒᆞᆫ 근·에'임.

16) <飜老>에서는 ':돈 ·열·시·기·면'임.

17) <飜老>에서는 '사·ᄒᆞ로·니'임.

18) <飜老>에서는 ':돈 ·스·므 :나·치·오'임.

19) <飜老>에서는 ':ᄆᆡ ᄒᆞᆫ :사·ᄅᆞ:ᄆᆡ게'임.

20) <飜老>에서는 ':ᄆᆡ ᄒᆞᆫ 마·래'임.

21) <飜老>에서는 ':수'임.

22) <飜老>에서는 '더·거 둣다·가'임.

23) <飜老>에서는 ':덜 거·시·라'임.

現代譯 제17화 우리 방값과 불 값을 계산하자

[중국인] 주인아저씨! 우리는 오경(五更) 쯤에 일찍 갈 것이라. 집 삯이며 밥 지은 값을 계산합시다. 우리 하룻밤 잤는데 사람과 말들에 쓴 것이 모두 얼마인가?

[점주인] 당신이 단 세 근 밀가루를 한 근에 돈이 열씩이면 계산하여 설흔 돈이고 잘게 썬 돼지고기 한 근을 계산하면 스무 돈이고 사람 넷에 매 한 사람에게 집 값, 불 값이 열 돈이니 계산하면 마흔 돈이고 콩 여섯 말에 매 한 말에 쉰 돈씩이니 계산하면 일백 열 돈이니 모두 오백 돈이로다.

[중국인] 우리가 짚과 콩과 밀가루는 모두 당신네 집에 와서 산 것이니 조금 깎아주면 어떤가?

[점주인] 됐습니다. 사백 쉰 돈만 가져오시오.

[중국인] 이미 이렇다면 친구들아, 당신들 세 사람이 함께 다 내시게. 액수를 적어 두었다가 북경(北京)에 가면 함께 계산하여 덜기로 하지.

[고려인] 그러면 내가 다 저 사람을 주겠소.

原文 제18화 餵馬草, 鋪藁薦

[漢] 火伴, 你將料1)撈出來, 冷水裏拔2)着, 等馬大控3)一會, 慢慢的喂着. 初

1) '料'은 '초료(草料)'의 '료(料)'를 말하는데 말 먹이는 꼴과 곡식을 함께 주는 것으로 제17화에서 계산할 때에 곡식은 흑두(黑豆), 즉 검정콩이었으니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보기로 한다. 이 사람들은 서속 짚으로 된 꼴과 검정콩을 함께 삶아서 여물을 쑤어 말먹이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쑨 여물을 먹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 '拔'은 삶은 콩을 건져내어 식히기 위해 물에 살짝 담그는 것을 말한다.
3) '控'은 말을 "쉬게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四聲通解』에 "지금 휴식하는 것을 속

喂時. 只將料水4)拌與他, 到五更一發都與料喫. 這般時, 馬們分外喫得飽. 若是先與料時, 那馬只揀了料喫, 將草都抛撒了. 勞困裏休飲水, 等喫一和5)草時飲. 咱們各自睡些箇, 輪着起來勤喂馬. 今日是二十二, 五更頭6)正有月明.

雞兒叫, 起來便行. 主人家, 點箇燈來. 我整理睡處.

[主] 這的燈來了.

[漢] 壁子上掛着. 這般精7)土炕上怎的睡? 有甚麽藁薦, 將幾領來.

[主] 大嫂8)! 將藁薦席子來, 與客人們鋪.

[嫂] 席子沒, 這的三箇藁薦與你鋪.

飜老 제18화 ᄆᆞᆯ 머기고 지즑과 돗 ᄭᆞᆯ라

[漢] :버·다! :네 콩·을 건:뎌:내·여다·가 ·ᄎᆞᆫ ·므·레 거:텨9) ᄆᆞ·리 ᄒᆞᆫ 디·위 ᄀᆞ·장 :쉬·어·든 기·들·워 날회여 머·기·라. ·처·ᅀᅥᆷ 머길 저긘 :다·ᄆᆞᆫ

된 말로 控이라 한다"는 설명이 있다. 다만 '控'은 "말의 고삐를 잡는다"는 뜻인데 그것이 어찌 "쉰다"는 뜻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4) '料水'는 곡식을 삶은 물이다. '料水'에 꼴을 섞어 여물을 만드는데 이 문장에서는 꼴(草)이 빠졌다. 『朴通事』 上에 "爲頭兒只半筐兒草, 着攪草棍拌饋他些料水喫-처음에 꼴을 반 바구니 넣고 꼴을 젓는 막대기로 '곡식 삶은 물'(料水)과 뒤섞어서 먹이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초(馬草)가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여물은 꼴에 곡식 삶은 물을 섞어 말이 먹기 좋도록 한 것이다.
5) '一和'는 현대어의 '一會儿'(오래간만)과 같으나 여기서는 문맥상 "잠시"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6) '五更頭'에 대하여는 제17화 주1 참조.
7) '精'은 "드러남"이란 뜻으로, "순수한"이란 의미에서 변한 것이다.
8) '大嫂'의 '嫂'는 "형수"를 말하고 '대수(大嫂)'는 "맏형수"라는 뜻인데 원곡(元曲) 등에 보이는 원대(元代) 한어(漢語)에서는 자신의 처를 '대수(大嫂)'라고 부른다. 자기 동생 입장에서 처를 부르는 셈이다. 한국에서 자기 남편을 아이 입장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서는 점주인의 부인을 높여 부른 말이다.
9) 원문 '拔'의 번역으로 '거텨'를 썼는데 이것은 '(물건을 찬 물에 넣어서)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러한 뜻을 언해에서 의역하여 'ᄎᆞᆫ 므레 거텨'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찬 물에 거쳐서"이다. 주2 참조.

콩·므·를다·가 버·므려 주·고 :오경[10]·의 다ᄃᆞᆮ거·든 홈·ᄢᅴ 콩을 ·다 ·주·워 머·기·라. 이리ᄒᆞ·면 ᄆᆞᆯ돌·히 :분·외·로[11] 머·구믈 빅브르·려니·와[12] ·ᄒᆞ·다·가 몬·져 콩·을 주·면 그 ᄆᆞ·리 다·ᄆᆞᆫ 콩·만 ᄀᆞᆯ희여 먹·고 ·딥 프·란:다 허·텨[13] 더디ᄂᆞ니·라.[14] ᄌᆞᆺ가 ·ᄒᆞ·ᄂᆞᆫ[15] ᄃᆡ·란 믈 머·기디 말라. ᄒᆞᆫ 번 버·므·린 ·딥 머·거든 기들워 믈 머·기라. ·우·리 ·각·각 :져·그·나 자·고 돌·여 니러[16] ᄇᆞᄌᆞ러니 ᄆᆞᆯ 머·기·져. 오·ᄂᆞ·리 ·스·므 이·트·리로 소·니 새배[17] :졍·히 ·ᄃᆞᆯ 불·ᄀᆞ·리로·다. ᄃᆞᆰ :울·어·든 니·러 ·즉·재 가·져.

·쥬ᅀᅵᆫ·하! ·블 ·혀 가·져 오·고·려. ·우·리 잘 ·ᄃᆡ 서·러 ·보·아지·라.[18]

[主] ·이 ·블 ·오·나·다

[漢] ᄇᆞᄅᆞ·매[19] :걸·라. ·이·런 ᄆᆡᆫ ᄒᆞᆰ 구·드·레 :엇·디 자·료? :아·ᄆᆞ·란 ·딥 지·즑[20] 잇거·든 :두·ᅀᅥ ·닙 가·져·오·라.

[主] ᄆᆞᆮ ·아·ᄌᆞ·미![21] 지·즑·과 돗[22] 가·져다·가 나·그내·네 ·주·워 ·ᄭᆞᆯ·에 ᄒᆞ·라.

[嫂] 돗·근 ·업·거니·와 ·이 :세 지·즑·을 너 ·주어·든 ·ᄭᆞ·라ᄉᆞ·라.

(老諺) 제18화 ᄆᆞᆯ 머기고 지즑 ᄭᆞᆯ라

[漢] 벗아! 네 콩을 건뎌 내여다가 ᄎᆞᆫ 믈에 ᄌᆞᆷ가 ᄆᆞᆯ이 ᄒᆞᆫ 디위 ᄀᆞ장 쉬믈[23] 기드려 날호여 머기라. 처음 머길 제란 그저 콩믈을다가 버므려 주고 五更의 다ᄃᆞ라[24] 홈ᄢᅴ 콩을 다 주어 머기라. 이리 ᄒᆞ면 ᄆᆞᆯ들히 分外로 머거 빅브려니와[25] ᄒᆞ다가 몬져 콩을 주면 그 ᄆᆞᆯ이 다만 콩만 ᄀᆞᆯ희여 먹고 딥플다가 다 헤텨 ᄇᆞ리ᄂᆞ니라. ᄌᆞᆺ바홀 제란[26] 믈 머기디 말고 ᄒᆞᆫ번 버므린 딥 머거든 기ᄃᆞ려 믈 머기라. 우리 각각 져기 자고 돌려 니러 ᄇᆞᄌᆞ러니 ᄆᆞᆯ 머기쟈. 오ᄂᆞᆯ은 스므 이틀이니 새배 졍히 ᄃᆞᆯ이 ᄇᆞᆰ글이라.[27] ᄃᆞᆰ 울거든 니러 즉제 가쟈.

主人아! 등잔블 켜 오라.[28] 우리 잘 ᄃᆡ를 서럿쟈.[29]

[主] 이 등잔블 오나다.

[漢] ᄇᆞ롬애 걸라. 이런 ᄆᆡᆫ ᄒᆞᆰ구들에 엇디 자리오? 아므란 딥 지즑 잇거든 여러 닙[30] 가져 오라.

[主] ᄆᆞᆺ아줌아! 딥 지즑과 삿글[31] 가져다가 나그내들 주어 ᄭᆞᆯ게 ᄒᆞ라.

[嫂] 삿근[32] 업거니와 이 세 낫 지즑을 너를 주니 ᄭᆞᆯ라.[33]

---

10) ':오경'은 '오경(五更)'을 말함. 제17화 주1을 참조.
11) ':분·외·로'는 원문 '分外'를 직역한 것으로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의 뜻이다.
12) '머·구믈 빅브르·려니·와'는 원문 '喫得飽'를 직역한 것으로 원문에 맞추어 "먹음을 배부르게 하려니와"와 같은 표현이 되었다. 우리 문법에 맞추면 "배부르게 먹으려니와"가 될 것이다.
13) '허·텨'는 '허티-(撒)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헤치다"의 뜻. <老諺>에서는 '헤텨'이므로 '허티- > 헤티- > 헤치-'의 변화를 보인다.
14) '더디ᄂᆞ니·라'는 "던지느니라"의 뜻.
15) 'ᄌᆞᆺ가·ᄒᆞ·ᄂᆞᆫ'은 'ᄌᆞᆺ가·ᄒᆞ-(勞) + -·ᄂᆞ-(현재)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힘들어하는"의 뜻.
16) '돌·여 니러'는 원문 '輪着起來'를 언해한 것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서"의 뜻임.
17) '새배'는 '새벽'임.
18) '서·러 ·보·아지·라'는 원문 '整理'의 번역으로 '설-(整) + -·어(연결어미) + ·보-(見) + -·아지·라(願望形)'의 형태구성이다. "정리하다"의 뜻이며 '설거지하다'의 '설-'의 어원이기도 하다. <老諺>에서는 '서럿쟈'임.
19) 'ᄇᆞᄅᆞ·매'는 'ᄇᆞ롬(壁) + ·애'의 형태구성으로 "벽에"의 뜻.
20) '·딥지·즑'은 "짚으로 짠 거적, 짚자리"를 말함.
21) 'ᄆᆞᆮ ·아·ᄌᆞ·미'는 원문 '大嫂'의 번역으로 원 뜻은 "큰 형수"이나 여기서는 '맏아주머니, 큰 아줌마'의 뜻으로 쓰였음. 아마도 여관에서 주인이 여자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으로 보임.
22) '돗'은 '席子'의 번역으로 "돗자리"를 말함.

23) <飜老>에서는 ':쉬·어·든'임.
24) <飜老>에서는 '다ᄃᆞᆮ거·든'임.
25) <飜老>에서는 '머·구믈 빅브르·려니·와'임.
26) <飜老>에서는 'ᄌᆞᆺ가 ·ᄒᆞ·ᄂᆞᆫ ᄃᆡ·란'임.
27) <飜老>에서는 '·ᄃᆞᆯ 불·ᄀᆞ·리로·다'임.
28) <飜老>에서는 '블 ·혀 가·져 오·고·려'임.
29) <飜老>에서는 '서·러 ·보·아지·라'임.
30) <飜老>에서는 ':두·ᅀᅥ ·닙'임.
31) <飜老>에서는 '돗'임.
32) <飜老>에서는 '돗·근'임.
33) <飜老>에서는 '·ᄭᆞ·라ᄉᆞ·라'임.

現代譯 제18화 말 먹이고 거적 깔자

[중국인] 친구들아! 자네 콩을 건져내어 찬물에 담가서 말이 한 참을 충분히 쉬거든 기다려 서 천천히 먹이게. 처음 먹일 때에는 다만 콩 삶은 물을 버무려 주고, 오경(五更)이 다다르면 함께 콩을 다 주어서 먹이게. 그렇게 하면 말들이 분량 이외로 배부르게 먹는다네. 만일 처음부터 콩을 주면 말들이 콩만 골라 먹고 짚은 다 헤쳐 버린다네. 말이 지쳐 있을 때에는 물을 먹이지 말게. 한번 버무린 짚을 먹거든 기다려서 물을 먹이게. 우리 각자 조금씩 자고 차례로 일어나서 부지런히 말 먹입시다. 오늘은 스무 이틀이니까 새벽에는 꼭 달이 밝을 것일세. 닭이 울거든 일어나서 바로 갑시다.

주인아저씨! 불을 켜서 가져오시오. 우리 잘 곳을 치워보겠네.

[점주인] 여기 등불이 왔습니다.

[중국인] 벽에 걸게. 이런 맨 흙 구들에서 어찌 자겠나? 아무 것이나 짚 거적 있거든 두어 닙 가져오시오.

[점주인] 큰 아줌마! 짚 거적과 돗자리를 가져다가 나그네들 주어서 깔게 하시오.

[아줌마] 돗자리는 없거니와 이 세 거적자리를 당신들 드리니 깔아보세요.

原文 제19화 修橋

[漢] 主人家, 你種着火.[1] 我明日五更頭早行.

[主] 那般着, 客人們歇息. 我照覷了門戶, 睡也.

1) '種火'는 "불씨를 재에 묻어서 언제든지 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다. 『신노아(神奴兒)』「잡극(雜劇)」2折 '목양관(牧羊關)'에 "我與你種着火, 停着殘燈-당신을 위해 불을 묻어, 燈(등불)을 남겨두겠습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漢] 來! 來! 且休去! 我問你些話. 我先番北京來時, 你這店西 約二十里來地, 有一坐橋塌了來, 如今修起了不曾?

[主] 早修起了. 比在前高二尺,[2] 闊三尺, 如法[3]做的好.

[漢] 這們時, 我明日早只放心的去也.

[主] 你十分休要早行, 我聽得 前頭路澁.[4]

[漢] 爲甚麽有這般的歹人?

[主] 你偏不理會的.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飢荒的上頭, 生出歹人來.

[漢] 碍甚麽事? 我只是赶着這幾箇馬, 又沒甚麽錢本,[5] 那廝們待要我甚麽?

[主] 休這般說. 賊們怎知你有錢沒錢? 小心些還好.

飜老 제19화 ᄃᆞ리 고텨 잇ᄂᆞᆫ가?

[漢] ·쥬신·하! :네 ·블 무드·쇼·셔.[6] ·우·리 ᄂᆡ·실 :오·경두·에[7] ·나·가리·라.

[主] 그·리:호·마. 나·그·내:네 :쉬·라. ·내 문·들 ·보·ᅀᆞᆲ·피·고 :자·리·라.

[漢] ·오·나·라! ·오·나·라![8] 안·직 가디 :말·라! ·내 너ᄃᆞ·려 ·말·솜 무·러지·라.[9] ·내 몬젓 버·늬[10] 北京·의 녀·러올[11] 제 네 ·이 :뎜 셧녁 겨·틔

2) 1척(尺)이 약 30cm이니 '二尺'은 60cm에 해당한다.
3) '如法'은 "격에 맞아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금대(金代)의 이야기(판소리 같은 것)를 모아놓은 『동서상(董西廂)』(권5)에 "結束得極如法-옷차림은 격에 맞아 아주 훌륭함-"이라는 구절이 있다.
4) '澁'은 "껄끄럽다"의 뜻으로 "좋지 않다, 위험하다"란 의미로 쓴 것이다. <原老>에서는 '澁'을 썼는데 '澁'은 "사물이 정체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가는 길이 '澁', 또는 '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
5) '錢本'은 "돈, 밑천"이란 뜻으로 '本錢'과 같이 쓴다.
6) '블 무드쇼셔'는 '種着火'를 언해한 것이다. 다음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에 쓰려고 불씨를 묻는 것을 말한다.
7) ':오·경두·에'는 '五更頭에'의 한글 표기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17화 주1 참조.
8) '·오·나·라! ·오·나·라!'는 원문 '來! 來!'를 언해한 것으로 "(아직 가지 말고) 이리 오시오"의 의미다.
9) '무·러지·라'는 '묻-(問) + -어지-(願望形)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묻

거·스[12] :ᄉᆡ·십 :릿 ᄧᅡ·해 ᄒᆞᆫ ·곧[13] ᄃᆞ리 믈·어·디·여[14] 잇·더·니 ·이·제 고·텨 잇ᄂᆞᆫ·가? :몯·ᄒᆞ·얏ᄂᆞᆫ·가?

[主] 볼·셔 고·텨 잇ᄂᆞ·니 :아·리두·곤[15] :두 ·자·히 놉고 :석 ·자·히 어·위·오[16] ·법·다·이[17] ᄆᆡᆼ·ᄀᆞ·로·믈 :됴·히 ·ᄒᆞ·엿ᄂᆞ·니·라.

[漢] ·이·러·면 ·우·리 ᄂᆡ·실 ᄆᆞᅀᆞᆷ 노·하[18] 가·져.

[主] :네 ᄀᆞ·장 ·일[19] ·가·기 말·라. ·내 드·로·니 ᅀᅡᇁ·픠 :길[20] 어·렵·다 ·ᄒᆞᄂᆞ·다.

[漢] :엇디·ᄒᆞ·야 ·이·런 아·니·완ᄒᆞᆫ ·사·ᄅᆞ·미 잇ᄂᆞᆫ·고?

[主] :네 ·독·벼·리[21] 모·ᄅᆞ·ᄂᆞ고·나! 젼년브·터 하·ᄂᆞᆯ·히 ·ᄀᆞ·ᄆᆞ라 뎐·회[22] 거두·디 :몯·ᄒᆞ·야 간난ᄒᆞᆫ[23] ·젼·ᄎᆞ·로 아·니·완ᄒᆞᆫ[24] :사·ᄅᆞ·미 ·낫·ᄂᆞ니·라.

고 싶다, 물어 보겠다"의 뜻.

10) '몬젓 버·늬'는 "먼저 번에"의 고형.

11) '녀·러올'은 '녀-(行) + -러(연결어미) + 오-(來) + -ㄹ(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다니러 올 (때)"의 뜻이다.

12) '거·스'는 "거의"임. '거·싀'로도 쓰임.

13) 'ᄒᆞᆫ ·곧'은 원문 '一坐'를 언해한 것이지만, 원래 '坐'는 다리나 건물 등 큰 것을 세는 단위이다. 따라서 "한 곳"이 아니라 "(다리) 하나"의 뜻이다.

14) '믈·어·디·여'는 "무너지어"임. "믈·허·디·여"로도 쓰임.

15) ':아·리두·곤'은 ':아·리(前) + 두·곤(후치사, 비교를 나타냄)'의 형태구성으로 "전보다, 전에 비하여"의 뜻.

16) '어·위·오'는 "넓고 크고"의 뜻. '어·위-(闊) + ·오(연결어미 -고)'의 형태구성이다.

17) '·법·다·이'는 '如法'의 번역으로 "법대로, 제도에 맞게"의 뜻.

18) 'ᄆᆞᅀᆞᆷ 노·하'는 원문 '放心'의 직역으로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고"의 뜻.

19) '·일'은 "일찍(부사)"임.

20) 'ᅀᅡᇁ·픠 :길'은 원문 '前頭路'의 번역으로 "앞으로 가는 길"을 말함.

21) '·독·벼·리'는 '偏'의 번역으로 "유달리"의 뜻. '독별이, 독별히'로도 쓰임으로 '獨別히'가 아닌가 한다.

22) '뎐·회'는 한자어로 '田禾(추수, 수확)'을 말함.

23) '간난ᄒᆞᆫ'은 '艱難ᄒᆞᆫ'으로 "가난하다, 힘들고 어렵다"의 뜻.

24) '아·니·완ᄒᆞᆫ'은 "사납다, 난폭하다, 나쁘다"의 뜻으로 '아·니·환ᄒᆞ다'로도 쓰임. 원문 '歹人'을 "아·니·완ᄒᆞᆫ :사·ᄅᆞ·미"로 번역하였다. "生分忤 아니완ᄒᆞᆫ 놈"(『譯語類解』 上:31).

[漢] ᄆᆞ던ᄒᆞ·니.[25] ·내 :다·몬 ·이 아·니 여·러 ᄆᆞᆯ 모·라가·며 ·ᄯᅩ :아ᄆᆞ·란 :쳔·도 :업·스·니 그·놈·ᄃᆞᆯ·히 :날 ᄒᆞ·야 ᄆᆞ·슴ᄒᆞ·료?

[主] ·이·리 니르·디 :말·라. 도ᄌᆞᆨ·ᄃᆞᆯ·히 네·의 :쳔 이시·며 :쳔 :업·슨 ·주·를 :엇·디 :알·리·오? :조·심·호·미·ᅀᅡ :됴·ᄒᆞ니·라.

(老諺) 제19화 ᄃᆞ리 이제 고텻ᄂᆞᆫ가?

[漢] 쥬신하! 네 블 무드쇼셔. 우리 ᄂᆡ실 오경두에 나가리라.

[主] 그리 호마. 나그내네 쉬라. 내 문들 보숣피고 자리라.

[漢] 오라! 오라![26] 아직 가디 말라! 내 너ᄃᆞ려 져기 말 무로리라.[27] 내 몬졋 번의 北京셔 올제 너희 이 뎜 셔 편[28] 계요[29] 二十里 ᄧᅡ히 ᄒᆞᆫ 곳 ᄃᆞ리 믈허뎌[30] 잇더니 이제 고텻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主] 볼셔 고텻ᄂᆞ니 在前에 比컨댄[31] 두 자히 놉고 석 자히 너ᄅᆞ니[32] 법다이 ᄆᆡᆼ글기ᄅᆞᆯ 됴히ᄒᆞ엿ᄂᆞ니라.

[漢] 이러면 우리 來日 일ᄌᆞ기 ᄆᆞ음 노하 가쟈.

[主] 네 ᄀᆞ장 일 가디 말라. 내 드ᄅᆞ니 앎픠 길히 머흐다[33] ᄒᆞ더라.

[漢] 엇디ᄒᆞ야 이런 사오나온[34] 사ᄅᆞᆷ이 잇ᄂᆞᆫ고?

[主] 네 독별이 모ᄅᆞᄂᆞᆫ고나! 젼년붓터 하ᄂᆞᆯ히 ᄀᆞᄆᆞ라 田禾ᄅᆞᆯ 거두디 못ᄒᆞ니 飢荒ᄒᆞᆫ[35] 젼ᄎᆞ로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이낫ᄂᆞ니라.

---

25) 'ᄆᆞ던ᄒᆞ·니'는 "괜찮네"의 뜻.

26) <飜老>에서는 '·오·나·라 ·오·나·라'임. 주8 참조.

27) <飜老>에서는 '·말·솜 무·러지·라'임.

28) <飜老>에서는 '셧녁 겨·틔'임.

29) <飜老>에서는 '거·스'임.

30) <飜老>에서는 '믈·어·디·여'임.

31) <飜老>에서는 ':아·리두·곤'임.

32) <飜老>에서는 '어·위·오'임.

33) <飜老>에서는 '어·렵·다'임.

34) <飜老>에서는 '아·니·완ᄒᆞᆫ'임.

35) <飜老>에서는 ':간난ᄒᆞᆫ'임.

[漢] 므스 일 걸리ᄭᅵ리오![36] 내 다만 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가며 ᄯᅩ 아므란 쳔도 업스니 그놈들히 우리ᄅᆞᆯ[37] ᄒᆞ여 므엇ᄒᆞ리오?

[主] 이리 니ᄅᆞ디 말라. 도적ᄃᆞᆯ히 네의 쳔 이시며 쳔 업ᄉᆞ믈 엇디 알리오? 조심호미 도로혀[38] 됴ᄒᆞ니라.

現代譯 제19화 다리는 고쳤는가?

[중국인] 주인아저씨! 당신은 불씨를 묻으시오. 우린 내일 오경(五更) 쯤에 나가겠소.

[점주인] 그렇게 하겠소. 손님들, 쉬십시오. 내가 문들을 보살피고 자겠습니다.

[중국인] 이리 오시오, 아직 가지 마시오. 당신에게 말씀 좀 묻겠네. 내가 먼저 번에 북경(北京)에 다녀올 때에 당신의 이 여관에서 서쪽 곁으로 거의 20리 지점의 다리 한 곳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고쳤소? 못 고쳤소?

[점주인] 벌써 고쳤습니다. 예전보다 두 자나 높고, 석 자가 넓어져서 규격에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중국인] 그러면 내일 안심하고 가겠구나.

[점주인] 당신들 그렇게 일찍 가지 마시오. 내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중국인] 어찌 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점주인] 당신들만 특별히 모르십니다 그려. 작년부터 하늘이 가물어서 수확을 걷지 못하여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36) <飜老>에서는 '므던ᄒᆞ·니'임.
37) <飜老>에서는 ':날 ᄒᆞ·야'임.
38) <飜老>에서는 ':조·심·호·미·ᅀᅡ'이고 '도로혀'가 없음. <老諺>에서는 원문 '還好'를 직역하였음.

[중국인] 괜찮소. 우린 다만 이 말 몇 마리 몰아가며 또 아무런 돈이 없으니 그 놈들이 나를 갖다가 어찌하겠는가?

[점주인]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도둑놈들이 당신이 돈이 있으며 없는 줄을 어찌 알겠소?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좋습니다.

原文 제20화 賊

[主] 我這裏前年[1]六月裏, 有一箇客人 纏帶[2]裏裝着一卷紙, 腰裏絟着, 在路傍樹底下歇凉睡. 被一箇賊到那裏見了, 只道是腰裏纏帶裏是錢物,[3] 生起歹心來.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把那人頭上 打了一下, 打出腦漿來死了. 那賊將那人的纏帶 解下來看時, 却是紙, 就那裏撇下走了. 官司檢了屍, 正賊[4]捉不住, 乾[5]把地主并左近平人[6]涉疑打拷. 後頭別處官司, 却捉住那賊, 發將來, 今年就牢裏死了.

飜老 제20화 도ᄌᆞ글 맛나다

[主] ·우·리 여·긔 젼년 ·류·워·릐 ᄒᆞᆫ 나·그·내 ·젼·대·예 ᄒᆞᆫ ·권 죠·ᄒᆡ·를 녀·허 허·리·예 ᄆᆡ·오 ·깃·ᄀᆞ·샛[7] 나모 미·틔 이·셔·셔 ·서·늘ᄒᆞᆫ ·ᄃᆡ

1) '前年'은 '지난 해, 작년'을 말함.
2) '纏帶'는 긴 주머니로서 허리에 매고 돈이나 작은 물건을 넣어두는 것으로 우리말에도 '전대(纏帶)'로 사용된다. 명대(明代) 이실(李實)의 『촉어(蜀語)』, 『수호전(水滸傳)』(제24회) 등에 쓰인 것으로 보아 원(元)·명대(明代)에 널리 쓰인 어휘로 보이며 우리말에도 차용되었다.
3) '錢物'은 돈이다. 『수호전(水滸傳)』(제22회)에 "朱仝은 스스로 약간의 錢物을 모아 閻婆에게 把與함"이라는 대목이 있다.
4) '正賊'은 진범인(眞犯人)을 말한다. 『원사(元史)』(권103) '형법(刑法)'에 "무릇 有司, 財物을 받아서 일부러 正賊을 놓아주고, 죄 없는 사람을 誣執하여 非法으로 拷訊함" 운운의 기사가 있다.
5) '乾'은 "쓸데없이, 애매하게" 등의 뜻으로 쓰였다.
6) '平人'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쉬·며·셔 ·자·더·니 ᄒᆞᆫ 도ᄌᆞ·글 맛·나, 게 ·와[8] 보·고 닐·오·ᄃᆡ 허·리·옛 ·젼·대·예 :쳔·니·라[9] ᄒᆞ·고 :모·딘 ᄆᆞᅀᆞᆷ :내·여 ·즉재 게·셔 ᄒᆞᆫ 무적[10] ·큰 :돌 가·져다·가 그 :사·ᄅᆞ·ᄆᆡ 머·리 우·희다·가 ᄒᆞᆫ 번 ·텨, ·골·치[11] 내·여 :죽거·늘 그 도ᄌᆞ·기 그 :사·ᄅᆞ·ᄆᆡ ·젼·대 가·져다·가 글어:내·여[12] 보·니 ·ᄯᅩ 죠·희어·늘 ·즉·재 게·셔 ᄇᆞ·리:고 도망커·늘 구:의[13] 屍身·을 :검·시ᄒᆞ·고 진·짓 도ᄌᆞ ·그·란[14] 잡·디 :몯·ᄒᆞ·고 ·쇽·졀:업·시[15] ·ᄯᅡᆺ:님·자[16]·와 겨·틧 평신·을다:가 의·심·ᄒᆞ·야 ·텨 져·주·니[17] :후·에 다ᄅᆞᆫ ᄃᆡᆺ 마ᅀᆞ·리[18] ·ᄯᅩ 그 도ᄌᆞ글 자바 보·내·니 올·히 ·옥·애·셔 주:그니·라.

(老諺) 제20화 도적을 만나다.

[主] 우리 여긔 前年 六月의 ᄒᆞᆫ 나그내 이셔 젼대에 ᄒᆞᆫ 권 죠히를 녀허 허리에 매고 길ᄭᆞ[19] 나모 밋 서늘ᄒᆞᆫ ᄃᆡ 쉬며 자더니 ᄒᆞᆫ 도적을 만나 게 와 보고 그저 니로ᄃᆡ 허리 젼대옛[20] 거시 이 錢物이라[21] ᄒᆞ여 사오나온 ᄆᆞ옴[22] 내여 즉제 게셔 ᄒᆞᆫ 덩이[23] 큰 돌흘 가져다가 그 사ᄅᆞᆷ의 머리 우흘다가 ᄒᆞᆫ 번 텨 골치 나 죽거ᄂᆞᆯ 그 도적이 그 사ᄅᆞᆷ의 젼대 가져다가 글러[24] 보니 ᄯᅩ 죠히매 즉제 게셔 ᄇᆞ리고 ᄃᆞ라나니[25] 구의 주검을[26] 검시ᄒᆞ고 진짓 도적은 잡디 못ᄒᆞ고 쇽졀업시 地主와[27] 겨틧 平人을다가 의심ᄒᆞ여 텨 져주더니 후의 다ᄅᆞᆫ ᄃᆡᆺ 마술이 ᄯᅩ 그 도적을 자바 보내니 올히 옥에셔 주그니라.

(現代譯) 제20화 강도를 만나다

[집주인] 우리 여기서 작년 6월에 한 나그네가 전대(纏帶)에 종이 한 권을 넣어 허리에 매고, 길가 나무 밑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자고 있었는데 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거기 와서 보고 말하기를 "허리의 전대에 돈이구나" 하고 모진 마음을 내어 즉시 거기서 큰 돌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한번 쳐서 뇌수가 나와 서 죽었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전대를 가져다가 끌러 보니 또한 종이거늘 즉시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는데 관청에서 시신을 검시(檢屍)도 하였지만 진범을 잡지 못하고, 애매한 땅임자(地主)나 근처의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여 고문까지 하였습니다. 후에 다른 곳의 관아(官衙)에서 그 강도를 잡아 보냈는데 금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7) '·깃·ᄀᆞ·ᅀᆡᆺ'은 원문 '路傍'을 언해한 것으로 '·길(路) + -ㅅ(무정체 속격) + ·ᄀᆞᇫ(傍) + ·애(처격) + ㅅ(속격)'의 형태구성으로 "길 가에의"의 뜻임.
8) '게 ·와'는 "(도적이) 거기에 와 (보고)"를 말함.
9) ':쳔·니·라'는 ':쳔(錢) + -·이·(서술격)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돈이라"의 뜻.
10) '무적'은 "무더기"의 뜻.
11) '·골·치'는 "뇌수(腦髓), 머리 골"을 말함. "腦 골치 뇌"(『訓蒙字會』 초간본, 上: 14).
12) '글어:내·여'는 '解下來'의 번역이므로 "끌러 내어, 풀어내어"임.
13) '구:의'는 '官司'의 번역이므로 "관청"을 말함.
14) '진·짓 도ᄌᆞ·그·란'은 '正賊'의 번역이므로 "진범의 도적이란"의 뜻임. '正賊'은 주4 참조.
15) '·쇽·졀:업·시'는 원문 '乾'을 언해한 것으로 "쓸데없이, 애매하게"의 뜻임. '乾'에 대하여는 주5 참조.
16) '·ᄯᅡᆺ:님·자'는 '·ᄯᅡᇂ + -ㅅ(무정체 속격) + :님·자(주인)'의 형태구성이어서 "땅임자, 지주(地主)"를 말함.
17) '·텨 져·주·니'는 '打拷'의 번역이므로 "쳐서 고문하다, 쳐서 따지다"의 뜻. '티-(打) + -어(연결어미) + 져·주-(詰)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다.
18) '마ᅀᆞ·리'는 '마ᅀᆞᆯ(官廳) + -·이(주격)'으로서 "관청이"의 뜻.
19) <飜老>에서는 '·깃·ᄀᆞ·ᅀᆡᆺ'임.
20) <飜老>에서는 '허·리·옛 ·젼·대·예'임.
21) <飜老>에서는 ':쳔·니·라'임.
22) <飜老>에서는 ':모·딘 ᄆᆞᅀᆞᆷ'임.
23) <飜老>에서는 '무적'임.
24) <飜老>에서는 '글어:내·여'임.
25) <飜老>에서는 '도망커·늘'임.
26) <飜老>에서는 '屍身·을'임.
27) <飜老>에서는 '·ᄯᅡᆺ:님·자·와'임.

原文 제21화 客人被箭射傷

[主] 年時又有一箇客人, 赶着一頭驢, 着兩箇荊籠子裏, 盛着棗兒, 駝着行. 後頭有一箇騎馬的賊, 帶着弓箭跟着行, 到箇酸棗林[1]兒無人處, 那賊, 將那客人脊背上, 射了一箭, 那人倒了. 那賊只道是死了, 便赶着那驢, 往前行. 那客人射的昏了, 蘇醒迴來. 恰好有捕盜的官來, 那裏巡警, 那客人就告了. 捕盜官[2]將着弓兵,[3] 往前赶到約二十里地, 赶上那賊, 捉拿其間, 那賊便將一箇弓手, 放箭射, 下馬來, 那賊往西走馬去了.

飜老 제21화 몰 톤 도ᄌᆞ기 나그내의 등의 ᄒᆞᆫ 사를 쏘다

[主] ·젼년·희 ·ᄯᅩ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나·귀·를 모라 :두 채·롱·애 :대·초 다·마 시·러 ·가·거·늘 :뒤·헤 ᄒᆞᆫ 몰 ·톤 도ᄌᆞ기 화·살 ·ᄎᆞ·고 미조·차 ·가[4] 산·초림[5]·이·라 ·홀 짜·해 :사·룸 :업·슨 ᄃᆡ ·가, 그 도ᄌᆞ·기 그 나:그·내·의 등·의 ᄒᆞᆫ ·사·를 ·쏘니 그 :사·ᄅᆞ·미 구으·러 ·디·거·늘[6] 그 도ᄌᆞ·기 닐·오·ᄃᆡ 주·그니·라 ᄒᆞ·고 ·곧 그 나·괴·를 모·라 앎·포·로 가·니 그 나·그·내 :뾔·여[7] ·어·즐·ᄒᆞ·얏다·가 ·ᄭᅵ·야 나·니 ·마·치 捕盜官 ·와·셔 거·긔 ·와 술·피거·늘 그 나·그·내 ·즉·제 :고ᄒᆞ·니 捕盜官·이 弓兵 더·블·오 :나:ᅀᅡ·가 거:ᅀᅴ[8] ·ᅀᅵ·십 :리:만 짜·해 다ᄃᆞ·라 그 도ᄌᆞ·글 미처 ·가[9] 자·블 ᄉᆞ·ᅀᅵ·예 그 도ᄌᆞ·기 ·즉·재 ᄒᆞᆫ 弓手·를 ·살 ·혀 노·하 ·쏘·니[10] 몰게 ᄂᆞ·려디·니 그 도ᄌᆞ·기 셧녁·으·로 몰 돌·여 ·니·거·늘.

1) '酸棗林'은 '대추나무 숲'을 말함. 대추나무는 중국 북부 일대에 널리 야생으로 자라서 숲을 이룬다.
2) '捕盜官'은 오늘날의 순경과 같다. 원대(元代)의 '捕盜官'은 경찰 관계를 담당하는 지방관을 말한다. 원대(元代) 서원서(徐元瑞)의 『이학지남(吏學指南)』(拙編, 2002년, 태학사) '관칭(官稱)'에 "捕盜官은 失盜의 去處 當該 관리를 말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縣)의 경찰 사무 담당관인 '현위(縣尉)'와 '순검(巡檢)'을 총칭하여 포도관이라 부른다. 『원전장(元典章)』「吏部」(권3) '官制 · 捕盜官' 참조.
3) '弓兵'은 병역(兵役)의 일종으로 민간인이 징집되어, '순검(巡檢)' 밑에서 지방의 치안 유지에 임하는 병사를 말함. 『老覽』에 "청년 남자가 있어 식량이 족한 집에서 弓兵을 골라 그 임무에 취한다"라고 있다.
4) '미조·차 ·가'는 '미좇-(追) + -·아(연결어미) + ·가-(去) +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뒤미처 좇아가서"의 뜻임. "追는 미조출 씨니"(『月印釋譜』 序:16).
5) '산·초림'은 '酸棗林'을 말하여 "대추나무 숲"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지명(地名)으로 보인다.
6) '구으·러 ·디·거·늘'은 "굴러 떨러지거늘"의 뜻.

老諺 제21화 몰 톤 도적이 客人의 등을다가 살로 쏘다

[主] 젼년의 ᄯᅩ ᄒᆞᆫ 나그내 이셔 ᄒᆞᆫ 나귀롤 모라 두 채롱에 대초 다마 싯고 가더니 뒤헤 ᄒᆞᆫ 몰 톤 도적이 이셔 화살 ᄎᆞ고 미조차 가 酸棗林이라 ᄒᆞᄂᆞᆫ 無人處에[11] 가 그 도적이 그 客人의[12] 등을다가 ᄒᆞᆫ 살로 쏘니 그 사룸이 구러디거놀 그 도적이 닐오ᄃᆡ 주그니라 ᄒᆞ고 곳 그 나귀롤 모라 앏프로 가더니 그 客人이 쏘여[13] 어즐ᄒᆞ엿다가 되 ᄭᅵ야나니 맛치 됴히 도적 잡ᄂᆞᆫ 官員이 와[14] 거긔서 숣피거놀 그 客人이 즉제 告ᄒᆞ니 捕盜官이 弓兵을 더블고 나아가 ᄯᆞ라 계요 十里 ᄡᅡ히[15] 다ᄃᆞ라 그 도적을 밋처 가 자블 ᄉᆞ이예 그 도적이 곳[16] ᄒᆞᆫ 弓手롤다가 살로 쏘아[17]

7) ':뾔·여'는 ':쏘-(射) + -이-(피동)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화살에 쏘이어, 화살에 맞아서"의 뜻임.
8) '거:ᅀᅴ'는 '거의'임. 제19화 주8 참조.
9) '미처 ·가' 는 '및-(及) + -어(연결어미) + 가-(去)'의 형태구성으로 "따라가서"의 뜻.
10) '·살 ·혀 노·하 ·쏘·니'는 '放箭射'의 번역으로 '살(矢) + 혀-(引) + -어(연결어미) + 놓-(放) + -아(연결어미) + 쏘-(射)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며 "화살을 당겨서 놓아 쏘다"의 뜻.
11) <飜老>에서는 ':사·룸 :업·슨 :ᄃᆡ'임.
12) <飜老>에서는 '그 나:그·내·의'임.
13) <飜老>에서는 ':뾔·여'임.
14) <飜老>에서는 '捕盜官 ·와·셔'임.
15) <飜老>에서는 '거:ᅀᅴ ·ᅀᅵ·십 :리:만 짜·해'임.
16) <飜老>에서는 '·즉·재'임.

몰게 ᄂᆞ려디니 그 도적이 西로 향ᄒᆞ여18) 몰 돌려 가니라.

現代譯 제21화 말 탄 강도가 나그네의 등을 화살로 쏘다

[집주인] 작년에 또 한 나그네가 당나귀를 한 마리 몰고 두 채롱(籠)에 대추를 담아 싣고 가거늘 뒤에서 말을 탄 강도 하나가 화살을 차고 좇아와서 대추나무 숲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그 강도가 나그네의 등에 화살 하나를 쏘니 나그네는 거꾸러졌습니다. 도둑이 말하기를 "죽었구나" 하고 곧 그 당나귀를 몰아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화살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마침 포도관(捕盜官)이 와서 그 곳을 살피거늘 나그네가 즉시 고발하였더니 포도관이 활을 가진 포졸을 데리고 나아가 거의 20리 정도 간 곳에 그 도둑을 좇아 가 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강도가 잽싸게 궁수(弓手) 하나를 화살을 당겨 놓아 쏘아서 말에서 떨어지니 그 강도가 서쪽으로 말을 달리어 가 버렸습니다.

原文 제22화 捕盜

[主] 捕盜官襲1)將去, 到箇村裏, 差2)了一百箇壯漢, 將着弓箭器械,3)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纔拿着迴來. 看那射着的弓手, 那人左肐膊上射傷, 不曾傷了性命. 如今那賊現在官司牢裏禁着.

[漢] 旣這般路濇時, 咱們又沒甚麽忙勾當, 要甚麽早行? 等到天明時, 慢慢的去, 怕甚麽?

[高] 說的是. 依着你 天明時行.

飜老 제22화 도ᄌᆞ·글 ᄀᆞᆺ 자·바 도·라오·다

[主] 捕盜官·이 디죵·ᄒᆞ·야4) ·가 :촌·애 ·가5) :장·ᄒᆞᆫ6) :사·ᄅᆞᆷ ·일·ᄇᆡᆨ·을 시·겨 화·살 연장7) 가·지·고 그 도ᄌᆞ·글 ᄒᆞᆫ 삸고·래8) 에·워 ᄀᆞᆺ9) 자·바 도·라오·니 그 ·살 ·마·존 弓手·를 보·니 그 :사·ᄅᆞ·ᄆᆡ :왼 ᄑᆞᆯ·독애10) ·살 마·자 샹·ᄒᆞ·얏·고 :셩·명·은11) 샹·티 아·니ᄒᆞ·돗더·라. ·이·제 그 도ᄌᆞ·기 구읫 ·옥·애12) 이·셔 가·텻·ᄂᆞ니·라.

[漢] ᄒᆞ·마 ·이·리 ·길·히 어·렵거니 ·우·리 :아·ᄆᆞ·란 밧·ᄇᆞᆫ :일 :업·거·니 ᄆᆞ·스ᄆᆞ·려 일 녀·리·오? 하·ᄂᆞᆯ ᄇᆞᆰ거·든 ·기·들·워13) 날회여 간·들 ᄆᆞ·ᄉᆞ:기 저프·리오?14)

[高] 닐·오·미 ·올·타! 네 :말 드러 하·ᄂᆞᆯ ᄇᆞᆰ거·든 :가·리·라.

17) <飜老>에서는 '·살 ·혀 노·하 ·ᄡᅩ·니'임.
18) <飜老>에서는 '셧녁·으·로'임.

1) '襲'은 종이나 북을 치지 않고 몰래 뒤를 좇아가 습격하는 것이다(『老覽』).
2) '差'는 官이 민간에서 징집(徵集)하는 것. '差發'이라고도 한다.
3) '器械'는 칼, 창 등 무기의 총칭이다.

4) '디죵·ᄒᆞ·야'는 "뒤밟아서"임. '디죵'은 "뒤밟기"임. "婬女 디죵 가시ᄂᆞ니"(『月印釋譜』 7:17).
5) ':촌·애 ·가'는 "村에 가서, 마을에 가서"의 뜻임.
6) ':장·ᄒᆞᆫ'은 "壯ᄒᆞᆫ, 건장한"의 뜻.
7) '화·살 연장'은 원문 '器械'를 언해한 것임. '器械'는 주3 참조.
8) '고·래'는 "골(谷)에, 계곡에"의 뜻.
9) 'ᄀᆞᆺ'은 '纔'의 번역으로 "이제 막, 이제 겨우"의 뜻임.
10) 'ᄑᆞᆯ·독애'는 "팔뚝에"임.
11) ':셩·명·은'은 "性命은, 생명은"임.
12) '구읫 ·옥·애'는 "관아의 옥에"임.
13) '·기·들·워'는 "기달려서"임.
14) '저프·리오?'의 '저프-'는 '젛-(懼) + -브-(형용사 전성어미) + -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두려워하다, 무섭다, 겁나다"의 뜻. 여기서는 완문 '怕甚麽?'의 번역이어서 "(무엇이) 두렵겠는가?"의 뜻이다.

(老諺) 제22화 도적을 다가 굿 자바 도라오다

[主] 捕盜官이 디좃ᄒᆞ여 가 村의 가 一百 壯漢을 시겨[15] 화살 연장 가지고 그 도적을다가 ᄒᆞᆫ 뫼쏠의[16] 에워 굿 자바 도라오니 그 살 마즌 弓手ᄅᆞᆯ 보니 그 사ᄅᆞᆷ이 왼녁 폴독에 살마자 샹ᄒᆞ엿고 일즙[17] 性命은 샹티 아니ᄒᆞ돗더라. 이제 그 도적이 官司[18] 옥에 번ᄃᆞ시[19] 이셔 가텻ᄂᆞ니라.

[漢] 이믜 이리 길히 머흘면[20] 우리 ᄯᅩ 아므란 밧븐 일이 업ᄉᆞ니 므슴아라[21] 일 녜리오? 하ᄂᆞᆯ이 ᄇᆞᆰ거든 기ᄃᆞ려[22] 날회여 간들 므서시[23] 저프리오?

[高] 닐오미 올타! 네 말대로[24] 하ᄂᆞᆯ ᄇᆞᆰ거든 가리라.

(現代譯) 제22화 강도를 겨우 잡아 오다

[집주인] 포도관이 몰래 뒤를 좇아가 어느 마을에 이르러 건장한 사람 백 명을 시켜서 활과 무기를 갖고 그 강도를 한 산골짜기에서 에워싸서 겨우 붙잡아 돌아왔습니다. 화살을 맞은 병사를 보니 그 사람의 왼 쪽 팔뚝에 살을 맞아 다쳤을 뿐이고 생명은 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강도가 관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인] 정말로 이렇게 길이 어렵다면 우리가 아무런 바쁜 일도 없는데

15) <飜老>에서는 ":장·ᄒᆞᆫ :사·ᄅᆞᆷ ·일·빅·을 시·겨"임.
16) <飜老>에서는 'ᄒᆞᆫ 고·래'임.
17) '일즙'은 '일찍'임. '일즉 > 일즙'의 변화.
18) <飜老>에서는 '구읫'임.
19) '번ᄃᆞ시'는 "확실하게, 환히, 정말로"의 뜻. 원문 '現在'를 직역한 것임.
20) <飜老>에서는 '어·렵거니'임.
21) <飜老>에서는 '므·스므·려'임.
22) <飜老>에서는 '·기·들·워'임.
23) <飜老>에서는 '므·스:기'임.
24) <飜老>에서는 ':말 드러'임.

무엇 하러 일찍 가겠는가? 날이 밝거든 기다려 천천히 간들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고려인] 말한 바가 옳소. 당신의 말을 들어 날이 밝거든 갑시다.

(原文) 제23화 井

[主] 安置, 安置,[1] 客人們好睡着.

[漢] 主人家, 且休去. 我又忘了一件句當. 我這馬們不曾飲水裏, 等一會控到時飲去, 那裏有井?

[主] 那房後便是井.

[漢] 有轆轤[2]那沒?

[主] 淺淺的井兒, 只着繩子拔水.[3] 井邊頭有飲馬的石槽兒.[4]

[漢] 既這般時, 你收拾洒子,[5] 井繩出來.

[主] 井邊頭洒子, 井繩都有. 我又囑咐你些話, 那洒子不沉水. 你不會擺時, 洒子上絟着一塊塼頭着.

[漢] 這的我自會的. 不要你教.

1) '安置'는 "쉬다, 자다"라는 동사이지만, 송대(宋代) 이후에는 "편히 쉬시오"라는 인사말로 사용되었다.
2) '轆轤'은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활차(滑車)를 말한다. 중세국어에 차용되어 "녹로"가 쓰였다. 『老覽』에는 그 만드는 방법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한 해설이 있다.
3) '拔水'는 "물을 긷다"는 뜻이다. 제26화에서도 "拔上兩帖落水"라는 구절이 보인다.
4) '石槽兒'는 가축이 여물이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돌로 만든 구유를 말한다.
5) '洒子'는 "물을 푸는 기구, 두레박"을 말함. <原老>에서는 '帖落'이었는데 '帖落'은 몽고어의 한자표음으로 우물의 통, 즉 "두레박"을 말한다. 두레박의 '두레'가 그 차용으로 '박'을 붙여 고유어로 사용하였다. 『老覽』에 "물을 긷는 용기. 버드나무 가지로 짜여진 것은 '柳罐'이라 하고, 元代의 말로는 '帖落'이라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四聲通解』에 "元의 말로는 '鐵落'이라고 한다"라는 해설이 있고 '鐵落'의 예는 『철괴이(鐵拐李)』「잡극(雜劇)」 3折에 보인다.

(飜老) 제23화 노·호·로 ·믈 기·러 :내·자

[主] 이·대 이·대[6] 나·그·내·네 ·됴히 ·자·쇼·셔.

[漢] ·쥬ᅀᅵᆫ·하! 안·직 가디 :마ᄅᆞ쇼·셔. ·내 ·ᄯᅩ ᄒᆞᆫ :일 니·ᄌᆞᆺ다이·다. ·우·리 ·이 ᄆᆞᆯ·돌·히 ·믈 아·니 머·겻더·니 ᄒᆞᆫ 디·위 쉬·요·믈[7] ᄀᆞ·장 ·ᄒᆡ·야든 기·들·워[8] 머기·라 가·쟈. 어·듸 우·믈 잇ᄂᆞ·뇨?

[主] ·뎌 집 :뒤·히 ·곧 우·므리·라.

[漢] ·믈 기·를 자·ᅀᅢ[9] 잇ᄂᆞ·녀? :업·스·녀?

[主] 엳가·온[10] 우·므·레 노·호·로[11] ·믈 기·러 :내·ᄂᆞ니·라. 우·믌:ᄀᆞ·ᅀᅢ ᄆᆞᆯ ·믈 머·기·ᄂᆞᆫ :돌구·ᅀᅵ[12] 잇ᄂᆞ·니·라.

[漢] 이·믜 ·이·러·면 :네 드·레[13]·와 ·줄 서러[14] :내·여 오고려.

[主] 우·믌·ᄀᆞ·애 드·레·와 ·줄 :다 잇ᄂᆞ·니라. ·내 ·ᄯᅩ 너ᄃᆞ·려 :말·소·믈 당·부·ᄒᆞ·노·니 그 드·레 ·믈 ·ᄌᆞᆷ·디[15] 아·니·ᄒᆞ·ᄂᆞ·니 :네 두의·티·기·옷[16] 모·ᄅᆞ거·든 드·레 우·희 ᄒᆞᆫ 무ᅀᅴ ·벽[17]·을 ·ᄆᆡ·라.

[漢] 이·ᄂᆞᆫ 나·도 :아·노·니 :네 ᄀᆞᄅᆞ·치·디 :마·오·려.

6) '이·대 이·대'는 원문 '安置! 安置!'의 번역으로 "잘 자요, 잘 자"라는 인사말이다. 주1 참조.

7) '쉬·요·믈'은 '쉬-(控) + -욤(명사형) + -을(대격)'의 형태구성으로 "쉬는 것을"의 뜻.

8) 원문은 '到時'로 "때가 되면"의 뜻이나 언해에서는 '기다려'로 해석하였다.

9) '자·ᅀᅢ'는 '轆轤'의 번역으로 '믈자ᅀᅢ', 즉 무자위를 말한다. '무자위'는 물을 푸는 수차를 말하나 '轆轤'가 "轆 - 믈자ᅀᅢ 록, 轤 - 믈자ᅀᅢ 로 轆轤用於井 俗呼同"(『訓蒙字會』 中:8)인 것으로 보아 우물에서 사용하는 '고패, 도르래, 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고패를 말한다. 주2 참조.

10) '엳가·온'은 '엳-(淺) + -갑- + -다(종결어미)'로 형성된 '엳갑-'이 활용한 것이다. "얕은"의 뜻.

11) '노·호·로'는 '繩子'의 번역으로 "놋줄로, 노끈으로"의 뜻.

12) ':돌구·ᅀᅵ'는 '石槽兒'의 번역으로 "돌로 만든 구유"를 말함.

13) '드·레'는 '두레박(洒子)'을 말함. 주5 참조.

14) '서러'는 원문 '收拾'의 번역으로 "(두레박과 줄을) 수습하여"의 뜻이다. '서러'에 대하여는 제18화 주18을 참조. 제18화에서는 '서·러'(整理)이었음.

15) '·ᄌᆞᆷ·디'는 "잠기지"의 뜻.

16) '두의티·기·옷'은 '두의티-(擺) + -·기(명사형) + ·옷(강세첨사)'의 형태구성으로 "뒤집기"를 강조한 것. "(두레박) 뒤집기만을 (못하면)"의 뜻.

(老諺) 제23화 줄드레로 믈을 깃ᄂᆞ니라

[主] 이대 이대! 나그내들 됴히 자라.[18]

[漢] 主人아 아직 가디 말라.[19] 내 ᄯᅩᄒᆞᆫ 일을 니저 셰라.[20] 우리 이 ᄆᆞᆯ들흘 일즙 믈 머기디 아녓더니[21] ᄒᆞᆫ디위 쉬요믈 잇긋[22] ᄒᆞ야든 기ᄃᆞ려 머기라 가쟈. 어ᄃᆡ 우믈 잇ᄂᆞ뇨?

[主] 뎌 집 뒤히 곳 우믈이라.

[漢] 믈 기를 ᄌᆞ애[23] 잇ᄂᆞ냐? 업ᄉᆞ냐?

[主] 엿트나 엿튼 우믈이니[24] 그저 줄드레로[25] 믈을 깃ᄂᆞ니라.[26] 우믈 ᄭᆞ애 ᄆᆞᆯ 믈머기ᄂᆞᆫ 돌귀외[27] 잇ᄂᆞ니라.

[漢]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ᄒᆞ야[28] 내여 오고려.

[漢] 우믈 ᄭᆞ애 드레와 줄이 다 잇ᄂᆞ니라. 내 ᄯᅩ 너ᄃᆞ려 져기 말을 당부ᄒᆞ노니 그 드레 믈에 ᄌᆞᆷ기디[29] 아니ᄒᆞᄂᆞ니 네 뒷티기[30] 아디 못ᄒᆞ거든[31]

17) 'ᄒᆞᆫ 무ᅀᅴ ·벽'은 '一塊塼頭'의 번역이므로 "한 덩어리 벽돌"의 뜻.

18) <飜老>에서는 '·자·쇼·셔'임.

19) <飜老>에서는 ':마ᄅᆞ쇼·셔'임.

20) <飜老>에서는 '니·ᄌᆞᆺ다이·다'임.

21) <飜老>에서는 '·믈 아·니 머·겻더·니'임.

22) '잇긋'은 '잇긋'의 변화형임. '잇긋'은 "한껏, 가장"의 뜻. <飜老>에서는 'ᄀᆞ·장'임.

23) <飜老>에서는 '자·ᅀᅢ'임.

24) <飜老>에서는 '엳가·온 우·므·레'임.

25) <飜老>에서는 '노·호·로'임.

26) <飜老>에서는 '·믈 기·러 :내·ᄂᆞ니·라'임.

27) <飜老>에서는 ':돌구·ᅀᅵ'임.

28) <飜老>에서는 '·줄 서러'임.

29) <飜老>에서는 '·믈 ·ᄌᆞᆷ·디'임.

30) <飜老>에서는 '두의티·기·옷'임.

31) <飜老>에서는 '모·ᄅᆞ거·든'임.

드레 우희 ᄒᆞᆫ 덩이[32] 벽을 ᄆᆡ라.

[漢] 이ᄂᆞᆫ 나도 아노니 네 ᄀᆞᄅᆞ치디 말라.[33]

現代譯 제23화 우물에서 물을 긷다

[집주인] 잘 자요, 잘 자. 나그네들 잘 자십시오.

[중국인] 주인아저씨, 아직 가지 마시오. 내가 또 한 일을 잊었습니다. 우리 이 말들이 물을 안 먹었습니다. 한 차례 마음껏 쉬도록 기다렸다 먹이러 갑시다. 어디에 우물이 있어요?

[집주인] 저 집 뒤가 곧 우물입니다.

[중국인] (두레박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있어요?

[집주인] 얕은 우물이라서 줄로 물을 길어 냅니다. 우물가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돌구유도 있습니다.

[중국인] 이미 그렇다면 당신은 두레박과 줄을 수습해서 내여 주시오.

[집주인] 우물가에는 두레박과 줄이 다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부할 말은 그 두레박이 물에 잠기지 않으니 당신이 뒤집기를 모르거든 두레박 위에 한 덩이 벽돌을 매어 달아요.

[중국인] 그것은 나도 압니다. 당신 가르치지 마시오.

原文 제24화 喂馬

[漢] 咱們輪着起來, 勤喂馬.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横財不富."[1]

32) <飜老>에서는 '무싀'임.
33) <飜老>에서는 ':마·오·려'임.

1)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横財不富'은 원대(元代)에 유행하던 속담으로 "말은 밤 꼴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고 사람은 횡재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못 된다"란 뜻이다. 이러한 속담의 사용은 원대(元代) 희곡의 『후정화(後庭花)』「雜劇」 2折 '일지화(一枝花)'에 "馬無夜草不肥, 人不得外財不富-말은 밤 꼴이 없으면 살찌지 않고 사람은 딴 재물을 얻지 못하면 부자가 못된다-"라는 대사가 있고, 또 『박통사(朴通事)』(권上)에 "人不得横財不富, 馬不得夜料不肥-사람은 횡재하지 않으면 부자가 못되고 말은 밤 여물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 이것이 당시에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却休槽兒平[2]直到明. 咱們拌上, 馬喫一和草時, 飲水去.

[高] 盛草的筐兒也沒, 着甚麽將的草去?

[漢] 旣沒時, 且着布衫襟兒 抱些草去. 我將料水去. 這主人家 好不整齊.[3] 攪料棒也沒一箇. 疾快取將咱們的拄杖來 攪料. 且房子裏 坐的[4]去來. 一霎兒馬喫了這和草,[5] 飲水去.

[高] 馬敢喫了草也, 飲去來.

飜老 제24화 ᄆᆞ리 밤 플 몯 머그면 ᄉᆞᆯ지디 아니ᄒᆞ다

[漢] ·우·리 돌·여 니·러 브즈러니 몰 머·기·져. 상·넷 :말·소·매 닐·오:ᄃᆡ "ᄆᆞ·리 ·밤 ·플 :몯 머·그·면 ·ᄉᆞᆯ지디 아·니ᄒᆞ고 :사·ᄅᆞ·미 ·ᄠᅳᆫ :천[6]·곳 :몯 :어·드·면 가·ᅀᆞ:며·디[7] :몯·ᄒᆞ·ᄂᆞ니·라.[8]" ·ᄯᅩ 구·ᅀᅵ·예 평·케 ·주·어 ·ᄀᆞᆺ[9] 새배 다ᄃᆞᆮ·게 :말·라.[10] ·우·리 ᄆᆞ·ᄅᆞᆯ ᄒᆞᆫ 번 ·딥 섯·거 버·므·려

2) '槽兒平'은 확실하지 않으나 "구유에 넣은 여물이 구유가 평평한 대로, 즉 말이 먹지 않은 상태로 날이 밝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3) '整齊'는 "필요한 것이 완비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문맥상 "칠칠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4) '坐的'은 '坐地'라고도 쓴다. 이 두 글자로 "앉다"를 표시함. 단 여기서는 "쉰다"는 것을 말한다.
5) '和草'는 '料水'(콩 삶은 물)와 '꼴'(馬草)을 버무린 말의 여물을 말한다.
6) '·ᄠᅳᆫ :천'은 '横材'의 번역으로 "다른 돈"을 말함.
7) '가·ᅀᆞ:며·디'는 '가·ᅀᆞ:멸-(豊) + -디(부정)'의 형태구성으로 "부유하지, 풍요하지"의 뜻.
8) 주1 참조. 諺解 부분에서 '샹녯 말소매 닐오ᄃᆡ … 몯ᄒᆞᄂᆞ니라'라고 하여 '속담에 말하기를'과 '못한다'는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호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諺解가 '샹녯 말소매 닐오ᄃᆡ … 몯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가 되어야 한다.
9) '·ᄀᆞᆺ'은 '잇ᄀᆞᆺ'의 변화형. "가장, 끝"의 의미임. 제23화 주22 참조.
10) 주2 참조.

:주·워 머·거·든 ·믈 머·기라 가·져.

[高] :딥 다·믈 광조·리·도 :업·다. 므·스거·소:로 ·딥 가져:가·료?

[漢] ·하·마 :업거·니 안·직 ·뵈·옷 쟈·락으·로 ·딥 가·져가·라. ·내 콩 ᄉᆞᆯ·믄 ·믈 ·가져:가·마. ·이 ·쥬ᅀᅵᆫ·이 ᄀᆞ·장 :졍·졔·티11) 아·니ᄒᆞ·다. 콩 버·므·릴 막대 ᄒᆞ나·토 :업·다. ᄲᆞᆯ·리 ·우·리 딥 ·퍼온 막대 가·져다가 콩 버·므리·라. 안·직 방·의 안·자시·라12) ·가·져. ᄒᆞᆫ 디·위 ᄆᆞ·리 :이 버·므·린 ·딥13) 머·거·든 ·믈 머·기·라 가·져.

[高] ᄆᆞ·리 ·딥 머·근 ·ᄃᆞᆺᄒᆞ·다. ·믈 머·기·라 가·져.

(老諺) 제24화 ᄆᆞᆯ이 밤 여믈을 엇디 못ᄒᆞ면 ᄉᆞᆯ지디 못ᄒᆞ다

[漢] 우리 ᄃᆞᆯ려 니러 브즈러니 ᄆᆞᆯ 머기쟈. 常言에 닐오되14) “ᄆᆞᆯ이 밤 여믈을15) 엇디 못ᄒᆞ면16) ᄉᆞᆯ지디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ᄠᅳᆫ 財物을17) 엇디 못ᄒᆞ면 가ᄋᆞᆷ여디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니 ᄯᅩ 귀요에18) 平케 주어 잇긋19) 새배 다ᄃᆞᆺ게 말라. 우리 ᄆᆞᆯ을 ᄒᆞᆫ 번 딥 섯거 버므려 주어 머거든 믈 머기라 가쟈.

[高] 딥 다믈 광주리도 업ᄉᆞ니 므스 거ᄉᆞ로 딥 가져 가료?

[漢] 이믜20) 업거든 아직 뵈적삼 쟈락의21) 안아 가라. 내 콩믈 가져 가마. 이 主人이 ᄀᆞ장 整齊티 못ᄒᆞ다. 콩 버므릴 막대 ᄒᆞ나토 업ᄉᆞ니 ᄲᆞᆯ리 우리 딥 퍼온 막대 가져 와22) 콩 버므리라. 아직 방의 안자시라 가쟈. ᄒᆞᆫ 디위 ᄆᆞᆯ이 이 버므린 여믈 머거든 믈 머기라 가쟈.

[高] ᄆᆞᆯ이 딥 머근 ᄃᆞᆺᄒᆞ니 믈 머기라 가쟈.

(現代譯) 제24화 말이 밤 꼴 못 먹으면 살찌지 아니한다

[중국인] 우리 차례로 일어나서 부지런히 말 먹이자. 상말에 말하기를 “말은 밤 꼴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고, 사람은 횡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 하느니라”라고 하지 않는가? 구유가 평평한 대로 새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가 말에게 여물을 버무려 주어서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러 가세.

[고려인] 짚 담을 광주리도 없다. 무엇으로 짚을 가져가겠는가?

[중국인] 이미 없으니 베 옷자락으로 짚을 가져가시오. 나는 콩 삶은 물을 가져 갈 것이오. 여기 주인은 어찌 이렇게 칠칠치 못한가? 콩을 버무릴 막대기가 하나도 없구나. 빨리 짚 퍼온 막대기 가져다가 콩을 버무립시다. 이제 방에 좀 쉬러 가세. 한 참 있다가 말이 버무린 여물을 다 먹으면 물을 먹이러 갑시다.

[고려인] 말이 여물을 먹은 듯합니다. 물을 먹이러 갑시다.

(原文) 제25화 看房子

[漢] 咱們都去了時, 這房子裏沒人, 敢不中.1) 留一箇看房子, 別箇的牽馬去來.

[高] 碍甚麽事? 這店裏都閉了門子了. 怕有甚麽人入來?

11) ':졍·졔·티' 는 “정제(整齊)하지, 칠칠하지”의 뜻. 주3 참조.
12) '안·자시·라'는 '坐的'의 번역으로 “쉬러 (가다)”의 뜻임. 주4 참조.
13) 주5 참조.
14) <飜老>에서는 '샹·녯 :말·소·매'임.
15) <飜老>에서는 '·밤 ·플'임.
16) <飜老>에서는 ':몯 머·그·면'임.
17) <飜老>에서는 '·ᄠᅳᆫ :쳔'임.
18) <飜老>에서는 '구·ᅀᅵ·예'임.
19) <飜老>에서는 '·긋'임.
20) <飜老>에서는 '·하·마'임.
21) <飜老>에서는 '·뵈·옷 쟈·락으·로'임.
22) <飜老>에서는 '가·져다가'임.

1) '敢不中'의 '敢'은 “아마, 아마도”의 뜻이다. '中'은 문언(文言)에서의 '宜'와 같고, '不中'은 “적당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음. 『사천향(謝天香)』「雜劇」 1折의 대사에 “敢不中麽-아마도 좋지 않겠죠-”를 비롯하여 많은 다른 원곡(元曲)에서 상용(常用)으로 표현되는 말이다.

[漢] 休那般說, 小心的還好. 常言道, "常防賊心 莫偷他物."2) 你自依着我, 留一箇看房子.
[高] 那般着, 咱們留誰看房子?
[漢] 你三箇裏頭, 着這老的看着. 三人同行, 小的苦.3) 咱們三箇去來.

(飜老) 제25화 누를 두워 방 보라 ᄒᆞ료?

[漢] ·우·리 :다 가:면 ·이 방·의 :사·ᄅᆞᆷ :업·스·니 ·맛·당·티 아·닌 ·듯ᄒᆞ다.4) ᄒᆞ나 ·두·워 방 보·라 ᄒᆞ·고 다ᄅᆞ·니 ᄆᆞᆯ 잇·그·러 가·라 ᄒᆞ·져.
[高] 므던ᄒᆞ·니.5) ·이 :뎜·에 :다 문 다·ᄃᆞ·면 므:슴 :사·ᄅᆞ·미 ·드러·오·료?
[漢] 그·리 니ᄅᆞ·디 :말·라. :조·심·호·미 :됴·ᄒᆞ니·라. 샹·녯 :말·소·매 닐·오·ᄃᆡ 댱샹 도ᄌᆞᆨ ᄆᆞᅀᆞ·ᄆᆞᆯ 막·고 ᄂᆞ·ᄆᆡ ·것 도ᄌᆞᆨ :말·라6) ·ᄒᆞᄂᆞ·니 :네 내 :말 드·러 ᄒᆞ나 ·두·워 방 보·게ᄒᆞ·라.
[高] 그·리ᄒᆞ·져. ·우·리 :누·를 ·두·워 방 보·라 ᄒᆞ·료?
[漢] 너희 :세·희 듕·에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 :세·히 ᄒᆞᆫ·ᄃᆡ ·길 :녀·매 져·므·니7) :슈·고·ᄒᆞ·ᄂᆞ니라8) ·우·리 :세·히 가·져.

2) '常防賊心, 莫偷他物'은 "항상 도둑의 마음을 경계해야 하고 타인의 물건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四字成語)다.
3) '三人同行小的苦'는 "세 사람이 행동을 같이 하면 젊은 사람이 고통이다"는 원대(元代)의 속담을 말한다. 『호접몽(胡蝶夢)』「잡극(雜劇)」2折 '하신랑(賀新郎)'에도 같은 속담이 있다. 원래는『역경(易經)』'익(益)'의 '괘(卦)'에 "세 사람 가면 바로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란 주인공의 고종사촌형인 김(金)일 것이다. 제12화 참조.
4) '·맛·당·티 아·닌 ·듯ᄒᆞ다'는 '敢不中'을 언해한 것으로 "마땅하지 않은 듯하다"의 뜻임. 주1 참조.
5) '므던ᄒᆞ·니'는 "괜찮다"의 뜻. 원문 '碍甚麼事?'는 "무슨 일이 거리낄 것인가?"의 반어법 의문임.
6) 원문은 '常防賊心 莫偷他物'로 이에 대하여는 주2를 참조할 것.
7) '져·므·니'는 "젊은이"를 말함.
8) ':세·히 ᄒᆞᆫ·ᄃᆡ ·길 :녀·매 져·므·니 :슈·고·ᄒᆞ·ᄂᆞ니라"는 '三人同行 小的苦'의 번역임. 주3 참조.

(老諺) 제25화 누를 두워 방 보라 ᄒᆞ료?

[漢] 우리 다 가면 이 房의 사ᄅᆞᆷ 업ᄉᆞ니 맛당티 아닌 듯ᄒᆞ다. ᄒᆞ나 머므러9) 房 보라 ᄒᆞ고 다ᄅᆞ니ᄂᆞᆫ ᄆᆞᆯ 잇그러 가쟈.
[高] 므스 일 걸리ᄭᅵ리오?10) 이 店에 다 門 다ᄃᆞ면 므슴 사ᄅᆞᆷ이 드러올가 저프리오?11)
[漢] 그리 니ᄅᆞ디 말라. 조심호미 도로혀 됴ᄒᆞ니라.12) 常言에13) 닐오ᄃᆡ 샹샹의14) 도적 ᄆᆞ옴을 막고 ᄂᆞᆷ의 것 도적 말라 ᄒᆞᄂᆞ니 네 스ᄉᆞ로 내 말대로15) ᄒᆞ나ᄒᆞᆯ 두어 방 보게 ᄒᆞ라.
[高] 그리ᄒᆞ쟈. 우리 누를 두워 방 보라 ᄒᆞ료?
[漢] 너희 셋 듕에16) 이 늘그니 ᄒᆞ야 보게 ᄒᆞ라. 세 사ᄅᆞᆷ이 ᄒᆞᆷᄭᅴ 녜매17) 져므니 슈고ᄒᆞᄂᆞ니라. 우리 세히 가쟈.

(現代譯) 제25화 누가 방을 지키나?

[중국인] 우리가 다 가면 이 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땅하지 않아요. 한 사람 두어서 방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끌러 갑시다.

9) <飜老>에서는 '·두·워'임.
10) <飜老>에서는 '므던ᄒᆞ·니'임.
11) <飜老>에서는 '·드러·오·료?'로 끝났음. <老諺>이 원문 "怕有甚麽人入來"에 충실한 번역을 보여준다. '저프리오?'는 '怕'을 언해한 것임.
12) <飜老>에서는 ':조·심·호·미 :됴·ᄒᆞ니·라'이어서 <老諺>에는 있는 '도로혀'가 언해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老諺>의 언해문은 원문 '小心的還好'의 '還'을 '도로혀'로 언해한 것이어서 원문에 보다 충실하였다.
13) <飜老>에서는 '샹·녯 :말·소·매'임.
14) <飜老>에서는 '댱샹'임.
15) <飜老>에서는 '내 :말 드·러'임.
16) <飜老>에서는 ':세·희 듕·에'임.
17) <飜老>에서는 'ᄒᆞᆫ·ᄃᆡ ·길 :녀·매'임.

[고려인]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여관의 문을 다 닫으면 누가 들어온답니까?

[중국인]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게. 조심하는 게 좋단 말일세. 상말에 '항상 도둑 마음을 막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당신들 내 말을 들어서 하나를 두어 방을 보게 합시다.

[고려인]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두어서 방을 보게 할 것인가?

[중국인] 당신들 세 사람 중에서 늙은이를 시켜서 방을 보게 하게. 세 사람 같이 가면 젊은 사람이 수고하는 법이네. 우리 셋이서 갑시다.

(原文) 제26화 打水

[漢] 這衚衕[1]窄, 牽着馬多時, 過不去. 咱們做兩遭兒[2]牽.

[高] 那般着, 你敢慣打水,[3] 我不慣打水, 你先打水去. 我兩箇牽馬去.

[漢] 那般着, 我打水去, 你將馬來. 我恰纔這槽兒裏頭, 拔上兩洒子水也, 着馬喫.

[高] 這箇馬快喫水. 這箇馬喫水少.

[漢] 這水少, 再打上一洒子着.

[高] 將洒子來, 我試學打. 這洒子是[4]不沉水, 怎生得倒?

[漢] 我教與你. 將洒子提起來, 離水面擺動, 倒撞入水去, 便喫水也.

[高] 這般時, 眞箇在前曾見人打水, 不曾學, 從今日理會得了.

1) '衚衕'은 '길'을 말함. <飜老>에서는 '胡洞'이었는데 현재는 보통 '胡同'으로 쓴다. 원래 몽고어에서 우물을 표시하던 'huduk'에서 온 말.
2) '遭兒'는 간 회수를 헤아리는 "번"의 뜻이다. '遭兒'는 횟수를 세는 단위 명사로서 현대중국어의 "회(回)", "차(次)"에 해당된다.
3) '打水'는 "물을 긷다"는 뜻이다.
4) '是'는 중국어로서는 부자연스럽다. '확실히'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飜老) 제26화 내 믈기리 닉디 몯호라

[漢] ·이 :고·리[5] 조·ᄇ·니 ᄆᆞᆯ 잇·기[6] :만·ᄒᆞ·면 ·나가·디 :몯ᄒᆞ·리·라. ·우·리 :두 번·의[7] 잇·거 가·져.

[高] 그·리ᄒᆞ·져. :네 ·믈기·리 니·근 ·ᄃᆞᆺ·ᄒᆞ·고·나. ·내 ·믈기·리[8] 닉·디 :몯·호·라. :네 몬져 ·믈 기·르·라 가·라. ·우·리 :둘·히 ᄆᆞᆯ 잇·거 :가·마.

[漢] 그·리:호·마. ·나·ᄂᆞᆫ ·믈 기르·라 ·가·노·라. :네 ᄆᆞᆯ 가져 ·오·라.
·내 앗·가 ·이 구·ᅀᅵ 안·해 :두 드·렛 ·믈 기·러 잇·다. ᄆᆞᆯ·ᄃᆞᆯ·ᄒᆞᆯ 머·기·라.

[漢] ·이 ᄆᆞ·리 ·믈 잘 먹ᄂᆞ·다. ·이 ᄆᆞ·ᄅᆞᆫ ·믈 머·기 :쟉·다.

[漢] ·이 ·므·리 :쟉·다. ·ᄯᅩ ᄒᆞᆫ 드·레·만 기·르·라.

[高] 드·레 가·져·오·라. ·내 기·리·를 ᄇᆡ·화지·라.[9]
·이 드·레 ·믈 ·ᄃᆞᆷ·디 아·니·ᄒᆞ·ᄂᆞ·다. :엇·디·ᄒᆞ·야 구으·리혀·료?[10]

[漢] ·내 너ᄃᆞ·려 ᄀᆞᄅᆞ·츄·마. 드·레를 드·러 ·믈 우·희 ᄠᅴ·워 베·텨[11] 구으·리·혀 ·므·레 맛바·다[12] ·드·러가·면 즉·재 ·믈 먹ᄂᆞ·니·라.

[高] ·이러·면 진·실·로 ᄋᆞᆲ·픠 :사·ᄅᆞ·ᄆᆡ ·믈 :긷·거·늘 ·보·다·니 일·즉 ᄇᆡ·호·디 아·니:호·니 오·ᄂᆞᆯ우·터[13] :알·와·라.

5) ':고·리'는 ':골(洞)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이 골목길이"의 뜻임. 주1 참조.
6) '잇·기'는 '잇-(牽) + -·기(명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이끌기"의 뜻이다. <老諺>에서는 '잇글기'로 변하였다.
7) ':두 번'은 '兩遭兒'의 번역. 주2 참조.
8) '·믈 기·리'는 '打水'의 번역. 주3 참조.
9) 'ᄇᆡ·화지·라'는 'ᄇᆡ·호-(學) + -아지-(願望形)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배우겠다"의 뜻.
10) '구으·리혀·료'는 '구을-(轉) + -리-(피동형) + -히-(사역형) + -어료(의문종결)'의 형태구성으로 "구을리게 하료"의 뜻. <老諺>에서는 "것구리티리오"로 되었다.
11) '베·텨'는 '베·티-(擺) + -어(연결)'의 형태구성으로 "흔들어서, 털어서"의 뜻.
12) '맛바·다'는 "그대로 따라서"의 뜻.

老諺 제26화 내 믈 깃기 닉디 못ᄒᆞ롸

[漢] 이 골이 조브니 ᄆᆞᆯ 잇글기 만히 ᄒᆞ면 디나가디[14] 못ᄒᆞ리라. 우리 두 번의 잇그러 가쟈.

[高] 그리ᄒᆞ쟈. 네 믈 깃기[15] 니근 ᄃᆞᆺ ᄒᆞ괴야.[16] 내 믈 깃기 닉디 못ᄒᆞ롸.[17] 네 ᄆᆞᆫ져 믈 길라 가라. 우리 ᄃᆞᆯ히 ᄆᆞᆯ 잇그러 가마.

[漢] 그리ᄒᆞ쟈. 나ᄂᆞᆫ 믈 길라 가노라. 네 ᄆᆞᆯ 가져 오라.

내 앗가 이 귀유[18] 안해 두 드렛믈 기러시니[19] ᄆᆞᆯ들을 먹이라.

[高] 이 ᄆᆞᆯ은 믈 잘 먹고 이 ᄆᆞᆯ은 믈 먹기 쟉게 ᄒᆞᆫ다.

[漢] 이 믈이 쟉으니 ᄯᅩ ᄒᆞᆫ 드레만 기르라.

[高] 드레 가져오라. 내 시험ᄒᆞ여 믈 깃기[20] ᄇᆡ화지라.

이 드레 믈에 ᄌᆞᆷ기디 아니ᄒᆞ니 엇디 ᄒᆞ여 것구리티리오?[21]

[漢] 내 너ᄃᆞ려 ᄀᆞᄅᆞ치마. 드레ᄅᆞᆯ다가 들어 믈 우희 ᄠᅴ워 배텨[22] 구르텨[23] 구으·리·혀 믈에 맛바다 드러가면 즉제 믈 먹ᄂᆞ니라.

[高] 이러면 진실로 在前에[24] 일즙 사ᄅᆞᆷ의 믈 깃기ᄅᆞᆯ 보와시되[25] 일즙[26] ᄇᆡ호디 아니ᄒᆞ엿더니 오ᄂᆞᆯ븟터 알괘라.

---

13) '오·ᄂᆞᆯ우·터'는 "오늘부터"임.
14) <飜老>에서는 'ᄆᆞᆯ 잇·기 :만·ᄒᆞ·면 ·나가·디'임.
15) <飜老>에서는 '·믈기·리'임.
16) <飜老>에서는 '·ᄒᆞ·고·나'임.
17) <飜老>에서는 ':몯·호·라'임.
18) <飜老>에서는 '구·ᅀᅵ'임.
19) <飜老>에서는 '기·러 잇·다'임.
20) <飜老>에서는 '기·리·를'임.
21) <飜老>에서는 '구으·리혀·료'임.
22) <飜老>에서는 '베·텨'임.
23) <飜老>에서는 '구으·리·혀'임.
24) <飜老>에서는 '앒·픠'임.
25) <飜老>에서는 ':긷·거·늘 ·보·다·니'임.
26) <飜老>에서는 '일·즉'임.

現代譯 26화 물 긷기 익숙하지 못하다

[중국인] 이 골목길은 좁아서 말을 많이 끌고는 나가지 못하네. 우리 두 번에 이끌고 가세.

[고려인] 그럽시다. 당신은 물 긷기에 익숙한 것 같아요. 나는 물 긷기에는 익숙하지 못해요. 당신이 먼저 물을 길으러 가세요. 우리 둘이 말을 끌고 가겠습니다.

[중국인] 그렇게 하세. 내가 물을 길으러 가겠네. 당신들은 말을 끌고 오게.

—물을 긷고 나서—

[중국인] 나는 방금 이 물구유(水槽) 안에 두레박으로 두 번 물을 길어 놓았네. 말부터 마시게 하세.

[고려인] 이 말은 물을 잘 마시는데, 이쪽 말은 물을 마시는 게 적어요.

[중국인] 물이 적네. 한 두레박 더 길어야겠네.

[고려인] 두레박을 가져오시오. 내가 물 긷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물을 길으려고 해서—

이 두레박이 물에 잠기지 않네. 어찌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중국인] 내가 가르쳐 주겠네. 두레박을 들어서 물 위에 띄워서 흔들어 뒤집고 물속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네.

[고려인]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사람이 물을 긷는 것을 보기만 하고 일찍이 배우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알 수 있게 되었네요.

原文 제27화 高麗井

[漢] 你高麗地面裏沒井阿怎麽?

[高] 我那裏井, 不似這般井. 這井是塼砌的井, 至小有二丈[1]深. 我那裏井 都是石頭疊的, 最深殺的[2]沒一丈, 都是七八尺來深. 我那裏男子漢 不打水, 只是婦人打水. 着箇銅盔,[3] 頭上頂水, 各自將着箇打水的瓢兒,[4] 瓢兒上絟着一條細繩子, 却和這裏井繩, 洒子一般取水.

[漢] 却怎麽那般打水?

[高] 我不理會得.

[漢] 我只道是和我這裏一般打水.

飜老 제27화 네 高麗ㅅᄯᅡ해 우믈 업스녀 엇디오?

[漢] 네 高麗ㅅᄯᅡ·해 우·믈 :업·스·녀 :엇·디·오?[5]

[高] ·우·리 ·뎻[6] 우·므·른 ·이·런 우·믈 ·ᄀᆞᆮ·디 아·니·니 ·이 우·므·른 ·벽[7]·ᄋᆞ·로 무·ᅀᅳᆫ[8] 우·므리·라. ᄀᆞ·장 :쟈·가·ᅀᅡ[9] 二丈[10] 기·픠·옴 ·ᄒᆞ·거니·와 ·우·리 뎻 우므른 :다 :돌·호·로 무ᅀᅳᆫ 거·시·라. ᄀᆞ·장 기·프니·도[11] ᄒᆞᆫ ·댱 기·픠 :업·서 :다 닐·굽 여·듧 ·잣 기·픠·라. ·우·리 거·긔·ᄂᆞᆫ 남지·니[12] ·믈·기·리 아·니ᄒᆞ·고 :다·믄 :겨·지·비 ·믈기·리 ·ᄒᆞ·ᄂᆞ·니 동·ᄒᆡ[13]·로 머·리 우·희 ·므·를 ·이·ᄂᆞ·니 ·각·각 ·믈 기·를 ·박[14] ·가·지·고 ·박 우·희 ᄒᆞᆫ 오·릿[15] ·ᄀᆞᄂᆞᆫ 노·ᄒᆞᆯ ᄆᆡ·얏ᄂᆞ·니 ·ᄯᅩ 여·긧 ·줄 드·레 ᄒᆞᆫ가·지로 ·믈 :긷·ᄂᆞ니·라.

[漢] ·ᄯᅩ :엇·디 그·리 :믈 :긷·ᄂᆞ·뇨?

[高] ·내 모·로·리로·다.

[漢] ·내 그저 닐·오·ᄃᆡ ·우·리 에 ᄒᆞᆫ 가·지·로 ·믈 :긷·ᄂᆞ·다 ·ᄒᆞ·야 니ᄅᆞ·노·라.

老諺 제27화 너희 高麗ㅅ ᄯᅡ헤 우믈이 업ᄉᆞ냐 엇디오?

[漢] 너희 高麗ㅅ ᄯᅡ헤 우믈이 업ᄉᆞ냐 엇디오?

[高] 우리 뎻 우믈은 이런 우믈 ᄀᆞᆺ디 아니니 이 우믈은 벽으로 무은 우믈이라 ᄀᆞ장 쟈거야 二丈 깁픠 잇거니와 우리 뎌긔 우믈은 다 돌로 무은 거시라 ᄀᆞ장 깁프니도 一丈 깁픠 업서 다 닐곱 여덟 자 깁픠라. 우리 뎌긔[16] ᄉᆞ나희는[17] 믈 긷디 아니ᄒᆞ고 다만 계집이 믈 긷기 ᄒᆞ되 동ᄒᆡ로 머리에 믈을 이ᄂᆞ니 각각 믈 긷ᄂᆞᆫ 박을[18] 가지고 박 우희 ᄒᆞᆫ 오리 ᄀᆞᄂᆞᆫ 노ᄒᆞᆯ ᄆᆡ얏ᄂᆞ니 ᄯᅩ 여긔 줄드레와 ᄒᆞᆫ가지로 믈 긷ᄂᆞ니라.

---

1) '二丈'의 '丈'은 높이를 재는 단위로서 우리말에 '길'쯤에 해당된다. 한 장(丈)은 10척(尺)이고, 약 3미터가 된다. 우리말의 '길'보다는 더 높은 단위다.
2) '最深殺的'은 "가장 깊은 것이라도"라는 의미이며, '~殺'은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고 그로부터 또 "설령 ~하더라도"라는 뜻이 된다.
3) '銅盔'의 '盔'는 "투구", 또는 "깊게 만든 물동이"를 말한다.
4) '瓢兒'는 '瓢(박)'를 반으로 쪼개어 물 등을 푸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5) '우·믈 :업·스·녀 :엇·디·오?'는 원문 '沒井阿怎麽?'를 직역한 것이다. "우물이 없는가? 어떤가?"의 뜻임.
6) '·뎻'은 '·뎨(저기, 거기)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원문 '那裏'의 번역이며 "그곳의, 저기의"의 뜻.
7) '·벽'은 "벽돌"을 말함. "벽 벽(甓)"(『訓蒙字會』 中 18).
8) '무·ᅀᅳᆫ'은 '뭇-(積) + -·은(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벽돌로) 쌓은"의 뜻.
9) ':쟈·가·ᅀᅡ'는 ':쟉-(小) + -·아(연결어미) + ·ᅀᅡ(강세 첨사)'의 형태구성으로 "(가장) 작아야, (제일) 적어야"의 뜻.

10) 주1 참조.
11) 'ᄀᆞ·장 기·프니·도'는 '最深殺的'의 번역으로 "가장 깊은 곳이라도"의 뜻. 주2 참조.
12) '남지·니'는 '남진(男) + -·이'의 형태구성으로 "남자가"의 뜻.
13) '동·ᄒᆡ'는 '銅盔"의 번역으로 "물동이"를 말함. 주3 참조.
14) 주4 참조.
15) 'ᄒᆞᆫ 오·릿'은 'ᄒᆞᆫ(一) + 오·리(條)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한 줄의"의 뜻. "오리 됴(條)"(『倭語類解』 下 39).
16) <飜老>에서는 '거·긔·ᄂᆞᆫ'임.
17) <飜老>에서는 '남지·니'임.
18) <飜老>에서는 '·믈 기·를 ·박'임.

[漢] 또 엇디 그리 믈을 깃ᄂᆞ뇨?
[高] 내 아디 몯ᄒᆞ리로다.[19]
[漢] 내 그저 닐오디 우리 여긔 ᄒᆞᆫ가지로 믈 깃는가 ᄒᆞ더니라.[20]

現代譯 제27화 당신네 高麗의 땅에는 우물이 없는가?

[중국인] 당신네들 고려 땅에는 우물이 없는가? 어떤가?
[고려인] 우리 쪽의 우물은 이런 우물 같지 않으니 이 우물은 벽돌로 쌓은 우물이라 가장 적어야 두 길(丈)의 깊이는 되는데, 우리 쪽 우물은 다 돌을 쌓은 것이라 아무리 깊어도 한 길(丈)이 되는 것이 없고 기껏해야 7, 8자(尺) 정도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물을 긷지 않고 여자만 물을 긷기 때문에 구리로 만든 동이로 머리 위에 물을 입니다. 각자 물을 긷는 바가지를 갖고 있는데 바가지에는 가느다란 끈이 한 줄 매여 있어서 이쪽의 두레박에 줄을 매어 물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인] 어찌 그렇게 물을 길을 수가 있단 말이오?
[고려인] 나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나는 그저 말하기를 우리의 이쪽과 한가지로 물 긷는다고 말했네.

原文 제28화 牽馬

[漢] 你牽迴這馬去, 再牽將別箇的來飮.
這馬都飮了.
[高] 這般黑地裏, 東廁裏難去. 咱們只這後園裏去 淨手[1]不好那?

19) <飜老>에서는 '모·로·리로·다'임.
20) <飜老>에서는 '·믈 :긷·ᄂᆞ·다 ·ᄒᆞ·야 니ᄅᆞ·노·라'임.

1) '淨手'는 "손을 씻다"란 뜻으로 '화장실에 가다'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漢] 我拿着馬, 你淨手去. 我不要淨手. 你離路兒着, 休在路邊淨手. 明日着人罵.
[高] 咱們一箇人 牽着兩箇去,[2] 絟的牢着.
[金] 這槽道[3]好生寬, 離的遠些兒絟, 又怕繩子紐着.
[漢] 疾快將草料[4]來 拌上着.
[金] 儘着, 他喫着.
[漢] 咱睡去來.

飜老 제28화 ᄆᆞᆯ 잇거 도라가라

[漢] :네 ·이 ᄆᆞᆯ 잇·거 도·라·가 ·또 다ᄅᆞ·니 잇·거 가·져·와 ·믈 머·기·라.
·이 ᄆᆞᆯ·ᄃᆞᆯ :다 머·겨·다.
[高] ·이·런 어·두·은 짜·해 :뒷·간·의 :가·미 어·렵·다. ·우·리 그저 이 :뒷터·헤 ·가 :뒤 ᄃᆞᆫ·뇨·미[5] 아·니 :됴·ᄒᆞ·녀?[6]
[漢] ·내 ᄆᆞᆯ 자·바:쇼·마.[7] :네 :뒤·보·라 가·라. ·나·ᄂᆞᆫ :뒤·보·기 :마·다. :네 ·길·흘 ᄠᅥ·워 ᄒᆞ·고 ·길:ᄭᅀ·애·셔 :뒤보·기 :말·라. 니·일 ᄂᆞ·미 구지람 드ᄅᆞ·니·라.
[高] ·우·리 ᄒᆞ나·히 :둘·콤 잇·거 ·가[8] ᄆᆡ·요·ᄆᆞᆯ 구·디 ᄒᆞ·라

언해에서는 ":뒤ᄃᆞᆫ·뇨·미"로 해석하였다.
2) '咱們一箇人 牽着兩箇去'는 "한 사람이 말 두 마리씩 끌고 가자"란 뜻임.
3) '槽道'는 물을 담아 두는 말구유를 말한다. 아마도 돌로 만든 물구유(水槽)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4) '草料'는 "여물"이다. 물을 마시게 한 뒤, 마지막으로 검은콩을 꿀에 섞은 여물을 먹인다고 하였다. 제18화 참조.
5) ':뒤 ᄃᆞᆫ·뇨·미'는 '淨手'의 번역으로 ':뒤(後) + ᄃᆞᆮ니-(行) + -·옴(동명사형) + -·이(주격)'의 형태구성이며 "뒤 보러 다니는 것이, 변소에 가는 것이"의 뜻.
6) '아·니 :됴·ᄒᆞ·녀?'는 '不好那?'의 직역으로 "좋지 않은가?"의 뜻.
7) '자·바:쇼·마'는 '잡-(拿) + -·아(연결어미) + :시-(在) + -오-(의도법) + -·마(청유형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내가 말을) 잡고 있으마. 잡고 있겠으니"의 뜻.
8) '·우·리 ᄒᆞ나·히 :둘·콤 잇·거 ·가'는 '咱們一箇人 牽着兩箇去'의 번역으로 "한 사람이 말 두 마리씩 끌고 가서"의 뜻. 주2 참조.

[金] ·이 구:싓·터·히9) ᄀᆞ·장 어·위·다.10) 띄·우·믈 멀즈시 ᄆᆡ·라.11) ·또 노히 버·믈·가12) 저·헤·라.13)

[漢] 쌜·리 ·딥·과 콩·돌14) 가·져다·가 버·므·려 주·라.

[金] 제 ᄆᆞᅀᆞᆷᄭᆞ·장 먹·게 ᄒᆞ·져.

[漢] ·우·리 자·라 가·져.

(老諺) 제28화 ᄆᆞᆯ 잇ᄭᅳ러 도라가라

[漢] 네 이 ᄆᆞᆯ 잇ᄭᅳ러 도라가고 ᄯᅩ 다른 이 잇ᄭᅳ러 가져와 믈 머기라.

이 ᄆᆞᆯ들 다 믈 머겨다.

[高] 이런 어두온 ᄯᅡ히 뒷간의 가기 어려오니 우리 그저 뒷동산의 가 뒤 보기15) 됴티 아니 ᄒᆞ랴.16)

[漢] 내 ᄆᆞᆯ 자바실 ᄶᅥ시니17) 네 뒤보라 가라. 나ᄂᆞᆫ 뒤보기마다. 네 길흘 ᄭᅴ워 ᄒᆞ고 길ᄭᅡ애셔 뒤보기 말라. 니일 ᄂᆞᆷ의게 ᄭᅮ지람18) 드ᄅᆞ리라.19)

[高] 우리 ᄒᆞᆫ 사ᄅᆞᆷ이 둘식20) 잇ᄭᅳ러 가 ᄆᆡ기롤21) 구디 ᄒᆞ라.

[金] 이 구유 터히 ᄀᆞ장 너ᄅᆞ니22) ᄯᅴ워23) 멀즈시 ᄆᆡ라. ᄯᅩ 노히 얼킬가24)

---

9) '구:싓·터·히'는 '구:시(槽) + -ㅅ(사이 ㅅ) + ·터ㅎ(處)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구유가 놓인 장소가"의 뜻. 주3 참조.

10) '어·위·다'는 "넓다"의 뜻.

11) '띄·우·믈 멀즈시 ᄆᆡ·라'는 "멀찍하게 띄어서 매어라"의 뜻. 원문 '離的遠些兒絟'을 직역하여 "띄우기를 멀찍하게 매라"로 되었다.

12) '버·믈·가'는 '버·믈-(絓) + -ㄹ·가(의문)'의 형태구성으로 "얽힐까, 걸릴까"의 뜻.

13) '저·헤·라'는 '怕'의 번역으로 "두렵다, 저어하다"의 뜻.

14) 원문 '草料'의 번역임. 주4 참조.

15) <飜老>에서는 ':뒤 돈·뇨·미'임.

16) <飜老>에서는 '아·니 :됴·ᄒᆞ·녀'임.

17) <飜老>에서는 '자·바:쇼·마'임.

18) <飜老>에서는 'ᄂᆞ·미 구지람'임.

19) <飜老>에서는 '듣ᄂᆞ·니·라'임.

20) <飜老>에서는 ':둘·콤'임.

21) <飜老>에서는 'ᄆᆡ·요·ᄆᆞᆯ'임.

22) <飜老>에서는 '어·위·다'임.

저페라.

[漢] 쌜리 딥과 콩을 가져다가 버므려 주어.

[金] 잇긋25) 댤로 ᄒᆞ여 먹게 ᄒᆞ고.

[漢] 우리 자라 가쟈.

(現代譯) 제28화 말 이끌어 돌아오라

[중국인] 당신들은 이 말들을 끌고 돌아가서 다른 말을 끌고 와 물을 먹이게.

이쪽 말들은 벌써 다 먹였네.

[고려인]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변소에 가기가 어렵네요. 우리 그저 이 뒤뜰에 가서 대변을 누어도 좋지 않겠어요?

[중국인] 내가 말을 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뒤 보러 가게. 나는 뒤 보지 않겠네. 당신은 길에서 떨어진 곳에다 하고 길가에다가는 뒤 보지 말게. 내일 남의 꾸지람을 듣게 되네.

—원래 장소로 돌아가서 동행인 고려 사람끼리 말함—

[고려인] 우리 한 사람이 두 마리씩을 끌고 가서 단단히 묶어 놓자.

—물 마시는 장소에 말을 끌고 가서 말함—

[고려인 김씨] 이 물구유(水槽)는 꽤 폭이 넓구나. 멀리 띄워서 매야겠네. 밧줄이 얽힐까 봐 걱정이야.

—물을 다 주고 나서—

[중국인] 자, 빨리 꼴과 콩을 가져다가 버무려 주게.

---

23) <飜老>에서는 '띄·우·믈'임.

24) <飜老>에서는 '버·믈·가'임.

25) <飜老>에서는 'ᄆᆞᅀᆞᆷᄭᆞ·장'임.

[고려인 김씨] 제 마음껏 먹게 합시다.

[중국인] 우리 자러 가세.

(原 文) 제29화 我去也

[漢] 火伴們, 起來. 雞兒叫第三遍了, 待天明了也. 咱急急的收拾了行李, 鞁了[1]馬時, 天亮了. 辭了主人家去來.

主人家哥 休怪, 我去也.

[主] 你休怪, 好去着.[2] 迴來時, 却來我店裏下來.

[漢] 這橋便是我夜來說的橋, 比在前十分好. 在先只是土搭的橋[3]來, 如今都是板輓[4]了. 這橋梁, 橋柱 比在前忒牢壯. 這的捱十年也壞不得.

(飜 老) 제29화 우리 가노이다

[漢] :벋·둘·하 :닐·어·라. 둘·기 우·런 ·디 :세 ·홰어·다. ᄒᆞ·마 하·늘·도 볼·ᄀᆞ·리로·다. ·우·리 ᄲᆞᆯ·리 ·짐·둘 설어·즈·라. 몰 기·ᄅᆞ마 진·노·라

1) '鞁了'의 '鞁'는 "(말에 안장을 얹기 위하여 채우는) 복대"를 말하나 여기서는 "말에 안장을 얹는 일"을 말한다. <飜老>의 언해에서도 "기·ᄅᆞ마 진·노·라"이어서 "(말에) 길마를 짓다"로 되었다 <原老>에서는 '鞴了'인데 '備了'로도 쓰며 "말에 안장을 얹는 일"을 말한다.

2) '好去者'는 "조심해서 가십시오"의 뜻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나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다. 반대말은 "好住者-안녕히 계세요"이다. 현대 조선어의 작별 인사 "잘 가"와 "잘 있어"는 이에 대응된다.

3) '土搭的橋'는 "흙을 덮은 다리"를 말한다.

4) '板輓'은 "널판으로 다리의 윗부분을 덮었다"는 뜻. <原老>에서는 같은 뜻으로 '板幔'을 썼으나 <刪老>에서 바뀌었다. <原老>의 원문 '板幔'은 명(明)의 서광계(徐光啓)가 편한 『농정전서(農政全書)』(권45) 「一定倉式」에 "그 倉庫 위에는 方木을 서까래로 하여, 서까래 위에 板幔을 사용함"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幔'은 덮는 장막을 가리키므로 '板幔'은 덮개로 사용하는 얇은 판자를 말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ᄒᆞ·면 하·늘·히 볼·그·리로·다. ·쥬신:손·ᄃᆡ 하·딕ᄒᆞ·라 가·져.

·쥬싄 형·님 허·믈 :마·라쇼·셔.[5] ·우·리 ·가·노이·다.

[主] :네 허·믈 :말·오. 이·대[6] ·가·쇼·셔. 도·라 ·오·실 ·제 ·ᄯᅩ ·와 ·우·리 :뎜·에 브·리쇼·셔.

[漢] ·이 ᄃᆞ리·ᄂᆞᆫ ·곧 내 어·제 니ᄅᆞ·던 ᄃᆞ:리·니 :아·럐두·곤 ᄀᆞ·장 ·됴·타. 앏·픠·ᄂᆞᆫ 그저 ᄒᆞᆰ 텨 밍·ᄀᆞᆫ ᄃᆞ:리[7]러니 ·이·제·ᄂᆞᆫ :다 :널 ·ᄭᆞ·라 잇·고 ·이 ᄃᆞ릿보·와 기동·둘·히 :아·럐 ·치·와[8] 견·조·면 너므 굳·다. ·이거·시 ·십년·을 :디·나·도 ·히·야디·디 아·니ᄒᆞ·리로·다.

(老 諺) 제29화 우리 가노라

[漢] 벗들아! 닐거라. ᄃᆞᆰ이 울언디 세 홰니 ᄒᆞ마 하ᄂᆞᆯ도 볼그리로다. 우리 ᄲᆞᆯ리 짐들 收拾ᄒᆞ쟈.[9] ᄆᆞᆯ 기ᄅᆞ마 짓노라 ᄒᆞ면 하ᄂᆞᆯ이 볼그리로다. 主人의게[10] 하딕ᄒᆞ고 가쟈.

主人 형아! 허믈 말라.[11] 우리 가노라.[12]

[主] 네 허믈 말고 됴히 가라.[13] 도라올 제 ᄯᅩ 우리 店에 와 브리오라.

[漢] 이 ᄃᆞ리ᄂᆞᆫ 곳 내 어제 니ᄅᆞ든 ᄃᆞ리니 아럐과 比컨대[14] ᄀᆞ장 됴타. 앏

5) '허믈 마ᄅᆞ쇼셔'는 '허물하지 말라'는 뜻에서부터 '신경을 쓰지 말라', 혹은 '마음을 쓰지 말라'는 의미로서 그 쓰임이 매우 광범위하다. 여기에서 중국 상인의 말은 '욕하지 마시오'의 뜻으로 "신세를 졌으나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는 것을 욕하지 마시오"라는 뜻이다.

6) '이·대'는 "잘, 좋게"의 뜻임. 제13화 주17 참조.

7) 'ᄒᆞᆰ 텨 밍·ᄀᆞᆫ ᄃᆞ:리'는 원문 '土搭的橋'를 언해한 것. "흙으로 만든 다리"라는 뜻. 주3 참조.

8) ':아·럐 ·치·와'는 "먼저 것과"의 뜻.

9) <飜老>에서는 '설어·즈·라'임.

10) <飜老>에서는 '·쥬싄:손·ᄃᆡ'임.

11) <飜老>에서는 '허·믈 :마·라쇼·셔'임.

12) <飜老>에서는 '·우·리 ·가·노이·다'임.

13) <飜老>에서는 '이·대 ·가·쇼·셔'임.

14) <飜老>에서는 ':아·럐두·곤'임.

녜ᄂᆞᆫ 그저 ᄒᆞᆰ 텨 ᄆᆡᆼᄀᆞᆫ ᄃᆞ리러니 이제ᄂᆞᆫ 다 널 ᄭᆞ랏고 이 ᄃᆞ릿 보와 기동이 아ᄅᆡ과 견조면 너모 굿다. 이ᄂᆞᆫ 十年을 견ᄃᆡ여도[15] 믈허디디[16] 아니ᄒᆞ리로다.

(現代譯) 제29화 우리는 이제 갑니다

[중국인] 친구들이여! 일어나시오. 닭이 운 지 세 번이구나.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일세. 우리 빨리 짐들을 정리합시다. 말안장을 얹노라면 하늘이 밝을 것일세. 주인한테 하직하러 갑시다.

—여관 주인에게 가서—

주인아저씨, 허물 마시오. 우린 이제 갑니다.

[점주인] 당신들이야말로 허물 마시고 잘 가십시오. 돌아오실 때에 또 와서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숙소를 떠나서 작년에 무너졌던 다리에 도착했다—

[중국인] 이 다리가 어제 밤 내가 말했던 다리인데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예전에는 그냥 흙을 쳐서 만든 올린 다리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판자를 덮었고 다리 들보(橋梁)와 다리 기둥(橋脚)도 예전 것에 견주어 보면 훨씬 튼튼하게 되었네. 이러면 10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로세.

15) <飜老>에서는 ':디·나·도'임.
16) <飜老>에서는 '·히·야디·디'임.

3. 자, 북경(北京)으로!

이 장면은 와점(瓦店)을 떠나서 일로 북경(北京)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한 것이다. 중간에 민박할 때에 좋은 주인을 만나 대접을 잘 받기도 하고 흉년 지역의 인심 사나운 주인을 만나 고생도 하면서 하점(夏店)을 지나 북경(北京)이 보이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대화로 엮은 것이다.

(原文) 제30화 飯喫

[漢] 日頭這般高了. 前頭又沒甚麼店子, 咱們只投那人家糴[1]些米, 自做飯喫去來.

[高] 那般着. 肚裏好生飢了, 咱們去來.

[漢] 這馬都卸下行李, 鬆了肚帶, 取了嚼子,[2] 這路傍邊放了, 着喫草着. 教一箇看着, 別的都投這 人家問去來.

(飜老) 제30화 밥 지ᅀᅥ 먹고 가져

[漢] ᄒᆡ·ᄂᆞᆫ ·이·리 놉·고 앏 ·픠 :아·모·란 :뎜·도 :업·스·니 ·우·리 그저 ·더 ᄉᆡᆫ가·의 ·가 ·ᄡᆞᆯ 밧·고·와[3] ·손·조 ·밥 지·ᅀᅥ 먹·고 가·져.

[高] 그·리ᄒᆞ·져. ·ᄇᆡ ᄀᆞ·장 ᄀᆞᆲ프다. ·우·리 가·져.

1) '糴'은 쌀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嚼子'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한다. 제75화에서는 '鬧口'라고 하였다.
3) '·ᄡᆞᆯ 밧·고·와'는 원문 '糴些米'를 직역한 것으로 "쌀을 사다"의 뜻임. 주1 참조.

[漢] 이 ᄆᆞᆯ·ᄃᆞᆯ ·짐 브·리우·고 오·랑4) 느·추·고 마·함5) 벗·기·고 ·이 ·긼ᄀᆞ·ᅀᅢ 노·하 ·플 먹·게 ᄒᆞ·고 ᄒᆞ나·ᄒᆞᆯ ·히·야6) 보·게 ᄒᆞ·고 다ᄅᆞ·니·ᄂᆞᆫ :다 ·이 ᅀᅵᆫ가·의7) ·드·러·가 무·르라 가져.

(老諺) 제30화 밥 지어 먹고 가쟈

[漢] 히 이리 노팟고8) 앏픠 ᄯᅩ 아므른 店도 업ᄉᆞ니 우리 그저 뎌 人家의 드러가 ᄡᆞᆯ 밧고와 손조 밥 지어 먹고 가쟈.

[高] 그리ᄒᆞ쟈. ᄇᆡ ᄀᆞ장 골프다. 우리 가쟈.

[漢] 이 ᄆᆞᆯ 다 짐 브리오고 오랑 느추고 마함 벗기고 이 길ᄭᆞ애 노하 플 먹게 ᄒᆞ고 ᄒᆞ나ᄒᆞ로 ᄒᆞ여9) 보게 ᄒᆞ고 다ᄅᆞ니ᄂᆞᆫ 다 이 人家의 드러가 무로라 가쟈.

(現代譯) 제30화 밥 지어먹고 가다

[중국인] 해가 이렇게 높아졌고, 앞에 아무런 상점도 없으니 우리 저 집에 가서 쌀을 사서 밥을 손수 지어먹고 갑시다.

[고려인] 그렇게 하지요. 배도 많이 고픕니다. 자, 우리 갑시다.

[중국인] 이 말의 짐을 모두 내리고, 말의 복대를 느슨하게 풀고 재갈도 벗기고 길가에 노아서 풀을 뜯어먹게 하세. 한 사람 시켜서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집으로 들어가 물어보러 가세.

---

4) '오·랑'은 '肚帶'를 언해한 것으로 말에 안장을 얹기 전에 말의 배에 두르는 띠를 말함. 몽고어의 'olang'을 차용한 것임.
5) '마·함'은 '마함(馬銜)', 즉 '재갈'을 말함. 주2 참조.
6) '·히·야'는 "시켜서"의 뜻.
7) 'ᅀᅵᆫ가·의'는 "인가(人家)에, 사람이 사는 집에"의 뜻.
8) <飜老>에서는 '놉·고'임.
9) <飜老>에서는 'ᄒᆞ나·ᄒᆞᆯ ·히·야'임.

(原文) 제31화 主人家哥, 憐客

[漢] 主人家哥, 我幾箇行路的人, 這早晚不曾喫早飯, 前頭又沒甚麽店子. 我特的來, 怎生糴與些 米做飯喫.

[主] 要甚麽糴米? 我的飯熟了, 客人們喫了過去.

[漢] 這般時, 敢少了你飯.

[主] 不妨事. 便少時, 我再做些箇便是.

將卓兒來, 敎客人們只這棚1)底下坐的喫飯. 淡飯2)胡3)亂喫些箇. 有甚麽熟菜蔬, 將些來與客人喫. 怕沒時, 有蘿蔔, 生葱, 茄子將來. 就將些醬來.

[興]4) 別箇菜都沒, 只有塩瓜5)兒 與客人喫.

[主] 也好, 將來. 客人們休怪, 胡亂喫些.

[漢] 小人們驟面間6)廝見, 大哥便這般重意7) 與茶飯8)喫, 怎麽敢怪?

[主] 量9)這些淡飯打甚麽緊? 偏我不出外, 出外時, 也和你一般.

[漢] 大哥說的是.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10)

---

1) '棚'은 집안의 뜰 가운데에 임시로 세운 차일이나 천막을 말한다. 여기서는 '양붕(凉棚)', 즉 햇빛을 막기 위한 '차일(遮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淡飯'은 "찬이 없는 밥, 맛이 없는 밥"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겸손해서 하는 말임.
3) '胡'는 "아무렇게나, 적당히"의 뜻임. 여기서는 "참고 먹으라"는 의미.
4) '興'은 제33화에도 나오는 이 집의 하인 '흥아(興兒)'를 말함.
5) '塩瓜'는 "소금에 절인 호박"이겠으나 이보다는 "절인 오이"가 더 일반적인 반찬이어서 이 쪽을 택했다.
6) '驟面間'은 "갑작스럽게 얼굴을 마주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 같은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어쩌면 '面'이 혹시 '而'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원간본(元刊本) 『마합라(魔合羅)』 극일절(劇一折) 「작답지(鵲踏枝)」 곡(曲)에 "略而間"(얼마동안)이라는 어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7) '重意'는 "심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후하게"란 뜻이다. 『금전기(金錢記)』 「잡극(雜劇)」 3折의 대사에 "小生有德能, 着老相公這等重意管待也-소생에게 무슨 덕이 있어, 상공께서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주십니까?-"라는 구절이 있다.
8) '茶飯'은 먹는 것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老朴集覽』 「累字解」). 식사를 말함.
9) '量'은 "기껏해야 이 정도"라는 뉘앙스의 말이다.

(飜老) 제31화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다

[漢] ·쥬신 형·님 ·우·리 여·러 ·길 녈 :사·ᄅᆞ·미 이 느·즌 ·듸 일·즉 아 촘·밥·을 :몯 머·거 잇·고11) 읈·픠·는 ·ᄯᅩ :아·ᄆᆞ·란 :뎜·도 :업·슬·식 ·우·리 부·러 ·오·소·니12) ·아·ᄆᆞ려:나 :져·기 ·ᄡᆞ·롤 밧·괴·여 ·주·어·든 ·밥 지·ᅀᅥ 머·거지·라.

[主] ᄆᆞ·스ᄆᆞ·려 ·ᄡᆞ·를 밧·고·려 ·ᄒᆞ·ᄂᆞ·뇨? ·우·리 ·바·비 니·거 잇ᄂᆞ:니 나·그·내·네 먹·고 :디·나가·라.

[漢] ·이·러ᄒᆞ:면 네 ·밥·이 :쟈·글 ·듯ᄒᆞ고·나.

[主] ᄆᆞ던ᄒᆞ·니. ᄆᆞᆫ·득 :쟉·거·든 ·우·리 다·시 :져·기 ᄒᆞ·면 ·곧 :긔·어·니 ᄯᆞ·나.

상 가·져·오·라. 나·그·네·돌 ·ᄒᆞ·야 그저 ·이 :가·개13) 아·래 안·자:셔 ·밥 먹·게 ᄒᆞ·져. ᄆᆡᆫ ·바·블14) 간:대·로15) 머·그라. :아·ᄆᆞ·란 ᄂᆞ·ᄆᆞᆫ ᄂᆞ ᄆᆞ·새 잇거·든 :져·그·나 가·져다·가 나·그·내·네 ·주·워 먹게 ᄒᆞ·라. ᄒᆞ·다·가 :업·거·든 댓무수16)·와 ·파·와 가지 잇거·든 가·져 ·오·라. 이·믜·셔 쟝조·쳐 가·져·오·라.

[興] 녀느17) ᄂᆞᄆᆞ·새ᄂᆞᆫ ·다 :업·거니·와 :다·ᄆᆞᆫ 저·린 :외·옷18) 잇·다.

---

10)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기분을 잘 안다"는 당시의 속담.
11) '느·즌 ·듸 일·즉 아촘·밥·을 :몯 머·거 잇·고'는 중국어 원문 '這早晚不會喫早飯'을 직역한 것으로 '이렇게 아침이 늦은데, 일찍이 아침밥을 못 먹었고'의 뜻이니 '늦게까지 아침을 못 먹었다'의 뜻이다.
12) '부·러 ·오·소·니'는 원문 '我特的來'의 번역으로 "(우리가) 일부러 왔으니"의 뜻.
13) ':가·개'는 '棚'을 언해한 것으로 '가가(假家)'인 것으로 보임. '棚'에 대하여는 주1 참조.
14) 'ᄆᆡᆫ ·바·블'은 원문 '淡飯'을 해석한 것으로 "맨 밥을"임. 주2 참조.
15) '간:대·로'는 원문 '胡亂'를 언해한 것임. "아무렇게나"의 뜻. 주3 참조.
16) '댓무수'는 '蘿蔔'를 언해한 것으로 '무우'를 말함. "댓무수 蘿, 댓무수 蔔"(『訓蒙字會』 上 14).
17) '녀느'는 "다른"의 뜻.

나·그·내·네 ·주·어 머·기·져.

[主] 그·도 :됴·타. 가·져·오·라. 나·그·내·네 허·믈 :마·오. 간:대·로 머그·라.

[漢] 小人·돌·히 과그른 ᄂᆞ·치 서르 ·보·와·셔19) ·큰형·님·이 ·이·리 듕·ᄒᆞᆫ ·ᄠᅳ·드·로20) ·차·반21) ·주·어 머·기·시거·니 :엇·디 외·오 너·길:고?22)

[主] ·혜·어·든23) 이·맛·감24) :뷘 ·바·비25) ᄆᆞ·스거·시 긴ᄒᆞᆯ·고? ·독·벼·리 ·내·라 ᄒᆞ야 :외방·의 나·ᄃᆞ·리 아·니ᄒᆞᆯ·가? :외방의 ·나·가·면 ·ᄯᅩ 너·와 ᄒᆞᆫ가·지어·니ᄯᆞ·나.

[漢] ·큰형·님 니ᄅᆞ·샤·미 ·올ᄒᆞ·시이·다. 일·즉 :인방26)·의 ·나ᄃᆞᆫ·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고27) 나·옷 수울 탐 ᄒᆞ·면 :취·ᄒᆞᆫ ·사·ᄅᆞ·몰 앗·기·ᄂᆞ니·라.28)

(老諺) 제31화 나그내를 에엿비 녀기다

[漢] 쥬인 형아! 우리 여러 길 녜ᄂᆞᆫ 사ᄅᆞᆷ이 이리 느즌듸 일즉 아촘밥을 못

---

18) '塩瓜'의 번역으로 "절인 오이"를 말함. 주5 참조.
19) '과그른 ᄂᆞ·치 서르 ·보·와·셔'는 원문 '們驟面間廝見'을 직역한 것으로 "갑작스런 낯으로 서로 보아서"의 뜻이다. 즉 "갑작스럽게 대면하게 된 생면부지의 얼굴"이란 뜻이다.
20) '듕·ᄒᆞᆫ ·ᄠᅳ·드·로'는 원문 '重意'를 직역한 것으로 "심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란 뜻이다. '重意'에 대하여는 주7 참조.
21) '·차·반'은 원문 '茶飯'을 차용한 것으로 "식사"를 말한다. 주8 참조.
22) ':엇·디 외·오 너·길:고?'는 원문 '怎麽敢怪?'를 직역한 것이다. "어찌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의 뜻임.
23) 원문 '量'의 직역으로 "헤아리건대,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이 정도의 맛없는 밥)"이란 뜻의 겸양이다. '量'에 대하여는 주9 참조.
24) '이·맛·감'은 "이 정도"의 뜻.
25) ':뷘 ·바·비'는 '淡飯'의 직역임. "아무런 반찬이 없는 밥"의 뜻.
26) ':인방'은 '인방(隣邦)', "이웃한 곳"을 말함.
27) '일·즉 :인방·의 ·나ᄃᆞᆫ·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고"는 '慣曾出外偏憐客'의 직역임.
28) '나·옷 수울 탐ᄒᆞ·면 :취·ᄒᆞᆫ ·사·ᄅᆞ·몰 앗·기·ᄂᆞ니·라'는 '自己貪盃惜醉人'의 직역임.

먹엇고[29] 알픠 또 아므란 店도 업스매 우리 부러 와시니[30] 아므려나 져기 발 밧괴여 주어든 밥 지어 먹어지라.

[主] 므슴 아라[31] 발 밧고려 ᄒᆞᄂᆞ뇨? 우리 밥이 닉어시니[32] 나그내들 먹고 디나가라.

[漢] 이러면 네 밥이 져글 둧ᄒᆞ다.

[主] 므던ᄒᆞ니. 곳 젹거든 우리 또 져기 지으면[33] 곳이어니ᄯᆞ녀.

상 가져 오라. 나그내들 ᄒᆞ여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셔 밥 먹게 ᄒᆞ쟈. 민밥을 간대로 먹으라. 아므란 니근 菜蔬[34] 잇거든 져기 가져다가 나그내들 주어 먹게 ᄒᆞ라. ᄒᆞ다가 업거든 댓무우와 파와 가지 잇거든 가져오고 이믜셔 져기 쟝[35] 가져 오라.

[興] 녀느 ᄂᆞᄆᆞ새는 다 업거니와 다만 저린 외 이시니[36] 나그내 주어 먹이쟈.

[主] 그도 됴타. 가져 오라.

나그내들 허믈 말고 간대로 먹으라.

[漢] 小人돌히 과그른 ᄂᆞ치 서ᄅᆞ 보와셔 큰 형이 곳 이런 듕ᄒᆞᆫ ᄠᅳ드로 차반 주어 먹이시니 엇디 싱심이나 허믈ᄒᆞ료?[37]

[主] 혜건대 이만[38] 민밥이[39] 므스 거시 긴ᄒᆞ료? 독별이 내라 외방의 나가디 아니랴?[40] 외방의 나가면 또 너와 ᄒᆞᆫ가지어니ᄯᆞ녀.

[漢] 큰 형의 니롬이 올타![41] 일즙[42] 외방의 나ᄃᆞᆫ니기 니그면 일편되이

29) <飜老>에서는 ':몯 머·거 잇·고'임.
30) <飜老>에서는 '·오·소·니'임.
31) <飜老>에서는 '므·스므·려'임.
32) <飜老>에서는 '니·거 잇ᄂᆞ:니'임.
33) <飜老>에서는 ':져·기 ᄒᆞ·면'임.
34) <飜老>에서는 'ᄂᆞᄆᆞ·새'임.
35) <飜老>에서는 '쟝조·쳐'임.
36) <飜老>에서는 ':외·옷 잇·다'임.
37) <飜老>에서는 '외·오 너·길:고'임.
38) <飜老>에서는 '이·맛·감'임.
39) <飜老>에서는 ':뷘 ·바·비'임.
40) <飜老>에서는 '나·ᄃᆞ·리 아·니홀·가'임.

나그내를 에엿비 녀기고 나곳[43] 술을 탐ᄒᆞ면 취ᄒᆞᆫ 사ᄅᆞᆷ을 앗기ᄂᆞ니라.

(現代譯) 제31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다

[중국인] 주인어른, 우리 여러 길 가는 사람들이 아침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아침밥을 먹지 못했고 앞에도 또 아무런 상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와서 어떻게 쌀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밥을 지어먹으려고 합니다.

[집주인] 무엇하러 쌀을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 밥이 익었으니 손님들 드시고 가시죠.

[중국인] 그러면 댁의 밥이 적을 것 아닙니까?

[집주인] 괜찮습니다. 설사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조금 지으면 곧 되겠지요.

—하인 흥아(興兒)에게—

[집주인] 상을 갖고 오라. 손님들에게 이 차일(遮日) 밑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시게. 맨 밥이지만 어쨌든 참고 드시오. 어떤 익은 채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갖다가 손님들에게 드려서 들게 하시게. 만일 없으면 무나 파, 또 가지를 갖고 오너라. 간장도 가져오고.

[흥 아] 다른 채소는 다 없거니와 다만 소금에 절인 오이가 있으니 손님들에게 드려서 먹게 합시다.

[집주인] 그것도 좋구나. 가져오너라.

손님들, 허물 마시고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중국인] 소인들은 갑자기 찾아왔는데, 주인어른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여서 후하게 식사를 주어 먹이시거니 어찌 허물로 생각하겠습니까?

41) <飜老>에서는 '니ᄅᆞ·샤·미 ·올ᄒᆞ·시이·다'임.
42) <飜老>에서는 '일·즉'임.
43) <飜老>에서는 '나·옷'임.

[집주인] 기껏해야 이 정도의 맨 밥인데 무엇이 긴하겠습니까? 특별히 나라고 하여 외지로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외지에 나가면 또 당신들과 똑같고 말구요.

[중국인] 주인 말씀이 옳습니다. '일찍이 여행에 익숙한 자는 특별히 나그네를 동정하며 자기가 술을 탐하면 취한 사람을 아낀다.'는 셈이군요.

(原文) 제32화 喫得飽那不飽?

[主] 你外頭還有火伴麼?

[漢] 有一箇看行李, 就放馬裏.

[主] 他喫的飯却怎生?

[漢] 我們喫了時, 與他將些去. 有椀與一箇, 這飯裏[1]盛出一椀飯, 與那箇火伴.

[主] 由他,[2] 你都喫了着. 家裏還有飯裏. 喫了時 將去. 你休做客,[3] 慢慢喫的飽着.

[漢] 我是行路的客人, 又肯做甚麼客.

[主] 喫得飽那不飽?

[漢] 我好生飽了.

[主] 收拾椀楪着.

(飜老) 제32화 날회여 ᄇᆡ브르 머그라

[主] :네 밧·긔 그·려·도[4] :버·디 잇ᄂᆞ녀?

[漢] ᄒᆞ나·히 ·짐 ·보·ᄂᆞ·니 이셔·셔 게·셔 ᄆᆞᆯ 노·하 머·기ᄂᆞ·니.

[主] ·더·의 머·글 ·밥ᄋᆞᆫ ᄯᅩ :엇·디ᄒᆞ·려·뇨?

[漢] ·우·리 먹·고 ·더 :위·ᄒᆞ·야 :져·기 가·져가·져. 사발[5] 잇거·든 ᄒᆞ나 :다·고·라. ·이 ·밥·애·셔 ᄒᆞᆫ사·발·만 다·마 :내·여 ·더 :버·들 주·져.

[主] 제·대·로 두·라[6] 너:희 :다 머·그·라. 지·븨 당시·론[7] ·바·비 잇·다. 머·기 ᄆᆞ·차·든 가·져 가·라. 너:희 손 도원 :양 :말·오[8] 날회여 ·ᄇᆡ브르 ·머·그·라.

[漢] ·우·리·ᄂᆞᆫ ·길 ·녀·ᄂᆞᆫ 나·그·내어·니 :ᄯᅩ 므·슴 소·니·론[9] :양 ᄒᆞ·리·오?

[主] 머·구·미 브르·녀? 아·니 브르·녀?

[漢] ·우·리 ᄀᆞ·장 브르이·다.

[主] 사발 뎝·시 설어·즈·라.

(老諺) 제32화 날회여 ᄇᆡ 브로 머그라

[主] 네 밧긔 그려도 벗이 잇ᄂᆞ냐?

[漢] ᄒᆞ나히 짐 보ᄂᆞ니 이셔셔 이믜셔 ᄆᆞᆯ 노한ᄂᆞ니.[10]

[主] 더의 머글 밥을 ᄯᅩ 엇디ᄒᆞ료?

[漢] 우리 먹그면[11] 더 위ᄒᆞ야 져기 가져 가쟈. 사발 잇거든 ᄒᆞ나 다고. 이 밥에셔 ᄒᆞᆫ 사발만 다마 내어 더 버들 주쟈.

---

1) <原老>에서는 '這般裏'이었는데 이때의 '般'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盤'(큰 접시)의 잘못이거나 혹은 <飜老>에서와 같이 '飯'이어야 할 것이다. '般'과 '飯'은 현재 한국 한자음으로는 동음(同音)이 된다.
2) '由他'는 "놔두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老朴集覽』「累字解」)란 의미가 있는데 이로부터 "괜찮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他'에는 지시성(指示性)이 없다.
3) '做客'은 "사양하다"는 뜻이다.
4) '그·려·도'는 "그래도, 또"의 뜻.
5) '椀'의 번역. "사발, 또는 음식 담는 그릇"을 말함.
6) '제·대·로 두·라'는 '由他'의 번역으로 "그냥 두시오, 됐어요"의 뜻. '由他'에 대하여는 주2 참조.
7) '당시·론'은 "아직, 또, 오히려"의 뜻.
8) '손 도원 :양 :말·오'는 "손님이 된 척 말고"이다. 원문 '做客'의 번역으로 "사양하지 말고"의 뜻임. 주3 참조.
9) '소·니·론 양'은 "손님인 척"이며 "사양하다"의 뜻. <老諺>에는 '손인 양'임.
10) 'ᄆᆞᆯ 노한ᄂᆞ니'는 원문 '放馬裏'를 언해한 것으로 "말을 놓아 있나니"로 보인다. <飜老>에서는 "ᄆᆞᆯ 노·하 머·기ᄂᆞ·니"인 것으로 보아 '노한ᄂᆞ니'는 '놓-(放) + -아(연결어미) + ㅅ-(在) + -ᄂᆞ-(현재)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보인다.
11) <飜老>에서는 '먹·고'임.

[主] 제대로 두고 너희 다 머그라. 집의 당시론 밥이 이시니 먹기 ᄆᆞ차든 가져가라. 너희 손 도윈 양 말고 날회여 ᄇᆡ 브로 머그라.

[漢] 우리ᄂᆞᆫ 길 네ᄂᆞᆫ 나그내라. ᄯᅩ 즐겨 므슴 손인[12] 양 ᄒᆞ리오?

[主] 머금이 브르냐? 아니 브르냐?

[漢] 우리 ᄀᆞ장 ᄇᆡ브르다.[13]

[主] 사발 뎝시 서러즈라.

現代譯 제32화 천천히 많이 잡수시오

[집주인] 당신들, 밖에 또 동행이 있소이까?

[중국인] 한 사람이 짐을 보면서 말을 풀어먹이고 있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먹으면 가져다줄 것입니다. 사발이 있으면 하나 빌려 주시오. 이 많은 밥에서 한 사발 분을 담아 그 친구한테 갖다 주겠습니다.

[집주인] 놔두고 당신들만 모두 드시오. 집에는 아직 밥이 남았으니 다 먹고 나서 갖다 주면 되겠군요. 사양 말고 천천히 많이 드시오.

[중국인]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무슨 사양을 하겠습니까?

[집주인] 배불리 드셨나요, 못 드셨나요?

[중국인] 우리 모두 충분히 먹었습니다.

—興兒에게—

[집주인] 식기를 치워라.

12) <飜老>에서는 '소·니·론'임.
13) <飜老>에서는 '브르이·다'임.

原文 제33화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

[主] 客人們 有一箇看着馬的, 不曾來喫飯.

興兒,[1] 你另盛一椀飯, 罐[2]兒裏將些湯, 跟着客人去, 與那箇火伴. 喫了時, 却收拾家事[3]來.

[漢] 主人家哥 休怪, 小人們 這裏定害.[4]

[主] 有甚麽定害處? 喫了些淡飯, 又沒甚麽好茶飯.

[漢] 休那般說, 不當.[5] 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6] 我正飢渴時. 主人家這般與茶飯喫, 怎生忘的你?

[主] 休那般說. 偏我出外時, 頂着房子走[7]? 也要投人家 尋飯喫裏.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8]

1) '興兒'는 이 집의 하인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興兒'는 원대(元代)에는 자주 남자 하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합한삼(合汗衫)』 연극(演劇)에도 주인공의 하인 이름에 '興兒'가 있다.
2) '罐'은 물이나 국 등을 퍼 담는 관 모양의 그릇을 말한다.
3) '家事'는 "식기, 용구류"를 말한다. '家火', '家生'이라고도 한다.
4) '定害'는 "방해하다, 폐를 끼치다"의 뜻이다(『老朴集覽』「累字解」). '訂害'라고도 쓴다.
5) '不當'은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의 뜻이 있다.
6) '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는 "배고플 때에 한 입거리가 배부를 때의 한 말보다 고맙다"는 의미의 속담.
7) '頂着房子去-집을 머리에 이고 가다'로 여행을 떠나면 남의 신세를 지게 된다는 의미의 상투적인 표현이다. 『수호전(水滸傳)』 제2회에서 나그네 길에서 사가촌(史家村)에 묵은 왕진(王進)에 대하여 태공(太公)이 "如今世上人那個頂着房屋走哩-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집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대사가 있다.
8)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은 나그네를 돌봐주는 일은 힘들지만 실은 자신의 명성을 널리 퍼지게 하여 결국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남극등선(南極登仙)』 연극에 「고본전명잡극(孤本全明雜劇)」(3折)의 대사에는 "可不道(~라고 말하지 않는가)"를 앞에 붙이고 이 대사가 시작된다. 또 명(明) 장사유(張四維)의 『쌍열기(双烈記)』 제8齣에서도 "好看千里客, 萬里去傳名"이란 구절이 있다.

(飜老) 제33화 쳔리엣 나그내를 됴히 보와 보내여 만리예 일후믈 옴ᄀᆞᆯ디니라

[主] 나·그내네 ᄒᆞᆫ나·히 ᄆᆞᆯ 보·ᄂᆞ·니 잇·다 ·ᄒᆞ·더·니 ·와 ·밥 먹·디 아·니·ᄒᆞ·얏ᄂᆞ·니.

훙:싀·아9) :네 ·닫·티10) ᄒᆞᆫ 사·발만 ·밥 :담·고 :권·ᄌᆞ11)·애 ·탕 ·ᄶᅧ 가·져 나·그·내 ·조·차 ·가12) ·더 :빋·디·가 주·고 머·구·믈 ᄆᆞ·차든 ·ᄯᅩ ·그·릇13)·돌 설어저 ·오·라.

[漢] ·쥬신 형·님! 허·믈 ·마·ᄅᆞ쇼·셔. 小人·돌·히 :에 ·와 ·해·자ᄒᆞ·고 널·이·과이·다.14)

[主] 므슴 :해·자널·인 ·고·디15) 이실·고? :뷘 ·밥 먹·고 ·ᄯᅩ :아·ᄆᆞ·란 :됴·ᄒᆞᆫ ·차·반·도 :업·더·니 그·리 니ᄅᆞ·디 :말·라.

[漢] 不敢當히.16) 골픈 ·제 ᄒᆞᆫ ·입 ·어더머구·미 브른 제 ᄒᆞᆫ 말 ·어·둠두·곤 ·더·으니17) ·우·리 :졍·히 :ᄇᆡ 골프·고 목 ᄆᆞᆯ·라 이신 저·긔 ·쥬신·이 ·이·리 ·차·반 ·주·워 머·기·니 :엇·디 너·를 니·즈리·오?

---

9) 이 집의 하인 '興兒'를 부르는 말. 주1 참조.

10) '·닫·티'는 "따로"의 뜻. '다티'로도 씀. '·닫(別) + ·티(강세첨사)'의 형태구성으로 보임.

11) ':권·ᄌᆞ'는 '罐子'의 차용어로 보임. '罐'은 "물이나 국을 담는 그릇". 주2 참조.

12) '·조·차 ·가'는 "따라 가서"의 뜻.

13) '家事'의 번역으로 이는 "식기, 용구류"를 말한다. 주3 참조.

14) '·해·자ᄒᆞ·고 널·이·과이·다'는 '定害'의 번역으로 '·해·자ᄒᆞ-(費) + -·고(연결어미) + 널·이-(擾) + -·과-(감탄) + -이-(공손법) + -·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이다. "폐를 끼치고 성가시게 하였습니다그려"의 뜻. <老諺>에서는 "슈폐ᄒᆞ여이다"이었음. '定害'에 대하여는 주4 참조.

15) ':해·자널·인 ·고·디'는 '定害處'의 직역으로 "폐를 끼친 곳이"의 뜻임.

16) '不敢當히'는 원문 '不當(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듣는 자격이 없다)'의 번역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의 뜻. 주5 참조.

17) '골픈 ·제 ᄒᆞᆫ ·입 ·어더머구·미 브른 제 ᄒᆞᆫ 말 ·어·둠두·곤 ·더·으니'는 "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의 직역이다. 주6 참조.

[主] 그·리 니ᄅᆞ·디 :말·라. ·별·히 ·내·라 :외방·의 ·나·가·면 집 이·고 ᄃᆞᆫ·니·려18) ·ᄯᅩ 人家·로 ·드·러·가 ·밥 :어·더 머글 거·시·니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녀19) 쳔 ·리·엣 나·그·내·를 :됴·히 ·보·와 보·내·여 :만 ·리·예 일·후·믈 옴·ᄀᆞᆯ20)·디니·라.

(老諺) 제33화 千里엣 나그내를 됴히 보와 보내미 萬里에 일홈을 뎐ᄒᆞ다

[主] 나그내네 ᄒᆞᆫ나히 ᄆᆞᆯ 보ᄂᆞ니 잇다 ᄒᆞ더니 일즙 와 밥먹디 아니ᄒᆞ얏ᄂᆞ니.

興兒야! 네 ᄲᆞ로21) ᄒᆞᆫ 사발 밥을 담고 탕권에22) 져기 탕 가져 나그내 조차 가 더 벗주어 먹거든23) ᄯᅩ 그릇들 설어저 오라.

[漢] 쥬인 형아! 허믈 말라. 小人들히 예 와 슈폐ᄒᆞ여이다.24)

[主] 므슴 슈폐ᄒᆞᆫ 곳이 이시리오? 져기 뮌밥 먹고 ᄯᅩ 아므란 됴흔 차반도 업ᄉᆡ라. 그리 니ᄅᆞ디 말라.

[漢] 당티 못ᄒᆞ여라.25) 골픈 제 ᄒᆞᆫ 입 어더 먹으미 브른 제 ᄒᆞᆫ 말 어듬도곤 나으니라. 우리 졍히 飢渴ᄒᆞᆫ26) ᄢᅢ예 쥬인이 이리 차반 주어 머기시니 엇디 너롤 니즈리오?

[主] 그리 니ᄅᆞ디 말라. 독별이 내라 외방의 나가면 집을 이고 ᄃᆞᆫ니랴? ᄯᅩ 人家로 드러가 밥 어더 먹으리라.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냐? 千里엣 나그내를

---

18) '집 이·고 ᄃᆞᆫ·니·려'는 '頂着房子走'의 직역임. 주7 참조.

19)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녀?'는 원문 '却不說'을 직역한 것으로 다음에 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치(倒置)되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느냐?"의 뜻임.

20) '옴·ᄀᆞᆯ'은 '옴·기-(傳) + -오-(대상법) + -ㄹ(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옮길"의 뜻.

21) <飜老>에서는 '·닫·티'임.

22) <飜老>에서는 ':권·ᄌᆞ·애'임. 아마도 '湯罐'의 표음으로 보임.

23) <飜老>에서는 '머·구·믈 ᄆᆞ·차든'임.

24) <飜老>에서는 '·해·자ᄒᆞ·고 널·이·과이·다'임.

25) <飜老>에서는 '不敢當히'임.

26) <飜老>에서는 ':ᄇᆡ 골프·고 목 ᄆᆞᆯ·라 이신'임.

됴히 보와 보내미 萬里예 일훔을 던코져[27] 홈이라.

現代譯 제33화 천리의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만리에 이름을 전하다

[집주인] 손님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돌보고 있어서 밥 먹지 않았네.
홍아(興兒)야, 너 따로 밥 한 사발을 담고, 통에 국을 떠서 손님들을 따라가 그 동행 분에게 드리고 끝나면 그릇을 수습해서 오너라.

[중국인] 주인아저씨! 허물 마십시오. 소인들이 여기 와서 폐만 끼쳤습니다.

[집주인] 무슨 폐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찬 없는 밥을 먹고 또 이렇다 할 좋은 반찬도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오.

[중국인] 천만에 당치 않습니다. "배고플 때에 한 입 얻어먹는 것이 배부를 때의 한 말보 다 낫다"라고 하더니 마침 우리가 한참 배고프고 목말라 있을 때에 주인께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으니 어찌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주인] 그런 말씀 마시오. 특별히 나도 외지에 나가면 집을 머리에 이고 가겠습니까? 역시 인가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천리(千里)를 여행하는 나그네를 좋게 돌봐 주면 그 이름은 만리(萬里)에 옮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原文 제34화 是必家裏來

[漢] 主人家哥, 小人這裏攪擾[1]了, 姓也不曾問. 大哥貴姓?

[主] 我姓張, 是張社長家.[2] 客人你却姓甚麽?

---

27) <飜老>에서는 '옴·끌·디니·라'임.

1) '攪擾'는 "폐를 끼치는 것"을 말함. <原老>에는 '溷踐'이라 하였음.
2) '社長家'는 원대(元代)에는 50 호(戶)를 1 사(社)로 하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漢] 小人姓王, 在遼東城裏住. 大哥因事 到我那裏, 不棄嫌小人時, 是必家裏來.

[主] 若能勾去時節, 便尋你家裏去.

[漢] 我偏背你.

飜老 제34화 모로매 지부로 오고라

[漢] ·쥬인 형·님! 小人·이 예 ·와 널·이숩·오·딕[3] :셩·도 :묻·좁·디 아·니·ᄒ·얏다·니 ·큰형·님 :셩이 므스·거신·고?

[主] 내 :셩·이 댱:개로·니[4] ·이 댱:샤·댱[5] 지·비로·다. 나·그·내·여! 너·는 ·또 :셩·이 므·스·고?

[漢] 小人·의 :셩·은 王:개로·니 遼東·잣 안·해·셔 :사·노·라. ·큰형·님 :아·ᄆ·란 :일 인:ᄒ·야 ·우·리 더·긔 ·오·나·든 小人·을 ᄇ·리·디 아·니·커시·든 모·로·매 지·부·로 ·오·고:라.

[主] :힝·혀 유·여·히 갈 시·져·리·면 ·곧 네 집 ·ᄎ·자 :가·마.

[漢] ·내·라 ·독·벼·리 너를 ᄇ·리·려.

老諺 제34화 모로매 집으로 오고려

[漢] 쥬인 형아! 小人이 예 와 널이오딕[6] 셩도 일즉 믓디[7] 아니ᄒ엿더니 큰 형의 姓이 므스 거신고?

'사장(社長)'이라 하였다(『朴覽』 上 '社神'). 현재 우리의 '리(里)'에 해당된다. '社長家'의 '家'는 '主人家'의 '家'처럼 의미가 없는 접미사다.

3) '널·이숩·오·딕'는 '널·이-(攪) + -숩오-(겸양법) + -·오·딕(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폐를 끼쳤사온데"의 뜻.
4) '댱:개로·니'는 '댱(張) + :가(家) + -ㅣ(지정사) + -로-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장가(張家)이니"의 뜻.
5) '댱:샤·댱'은 '張社長'을 말하며 '社長'에 대하여는 주1 참조.
6) <飜老>에서는 '널·이숩·오·딕'임.
7) <飜老>에서는 ':묻·좁·디'임.

[主] 내 姓이 張개라. 이 張社長 집이로다. 나그내 너ᄂᆞᆫ ᄯᅩ 姓이 므섯고?[8)]
[漢] 小人의 셩은 王개로니 遼東 잣 안해셔 사노라. 큰 형이 일을[9)] 인ᄒᆞ여 우리 더긔 오나든 小人을 ᄇᆞ리디 아니ᄒᆞ시면[10)] 모로매 집으로 오고려.
[主] 힝혀 유여히 갈 시졀이면 곳 네 집을 ᄎᆞ자 가마.
[漢] 내라 독별이 너를 ᄇᆞ리랴.

(現代譯) 제34화 꼭 저희 집에 오십시오

[중국인] 주인아저씨, 소인들이 여기서 와서 폐를 끼치고도 아직 성함조차 여쭙지 못했습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집주인] 내 성은 장(張)가이오. 이것이 장 이장(里長) 집입니다. 손님, 당신은 성이 무엇입니까?
[중국인] 소인은 왕(王)가이옵고 요동성(遼東城) 안에서 삽니다. 아저씨께서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 곳에 오시면 소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꼭 저희 집에 오십시오.
[집주인] 혹시 여유가 있어 갈 때에는 꼭 당신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중국인] 내가 특히 당신을 버리겠습니까?

(原文) 제35화 打駝馱

[漢] 那箇人家, 我恰纔糴[1)]米去來, 不肯糴與我, 他們做下見成的飯 與我喫了, 又與你 將來. 你喫了時, 與這小的[2)]椀楪將去. 火伴, 你赶將馬來, 咱打駝馱. 比及駝了時, 他也喫了飯也, 咱們便行. 這箇馬 怎麽這般難拿.
[高] 元來這般的.
[漢] 既這般歹時, 再來着絆着.
[高] 我在前絆着來, 今日忘了不曾絆, 咱們衆人攔當着 拿住.
[漢] 駝馱都打了也. 咱們行着. 小的, 你將椀楪, 罐兒家去. 生受[3)]你, 休怪着.

(飜老) 제35화 네 ᄆᆞᆯ 모라 오라 우리 짐 신져

[漢] ·뎌 지·븨 ·내 앗·가 ᄀᆞᆺ ·ᄡᆞᆯ 밧·고·라[4)] ·갓·다·니 :나·를 밧·괴·여 주·디 아·니ᄒᆞ·고 저희 지·ᅀᅥ 잇ᄂᆞᆫ ·밥·을 ·우·리 ·주·워 머·기·고 ·ᄯᅩ 너 주·라 ·ᄒᆞ·야·ᄂᆞᆯ 가·져 오·니 :네 먹·고 ·이 아·ᄒᆡ[5)]·를 사발 ᄃᆞᆸ·시 ·주·워 가·져 가·게 ᄒᆞ·라
[高] :버·다! :네 ᄆᆞᆯ 모·라 ·오·라. ·우·리 ·짐 :신·져. ·짐 시·로·믈 ᄆᆞ·ᄎᆞᆳ ᄀᆞᆯ·와[6)] ·뎌·도 ·밥 머·기 ᄆᆞ·ᄎᆞ·리로·다. ·우·리 ·즉·재 ·길 ·녀·져.
[漢] ·이 ᄆᆞ·리 :엇·디 ·이·리 잡·디 어·려우·뇨?
[高] 본·ᄃᆡ ·이·러ᄒᆞ·니·라.
[漢] ᄒᆞ·마 ·이리 아·니·완·출·ᄒᆞ·거·든[7)] ᄂᆞ외·란[8)] 지·달[9)] ·ᄡᅳ·라.
[高] ·내 :아·ᄅᆡ·ᄂᆞᆫ 지·달 ·ᄡᅳ·다·니 오·ᄂᆞ·ᄅᆞᆫ 닛·고 지·달 ·ᄡᅳ·디 아·니:호·라. ·우·리 모·ᄃᆞᆫ :사·ᄅᆞ·미 애·워 막·쟈. 자·바다.

---

8) <飜老>에서는 '므·스·고'임.
9) <飜老>에서는 ':아·ᄆᆞ·란 :일'임.
10) <飜老>에서는 '아·니·커시·든'임.

1) '糴'은 "쌀을 팔다"의 뜻이다.
2) '小的'은 하인을 부를 때 쓰는 말로서 '아이야'의 뜻이다.

3) '生受'는 "고생시키다"는 뜻이다. '生'은 "쉽사리", "또는 간단히"를 의미하며, '受'는 "노고를 입다"는 뜻이다.
4) '·ᄡᆞᆯ 밧·고·라'는 '糴米'를 언해한 것으로 "쌀을 바꾸러"의 뜻. '糴'에 대해서는 주1 참조.
5) '·이 아·ᄒᆡ'는 '這小的'을 언해한 것으로 '小的'에 대해서는 주2 참조.
6) 'ᄆᆞ·ᄎᆞᆳ ᄀᆞᆯ·와'는 'ᄆᆞᆾ-(完) + -올(파생명사형) + -ㅅ(사이 ㅅ) + ᄀᆞᆯ오-(幷) +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마침과 나란히, 마치는 것과 동시에"의 뜻.
7) '아·니·완·출·ᄒᆞ·거·든'의 '아·니·완·출·ᄒᆞ-'는 "사납다, 나쁘다, 포악하다"의 뜻.
8) '노의'는 "거듭, 다시"의 뜻. 'ᄂᆞ외'의 변화형.
9) '지·달'은 "(말이 함부로 뛰지 못하게) 발을 싸는 기구". "絆 지달"(『同文類解』하, 20).

[漢] ·짐시·리 :다 ·ᄒᆞ·야·다. ·우·리 녀·져.

아·ᄒᆡ·야 :네 사발 뎝·시 :권·ᄌᆞ 가·져 지·븨 가·라. 너 :슈·고·ᄒᆞ·연·뎌.10) 허·믈 :말·라.

(老諺) 제35화 네 ᄆᆞᆯ 모라 오라 우리 짐싯쟈

[漢] 뎌 人家의11) 내 앗가 ᄀᆞᆺ ᄡᆞᆯ 밧고라 갓더니 즐겨 날을 밧괴여 주디 아니ᄒᆞ고 저희 지어 잇ᄂᆞᆫ 밥을 우리 주어 먹이고 ᄯᅩ 너를 주라 ᄒᆞ야ᄂᆞᆯ 가져 와시니12) 네 먹어든 이 아ᄒᆡ를 사발 뎝시 주어 가져 가게 ᄒᆞ라.

[高] 벗아! 네 ᄆᆞᆯ 모라 오라. 우리 짐싯쟈. 짐싯기 ᄆᆞᆺ춤애 미ᄎᆞ면13) 뎌도 밥먹기 ᄆᆞᆺᄎᆞ리로다.우리 즉제 길 네쟈.

[漢] 이 ᄆᆞᆯ이 엇디 이리 잡기 어려오뇨?

[高] 본ᄃᆡ 이러ᄒᆞ니라.

[漢] 임의 이리 사오나오면14) 노의란 지달ᄊᆞ라.

[高] 내 아리ᄂᆞᆫ 지달ᄊᆞ더니 오ᄂᆞᆯ은 닛고 일즙 지달ᄊᆞ디 아니호라. 우리 모ᄃᆞᆫ 사ᄅᆞᆷ이 에워 막쟈. 자바다.

[漢] 짐싯기15) 다 ᄒᆞ야다. 우리 네쟈.

아ᄒᆡ야! 네 사발 뎝시 탕권16) 가져 집의 가라. 너 슈고ᄒᆞ여다.17) 허믈 말라.

---

10) '너 :슈·고·ᄒᆞ·연·뎌'는 원문 '生受你'를 언해한 것이다. '-·연·뎌'는 "감탄 종결어미"이어서 "네가 수고를 했구나!"의 뜻. '生受'에 대해서는 주3 참조.

11) <飜老>에서는 '지·븨'임.

12) <飜老>에서는 '오·니'임.

13) <飜老>에서는 'ᄆᆞ·ᄎᆞᇙ ᄌᆞᆯ·와'임.

14) <飜老>에서는 '아·니·완·출·ᄒᆞ·거·든'임.

15) <飜老>에서는 '·짐시·리'임.

16) <飜老>에서는 ':권·ᄌᆞ'임.

17) <飜老>에서는 ':슈·고·ᄒᆞ·연·뎌'임.

(現代譯) 제35화 말 몰아오라, 우리 짐 신자

[중국인] 저 집에 아까 쌀을 바꾸러 갔었는데 쌀은 바꾸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지은 밥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또 자네에게 주라고 하여서 가져왔으니 자네가 먹고 나서 이 아이한테 식기를 주어 가져가도록 하게.

—남은 친구가 밥을 먹는 동안 말을 몰아온다—

[고려인] 이 친구, 말을 몰아오시오. 우리 짐을 실읍시다. 짐 싣는 일이 끝날 때를 맞추어 그 사람도 밥을 다 먹을 것이오. 우리 곧 길 갑시다.

—말을 몰아 잡으며—

[중국인] 이 말은 어찌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가?

[고려인]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인] 이렇게 사납거든 다시 한번 발을 묶어두세.

[고려인] 내가 전에는 항상 묶어두었는데 오늘을 잊어버리고 매지 않았소. 우리 모두 에워싸서 막읍시다. 잡았다.

[중국인] 짐 싣기 다 했네. 우리 갑시다.

—興兒에게—

얘야, 너 사발이랑 접시, 국그릇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너 정말 수고하였구나! 허물 말거라.

原文 제36화 尋箇宿處

[漢] 日頭却又這早晩也. 這裏到夏店,[1] 還有十里來地, 到不得也. 只投這路北那人家, 尋箇宿處去來.

[高] 那般着, 咱們去來.

[漢] 都去時, 那人家見人多時, 不肯敎宿. 着兩箇看行李, 我兩箇問去.

飜老 제36화 잘 ᄃᆡ 어드라 가져

[漢] ·ᄒᆡ ᄒᆞ·마 ·이·리 늣·도고·나.[2] 예·셔 夏店[3]·에 :가·매 당시·론 十里ㅅ·ᄯᅡ·ᄒᆡ 이시·니 가디 :몯ᄒᆞ·리로·다. 그저 이 길 ·븍·녁 人家·의 ·드·러·가 잘 ·ᄃᆡ :어드·라 가·져.

[高] 그·리ᄒᆞ·져.

[漢] ·우·리 가·져. :다 가·면 ·뎌 人家[4]ㅣ :사·ᄅᆞ·미 :만·ᄒᆞᆫ ·주·를 보·면 ·즐·겨 자·게 아니ᄒᆞ·리·니 :둘:흘 ·ᄒᆞ·야 ·짐 보·게 ᄒᆞ·고 ·우·리 :둘·히 무·르·라 가·져.

1) '夏店'은 북경에 가는 도중에 있는 역(驛) 이름이다. 삼하현(三河縣)에 속하며(『老覽』) 『석진지집일(析津志輯佚)』의 「대도동서관마보참 · 천하참명(大都東西館馬步站 · 天下站名)」에 "大都에서 동서(東西)로 40리를 가면 통주(通州)에 이르고, 60리 가면 하점(夏店)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또 청대(淸代)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권31) 「하겸택(夏謙澤)」조에도 이 역명이 보인다. 예부터 북경에 가는 사행(使行)의 숙박지로 유명한데 조선 선조(宣祖) 7년(1574)에 사행(使行)의 일원으로 북경에 간 허봉(許篈)의 기행일기 『하곡선생조천기(荷谷先生朝天記)』와 홍대용(洪大容)의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등의 조선시대의 연행록(燕行錄)에도 사행이 여기에 묵었다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2) '늣·도고·나'는 '늣-(晩) + -·도-(감동법) + -고·나(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늦었구나, 매우 늦었다"의 뜻.

3) '夏店'은 동쪽에서 북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역(驛)의 이름. 주1 참조.

4) '人家ㅣ'의 'ㅣ'는 모음으로 끝난 한자어 다음에 와서 주어를 나타냄. "사람집이"의 뜻.

老諺 제36화 잘 ᄃᆡ 어드라 가쟈

[漢] ᄒᆡ ᄯᅩ[5] 이리 느젓고나[6] 예셔 夏店 가기 당시롱 十里 ᄯᅡ히 이시니 가디 못ᄒᆞ리로다. 그저 이 길 븍녁 뎌 人家의 드러가 잘 ᄃᆡ 어드라 가쟈.

[高] 그리ᄒᆞ쟈.

[漢] 우리 가쟈. 다 가면 뎌 人家ㅣ 사ᄅᆞᆷ이 만ᄒᆞᆫ 줄을 보면 즐겨 재디[7] 아니ᄒᆞ리니 둘흐로 ᄒᆞ여[8] 짐 보게 ᄒᆞ고 우리들이 무로라 가쟈.

現代譯 제36화 오늘밤은 어디에서 묵나?

[중국인] 해가 벌써 이렇게 늦었구나. 여기서 하점(夏店)에 가기에는 아직 10리(里) 땅이 남았으니 가지 못할 것이요. 그저 이 길 북쪽에 있는 저 인가에 들어가서 잘 곳을 얻어 보세.

[고려인] 그렇게 하지요.

[중국인] 우리 갑시다. 다들 가면 저 집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즐겨 묵게 하지를 아니할 것이니 두 사람은 시켜서 짐을 보게 하고 우리 둘이 물어보러 가세.

原文 제37화 你房子裏 尋箇宿處

[漢] 拜揖, 主人家哥. 我是客人, 今日晩了, 你房子裏 尋箇宿處.

[主] 我房子窄, 沒處安下, 你別處尋宿處去.

5) <飜老>에서는 'ᄒᆞ·마'임.

6) <飜老>에서는 '늣·도고·나'임.

7) <飜老>에서는 '자·게'임.

8) <飜老>에서는 ':둘:흘 ·ᄒᆞ·야'임.

[漢] 你這般大人家, 量我兩三箇客人, 却怎麽說下不得? 你好房子裏 不敎我宿時, 只這門前車房裏, 敎我宿一夜如何?

[主] 我不是不敎你宿. 官司排門粉壁,[1] 不得安下面生歹人. 你是那裏來的客人, 自來 又不曾相識, 怎知是好人歹人? 便怎麽敢容留安下?

飜老 제37화 네 지븨 잘 듸 어더지이다

[漢] ·읍·ᄒᆞ·노이·다.[2] ·쥬신 형·님! :내 나·그·내라·니 오·ᄂᆞᆯ 졈·그·러[3] 네 지·븨 잘 ·듸 :어·더·지이:다.

[主] ·우리 지·비 조·바 브·릴 ·듸 :업·세·라. :네 다ᄅᆞᆫ ·듸 잘 ·듸 :어·드·라 가·라.

[漢] 네 ·이·리 ·큰 지·븨 :혜:어·든[4] ·우·리 :두·세 나·그·내·를 ·ᄯᅩ ·엇·디 ·브·리·디 ·몯 ᄒᆞ·리·라 니ᄅᆞᄂᆞᆫ·다? 네 :됴·ᄒᆞᆫ 방·의 ·우·리를 :재·디 :몯·ᄒᆞ거:든 그저 ·이 문 앒 술·윗방·의[5] ·우·리·를 ᄒᆞᄅᆺ·밤 :재·게[6] ·호·미 :엇·더ᄒᆞ·뇨?

[主] ·우·리 너희·를 자·디 몯·게 ·ᄒᆞ논 ·주·리 아:니·라 구의로[7] ᄆᆞ술 집 문:마·다 ᄇᆞᄅᆞ·매 ·분·칠ᄒᆞ·고[8] ·써·쇼·듸[9] 가:ᄂᆡ·예 ·잡:사·ᄅᆞᆷ :업·다 ·ᄒᆞ·야 잇·ᄂᆞᆫ 거·긔[10] ᄂᆞᆾ:선 ·잡사·ᄅᆞ·ᄆᆞᆯ[11] 브·리·워 두·디 :몯·ᄒᆞᆯ 거·시·니 :네 어·듸ᄉ 나·그·낸 ᄃᆞᆯ :알·리오? ·본·ᄃᆡ로 ᄯᅩ 서르 사·괴·디 :몯·ᄒᆞ·던 거시·니 :엇·디 :됴·ᄒᆞᆫ :사·ᄅᆞᆷ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 :알·리·오? :엇·디 머·믈·워 브리·워 두·료?

老諺 제37화 네 집의 잘 ᄃᆡ를 어더지라

[漢] 拜揖ᄒᆞ노라.[12] 主人 형아! 나ᄂᆞᆫ 나그내러니 오ᄂᆞᆯ이 졈그러시니 네 집의 잘 ᄃᆡ를 어더지라.[13]

[主] 우리 집이 조바 브리올 ᄃᆡ 업스니 네 다ᄅᆞᆫ ᄃᆡ 잘 ᄃᆡ 어드라 가라.

[漢] 네 이리 큰 집의 혜건대[14] 우리 두세 나그내를 ᄯᅩ 엇디 브리오디 못ᄒᆞ리라 니ᄅᆞᄂᆞᆫ다? 네 됴ᄒᆞᆫ 방의 우리를 재디 아니러커든[15] 그저 이 문 앒 술윗방의 우리를 ᄒᆞᄅᆺ밤 재게 홈이 엇더ᄒᆞ뇨?

[主] 내 너희를 재디 아니려 ᄒᆞᄂᆞᆫ 줄이 아니라 구의에셔 집 문마다 ᄇᆞᄅᆞᆷ애 분칠ᄒᆞ고 써쇼ᄃᆡ ᄂᆞᆾ선 잡사ᄅᆞᆷ을 브리오디 못ᄒᆞ게 ᄒᆞ엿ᄂᆞ니[16] 네 어ᄃᆡᆺ 나그낸 줄 알리오? 본ᄃᆡ로 ᄯᅩ 일즙 서ᄅᆞ 아디[17] 못ᄒᆞ노니 엇디 이

1) '排門粉壁'은 "집집마다[排門] 벽을 분칠하고"의 뜻이다. '排門粉壁'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에 거리의 각 집에 대문의 벽에 분을 발라서 "當家에서는 범죄자를 은닉하지 않았음" 등과 같이 적게 하였다(『老覽』). 『원전장(元典章)』「형부(刑部)」(권19) '諸禁 · 禁乞養過房販賣良民'조에 "所屬에 遍行하고 排門粉壁하여 밝히 타이르다"라는 기사가 있는 등 원대(元代)의 법령 문서에 종종 이런 구절이 보인다.

2) '·읍·ᄒᆞ·노이·다'는 원문 '拜揖'의 번역이다. '·읍·ᄒᆞ-(揖) + -·ᄂᆞ-(현재형) + -오-(의도법) + -이-(공손법 선어말) + -·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절합니다, 인사드립니다"의 뜻이다.

3) '졈·그·러'는 '졈·글-(暮)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서"의 뜻.

4) ':혜:어·든'은 원문 '量'의 직역으로 "생각해 보시오. (다음 일을)"의 뜻이다. '量'의 이러한 용법에 대하여는 제31화 주9 참조.

5) '술·윗방'은 '車房'을 직역한 것으로 "수레를 두는 방, 헛간"을 말함.

6) ':재·게'는 ':자-(宿) + -ㅣ-(사역형) + -·게(부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재우게, 자게 하여"의 뜻.

7) '구의로'는 "관청에서"의 뜻.

8) 'ᄇᆞᄅᆞ·매 ·분·칠ᄒᆞ·고'는 '粉壁'을 직역한 것임. '排門粉壁'에 대해서는 주1 참조.

9) '·써·쇼·듸'는 '·쓰-(書) + -어(연결어미) + ·시-(在) + -오·듸'의 형태구성으로 "써 있으되"의 뜻.

10) '가:ᄂᆡ·예 ·잡:사·ᄅᆞᆷ :업·다 ·ᄒᆞ·야 잇·ᄂᆞᆫ 거·긔'의 원문은 '官司排門粉壁'뿐이다. 이것은 '구의로 ᄆᆞ술 집 문:마·다 ᄇᆞᄅᆞ·매 ·분·칠ᄒᆞ·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번역자가 추가한 것이다. <老諺>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11) 'ᄂᆞᆾ:선 ·잡사·ᄅᆞ·ᄆᆞᆯ'은 '面生歹人'의 번역으로 "낯설고 나쁜 사람을"이란 뜻.

12) <飜老>에서는 '·읍·ᄒᆞ·노이·다'임.

13) <飜老>에서는 ':어·더·지이:다'임.

14) <飜老>에서는 ':혜:어·든'임.

15) <飜老>에서는 ':몯·ᄒᆞ거:든'임.

16) <飜老>에서는 ':몯·ᄒᆞᆯ 거·시·니'임.

17) <飜老>에서는 '사·괴·디'임.

됴ᄒᆞᆫ 사ᄅᆞᆷ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인 줄을 아라 곳[18] 엇디 감히 머믈워 브리오리오?

現代譯 제37화 당신 집에 하룻밤 신세집시다

[중국인] 인사 올립니다. 주인아저씨! 우리는 나그네들인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당신 집에서 하룻밤 얻어 자고 싶습니다.

[집주인] 우리는 집이 좁아서 묵을 데가 없소이다. 당신들 다른 데를 얻어 보시오.

[중국인] 당신네의 이렇게 큰집에서 기껏 우리 두세 나그네들을 어찌 묵을 수 없다고 하십니까? 댁의 좋은 방에서 우리를 재우지 못한다면 그저 이 문 앞의 차방(車房, 수레를 두는 차고)에서 하룻밤 자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 내가 당신들을 재우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관아에서 마을의 집집마다 대문의 벽에 하얗게 칠하고 쓰기를 '집 안에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써 있는 거기에 낯선 잡사람을 묵게 둘 수 없을 것이니 당신들이 어디서 온 나그네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본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고, 어찌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머물게 하여 묵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原文 제38화 宿不得

[漢] 主人家哥, 我不是歹人. 小人在遼東城裏住. 現將印信文引.[1]

[主] 你在遼東城裏那些箇[2]住?

[漢] 小人在遼東城裏閣北街[3]東住.

[主] 離閣有多少近遠[4]?

[漢] 離閣有一百步[5]地. 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主] 那雜貨鋪兒是你的那? 近南隔着兩家兒人家 有箇酒店, 是我相識的. 你認的麽?

[漢] 那箇是劉清甫酒館,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主] 雖然這般時, 房子委實窄, 宿不得.

飜老 제38화 자디 몯ᄒᆞ리라

[漢] ·쥬싄 형·님! ·우·리 아·니·완ᄒᆞᆫ :사·ᄅᆞ·미 아·니·라 小人·이 遼東·잣 ·안·해·셔 :사·노·니 인 ·틴 ·글·워·를[6] ·번·드·기 가·져 잇·노·라.

[主] :네 遼東·자·새 어·느 녀·긔·셔 :사·ᄂᆞ·뇨?

[漢] 小人·이 遼東·잣 안·햇 閣[7]·으·론 븍·녀·기·오 거·리·론 동녀·긔·셔 :사·노·라.

---

18) <飜老>에서는 ':알·리·오'임.

1) '印信文引'은 『老覽』의 주석에 의하면 '路引'이라고 불리는 통행증서임을 알 수 있는데, 관청에서 관인을 찍어 발행한 문서(文書)다. 『원전장(元典章)』「호부(戶部)」(권7) '잡례 · 별리가색전량(雜例 · 別里哥索錢糧)'에 "명백한 인신문인(印信文引)이 없으면 주지 말라"라는 예문이 있다. 또한 같은 책 「형부(刑部)」(권14) '사조현인(詐雕縣印)'에 "거짓으로 녹읍현(鹿邑縣)의 인(印)을 파고, 문인(文引)을 사도(寫到)하여 강을 건너간 죄범(罪犯)"이란 예문도 있다. 『老覽』에서는 이것을 "지금의 속된 말로 노인(路引)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여기서 '路引'은 일종의 통행증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원전장(元典章)』「형부(刑部)」(권13) '방도(防盜)' 참조.

2) '那些箇'는 "어디"란 뜻이다. '那些兒'와 같다.

3) 요양성(遼陽城)에 있는 존경각(尊經閣)을 말한다.

4) '近遠'은 "거리"를 말한다.

5) '步'는 길이의 단위이다. 원대(元代)에는 1보(步)가 5자(尺)이며 미터로 환산하면 약 1.5미터가 된다. 따라서 백보(百步)는 약 150미터의 거리다.

6) '인 ·틴 ·글·워·를'은 '印信文引'의 번역으로 "도장을 찍은 문서, 증명서"를 말함. 주1 참조.

7) 요양성(遼陽城)의 '존경각(尊經閣)'을 말함. 주3 참조.

[主] 闇·애·셔 ·ᄠᅳ:미8) :언·메·나 갓가·온·가? :먼·가?

[漢] 闇·애·셔 ·ᄠᅳ·미 ·일·ᄇᆡᆨ ·보9) ·ᄡᅡ·만 ᄒᆞᆫ ·ᄃᆡ ·븍·녁 :고·래 거리 :향·ᄒᆞ·야 ·잡효·근것:젼10) ·나·ᄂᆞᆫ ·ᄃᆡ ·곧 :긔·라.

[主] 그 상자·리:젼11)·이 네 ·하:가?12) 남녀 므즉13) :두 ·집 즈·슴·ᄒᆞ·야14) ᄒᆞᆫ 수울 ·ᄑᆞ·ᄂᆞᆫ :뎜 잇ᄂᆞ·니 ·이 내 :버·디·니 :네 ·아:ᄂᆞᆫ·다?

[漢] 그·ᄂᆞᆫ 劉淸甫·의 수울 ·ᄑᆞ·ᄂᆞᆫ 館·이·니 ·이 내 이우·지·니 :엇·디 모·ᄅᆞ 리·오?

[主] 비·록 ·이·러ᄒᆞ·나 지·비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몯ᄒᆞ·리·라.

老諺 제38화 자디 못ᄒᆞ리라

[漢] 쥬인 형아! 우리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 小人이 遼東잣 안해셔 사노니 인텬 글월을 번드시 가졋노라.

[主] 네 遼東잣 안 어늬 마춤셔15) 사ᄂᆞᆫ다?

[漢] 小人이 遼東잣 안해 閣으론 븍녁키오 거리론 동녁킈셔 사노라.

[主] 閣애셔 ᄠᅳᆷ이16) 언메나 머뇨?17)

[漢] 閣애셔 ᄠᅳᆷ이 일백 보 ᄶᅡ흔 ᄒᆞᆫᄃᆡ 븍녁 골 거리 향ᄒᆞ야 잡황호젼18) 나ᄂᆞᆫ ᄃᆡ 곳 긔라.

[主] 그 잡황호젼이 네하가? 남녀 마작19) 두 집 즈음ᄒᆞ야 ᄒᆞᆫ 술 ᄑᆞᄂᆞᆫ 뎜 잇ᄂᆞ니 이 내 벗이러니20) 네 아ᄂᆞᆫ다?

[漢] 그ᄂᆞᆫ 劉淸甫의 술 ᄑᆞᄂᆞᆫ 館이니 이 내 이우지니 엇디 모ᄅᆞ리오?

[主] 비록 이러ᄒᆞ나 집이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못ᄒᆞ리라.

現代譯 제38화 우리 집에서는 묵지 못 합니다

[중국인] 주인아저씨,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소인은 요동성(遼東城) 안에 사는데 도장 찍은 통행증명서를 버젓이 가졌습니다.

[집주인] 당신은 요동성(遼東城) 성안의 어느 쪽에 살고 있소?

[중국인] 소인(小人)은 요동성(遼東城) 성안에서 각(閣)으로는 북(北)쪽이고 거리(街)에서는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각(閣)에서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먼가?

[중국인] 각에서 거리가 일백 보(一百步) 정도의 땅이고 북쪽의 골목길을 향하여 잡화전이 있는 데가 곧 거기입니다.

[집주인] 그 잡화전이 네 것인가? 남쪽에 가깝게 두 집을 건너서 한 술파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어요?

[중국인] 그건 유청보(劉淸甫)의 술집입니다. 내 이웃이니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집주인] 그건 그렇지만, 집이 정말 좁아서 묵게 할 수가 없소이다.

---

8) '·ᄠᅳ:미'는 '·ᄠᅳ-(離) + -움(명사형)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떨어진 것이, 사이가 벌어진 것이"의 뜻.

9) '·일·ᄇᆡᆨ ·보'는 "一百步"이며 '步'는 1.5미터이니까 150미터의 거리임. 주5 참조.

10) '·잡효·근것:젼'은 '雜貨鋪兒'의 번역으로 '·잡(雜) + 횩-(小) + -은(관형사형) + 것(物) + :젼(廛)'의 형태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잡화전"을 말함. '상자·리:젼'이라고도 한다. <老諺>에서는 '잡황호젼'이라 함.

11) '상자·리:젼'도 '雜貨鋪兒'의 번역으로 '·잡효·근것:젼'과 같이 '잡화전'을 말한다. <老諺>에서는 '잡황호젼'으로 통일되었다.

12) '네 ·하:가'는 "너의 것인가"의 뜻. '내 해, 네 해'로 쓰여서 "내 것, 네 것"의 뜻을 가짐.

13) '므즉'은 "가까운 곳"의 뜻. '므즉 > 마작 > 마즘'의 변화형을 보임.

14) '즈·슴·ᄒᆞ·야'는 "떨어져서, 사이를 두고"의 뜻.

15) '마춤셔'의 '마춤'은 "가까운 곳"이라는 뜻. '마촘'으로도 씀. <飜老>에서는 '어·느 녀·긔·셔'임.

16) <飜老>에서는 '·ᄠᅳ:미'임.

17) <飜老>에서는 '갓가·온·가 :먼·가'임.

18) '잡황호젼'은 '잡(雜) + 황호(貨物) + 젼(廛)'의 복합어. "잡화전(雜貨廛)"을 말함. <飜老>에서는 '·잡효·근것:젼'임.

19) <飜老>에서는 '므즉'임. 주13 참조.

20) <飜老>에서는 ':버·디·니'임.

原文 제39화 着我宿一夜

[漢] 你可憐見. 你是有見識[1]的. 這早晚 日頭落也, 教我那裏尋宿處去? 不揀怎生,[2] 着我宿一夜.

[主] 這客人 怎麽這般歪廝纏?[3] 如今官司好生嚴謹, 省會[4]人家 不得安下面生歹人. 你雖說是遼東人家, 我不敢保裏. 你這幾箇火伴的模樣 又不是漢兒, 又不是達達,[5] 知他是甚麽人. 我怎麽敢留你宿? 你不理會的. 新近[6]這裏有一箇人家, 只爲敎幾箇客人宿來, 那客人去了的後頭, 事發. 那人們却是達達人家走出來的. 因此 將那人家連累, 官司見着落跟尋逃走的. 似這般帶累人家, 怎麽敢留你宿?

飜老 제39화 우리를 ᄒᆞᄅᆞᆺ밤만 자게 호ᄃᆡ여

[漢] :네 :에·엿·비 너·기고·라. 너·는 :일 ·아·논[7] :사·ᄅᆞ·미어·니 ·이 느·즌

1) '見識'은 우리말의 '식견(識見)'과 같은 의미. 언해문에서는 ':일 ·아·논'으로 번역하였다.
2) '不揀怎生'은 "어떻게 될까를 선택하지 않고 꼭 ~을 해야 하는"의 뜻.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의미한다. '不揀'은 '不管', '無論' 등과 같은 의미이다.
3) '歪廝纏'은 "경우가 없이 멋대로 덤비다"의 뜻. 원대(元代) 희곡(戲曲)의 하나인 『거안제미(擧案齊眉)』(雜劇 三折)와 『금병매사화(金甁梅詞話)』(제11회) 등에 이런 표현이 보인다. 『악양루(岳陽樓)』「극설자(劇偰子)」에서는 '歪死纏'으로 표기되었다. <原老>에서는 '硬廝戰'으로 쓰였다.
4) '省會'는 "알리다"라는 의미의 이어(吏語)로서, 즉 관청 문서용어이다(『老朴集覽』「累字解」).
5) '達達'은 몽고의 한 부족인 "타타르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중국인들은 몽고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사림광기(事林廣記)』(和刻本) 「경집(庚集)」(권10) '至元譯語'에 "達達, 蒙古歹"라는 구절이 있어 몽고인을 중국어로 '達達'이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新近'은 "요즘, 최근"의 뜻이다. 원곡(元曲)에서는 '新近來'의 형태로 자주 보인다.
7) ':일 ·아·논'은 '有見識'을 언해한 것으로 "식견이 있는"의 뜻임. 주1 참조.

·ᄃᆡ ·히·도 ·디ᄂᆞ·다[8] ·우·리·를 ·ᄒᆞ·야 어·듸 ·가 잘 ·ᄃᆡ :어·드·라 ·가·라 ·ᄒᆞ·ᄂᆞ·뇨? :아·ᄆᆞ라·나 :마·나 :헤·디 :말·오[9] ·우·리·를 ᄒᆞᄅᆞᆺ·밤·만 자·게 :호·ᄃᆡ:여.

[主] ·이 나·그·내 :엇·디 ·이·리 간:대·로 싯·고ᄂᆞ·뇨?[10] ·이·제 구:의 ᄀᆞ·장 嚴謹·ᄒᆞ·야 人家·돌·홀 믈외·여[11] ᄂᆞᆾ:선 아·니·완ᄒᆞᆫ :사·ᄅᆞ·믈 브·티디 :몯·ᄒᆞ·게 :ᄒᆞᄂᆞᆫᄃᆡ :네 비·록 遼東人·이로·라 ᄒᆞᆫ·돌 ·내 믿·디 :몯·ᄒᆞ·애·라. 네 ·이 여·러 :번·돌·희 양·지[12] ·ᄯᅩ 漢人도 아·니·오 ·ᄯᅩ 다대[13] 아·니·니 모·로·리로·다 어·듸 :사·ᄅᆞᆷ·고?[14] ·내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15] :네 모·ᄅᆞ·ᄂᆞ고·나. 요제예[16] ᄒᆞᆫ :사·ᄅᆞ·ᄆᆡ 지·븨·셔 :다·ᄆᆞᆫ 아·니 여·러 나·그·내·네·를 ·ᄒᆞ·야 :잰 젼·ᄎᆞ·로 그 나·그·내 간 :후·에 :일 나·니 그 :사·ᄅᆞᆷ돌·히 ·ᄯᅩ 다대 :사·ᄅᆞ·미 도망·ᄒᆞ야 ·나가·니어·늘[17] ·이 젼·ᄎᆞ·로 그 :사·라·ᄆᆡ 지·블다·가조차 버·므·러[18] 구:의 ·이·제 저 ·ᄒᆞ·야[19] 도

8) 諺解가 '히도 디ᄂᆞ다'로 되어서 종결어미가 쓰였으나, 여기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現代譯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 ':아·ᄆᆞ라·나 :마·나 :헤·디 :말·오'는 원문 '不揀怎生'을 언해한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의 뜻으로 보인다. '不揀怎生'은 주1 참조.
10) '간:대·로 싯·고ᄂᆞ·뇨?'는 원문 '歪廝纏'의 번역으로 "제 멋대로 시끄럽게 구는가?"의 뜻이다. '싯·고ᄂᆞ·뇨'의 '싯·고다'는 "시끄럽게 굴다"의 뜻을 가졌으며 '싯·구다'로도 쓰인다.
11) '믈외·여'는 '믈외-(告)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원문 '省會'의 번역이다. '디위ᄒᆞ다'로도 쓰이며 "포고하다, 알리다"의 뜻이다. '省會'는 주2 참조.
12) '양·지'는 "모습, 모양".
13) '다대'는 '몽고인'을 가리키지만 중국인 전체를 지칭할 때도 있다. 여기서는 '達達'을 언해한 것으로 몽고인을 말한다. '達達'은 주5 참조.
14) '모·로·리로·다 어·듸 :사·ᄅᆞᆷ·고'는 '知他是甚麽人'의 번역으로 '知他'를 '모로리로다'로 의역하였다. "모르겠다. 어디 사람인가?"의 뜻이다.
15) ':재·리:오?'는 '자-(宿) + -ㅣ-(사역형) + -리-(의도) + -오(의문종결)'의 형태구성으로 "재우겠는가?"의 뜻.
16) '요제예'는 원문 '新近'의 번역으로 "요즘, 요사이에"의 뜻. 주6 참조.
17) '·나가·니어·늘'은 '·나가-(出)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 + 이-(지정사) + -어·늘(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나간 사람이거늘"의 뜻.
18) '버·므·러'는 '버·믈-(累)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걸려서, 연좌되어, 얽매어서"의 뜻.
19) '저 ·ᄒᆞ·야'는 "저를 시켜서, 그 사람을 시켜서"의 뜻.

망·ᄒᆞ·니·를 츄심·ᄒᆞ·라20) ·ᄒᆞ·ᄂᆞ·니 ·이·리 人家·를 버·므·리ᄂᆞ·니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

老諺 제39화 우리로 ᄒᆞ여 ᄒᆞᄅᆞᆺ밤만 재라

[漢] 네 에엿비 너기라. 너는 見識이 잇ᄂᆞᆫ21) 사ᄅᆞᆷ이니 이리 ᄂᆞ저 ᄒᆡ도 뎌ᄂᆞᆫ듸22) 우리로 ᄒᆞ야 어듸 가 잘 ᄃᆡ 어드라 가라 ᄒᆞᄂᆞ뇨? 아ᄆᆞ라나23) 혜디 말고 우리로 ᄒᆞ여 ᄒᆞᄅᆞᆺ밤만 재라.24)

[主] 이 나그내 엇디 이리 간대로 싯고ᄂᆞ뇨? 이제 구의 ᄀᆞ장 嚴謹ᄒᆞ야 人家애 디위ᄒᆞ여25) ᄂᆞᆺ선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을 브티디 못ᄒᆞ게 ᄒᆞᄂᆞ니 네 비록 遼東 사ᄅᆞᆷ이로라 ᄒᆞ나 내 밋디 못ᄒᆞ여라. 네 이 여러 벗들의 모양이 ᄯᅩ 한사ᄅᆞᆷ도26) 아니오 ᄯᅩ 達達27)도 아니니 모로리로다 엇던 사ᄅᆞᆷ고? 내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 네 모ᄅᆞ는고나 요ᄉᆞ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의셔 그저 여러 나그내로 ᄒᆞ여 재엿더니 그 나그내 간 후에 일이 나니 그 사ᄅᆞᆷ들히 ᄯᅩ 達達 사ᄅᆞᆷ으로셔28) 도망ᄒᆞ야 나온 이롯더라. 이런 젼ᄎᆞ로 그 사ᄅᆞᆷ의 집블다가조차 버므려 구의 시방29) 절로 ᄒᆞ여30) 도망ᄒᆞ니를 츄심ᄒᆞ라 ᄒᆞᄂᆞ니 이러틋31) 人家를 버므리니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

---

20) '츄심·ᄒᆞ·라'는 "推尋하라, 찾아내라"의 뜻.
21) <飜老>에서는 ':일 ·아·ᄂᆞᆫ'임.
22) <飜老>에서는 '·디ᄂᆞ·다'임.
23) <飜老>에서는 ':아·ᄆᆞ라·나 :마·나'임.
24) <飜老>에서는 '자·게 :호·듸:여'임.
25) <飜老>에서는 '믈외·여'임.
26) <飜老>에서는 '漢人도'임.
27) <飜老>에서는 '다대'임.
28) <飜老>에서는 '다대 :사·ᄅᆞ·미'임.
29) <飜老>에서는 '·이·제'임.
30) <飜老>에서는 '저 ·ᄒᆞ·야'임.
31) <飜老>에서는 '·이·리'임.

現代譯 제39화 우리 하룻밤만 재워 주세요

[중국인] 주인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시오. 당신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 이런 늦은 시간에 해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숙소를 얻으라고 하십니까? 어찌 됐든 우리를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집주인] 이 나그네가 어찌 이렇게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는가? 지금 관아에서는 가장 엄중하게 인가(人家)에게 알리기를 낯선 나쁜 사람들을 묵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은 비록 요동(遼東)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지를 못하겠소.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인(漢人)도 아니고 또 몽골인도 아니니 모르겠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당신들을 머물러 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어느 집에서 나그네를 몇 사람 재운 일이 있었는데 나그네들이 돌아간 다음에 일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몽골 사람으로 [漢人 집에서] 도망하여 나갔는데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집도 연루되어 관청에서 이제 그 사람을 시켜서 도망하여 나간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내라고 하니 이처럼 인가(人家)를 연좌하는데 어찌 당신들을 머물러 재우겠습니까?

原文 제40화 委實不是歹人

[漢] 主人家, 你說那裏話? 好人歹人 怎麽不認的. 這幾箇火伴, 他是高麗人, 從高麗地面裏來. 他們高麗地面, 守口子,1) 渡江處2)的官司 比咱們這裏一

---

1) '守口子'는 국경이나 변방 관소(關所)를 지키는 사람. <原老>에는 '把口子'로 되었음.
2) '渡江處'는 아마도 원과 고려의 국경인 압록강(鴨綠江)을 건널 때를 지적한 것으로 "강을 건너는 국경 관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般[3]嚴, 驗了文引, 仔細的盤問[4]了, 纔放過來. 他們若是歹人 來歷不明時, 怎生能勾到這裏來? 他見將文引, 赶着高麗馬, 往北京做 賣買去. 他漢兒言語說不得的. 因此上, 不敢說語. 他們 委實不是歹人.

[主] 旣這般的時, 休只管的纏張. 後頭房子窄, 老少[5]又多. 又有箇老娘娘[6]不快.[7] 你不嫌冷時 只這車房裏宿如何?

[漢] 這般時, 我只在車房裏宿.

(飜老) 제40화 저희·네·는 진·실·로 ·잡:사·룸 아·니·라ᄒᆞ마

[漢] ·쥬신·하![8] :네 어·둿 :마·롤 니ᄅᆞᄂᆞ·뇨? :됴·ᄒᆞᆫ :사·룸 아·니완ᄒᆞᆫ :사·룸·을 :엇·디 모·ᄅᆞ리·오? ·이 여·러 :버·든 ·더·는 高麗ㅅ :사·ᄅᆞ·미·니 高麗ㅅ·짜·호·로·셔 오·니 저희 高麗ㅅ·짜해·는 ·구·ᄌᆞ·앳[9] ᄂᆞᄅᆞ[10] ᄀᆞᅀᆞ:마·ᄂᆞᆫ[11] 구:의 ·우·리 예 ᄒᆞᆫ가·지·로 엄·졍·ᄒᆞ·야 글·월 보·고 ·ᄌᆞ:세·히

3) '比 ~ 一般'은 "~과 같이"의 뜻인데 이때의 '比'는 '비교(比較)'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강조 부사로 쓰였다. 언해에서는 "·우·리 예 ᄒᆞᆫ가·지·로"로 그 의미를 살려냈다. <原老>에는 '比 ~ 更'이었으며 이러한 표현의 변화로부터 시대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4) '盤問'은 "몇 번이나 詰問(힐문)하는 것"이란 의미를 가졌다. 『老覽』에 『이학지남(吏學指南)』을 인용하여 "再三窮詰함"이라고 설명하였다.

5) '老小'는 "노인(老人)과 아이(小兒)", 즉 "가족"을 말한다.

6) '老娘娘'은 손아래 사람이 노부인(老婦人)을 존경하여 부르는 존칭(尊稱)이다(『老覽』). 여기는 주인의 모친을 가리킬 것이다.

7) '不快'는 "몸 상태가 안 좋다, 병들었다"는 뜻이다. 송(宋)의 조홍시(趙興時)의 『빈퇴록(賓退錄)』(권9)에 "有疾曰不快(병이 있는 것을 不快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8) '·쥬신·하'의 '-·하'는 존칭 호격으로 "주인님이시여"의 뜻.

9) '구·ᄌᆞ·앳'의 '구·ᄌᆞ'는 '口子'로부터 온 당시의 외래어로 보인다. '守口子'는 관소(關所)를 지키는 관원. 주1 참조.

10) '·구·ᄌᆞ·앳 ᄂᆞᄅᆞ'는 원문 '守口子渡江處'를 직역한 것으로 "관소가 있는 나루터"의 뜻이다. 'ᄂᆞᄅᆞ'는 '나루(津)'를 말함.

11) 'ᄀᆞᅀᆞ:마·ᄂᆞᆫ'은 'ᄀᆞᅀᆞ:말-(理) + -·ᄂᆞ-(현재형)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관리하는, 다스리는"의 뜻.

:묻져·주고·ᅀᅡ[12] ᄀᆞ 노·하 보·내ᄂᆞ·니 :제 :만·이·레 ·잡:사·ᄅᆞ·미·며 릭·려·기[13] ᄀᆞᄀᆞ·디[14] 아·니ᄒᆞ·면 :엇·디 능·히 여·긔 ·오·료? :제 ·이·제 ·글·월 가·지·고 高麗ㅅ물 ·모·라 ·븍경 :셔:울[15]·로 흥졍ᄒᆞ·라 ·가·ᄂᆞ·니 :제 漢語·를 니ᄅᆞ·디 :몯·홀·시 ·이:런 젼·ᄎᆞ·로 :말 니ᄅᆞ·디 :몯·ᄒᆞ·ᄂᆞ·라. 저희·네·는 진·실·로 ·잡:사·룸 아·니·라ᄒᆞ마.

[主] ᄒᆞ·마 ·이·러ᄒᆞ·면 술·ᄋᆡ·여[16] 힐·후·디 :말·라. :뒤·헤 방·이 좁·고 아·히 :겨·집·둘 :만ᄒᆞ·고 ·또 ·늘그·시·니[17] 편안·티 :몯·ᄒᆞ·야시·니[18] :네 ·촌 ·줄 아·쳐·라[19] 아·니커·든 ·이 술·윗방·의 :자·디 :엇·더ᄒᆞ·뇨?

[漢] ·이·러·면 ·내 술·윗방·의·셔 :자·마.

(老諺) 제40화 더들은 진실로 잡사룸 아니라

[漢] 쥬인아! 네 어둿 말을 니ᄅᆞᄂᆞ뇨? 됴ᄒᆞᆫ 사룸 아니완ᄒᆞᆫ 사룸을 엇디 모로리오? 이 여러 벗은 더ᄂᆞᆫ 高麗ㅅ 사룸이니 高麗ㅅ 짜흐로셔 오니 저희 高麗ㅅ 짜히셔 어귀예[20] ᄂᆞᄅᆞ ᄀᆞ옴아ᄂᆞᆫ 구의 우리 예과 비컨대 ᄒᆞᆫ가지로 엄ᄒᆞ여 글월 보고 ᄌᆞ세히 盤問ᄒᆞ고야[21] ᄀᆞ 노하 보내ᄂᆞ니 저희

12) ':묻져·주고·ᅀᅡ'는 원문 '盤問了'를 언해한 것으로 ':묻져·주-(訊問) + -고(연결어미) +-·ᅀᅡ(강세첨사)'의 형태구성이며 "(여러번) 물어보고서야, 따지어 묻고 나서는"의 뜻. '盤問'에 대해서는 주4 참조.

13) '릭·려·기'는 '來歷이'의 한글 표기로 이미 이 말이 외래어로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ᄀᆞᄀᆞ·디 아·니ᄒᆞ·면'은 '不明時'를 언해한 것으로 'ᄀᆞᄀᆞ·디'는 "깨끗하다, 분명하다"의 뜻.

15) '·븍경 :셔:울'은 '北京'의 번역으로 당시 명(明)나라의 수도인 북경(北京)도 '서울'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6) '술·ᄋᆡ·여'는 "오직, 다만"의 뜻으로 쓰인 부사. 원문 '只'의 번역이다.

17) '·늘그·시·니'는 원문 '老娘娘'의 번역으로 집주인의 모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6 참조.

18) '편안·티 :몯·ᄒᆞ·야시·니'는 원문 '不快'의 번역임. 주7 참조.

19) '아·쳐·라'는 "싫어하여"의 뜻.

20) <飜老>에서는 '·구·ᄌᆞ·앳'임.

21) <飜老>에서는 ':묻져·주고·ᅀᅡ'임.

만일에 잡사ᄅᆞᆷ이며 來歷 不明ᄒᆞ면[22] 엇디 능히 유여히 여긔 오리오? 제 시방 글월 가지고 高麗ㅅ ᄆᆞᆯ 모라 ᄇᆡᆨ경[23]을 향ᄒᆞ야 흥졍ᄒᆞ라 가ᄂᆞ니 제 漢語를 니ᄅᆞ디 몯ᄒᆞᆯ시 이런 젼ᄎᆞ로 말 니ᄅᆞ디 몯ᄒᆞᄂᆞ니라. 뎌들은 진실로 잡사ᄅᆞᆷ 아니라.

[主] 이믜 이러ᄒᆞ면 술ᄋᆡ여 힐후디 말라. 뒤헤 방이 좁고 老少ㅣ[24] ᄯᅩ 만코 ᄯᅩ 늘근이 편티 몯ᄒᆞ여 ᄒᆞ니 네 즌 ᄃᆡ롤 아쳐 아니커든 이 술윗방의 잠이 엇더ᄒᆞ뇨?

[漢] 이러면 내 술윗방의셔 자마.

現代譯 제40화 저희는 정말로 수상한 자가 아닙니다

[중국인] 주인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찌 모릅니까? 이동행인은 고려 사람이니 고려 땅에서 왔습니다. 저의 고려 땅에는 국경을 넘는 나루를 지키는 관원이 우리의 여기와 한 가지로 엄정해서 통행증을 보고 자세히 심문하고서야 겨우 놓아 보냅니다. 저들이 만일 수상한 놈이고 내력도 분명치 않았다면 어찌 능히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행증을 가지고 고려의 말을 몰아서 북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아언어를 못하므로 이런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수상한 놈은 아닙니다.

[집주인] 정말 그렇다면 말다툼은 이제 그만둡시다. 뒤에 있는 방은 좁고 애들과 가족도 많으며 또 늙으신 어머님의 몸도 좋지 않으니 당신들이 추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저기 수레 두는 헛간에 자면 어떠시겠는가?

[중국인] 그렇다면 우리 수레 두는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

22) <飜老>에서는 'ᄌᆞᄌᆞ·디 아·니ᄒᆞ·면'임.
23) <飜老>에서는 '·븍경 :셔:울'임.
24) <飜老>에서는 '아·히 :겨·집·돌'임.

原文 제41화 那裏有糶的米?

[漢] 主人家哥, 小人又有一句話, 敢說麽?

[主] 有甚麽事? 你說.

[漢] 這早晩黑夜, 我其實肚裏飢了. 又有幾箇馬. 一客不犯二主,[1] 怎麽 可憐見, 糶與我一頓飯的米 和馬草料如何?

[主] 我這裏今年夏裏天旱了, 秋裏水澇了, 田禾不收的, 因此上, 我也旋糴旋[2]喫裏. 那裏有糶的米?

[漢] 我從早起[3]喫了些飯, 到這早晩 不曾喫飯裏, 好生的飢了. 你糴來的米裏頭, 那與[4]我些箇, 我只熬些粥喫. 這的一百箇錢, 隨你意與些箇.

[主] 一百箇錢, 與你多少的是?

[漢] 隨你與的是.

[主] 今年爲旱澇不收, 一百箇錢 糴的一斗米. 我本沒糶的米, 旣是客人只管的央[5]及, 我糴來的米 裏頭, 那與你三升, 煮粥胡亂充飢.

飜老 제41화 내 본ᄃᆡ 밧괴일 ᄡᆞ리 업다

[漢] ·쥬ᅀᅵᆫ 형·님·하! :쇼ᅀᅵᆫ·이 ·ᄯᅩ ᄒᆞᆫ :마·리 이시·니 닐·엄·즉 ᄒᆞᆯ·가?

[主] 므슴 :이·리 잇ᄂᆞᆫ·고? :네 니ᄅᆞ·라.

---

1) '一客不犯二主'는 한 사람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할 때에 쓰는 상투문구다. 『서유기(西遊記)』(제3회)에 손오공(孫悟空)의 대사에도 이 구절이 보인다.
2) '~旋 ~旋'은 "~하고는 바로 ~한다, ~하자 곧 ~하다"의 뜻. 현대 중국어에서는 보통 '現'을 쓴다.
3) '早起'는 아침을 말한다.
4) '那與'의 '那'(nuo)는 '挪'와 같다. "나누다, 옮기다"의 뜻이다(『老朴集覽』「單字解」).
5) '央'은 "부탁하는 것"으로 '殃'[일부러, 고의로]로도 쓴다. 원래는 '폐를 끼치다'는 말이었던 것이 '부탁하다'란 말로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漢] ·이 느·즌 바·ᄆᆡ ·내 진·실·로 ·ᄇᆡ 곫·패라. ·ᄯᅩ 여·러 ᄆᆞ리 이시·니 ᄒᆞᆫ 나·그·내 :두 쥬ᅀᅵᆫ 저·치·디[6] :몯·ᄒᆞᆯ 거·시·니[7] :엇·디 ᄒᆞ·려·뇨?[8] :어·엿·비 너·겨 ·우·리·를 ᄒᆞᆫ·ᄢᅵᆺ·밥 ·ᄡᆞᆯ·와 ᄆᆞᆯ 머·글 ·딥·과 콩·을 밧·괴·여 :주·ᄃᆡ :엇·더ᄒᆞᆫ·고?

[主] ·우·리 여·긔 올·히 녀·르·메[9] 하·ᄂᆞᆯ·히 ·ᄀᆞ·ᄆᆞᆯ·오 ᄀᆞᅀᆞᆯ·히·ᄂᆞᆫ ·므·리 채·여 뎐·회[10] 거·두디 :몯ᄒᆞ·니 ·이·런 젼·ᄎᆞ·로 ·우·리·도 ·즉·재 밧·고·와다·가 ·즉·재 먹ᄂᆞ·니[11] 어·듸 밧·괴일[12] :ᄡᆞ·리 이시·리·오?

[漢] ·내 새배[13] :져·기 ·밥 머·근 :후·에 ·이 늣·도·록 ·다ᄃᆞ·라·도 바·블 먹·디 :몯·ᄒᆞ:야시·니 ᄀᆞ·장 ·ᄇᆡ 곫·패·라. 네 밧·고·아 왓·ᄂᆞᆫ ᄡᆞ·래·셔 :나·롤 ·져·기 :논·힐·훠[14] :다·고·려. ·우·리 :져·기 ·쥭·을 ·쑤·워 머·기 지·라 ·이 ·일빅 :낫 :돈내 네 ᄆᆞᅀᆞᆷ조·초[15] 져·그·나 :다고·려.

[主] ·일·빅 :낫 :돈·애 너·를 ·언·메·나 주·워야 ᄒᆞᆯ·고?

[漢] 네 ᄆᆞᅀᆞᆷ·모·로 주·미 므던커·니ᄯᆞ·니.

[主] 올·히 ᄀᆞ·ᄆᆞᆯ·락 :믈 ᄢᅵ·이·락[16] ·ᄒᆞ·야 거·두·디 :몯ᄒᆞᆫ 젼·ᄎᆞ·로 ·일·빅 :낫 :돈·애 밧·고·몰 ᄒᆞᆫ ·말 ᄡᆞᆯ·옴 ᄒᆞ·니 내 본ᄃᆡ 밧·괴·일 ᄡᆞ리 :업·건 마·ᄅᆞᆫ ᄒᆞ·마 나·그·내·네 다·하[17] :빌·ᄉᆡ[18] ·우·리 밧·고·와 온 ·ᄡᆞ·래·셔 너·를 ·서 ·되·만 :논힐·훠 :주·리·니 ·쥭 ·쑤·워 :아·ᄆᆞ라·나 :마·나[19] 골ᄑᆞᆫ·ᄃᆡ 머·그·라.

6) '저·치·디'는 "거리끼다, 범하다, 연루하다"의 뜻.
7) 'ᄒᆞᆫ 나·그·내 :두 쥬ᅀᅵᆫ 저·치·디 :몯·ᄒᆞᆯ 거·시·니'는 원문 '一客不犯二主'의 번역임. 주1 참조.
8) 이 부분의 속뜻은 "잠을 재워 주시는 김에 밥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즉 "다른 집에 가서 또 폐를 끼치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9) '녀·르·메'는 "여름(夏)에"임.
10) '뎐·회'는 '뎐·호(田禾) + -ㅣ(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전화(田禾), 곡식(穀食)"이란 말의 차용어임.
11) '·즉·재 밧·고·와다·가 ·즉·재 먹ᄂᆞ·니'는 원문 '我也旋糴旋喫裏'을 직역한 것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먹는다"는 뜻임. 원문의 '~旋 ~旋'은 "~하자마자 바로 ~하다"의 구문임. 주2 참조.
12) '밧·괴일'은 '밧·괴-(糴) + -이-(피동형) + -ㄹ(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바꿀 만한 (쌀), 바꾸어 줄 만한 (쌀)"의 뜻.
13) '새배'는 "새벽, 이른 아침"을 말함. 원문 '早起'의 번역임. 주3 참조.
14) ':논·힐·훠'는 ':논·힐·후-(與)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나누어, 노나"의 뜻임. 원문 '那與'의 번역임. 주4 참조.
15) '네 ᄆᆞᅀᆞᆷ조·초'는 원문 '隨你意'의 직역으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따라"의 뜻.
16) 'ᄀᆞ·ᄆᆞᆯ·락 :믈 ᄢᅵ·이·락'의 '~·락 ~·락'은 행동이 연속됨을 말함. "가물기도 하고 홍수도 지고"의 뜻임.

(老諺) 제41화 내 본ᄃᆡ 밧괴일 ᄡᆞᆯ이 업다

[漢] 쥬인 형아! 小人이 ᄯᅩ ᄒᆞᆫ 말이 이시니 닐념즉 ᄒᆞᆯ가?

[主] 므슴 일이 인ᄂᆞᆫ고? 네 니ᄅᆞ라.

[漢] 이 져믄[20] 밤의 내 진실로 ᄇᆡ 골패라. ᄯᅩ 여러 ᄆᆞᆯ이 이시니 ᄒᆞᆫ 나그내 두 쥬인을 적시디[21] 못ᄒᆞᆯ 꺼시니 엇디ᄒᆞ려뇨? 어엿비 너겨 우리를 ᄒᆞᆫ ᄢᅵ 밥[22] ᄡᆞᆯ과 ᄆᆞᆯ[23] 딥과 콩을 밧괴여 줌이 엇더ᄒᆞ뇨?

[主] 우리 여긔 올 녀름의 하ᄂᆞᆯ히 ᄀᆞ믈고 ᄀᆞ올히 믈 ᄢᅵ여[24] 田禾를[25] 거두디 못ᄒᆞ니 이런 젼ᄎᆞ로 우리도 ᄌᆞᆺ곰 밧고아 ᄌᆞᆺ곰 먹으니[26] 어ᄃᆡ 밧괴일 ᄡᆞᆯ이 이시리오?

[漢] 내 새배 져기 밥 먹고 이 느즈매[27] 다ᄃᆞ라 밥을 먹디 못ᄒᆞ여시니 ᄀᆞ장 ᄇᆡ 골패라. 네 밧괴여 온 ᄡᆞᆯ에셔 나를 져기 노닐워[28] 주고려. 우리

17) '다·하'는 "또한, 그래도"의 뜻.
18) ':빌·ᄉᆡ'는 ':빌-(乞) + -ㄹ·ᄉᆡ(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애걸하므로, 빌기 때문에"의 뜻.
19) ':아·ᄆᆞ라·나 :마·나'는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의 뜻. 제39화 주9 참조.
20) <飜老>에서는 '느·즌'임.
21) <飜老>에서는 '저·치·디'임. 중세국어에 '저·치·다'는 근대국어에서 '적시다'의 뜻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가시게 하다, 거리끼다"의 뜻으로 쓴 것이므로 <老諺>의 언해자가 <飜老>의 번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본다.
22) <飜老>에서는 'ᄒᆞᆫ ·밥'임.
23) <飜老>에서는 'ᄆᆞᆯ 머·글'임.
24) <飜老>에서는 '·므·리 채·여'임.
25) <飜老>에서는 '뎐·회'임.
26) <飜老>에서는 '·즉·재 밧·고·와다·가 ·즉·재 먹ᄂᆞ·니'임.
27) <飜老>에서는 '늣·도록'임.

져기 쥭쑤어 먹어지라. 이 一百 낫 돈에 네 ᄆᆞᄋᆞᆷ대로 져기 주고려.

[主] 一百 낫 돈에 너를 얼머나 주어야 올ᄒᆞᆯ고?

[漢] 네대로[29] 죰이 므던ᄒᆞ니라.

[主] 올히 ᄀᆞᄆᆞᆯ고 믈 찌여[30] 거두디 못ᄒᆞᆫ 젼ᄎᆞ로 一百 낫 돈에 ᄒᆞᆫ 말 ᄡᆞᆯ을 밧고려니와[31] 내 본ᄃᆡ 밧괴일 ᄡᆞᆯ이 업건마ᄂᆞᆫ 임의 나그내네 그저 하비니 우리 밧고아 온 ᄡᆞᆯ에셔 너를 서 되를 노닐워 줄 써시니[32] 쥭쑤어 간대로[33] 골픈 ᄃᆡ 메오라.[34]

現代譯 제41화 내 본래 바꾸어 줄 쌀이 없다

[중국인] 주인아저씨, 소인이 드릴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주인] 무슨 일이 있소? 말해보시오.

[중국인]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픕니다. 또 말도 몇 마리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는 두 주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니 어찌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밥 한 끼의 쌀과 말 먹을 짚과 콩을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 우리 여기는 올 여름에 가뭄이 들었고 가을에는 물이 채여서 곡식을 거두지 못했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겨우 사다가 즉시 먹는 형편이니 어디에 팔 쌀이 있겠소?

[중국인] 우리는 새벽에 조금 밥을 먹었고 이렇게 늦게까지 밥을 먹지 못했으니 몹시 배가 고픕니다. 당신이 사놓았던 쌀에서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주시오. 우리들이 조금 죽을 쑤어서 먹겠습니다. 여기 일백 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조금만 주십시오.

[집주인] 일백 돈으로 당신에게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중국인] 당신 마음대로 주면 될 것입니다.

[집주인] 오래는 가물기도 하고 홍수도 져서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일백 돈으로 살 수 있는 쌀을 한 말뿐이니 내가 본래 나눠줄 쌀도 없지만 하도 나그네들이 애걸하니 사놓은 쌀 중에서 석 되(3升)만 나눠주겠소. 죽을 쑤어 아무렇게나 배고픈데 잡수시오.

28) <飜老>에서는 ':논·힐·훠'임.
29) <飜老>에서는 '네 ᄆᆞᅀᆞ·모·로'임.
30) <飜老>에서는 'ᄀᆞ·ᄆᆞᆯ·락 :믈 ᄢᅵ·이·락'임.
31) <飜老>에서는 '밧·고·ᄆᆞᆯ ᄒᆞᆫ ·말 ᄡᆞᆯ·옴 ᄒᆞ·니'임.
32) <飜老>에서는 ':주·리·니'임.
33) <飜老>에서는 ':아·ᄆᆞ라·나 :마·나'임.
34) <飜老>에서는 '머·그·라'임.

原文 제42화 今年這裏 田禾不收

[主] 客人們 休怪. 其實今年艱難. 若是似往年好收時, 休說你兩三箇人, 便是十數箇客人, 也都與 茶飯喫.

[漢] 主人家哥 說的正是. 我也打聽得 今年這裏 田禾不收. 既這般時, 主人家哥, 小人們 待要後頭熬粥去. 這早晚黑地裏 出入不便當, 又你這狗子利害. 不揀怎麽, 你與我做些箇粥如何?

[主] 罷, 罷. 你客人只這車房裏 安排宿處. 我着孩兒們 做將粥來與你喫.

[漢] 好好, 多謝多謝.

飜 老 제42화 진실로 올히 간난ᄒᆞ애라

[主] 나·그·내·네 허·믈 :말·라. 진실·로 올·히 간난·ᄒᆞ·애·라. 그·리 젼:년·ᄀᆞ·티 :됴·히 거·두·면 너희 ·두·서 :사·ᄅᆞ·ᄆᆞᆫ ·니ᄅᆞ·디 ·말·려니·와 :곧 여·라·믄 나·그·내라·도 ·ᄯᅩ :다 :음·식 ·주·워 머·길 거·시·라.

[漢] ·쥬신형·님! 닐·오·미 :졍·히 ·올·타. 나·도 드·로·니 올·히 :여·긔 ·뎐·호·를 거·두·디 :몯ᄒᆞ·다 ·ᄒᆞᄂᆞ·다. ᄒᆞ·마 ·이·러ᄒᆞ·거·니 ·쥬신

형·님·하 小人·둘·히 :뒤·헤 ·쥭 ·쑤라 가·고·져 ᄒᆞ·니 ·이 ·ᄣᅢ[1] 어·두·은 ·ᄃᆡ 나·드·리 :쉽·사·디 아·니·며 ·ᄯᅩ 네 ·이 가·히 :모·디·니 :아·ᄆᆞ라·나 :마·나[2] ·네 :나·를 :져·기 ·쥭 ·쑤·워 :주·ᄃᆡ :엇·더ᄒᆞ·뇨?

[主] ·두·워 ·두·워[3]! 너희 나·그·내·네 그져 ·이 술·윗방·의 잘·ᄃᆡ·ᄒᆞ·야 이시·라.[4] ·내 아·ᄒᆡ·둘 ·ᄒᆞ·야 ·쥭 ·ᄒᆞ·야 가·져다·가 너희 ·주·워 머·규·마.[5]

[漢] ·됴·토·다 :됴·토·다! ᄀᆞ·장 깃·게이·다.[6]

(老諺) 제43화 진실로 올히 가난ᄒᆞ여라

[主] 나그내들 허믈 말라. 진실로 올히 가난ᄒᆞ여라.[7] 만일 往年[8]ᄀᆞᆺ티 됴히 거두어시면 너희 두세 사ᄅᆞᆷ은 니ᄅᆞ디 말려니와 곳 열아믄 나그내라도 ᄯᅩ 다 차반[9] 주어 먹이리라.

[漢] 쥬인 형아! 니ᄅᆞᆷ이 졍히 올타. 나도 듯보니[10] 올히 여긔 田禾를 거두디 못ᄒᆞ다 ᄒᆞ더라. 임의[11] 이러ᄒᆞ면 쥬인 형아! 小人들히 ᄒᆞ마 뒤헤 쥭 쑤라 가고져 호ᄃᆡ 이 져므러 어두온ᄃᆡ[12] 出入이 편당티[13] 아니ᄒᆞ고 ᄯᅩ

1) '·이 ·ᄣᅢ'는 "이때, 지금"을 말함.
2) ':아·ᄆᆞ라·나 :마·나'는 원문 '不揀怎麽'의 번역으로 "아무렇게나"의 뜻. 이에 대하여는 제39화 주9 참조.
3) '·두·워 ·두·워'는 제17화 주10 참조.
4) '잘·ᄃᆡ·ᄒᆞ·야 이시·라'는 원문 '安排宿處'를 언해한 것으로 "잘 곳을 적절히 배치하다"의 뜻이나 언해는 그 의미를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5) '머·규·마'는 '먹-(食) + -이-(사역형) + -우-(의도법) + -마(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먹이게 하겠다"의 뜻.
6) 원문 '多謝多謝'의 번역으로 원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란 뜻이나 언해에는 'ᄀᆞ장 깃게이다'라고 하여 "매우 기쁩니다"로 되었다. 매우 드물지만 의역의 하나로 보인다.
7) <飜老>에서는 '간난·ᄒᆞ·애·라'임.
8) <飜老>에서는 '젼:년'임.
9) <飜老>에서는 ':음·식'임.
10) <飜老>에서는 '드·로·니'임.
11) <飜老>에서는 'ᄒᆞ·마'임.

네 이 개 모디니 아ᄆᆞ라나[14] ᄀᆞᆯ히디 말고 네 날를 져기 쥭 쑤어 줌이 엇더ᄒᆞ뇨?

[主] 두어 두어! 너희 나그내 그저 이 술윗방의 잘 ᄃᆡᄒᆞ여 이시라. 내 아ᄒᆡ돌 ᄒᆞ야 쥭쑤어[15] 가져다가 너희를 주어 먹이마.[16]

[漢] 됴토다 됴토다! ᄀᆞ장 깃게이다.

(現代譯) 제42화 올해는 흉년이라 가난해요

[집주인] 나그네 손님들! 허물 마시오. 정말로 올해는 가난합니다. 만일 예년같이 좋게 거두었다면 당신들 두세 사람만 이르지 말고 곧 열 몇 명의 나그네라도 또 모두 음식을 주어 먹일 것이었소.

[중국인] 주인아저씨! 말씀이 정히 옳습니다. 나도 들으니 올해에 여기가 곡식을 거두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미 이러하지만 주인아저씨여! 소인들이 뒤쪽으로 죽을 쑤러 가고자 하지만 지금 어두운 곳에 출입이 쉽지 않으며 또 당신네 개들이 사나우니 제발 당신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을 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 그만 두시오. 당신들 손님들은 그저 수레 두는 차고에서 잘 수 있게 준비하시오. 내가 애들을 시켜서 죽을 만들어다가 당신들 주어 먹이겠소.

[중국인]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12) <飜老>에서는 '·이 ·ᄣᅢ 어·두·은·ᄃᆡ'임.
13) <飜老>에서는 '나·드·리 :쉽·사·디'임.
14) <飜老>에서는 ':아·ᄆᆞ라·나 :마·나'임.
15) <飜老>에서는 '·쥭 ·ᄒᆞ·야'임.
16) <飜老>에서는 '머·규·마'임.

原文 제43화 一發那與些草料如何?

[漢] 主人家哥, 又有一句話. 人喫的且有些箇, 這馬們 却怎生? 一發那與些草料如何?

[主] 客人們 說甚麽話? 人喫的也沒, 又那裏將馬的草料來? 我這院子後頭, 有的是草場. 你喫了飯時, 着兩箇 赶着馬 那裏放去, 頭到明[1] 不喫的飽了? 不須糴草料.

[漢] 這們時, 哥哥說的是. 我車房裏去. 沒甚麽火, 敎小孩兒 拿箇燈來.

[主] 這們時, 如今敎將來.

[漢] 咱們喫了飯時, 這裏留兩箇看行李, 先着兩箇放馬去. 到半夜前後, 却着這裏的兩箇 替迴來. 大家 得些睡時, 明日不渴睡.[2]

飜老 제43화 이 물돌흔 쏘 엇디 ᄒᆞ려뇨?

[漢] ·쥬신 형·님:하! 쏘 ᄒᆞᆫ :마리 이·셰이다. :사·ᄅᆞᆷ 머·글 거·슨 안·직 ·져·그·나 잇거·니·와 ·이 ᄆᆞᆯ·ᄃᆞᆯ·ᄒᆞᆫ ·쏘 :엇·디 ·ᄒᆞ·려·뇨? 이·믜·셔 :져·기 ·딥·과 콩·을 ·논·힐·훠 :주·ᄃᆡ :엇·더ᄒᆞᆫ고?

[主] 나·그·내·네 므·슴 :마·ᄅᆞᆯ 니ᄅᆞᄂᆞ·뇨? :사·ᄅᆞᆷ 머·글 것·도 :업·슨·ᄃᆡ ·쏘 어·듸 ·가 ᄆᆞᆯ 머·글 ·콩·딥 가·져오·료? ·우·리 ·이 ·터 :뒤·헤 잇ᄀᆞ·젓[3] ·초댱[4]·이·니 :네 밥 머·기 ᄆᆞ·차·든 :둘·흘 ·ᄒᆞ·야 ᄆᆞᆯ 모·라 게다·가 노ᄒᆞ·라 가·라. :새·도·록 이시·면[5] 아·니 머·겨·도 ·ᄇᆡ 브르·리·니 구·틔·여

1) '頭到明'은 "밤이 새도록"의 뜻. '頭'는 '投(~까지, 도록)'와 통함. 『老覽』「單字解」"頭(중략)通作投" 참조.
2) '不渴睡'는 "졸리지 않다"의 의미이다. '渴睡'는 "선잠이 들다, 졸리다"라는 뜻으로 '瞌睡'라고도 쓴다.
3) '잇ᄀᆞ·젓'은 '잇ᄀᆞ·져(豊)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풍부한, 넉넉한, 많은"의 뜻. 후대에 '잇ᄀᆞ·져 ᄒᆞ다'의 형태로 발전함.
4) '·초댱'은 '초장(草場)'을 말함.

콩·딥 밧·고디 :말 거·시어·니ᄯᆞ·나.

[漢] ·이·러·면 형·님 닐·우·미 ·올·타. 내 술·윗방·의 ·가·거니·와 :아·ᄆᆞ·란 ·브·리 :업·스·니 아·희 ·ᄒᆞ·야 등·잔·ᄡᅳᆯ 가·져오·게 ᄒᆞ·고·라.

[主] ·이·러·면 ·이·제 :희·여·곰[6] 가·져오·게 ·호·마.

[漢] ·우·리 밥 머·기 ᄆᆞ·차·든 여·긔 :둘·흘 머·믈·워 ·짐·돌 보·게 ᄒᆞ·고 몬져 :둘·흘 ᄒᆞ·야 ᄆᆞᆯ 노ᄒᆞ·라 보·내오 ·밤·ᄬᅮᆼ·만 다ᄃᆞᆮ거·든 ·쏘 옛[7] :둘·흘 ·ᄒᆞ·야 ᄀᆞ·라 도·라오·게 ·ᄒᆞ·야 대·가ᄒᆞᆫ·디[8] ·져·그·나 ·좀·곳 자면 릐실 ·좀 낟브·디 아·니 ᄒᆞ·리·라.

老諺 제43화 이 ᄆᆞᆯ돌ᄒᆞᆯ 쏘 엇디ᄒᆞ려뇨?

[漢] 쥬인 형아! 쏘 ᄒᆞᆫ 말이 이셰라.[9] 사ᄅᆞᆷ 머글 써슨 아직[10] 져기 잇거니와 이 ᄆᆞᆯ돌ᄒᆞᆯ 쏘 엇디ᄒᆞ려뇨? ᄒᆞᆷᄭᅴ[11] 져기 딥과 콩을 논일워 줌이 엇더ᄒᆞ뇨?

[主] 나그내들 므슴 말 니ᄅᆞᄂᆞ뇨? 사ᄅᆞᆷ 머글 썻도 업슨ᄃᆡ 쏘 어듸 가 딥과 콩을[12] 가져 오리오? 우리 이 터 뒤헤 잇ᄀᆞ져ᄒᆞᆫ[13] 초댱이니 네 밥 먹기 ᄆᆞ차든 둘흐로 ᄒᆞ야 ᄆᆞᆯ 모라 게다가 노ᄒᆞ라 가라. 새도록 이시면 아니 머겨도 비브르리니 구틔여 콩딥 밧고디 말라.[14]

[漢] 이러면 형의 닐옴이 올타. 내 술윗방의 가거니와 아므란 블이 업ᄉᆞ니 아희 ᄒᆞ여 등잔쁠 가져 오게 ᄒᆞ라.

5) ':새·도·록 이시·면'은 '頭到明'의 번역임. 주1 참조.
6) ':희·여·곰'은 '하여금'의 뜻.
7) '옛'은 '여기의'의 뜻. '예(여기)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임.
8) '대·가ᄒᆞᆫ·디'는 원문 '大家'의 번역으로 "대개, 다 같이"의 뜻.
9) <飜老>에서는 '이·셰이다'임.
10) <飜老>에서는 '안·직'임.
11) <飜老>에서는 '이·믜·셔'임.
12) <飜老>에서는 'ᄆᆞᆯ 머·글 ·콩·딥'임.
13) <飜老>에서는 '잇ᄀᆞ·젓'임.
14) <飜老>에서는 ':말 거·시어·니ᄯᆞ·나'임.

[主] 이러면 이제 히여곰 가져 오게 ᄒᆞ마.

[漢] 우리 밥먹기 ᄆᆞᆺ차든 여긔 둘흘 머믈워 짐들 보게 ᄒᆞ고 몬져 둘흐로 ᄒᆞ여[15] ᄆᆞᆯ 노흐라 보내고 밤ᄡᅮᆼ만 다ᄃᆞᆺ거든 ᄯᅩ 여긔[16] 둘로 ᄒᆞ여곰[17] ᄀᆞ라 도라 오게 ᄒᆞ여 대가ᄒᆞᆫ디 져기 ᄌᆞᆷ을 자면 ᄂᆡ일 ᄌᆞᆷ 낫브디 아니ᄒᆞ리라.

(現代譯) 제43화 이 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중국인] 주인아저씨,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은 아직 조금 있지만 이 말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하는 김에 짚과 콩을 조금 나눠주시면 어떠십니까?

[집주인] 손님네, 당신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다는데 또 어디 가서 말 먹을 콩과 짚을 가져오겠습니까? 우리 이 터 뒤가 넓은 풀밭이니 당신들이 밥 먹기 끝나거든 두 사람 시켜서 말을 몰아서 거기다가 풀어주러 가시오. 밤새도록 [말이 거기에] 있으면 먹이지 않아도 배가 부르리니 구태여 콩과 짚을 바꾸지 말아도 되고말고요.

[중국인] 그렇다면 주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자려는 수레 두는 차고에 가는데 아무런 불도 없으니 아이들을 시켜서 등잔불을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집주인] 그럽시다. 지금 시켜서 가져오겠소.

[중국인] 우리 밥을 다 먹었으면 두 사람은 여기 남아 짐을 지키게 하고 두 사람은 먼저 말을 풀어주러 가시오. 한밤중이 되면 여기 있던 둘이 교대해서 돌아오게 하면 모두들 조금은 잠을 자니까 내일은 졸리지 않겠지.

15) <飜老>에서는 ':둘·흘 ᄒᆞ·야'임.
16) <飜老>에서는 '옛'임.
17) <飜老>에서는 ':둘·흘 ·ᄒᆞ·야'임.

(原文) 제44화 睡覺

[主] 這的燈來了, 若有粥將來, 匙椀都有. 你喫着.

[漢] 咱們飯也喫了. 你兩箇先放馬去, 到半夜裏, 我兩箇却替你去.

[漢] 我恰纔睡覺[1]了, 起去來. 參[2]兒高也, 敢是半夜了. 我先去,[3] 替那兩箇來睡. 你却來那裏, 咱們兩箇看着馬.

[高] 這們時你去.

[漢] 你兩箇去睡些箇. 到那裏時, 敎那箇火伴來着.

你來了. 你赶過馬來 在一處着, 容易照管. 月黑了, 恐怕迷失走了, 悞了走路.

(飜老) 제44화 내 앗가 ᄀᆞᆺ ᄌᆞᆷ ᄭᅵ와다

[主] ·이 ·블 혀·니[4] ·오·나·다. ·쥭 잇ᄂᆞ·니 가·져·오·라. ·술[5]·와 사발 :다 잇다. :네 머·그·라.

[漢] 우·리 ·밥·도 머·거·다. 너희 :둘·히 몬져 ᄆᆞᆯ 노흐·라 가라. ·밤ᄡᅮᆼ 다ᄃᆞᆮ

1) '睡覺'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잠자다"이지만 이 시대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으로 쓰였다.
2) '參'은 오리온자리 중앙의 세 별을 말한다. 삼태성(三台星), 쟁기별(唐鋤星), 이성(犁星)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老覽』에서는 "'參'은 별 이름이다. 삼(參)은 11월 동지(冬至)에는 삼경(三更)에 남중(南中-정 남쪽에 오는 것)하며, 10월의 입동(立冬)에는 사경(四更)에 남중(南中)하고, 9월 한로(寒露)에는 오경(五更)에 남중(南中)한다. 지금 '參'이 높아서 반야(半夜)라고 하니 이때는 아마도 9, 10월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1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여행 중인 때는 7월이어서 모순이 된다.
3) '我先去'라고 한 것은 자기가 먼저 가고 한 사람을 남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를 남긴 것 같다.
4) '·블 혀·니'는 '·블 혀-(引火)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불을 켠 사람"의 뜻.
5) '·술'은 '숟가락(匙)'을 말함.

거·든 ·우·리 :둘·히 너희 골·라[6] :가·리·라.

[漢] ·내 앗·가 ᄌᆞᆺ ·좀 ·씨와·다.[7] 니·러 가·져. 숨셩 :별[8]·도 놉거·다. ·밤 쭝·인 ·듯ᄒᆞ·다. ·내 몬·져 ·가 ·뎌 :둘·흘 ᄀᆞ·라 ·와 자·게 :호·리니 :네 ·또 뎌러·로[9] ·오·나·라. ·우·리 :둘히 ᄆᆞᆯ·돌 보·져.

[高] ·이·러·면 :네 가·라.

[漢] 너희 :둘·히 ·가 :져·그·나 자·라. 게 ·니거·든 ·뎌 :버·들 ᄒᆞ·야 오·게 ᄒᆞ·라.

:네 ·오·난·다. :네 ᄆᆞᆯ·돌 모·라다·가 ᄒᆞᆫ ·ᄃᆡ 잇·게 ᄒᆞ·라. :수·이 ·보·ᄉᆞᆲ·필 거·시·라. ·ᄃᆞ·리 어·두으·니 일:커·나 ᄃᆞ·라·나·커·나 ·ᄒᆞ·야 갈 ·길 머·믈울·가[10] 접·페·라.

(老諺) 제44화 내 앗가 ᄌᆞᆺ 좀 씨아다

[主] 이 등잔쁠[11] 오나다. 만일 쥭 잇ᄂᆞ냐? 가져 오라. 술과 사발 다 이시니 네 먹으라.

[漢] 우리 밥도 먹어다. 너희 둘히 몬져 ᄆᆞᆯ 노흐라 가라. 밤쭝 다ᄃᆞᆺ거든 우리들히 너희롤 골라 가마.[12]

[漢] 내 앗가 ᄌᆞᆺ 좀 씨아다.[13] 니러 가쟈. 숨셩[14]이 놉파시니 밤쭝인 ᄃᆞᆺᄒᆞ다. 내 몬져 가 뎌 둘흘 ᄀᆞ라 와 자게 ᄒᆞᆯ 꺼시니 네 또 뎌러로 오나라. 우리 둘히 ᄆᆞᆯ들 보쟈.

6) '골·라'는 '골-(改)'의 르변칙 활용으로 "바꾸다, 교대하다"의 뜻.
7) '·씨와·다'는 '睡覺'의 번역으로 "깨웠다"의 뜻. 주1 참조.
8) '숨셩 :별'은 '삼태성(三台星)'을 말함. 주2 참조.
9) '뎌러·로'는 "저리로"의 뜻. '이러, 뎌러'가 '이리, 저리'로 바뀐 것은 근대국어시대의 일이다.
10) '머·믈울·가'는 "지체될까"의 뜻. '머·믈우-(滯) + -ㄹ·가(의문)'의 형태구성임.
11) <飜老>에서는 '·블 혀·니'임.
12) <飜老>에서는 ':가·리·라'임.
13) <飜老>에서는 '·씨와·다'임.
14) <飜老>에서는 '숨셩 :별'임.

[高] 이러면 네 가라.

[漢] 너희 둘히 가 져기 자라. 게 니거든 뎌 벗으로 ᄒᆞ여 오게 ᄒᆞ라.

네 오난다. 네 ᄆᆞᆯ들 모라다가 ᄒᆞᆫ더 잇게 ᄒᆞ라. 보술피기 쉽게 ᄒᆞ라. ᄃᆞᆯ이 어두오니 迷失ᄒᆞ야 ᄃᆞ라나 갈쐴 머믈올가 저페라.[15]

(現代譯) 제44화 내가 이제 잠 깨었다

[집주인] 여기 불 켠 사람이 왔소이다. 죽 있는 것 가져 왔소. 숟가락과 그릇도 다 있으니 당신들 드시오.

[중국인] 우리 밥도 먹었으니 당신들 둘이서 먼저 말을 풀어주러 가게. 밤중이 되면 우리 둘이 당신들과 교대하러 가겠네.

—잠을 자고 나서—

[중국인] 내가 아까 잠에서 깨어났네. 일어나서 갑시다. 삼태성(三台星)이 높이 올라갔으니 한밤중인 듯하오. 내가 먼저 가서 저 두 사람이 교대해서 돌아와 자게 할 것이니 당신도 또 저리로 오게. 우리 둘이서 말들을 보세.

[고려인] 그럼 당신 가시오.

—말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중국인] 당신들 두 사람은 가서 조금 자시오. 그쪽에 가면 그 동무한테 오도록 하여 주게.

—고려인 동행이 오다—

[중국인] 자네 왔는가? 자네는 말들을 몰아다가 한 곳에 있게 하게. [그러면] 쉽게 보살필 것이네. 달이 어두우니 [만일 말을] 잃거나 달아나기나

15) <飜老>에서는 '접·페·라'임.

하면 갈 길이 지체될까 두렵네.

原文 제45화 收拾行李打駝馱

[漢] 明星[1]高了. 天道待明也. 咱們赶將馬去來, 到下處[2] 收拾了行李時, 恰明也. 這馬們都絟住着. 教那兩箇起來.

[高] 你兩箇疾快起來, 收拾行李, 打駝馱.

[漢] 但是咱們的行李 收拾到[3]着. 主人家的東西, 休錯拿了去.

[高] 駝馱都打了. 叫主人家辭了去來.

[漢] 主人家哥, 休怪, 我去也, 這裏定害了.

[主] 你有甚麽定害處? 你休怪, 好去着.

飜老 제45화 자븐 것 설어저 짐시리 ᄒᆞ라

[漢] :새·벼·리[4] 놉거·다. 하·ᄂᆞᆯ·도 ·ᄒᆞ마 ᄇᆞᆯ·가 ·가ᄂᆞ·다. ·우·리 ᄆᆞᆯ 모·라 ·가 ·햐·츄[5]·에 ·가 ·짐·ᄃᆞᆯ 설엇·노·라[6] ᄒᆞ·면 ·마·치 ᄇᆞᆯ·ᄀᆞ·리로·다. ·이 ᄆᆞᆯ·ᄃᆞᆯ :다 ᄆᆡ·야 두·라. ·더 :ᄃᆞᆯ·흘 ·ᄒᆡ·야 ·닐·에 ᄒᆞ·라.

[高] 너희 :ᄃᆞᆯ·히 ᄲᆞᆯ·리 니·러 자·븐 것 설어·저 ·짐시·리 ᄒᆞ·라.

---

1) '明星'은 샛별을 말한다. '계명성(啓明星)'이라고 하여 새벽을 여는 별로 여겨왔다. 『老覽』(上2)에서는 "해보다 먼저 나타나는 데에서 '啓明'이라 부른다. 사람들이 같은 별을 저녁에는 '長庚'(저녁의 明星)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속된 말로 이것을 '曉星'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이 있다.
2) '下處'는 "묵고 있는 곳"을 말하며 '下'는 "묵다, 머물다"의 뜻이 있다.
3) '收拾到'의 '到'는 "동작의 완료, 완성"을 가리킨다.
4) ':새·벼·리'는 "샛별이"를 말함. 주1 참조.
5) '下處'(주2 참조)는 "숙박한 곳"을 말함. 이미 이 말은 당시 외래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6) '설엇·노·라'는 "수습하노라"의 뜻. 어간은 '설엊-(整 ← 설겆-)(整)'임. 제18화 주 18 참조.

[漢] 믈읫 ·우·리 ·짐·ᄃᆞᆯ·ᄒᆞᆯ 설어주:믈 ·지그·기 ᄒᆞ·고 ·쥬ᅀᅵᆫ짓[7] 거·스·란 그르 자·바가·디 :말·라.

[高] ·짐시·리 :다 ·ᄒᆞ야·다. ·쥬ᅀᅵᆫ 블·러 :하·딕ᄒᆞ·라 가져.[8]

[漢] ·쥬ᅀᅵᆫ 형:님·하! 허·믈 :마·ᄅᆞ쇼·셔. ·우·리 ·가·노이·다. 여·긔 널·이·패이·다.[9]

[主] 너:희 ·므·슴 널·인 ·고·디 이시·리·오? 너희 허·믈 :말·오 ·됴·히 가·라.

老諺 제45화 자븐 것 서러 저 짐 시르라

[漢] 새별이 노파시니 하ᄂᆞᆯ도 ᄒᆞ마 ᄇᆞᆯ그리로다.[10] 우리 ᄆᆞᆯ 모라 가 하쳐[11]의 가셔 짐들 收拾ᄒᆞ노라[12] ᄒᆞ면 마치 ᄇᆞᆯ그리로다. 이 ᄆᆞᆯ들을 다 ᄆᆡ야 두고 더 ᄃᆞᆯ흐로 ᄒᆞ야 닐게 ᄒᆞ라.

[高] 너희 ᄃᆞᆯ히 ᄲᆞᆯ리 니러 자븐 것 서러 저 짐 시르라.[13]

[漢] 믈읫 우리 짐들흘 收拾ᄒᆞ기를[14] 극진히[15] ᄒᆞ고 쥬인 짓 거스란 그릇 가져 가디 말라.

[高] 짐 다 시러다. 쥬인 블러 하딕ᄒᆞ라 가쟈.

[漢] 쥬인 형아! 허믈 말라. 우리 가노라. 여긔 널이괘라.

[主] 너희 므슴 널인 고디 이시리오? 네 허믈 말고 됴히 가라.

---

7) '·쥬ᅀᅵᆫ짓'은 "주인집의"를 말함. '·쥬ᅀᅵᆫ집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임.
8) 원문 '叫主人家辭了去來'는 "주인을 불러서 하직하고 떠나자"의 뜻인데 언해는 '쥬ᅀᅵᆫ 블러 하딕ᄒᆞ라 가져'라고 하여 "주인을 불러서 하직하러 가자"는 뜻이 되었다. 번역자의 한어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 '널·이·패이·다'는 "폐를 끼쳤습니다"의 뜻. 제33화 주14 참조.
10) <飜老>에서는 'ᄇᆞᆯ·가 ·가ᄂᆞ·다'임.
11) <飜老>에서는 '·햐·츄'임.
12) <飜老>에서는 '설엇·노·라'임.
13) <飜老>에서는 '·짐시·리 ᄒᆞ·라'임.
14) <飜老>에서는 '설어주:믈'임.
15) <飜老>에서는 '·지그·기'임.

現代譯 제45화 짐을 꾸려 싣고 떠나자

[중국인] 샛별(啓明星)이 높으니 하늘도 이제 밝아 가네. 우리는 말을 몰아 잔 곳에 가서 짐을 꾸리노라면 바로 날이 밝을 걸세. 이 말들을 모두 매어 두세. 저 두 사람을 일어나게 합시다.

—묵고 있던 차방(車房)에 가서—

[고려인] 당신들 둘은 빨리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짐을 실어요.

[중국인] 우리들 짐만 완전하게 수습하고 주인집 것을 잘못 가져가지 말게.

[고려인] 짐 싣기가 다 끝났소. 주인을 불러서 인사하고 떠납시다.

—민박(民泊) 주인을 만나서—

[중국인] 주인아저씨, 허물 마시오. 우리는 갑니다. 여기서 폐를 끼쳤습니다.

[집주인] 당신들이 무슨 폐를 끼친 것이 있겠소? 당신들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가시오.

原文 제46화 這裏到夏店 有多少路?

[漢] 咱們前頭到夏店時, 買飯喫了. 儘晚, 到了京城.

[高] 這裏到夏店, 有多少路?

[漢] 敢有三十里多地.[1)]

[高] 你夜來怎麽說十里來路? 今日却怎麽說三十里地?

1) '三十里多地'에서 '30리(里)'는 약 17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漢] 我夜來錯記了. 今日再想起來, 有三十里多地. 咱們休磨拖,[2)] 趂凉快, 馬又喫的飽時, 赶動着.

[高] 日頭又這早晚了.

[漢] 那望着的黑林子, 便是夏店.

[高] 這裏到那裏, 還有七八里路. 你在先也曾北京去來, 怎麽不理會的?

[漢] 這夏店我曾走了一兩遭, 都忘了. 那裏記得?

飜老 제46화 예서 하뎜은 三十里 남즛

[漢] ·우·리 알·프·로 :하·뎜·에 ·가:든 ·밥 ·사먹·고 ᄀᆞ·장 졈·글어·든 ·잣 안·해[3)] ·드·러가·져.

[高] 예·셔 :하·뎜·에 ·가매 ·언·멋 ·길·히 잇ᄂᆞ뇨?

[漢] 三十里 남즛 ᄒᆞᆫ ·ᄯᅡ:히 잇ᄂᆞᆫ ·ᄃᆞᆺᄒᆞ·다.

[高] :네 어·제 :엇·디 ·십·리 ·맛가ᇝ[4)] ·길·히라 ᄒᆞ더리 오·ᄂᆞ·론 ·ᄯᅩ :엇·디 三十里 ·ᄯᅡ·히·라 니ᄅᆞᄂᆞᆫ·다?

[漢] ·내 어·제 그르 ·ᄉᆡᇰ·각·ᄒᆞ·돗더라. 오·ᄂᆞᆯ 다·시 ·ᄉᆡᇰ·각ᄒᆞ·니 三十里 남즈기 잇ᄂᆞᆫ ·ᄯᅡ·히 로·다. 우·리 ᄆᆞᆫ그ᅀᅳ·디[5)] :ᄆᆞᆯ·오 ·서·늘ᄒᆞᆫ 적 미·처 ᄆᆞᆯ·도 ·ᄯᅩ 머·건 ·디 ·ᄇᆡ ᄇᆞ른 저·긔 모·라 녀·져.

[高] ·ᄒᆡ ·ᄯᅩ ·이·리·도·록 ᄂᆞᆺ·도·다.

[漢] ·뎌 ·ᄇᆞ·라·논 어·득ᄒᆞᆫ[6)] 수·프·리 ·곧 :하·뎜[7)]·이·라.

[高] 예·셔 ·뎨 :가·매 당시·론 ·칠·파·릿 ·길·히 잇·고·나. :네 :아·릐 일·즉

2) '磨拖'는 "꾸물꾸물하는 것, 느린 행동"을 말함. '磨陀'라고도 씀. 옛날에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모습을 말했다.
3) '·잣 안·해'는 "성 안에"란 뜻으로 '북경(北京)'을 말함. <老諺>에서는 '京城'임.
4) '·맛가ᇝ'은 '·맛감(만큼)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만큼의"의 뜻.
5) 'ᄆᆞᆫ그ᅀᅳ·디'는 'ᄆᆞᆫ그ᅀᅳ-(磨拖) + -·디(부정)'의 형태구성으로 "머뭇거리다, 느릿느릿하다"의 뜻. '磨拖'에 대하여는 주2 참조.
6) '어·득ᄒᆞᆫ'은 '어·득ᄒᆞ-(昏)'의 관형사형. "어두운"의 뜻.
7) ':하·뎜'은 '夏店'을 말함. 제36화 주1 참조.

:셔울[8] 녀·러 ·오·나시·니[9] :엇·디 모·로는·다?

[漢] ·이 :하·뎜·에 ·내 :아·릭 훈:두 ·번 둔·년마·룬 :다 니·즈·니 어·듸 ·싱·각ᄒ·야 이시·리·오?

老諺 제46화 예셔 夏店 三十里 남즉

[漢] 우리 앏흐로 夏店의 가든 밥 사먹고 ᄀ장 늣게야[10] 京城의[11] 가쟈.

[高] 예셔 夏店 가기 언멋 길히 잇ᄂ뇨?

[漢] 三十里 남즉훈 ᄯ히 잇는 듯ᄒ다.

[高] 네 어제 엇디 十里ㅅ 쌀히라 니ᄅ더니 오늘은 ᄯ 엇디 三十里 ᄯ히라 니ᄅ는다?

[漢] 내 어제 그룻 싱각ᄒ엿더니 오늘 다시 싱각ᄒ니 三十里 남즉훈 ᄯ히 잇다. 우리 문그으디[12] 말고 서늘훈 제 밋처 물이 ᄯ 먹어 비브룬 제 모라 녜쟈.

[高] ᄒ 또 이리 느젓는뎌.[13]

[漢] 더 ᄇ라는 黑林이[14] 곳 夏店이라.

[高] 예셔 뎨 감이 당시롱 七八里 쌀히 잇고나. 네 아래 일즉 北京[15] 둔녀 시되[16] 엇디 아디 못ᄒ는다?[17]

[漢] 이 夏店을 내 아래 훈두 번 둔년마는 다 니저시니 어듸 싱각ᄒ리오?

8) ':셔울'은 '북경(北京)'을 말함.
9) '녀·러 ·오·나시·니'는 "다녀오셨으니"의 뜻.
10) <飜老>에서는 '졈·글어·든'임.
11) <飜老>에서는 '·잣 안·해'임.
12) <飜老>에서는 '문그스·디'임.
13) <飜老>에서는 '·이·리·도·록 늣·도·다'임.
14) <飜老>에서는 '어·득훈 수·프·리'임.
15) <飜老>에서는 ':셔울'임.
16) <飜老>에서는 '녀·러 ·오·나시·니'임.
17) <飜老>에서는 '모·로는·다'임.

現代譯 제46화 하점(夏店)까지는 30리 남짓

[중국인] 우리 앞으로 하점(夏店)에 가거든 밥을 사먹고 아주 저물어서 북경에 들어가세.

[고려인] 여기서 하점에 가는데 얼마만한 길이 남았나요?

[중국인] 30리 남짓 되는 거리가 있는 듯하네.

[고려인] 당신 어제는 어째서 10리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어찌 30리 땅이라고 말하시오?

[중국인] 내가 어제는 잘못 생각했었네.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30리 남짓한 거리로세. 자, 꾸물대지 말고 서늘한 때에 마침 저 말들도 배부르게 먹었을 때에 서둘러 갑시다.

[고려인] 해가 벌서 이렇게 늦었네.

[중국인] 저기 바라보이는 어두운 숲이 하점일세.

[고려인] 여기서 저기까지는 아직 7, 8리 길이 남아 있잖소. 당신, 전에 북경에 다녀왔는데 어찌 잘 모르시오?

[중국인] 이 하점(夏店)에는 내가 전에 한두 번 다녔지만 다 잊었으니 어디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原文 제47화 甚麽茶飯好

[漢] 店子待到也. 咱們喫些甚麽茶飯好?

[高] 我高麗人, 不慣喫濕麵,[1] 咱們只喫乾的如何?

1) '濕麵'의 '면(麵)'은 햇볕을 쬐어 말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말려서 뜨거운 물을 부어 불게 한 다음 먹는 것을 '괘면(掛麵)'이라고 하며 말리지 않는 것을 '습면(濕麵)'이라고 한다(『老覽』). 원대(元代)에 편찬된 일용유서(日用類書)인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의 「경집(庚集)」 '식류(食類)'조에 '습면식품

[漢] 這們時, 咱們買些燒餠,[2] 炒些肉, 喫了過去.

咱們這裏, 當住馬絟着, 卸下行李着, 飯店裏去來.

過賣,[3] 先將一椀溫水來, 我洗面.

[過] 客人們洗面了.

[漢] 過賣, 抹卓兒.

[過] 客人喫些甚麽茶飯?

[漢] 我四箇人, 炒着三十箇錢的羊肉, 將二十箇錢的燒餠來.

這湯[4]淡, 有塩醬拿些來. 我自調和喫. 這燒餠 一半兒冷, 一半兒熱. 熱的留下着, 我喫. 這冷的, 你拿去 爐裏[5]熱着來.

[高] 咱們飯也喫了. 與了飯錢去.

過賣, 來會錢. 通該多少?

[賣] 二十箇錢燒餠, 三十箇錢羊肉, 通是五十箇錢.

(濕麵食品)'이 있고 '수할면(水滑麵) · 색면(索麵) · 경대면(經帶麵)' 이하 '혼둔피(餛飩皮)'에 이르기까지 14종에 달하는 식품과 그 제조법이 기재되었다. 그에 의하면 '습면(濕麵)'이란 보통 면류(麵類) 이외에 수제비나 만둣국 같은 것까지도 포함한 총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 · 원대(宋 · 元代)의 의학서에는 '습면(濕麵)'에 의한 소화불량의 처방이 종종 보인다.

2) '燒餠'는 전술한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庚集) 「식류(食類)」의 '종식품(從食品)'조에 '소병(燒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에 의하면 소병(燒餠)은 밀가루에 기름과 소금을 조금씩 섞어, 냉수로 반죽한 다음 그것을 납작하게 펴서 난로 불 위에 바싹 바싹할 때까지 구운 것을 말한다. 中村喬『宋代の料理と食品』 '제2장'의 '燒餠類'에 의하면 단팥을 속으로 넣은 것도 있었던 것 같으나, 여기에서 양고기와 같이 먹는 것에는 팥이 들어가지 않는다.

3) '過賣'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말함. 송(宋) 오자목(吳自牧)의 『몽양록(蒙梁錄)』(권16) 등에 '過賣'가 요리집의 종업원으로 나타남.

4) '這湯'은 '분갱(粉羹)'(春雨의 국물)인데 중국 음식에서 소병(燒餠)이나 만두(饅頭)를 먹을 때에 꼭 따라 나오는 국물로서 이것을 마시고 갈증을 없앤다.

5) '爐裏'에서 '노(爐)'는 '오(鏊)'를 가리킨다. '오(鏊)'는 소병(燒餠)을 굽는 기구이며 검은 쇠로 만들었다. 뚜껑과 바닥이 있으나 위아래가 같다. 소병(燒餠)을 안에 놓고, 뚜껑 위에 불을 붙이면 저절로 구워진다. 속된 말로 '爐(노)'라고 한다(『老覽』).

(飜老) 제47화 우리 므슴 음식을 머거사 됴홀고?

[漢] :뎜·도 ᄒᆞ·마 다ᄃᆞᄅᆞ·리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머·거·ᅀᅡ :됴·홀·고?

[高] ·우·리 고렷:사·ᄅᆞ·ᄆᆞᆫ ᄌᆞᆫ 국슈[6] 머·기 닉·디 :몯ᄒᆞ·얘·라. ·우·리 ᄆᆞᄅᆞ·니[7] 머·구·듸[8] :엇·더ᄒᆞ·뇨?

[漢] ·이·러·면 ·우·리 쇼·빙[9] 사·고 고·기 봇·가 먹·고 :디·나 가·져.

·우·리 여·긔 ᄆᆞᆯ 자바 ᄆᆡ·오·짐 브·리우·고 :음·식 ·ᄑᆞ·ᄂᆞᆫ :뎜·에 가·져.

:음식 ·ᄑᆞ·ᄂᆞᆫ ·딧 ·사·ᄅᆞ·마![10] 몬저 ᄒᆞᆫ 사·발·만 ᄃᆞᄉᆞᆫ 믈 가·져·오·라, ·내 ᄂᆞᆾ 시·서지·라.

[過] 나·그·내·네 ᄂᆞᆾ ·시·서·다. ·ᄒᆞ·닐 :사·ᄅᆞ·마[11] 상 ·스·서·라.

나·그·내·네 므·슴 :음·식 머·글·고?

[漢] ·우·리 :네 :사·ᄅᆞ·미 :돈 셜·흔 :나·챗 양·의 고·기 봇·고 :돈 ·스·므 :나·챗 쇼·빙 가·져 ·오·라.

---

6) 'ᄌᆞᆫ 국슈'는 '濕麵(물 국수)'을 말함. '濕麵'에 대하여는 주1 참조.

7) 'ᄆᆞᄅᆞ·니'는 'ᄆᆞᄅᆞ-(乾)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마른 것"이란 뜻.

8) '머·구·듸'는 '먹-(食) + -우듸'의 형태구성으로 "먹되"의 뜻.

9) '쇼·빙'은 '燒餠(구운 떡)'을 말함. '燒餠'은 주2 참조.

10) '음식 ·ᄑᆞ·ᄂᆞᆫ ·딧 ·사·ᄅᆞ·마'는 원문 '過賣'를 언해한 것이다. '過賣'는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주3 참조. <原老>에서는 '問客'과 '賣物'이란 종업원이 나오지만 <飜老>에는 '過賣'뿐이다. <原老>의 '問客'은 손님에게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을 말하며 '賣物'은 그저 음식을 가져오는 일꾼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손님에게서 주문을 받는 '문객(問客)'과 그 밑에서 일하는 '매물(賣物)'이 나뉘어 분업하고 있다. 다만 이 두 호칭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다. 여기 "음식 ·ᄑᆞ·ᄂᆞᆫ ·딧 ·사·ᄅᆞ·마"는 아마도 '問客'을 부르는 호칭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의 '過賣'는 '·ᄒᆞ·닐 :사·ᄅᆞ·마'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飜老>에서는 원문에 '問客'과 '賣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1) '·ᄒᆞ·닐 :사·ᄅᆞ·마'는 원문 '過賣'를 언해한 것이다. '·ᄒᆞ·니-(動) + -ㄹ(관형사형) + :사·ᄅᆞᆷ(人) + -아(호격)'의 형태구성으로 음식점의 종업원을 부르는 "일하는 사람아"의 뜻이다. 앞에서 '過賣'를 '음식 ·ᄑᆞ·ᄂᆞᆫ ·딧 ·사·ᄅᆞ·마'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종업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3, 10을 참조.

·이 탕[12)]·이 슴·겁·다. 소곰·쟝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내 ·손조 ·섯·거 머·거지·라.

·이 쇼·빙·이 :바·는 ·ᄎᆞ·고 :바·는 ·덥·다. 더·우니 ·두·라. ·우·리 머·고리·라. ·이 ·ᄎᆞ·니· 란 :네 가·져·가 :화로[13)]애 데·워·오·라.

[高] ·우·리 ·밥·도 머·거·다. ·밥·갑 주·고 가·져 :음·식 ·풀·리·야[14)] ·와 :돈 모·도·라.[15)] :대·되 :언·머·고?

[賣] 스·므 :낫 :돈·앳 쇼·빙, 셜·흔 :낫 :돈·앳 양·육, 모·도·니 ·쉰 :낫 돈·이로·다.

(老諺) 제47화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됴홀고?

[漢] 店도 ᄒᆞ마 다ᄃᆞᄅᆞᆯ이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됴홀고?

[高] 우리 高麗ㅅ 사ᄅᆞᆷ은 ᄎᆞᆫ 국슈 먹기 닉디 못ᄒᆞ여라. 우리 그저 ᄆᆞᄅᆞ니 먹음이[16)] 엇더ᄒᆞ뇨?

[漢] 이러면 우리 져기 燒餠 사고 져기 고기 복가 먹고 디나 가쟈.

우리 여긔 ᄆᆞᆯ 자바 ᄆᆡ고 짐 ᄇᆞ리오고 음식 ᄑᆞ는 뎜에 가쟈.

음식 ᄑᆞ는 뎃 사ᄅᆞᆷ아 몬져 ᄒᆞᆫ 사발 더온 믈[17)] 가져오라. 내 ᄂᆞᆾ 시서지라.

[過] 나그내네 ᄂᆞᆾ 시서다.

음식 ᄑᆞ는 뎃 사ᄅᆞᆷ아 상 스서라. 나그네들 므슴 차반 먹을고?

[漢] 우리 네 사ᄅᆞᆷ의게 셜흔 낫 돈엣[18)] 羊肉을 복고 스므 낫 돈엣 燒餠을

12) '탕'은 '湯'을 말함. 주4 참조.
13) ':화로'는 '爐'를 언해한 것이다. '爐'에 대하여는 주5 참조.
14) ':음·식 ·풀·리·야'는 원문 '過賣'의 번역이다. 아마도 '음식 ·ᄑᆞ·ᄂᆞᆫ ·뎃 ·사·ᄅᆞᆷ'과 같은 급의 종업원으로 보인다. "음식 파는 사람아"의 뜻.
15) '모·도·라'는 '會'의 번역이다. "합산해라"의 뜻.
16) <飜老>에서는 '머·구·ᄃᆡ'임.
17) <飜老>에서는 'ᄃᆞᄉᆞᆫ 믈'임.
18) <飜老>에서는 ':나·챗'임.

가져 오라.

이 탕이 슴거오니 소곰쟝 잇거든 져기 가져 오라. 내 손조 섯거 먹어지라.

이 燒餠이 반은 ᄎᆞ고 반은 덥다. 더오니란 두라. 우리 먹쟈.[19)] 이 ᄎᆞ니란 네 가져가 화로에 데워 오라.

[高] 우리 밥도 먹어다. 밥 갑 주고 가쟈. 음식 풀리야! 와 돈 모도라. 대되 언머고?

[賣] 스므 낫 돈엣 燒餠이오 셜흔 낫 돈엣 羊肉이니 모도니 쉰 낫 돈이로다.

(現代譯) 제47화 우리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

[중국인] 음식점에 이제 곧 도착하겠네. 우리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

[고려인] 우리 고려 사람은 물 국수는 먹기에 익숙하지 않으니 마른 것을 먹는 게 어떻소?

[중국인] 그럼 우리 구운 떡을 사고 고기를 볶아 먹고 지나가세.

—음식점에 도착했다—

[중국인] 우리 여기에 말을 잡아매고 짐을 내리고 음식 파는 식당에 들어갑시다.

—식당 안에서—

[중국인] 음식점 아저씨, 우선 한 사발 더운 물을 가져오시오. 내 낯을 씻겠소.

19) <飜老>에서는 '머·고리·라'임.

—세면을 하고 나서—

[종업원] 손님들, 낯을 다 씻으셨네.

일하는 애야, 상을 닦아라. 손님들, 무슨 음식을 들겠습니까?

[중국인] 우리 네 사람에게 서른 돈의 양고기를 볶아주고 스무 돈의 구운 떡을 가져오시오.

—음식이 나왔다—

[중국인] 이 국물이 싱겁다. 간장이 있으면 조금 가져오시오. 내가 직접 쳐서 먹겠소.

이 구운 떡이 반은 차갑고 반은 뜨겁네. 뜨거운 것은 놔두시오. 내가 먹을 것이오. 이쪽의 차가운 건 당신이 가져가서 난로에 데워서 가져오게.

—식사가 끝나고—

[고려인] 우리 밥도 다 먹었다. 밥값을 주고 가세. 종업원! 와서 돈을 계산하시오. 전부 얼마인가?

[점　원] 스무 돈의 구운 떡에 서른 돈의 양고기니 합쳐서 쉰 돈입니다.

原文 제48화 咱們喫幾盞酒

[漢] 咱們打駝馱行.

[高] 日頭正晌午也. 有些熱. 早來, 喫了乾物事, 有些渴.

[漢] 前頭不遠, 有箇草店[1]兒. 到那裏, 咱們喫幾盞酒, 解渴, 歇住頭口着. 暫

1) '草店'에서 이때의 '草'는 '초라한, 시골의'라는 뉘앙스가 있다. 우리의 '주막집'에 해당한다. 원(元) 예찬(倪瓚)의 『청비각전집(淸閟閣全集)』(권2)에 게재된 '梅花道人原韻'이란 詩에 "草店의 달은 回合하고, 村路는 우회하여 더욱 길다"라는 구절이 있다.

時間, 卸[2]下行李來, 喫幾盞酒, 便過去.

[漢] 賣酒[3]的, 拿二十箇錢的酒來.

[量] 客人們, 這二十箇錢的酒.

[漢] 酒好麽?

[量] 好酒. 你嘗看, 酒不好時, 不要還錢.

[漢] 將就喫的過. 有甚麽好菜蔬, 拿些箇來.

[量] 這們時, 有塩瓜兒. 如今便將來.

客人們, 熱喫那涼喫?

[漢] 罷, 罷, 休旋去.[4] 我只涼喫.

飜老 제48화 우리 두서 잔 수를 먹자

[漢] 우리 ·짐 시·러 녀·져.

[高] ·히 :졍·히 ·나·지·니[5] :져·기 ·덥다. 아ᄎᆞ·ᄆᆡ ᄆᆞ른 것 머·그·니 목 ᄆᆞ

2) '卸下行李來'의 '卸'는 "말을 풀어주다, 갑주를 벗다, 선원이 짐을 실어내다"의 뜻을 갖는다(『老覽』(上:2뒤). 여기서는 '·짐 브·리·왓다·가'로 풀이하여 "卸下行李來"를 "짐 풀었다가"로 언해하였다.

3) '賣酒'는 "술 파는 사람"임. <原老>에서는 '量酒'로 되었고 여기서 '量酒'는 술집의 지배인을 말한다. '量酒'는 "술을 헤아려 파는 사람"이란 뜻에서 온 말이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2) '음식과자(飮食果子)'에 "보통 가게 내에서 酒廚子를 파는 사람을 茶飯量酒博士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고, 또 『경세통언(警世通言)』(권14) '일굴귀라도인제괴(一窟鬼癩道人除怪)'에 "却不是別人, 是淨慈寺對門酒店裏量酒-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자사(淨慈寺) 맞은편 술집의 양주(量酒)였다-"라든지 『금병매(金瓶梅)』 제56회에 "常時節拉了到店裏坐下, 量酒打上酒來, -常時節을 끌고 가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양주(量酒)가 술을 팔러 오고-" 등의 예도 보인다.

4) '休旋去'에서 '旋'은 술을 양푼에 담아 뜨거운 물에 돌려서 데우는 것을 말한다. '鏇'은 술 등을 데우는 쇠로 된 그릇을 말하는데 원(元) 대동(戴侗)의 『육서고(六書故)』에 "鏇은 溫器니라. 이것을 뜨거운 물에 旋하여 이것으로 술을 데운다"라는 설명이 있다. 원곡(元曲) 등에서는 동사로도 사용되었다.

5) ':졍·히 ·나·지·니'는 원문 '正午也'를 언해한 것으로 '·나·지·니'는 '·낮(午) + -·이·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다.

ᄅᆞᆫ ·줄 잇·다.

[漢] 앏·픠 아·니 머·리[6] ᄒᆞᆫ ·초·개·로 지은 :뎜[7]·이 잇ᄂᆞ·니, 뎨 ·가 ·우·리 :두ᅀᅥ ·잔 수·를 머거 목 ᄆᆞᄅᆞᆫ ·ᄃᆡ 헤왇·고[8] 즘승 쉬오·ᄃᆡ :잠·싼더·디·나[9] ·짐 ᄇᆞ·리·왓다·가[10] ·두·ᅀᅥ ·잔 술 먹·고 믄·득 :디·나가·져.[11]

[漢] 술 ·풀·리·여[12]! ·스·므 :낫 :돈앳 술 가·져·오·라.

[量] 나·그·내·네! ·이 ·스·므 :낫 :돈·앳 수·리·라.

[漢] 수·리 :됴·ᄒᆞ·녀?

[賣] :됴:ᄒᆞᆫ 수·리니 :네 머·거보·라. 수울·옷 :됴·티 아·니커·든 ·갑·슬 갑·디 :말·라.

[漢] :둘·워 먹·져.[13] 므·슴 :됴·ᄒᆞᆫ ᄂᆞᄆᆞ·새[14]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賣] ·이·러·면 ·ᄌᆞᆫ ·틴 :외[15] 잇ᄂᆞ·니 ·이·제 ·즉·재 가·져·오·마.

나그·내·네, 더·우·니 머·글·다 ·ᄎᆞ니 머·글·다?

[漢] ·두·워 ·두·워. 데·우·라[16] 가·디 :말·라. ·우·리 ·ᄎᆞ·니 머·구리라.

---

6) '아·니 머·리'는 "멀지 않은"의 뜻.
7) '·초·개·로 지은 :뎜'은 '草店'을 언해한 것이다. '草店'은 주1 참조.
8) '헤왇·고'는 '헤왇-(解) + -·고(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풀고, 헤치고"의 뜻.
9) ':잠·싼더·디·나'의 '더·디·나'는 '덛(間) + -·이·나(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잠깐 사이나, 잠깐이지만"의 뜻.
10) '·짐 ᄇᆞ·리·왓다·가'는 '卸下行李來'의 번역이며 '·짐(行李) + ᄇᆞ·리-(下) + -·오-(의도법) + -아(연결어미) + ㅅ(과거시제) + -다·가(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짐을 풀었다가"의 뜻. 주2 참조.
11) '믄·득 :디·나가·져'는 '便過去'의 직역으로 "바로 지나 갑시다"의 뜻.
12) '술 ·풀·리·여'는 '賣酒的'을 언해한 것으로 술집 종업원을 부르는 소리다. "술 파는 사람이여!"의 뜻.
13) ':둘·워 먹·져'는 원문 '將就喫的過'를 언해한 것이다. 원문 '將就'는 "우선 아쉬운 대로 참고 견디다"라는 뜻으로 전체의 뜻은 "그런 대로 마실 만하다"는 뜻이다. ':둘·워 먹·져'는 ':둘·우-(將就) + -어(연결어미) + 먹-(食) + -·져(청유형 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참고 듭시다, 맞추어 듭시다"의 뜻.
14) 'ᄂᆞᄆᆞ·새'는 "남새, 채소"를 말함.
15) '·ᄌᆞᆫ ·틴 :외'는 '塩瓜'의 번역으로 "절인 오이"를 말함.
16) '데·우·라'는 원문 '旋'의 번역으로 "(술 등을) 덥히다"의 뜻이다. '旋'에 대해서는 주4 참조.

(老諺) 제48화 우리 두어 잔 술을 먹자

[漢] 우리 짐 시러 녜쟈.

[高] ᄒᆡ 졍히 나지니 져기 덥다. 아ᄎᆞᆷ의 ᄆᆞᄅᆞᆫ 것 먹으니 져기 목ᄆᆞᄅᆞ다.[17]

[漢] 앏픠 아니 멀리 ᄒᆞᆫ 초가로 지은 뎜이 이시니 뎨 가 우리 두어 잔 술을 먹어 목ᄆᆞᄅᆞᆫ ᄃᆡ헤왓고 즘싱 쉬오ᄃᆡ 잠싼덧이나[18] 짐 브리웟다가 두어 잔 술 먹고 믄득 디나가쟈.

술 풀 리야, 스므 낫 돈엣 술을 가져오라.

[量] 나그내네, 이 스므 낫 돈엣 술이라.

[漢] 술이 됴ᄒᆞ냐?

[量] 됴ᄒᆞᆫ 술이니 네 먹어 보라. 술곳 됴티 아니커든 갑술 갑디 말라.

[漢] 두워라.[19] 먹쟈. 므슴 됴ᄒᆞᆫ ᄂᆞᄆᆞ새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量] 이러면 저린 외 이시니 이제 즉제 가져오마.

나그내네 더오니 먹을다 ᄎᆞ니 먹을다.

[漢] 두워 두워, 데오라 가디 말라. 우리 그저 ᄎᆞ니 먹을이라.[20]

(現代譯) 제48화 우리 두어 잔 술을 먹읍시다

[중국인] 우리 짐을 싣고 갑시다.

[고려인] 해가 정오니 조금 덥습니다. 아침에 마른 것을 먹어 목이 마르기도 하고요.

[중국인] 앞으로 멀지 않은 곳에 초가로 된 주막집이 있네. 거기에 가서

---

17) <飜老>에서는 '목 ᄆᆞᄅᆞᆫ 줄 잇다'임.
18) <飜老>에서는 '잠싼 더디나'임.
19) <飜老>에서는 ':둘·워'임. 이미 이때에는 ':둘·우-(將就, 참다)'란 어휘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飜老>에서는 '머·구리라'임.

우리 두어 잔 술을 먹어 목마른 것을 풀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잠깐 동안이나마 짐을 풀었다가 두어 잔 술을 먹고 얼른 지나갑시다.

—주막에 도착해서—

[중국인] 술집 아저씨, 스무 돈 어치 술을 갖다 주게.
[지배인] 손님들, 여기 스무 돈 어치 술이 왔습니다.
[중국인] 술이 좋은가?
[지배인] 좋은 술이니 당신이 먹어 보시오. 술이 좋지 않으면 값을 내지 마시오.
[중국인] 참고 그냥 먹읍시다. 좋은 채소가 있으면 조금 가져오게.
[지배인] 그러면 소금에 절인 오이가 있으니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손님들, 더운 것을 드시겠습니까? 찬 것을 드시겠습니까?
[중국인] 됐네. 데우러 가지 말게. 우리 찬술을 먹겠네.

原文 제49화 大哥你貴壽?

[高] 大哥, 先喫一盞. 大哥, 受禮.1)
[漢] 你敢年紀大? 怎麽受禮?
[高] 大哥, 你貴壽?
[漢] 小人年紀三十五歲.
[高] 小人纔三十二歲. 大哥, 你年紀大, 受禮?

1) ‘受禮’는 술을 마실 때에 높은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예절을 말함. 『계차청전(啓箚青錢)』「전집(前集)」(권9)에 술을 마시는 법을 적어 놓은 ‘파잔체례(把盞體例)’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윗사람에게 술을 권할 때에는 잔을 들고 앞으로 다가가 반만 무릎을 꿇고 상대에게 드린다고 한다. ‘受禮’란 이와 같이 예를 갖추어 주는 잔을 받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중에 ‘다들 일어서서’라고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일어서서 윗사람에게 반만 무릎을 꿇고 잔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漢] 小人雖年紀大, 怎麽便受禮? 咱們都起來, 大家自在.
[高] 那般時, 敎你受禮, 堅執不肯. 滿飮一盞. 休留底酒.
[漢] 咱們都休講禮, 喫一盞酒.
[高] 喫了酒也, 會了酒錢去來.

飜老 제49화 형님 네 나히 언멘고?

[高] ·큰형·님! ᄆᆞᆫ져 ᄒᆞᆫ ·잔 :자·ᅀᅩ. ·큰형·님 ᄆᆞᆫ져 ·례 받·조.2)
[漢] 네 ·나·히 한 ·ᄃᆞᆺᄒᆞ니3) 어·ᄂᆞ 내 ·슈·례ᄒᆞᆯ·고?
[高] 형·님! 네 ·나·히 :언·멘·고?
[漢] 小人·은 ·나·히 셜·흔 다·ᄉᆞᆺ :설.
[高] 小人·은 앗가·ᅀᅡ 셜·흔 :두 ·설.
큰형·님 네 ·나·히 ·하·도·다. ·슈·례·ᄒᆞ·쇼·셔.
[漢]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어·느 ·슈·례ᄒᆞᆯ·고? ·우·리 :다 니·러·ᅀᅡ :대·되 ᄆᆞᅀᆞᆷ ·노ᄒᆞ·리로·다.
[高] 그·러·면 너 ·ᄒᆞ·야 ·슈·례ᄒᆞ·게 ᄒᆞᆯ 거·시·로고·나 ·ᄒᆞ·야·ᄂᆞᆯ4) 구·디 잡·고 듣·디 아·니ᄒᆞ·다. ᄒᆞᆫ ·잔 ᄀᆞᄃᆞ기·곰 먹·고 수울 흘·리·디 :마·져.
[漢] ·우·리 ·다 ·례·수5) ·ᄎᆞ·리·디 :말·오 ᄒᆞᆫ ·잔 수울 먹·져.
[高] 수울 머·거·다. 수욼·갑 :혜·라 가·져.6)

2) ‘·례 받·조’는 ‘受禮’를 직역한 것이다. ‘·례(禮) + 받-(受) + -·ᄌᆞ-(겸양법 선어말어미) + -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예를 받잡으시오”의 뜻. 주1 참조.
3) ‘한 ·ᄃᆞᆺᄒᆞ니’는 “많은 듯하니”의 뜻.
4) 이 말은 원문 ‘敎你受禮’에 해당한다. 언해문은 “그렇다면 당신이 수례해야 할 것이로구나 하거늘”의 뜻이다.
5) ‘·례·수’는 “절, 예절”을 말함. “禮 례수 례 又 절 례”(『訓蒙字會』 上:18).
6) ‘수욼·갑 :혜·라 가·져’는 원문 ‘會了酒錢去來’를 언해한 것인데 원문의 뜻은 “술값을 계산하고 가자”이다.

(老諺) 제49화 형아 네 나히 언머고?

[高] 큰 형아! 몬져 ᄒᆞᆫ 잔 먹으라.[7] 큰 형아 몬져 네를 바ᄃᆞ라.[8]

[漢] 네 나히 한ᄃᆞᆺ ᄒᆞ니 엇디 내 슈례ᄒᆞ료?

[高] 형아! 네 나히 언머고?

[漢] 小人은 나히 셜흔 다ᄉᆞᆺ시라.

[高] 小人은 ᄀᆞᆺ 三十二歲라. 큰 형아! 네 나히 하도다. 슈례ᄒᆞ라.

[漢]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엇디 곳 슈례ᄒᆞ료? 우리 다 니러야 대되 ᄆᆞᅀᆞᆷ 노ᄒᆞᆯ이로다.

[高] 그러면 너 ᄒᆞ여 受禮ᄒᆞ라 ᄒᆞᄃᆡ[9] 堅執ᄒᆞ고[10] 듣디 아니ᄒᆞ니 ᄒᆞᆫ 잔 ᄀᆞ득이 먹고 술을 흘리디 마쟈.

[漢] 우리 다 禮를[11] ᄎᆞᆯ히디 말고 ᄒᆞᆫ 잔 술을 먹쟈.

[高] 술 먹어다. 술갑 혜라 가쟈.

(現代譯) 제49화 형님 연세는 얼마입니까?

[고려인] 형님, 먼저 한 잔 자시오. 형님, 먼저 수례(受禮)의 잔을 받자오시오.

[중국인] 당신들이 나이가 많은 듯하니 내가 어찌 수례하겠는가?

[고려인] 형님, 나이가 얼마입니까?

[중국인] 소인은 서른다섯 살이오.

[고려인] 소인은 이제 막 서른둘이 되었습니다. 형님, 당신이 나이가 많군요. 수례의 잔을 받으세요.

[중국인] 소인이 비록 나이는 많으나 어찌 수례의 잔을 받을 수 있겠소? 우리 다들 일어서야 모두가 마음을 놓겠소.

[고려인] 그러면 당신이 수례의 잔을 받겠구나 했는데 군이 잡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한 잔 가득씩 먹고 술을 흘리지 맙시다.

[중국인] 다들 예절 차리지 말고 한 잔 술을 마시세.

[고려인] 술 다 먹었소. 술값을 계산하고 갑시다.

7) <飜老>에서는 ':자·ᄉᆞ'임.
8) <飜老>에서는 '받·조'임.
9) <飜老>에서는 '·슈·례ᄒᆞ·게 ᄒᆞᆯ 거·시·로고·나 ·ᄒᆞ·야·ᄂᆞᆯ'임.
10) <飜老>에서는 '구·디 잡·고'임.
11) <飜老>에서는 '·례·수'임.

(原文) 제50화 會錢

[高] 賣酒的, 來, 會錢. 這的五分銀子, 貼六箇錢饋我.

[賣] 大哥與些好的銀子, 這銀只有八成銀, 怎麽使的?

[高] 這銀子嫌甚麽? 細絲兒分明都有, 怎麽使不得?

[賣] 你不識銀子時, 敎別人看.

[高] 我怎麽不識銀子? 要甚麽敎別人看去?

[賣] 換錢[1]不折本.[2] 你自別換與五分好的銀子便是. 要甚麽合口?[3]

[高] 這賣酒的, 也快纏. 這們的好銀子, 怎麽使不得? 今早起喫飯處, 貼將來的銀子.

1) '換錢'은 다른 은자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原老>에서 원대(元代)의 통용 지폐인 보초(寶鈔)를 새 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刪老>에서는 명대(明代)의 은자로 수정하였으므로 은자를 바꾸자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은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서 제49화에서는 보초(寶鈔)를 바꾸어 달라는 장면이 삭제되었다. <原老>의 '換鈔'는 손님에게 갖고 있는 다른 지폐와 바꿔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으로 관아에서 새 돈과 교환하려면 '공묵전(工墨錢)'(수수료)이 얼마간 필요하다.
2) '折本'은 "자본(資本)을 줄이다"라는 뜻으로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환전(換錢)'하면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1 참조. 그러나 역시 명대(明代)의 화폐인 은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3) '合口'는 "말다툼을 하다, 구론(口論)하다"의 뜻이다.

[賣] 罷, 罷, 將就留下着. 便使不得也罷.

[高] 你說甚麽話? 使不得時, 你肯要麽?

(飜老) 제50화 돈 혜여 바ᄃᆞ라

[高] 수울 ·풀·리·여! :돈 :혜·여 바·ᄃᆞ·라. ·이 닷 :분 은·이·니 :돈 여·슷 :낫·만 거·스·려 :날 :다·고·려.

[量] ·큰형·님! :됴·ᄒᆞᆫ 은·으·로 :다·고·려. ·이 은·이 :다·믄 바·품 은4)·이·로소·니 :엇·디 ·ᄡᅳ·료?

[高] ·이 은·을 므·스·글 :ᄢᅥᆯ·이ᄂᆞᆫ·다? ·ᄀᆞ·ᄂᆞᆫ :시·리5) 분명·이 :다 잇·ᄂᆞ·니 :엇·디 ·ᄡᅳ·디 :몯ᄒᆞ·료?

[量] :네 은·곳 모·르거·든 녀느 :사·ᄅᆞᆷ ·ᄒᆞ·야 보·게 ᄒᆞ·라.

[高] ·내 :엇·디 은 모·ᄅᆞ리·오? 므·슴:호·려 다ᄅᆞ·니 ·ᄒᆞ·야 :뵈·라 가·리·오.

[量] :돈 밧·고·와·도6) 믿·디·디7) 아·니·면 ᄒᆞᆯ 거·시·니 :네 ·각·벼·리 닷 :분만 :됴·ᄒᆞᆫ 은8)·을 밧·고·와 주·면 :곧 ·올커·니ᄯᆞ·나. 므·스므·라 ·입힐·후·리·오?9)

[高] ·이 수울 ·풀·리여! 싯·구·기10) 잘 ·ᄒᆞ·ᄂᆞ·다. ·이·런 :됴ᄒᆞᆫ 은·을 :엇·디 ·ᄡᅳ·디 :몯ᄒᆞ·료?

오·ᄂᆞᆯ 아·ᄎᆞ·미 ·밥 먹·던 ·ᄃᆡ·셔 ·팀 바다11) 가·져온 은·이·라.12)

4) '바·품 은'은 원문 '八成銀'을 언해한 것이다. '팔푼은(銀, 함량이 모자란 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ᄀᆞ·ᄂᆞᆫ :시·리'는 '細絲兒'를 언해한 것으로 "가는 실(絲)이"의 뜻이다. 은자에 액면을 표시한 실 모양의 그림을 말한다.
6) '換錢'을 말함. 이에 대하여는 주1 참조.
7) '不折本'의 번역으로 "밑지지 않는다"의 뜻. '折本'에 대하여는 주2 참조.
8) '닷 :분만 :됴·ᄒᆞᆫ 은'은 원문 '五分好的銀子'의 번역이다. "오분(五分)의 은으로 만든 좋은 은자"를 말한다.
9) '·입 힐·후·리·오'는 "입씨름하다"의 뜻. 원문 '合口'의 번역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3 참조.
10) '싯·구·기'는 "시끄럽게 굴기"의 뜻.
11) '·팀 바다'는 "보증 받아"의 뜻. '팀'은 "보증, 저당"의 뜻이 있고 '받다' 동사와

[量] ·두·워 ·두·워! :둘·워13) 두·져. ·ᄡᅳ·디 :몯·ᄒᆞ·야·도 므던타.

[高] :네 므·슴 :마·를 니ᄅᆞᄂᆞᆫ·다? ·ᄡᅳ·디 :몯·ᄒᆞᆯ 거·시·면 :네 ·즐·겨 바ᄃᆞᆯ·다?

(老諺) 제50화 돈 혜라

[高] 술 풀 리야! 와 돈 혜라.14) 이 五分15)은이니 여슷 낫 돈을 거스려 날 주고려.16)

[賣] 큰 형아! 됴흔 은을 주고려. 이 은이 八成17) 은이니 엇디 ᄡᅳ리오?

[高] 이 은을 므서슬 ᄢᅥ리ᄂᆞᆫ다? 細絲ㅣ18) 分明히 다 이시니 엇디 ᄡᅳ디 못ᄒᆞ리오?

[賣] 네 은을 아디 못ᄒᆞ거든 다ᄅᆞᆫ19) 사ᄅᆞᆷ ᄒᆞ여 뵈라.20)

[高] 내 엇디 은을 아디 못ᄒᆞ여 므슴아라 다ᄅᆞᆫ 사ᄅᆞᆷ ᄒᆞ여 뵈라 가리오?

[賣] 돈 밧고와 밋디디 아니면 ᄒᆞᆯ ᄢᅥ시니 네 각별이 五分21) 됴흔 은을 밧

이어진다. "貼 팀 바돌 텹"(『訓蒙字會』 下:9).
12)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原老>에서는 제47화의 대화에서 일행이 음식점에 들러서 아침을 사먹고 원대(元代) 통용화폐인 보초(寶鈔)를 지불하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화는 원대(元代) 화폐인 보초(寶鈔)의 사용에 관한 것이어서 명대(明代) 북경 관화를 배우려는 <刪老>에서는 삭제되었고 이것을 대본으로 한 <飜老>에서도 이 장면은 없어졌다. 그러나 제50화에서는 원본을 고칠 때에 삭제된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아침 먹고 거스름을 받을 때에 그 음식점에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쓴 것이다. 독자들은 <原老>의 이 부분을 읽어야 이해가 될 것이다.
13) ':둘·워'는 "참고 그대로 둔다"의 뜻. ':둘·워'에 대해서는 제48화 주13을 참조.
14) <飜老>에서는 ':돈 :혜·여 바·ᄃᆞ·라'임.
15) <飜老>에서는 '닷 :분'임.
16) <飜老>에서는 ':다·고·려'임.
17) <飜老>에서는 '바·품'임.
18) <飜老>에서는 '·ᄀᆞ·ᄂᆞᆫ :시·리'임.
19) <飜老>에서는 '녀느'임.
20) <飜老>에서는 '보·게 ᄒᆞ·라'임.
21) <飜老>에서는 '닷 :분만'임.

고와 쥼이 곳 올커니ᄯᆞ냐. 므슴아라 입힐홈 ᄒᆞ리오?

[高] 이 술 ᄑᆞᄂᆞᆫ 이! 싯구기 잘 ᄒᆞᄂᆞᆫ고나. 이런 됴ᄒᆞᆫ 은을 엇디 ᄡᅳ디 못ᄒᆞ리오? 오늘 앗참밥 먹은 곳애셔 팀 바다 가져 온 은이라.

[賣] 두어 두어, 두어라 ᄒᆞ여[22] 두쟈. ᄡᅳ디 못ᄒᆞ여도 무던ᄒᆞ다.

[高] 네 므슴 말을 니ᄅᆞᄂᆞᆫ다? ᄡᅳ디 못ᄒᆞᆯ 써시면 네 즐겨 바들ᄯᆞ?

現代譯 제50화 돈 계산해라

[고려인] 술집 아저씨, 돈 계산하여 받으시오. 이 닷 푼짜리 은자이니 여섯 돈을 거슬러서 나를 주구려.

[지배인] 손님, 좋은 은자를 주세요. 이 은자는 팔 푼 은이니 쓸니까?

[고려인] 이 은자가 무엇이 거리끼는가? 가는 실이 분명히 다 있으니 어찌 쓰지 못합니까?

[지배인] 손님 은자를 모르거든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합시다.

[고려인] 내가 어찌 은자를 모르겠소? 무엇하러 다른 사람에게 보이러 가야 하는가?

[지배인] 은자를 교환해도 밑지지 않으면 될 것이니 손님 특별히 닷 푼 좋은 은자를 바꾸어 주면 곧 옳은데 무엇 하러 말다툼을 합니까?

[고려인] 여보 술집 아저씨! 시끄럽게 잘 떠든다. 이런 좋은 은자를 어찌 쓰지 못하겠나? 오늘 아침에 밥 먹던 곳에서 보증을 받은 것이야.

[지배인] 그만 두시오. 참고 말지.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려인] 당신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쓰지 못할 것이면 당신이 그냥 받겠어?

22) <飜老>에서는 ':둘·워'임.

4. 북경(北京)에서의 장사와 생활

이 장은 하점(夏店)을 거쳐 북경(北京)에 도착한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여관을 잡고 고려인들과 중국 동행이 함께 가져 온 말을 먼저 팔았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산다. 고려인들은 그 동안 고려에서 찾아온 친척으로부터 고국의 소식도 듣고 고려에 돌아가서 팔 물건을 찾아보는 북경에서의 생활을 그렸다. 한편 중국인 왕씨는 친척을 모아 잔치를 하다가 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고려인들과 음식이나 술을 사먹기도 한다. 또 이들은 활쏘기 시합도 구경하면서 북경(北京)에서의 생활을 즐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은 『노걸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原文 제51화 順城門官店

[漢] 打了駝馱着行, 日頭後晌[1]也. 這裏離城有的五里路. 着兩箇後頭赶將頭口來. 我和一箇火伴 先去, 尋箇好店安下着,[2] 却來迎你.

[高] 咱們先說定着, 只投順城門[3]官店裏下去.

1) '後晌'은 "오후 또는 저녁"을 말함. '晌'은 '晌'으로 쓰는 것이 올바르다. 『원전장(元典章)』「호부(戶部)」(권2) '관리(官吏)'에 "海靑兎鶻, 早晨二兩, 後晌三兩"이란 구절이 있어 '早晨-이른 아침'에 대응되는 어휘이므로 여기서도 '저녁'일 가능성이 있다. 모두 한문의 고문(古文)에는 없고 원대(元代) 이문(吏文)에 쓰이는 어휘이며 '저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을 서둘러 가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 '安下着'의 '安下'는 "묵으면, (여관을) 잡으면, (짐을) 풀면"의 의미로 보인다. '着'은 "~하면"이란 뜻을 갖는 것 같다. 혹은 '安下着' 전체가 '묵는 곳'이란 뜻으로 바로 앞의 '好店'과 동격일지도 모른다.

3) 원대(元代) 대도(大都), 즉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의 서남(西南)쪽에 있는 문을 순승문(順承門)이라고 하였는데 명대(明代)의 속칭은 '순성문(順城門)'이었다. 여기

[金] 那們時,[4] 你兩箇先去. 我兩箇後頭慢慢的赶將頭口去.

[漢] 咱們疾快行動[5]着. 比及到那裏尋了店時, 那兩箇到來了也.

(飜 老) 제51화 順城門官店에 드러가 브리져

[漢] ·짐 시·러 녀·져. ·나·리 ·낫 :계·어·다.[6] 예·셔 ·잣 벙·으로·미[7] :오 ·릿 ·길·히 잇·다. :둘·ᄒᆞ·란 ·ᄒᆞ·여 :두·허 즘승 모·라오·게 ᄒᆞ·고 ·나·와 ᄒᆞᆫ :벋·과 ·ᄒᆞ:야 몬져 ·가 :됴·ᄒᆞᆫ :뎜 :어·더 ·브·리·고 ·ᄯᅩ ·와 너 마·자 :가·리·라.

[高] ·우·리 몬져 닐·어 ·일뎡ᄒᆞ져.[8] 順城門[9] 官店[10]·에 ·드·러·가 브·리·져.

서는 '순성문(順城門)'으로 되었으나 <原老>에는 '순승문(順承門)'으로 되어 있다.

4) 대화 첫 말의 '那們時'는 "그러면"의 뜻인데 주인공 이외의 두 사람 고려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일단 고려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김(金)으로 하였다.

5) '行動'은 "걷는 것"을 말하지만 원대(元代)에는 그 자체에 "서두르다"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두패(虎頭牌)』「劇」 3折의 대사에 있는 "行動些-서둘러라-"라는 구절처럼 원곡(元曲)에서는 특히 죄인을 압송(押送)하면서 길을 서둘러 가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였다.

6) '·나·리 ·낫 :계·어·다'는 '·날(日) +-·이(주격) +·낫(晌) + :계-(過) + -·어(연결어미) +-·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해가 넘어갔다, 저녁이 다 되었다"의 뜻으로 보임. 이 구절은 원문 '日頭後晌'의 번역으로 '後晌'을 "·낫 :계·어·다"로 한 것으로 보아 "(해가) 넘어 갔다"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後晌'에 대해서는 주1 참조.

7) '·잣 벙·으로·미'는 '·잣(城) + -ㅅ(사이 ㅅ) + 벙·을-(離) + -옴(동명사형)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성과의 떨어졌음이, 성과의 거리가 있음이"의 뜻이다. '·잣(城)'은 북경성(北京城)을 말한다.

8) '·일뎡ᄒᆞ져'는 '·일(早) + 뎡(定)ᄒᆞ- + -져(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빨리 정하자"의 뜻.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9) 북경(北京) 서남쪽에 있는 문(門). 명 · 청대(明清代)의 북경시 선무문(宣武門)을 말한다. 명대(明代)의 속칭으로는 '순성문(順城門)'이었으며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권3) 등의 명대 소설에 그 이름이 보인다. 주3 참조.

10) <原老>에는 '關店'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정부가 경영하는 숙소'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인감(印鑑)의 관방(官防)'을 '關防'이라고도 쓴다. 혹은 '關厢'[성밖의 거리]에 있는 숙소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飜老>에서

[金] 그·러면[11]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흔 :뒤·헤 날회·여 즘승 모·라 :가·마.

[漢] 우·리 ᄲᆞᆯ·리 녀·져.[12] 뎨 ·가 :뎜 :어·들 ᄧᆞᆯ·와 ·뎌 :둘·토 오·리·라.

(老 諺) 제51화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오쟈

[漢] 짐 시러 녜쟈. 날이 낫계엇다. 예셔 잣 뽐이 五里ㅅ ᄶᅵᆯ히 이시니 둘흐로 ᄒᆞ여 뒤헤 즘싱 모라 오게 ᄒᆞ고 나와 ᄒᆞᆫ 벗이 몬져 가 됴흔 店 어더 ᄇᆞ리오고 ᄯᅩ 와 너 마자 가리라.

[高] 우리 몬져 닐러 뎡ᄒᆞ야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오쟈.

[金] 그러면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흔 뒤헤 날회여 즘싱 모라 가마.

[漢] 우리 ᄲᆞᆯ리 녜쟈. 뎨 가 뎜 어드매 미ᄎᆞ면 뎌 둘토 오리라.

(現代譯) 제51화 순승문(順承門) 앞 관점(關店)에 묵자

[중국인] 짐을 꾸려 싣고 출발하세. 해는 벌써 저녁이네. 여기서 대도 성내까지는 5리의 거리일세. 두 사람은 나중에 말을 몰고 오도록 하게. 나와 또 한 동행은 먼저 가서 좋은 여관을 찾아 묵을 곳을 정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마중하겠네.

[고려인] 전에 의논해서 정해 두었던 순승문(順承門)의 관점(關店)에 묵읍시다.

[김 씨] 그럼 당신들 둘은 먼저 가시오. 우리 둘은 뒤에서 천천히 말을 몰아서 가겠소.

[중국인] 서둘러 가세. 거기서 숙소를 찾았을 때쯤이면 저 두 사람도 도착할 것일세.

는 '官店'으로 표기하였다. 주2 참조.

11) 주4 참조.

12) 주5 참조.

原文 제52화 你這店裏下的我麽

[漢] 店主人家哥, 後頭還有幾箇火伴, 赶着幾匹馬來也. 你這店裏下的我麽?
[主] 你通幾箇人? 幾箇馬?
[漢] 我共通四箇人, 十箇馬.1)
[主] 車子有麽?
[漢] 車子沒?
[主] 這們的時 下的你, 那東邊有一間空房子.2) 你看去.
[漢] 你引我看去來 .
[主] 我忙, 沒功夫去. 你自看去着.
[漢] 悞了你多少功夫? 到那裏看了房子中不中, 我說一句話.
[主] 這們時去來.
[漢] 你這房兒也下的我. 茶飯如何?
[主] 茶飯時, 我店裏家小 新近出去了, 委實沒人整治. 你客人們自做飯喫.
[漢] 我們自做飯喫時, 鍋竈3)椀楪都有麽?
[主] 那的你放心, 都有.
[漢] 這們便我迎火伴去.
[主] 你去着.

1) '十箇馬'의 말 열 마리는 11마리의 잘못으로 보인다. 제9화 주3과 제14화 주1 참조.
2) '空房子'는 "빈 방"임. <原老>에서는 '稍房子'이었음. '稍房子'는 '梢房', 또는 '梢間'이라고도 말하는데 '稍'는 물건의 끝을 말한다. 따라서 '稍房子'는 본 채의 양쪽 끝에 있는 방이어서 현관과 멀어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다. 여기가 수레를 두는 차고인 것은 제58화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보은(爭報恩)』「잡극(雜劇)」 3折의 대사에 "白日在那街上討飯吃, 到晩來在那店家稍房裏安下-낮에는 거리에서 밥을 빌어먹고 밤이 되면 여관 구석방에서 뒹구네-"라는 구절이 있다.
3) '鍋竈'는 "냄비를 놓는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쇠로 만든 것도 있다(『老覽』). 이 설명에 의하면 '竈'라고 해도 부뚜막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가스렌지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해에서는 '鍋'와 '竈'를 별도로 하여 '가마와 노곳자리'로 번역하였다. 현대어의 "솥과 부뚜막"일 것이다.

飜老 제52화 이 뎜에 우리를 브리울가?

[漢] :뎜 ·쥬싄형·님. :뒤헤 ᄯᅩ 여·러 :버·디 여러 ᄆᆞ·ᄅᆞᆯ 모·라 ·오·ᄂᆞ·니 네 ·이 :뎜·에 ·우·리·를 브·리울·가?
[主] 너:희 :대·되 ·몃 :사·ᄅᆞ·매 ·몃 ᄆᆞᆯ·오?
[漢] ·우·리 :대·되 ·네 ·사ᄅᆞ·매 ·열 ·ᄆᆞ·리·라?4)
[主] 술·위 잇ᄂᆞ·녀?
[漢] 술·위 :업·다.
[主] ·이러·면 너희·를 브·리우:라. ·뎌 동녁 겨·틔 ᄒᆞᆫ 간 :뷘 방5) 잇ᄂᆞ·니 :네 보·라 가·라.
[漢] :네 :날 ·ᄃᆞ·려 보라 가·져.
[主] ·내 밧·바 겨·를 :어·더 가·디 :몯·ᄒᆞ·리로·다. :네 보·라 가·라.
[漢] 네 ·언:멋 공·부·를 머:믈우·료?6) 게 ·가 방·이 ·ᄡᅥᆷ·즉ᄒᆞᆫ·디7) :몯 ·ᄡᅥᆷ·즉 ᄒᆞᆫ·디 보·고ᅀᅡ ·내 ᄒᆞᆫ :마ᄅᆞᆯ 니ᄅᆞ·고·져 ·ᄒᆞ·노·라.
[主] ·이·러·면 :가·마.
[漢] 네 ·이 지·븨 ·우·리·를 브·리·우·거니·와 ·차·바·ᄂᆞᆫ :엇·디 ᄒᆞ·려·료?
[主] :음·식·은 ·우·리 :뎜·에 ·집 :사·ᄅᆞ·미 요제 ·나·가·니 진·실·로 :사·ᄅᆞ·미 달·호·리8) :업·세라. 너희 나·그·내·네 ·손·조 ·밥 지ᅀᅥ 머그·라.
[漢] ·우·리 ·손조 :밥 지·ᅀᅥ 머·그·면 가마·와 노곳자:리9)·와 사·발·와

4) 주1 참조. 이 책에서는 말의 수효가 10마리에서 11마리로 혼동되었다. 고려인이 끌고 온 말은 분명히 6마리다. 제9화 주3 참조.
5) ':뷘 방'은 '空房子[빈 방]'의 번역이다. 주2 참조.
6) '네 ·언:멋 공·부를 머:믈우·료'는 원문 '悞了你多少功夫'를 언해한 것이다. 원문의 의미는 "게으르기는.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닌데…"의 의미인데 언해는 "당신이 얼마나 공을 들이려고 하는가?"의 의미로 풀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의 하나다.
7) '·ᄡᅥᆷ·즉ᄒᆞᆫ·디'는 "씀직한 지, 쓸 수 있는지"의 뜻.
8) '달·호·리'는 '달·호-(治) + -ㄹ(관형사형)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다룰 수가, (밥을) 해 줄 수가"의 뜻.

뎝·시·왜[10] :다 잇ᄂᆞ·녀?
[主] 글·란 :네 ᄆᆞ숨 노·하시·라. :다 잇·다.
[漢] 이·러·면 ·내 :벋 마·ᄌᆞ·라 :가마.
[主] ·네 가·라.

(老諺) 제52화 이 뎜에 우리를 브리울ᄯᆞ?

[漢] 뎜 쥬인 형아! 뒤헤 ᄯᅩ 여러 벗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오ᄂᆞ니 네 이 뎜에 우리를 브리울ᄯᆞ?[11]
[主] 너희 대되 몃 사ᄅᆞᆷ에 몃 ᄆᆞᆯ고?
[漢] 우리 대되 네 사ᄅᆞᆷ에 열 ᄆᆞᆯ이라.
[主] 술위 잇ᄂᆞ냐?
[漢] 술위 업다.
[主] 이러면 너희를 브리오마. 뎌 동녁 겻틔 ᄒᆞᆫ 간 뷘 방이 이시니 네 보라 가라.
[漢] 네 날을ᄃᆞ려 보라 가쟈.
[主] 내 밧바 결을 어더 가디 못ᄒᆞ리로다. 네 보라 가라.
[漢] 네 언머 공부롤 머므로료? 게 가 방이 맛당ᄒᆞᆫ가 못 맛당ᄒᆞᆫ가[12] 보고 야 내 ᄒᆞᆫ 말을 니ᄅᆞ려 ᄒᆞ노라.
[主] 이러면 가마.
[漢] 네 이 집의 우리롤 브리오거니와 차반은 엇디 ᄒᆞ려뇨?
[主] 음식은 우리 뎜에 집사ᄅᆞᆷ이 요ᄉᆞ이 나가시니 진실로 달홀[13] 사ᄅᆞᆷ이

---

9) '가마·와 노곳자:리'는 "솥과 부뚜막"을 말함. 주3 참조.
10) '사·발·와 뎝·시·왜'는 '사·발(椀) + -·와(공동격) + 뎝·시(楪) + -·와(공동격) + -ㅣ(주격)'의 형태구성이다. "사발과 접시와(가)"로서 이 시기까지 집단곡용이 실현되었다.
11) <飜老>에서는 '브·리울·가'임.
12) <飜老>에서는 '·쎔·즉ᄒᆞᆫ·디 :몯 ·쎔·즉ᄒᆞᆫ·디'임.
13) <飜老>에서는 '달·호·리'임.

업ᄉᆞ니 너희 나그내들 손조 밥 지어 먹으라.
[漢] 우리 손조 밥 지어 먹으면 가마와 노고자리와 사발 뎝시 다 잇ᄂᆞ냐?
[主] 글란 네 ᄆᆞ옴 노화시라. 다 잇다.
[漢] 이러면 내 벗을 마ᄌᆞ라 가마.
[主] 네 가라.

(現代譯) 제52화 이 여관에 우리 숙박할까?

[중국인] 여관 주인아저씨, 뒤에 또 동행인이 말을 몰고 오는데 당신네 여관에 우리가 묵을 수 있소?
[점주인] 당신들 모두 몇 사람에 말은 몇 마리이오?
[중국인] 우리들은 모두 네 사람이고 말은 10마리요.
[점주인] 수레는 있으십니까?
[중국인] 수레는 없소.
[점주인] 그렇다면 당신들 숙박하시오. 저기 동쪽 곁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당신이 가서 보십시오.
[중국인]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게.
[점주인] 내가 바빠서 그럴 여유를 얻어 가지 못합니다. 당신만 보러 가십시오.
[중국인] 당신이 얼마나 힘들여 머물겠소? 거기 가서 보고 씀직 한지 씀직 하지 못한지 보고서야 내가 한 말을 하고자 하오.
[점주인] 그러면 가십시다.

—방을 보고 나서—

[중국인] 당신 이 집에 우리가 숙박하겠거니와 식사는 어찌 하겠는가?
[점주인] 음식은 우리 여관에 집 사람이 요새 나가서 정말로 사람이 밥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손님네들끼리 직접 밥을 지어 드십시오.
[중국인] 우리가 직접 밥 지어 먹으려면 솥과 부뚜막, 그릇과 접시는 다

있는가?
[점주인] 그건 당신 마음 놓으시오. 다 있습니다.
[중국인] 그러면 내가 동행인을 마중하러 가겠네.
[점주인] 당신 가시오.

(原文) 제53화 纔到這裏

[高] 你兩箇到這裏多少時?
[金] 我纔到這裏, 待要尋你去來, 你却來了. 店在那裏?
[漢] 那西頭有.
[高] 行李都搬入來着. 把馬們都鬆了.
[漢] 且休摘了鞍子. 你去問主人家, 要幾箇席子藁薦來. 就拿苕箒來掃地. 行李且休搬入去. 等鋪了席薦時, 一發搬入去.

(飜老) 제53화 우리 ᄀᆞᆺ 에 오라 ᄒᆞ마

[高] 너·희 :둘·히 예 ·오·난 ·디 :언·머 오·라니·오?
[金] ·우·리 ᄀᆞᆺ 예 ·오·라. ᄒᆞ·마 너희 ·ᄎᆞ·ᄌᆞ·라 :가·려 ·ᄒᆞ다·니 :네 ·ᄯᅩ · 오·나·다. :뎜·이 어·ᄃᆡ 잇ᄂᆞ·뇨?
[漢] ·뎌 셧 녁 그·테 잇ᄂᆞ·니·랴.
[高] ·짐·돌 :다 옴·겨 ·드·러오·고 ᄆᆞᆯ·돌 :다 오·랑[1] 서우니[2] ᄒᆞ·고.
[漢] 안·직 기·르·마[3] 벗·기·디 :말:라. :네 ·가 ·쥬신ᄃᆞ·려 무·러 여·러 돗[4]·과 지·즑[5] :달·라·ᄒᆞ·야 ·가·져:오·ᄃᆡ 이·믜·셔 :밋·뷔[6] 조·쳐 가·져다·가 ·ᄡᅡ ·ᄡᅳᆯ·라. ·지·므·란 안·직 옴·겨·드·리·디 :말·오 돗·과 지·즑 · ᄭᆞ·라·든 기·들·워 ᄒᆞᆷ·ᄢᅴ 옴·겨 ·드리·라.

1) '오·랑'은 "말의 뱃대끈"을 말함. 제30화 주4 참조.
2) '서우니'는 "느슨하게"임.
3) '기·르·마'는 "말안장"을 말함.
4) '돗'은 "돗자리"를 말함. 제18화 주22 참조.

(老諺) 제53화 우리 ᄀᆞᆺ 여긔 오롸 ᄒᆞ마?

[高] 너희 둘히 예 오난디 언머나 ᄒᆞ뇨?[7]
[金] 우리 ᄀᆞᆺ 여긔 오롸. ᄒᆞ마 너희 ᄎᆞᄌᆞ라 가려 ᄒᆞ더니 네 ᄯᅩ 오나다. 뎜이 어ᄃᆡ 잇ᄂᆞ뇨?
[漢] 뎌 셧녁 긋틔 잇ᄂᆞ니라.
[高] 짐돌 다 옴겨 드려오고 ᄆᆞᆯ돌 다 오랑을 서오니 ᄒᆞ고.
[漢] 아직 기르마 벗기디 말라. 네 가 主人ᄃᆞ려 무러 여러 돗과 지즑을 달라 ᄒᆞ야 오고 임의셔 닛뷔 가져다가 ᄡᅡᄒᆞᆯ ᄡᅳᆯ라. 짐으란 아직 옴겨 드리디 말고 돗과 지즑 ᄭᆞᆯ믈 기ᄃᆞ려 ᄒᆞᆷᄢᅴ 옴겨 드려가라.

(現代譯) 제53화 우리 지금 막 여기 왔다고

[고려인] 너희 두 사람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김 씨] 우리는 지금 막 여기 왔다고. 마침 당신들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네가 또 왔어. 숙소가 어디 있는가?
[중국인] 저기 서쪽 끝에 있네.
[고려인] 짐을 다 옮겨 들여놓고 말들도 뱃대를 느슨하게 하고.
[중국인] 아직 안장은 벗기지 말게. 자네는 주인한테 물어서 돗자리나 멍석을 몇 개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또 빗자루까지 가져다가 땅을 쓸게. 짐은 아직 옮겨 들이지 말고 돗자리나 자리를 깔거든 기다려서 한

5) '지·즑'은 "거적자리"를 말함. 제18화 주20 참조.
6) ':밋·뷔'는 "청소하는 비"를 말함. "篲 뷔 수 箒 뷔 츄 俗呼 掃箒 又稱 :밋·뷔"(『訓蒙字會』 中:9) 참조.
7) <飜老>에서는 '오·라니·오'임.

꺼번에 옮겨 들이게.

(原文) 제54화 你這馬要賣麽?

[主] 客人們, 你這馬要賣麽?

[高] 可知我要賣裏.

[主] 你旣要賣時, 也不須你將往市上去. 只這店裏放着. 我與你尋主兒1)都賣2)了.

[漢] 罷罷, 到明日再說話. 咱這馬們路上來, 每日走路子辛苦, 喂不到, 都沒甚麽脿.3) 便將到市 上, 市上人也出不上價錢. 咱們捨4)着草料, 好生喂幾日發落,5) 也不遲裏.

[高] 你說的是, 我也心裏這們想着. 我又有人蔘, 毛施布. 明日打聽價錢去來. 有價錢時賣了着. 怕十分的賤時, 且停6)些時.

[漢] 你那裏打聽去?

[高] 吉慶店7)裏有我相識, 那裏問去.

---

1) ‘主兒’는 ‘買主’, 즉 살 사람을 가리킨다.
2) ‘都賣’는 “다 파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말 都賣(도매)는 여기서 온 말이다.
3) ‘脿’는 ‘膘’와 같은 자로 <原老>에서는 ‘脿息’으로 썼다. ‘脿息’은 ‘膘息’과 같아서 “가축이 살쪄서 큰 것”을 말함. 원(元) 마치원(馬致遠)의 산곡(散曲) 『차마(借馬)』「요해자(要孩子)」에 “逐宵上草料數十番, 喂飼得膘息胖肥-매일 저녁 말 먹이를 수십 번 먹이고 키워서 살찌게 하였다-”라는 대사가 있어 ‘膘息’을 쓰고 있다.
4) ‘捨’는 “마음먹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지불, 또는 투자하는 것”이란 뜻이 있다. ‘割捨’라고도 한다.
5) ‘發落’은 “처리하다, 처치하다”라는 뜻이다(『吏學指南』). 여기서는 “팔려고 내놓는 것”을 말한다. 역시 한문 고문(古文)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서 이문(吏文)에 쓰인다.
6) ‘停’은 “보내지 말고 유보해 두다”라는 의미이다.
7) ‘吉慶店’은 <原老>에서는 ‘師傅店’이었는데 아마도 당시 고려인들이 잘 다니던 상점인 것 같으나 현재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漢] 這們時, 到明日咱們同去.

[高] 你兩箇看着頭口. 我兩箇到城裏去8)便來.

(飜老) 제54화 이 ᄆᆞᄅᆞᆯ 풀오져 ᄒᆞᄂᆞ녀?

[主] 나·그·내·네! 네 이 ᄆᆞ·ᄅᆞᆯ ·풀·오·져 ·ᄒᆞ·ᄂᆞ·녀?

[高] 그·리어·니. ·내 ·풀오·져 ·ᄒᆞ·노·라.

[主] :네 ᄒᆞ·마 :풀·오·져 ·ᄒᆞ·거·니 ·ᄯᅩ ·ᄀᆞᆺ9) :네 가·져 져·제10) 가·디 :말·오 그·저 이 :뎜·에 두·라. ·내 너 :위ᄒᆞ·야 :님:자11) 어·더 :다 ·ᄑᆞ로·마.12)

[漢] ·두·워 ·두·워. ᄅᆡ·실 다·시 :말ᄒᆞ·져. ·우·리 ·이 ᄆᆞᆯ·ᄃᆞᆯ·히 길·헤 ·오·노·라 :ᄆᆡ·실 ·길 ·ᄃᆞᆫ·녀 :슈구ᄒᆞ·고13) 머·규믈14) ᄀᆞ·장 :몯·ᄒᆞ·야 이시·니 :다 :아·ᄆᆞ·란 ·ᄉᆞᆯ진 ·주·리 :업·스·니 ·즉·재 가·져 져·제 가·면 져·젯 :사·ᄅᆞᆷ·도 ·갑·슬 도·다:내·디15) 아·니ᄒᆞ·리·니 ·우·리 ·딥콩 ᄇᆞ·려16) ᄀᆞ·장 ·여·러 ·날 머·겨 :디·쳐·ᄒᆞ·야·도17) ·ᄯᅩ 늣·디 아·니ᄒᆞ·리·라.

[高] 네 닐·오·미 ·올·타. 나·도 ᄆᆞᅀᆞ·매 이·리 너기노·라. ·내 ·ᄯᅩ 人蔘·과 모시 ·뵈 이·셰·라. ᄅᆡ·실 ·갑 듣보·라18) 가·고:려. ·갑·곳 잇·거·든 ·풀·오

---

8) ‘到城裏去’는 “성 안에 갔다가”의 뜻이므로 지금 주인공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북경(北京)의 도성(都城)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ᄀᆞᆺ’은 “구태여, 억지로, 힘써서”의 뜻.
10) ‘져·제’는 “시장”을 말함.
11) ‘:님:자’는 ‘主兒’의 번역임. ‘主兒’는 “살 사람, 매주(買主)”를 말함. 주1 참조.
12) ‘:다 ·ᄑᆞ로·마’는 원문 ‘都賣’의 번역으로 “모두 팔아주마”의 뜻. 주2 참조.
13) ‘:슈구ᄒᆞ·고’는 “근로(勤勞)하고, 힘이 들고”의 뜻.
14) ‘머·규믈’은 ‘먹-(食) + -·이-(피동형) + -움(동명사형) + -을(대격)’의 형태구성으로 “먹는 것을”의 뜻.
15) ‘도·다:내·디’는 ‘돋-(上) +-·아(연결어미) + :내-(出) + -·디(부정)’의 형태구성으로 “많이 내지, 돋우어 내지”의 뜻.
16) ‘ᄇᆞ·려’는 원문 ‘捨’의 번역이다. ‘捨’의 뜻은 원래 “투자하다”이었으나(주4 참조) 여기서는 직역하여 “버려서”라고 하였다.
17) ‘:디·쳐·ᄒᆞ·야·도’는 원문 ‘發落’의 번역으로 “처치하다”(주5 참조)의 뜻이다.
18) ‘듣보·라’는 “듣고 보고 조사하다”의 뜻.

·ᄒᆞ·다·가 ᄀᆞ·장 ·디·거·든 안·직 머·추·워 ·두·어·든.[19]

[漢] :네 :아모·ᄃᆡ·나 듣보·라 가·고·려.

[高] 吉慶店[20]·에 내 사괴·ᄂᆞ·니 잇·더·니 뎌·긔 무·르·라 :가·마.

[漢] ·이·러·면 ᄅᆡ·실 우·리 ᄒᆞᆷ·ᄭᅴ 가·져.

[高] 너희 :둘·흔 즘승 보·라. ·우·리 :둘·흔 자·새[21] ·가 ·즉·재 :오·리·라.

(老諺) 제54화 이 ᄆᆞᆯ을 ᄑᆞᆯ고져 ᄒᆞᄂᆞ냐?

[主] 나그내ᄂᆡ! 네 이 ᄆᆞᆯ을 ᄑᆞᆯ고져 ᄒᆞᄂᆞ냐?

[高] 그리어니. 내 ᄑᆞᆯ고져 ᄒᆞ노라.

[主] 네 ᄒᆞ마 ᄑᆞᆯ고져 ᄒᆞ거든 ᄯᅩ 모로미[22] 네 가져 져제 가디 말고 그저 이 뎜에 두라. 내 너ᄂᆞᆯ 위ᄒᆞ야 님자 어더 다 ᄑᆞᆯ게 ᄒᆞ마.[23]

[漢] 두워 두워. ᄂᆡ일 다시 말ᄒᆞ쟈. 우리 이 ᄆᆞᆯ돌히 길히 오노라 ᄆᆡ일 길 ᄃᆞᆫ녀 슈구ᄒᆞ고 먹키기를[24] ᄀᆞ장 못ᄒᆞ야시니 다 아ᄆᆞ란 술 짐이[25] 업ᄉᆞ니 즉제 가져 져제 가면 져젯 사ᄅᆞᆷ도 갑슬 도도 내디 아니ᄒᆞ리라. 우리 딥과 콩을 ᄇᆞ려 ᄀᆞ장 여러 날 먹여 디쳐ᄒᆞ야도 ᄯᅩ 더듸디[26] 아니ᄒᆞ리라.

[高] 네 닐옴이 올타. 나도 ᄆᆞᄋᆞᆷ애 이믜 ᄉᆡᆼ각ᄒᆞ엿노라. 내 ᄯᅩ 人蔘과 모시뵈 이시니 ᄂᆡ일 갑슬 듯보라 가셔 갑시 이시면 ᄑᆞᆯ고 ᄒᆞ다가 ᄀᆞ장 쳔ᄒᆞ면[27] 아직 잠싼 머믈워 두리라.[28]

19) '머·추·워 ·두·어·든'은 원문 '停'의 번역으로 "멈추어 두겠다, 유보해 두다"라는 의미다. 주6 참조.
20) 주7 참조.
21) '자·새'는 '잣(城) + –·애(처격)'의 형태구성. "성으로"의 뜻. 주8 참조.
22) <飜老>에서는 '·굿'임.
23) <飜老>에서는 'ᄑᆞ로·마'임.
24) <飜老>에서는 '머·규믈'임.
25) <飜老>에서는 '·술진 ·주·리'임.
26) <飜老>에서는 '늣·디'임.
27) <飜老>에서는 '·디·거·든'임.
28) <飜老>에서는 '머·추·워 ·두·어·든'임.

[漢] 네 어ᄃᆡ 듯보라 갈짜?[29]

[高] 吉慶店에 내 서ᄅᆞ 아는 이[30] 이시니 뎌긔 무로라 가리라.

[漢] 이러면 ᄂᆡ일 다ᄃᆞᆺ거든 우리 ᄒᆞᆫ 번의[31] 가쟈.

[高] 너희 둘히 즘ᄉᆡᆼ 보라. 우리 둘히 자 안ᄒᆡ 가셔 즉제 오마.

(現代譯) 제54화 이 말을 팔려고 합니까?

[점주인] 손님, 이 말은 팔려고 합니까?

[고려인] 그렇습니다. 내가 팔려고 합니다.

[점주인] 당신이 팔려고 한다면 구태여 당신이 가지고 시장에 가지 말고 이 여관에 두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임자를 얻어서 모두 팔아드리지요.

[중국인] 그만 두시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세. 우리 이 말들이 길에서 오느라고 길 다니면서 고생하고 먹는 것도 아주 못했으니 모두 아무런 살이 찌지 못했으니 즉시 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도 값을 올려주지는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짚과 콩을 투자하여 여러 날 먹이고 처리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고려인]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인삼과 모시베가 있어요. 내일은 그쪽 값을 들어보려고 갑시다. 값이 있으면 팔고, 만일 너무 싸면 아직 멈추어 두겠소.

[중국인] 자네 아무데나 물으러 갈 건가?

[고려인] 길경점(吉慶店)에 내가 사귀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로 물으러 갈 거요.

[중국인] 그럼 내일은 우리 함께 가세.

29) <飜老>에서는 ':아모·ᄃᆡ·나 듣보·라 가·고·려'임.
30) <飜老>에서는 '사괴·ᄂᆞ·니'임.
31) <飜老>에서는 'ᄒᆞᆷ·ᄭᅴ'임.

—다음 날이 되어—

[고려인] 당신들 둘은 말을 보게. 우리 둘은 성 안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테니까.

—老乞大 上—

(原 文) 제55화 我是他親眷

[高] 拜揖, 大哥, 這店裏賣毛施布的高麗客人李舍[1] 有麽?

[主] 你尋他怎麽?

[高] 我是他親眷, 纔從高麗地面來.

[主] 恰纔出去了, 往羊市角頭[2]去了. 他說便來, 你且出去, 等一會再來.

[高] 旣他羊市角頭去時, 又不遠, 我只這裏等.

[主] 隨你等着.

[高] 他在那箇房子裏下?

1) '李舍'의 '舍'는 원래 관직명(官職名)인 '사인(舍人)'의 준말이고, 성씨 뒤에 붙여 존칭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말의 '~씨'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문 '李舍'는 "이씨"란 뜻이다. 언해에서는 '이가(李家)'로 하였다.

2) 제8화 주9에서 언급한 원(元) 대도(大都)의 '양각시(羊角市)'는 '마시(馬市)'를 말한다. '羊角市'와 '羊市角頭'란 호칭의 차이에 대하여 『북경가항명칭사화(北京街巷名稱史話)』(張淸常,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에서는 '羊角市'가 '羊市角頭'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서 같은 말이라 하였다. 현재 북경시(北京市)의 서성구(西城區), 서사남대가(西四南大街)를 중심으로 조등우로(趙登禹路), 부성문내대가(阜城門內大街), 태평교대가(太平橋大街)의 삼로(三路)가 교차하는 곳의 서북쪽 일대가 당시의 말 시장인데, 특히 서사남대가(西四南大街)를 양의 머리로 해서 우측으로 퍼진 모퉁이, 즉 현재의 서안문대가(西安門大街)가 원래의 양시각두(羊市角頭)이었다고 한다.

[主] 那西南角上, 芭籬門[3]南邊, 小板門兒便是.

[高] 他出去了, 看家的有麽?

[主] 有箇後生來, 這裏不見. 敢出去了.

(飜 老) 제55화 내 더 소ᄂᆡ 아ᅀᆞ미라

[高] ·읍·ᄒᆞ·노이·다. ·큰형·님 ·이 :뎜·에 모시·뵈 ·풀 高麗ㅅ 나·그·내 李·개 잇ᄂᆞ·녀?

[主] ·네 ·뎌·를 ·ᄎᆞ·자 므·슴 ᄒᆞᆯ다?

[高] ·내 ·뎌 ·소·ᄂᆡ 아·ᅀᆞ·미라·니[4] 앗·가 ᄀᆞᆺ 高麗ㅅᄯᅡ·호·로·셔 :오라.

[主] 앗·가 ᄀᆞᆺ ·나·가·니 羊져·제[5] ·가·니·라. ·제 닐오·ᄃᆡ ·즉재 :오·려 ·ᄒᆞ·더·니 :네 안·직 ·나·갓다·가 ᄒᆞᆫ 디·위 기·드·려 다·시 ·오·나·라.

[高] ᄒᆞ·마 :제 羊저·제 ·니·거·니 ·ᄯᅩ :머·디 아·니커·니 내 그저 예·셔 기·들·오리·라.

[主] 네 ᄆᆞᅀᆞ·모·로 기·들·워·라.

[高] :제 어·느 방·의 브·리·여 잇ᄂᆞ·뇨?

[主] 뎌 西南 모·해 ·바·ᄌᆞ문[6] 남녁 :죠·고·맷 :널문[7]·이 :긔·라.

[高] :제 나·니거·니[8] 집 보·리 잇ᄂᆞ·녀?

[主] ᄒᆞᆫ 져·므 ·니 잇·더·니 예 :몯 보·리로·다. ·나간 ·ᄃᆞᆺᄒᆞ·다.

3) '芭籬門'은 <原老>에서 '芭子門'이었는데 아마도 '笆籬門'이 옳을 것 같다. '笆籬'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 한편, 언해 '바ᄌᆞ문'은 '芭(笆)子門'에서 왔으니 이 말의 어원이 한어(漢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ᅀᆞ·미라·니'는 '·아·ᅀᆞᆷ(親) + -·이라·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친척이니"의 뜻.

5) '羊져·제'는 '양각시(羊角市)'를 말함. 주2 참조.

6) '·바·ᄌᆞ문'은 '芭籬門'의 번역으로 "대나무로 엮은 문"을 말한다. '·바·ᄌᆞ문'은 '芭(笆)子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주3 참조.

7) ':널문'은 '板門'의 번역으로 "널판자로 된 방문"을 말함.

8) '나·니거·니'는 '나-(出) + ·니-(행) + -거·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의 뜻.

老諺 제55화 내 더의 권당이러니

[高] 읍ᄒᆞ노이다. 큰형아! 이 뎜에 모시뵈 ᄑᆞᆯ 高麗ㅅ 나그내 李개[9] 잇ᄂᆞ냐?

[主] 네 더를 ᄎᆞ자 므슴홀따?

[高] 내 더의 권당[10]이러니 앗가 ᄀᆞᆺ 高麗ㅅ 짜흐로셔 오롸.

[主] 앗가 ᄀᆞᆺ 나가시니 羊 져제 모롱이를 향ᄒᆞ야 가니라. 제 닐오ᄃᆡ 즉제 오려 ᄒᆞ더니 네 아직 나갓다가 ᄒᆞᆫ 디위 기드려 다시 오나라.

[高] 이믜 제 羊 져재 모롱이에 가시면 쏘 머디 아니ᄒᆞ니 내 그저 예셔 기ᄃᆞᆯ오리라.

[主] 네 ᄆᆞᄋᆞᆷ으로 기ᄃᆞᆯ오라.

[高] 제 어늬 방의 브리워 잇ᄂᆞ뇨?

[主] 더 西南 모해 바ᄌᆞ문 남녁 죠고만[11] 널문이 긔라.

[高] 제 나가시면[12] 집 보리 잇ᄂᆞ냐?

[主] ᄒᆞᆫ 져므니 잇더니 예 업스니 나간 듯ᄒᆞ다.

現代譯 제55화 고려에서 찾아온 친척

—고려에서 친척이 주인공을 찾아 여관으로 오다—

[고려인] 안녕하십니까? 주인아저씨. 이 여관에 모시 천을 파는 고려 손님 이(李)씨가 있습니까?

[점주인] 당신 그 사람을 찾아서 무엇 하려고?

[고려인] 저는 손님의 친척인데 아까 막 고려에서 왔습니다.

9) 주1 참조.
10) '권당(眷黨)'으로 친척을 말함. <飜老>에서는 '·아·ᅀᆞ·미라·니'임.
11) <飜老>에서는 ':죠·고·맷'임.
12) <飜老>에서는 '나·니거·니'임.

[점주인] 아까 나갔는데, 말 시장(羊市角頭)에 갔네. 그가 말하기를 금방 돌아온다고 했으니 당신은 잠깐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오게.

[고려인] 이미 말 시장에 제가 갔다면 멀리 간 것도 아니니 여기서 기다릴게요.

[점주인] 당신 마음대로 기다리게.

[고려인] 그 사람은 어느 방에 묵고 있어요?

[점주인] 저 남쪽 모퉁이에 대나무 울타리 남쪽 작은 널판자 문이 그 방일세.

[고려인] 그가 나가서 돌아다니니 방을 지키는 사람은 있나요?

[점주인]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 나간 듯하네.

原文 제56화 如今價錢如何?

[商] 你高麗地面裏, 將甚麽貨物來?

[高] 我將的幾疋馬來.

[商] 再有甚麽貨物?

[高] 別沒甚麽. 有些人蔘, 毛施布. 如今價錢如何?

[商] 價錢如常, 人蔘正缺着裏, 最好價錢.

[高] 如今賣的多少?

[商] 往年便只是三錢一斤. 如今爲沒有賣的, 五錢一斤家, 也沒處尋裏. 你那蔘那裏蔘?

[高] 我的是新羅蔘.[1]

[商] 新羅蔘時又好. 愁甚麽賣?

1) '新羅蔘'은 고려 인삼(人蔘)의 일종이다. 『격치경원(格致鏡原)』(권26) 「제약(諸藥)」에 "新羅蔘은 황색이 나고 맛이 싱겁다"라는 기사가 있다. 송(宋) 장식(張栻)의 "신라삼(新羅蔘)을 부(賦)하다"란 시(詩)가 있다(『남헌집(南軒集)』 권3). 또한 『경정건강지(景定建康志)』(권50)에 빈사(瀕死)의 아이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지시로 신라삼(新羅蔘)을 복용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飜老) 제56화 人蔘갑시 엇더ᄒᆞ뇨?

[商] :네 高麗ㅅᄯᅡ·해·셔 므·슴 :쳔·을[2] 가·져 온·다?

[高] ·내 여러 필 ᄆᆞ·를 가·져 :오·라.

[商] ·ᄯᅩ 므·슴 :쳔 잇ᄂᆞ·뇨?

[高] ·별·히 :아·못것·도 :업·거·니·와 :져·기 人蔘·과 모시·뵈 잇·다. ·이·제 ·갑·시 :엇·더ᄒᆞ뇨?

[商] ·갑시 샹·네 ·ᄀᆞᆮ·다. 人蔘·은 ·경:히 그·처시·니[3] ·갑·시 ᄀᆞ·장 :됴·ᄒᆞ니·라.

[高] ·이·제 :언·머·의 ·ᄑᆞᆯ·고?

[商] :아·릐·ᄂᆞᆫ 그저 :세 :돈·애 ᄒᆞᆫ 근·시기러·니 ·이·제·ᄂᆞᆫ ·ᄑᆞᆯ ·리 :업·수모·로 닷 :돈·애 ᄒᆞᆫ 근·시·기라·도 ·ᄯᅩ :어·들 ·듸 :업·스니·라. 네 그 人蔘이 어·듸 人蔘·고?

[高] 내 ·해[4] 新羅ㅅ人蔘[5]이·라.

[商] 新羅ㅅ人蔘·이·면 ·ᄯᅩ 더·욱 :됴·커·니ᄯᆞ·나. 므·슴 ·ᄑᆞ·롤 :일 근심 ᄒᆞ·리·오?

(老諺) 제56화 人蔘 갑시 엇더ᄒᆞ뇨?

[商] 네 高麗 ᄯᅡ히셔 므슴 貨物[6] 가져 온다?

[高] 내 여러 필 ᄆᆞᆯ을 가져 오롸.

2) ':쳔·을'은 ':쳔(錢) + -·을(대격)'의 형태구성으로 "재물을, 화물(貨物)을"을 말한다. <老諺>에서는 '貨物'로 되었다.
3) '그·처시·니'는 '그·치-(闕, 斷) + -어(연결어미) + 시-(再) + -·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끊겼으니, 끊어졌으니"의 뜻.
4) '·해'는 '하(物) + -·ㅣ(주격)'의 형태구성이다. "것이"의 뜻.
5) 주1 참조.
6) <飜老>에서는 '쳔(財物)'임.

[商] ᄯᅩ 므슴 貨物 잇ᄂᆞ뇨?

[高] 다ᄅᆞᆫ[7] 아모것도 업고[8] 져기 人蔘과 모시뵈 잇다. 이제 갑시 엇더ᄒᆞ뇨?

[商] 갑시 如常호되[9] 人蔘은 정히 업스니[10] 갑시 ᄀᆞ장 됴흐니라?

[高] 이제 언머에 ᄑᆞᄂᆞᆫ고?[11]

[商] 往年[12]은 그저 서 돈에 ᄒᆞᆫ 근식이러니 이제 ᄑᆞᆯ 리 업슴[13]으로 닷 돈에 ᄒᆞᆫ 근식이라도 어들 ᄃᆡ 업스니라. 네 뎌 蔘이 어딋 蔘고?

[高] 내하ᄂᆞᆫ[14] 新羅蔘이라.

[商] 新羅蔘이면 ᄯᅩ 됴타. 므슴 ᄑᆞᆯ기[15] 근심ᄒᆞ료?

(現代譯) 제56화 인삼 값이 어떠한가?

—북경 상점에서 물건값을 알아보다—

[상 인] 당신, 고려 땅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가?

[고려인] 내 여러 필 말을 가져왔소.

[상 인] 또 무슨 화물이 있는가?

[고려인]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인삼과 모시베가 조금 있소이다. 지금 값이 어떻소?

[상 인] 값은 평소와 같다네. 인삼은 마침 물건이 떨어져서 값이 제일 좋소.

[고려인] 지금 얼마에 팔겠소?

7) <飜老>에서는 '·별·히'임.
8) <飜老>에서는 ':업·거·니·와'임. '-·거·니·와'는 현대로 올수록 사용이 줄어든다.
9) <飜老>에서는 '샹·네 ·ᄀᆞᆮ·다'임.
10) <飜老>에서는 '그·처시·니'임.
11) <飜老>에서는 '·ᄑᆞᆯ·고'임.
12) <飜老>에서는 ':아·릐'임.
13) <飜老>에서는 ':업·수모·로'임.
14) <飜老>에서는 '내 ·해'임. 주4 참조.
15) <飜老>에서는 '·ᄑᆞ·롤 :일'임.

[상　인] 예전에는 석 돈에 한 근씩이었는데 지금은 팔 물건이 없어서 다섯 돈에 한 근씩이라도 얻을 곳이 없소. 당신의 인삼은 어디 인삼인가?

[고려인] 내 것은 신라(新羅) 인삼(人蔘)입니다.

[상　인] 신라 인삼이라면 더욱 좋고말고. 무슨 팔 일을 걱정할 것인가?

原文 제57화 家裏都好麽?

[主] 那箇不是李舍來了?

[李] 好麽, 好麽? 幾時來? 家裏都好麽?

[高] 都安樂來.

[李] 我下處去.

請, 請, 裏頭坐的. 你從幾時離了王京?

[高] 我七月初[1]頭離了.

[李] 却怎麽這時間纔來到?

[高] 我沿路慢慢的來.

[李] 我家裏有書信麽?

[高] 有書信.

[李] 這書上寫着, 沒甚麽備細. 你來時, 我父親, 母親, 伯父, 叔父, 伯娘, 嬸子,[2] 姐姐, 姐夫, 二哥, 三哥, 嫂子, 妹子, 兄弟們,[3] 都安樂好麽?

[高] 都安樂.

[李] 那般好時,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4] 怪道, 今日早起, 喜鵲兒噪,[5] 又

1) '七月初頭'는 7월 1일을 말한다. 제1화 참조.
2) '嬸子'는 '嬸母'를 말하며 "숙부의 부인"을 말하는데 '嬸娘' 또는 '嬸子'라고도 한다. 송(宋) 장문잠(張文潛, 張耒)의 『명도잡지(明道雜志)』에 의하면 경전(經傳) 중에는 '嬸妗'이란 글자가 없는데 '妗'은 '舅母'의, '嬸'은 '世母'의 두 글자를 합하여 된 것이라고 한다(『老覽』下:3앞). "작은어머니", 즉 "숙모"를 말한다.
3) '兄弟們'은 "동생들"을 말함. 제12화 주2 참조.
4)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는 원대(元代)에 유행한 말로 『추호희처(秋胡戲妻)』

有嚏噴來,[6] 果然 有親眷來. 又有書信, 却不道 "家書直萬金."[7] 小人拙婦和小孩兒們, 都安樂麽?

[高] 都安樂. 你那小女兒, 出疹子[8]來, 我來時都完痊疴[9]了.

飜老 제57화 지븨셔 다 이대 잇던가?

[主] ·뎨 아·니 李·개[10] ·오·ᄂᆞ·녀?

[李] 이·대[11] ·이·대! :언·제 오·뇨? 지·븨·셔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이·대 잇·더·라.

[李] 내 ·햐·츄·에[12] 가·져.

·쳥ᄒᆞ뇌[13] 안해 ·와 안ᄌᆞ·쇼·셔. :네 :언·제 王京[14]·의·셔 ·ᄠᅥ난·다?

「잡극(雜劇)」1折의 '卜兒(老婆 역)의 시(詩)'에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소년(少年)이 다시 오지 않는다. 황금(黃金)이 귀하다고 하지 마라. 안락(安樂)이 가장 돈의 가치가 있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으며, 원곡(元曲), 소설(小說)에 이 시구(詩句)가 자주 나타난다.
5) '喜鵲兒噪'는 속설(俗說)에 까치가 기쁘게 울면 손님(行人)이 온다는 말(『老覽』下:1)을 말한다. 『老覽』(下:1)에서는 한(漢)의 육가(陸賈)가 "까치가 기쁘게 울면 손님(行人)이 오고 거미가 모이면 백가지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출전(出典)은 『서경잡기(西京雜記)』이고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丙集」(권6)에서 인용될 정도로 잘 알려진 속신(俗信)이다. 원곡(元曲) 등에도 다수 예가 있다.
6) '嚏噴來'는 "재채기를 하다"는 뜻인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신(俗信)에 따르면 남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시경(詩經)』「패풍(邶風)·종풍(終風)」의 '정전(鄭箋)'(漢 鄭玄의 註)에 "지금 속인(俗人)들은 재채기를 하면 남이 나를 말한다고 한다. 이것이 옛날의 유어(遺語)다"라는 기사가 있다.
7) '家書直萬金'은 "집에서 온 편지가 만금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당(唐) 두보(杜甫)의 '춘망(春望)'이란 시(詩)에 "烽火가 三月에 이어지니 家書가 萬金의 값이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구(詩句)가 있다.
8) '出疹子'는 "몸에 열꽃이나 물집,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보아 홍역(紅疫)에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出班子'의 '班'은 '斑' 또는 '瘢'으로 써야 한다.
9) '痊疴'는 "병이 낫는 것"을 말한다.
10) '李·개'는 원문 '李舍'의 번역임. 제55화 주1 참조. 주인공의 동향 친척으로 보임.
11) '이·대'는 "잘, 좋게"임.
12) '·햐·츄·에'는 "하처(下處)에, 묵고 있는 곳에"의 뜻.

[高] ·내 七月ㅅ 초싱·애 ·떠:나·라.

[李] ·ᄯᅩ :엇·디 이 즈·ᅀᅳ·메·ᅀᅡ[15] ᄀᆞᆺ 온·다?

[高] ·내 ·길조·차 날회여 :오·라.

[李] 우·리 지·븨 :유·뮈[16] 잇ᄂᆞ·녀?

[高] :유·뮈 잇·다.

[李] ·이 :유·무·에 ·써쇼·미[17] :아·ᄆᆞ·란 ·ᄌᆞ·셔ᄒᆞᆫ ·주·리 :업·다. :네 올 저·긔 ·우:리 아·바· 님, ·어·머·님, ᄆᆞᆮ아ᄌᆞ·바·님,[18] 아ᅀᆞ 아ᄌᆞ·바·님,[19] ᄆᆞᆮ아자비 :겨·집,[20] 아ᅀᆞ 아자·비 :겨·집,[21] ᄆᆞᆮ누의, ᄆᆞᆮ누의 남진, ·둘·잿 형, :세·잿 형, 형의 :겨·집, 아ᅀᆞ 누의, 아ᅀᆞ·ᄃᆞᆯ·히[22]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이·대 잇·더·라.

[李] 그·리 이·대 이시·면 황금·이 ·귀ᄒᆞ·다 니ᄅᆞ·디 :말:라. 편안·호·미·ᅀᅡ 빋·소·미[23] 하·니· 라. 괴·이ᄒᆞᆯ·셔. 오·ᄂᆞᆯ 아·ᄎᆞ·미 ·가·치 :울·오 ·ᄯᅩ ·ᄌᆞ·치·임[24]·ᄒᆞ·다니 :과·연 아·ᅀᆞ·미 오·고 ·ᄯᅩ :유·뮈 오·나·다.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녀 집 :유·뮈 ·일·만 량 금·이 ·ᄊᆞ·다 ·ᄒᆞ·ᄂᆞ니·라. 小人·의 :겨·집과 아·ᄒᆡ·ᄃᆞᆯ·히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편안·ᄒᆞ·더·니. 네 그 져·믄 ·ᄯᆞ·리 되야·기[25] :내여 잇더·니 나

13) '·청ᄒᆞ뇌'는 원문 '請, 請'을 언해한 것으로 "청합니다. 제발"의 뜻.
14) '王京'은 고려 서울인 개성을 말함. 제1화 주1 참조.
15) '즈·ᅀᅳ·메·ᅀᅡ'는 '즈·ᅀᅳᆷ(頃) +-·에(처격) + -·ᅀᅡ(강세첨사)'의 형태구성으로 "이제야, 지금에야"의 뜻.
16) ':유·뮈'는 ':유무(信)- + -·ㅣ(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소식이, 편지가"의 뜻.
17) '·써쇼·미'는 '·ᄡᅳ-(書) + -어(연결어미) + 시-(在) + -옴(동명사형)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써 있는 것이"의 뜻.
18) 'ᄆᆞᆮ아ᄌᆞ·바·님'은 "백부(伯父), 큰 아버지"를 말함.
19) '아ᅀᆞ 아ᄌᆞ·바·님'은 "숙부(叔父), 작은 아버지"를 말함.
20) 'ᄆᆞᆮ아자비 :겨·집'은 "백부(伯父)의 부인, 큰 어머니"를 말함.
21) '아ᅀᆞ 아자비 :겨·집'은 "숙부(叔父)의 부인, 작은 어머니"를 말함. 원문 '嬸子'의 번역으로 주2 참조.
22) '아ᅀᆞ·ᄃᆞᆯ·히'는 '兄弟'의 번역으로 "동생들이"를 뜻함. 주3 참조.
23) '빋·소·미'는 '빋·ᄉᆞ-(値) + -옴(동명사형)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값이 있는 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의 뜻.
24) '·ᄌᆞ·치·임'은 "재채기"를 말함. '·ᄌᆞ·취·욤'으로도 씀.

올 제 ·다 :됴:ᄒᆞ ·야 암·그·럿더·라.[26]

(老諺) 제57화 집의셔 다 이대 잇던가?

[主] 뎨 아니 李개 오ᄂᆞ냐?

[李] 이대 이대! 언제 오뇨? 집의셔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이대 잇더라.

[李] 내 하쳐에 가쟈.

청ᄒᆞ노니 안해 안즈라.[27]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

[高] 내 七月 초싱애 떠나롸.

[李] ᄯᅩ 엇디 이즈음에아 ᄀᆞᆺ 온다?

[高] 내 길흘 조차 날회여 오롸.

[李] 우리 집의 유뮈 잇ᄂᆞ냐?

[高] 유뮈 잇다.

[李] 이 유무에 써시미[28] 아ᄆᆞ란 자셔ᄒᆞᆫ 줄이 업다. 네 올 저긔 우리 父親[29] 母親[30] ᄆᆞᆺ아 자비, 아ᄋᆞ아자비, ᄆᆞᆺ아자븨 겨집, 아ᄋᆞ아자븨 겨집, ᄆᆞᆺ누의, ᄆᆞᆺ누의 남진, 둘재 형, 셋재 형, 형의 겨집, 아ᄋᆞ누의, 아ᄋᆞ들히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이대 잇더라.

[李] 그리 됴히 이시면 黃金이 귀ᄒᆞ다 니ᄅᆞ디 말라. 편안홈이아 빗ᄊᆞ미[31] 하니라. 괴이ᄒᆞ다. 오ᄂᆞᆯ 아촘의 가치 울고 ᄯᅩ ᄌᆞ치옴 ᄒᆞ더니 果然 권당

25) '되야·기'는 "마마꽃, 발진(發疹)"을 말함. "疹子 되야기"(『譯語類解』 上:62).
26) '암·그·럿더·라'는 '암·글-(合) + -어(연결어미) + ㅅ-(在) + -더-(과거회상) + -·라(종결)'의 형태구성으로 "아물었더라"의 뜻.
27) <飜老>에서는 ᄒᆞ쇼셔체를 사용하였다.
28) <飜老>에서는 '·써쇼·미'임.
29) <飜老>에서는 '아·바·님'임.
30) <飜老>에서는 '·어·머·님'임.
31) <飜老>에서는 '빋·소·미'임.

이[32] 오고 ᄯᅩ 書信이 이시니[33]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냐 家書ㅣ 萬金 ᄊᆞ다 ᄒᆞᄂᆞ니라. 少人의 계집과 아ᄒᆡ들히 다 이대 잇던가?

[高] 다 安樂ᄒᆞ더라. 네 그 져근[34] 돌이 되야기 ᄂᆞᆺ더니[35] 내 올 제 다 됴하 암그랏더라.

現代譯 제57화 가족들은 다 잘 있습니까?

—여관에 돌아와서—

[점주인] 저기 이씨가 오지 않나?

—주인공과 고려에서 먼저 온 이씨가 만나서

[이 씨] 잘 지냈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집에서 다 잘 있습니까?

[고려인] 다들 무사히 잘 있네.

[이 씨] 제 숙소[下處]로 갑시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 씨] 제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저씨 언제 고려 서울을 떠났습니까?

[고려인] 7월 초승에 떠났네.

[이 씨] 그럼 어째서 이제야 겨우 여기에 도착했어요?

[고려인] 내가 길에서 천천히 왔다네.

[이 씨] 우리 집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까?

[고려인] 편지가 있네.

[이 씨] 이 편지에 쓴 것이 아무런 자세한 것이 없어요. 아저씨가 떠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누나, 매형, 둘째 형님, 셋째 형님, 형수님,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들은 모두 잘 있었습니까?

[고려인] 다 잘 있었네.

[이 씨] 그렇게 잘 있으면 '황금이 귀하다고 말하지 마라, 평안함이 가치가 크구나'라는 셈이지요. 어쩐지 오늘 아침 까치가 반갑게 울고 또 재채기도 하더니 과연 아저씨가 찾아오시고 편지까지 왔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 보다 비싸다'라고. 저희 집사람과 애들도 잘 있습니까?

[고려인] 다 평안하게 있었네. 자네 어린 딸이 발진(發疹)이 생겼더니 내가 떠날 때에는 다 좋아져서 아물었다네.

32) <飜老>에서는 '아·ᄉᆞ·미'임.
33) <飜老>에서는 ':유·뮈 오·나·다'임.
34) <飜老>에서는 '져·믄'임.
35) <飜老>에서는 ':내여 잇더·니'임.

原文 제58화 這火伴是誰?

[李] 你將甚麽貨物來?

[高] 我將着幾疋馬來. 又有些人蔘, 毛施布. 如今價錢如何?

[李] 馬的價錢和布價只依往常. 人蔘價錢十分好.

[高] 說的是. 恰纔這店裏, 那客人也這般說.

[李] 你有幾箇火伴?

[高] 又有兩箇火伴, 都是親眷. 一箇是姑舅哥哥, 一箇是兩姨兄弟.[1]

[李] 在那裏下?

[高] 在順城門官店街北一箇車房裏下着.

[李] 從幾時來到?

[高] 我只夜來到.

[李] 這火伴是誰?

[高] 到遼東這邊, 合將他來. 他也有幾疋馬, 一處赶將來. 他是漢兒人, 在遼

1) '姑舅哥哥 兩姨兄弟'에 대하여는 제12화 주2, 3을 참조.

東城裏住. 我沿路 來時, 好生多得他濟.[2] 我漢兒言語, 不理會的, 路上喫的馬疋草料幷下處, 全是這大哥辛苦.

[李] 說的是.

(飜老) 제58화 이 버든 누고?

[李] :네 므·슴 :쳔 가·져 온·다?

[高] ·내 여·러 ·필 몰 가져 :오·니 또 人蔘·과 모시·뵈·도 잇·다. ·이·제 ·갑·시 :엇·더ᄒᆞᆫ·고?

[李] 몰·갑·과 ·뵛·갑·시 그저 :네 :ᄀᆞᆮ·거니·와 人蔘·갑·곳 ᄀᆞ·장 :됴·타.

[高] 닐·오·미 ·올·타. 앗·까 ᄀᆞᆺ ·이 :뎜엣 ·뎌 나·그·내·도 ·이·리 니ᄅᆞ·더·라.

[李] 네 ·몃 :버·디 ·왓ᄂᆞ·뇨?

[高] ·또 :두 :버·디 잇ᄂᆞ·니 :다 아·ᄉᆞ미·라. ᄒᆞ나·ᄒᆞᆫ :이·셩:ᄉᆞ·촌 형[3]·이·오 ᄒᆞ나·ᄒᆞᆫ 어믜:겨·집 동ᄉᆡᆼ[4]·의게 난 아ᄉᆞ.

[李] 어·듸 브·리·여 잇ᄂᆞᆫ고?

[高] 順城門 官店 거·릿 븍녁 ᄒᆞᆫ 술·윗지·븨 브·리·여 잇·노라.

[李] :언·제 오·뇨?

[高] ·내 어·제 오라.

[李] ·이 :버·든 ·누·고?

[高] 遼東 이녀·긔 ·와 모·다 :오·라. :뎌 ·또 여·러 필 ᄆᆞ·롤 가·져 ᄒᆞᆫ·ᄃᆡ 모·라 :오·라. ·뎌·ᄂᆞᆫ 漢人·이·니 遼東·자·새·셔 :사·더·라. ·내 ·길 조·차 올 시·져·릐 ᄀᆞ·장 :만·히 ·뎌·의 거·리·치·믈[5] 니·부·라. ·나·ᄂᆞᆫ 漢兒의 ·마·를 모·ᄅᆞ모·로 길·헤 머·글 거·시·며 몰·돌·히 草料ㅣ·며 ·햐·츄·돌·히

2) '得 ~濟'는 "~의 도움을 얻다"는 뜻의 구문이다.
3) ':이·셩:ᄉᆞ·촌 형'은 '姑舅哥哥'의 번역. "고종 사촌형"을 말함.
4) '어믜 :겨·집 동ᄉᆡᆼ'은 '兩姨兄弟'의 번역으로 "이종 사촌 동생"을 말함.
5) '·뎌·의 거·리·치·믈 니·부·라'는 원문 '得他濟'를 언해한 것이다. 원문의 뜻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의 뜻임. 주2 참조. '거·리·치·믈'은 '거·리·치-(濟) + -ㅁ(파생명사 접미사) + -·을(대격)'의 형태구성으로 "다스림을, 거느림을" 말함.

젼·혀 ·이 형·님·이 :슈·고·ᄒᆞ·더니·라.

[李] 닐·오·미 ·올·타.

(老諺) 제58화 이 벗은 누고고?

[李] 네 므슴 貨物을[6] 가져 온다?

[高] 내 여러 필 몰을 가져 오고 또 人蔘과 모시뵈 이시니 이재 갑시 엇더ᄒᆞ뇨?

[李] 몰 갑과 뵛 갑ᄉᆞᆫ 그저 네 ᄀᆞᆺ거니와 人蔘 갑ᄉᆞᆫ ᄀᆞ장 됴ᄒᆞ니라.

[高] 닐옴이 올타. 앗끼 ᄀᆞᆺ 이 店엣 뎌 나그내도 이리 니ᄅᆞ더라.

[李] 네 몃 벗이 잇ᄂᆞ뇨?[7]

[高] 또 두 벗이 이쇼되[8] 다 권당이니[9] ᄒᆞ나흔 姑舅의게셔 난[10] 형이오 ᄒᆞ나흔 兩姨의게셔[11] 난 아이라.

[李] 어ᄃᆡ 부리워 잇ᄂᆞᆫ고?

[高] 順城門 官店 거릿 븍녁 ᄒᆞᆫ 술윗방의 부리워 잇노라.

[李] 안제[12] 오뇨?

[高] 내 그저 어제 오롸.

[李] 이 벗은 누고고?[13]

[高] 遼東 이녁킈 와 못ᄃᆞ라[14] 왓노라. 뎨 또 여러 필 몰이어시니[15] ᄒᆞᆫᄃᆡ 모라 오롸. 뎌ᄂᆞᆫ 漢人이니 遼東 잣 언해셔 사ᄂᆞ니 내 길흘 조차 올 적

6) <飜老>에서는 ':쳔'임.
7) <飜老>에서는 '·왓ᄂᆞ·뇨'임.
8) <飜老>에서는 '잇ᄂᆞ·니'임.
9) <飜老>에서는 '아·ᄉᆞ미·라'임.
10) <飜老>에서는 ':이·셩:ᄉᆞ·촌'임.
11) <飜老>에서는 '어믜 :겨·집 동ᄉᆡᆼ·의게'임.
12) '언제'의 오각(誤刻)으로 보임.
13) <飜老>에서는 '·누·고'임.
14) <飜老>에서는 '모·다'임.
15) <飜老>에서는 'ᄆᆞ·롤 가·져'임.

의 ᄀᆞ장 만히 뎌의 구제홈을 어드롸.[16] 내 한말을[17] 아디 못ᄒᆞ니 길헤 먹을 써시며 물둘희 草料와 다믓 햐쳐를 젼혀 이 큰형이 슈고ᄒᆞ더니라.

[李] 닐오미 올타.

(現代譯) 제58화 이 친구는 누군가요?

[이 씨] 아저씨, 어떤 물건을 갖고 오셨어요?

[고려인] 내가 말 몇 마리를 가져 왔네. 거기다가 인삼과 모시 베도 있다네. 지금 값은 어떤가?

[이 씨] 말 값과 베 값이 그저 옛날과 같으나 인삼 값은 아주 좋습니다.

[고려인] 자네 말이 옳네. 조금 아까 이 여관의 저 나그네도 그렇게 말하더군.

[이 씨] 아저씨 일행은 몇 분입니까?

[고려인] 또 두 사람의 동행이 있는데 다 친척일세. 한 사람은 고종 사촌 형님이고, 또 한 사람은 이종 사촌 동생일세.

[이 씨] 어디에 묵으세요?

[고려인] 순성문(順城門) 관점(官店) 거리의 북쪽에 있는 한 수레 집에 묵고 있네.

[이 씨] 언제 오셨어요?

[고려인] 어제 밤에 막 도착했네.

[이 씨] 이분은 누구십니까?

[고려인] 요동(遼東) 이쪽에 와서 함께 왔네. 이분도 말이 몇 마리 있어서 같이 몰고 왔다네. 이 사람은 한인(漢人)이고 요동성(遼東城)에서 사신다고 하네. 우리가 길을 따라 올 때에 이 사람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네. 나는 한아(漢兒)의 말을 잘 모르니까 길에서 먹을 것이며 말들의 먹이며, 그리고 묵는 곳까지 다 이 형님이 수고를 해 주셨네.

16) <飜老>에서는 '거·리·치·믈 니·부·라'임.
17) <飜老>에서는 '漢兒의 ·마·를'임.

[이 씨] 말씀이 옳습니다.

(原文) 제59화 再廝見

[高] 我且到下處去. 再廝見.

[李] 且停些時, 咱們聊且喫一盃酒. 不當接風.[1]

[高] 不要. 今日忙, 明日再廝見, 喫酒也不遲裏.[2]

[李] 這們時, 明日就店裏尋你去. 一發和那親眷們, 一處喫一兩盃. 我送你到外頭去.

[高] 不要你送. 你這房裏沒人, 不要去.

[李] 這們時, 你却休怪, 小人沒甚麽館待.[3]

[高] 怪甚麽? 咱們一家人, 又不是別人.

(飜老) 제59화 다시 서르 보져

[高] ·내 안·직 ·햐·츄·에 ·가노·라. 다·시 서르 보·져.

[李] 아·직 머·므러·든 ·우·리 :잠·싼 ᄒᆞᆫ ·잔 ·먹·져. 마·지 아·니 ᄒᆞᆯ 것·가?[4]

1) '接風'은 "바람을 쏘이다"로 "나그네의 노독(路毒)을 풀기 위해 위로연(慰勞宴)을 여는 것"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洗塵'이라 하여 "(여행의) 때를 씻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拂塵'이라고도 한다.
2) '不要. 今日忙, 明日再廝見, 喫酒也不遲裏'의 이 구절은 "不要. 今日忙, 明日再廝見喫酒, 也不遲裏"로 띄어 읽는 것이 옳다. 졸저(2002) 참조.
3) '館待'는 "(손님을) 대접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관대(管待)'라고 쓴다.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권203) '소흥(紹興) 10년'조에 "館待의 具를 排辦(정리)함"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외국의 사절(使節)을 영빈관(迎賓館)에서 대접하는 역할을 '관반(館伴)'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보인다. 이것은 '館'과 '管'이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통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마·지 아·니 ᄒᆞᆯ 것·가'는 '不當接風'을 언해한 것으로 나그네의 여독(旅毒)을 풀기 위한 환영연(歡迎宴)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뜻이다. 주1 참조. '마·지'는 '맞-(迎) + -·이(명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손님을) 맞는 것"이란 뜻. 따라서 '마·지

[高] :마·다.[5] 오·ᄂᆞ·리 밧브·니 ᄂᆡ·실 다·시 서르 ·보·와 수울 머·거·도 늦·디 아·니커·니ᄯᆞ·나.

[李] ·이러·면 ᄂᆡ·실 店·에 너 ·ᄎᆞ·자 ·가·셔 이·믜·셔 아·ᅀᆞᆷ·돌조·쳐 ᄒᆞᆫ ·ᄃᆡ·셔 ᄒᆞᆫ:두 ·잔 수을 머·고리·라. ·내 너 보·내·라 밧·ᄭᅴ :가마.

[高] :네 보·내·기 :말·라 네 ·이 방·의 :사·ᄅᆞᆷ :업·스·니 가·디 :말·라.

[李] ·이·러·면 :네 ·ᄯᅩ 허·믈 ·마·오·려. 小人은 :아·ᄆᆞ·란 이받·논[6] ·일·도 :업·스·니.

[高] 므·스·글 허·믈ᄒᆞ·료? ·우·리 ᄒᆞᆫ 짓[7] :사·ᄅᆞ·미·며 ·ᄯᅩ ·ᄠᅳᆫ :사·ᄅᆞᆷ 아니어·니ᄯᆞ·나.

(老 諺) 제59화 다시 서ᄅᆞ 보쟈

[高] 내 아직 햐쳐의 가노라. 다시 서ᄅᆞ 보쟈.

[李] 아직 머므러든. 우리 잠ᄭᅡᆫ ᄒᆞᆫ 잔 술 먹어 마지[8] 아니ᄒᆞᆯᄶᅥᆺ가?

[高] 마다. 오ᄂᆞᆯ은 밧브니 ᄂᆡ일 다시 서ᄅᆞ 보와 술 먹어도 늦디 아니커니ᄯᆞ녀.

[李] 이러면 ᄂᆡ일 이믜셔 店에 너ᄅᆞᆯ ᄎᆞ자 가셔 ᄒᆞᆷᄢᅴ 뎌 권당들과[9] ᄒᆞᆫᄃᆡ셔 ᄒᆞᆫ 두 잔 먹쟈.[10] 내 너 보내라 밧ᄭᅴ 가마.

[高] 네 보내기 말라. 네 이 방의 사ᄅᆞᆷ 업ᄉᆞ니 가디 말라.

[李] 이러면 네 ᄯᅩ 허믈 말라. 小人은 아므란 이밧ᄂᆞᆫ 일도 업ᄉᆞ니.

[高] 므서술 허믈ᄒᆞ리오? 우리 ᄒᆞᆫ 짓 사ᄅᆞᆷ이오 ᄯᅩ ᄠᅳᆫ 사ᄅᆞᆷ이 아니어니ᄯᆞ녀.

아·니 ᄒᆞᆯ 것·가'는 "(손님) 맞이를 아니할 것인가"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5) ':마·다'는 원문 '不要'의 번역이다. 따라서 "말다, 말아야 하다"로 볼 수 있다.

6) '이받·논'은 '이받-(犒) + -·ᄂᆞ- + -오-(의도법)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대접하려는, 봉양하려는"의 뜻.

7) 'ᄒᆞᆫ 짓'은 'ᄒᆞᆫ(一) + 집(家)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한 집, 일가"란 뜻. 사이 ㅅ 앞 체언의 받침이 탈락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제14화 주18 참조.

8) <飜老>에서는 '·먹·져 마·지'임.

9) <飜老>에서는 '아·ᅀᆞᆷ·돌조·쳐'임.

10) <飜老>에서는 '수을 머·고리·라'임.

(現代譯) 제59화 다시 만나세

[고려인] 나는 일단 숙소로 돌아가겠네. 다시 서로 보세.

[이 씨]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잠깐 술 한 잔 드시지요. 맞이를 아니할 것입니까?

[고려인] 말지. 오늘은 바쁘니 내일 다시 서로 보아 술을 마셔도 늦지는 않겠지.

[이 씨] 그럼 내일 제가 숙소로 찾아가서 이미 온 친척들도 같이 한잔 술을 들겠습니다. 제가 아저씨 배웅하러 밖에까지 나가겠습니다.

[고려인] 배웅하지 말게. 이 방에 사람이 없으니 오지 말게.

[이 씨] 그럼 허물하지 마세요. 소인이 아무런 대접하는 일도 못했습니다.

[고려인] 무엇을 허물하겠나?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지 남이 아니지 않나.

(原 文) 제60화 賣馬

—不多時, 却到店裏見, 店主人和三箇客人立地[1]看馬, 店主人說—[2]

[主] 這三箇火伴,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牙子.[3] 你這馬他們, 都一發買將山東賣去.[4] 便到市上, 也只一般. 千零不如一頓, 倒不如都賣與他.

---

1) '立地'는 "일어서는 것"을 말하고, '立的'이라고도 쓴다. 앉는 것을 '坐地(的)'라고 하는 것과 같다.

2) '不多時, 却到店裏見, 店主人和三箇客人立地看馬, 店主人說'은 "不多時却到店裏, 見店主人和三箇客人立地看馬, 店主人說"로 끊어 읽어야 한다.

3) '牙子'는 "중개인, 즈름"을 말함. 『老朴集覽』에 의하면 '牙'는 원래 '互'이었으나, 당대(唐代)에 '互'와 '牙'의 글자 모양이 유사하였으므로 잘못하여 '牙'라고 쓴 것이 그대로 정착되었다고 한다(『朴覽』上).

4) 이것도 '你這馬他們, 都一發買將山東賣去'도 "你這馬, 他們都一發買將山東賣去"로 띄어 읽는 것이 옳다.

[客] 你既要賣時, 咱們商量. 這箇青馬[5]多少歲數?
[漢] 你只拿着牙齒看.
[客] 我看了也. 上下衢[6]都沒有, 十分老了.
[漢] 你敢不理會的馬歲.[7] 這箇馬如何? 今春新騸[8]了的十分壯的馬.
[客] 這好的歹的, 都一發商量.

(飜老) 제60화 몰 폴다

—아·니 오·라 ·쏘 :뎜·에 ·가 보·니 店主人·과 세 ·나·그·내 :셔:셔 물 ·보더·니 店主人·이 ·닐·오·딕—

[主] ·이 :세 ·버·디 :둘·흔 몰 살 나·그·내·오 ᄒ나·흔 즈름·이러라. 네 ·이 ᄆ·롤 ·더 :사·ᄅ·미 :다 홈·믜 ·사 山東·짜·호·로 ·풀·라 가·져 가·리·니 져·제 ·가·도 ·쏘 ᄒ가지·니 ·즈·믄 ·뽄 거·시[9] ᄒ 무들·기·만 ·ᄀ·디 :몯ᄒ·니 도ᄅ·혀 ·더 :사·ᄅ·몰 :다 ·ᄑ·라 :줌·만 ·ᄀ·ᄐ·니 :업·스·니.

[客] :네 ᄒ·마 ·ᄑ·로·려 ·ᄒ거·니 ·우·리 :혜아리·져. ·이 총·이 ᄆ·리[10] ·나·히 :언·멘·고?

[漢] :네 ·니 자·바 보·라.

[客] ·내 보·과·라. 아라웃 고·리[11] :다 :업·다. ᄀ·장 늙·도·다.

[漢] :네 몰 ·나·흘 모·ᄅ는 ·듯ᄒ·다. ·이 ᄆ·리 :엇·더ᄒ고? 옰보·믜 ·새·로 ·션·ᄒ[12] ᄀ·장 :장·실·ᄒ[13] ᄆ·리·라.

[客] ·이 됴·ᄒ·니 사·오나·오·니 :다 ᄒ·딕 :헤·아리·져.

(老諺) 제60화 몰 풀다

—아니 오라 쏘 뎜에 가 보니 店 主人과 세 나그내 셔셔 몰 보더니 店 主人이 닐오되—

[主] 이 세 벗이 둘흔 몰 살 나그내오 ᄒ나흔 즈름이러라. 네 이 몰을 더 들히[14] 다 홈믜 사 山東 짜히 풀라 가져 가려 ᄒᄂ니 곳 져제 가도 쏘 ᄒ가지라. 일쳔 거시[15] ᄒ 무들기만 ᄀ디 못ᄒ니 도로혀 더롤 다 ᄑ라 줌만 ᄀ디 못ᄒ니.[16]

[客] 네 이믜 풀려 ᄒ면[17] 우리 혜아리쟈. 이 총이몰이 나히 언머고?

[漢] 네 니를 자바 보라.

[客] 내 보아다.[18] 아래 웃골이 다 업ᄉ니 ᄀ장 늙다.

[漢] 네 몰 나흘 모ᄅ는 둣ᄒ다. 이 몰이 엇더ᄒ뇨? 올 쏨의 새로 불틴[19] ᄀ장 져믄[20] 몰이라.

[客] 이 됴흐니 사오나오니 다 ᄒ딕 혜아리쟈.

---

5) '靑馬'는 "검푸른 색의 말"을 말함. 이때의 '靑'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말한다.
6) '上下衢'의 '衢'은 치열(齒列)을 말함.
7) '馬歲'는 <原老>에서 '馬齒歲'로 되었다. 말은 나이에 따라 이빨이 새로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의 나이를 알 수 있다.
8) '騸'은 『본초강목(本草綱目)』「수류(獸類)」'일(一)'에 "去勢를 騸이라고 말함"이라는 설명이 있다. 즉 말의 불을 까서 성질을 온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즈·믄 ·뽄 거·시'는 "천개의 부스러진 것이"의 뜻. '·뽄'은 "부스러진, 우수리의"의 뜻.
10) '총·이 ᄆ·리'는 '靑馬'의 번역이다. "푸른 빛을 띤 부루말, 갈기가 푸르스름한 말"을 말함. '驄이 말'임.
11) '아라웃 고·리'는 원문 '上下衢'의 번역으로 여기서 '衢'는 '골목'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빨 아래위의 열(齒列)'을 '골'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

12) '·션·ᄒ'은 "선(騸)한, 불 깐, 거세한"의 뜻임.
13) ':장·실·ᄒ'은 "장실(壯實)한, 건장하고 튼튼한"의 뜻.
14) <飜老>에서는 '·더 :사·ᄅ·미'임.
15) <飜老>에서는 '·즈·믄 ·뽄 거·시'임.
16) <飜老>에서는 '·ᄀ·ᄐ·니 :업·스·니'임.
17) <飜老>에서는 'ᄒ·마 ·ᄑ·로·려 ·ᄒ거·니'임.
18) <飜老>에서는 '보·과·라'임.
19) <飜老>에서는 '·션·ᄒ'임.
20) <飜老>에서는 ':장·실·ᄒ'임.

現代譯 제60화 말을 팔다

—오래지 않아서 숙소에 돌아오니 여관 주인과 세 손님이 서서 말을 보고 있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점주인] 이 세 분 친구들은 두 분이 말을 사실 손님이고, 한 분은 중개인(仲介人)입니다. 당신의 말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사서 산동(山東) 땅으로 팔러 갖고 가겠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도 또 매한가지니 "천개의 부스러기가 한 개의 큰 무더기만 못하다"고 하니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모두 파는 것만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장수] 당신이 이미 팔려고 한다면 우리 상담(商談)합시다. 이 총이말은 나이가 얼마인가요?

[중국인] 당신이 이를 잡아 보시오.

[말장수] 내 보겠네. 아래 위 치열이 다 없다. 매우 나이를 먹었구먼.

[중국인] 당신이 말 나이를 모르는가 보네. 이 말이 어떤가? 올 봄에 거세(去勢)한 아주 건강한 말일세.

[말장수]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다 한꺼번에 상담합시다.

原文 제61화 馬

[客] 這兒馬,[1] 騸馬,[2] 赤馬,[3] 黃馬,[4] 鷰色馬,[5] 栗色馬,[6] 黑鬃馬,[7] 白馬,[8]

1) '兒馬'는 언해가 '아·질·게물'이며 이는 몽고어 'ajirɤai'의 차용어로 "어린 말"을 말함. "兒馬 아질개 물"(『譯語類解』 下:28). 『蒙語老乞大』(권5:11뒤)에서는 'ünaɤan'임.

2) '騸馬'는 『사림광기(事林廣記)』의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騸馬, 阿急荅'이라는 주(註)가 있다. '阿急荅'은 蒙古語의 'aqda'의 음차이고, 언해의 '악대물'의 '악대'에 대응하며 따라서 '악대물'은 몽고어의 'aqda morin'의 차용어로서 "불깐 말(去勢馬)"을 가리킨다.

黑馬,[9] 鎖羅靑馬,[10] 土黃馬,[11] 繡膊馬,[12] 破臉馬,[13] 五明馬,[14] 桃花

3) '赤馬'는 전술한 책의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赤馬, 折兒及木里"라는 설명이 있다. '木里'는 몽고어 'morin'의 음차(音借)이며 말을 가리킨다. '折兒及'은 몽고어의 'jägärdä, ǰērde'의 음차이고, 언해의 "절다물"의 '절다'에 대응하며 붉은 색을 가리킨다. '折兒及'의 '及'은 '歹'의 잘못이다.

4) '黃馬'는 전술한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黃馬, 黃兀兒木里"라는 설명이 있다. '黃兀兒'는 몽고어 'qongɤur'의 음차이고 언해의 "공골물"의 '공골'에 해당되며 누른 색(黃色)의 말을 가리킨다.

5) '鷰色馬'는 "제비 색깔의 말(燕色馬)"을 말한다. 언해의 "오류마"는 아마도 "오류마(烏騮馬)"(庾信 '謝滕王賚馬啓' 등에 보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烏騮'의 '騮'는 갈기와 꼬리가 검고 몸통이 붉은 말을 말한다.

6) '栗色馬'는 밤색과 같이 진한 갈색의 말을 가리킨다. 전술한 『대원마정기(大元馬政記)』의 천력(天曆) 2년 조에 털 색깔이 특이한 말을 열거하면서 "黑玉面, 五明, 桃花, 黑花, 赤花, 赤玉面, 栗色玉面馬"라 하여 '栗色玉面馬'가 끼어 있다. 언해 '구렁물'의 '구렁'은 몽고어 'qüreng'(栗色)을 말한다.(이기문;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1961, 서울).

7) '黑鬃馬'는 <原老>에서는 '黑鬃馬'이었다. 그러나 <飜老>처럼 '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은 갈기를 가진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해의 '가리운물'의 '가리운'은 갈기로 얼굴을 가린 말이란 뜻으로 보인다.

8) '白馬'는 전술한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白馬, 荅罕木里"란 설명이 있다. '荅罕'은 몽고어 'ǰaqān'의 음차이고, 흰색을 가리킨다. '荅'은 '茶'의 잘못으로 보인다. 언해에서는 '白馬'를 '셜아물'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雪兒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 '黑馬'는 전술한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黑馬, 合刺木里"라는 설명에 의하면 몽고어로 'qala morin'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合刺'는 몽고어 'qala(黑, 검은)'의 음차이고 언해 "가라물"의 '가라'는 이것을 전사한 것이다.

10) '鎖羅靑馬'는 언해에 '츄·마물'인데 이는 한자어 "추마(騅馬), 흰 바탕에 흑색, 짙은 갈색, 짙은 적색 등의 털이 섞여난 말"을 말한다. <原老>에는 '灰馬'이었는데 '灰馬'는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灰馬, 速魯"라는 설명이 있다. '速魯'는 몽고어 'suru'의 음차이고 한자로 '鎖羅'로 썼으며 회색(灰色)을 가리킨다.

11) '土黃馬'는 언해에서 '고라물'인데 '고라물'은 몽고어의 'qula morin'의 차용으로 황토색의 말을 말한다.

12) '繡膊馬'는 말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宋) 손소원(孫紹遠)의 『성화집(聲畫集)』(권7)에 '次韻蘇子由詠李伯時所藏韓幹馬'라는 시(詩)에 "繡膊은 동쪽 靑海로부터 달려오다"라는 구절이 있다. '繡膊馬'의 '繡'는 문신, '膊'은 팔이므로, 발에 문신과 같은 모양이 있는 말이 아닌가 한다.. 언해의 "쇠느래 브튼 물"이란 이름으로부터 "쇠로 된 날개를 발에 붙인 말"로도 볼 수 있다.

馬,[15] 青白馬,[16] 豁鼻馬,[17] 騍馬,[18] 懷駒馬,[19] 環眼馬,[20] 劣馬,[21] 這馬

---

13) '破臉馬'는 "볼에 하얀 점이 있는 말"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白臉馬'이고 '破臉馬'의 언해는 "간쟈ᄆᆞᆯ"인데 '간쟈ᄆᆞᆯ'은 『蒙語老乞大』(권5:11뒤)의 'haljan mori(간쟈ᄆᆞᆯ)'과 비교하면 원대(元代) 몽고어 '*qanja'의 차용어로 보인다. 이 말의 의미는 같다. 서함(徐咸)의 『상마서(相馬書)』(『說郛』 권107) 「보금가(宝金歌)」에 "破臉孤蹄는 참으로 吉 되지 아니하고, 耳白腰花는 실로 凶이로다"라는 구절이 있어 얼굴에 하얀 점이 있는 말은 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14) '五明馬'는 언해에 "가라 간쟈 ᄉᆞ족빅(四足白)"으로부터 '이마와 네 발만 하얗고 온 몸이 검은 말'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라 간쟈 ᄉᆞ족빅(四足白)'은 '가라(qala, 黑), '간쟈(qanja白臉), ᄉᆞ족빅(四足白)'의 복합어로 '오명마(五明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원대(元代)에 고려의 오명마(五明馬)는 매우 유명했던 것으로 원(元)의 풍속을 기록한 『원풍아(元風雅)』「후집(後集)」(권5)에 황송포(黃松瀑)의 '제고려오명마(題高麗五明馬)'라는 시가 있다. 그러나 명대(明代)에는 '破臉馬'와 같이 불길한 말로 취급한 것 같다. 명(明) 양신(楊愼)의 「팔준(八駿)」(『升庵集』권81)에는 "山子는 (중략) 지금의 五明馬, (중략) 太白의 詩의 소위 五花馬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奇로 보았으나, 지금은 이것을 忌로 본다. 破面孤蹄는 鬼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해설을 붙였다. 또한 『대원마정기(大元馬政記)』의 천력(天曆) 2년 조에는 '黑玉面馬, 五明馬, 桃花馬'의 세 가지 털색을 가진 말을 골라 조정(朝廷)에 헌납(獻納)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15) '桃花馬'는 『이아(爾雅)』에 '駓'(노란색과 하얀 털이 섞인 말)의 곽주(郭註)에 "지금의 桃花馬"라는 설명이 있어 노랗고 하얀 털이 섞여 있는 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원(元) 마백용(馬伯庸)의 '도화마(桃花馬)'란 시(詩)(전술한 『元風雅』「前集」 권4)에 "하얀 털과 붉은 점을 교묘하게 安排하여, 春風을 勾引하고 背上에 온다"라는 구절이 있어 꽃말(花馬)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6) '青白馬'는 언해에 "털청총이"로 되어 있어 털이 청총(靑驄)한, 즉 푸르고 흰털이 섞여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原老>에서는 '靑驄馬'이었으며 역시 푸르고 흰털이 섞여 있는 말을 말한다. 한대(漢代)의 옛 시 '爲焦仲卿妻作'에 "躑躅한 靑驄馬, 流蘇金鏤의 鞍"이란 구절이 있다.

17) '豁鼻馬'의 '豁'은 "열다, 쪼개다"이고 언해가 '·고 ·뻔 ᄆᆞᆯ'이므로 '豁鼻馬'는 "달릴 때에 숨을 쉬기 쉽도록 코를 짼 말"을 말한다. 이러한 습관은 몽고인이 시작한 것 같다. 원(元) 방회(方回)의 『속고금고(續古今攷)』(권31)에 "豁鼻의 일은 大蒙古國에서부터 시작했다. 契丹, 女眞은 아직 없다. 割勢하지 않고 豁鼻하지 않은 것을 生馬라고 한다. (중략) 코를 이미 째면 잘 달려서 숨은 쉬어도 헐떡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다.

18) '騍馬'는 "암컷 말"을 말한다. '課馬'라고 쓰는 것이 옳다. 『철경록(輟耕錄)』(권7) '과마(課馬)'조에 "속된 말로 牝馬를 불러 課馬라고 하다"라는 설명이 있다. 그 이유로서 당대(唐代)에 어린 말을 과세(課稅)로서 조정(朝廷)에 납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騍馬'라고 쓰게 되었다. 청(淸) 조익(趙翼)의 『해여총고(陔余

牛行花塔步,[22] 又竄行的馬,[23] 鈍馬,[24] 眼生馬,[25] 撤蹶的馬,[26] 前失的馬,[27] 口硬馬,[28] 口軟馬.[29] 這些馬裏頭, 歹的十箇, 一箇瞎, 一箇跛, 一箇

叢考)』(권43) '과마(騍馬)'의 조에 이에 대한 고증이 있다.

19) '懷駒馬'는 '새끼 밴 말'을 가리킨다. 언해는 '삿·기 ᄇᆡᆫ ᄆᆞᆯ'이었다. 전술한 『대원마정기(大元馬政記)』「화매마(和買馬)」의 지원(至元) 14년 조에 "수습하여 들여온 말의 마리 수 안에서 '盲者, 瘸者, 嗓者, 懷駒者'는 印烙이 끝나면 本主에게 分付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20) '環眼馬'는 "고리 눈을 가진 말" 또는 "눈이 하얀 말"을 말하며 말 가운데 하등으로 쳤다고 한다. 여기서도 언해가 '골·회·눈·이'로 되었다. 송(宋) 육전(陸佃)의 『비아(埤雅)』(권12)에 "두 눈이 하얀 것을 魚라고 하고, 魚는 지금 이것을 環眼馬라고 하며, 말 가운데 最下인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다. 언해는 "골회눈이"로 언해되었다.

21) '劣馬'는 "나쁜 말"을 말한다. 언해는 '골·외·ᄂᆞᆫ ᄆᆞᆯ'이다. 아마도 '環眼馬(골·회·눈·이)'를 '劣馬(골·외·ᄂᆞᆫ ᄆᆞᆯ)'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

22) '花搭步'의 '花搭'은 '花踏'과 같을 것이다. 말이 탄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마구 걷는 것이다. 송(宋) 허기(許覬)의 『허언주시화(許彦周詩話)』에 "兩騣(두 마리의 말)이 춤추는 것 같이 걷는 것은 장(駔, 말 仲買人)의 말로 소위 花踏羊行이라고 한다. 兩騣手와 같은 것은 駔語(중개인의 은어)에서 소위 熟使喚(사용하는 데 익숙하다)이라고 한다"라는 예가 있다. 그러나 언해는 ':쇼·거:름 ·ᄀᆞ·티 즈늑즈느기 :건·ᄂᆞᆫ'으로 "소걸음 같이 느직느직 걷는"으로 풀이하였다.

23) '竄行的馬'는 언해가 '잘 :건·ᄂᆞᆫ ᄆᆞᆯ'이므로 "잘 달리는 말"을 말한다. 『간전노(看錢奴)』「잡극(雜劇)」 1折 「요편(幺篇)」에 '찬행화답(竄行花踏)'이라는 것은 "말을 마구 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鈍馬'는 언해가 '·ᄠᅳᆫ ᄆᆞᆯ'인데 '느린 말'을 말한다. 『법원주림(法苑珠林)』(권100) 「책수(策修)」에 "두 사람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疾馬를 타고, 하나는 鈍馬를 탄다. 鈍馬에 탔다고 해도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25) '眼生馬'는 언해가 ':놀·라·ᄂᆞᆫ ᄆᆞᆯ'이며 원문의 뜻은 "낯선 것에 놀라기 쉬운 말"이란 뜻이다. '生'은 '陌生'과 같고, 낯설다는 의미이다. 『여춘당(麗春堂)』「잡극(雜劇)」 2折의 이규(李圭) 대사에 "可不是射不着, 我那馬眼生, 他躱一躱, 把我那箭擦過去了-화살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말이 낯선 것에 놀라 피했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갔습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또한 같은 극의 1折에서는 이 부분을 '眼叉'라고 말하였다.

26) '撤蹶的馬'는 "자꾸 뒷발로 차는 말"을 의미한다. '撤'은 "마음대로 하는 것", '蹶'은 "뒷발로 차는 것"이니 자주 뒷발로 차는 말을 의미한다. 이 어휘는 원곡(元曲) 등에 자주 보이는 '비밀(秘密)의 노정(露呈), 또는 결열(決裂)'을 의미하는 '蹶撤', '決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언해는 ':ᄇᆡ·ᄂᆞᆫ ᄆᆞᆯ'임.

27) '前失的馬'는 "앞으로 잘 고꾸라지는 말"을 말하며 이때의 '前失'은 말이 발이

蹄歪, 一箇磨硯,30) 一箇打破脊梁, 一箇熟瘸,31) 一箇疥, 三箇瘦, 只有五箇好馬.

(飜 老) 제61화 :다·ᄆᆞᆫ 다ᄉᆞ시 됴ᄒᆞᆫ ᄆᆞᆯ

[客] ·이 아·질·게ᄆᆞᆯ,32) 악·대ᄆᆞᆯ,33) 졀·다ᄆᆞᆯ,34) 공·골ᄆᆞᆯ,35) 오류·마,36) 구·렁ᄆᆞᆯ,37) 가리·운ᄆᆞᆯ,38) 셜·아ᄆᆞᆯ,39) 가·라ᄆᆞᆯ,40) 츄·마ᄆᆞᆯ,41) ·고·라ᄆᆞᆯ,42) 쇠ᄂᆞ·래ᄇᆞ·튼ᄆᆞᆯ,43) 간·쟈ᄆᆞᆯ,44) 가·라간·쟈 ·ᄉᆞ·족·ᄇᆡᆨ,45) 도화쟘·불ᄆᆞᆯ,46) ·털청총·이,47) ·고 ·뻰·ᄆᆞᆯ,48) ·아ᄆᆞᆯ,49) 샷·기 빈 ᄆᆞᆯ,50) 골·회·눈·이,51) ᄀᆞᆯ·외·ᄂᆞᆫ ᄆᆞᆯ,52) ·이 ᄆᆞ·리 :쇠·거:름 ·ᄀᆞ·티 ᄌᆞ늑ᄌᆞᄂᆞ기53) :건·ᄂᆞᆫ ᄆᆞ·리로·다. ·ᄯᅩ 잘 :건·ᄂᆞᆫ ᄆᆞᆯ,54) ·ᄡᅳᆫ ᄆᆞᆯ,55) :놀·라·ᄂᆞᆫ ᄆᆞᆯ, :베·ᄂᆞᆫ ᄆᆞᆯ,56) 앏 거·티·ᄂᆞᆫ ᄆᆞᆯ,57)

걸려 앞발을 구부리는 것을 말한다.『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제7회에 "그 말이 前失하여, (公孫) 瓚은 몸이 날려 坡下로 떨어졌다"라는 구절이 있다. 언해는 '앏 거·티·ᄂᆞᆫ ᄆᆞᆯ'임.

28) '口硬馬, 口軟馬'의 '口硬'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한다. '口軟'은 그 반대의 뜻이다. 당(唐) 이하(李賀)의 '마시 이십삼수(馬詩 二十三首)' '기이(其二)'에 "아직 입의 硬軟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우선 능형의 재갈을 擬함"이란 구절이 있다. 언해는 '아·귀 :센 ᄆᆞᆯ'임.

29) '口軟馬'는 언해가 '고·개 므른 ᄆᆞᆯ'로 '口硬馬'의 반대말임.

30) '磨硯'은 언해에 '·굽 ·ᄀᆞ·리·ᄂᆞᆫ ᄆᆞᆯ'이고 이때의 '·ᄀᆞ·리·ᄂᆞᆫ'은 "닳아버린"의 뜻이다. 말굽이 닳아버린 것을 벼루에 비교하였다. 말을 벼루(硯)와 비유한 예로 송(宋) 고사손(高似孫)의『현전(硯箋)』(권1)에 "褪墨硯은 數字에 한 번 磨하는 것은, 鈍馬를 타고 數步에 一鞭하는 것과 같고, 瓦硯은 驢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있다.

31) '熟瘸'는 언해가 '지·페딘 ᄆᆞᆯ'로 "절뚝발이 말"을 말함. <原老>에서는 '熟蹶'이며 다만 '熟'의 의미는 알 수 없다. 또 여기서는 말이 15마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과 수가 맞지 않는다. 제14화 참조.

32) '아·질·게ᄆᆞᆯ'은 몽고어 'ajirɣai morin'의 차용어로 "어린 말(兒馬)"을 말함. 주1 참조.

33) '악·대ᄆᆞᆯ'은 몽고어 'aqda morin'의 차용어로 "불깐 말(去勢馬, 騸馬)"을 말함. 주2 참조.

34) '졀·다ᄆᆞᆯ'은 몽고어 'ǰerde morin'의 차용어로 "붉은 말(赤馬)"을 말함. 주3 참조.

35) '공·골ᄆᆞᆯ'은 몽고어 'qongɣur morin'의 차용어로 "누른 말(黃馬)"을 말함. 주4 참조.

36) '오류·마'는 한자어 "오류마(烏騮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류(烏騮)'의 '류(騮)'는 갈기와 꼬리가 검고 몸통이 붉은 말을 말한다. 원문 '鷰色馬'는 "제비 색깔의 말"을 말함. 주5 참조.

37) '구·렁ᄆᆞᆯ'은 몽고어 'qüreng morin'의 차용어로 "밤색 말(栗色馬)"을 말함. 주6 참조.

38) '가리·운ᄆᆞᆯ'은 "갈기가 얼굴을 가린 말"로 보이는 데 원문 '黑鬃馬'는 "검은 갈기를 가진 말"을 말함. 주7 참조.

39) '셜·아ᄆᆞᆯ'은 한자어 '雪兒馬'를 말하는 것으로 "눈같이 흰 말(白馬)"을 말함. 주8 참조.

40) '가·라ᄆᆞᆯ'은 몽고어 'qala morin'의 차용어로 "검은 말(黑馬)"을 말함. 주9 참조.

41) '츄·마ᄆᆞᆯ'은 "추마(騅馬) 말로서 흰 바탕에 흑색, 짙은 갈색, 짙은 적색 등의 털이 섞여 난 말"을 말한다. 원문 '鎖羅青馬'의 '鎖羅'는 몽고어 'suru(灰色)'의 음차 표기로 "회색(灰色)의 푸른 말"을 말한다. 주10 참조.

42) '·고·라ᄆᆞᆯ'은 몽고어 'qula morin'의 차용어로 "황토색의 말(土黃馬)"을 말함. 주11 참조.

43) '쇠ᄂᆞ·래ᄇᆞ·튼ᄆᆞᆯ'은 '繡膊馬'의 번역으로 "쇠로 된 날개를 붙인 말"로 풀이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주12 참조.

44) '간·쟈ᄆᆞᆯ'은 몽고어 'qanja morin(만주어: kalja-)'의 차용어로 "흰 점이 박힌 말"을 말한다. 원문 '破臉馬'에 대하여는 주13 참조.

45) '가·라 간·쟈 ·ᄉᆞ·족·ᄇᆡᆨ'의 '가·라 간·쟈'는 몽고어 'qala qanja'의 차용어로 "흰 점이 박힌 검은 말"이란 뜻이고 '·ᄉᆞ·족·ᄇᆡᆨ'은 한자어로 "四足白, 네 발이 하얀 말"이란 뜻이어서 '가·라 간·쟈 ·ᄉᆞ·족·ᄇᆡᆨ'은 "네 발이 하얗고 이마에 흰 점이 박힌 검은 말(五明馬)"이란 뜻이다. 주14 참조.

46) '도화쟘·불ᄆᆞᆯ'의 '도화'는 "복숭아꽃(桃花) 빛의 말"이란 뜻이고 '쟘·불ᄆᆞᆯ'은 "잠불마(暫佛馬), 뺨에 흰 줄이 지고 눈에 푸른빛을 띤 말"을 말함. 원문 '桃花馬'의 번역임. 주15 참조.

47) '·털청총·이'는 "털이 많은 청총(青驄) 말"이란 뜻으로 '青驄'은 "푸르고 흰 털이 섞여 있는 말"을 말함. 원문 '青白馬'에 대하여는 주16 참조.

48) '·고 ·뻰 ᄆᆞᆯ'은 "코를 짼 말(豁鼻馬)". 말의 코를 째서 달릴 때에 숨쉬기 쉽게 하는 습관은 몽고인이 시작하였다. 주17 참조.

49) '·아ᄆᆞᆯ'은 "암 말(騍馬, 牝馬)"을 말함. 주18 참조.

50) '샷·기 빈 ᄆᆞᆯ'은 "새끼 밴 말('懷駒馬')"을 말함. 주19 참조.

51) '골·회·눈·이'는 "고리 눈을 가진 말, 눈이 하얀 말(環眼馬)"을 말한다. 주20 참조.

52) 'ᄀᆞᆯ·외·ᄂᆞᆫ ᄆᆞᆯ'은 원래 "사나운 말"을 의미했으나 원문이 '劣馬'인 것으로 보면 이 시대에는 "나쁜 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53) 'ᄌᆞ늑ᄌᆞᄂᆞ기'는 현대어의 '느직느직이'로 변하였는데 일종의 음운 도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4) '잘 :건·ᄂᆞᆫ ᄆᆞᆯ'은 원문 '竄行的馬'를 언해한 것으로 "잘 달리는 말"을 말함. 주23 참조.

아·귀 :센 ᄆᆞᆯ,[58] 고·개 므른 ᄆᆞᆯ, 이 ᄆᆞᆯ·ᄃᆞᆯ 듕·에 사·오나·오·니 ·열·히로소·니, ᄒᆞ나·ᄒᆞᆫ ·눈 :멀·오, ᄒᆞ나·ᄒᆞᆫ ᄒᆞᆫ ·발 :절·오, ᄒᆞ나·ᄒᆞᆫ ·굽 기·울·오, ᄒᆞ나·ᄒᆞᆫ ·굽 ·ᄀᆞ·리·ᄂᆞᆫ ᄆᆞᆯ,[59] ᄒᆞ나·ᄒᆞᆫ 둥 :헌 ᄆᆞᆯ, ᄒᆞ나·ᄒᆞᆫ 지·페딘 ᄆᆞᆯ,[60] ᄒᆞ나·ᄒᆞᆫ 비로 오ᄅᆞᆫ ᄆᆞᆯ,[61] :세:ᄒᆞᆫ 여·윈 ᄆᆞᆯ, :다·ᄆᆞᆫ 다·ᄉᆞ·시 :됴·ᄒᆞᆫ ᄆᆞ·리로·다.

(老諺) 제61화 다ᄆᆞᆫ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이 잇다

[客] 이 아질게ᄆᆞᆯ, 악대ᄆᆞᆯ, 졀다ᄆᆞᆯ, 공골ᄆᆞᆯ, 오류마, 구렁ᄆᆞᆯ, 가리운ᄆᆞᆯ, 셜아ᄆᆞᆯ, 가라ᄆᆞᆯ, 츄마ᄆᆞᆯ, 고라ᄆᆞᆯ, 쇠ᄂᆞ래 브튼 ᄆᆞᆯ, 간쟈ᄆᆞᆯ, 가라간쟈 ᄉᆞ족빅이ᄆᆞᆯ, 도화잠불ᄆᆞᆯ, 텰청총이ᄆᆞᆯ, 코ᄢᅦᆫᄆᆞᆯ, 암ᄆᆞᆯ, 삿기 빈 ᄆᆞᆯ, 골회눈ᄆᆞᆯ, ᄀᆞ래ᄂᆞᆫᄆᆞᆯ,[62] 이 ᄆᆞᆯ이 쇠거름 ᄀᆞᆺ티 즈늑즈늑 것ᄂᆞᆫ다. ᄯᅩ 잘 건ᄂᆞᆫ ᄆᆞᆯ, ᄠᅳᆫ ᄆᆞᆯ, 놀라ᄂᆞᆫ ᄆᆞᆯ, 베ᄂᆞᆫ ᄆᆞᆯ, 앏 거티ᄂᆞᆫ ᄆᆞᆯ, 아귀 센 ᄆᆞᆯ, 아귀 므른 ᄆᆞᆯ,[63] 이 ᄆᆞᆯ ᄯᅮᇰ에 사오나오니 열히니 ᄒᆞ나ᄒᆞᆫ 눈멀고, ᄒᆞ나ᄒᆞᆫ ᄒᆞᆫ 발 절고, ᄒᆞ 나ᄒᆞᆫ 굽 기울고, ᄒᆞ나ᄒᆞᆫ ᄀᆞ리고, ᄒᆞ나ᄒᆞᆫ 등 헐고, ᄒᆞ나ᄒᆞᆫ 지페 디고, ᄒᆞ나ᄒᆞᆫ 비ᄅᆞ먹고,[64] 세ᄒᆞᆫ 여위니 다ᄆᆞᆫ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이 잇다.

---

55) '·ᄠᅳᆫ ᄆᆞᆯ'의 '·ᄠᅳᆫ'은 "더디다"의 뜻. 즉 '·ᄠᅳᆫ ᄆᆞᆯ'은 "굼뜬 말"을 말함.
56) ':베·ᄂᆞᆫ ᄆᆞᆯ'은 '撒蹶的馬'의 번역으로 "자꾸 뒷발로 차는 말"을 말한다. ':베·ᄂᆞᆫ ᄆᆞᆯ'의 ':베-(蹶)'는 "비틀거리다"의 뜻.
57) '앏 거·티·ᄂᆞᆫ ᄆᆞᆯ'은 원문 '前失的馬'를 언해한 것으로 "앞으로 잘 고꾸라지는 말"을 말한다. '앏 거·티·ᄂᆞᆫ ᄆᆞᆯ'의 '앏 거·티·ᄂᆞᆫ'은 "앞발을 저는"의 뜻.
58) '아·귀 :센 ᄆᆞᆯ'은 원문 '口硬馬'의 번역으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도 말을 듣지 않는 말"을 말한다. '아·귀 :센 ᄆᆞᆯ'의 '아·귀'는 '입아귀'를 말한다.
59) '·굽 ·ᄀᆞ·리·ᄂᆞᆫ ᄆᆞᆯ'은 원문 '磨硯'의 번역으로 "굽이 갈린, 굽이 닳은"이란 뜻이다.
60) '지·페딘 ᄆᆞᆯ'은 원문 '熟瘸'의 번역으로 "절뚝발이"란 의미다. '지·페딘 ᄆᆞᆯ'의 '지·페딘'은 '지픠-(皺) + -어(연결) + 디-(落)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발이) 짚어지는, 구부러지는"의 뜻.
61) 'ᄒᆞ나·ᄒᆞᆫ 비로 오ᄅᆞᆫ ᄆᆞᆯ'은 '一箇疥'를 언해한 것으로 "하나는 옴이 오른 말"의 뜻. '비로, 비루, 비ᄅᆞ'는 "옴, 피부병"을 말함.
62) <飜老>에서는 'ᄀᆞᆯ·외·ᄂᆞᆫ ᄆᆞᆯ'임.
63) <飜老>에서는 '고·개 므른 ᄆᆞᆯ'임.
64) <飜老>에서는 '비로 오ᄅᆞᆫ'임.

(現代譯) 제61화 다만 다섯이 좋은 말

[말장수] 이 어린 말, 거세(去勢)한 말, 붉은 말, 누런 말, 제비 색깔의 오류마, 밤색 말, 검은 갈기가 얼굴을 가린 말, 흰 말, 검은 말, 회색 말, 황토색 말, 쇠 날개를 붙인 말, 볼에 흰 점이 있는 말, 오명마(五明馬), 도화마, 청총마(靑驄馬), 코를 꿴 말, 암 말, 새끼 밴 말, 고리 눈을 한 말, 난폭한 말, 이 말이 소걸음으로 느직느직이 걷는구나. 잘 걷는 말, 굼뜬 말, 자꾸 놀라는 말, 뒷발로 차는 말, 앞으로 잘 넘어지는 말, 말을 안 듣는 말과 말을 잘 듣는 말이 있도다. 이 말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게 10마리인데, 하나는 눈이 멀고, 하나는 발을 절고 하나는 발굽이 비뚤어졌고 또 하나는 발굽이 닳았고 하나는 등이 헐었고 하나는 다리를 저는 데다가 하나는 옴에 옮았으며 셋은 말랐으니 다만 다섯이 좋은 말이로다.

(原文) 제62화 馬價

[客] 你這馬, 好的, 歹的, 大的, 小的 相滾着, 要多少價錢?

——一箇家[1]說了價錢——

[高] 通要一百四十兩銀子.

[客] 你說這般價錢怎麽? 你只說賣的價錢, 沒來由[2]這般胡討價錢. 我不是矯商量的. 你說的是 時, 兩三句話交易便成了, 不要你這般胡討價錢, 怎麽還[3]你的是?

1) '一箇家'의 '家'는 '価'라고도 쓰며 '~마다, ~씩'의 의미가 있다.
2) '沒來由'는 "이유도 없이, 엉터리로"의 뜻이다. <原老>에서는 '無來由'로 썼다.
3) '還'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함.

—牙子說—

[牙] 客人們, 你不要十分多討. 你兩箇4)枉自成不得. 我是箇牙家, 也不向買主, 也不向賣主. 我只依直說, 你要一百四十兩銀子時, 這五箇好馬, 十箇歹馬, 你筭多少?

[高] 這五箇好馬, 我筭的該六十兩, 這十箇歹馬, 我筭的該八十兩.

[牙] 似這般價錢, 其實賣不得. 如今老實的價錢, 說與你. 兩家依着我說, 交易了如何?

(飜 老) 제62화 몰 홍정

[客] 네 ·이 ᄆᆞ·롤 :됴·ᄒᆞ·니, 사·오나·오·니, ·크·니, :쟈·그·니 모·도·와 :언·메나 ·갑·슬 받·고·져 ·ᄒᆞ논:다? ᄒᆞ나·콤 갑·슬 니ᄅᆞ·라.5)

[高] :대·되 一百 四十 兩 銀·을 바·도리·라.

[客] :네 ·이·리·곰 ·갑·슬 닐·어 므슴 홀·다? :네 그저 ·풀 ·갑·슬 니ᄅᆞ·라. ·쇽·졀 :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ᄒᆞ·노 괴·여! ·내 너므 :혜·아·리·디 아·니·ᄒᆞ·노·라, 네 닐·옴·곳 ·올·ᄒᆞ·면 :두·ᅀᅥ :마·래·도 홍졍·을 ·즉·재 ᄆᆞ·촐 거·시·니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도:려 :말·라. :엇·디 너·를 ·주·어·ᅀᅡ ·올·홀·고?

—즈르·미 닐·오·ᄃᆡ—

[牙] 나·그·내:네 :네 ᄀᆞ·장 너므 바·도려 :말·라. 너희:들·히 ·쇽·졀:업·시 일·우·디 :몯ᄒᆞ ·리로·다. ·나·는 즈르·미·니 ·ᄯᅩ 살 :님:자·도 :셔·디6)

4) '兩箇'는 '두 분'을 말하며 여기서 두 분은 중국인 동행 왕(王)씨와 고려인 주인공을 말한다. 다음의 '兩家'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말함.
5) 'ᄒᆞ나·콤 갑·슬 니ᄅᆞ·라'는 원문 '一箇家評了價錢'을 언해한 것이다. 원래 이 말은 장면 설정을 위한 것이고 원래의 뜻은 "한 마리씩 값을 매긴 다음"의 뜻이다. 만일 언해대로라면 다음 대화가 올 수 없다. 그럼에도 번역자는 이것을 말을 사러 온 손님의 대화로 처리하였다. 번역자의 한어(漢語) 이해 능력을 보여주는 예다.

아·니ᄒᆞ·며 ·풀 ·님·자·도 :셔·디 아·니·ᄒᆞ·야 ·내 바론 ·대·로 닐·오리·라. :네 一百 四十 兩 銀·을 바·도·려 ·ᄒᆞ·거시·니 ·이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와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 :네 :언·메·나·곰 :혜·ᄂᆞ·다?

[高] 이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게·ᄂᆞᆫ 내 :혜·요·믄 예:순 량·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내 혜·요·믄 여·든 량·이·라.

[牙] ·이·런 갑·새·ᄂᆞᆫ 진·실·로 ·ᄑᆞ·디 :몯ᄒᆞ·리·라. ·이·제 고·디시·근7) ·갑·슬 너ᄃᆞ·려 닐·오·마. :둘히 내 :말 조·차 홍졍:호·ᄃᆡ :엇·더ᄒᆞ·뇨?

(老 諺) 제62화 몰 홍정

[客] 네 이 ᄆᆞᆯ을 됴ᄒᆞ니, 사오나오니, 크니, 쟈그니, 모도 언머 갑슬 밧고져 ᄒᆞᄂᆞᆫ다? ᄒᆞ나식8) 갑슬 니ᄅᆞ라.

[高] 대되 一百四十兩 은을 바드려 ᄒᆞ노라.9)

[客] 네 이런 갑슬 닐러 므슴ᄒᆞ려 ᄒᆞᄂᆞᆫ다? 네 그저 풀 갑슬 니ᄅᆞ라. 쇽졀업시 이리 간대로 갑슬 꾀오ᄂᆞᆫ다?10) 내 너모 혜아리ᄂᆞᆫ 이 아니라. 네 닐옴이 올흐면 두세 말애도 홍정이 즉재 일 ᄲᅥ시니11)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말라. 엇디 너를 주어야 올ᄒᆞ료?

—즈름이 닐오되—

[牙] 나그내ᄂᆡ! 네 ᄀᆞ장 너모 바드려 말라. 너희 둘히 쇽졀업시 일우디 못ᄒᆞ리로다. 나ᄂᆞᆫ 즈름이니 ᄯᅩ 살 님자도 셔디 아니ᄒᆞ며 ᄯᅩ 풀 님자도 셔디 아니ᄒᆞ야 내 다만 바른대로 니ᄅᆞ리라. 네 一百四十 兩 은을 바드려 ᄒᆞ면12) 이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과 열 사오나온 ᄆᆞᆯ 네 언머식 혜ᄂᆞᆫ다?

6) ':셔·디'는 "세우지"의 뜻.
7) '고·디시·근'은 '고·디식-(直) + -·은'의 형태구성으로 "고지식한, 실제로의"의 뜻.
8) <飜老>에서는 'ᄒᆞ나·콤'임.
9) <飜老>에서는 '바·도리·라'임.
10) <飜老>에서는 '바·도·려 ·ᄒᆞ·노 괴·여'임.
11) <飜老>에서는 'ᄆᆞ·촐 거·시·니'임.

[高] 이 다ᄉᆞᆺ 됴ᄒᆞᆫ ᄆᆞᆯ게ᄂᆞᆫ 내 혜옴은 예슌 냥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내 혜옴은 여든 냥이라.

[牙] 이러ᄐᆞᆺᄒᆞᆫ[13] 갑세ᄂᆞᆫ 진실로 ᄑᆞ디 못ᄒᆞ리로다. 이제 고디식ᄒᆞᆫ 갑슬 네 ᄃᆞ려 니ᄅᆞᆯ 써시니 둘히 내 말을 조차 홍정호미 엇더ᄒᆞ뇨?

(現代譯) 제62화 말 홍정

[말장수] 당신네 이 말들, 좋은 말, 나쁜 말, 큰 말, 작은 말 전부 모아서 얼마나 값을 받으려고 합니까?

—한 마리씩 값을 매겨서—

[고려인] 전부 140냥 은을 받겠소.

[말장수] 당신 그런 값을 불러서 무엇해요? 당신은 그저 팔 값을 말해보시오. 터무니없이 마음대로 값을 받으려 합니까? 나는 너무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당신 말이 옳다면 두세 말에도 홍정을 즉시 마칠 것이니 당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값을 받으려 마시오. 어찌 당신을 주어야 옳겠소?

—중개인이 말한다—

[중개인] 손님들, 당신은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들 두 분이 헛되게 이루지 못할 것이오. 나는 중개인이니까 살 임자를 세우지도 않고 팔 임자를 세우지도 않겠으며 내가 공정하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140냥 은자를 받으려 한다면 이 다섯 마리 좋은 말과 열 마리 하등 말에게 당신이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고려인] 내가 계산한 것은 여기 다섯 마리 좋은 말을 60냥, 그리고 저기 열 마리 하등 말을 80냥으로 나는 계산했소.

12) <飜老>에서는 '·ᄒᆞ·거시·니'임.
13) <飜老>에서는 '·이·런'임.

[중개인] 그런 값으로는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이제 실제 값을 당신에게 말할 테니까 두 분은 모두 내 말을 좇아서 홍정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原文) 제63화 商量價錢

[高] 我且聽你定的價錢.

[牙] 這五疋好馬, 每一疋八兩銀子, 通該四十兩. 這十箇歹馬, 每一箇六兩銀子. 通該六十兩, 共通一百兩, 成了罷.

[高] 似你這般定價錢, 就是高麗地面裏, 也買不得, 那裏是實要買馬的? 只是胡商量的.

[客] 這箇客人, 你說甚麽話? 不買時害風[1]那, 做甚麽來這裏商量?

(飜老) 제63화 홍졍 ᄆᆞ차도 ᄆᆞ던ᄒᆞ다

[高] ·내 안·직 네 일·뎡ᄒᆞᆫ[2] ·갑·슬 드·로·마.

[牙] ·이 :됴ᄒᆞᆫ ᄆᆞᆯ 닷 피·레 :ᄆᆡ ᄒᆞᆫ 피·레 은 여·듧 량·곰 ᄒᆞ·면 :대·되 마·ᅀᆞᆫ 량·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나·히 은 엿 량·시·기·면 :대:되 예:슌 량·이·니, 모·도·니 一百 兩·이·로소·니 홍졍 ᄆᆞ·차·도 ᄆᆞ던ᄒᆞ·다.

[高] 네 ·이·리 ·일·뎡ᄒᆞᆫ ·갑·시·ᅀᅡ ·곧 高麗ㅅ·ᄯᅡ·히라도 ·ᄯᅩ 사·디 :몯ᄒᆞ·리로·다. 어·듸 진·실·로 ᄆᆞᆯ 사·고·져 ·ᄒᆞ·ᄂᆞ니·고? 젼·혀 간:대·로 :혜·아·리ᄂᆞ·다.

[客] ·이 나·그·내 :네 므·슴 :말 니·ᄅᆞᄂᆞᆫ·다? 사·디 아·니ᄒᆞ·면 ᄇᆞᄅᆞᆷ :ᄢᅵ·이·라[3] 오·려? ᄆᆞᄉᆞ·ᄆᆞ·라 에 ·와·셔 :혜·아·리리오?

1) '害風'의 '風'은 '瘋'과 같고 "미친 것, 정신 나간 것" 등의 뜻을 갖는다.
2) '일·뎡ᄒᆞᆫ'은 '일·뎡ᄒᆞ-(定)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정한, 결정한"의 뜻임.

老諺 제63화 홍졍호미 므던ᄒᆞ다

[高] 내 아직 네 뎡ᄒᆞᆫ4) 갑슬 드르마.

[牙] 이 닷 빌5) 됴ᄒᆞᆫ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ᆫ 필의 여ᄃᆞᆲ 냥 은식 ᄒᆞ면 대되 마은 냥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나ᄒᆡ 엿 냥 은식 ᄒᆞ면6) 대되 예쉰 냥이니, 대되7) 一百 냥이니 홍졍호미8) 므던ᄒᆞ다.

[高] 네 이리 뎡ᄒᆞᆫ 갑 ᄀᆞᄐᆞ면9) 곳 高麗ㅅ ᄡᅡ히셔도 ᄯᅩ 사디 못ᄒᆞ리라. 어ᄃᆡ 진실로 ᄆᆞᆯ 사고져 ᄒᆞᄂᆞᆫ 이고? 그저 간대로 헤아리ᄂᆞᆫ 이로괴야.10)

[客] 이 나그내 네 ᄆᆞᄉᆞᆷ 말을 니ᄅᆞᄂᆞᆫ다? 사디 아니ᄒᆞ면 ᄇᆞ롬 뾔이랴? ᄆᆞᄉᆞᆷ아라 예 와 헤아리리오?

現代譯 제63화 홍정 끝내도 좋겠소

[고려인] 내 이제 당신 정한 값을 한번 들어보겠소.

[중개인] 이 다섯 마리의 좋은 말은 한 마리가 8냥씩 하면 합이 마흔 냥이고, 이쪽 열 마리의 하등 말은 매 한 마리가 여섯 냥씩이면 합이 예순 냥이니 모아서 100냥이 되니 홍정 마쳐도 괜찮지 않소.

[고려인] 당신이 그렇게 정한 값으로는 고려 땅이라도 사지 못할 것이오. 어디 정말로 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인가? 전혀 마음대로 계산하는구려.

---

3) 'ᄇᆞ롬 :뾔·이·라'는 원문 '害風那'를 언해한 것으로 원래의 뜻은 "미친 짓으로, 정신 나간 일로"의 뜻이나 여기서는 "바람을 쏘이러"로 잘못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의미는 통한다.

4) <飜老>에서는 '일·뎡ᄒᆞᆫ'임.

5) <飜老>에서는 '피·레'임.

6) <飜老>에서는 '엿 량·시·기·면'임.

7) <飜老>에서는 '모·도·니'임.

8) <飜老>에서는 '홍졍 ᄆᆞ·차·도'임.

9) <飜老>에서는 '·갑·시·ᅀᅡ'임.

10) <飜老>에서는 ':헤·아·리ᄂᆞ·다'임.

[말장수] 이 친구,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사지 않는다면 내가 정신 나갔소? 무엇 하러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하겠소?

原文 제64화 牙家

[高] 這馬恰纔牙家定來的價錢, 還虧着我了.

[客] 你這般的價錢不賣, 你還要想甚麽?

[牙] 你兩家休只管叫喚. 買的添些箇, 賣的減了些箇. 再添五兩, 共一百零五兩, 成交了罷, 天平地平.1) 買主, 你不添價錢, 也買不得. 賣主, 多指望價錢, 也賣不得.

—邊頭立地閑看的人說—

[人] 這牙家說的價錢, 正是本分的言語.

[漢] 罷, 罷.2) 咱們只依牙家的言語, 成了罷.

[高] 旣這般時, 價錢還虧着我.

飜老 제64화 즈름

[高] ·이 ᄆᆞ·ᄅᆡ 앗·가 즈르미3) ·일·뎡ᄒᆞᆫ ·갑·시 ·다·하4) 내게 :셜·웨·라.5)

---

1) '天平地平'은 "매우 공정하다"는 뜻이다. 『월절서(越絶書)』(권13)에 "聖人은 위로 하늘을 알고, 아래로 땅을 알며, 가운데로 사람을 안다. 이것을 천평지평(天平地平)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오정회원(五灯會元)』(권19)에 "天平地平, 同明同暗"이라는 기사가 있다.

2) '罷, 罷'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原老>에서는 이런 경우 '儘教'를 많이 썼으나 여기서는 '罷, 罷'를 많이 썼다.

3) '즈르미'는 '즈름(牙子)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중개인이, 거간꾼이"를 말함.

4) '·다·하'는 "그래도, 도리어, 또한"의 뜻.

5) ':셜·웨·라'는 ':셜·워-(虧) + -ㅣ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손해를 보아서)

[客] :네 ·이·런 갑·새 ·프·디 아·니ᄒᆞ·고 :네 ·다·하 므·스·글 ᄉᆞ랑·ᄒᆞ·ᄂᆞᆫ·다?[6]
[牙] 너희 :둘히 다·하 짓글·히·디[7] ·말·오, ·사·리[8] :져·기 더으·고, ·ᄑᆞᆯ·리 :져·기 :덜·오, 다·시 닷 량·만 더으·면 :대·되 一百 兩·이·오, ·ᄡᅳ·니[9] 닷 량이·로소·니 홍졍 ᄆᆞ·차·도 ·므던·ᄒᆞ·도·소·니 '하·ᄂᆞ·리 ·편ᄒᆞ:며 ·ᄯᅡ·히 ·편ᄒᆞᆫ ·ᄃᆞᆺ'[10]·ᄒᆞ·도·다. 살 :님:재·야! :네 ·갑:슬 더으·디 ·아·니 ·ᄒᆞ·야·도 ·ᄯᅩ 사·디 :몯·ᄒᆞ리며, ·ᄑᆞᆯ :님·재 갑슬 :만·히 ·ᄇᆞ·라·도 ·ᄯᅩ :ᄑᆞ·디 :몯 ᄒᆞ·리·라.

—:ᄀᆞ·ᅀᅢ[11] ·셔·셔 :놀·며 ·보·ᄂᆞᆫ :사·ᄅᆞ미 닐·오·ᄃᆡ—

[人] 이 즈르·믜 니ᄅᆞ논 ·갑·시 :졍·히 고·ᄃᆞᆫ :마·리로·다.
[漢] ·두·워 ·두·워.[12] ·우·리 그저 즈르·믜 :말소:ᄆᆞᆯ 드·러 ᄆᆞ·초·ᄃᆡ 므던 ᄒᆞ·다.
[高] 이·믜 ·이·러ᄒᆞ·면 ·갑·시 다·하 내게 :셜웨·라.

老諺 제64화 즈름

[高] 이 ᄆᆞᆯ을 앗가 즈름의 뎡ᄒᆞᆫ 갑시 다홈[13] 내게 셜웨라.
[客] 네 이런 갑싀 ᄑᆞ디 아니ᄒᆞ고 네 다홈 므서슬 ᄉᆡᆼ각ᄒᆞᄂᆞᆫ다?[14]
[牙] 너희 둘히 술러야[15] 짓궤디[16] 말고 사리ᄂᆞᆫ 져기 더ᄒᆞ고 ᄑᆞᆯ리ᄂᆞᆫ 져기

쉽다"의 뜻.
6) 'ᄉᆞ랑·ᄒᆞ·ᄂᆞᆫ·다'는 "생각하는가"의 뜻.
7) '짓글·히·디'는 "지껄이지"의 뜻. 원문 '吽喚'의 언해임.
8) '.사·리'는 "살 사람"의 뜻.
9) '.ᄡᅳ·니'는 "우수리"를 말함. 제60화 주9 참조.
10) '하·ᄂᆞ·리 ·편ᄒᆞ:며 ·ᄯᅡ·히 ·편ᄒᆞᆫ ·ᄃᆞᆺ'은 원문 '天平地平'을 직역한 것으로 "매우 공정하다"의 뜻. 주1 참조.
11) ':ᄀᆞ·ᅀᅢ'는 ':ᄀᆞᇫ(邊) + -·애(처격)'의 형태구성으로 "옆에서"의 뜻.
12) '.두·워 ·두·워'는 원문 '罷, 罷'의 언해로서 "할 수 없다"의 뜻. 주2 참조.
13) <飜老>에서는 '·다·하'임. '다홈'은 '·다·하'와 같이 "그래도, 도리어, 또한"의 뜻이 있음.
14) <飜老>에서는 'ᄉᆞ랑·ᄒᆞ·ᄂᆞᆫ·다'임.

덜고 다시 닷 냥만 더ᄒᆞ면 대되 一百 량이오 ᄡᅳ니 닷냥이니 홍졍 ᄆᆞᆺᄎᆞ미 므던ᄒᆞ니 天平 地平[17]이로다. 살 님재, 네 갑술 더ᄒᆞ디 아니면 ᄯᅩ 사디 못ᄒᆞ고, ᄑᆞᆯ 님재, 갑술 만히 ᄇᆞ라면 ᄯᅩ ᄑᆞ디 못ᄒᆞ리라.

—ᄀᆞ애 셔셔 힘힘히[18]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닐오되—

[人] 이 즐음 닐으ᄂᆞᆫ 갑시 졍히 고ᄃᆞᆫ 말이로다.
[漢] 두워 두워. 우리 그저 즐음의 말대로 ᄆᆞᆺᄎᆞ미 므던ᄒᆞ다.
[高] 임의 이러ᄒᆞ면 갑시 다홈 내게 셜웨라.

現代譯 제64화 중개인

[고려인] 이 말에 방금 중개인이 정한 값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손해요.
[말장수] 이런 값에 팔지 않고 당신네들은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시오?
[중개인] 당신들 둘 다 또 그렇게 떠들지 말아요. 살 사람은 좀더 올리고, 파는 쪽은 좀더 깎고 다시 다섯 냥을 더하면 대체로 100냥이 되고 우수리 다섯 냥이면 홍정을 끝내도 괜찮을 것이니 천지(天地)를 걸고 공평합니다. 살 임자께서는 값을 올리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고, 팔 임자는 값을 너무 많이 바래도 또 팔지 못합니다.

—옆에서 서서 놀며 보는 사람이 말한다—

[구경꾼] 이 중개인이 말하는 값이 정말로 정당한 말이라오.
[중국인] 할 수 없네. 우리 그저 이 중개인 말씀을 들어 마쳐도 괜찮겠네.
[고려인] 이제 이렇더라도 아직도 가격이 나에게는 손해인 것 같아요.

15) '술러야'는 "그저, 다만, 아직"의 뜻으로 '술이여'로도 쓰임.
16) <飜老>에서는 '짓글·히·디'임.
17) <飜老>에서는 '하·ᄂᆞ·리 ·편ᄒᆞ:며 ·ᄯᅡ·히 ·편ᄒᆞᆫ ·ᄃᆞᆺ·ᄒᆞ·도·다'임.
18) <飜老>에서는 ':놀·며'임. '힘힘히'는 "심심하게, 하는 일 없이"의 뜻.

原文 제65화 低銀子不要

[高] 只是一件, 低銀子不要, 與我. 好銀子與我些.

[客] 咳, 低銀我也沒, 我的都是細絲官銀.

[高] 旣是好銀時, 咱先看了銀子, 寫契.

[客] 這們便布帒裏取銀子來.

[高] 着牙人先看.

[牙] 你賣主自家看. 裏頭沒有一錠兒低的.

[高] 這銀子雖是看了, 眞假我不識. 你記認着. 久後使不得時, 我只問牙家換.

[牙] 我有認色了. 不揀幾時要換.

飜老 제65화 눗가온 은으란 날 주디 말오

[高] 오직 ᄒᆞᆫ 가·짓 눗가온 은[1]·으·란 :날 주·디 :말오 :됴·ᄒᆞᆫ 은·을 :날 ·다·고·려.

[客] ·해![2] 눗가·온 은이 나도 :업다. 내 ·해[3] ·다 :실 ·ᄀᆞ·ᄂᆞᆫ[4] 구의나깃 은·이·라.

[高] ᄒᆞ마 :됴·ᄒᆞᆫ 은이라 ᄒᆞ·거·니 ·우·리 몬져 은 보·고 ·글·월 쓰·져.

[客] ·이·러·면 ·뵈·쟐·의[5] 은 가·져다·가.

[高] 즈르·믈 몬져 :뵈·라.

[牙] 너 ·폴·리 손·조 보·라. :소·개 ᄒᆞᆫ :뎡·도[6] 눗가·오·니 :업스니·라.

[高] 이 은·을 비록 보·나 진·짓 ·치 :거·즛 ·치[7] ·내 모·로노·니 ·네 ·보·람 두·라.[8] ·후·에 ·ᄡᅳ·디 :몯·ᄒᆞ·면 ·내 그저 즈름ᄃᆞ려 무러[9] 밧·고리·라.

[牙] ·내 ·보·라·믈 ·두노·라. :아·모·제·라 :업·시 밧·고리라.

---

1) '눗가온 은'은 '低銀子'의 언해로 "질이 낮은 은자"를 말함.

2) '·해'는 원문 '咳'의 언해로 "아이고, 어머나" 등의 감탄사.

3) '내 ·해'는 "내 것"의 뜻.

4) ':실 ·ᄀᆞ·ᄂᆞᆫ'은 원문 '細絲'의 언해로서 "실이 가는, 가는 실"의 뜻.

5) '·뵈·쟐·의'는 원문 '布帒'의 언해이며 "베자루, 베로 만든 포대"를 말함.

6) 'ᄒᆞᆫ :뎡·도'는 "한 정(錠)도, 한 은자도"의 뜻.

老諺 제65화 ᄂᆞ즌 은으란 날 주디 말고

[高] 다만[10] ᄒᆞᆫ 가지ᄂᆞᆫ ᄂᆞ즌[11] 은으란 날 주디 말고 됴ᄒᆞᆫ 은을 날 주고려.[12]

[客] 해! ᄂᆞ즌 은ᄂᆞᆫ 내게도 업고 내하ᄂᆞᆫ 다 細絲官銀[13]이라 임의 됴ᄒᆞᆫ 銀이라.

[高] ᄒᆞ면[14] 우리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쟈.

[客] 이러면 布帒엣[15] 銀을 가져다가.

[高] 즐음으로 몬져 뵈라.

[牙] 너 ᄑᆞᄂᆞᆫ 님재 손조 보라. 소개 ᄒᆞᆫ 덩이도[16] ᄂᆞᄌᆞ니 업ᄉᆞ니라.

[高] 이 은을 비록 보나 眞假롤[17] 내 아디 못ᄒᆞ니[18] 네 보람 두라. 오랜 후의 ᄡᅳ디 못ᄒᆞ면 내 그저 즐음ᄃᆞ려 무러 밧고리라.

[牙] 내 보람을 두어시니 아모 제라 업시 밧고리라.

---

7) '진·짓 ·치 :거·즛 ·치'는 원문 '眞假'의 언해로서 "진짜의 것인지 가짜의 것인지"의 뜻. '~치'는 "~것"과 같음.

8) '·보·람 두·라'는 "표시를 하다, 보증을 서다"의 뜻.

9) '무러'는 "물러서"의 뜻.

10) <飜老>에서는 '오직'임.

11) <飜老>에서는 '눗가온'임.

12) <飜老>에서는 '·다·고·려'임.

13) <飜老>에서는 ':실 ·ᄀᆞ·ᄂᆞᆫ 구의나깃은'임.

14) <飜老>에서는 'ᄒᆞ마 :됴·ᄒᆞᆫ 은이라 ᄒᆞ·거·니'임.

15) <飜老>에서는 '·뵈·쟐·의'임.

16) <飜老>에서는 'ᄒᆞᆫ :뎡·도'임.

17) <飜老>에서는 '진·짓 ·치 :거·즛 ·치'임.

18) <飜老>에서는 '모·로노·니'임.

現代譯 제65화 질 낮은 은은 나를 주지 마시오

[고려인] 다만 하나 질 낮은 은일랑 나를 주지 마시고 좋은 은을 날 주시오.

[말장수] 아이고! 질 낮은 은이 나에게 없어요. 내 것은 모두 가는 실이 있는 관청에서 발급한 은자요.

[고려인] 이미 좋은 은자라고 하니 우리 먼저 은자를 보고 글월을 씁시다.

[말장수] 그럼 포대에서 은자를 가져다가.

[고려인] 중개인을 먼저 보이게.

[중개인] 당신 팔 사람도 스스로 보시오. 자루 속에 한 정도 질 낮은 은이 없습니다.

[고려인] 이 은자를 비록 보기는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니 당신이 보증을 섰다가 후에 쓰지 못하면 내 그저 중개인에게 물려 바꿀 것이오.

[중개인] 내가 보람을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原文 제66화 文契着誰寫?

[高] 文契着誰寫?

[漢] 牙家就寫.

[牙] 這契寫時, 一總[1]寫麼, 分開着寫?

[客] 休總寫. 總寫時, 怎麼轉賣與人? 你各自寫着.

[牙] 你這馬是一箇主兒的那, 是各自的?

1) '一總'은 "다 함께, 같이, 한꺼번에"의 뜻이다. 『설인귀(薛仁貴)』「잡극(雜劇)」 1折에 설인귀(薛仁貴)의 대사로 "一總過海平遼-다 함께 바다를 건너 요(遼)를 평정하였다-"라는 대사가 있다.

[漢] 這馬是四箇主兒的. 各自有數目. 你從頭寫我的馬契.

[牙] 你的馬是家生[2]的那元買[3]的?

[漢] 我的是元買的.

[牙] 你在那裏住, 姓甚麼?

[漢] 我在遼東城裏住, 姓王. 寫着王某着.

飜老 제66화 글워를 눌ᄒᆞ야 쓰이료?

[高] ·글·워·를 :눌 ·ᄒᆞ·야[4] 쓰·이·료?

[漢] 즈르·미 ·즉·재 ·쓰라.

[牙] ·이 ·글·워·를 ·쓰·면 ᄒᆞᆫ ·ᄃᆡ ·쓸·가? ·ᄢᅢ·혀 쓰·고?[5]

[客] 모·도·와 ·쓰·디 :말·라. ·ᄒᆞᆫ ·ᄃᆡ ·쓰·면 :엇·디 옮·겨 ·ᄑᆞ·라 ·놈 주·리·오? :네 각·각 ·쓰·라.

[牙] 네 ·이 ᄆᆞ·리 ᄒᆞᆫ :님·자·가? ·이 ·각·각 ·치·가?

[漢] ·이 ᄆᆞ·리 :네 :님·자·읫[6] 거·시·니 ·각·각 제 :수 잇ᄂᆞ·니·라. :네 ·첫 ·그·투·로[7] 내 몰 ·ᄑᆞ·ᄂᆞᆫ ·글·월 ·쓰·라.

[牙] 네 ᄆᆞ·리 지·ᄇᆡ·셔 :내:니·가? 본·ᄃᆡ 사·니·가?[8]

[漢] 내 ·해 본·ᄃᆡ 사·니·라.

[牙] :네 어·듸·셔 사·ᄂᆞᆫ·다? :셩·이 므·스·기신·고?[9]

2) '家生'은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이나 또는 자기 집 노비(奴婢)에서 태어난 씨종을 말한다. 『철경록(輟耕錄)』(권17) 「노비(奴婢)」조에 "奴婢가 낳은 아이를 家生孩兒라고 말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3) '元買'는 "지금은 자기 것이지만, 원래는 산 것"이라는 의미이다.

4) ':눌 ·ᄒᆞ·야'는 "누구를 시켜서"의 뜻.

5) '·ᄢᅢ·혀 쓰·고'는 "깨뜨려서 쓸 것인가, 쪼개서 쓸 것인가"의 뜻. '·ᄢᅢ·혀-'는 "깨뜨리다"의 뜻으로 '·ᄢᅢ·ᅘᅧ-'로도 씀.

6) ':네 :님·자·읫'는 "네(4) 임자의 것"이란 뜻.

7) '·첫 ·그·투·로'는 "첫 번째로"의 뜻.

8) '본·ᄃᆡ 사·니·가'는 원문 '元買'의 언해로 "본디 산 것인가"의 뜻.

9) '므·스·기신·고'는 '므·슥(疑問) +-·이(서술격 조사) + -시-(주체존대) + -ㄴ·고(의문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무엇이십니까?"의 뜻.

[漢] ·내 遼東·잣 안해·셔 ·사·노·라. :셩·이 王:개로·니 王 :아·뫼·라 ·ᄒᆞ·야 ·쓰·라.

(老 諺) 제66화 글월을 늘로 ᄒᆞ여 쓰이료?

[高] 글월을 늘로 ᄒᆞ여 쓰이료?

[漢] 즐음이 임의셔[10] 쓰라.

[牙] 이 글월을 쓰면 ᄒᆞᆫᄃᆡ 쓰랴? ᄂᆞᆫ화[11] 쓰고?

[客] ᄒᆞᆫᄃᆡ[12] 쓰디 말라 ᄒᆞᆫᄃᆡ 쓰면 엇디 옴겨 ᄑᆞ라 ᄂᆞᆷ을 주리오? 네 각각 쓰라.

[牙] 네 이 ᄆᆞᆯ이 ᄒᆞᆫ 님자의 것가? 이 각각 치가?

[漢] 이 ᄆᆞᆯ이 네 님자의 거시니 각각 數目이[13] 잇ᄂᆞ니라. 네 첫머리로[14] 내 ᄆᆞᆯ 글월을 쓰라.

[牙] 네 ᄆᆞᆯ이 집의셔 나힌 이가?[15] 본ᄃᆡ 사니가?

[漢] 내하ᄂᆞᆫ 본ᄃᆡ 사니라.

[牙] 네 어듸 이셔 살며 셩이 므섯고?

[漢] 내 遼東 잣 안해셔 사노라. 셩이 王개니 王 아뫼라 쓰라.

(現代譯) 제66화 매매계약서를 쓰세

[고려인] 계약서는 누구를 시켜서 씁니까?

[중국인] 중개인이 지금 쓰시오.

[중개인] 이 계약서를 쓴다면 전부 함께 쓸까요? 쪼개서 씁니까?

10) <飜老>에서는 '·즉·재'임.
11) <飜老>에서는 '·ᄢᅢ·혀'임.
12) <飜老>에서는 '모·도·와'임.
13) <飜老>에서는 '제 :수'임.
14) <飜老>에서는 '·첫 ·그·투·로'임.
15) <飜老>에서는 ':내:니·가'임.

[말장수] 모아서 쓰지 마시오. 한 곳에 쓰면 어찌 옮겨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소? 당신 각각 쓰시오.

[중개인] 당신네 이 말들이 임자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것입니까?

[중국인] 이 말들이 네 명 임자의 것이니 각각 제 수효가 있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로 내 말을 파는 계약서를 쓰시오.

[중개인] 당신의 말은 집에서 키운 것입니까 원래 산 것입니까?

[중국인] 내 것은 본래 산 것이오.

[중개인] 당신 어디에 삽니까? 성함은 무어라고 하지요?

[중국인] 나는 요양성(遼陽城) 성안에 삽니다. 성은 왕(王)이라고 하니 왕 아무개라고 쓰시오.

(原 文) 제67화 馬契

[牙] 我寫了這一箇契了. 我讀, 你聽.

遼東城裏住人王某, 今爲要錢使用, 遂將自己元買到, 赤色騸馬一疋, 年五歲,[1] 左腿上有印記,[2] 憑京城牙家羊市角頭[3]街北住坐[4]張三,[5] 作中人,

1) '年五歲'는 매매가 된 붉은 색 거세마의 나이가 5살임을 말한다. 원(元) 지정(至正) 20년(1360)에 나온 명령으로는 4세 이상의 불깐 말(去勢馬)은 모두 관(官)에 공출(供出)하도록 되어 있는데(제61화 주2) 여기서 5세 난 거세마(去勢馬)의 매매가 가능한 것은 이 계약서가 그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노걸대』의 편성 연대를 밝혀주는 좋은 자료다.
2) '印記'는 말에 찍힌 낙인(烙印)을 가리킨다. 원대(元代)에는 군마(軍馬), 역마(驛馬) 등의 확보를 위해 말의 소유, 매매는 엄격하게 제약되었다. 『대원마정기(大元馬政記)』에서는 정부가 화매(和賣, 강제로 매입하는 것), 구쇄(拘刷, 강제로 징용하는 것) 등의 수단으로 민간인에게서 모아온 말에 낙인(烙印)을 찍었다. 또 쓰지 못하게 된 말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퇴인(退印)을 찍었는데 여기의 인기(印記)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할 것이다.
3) '羊市角頭'는 북경의 거리 이름이다. 제55화 주2 참조.
4) '住坐'는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원대(元代)의 상용어로서 원곡(元曲) 등에 많

賣與山東濟南府[6]客人[7]李五,[8] 永遠爲主. 兩言議定, 時値價錢, 白銀十二兩, 其銀立契之日, 一幷交足, 外沒欠少. 如馬好歹, 買主自見, 如馬來歷不明, 賣主一面承當. 成交已後, 各不許番悔.[9] 如先悔的, 罰官銀五兩與不悔之人, 使用無詞. 恐後無憑, 故立此文契爲用者.

某年 月 日
立契人 王某 押
牙人 張某 押

[牙] 其餘的馬契,[10] 都寫了也.

이 보인다.

5) '張三'은 "장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란 뜻으로 이사(李四, 이씨네의 넷째 아들)와 함께 평범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原老>에서는 '馬二'이었다.

6) '山東濟南府'는 현재 중국 산동성(山東省)의 성도(省都)인 제남(濟南)을 말한다. 교통의 요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였다.

7) '客人'은 "가게를 갖고 있지 않은 상인, 즉 행상인"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舖家'는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을 말한다.

8) '李五'도 이사(李四)와 같이 평범한 중국인의 이름이다. <原老>에는 '張五'로 되었다.

9) '番悔'는 "계약이나 약속을 한 후에 생각이 바뀌어 무르거나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10) '馬契'는 "말의 매매계약서"이다. 원대(元代)에 작성된 마계(馬契)의 실물을 흑수성(黑水城, 內蒙古自治區의 阿拉善盟額濟納旗, 元代의 亦集乃路 터)에서 출토(出土)된 자료 가운데 찾을 수 있다. 이 마계(馬契)를 『흑성출토문서(黑城出土文書)』「한문문서권(漢文文書卷)」(科學出版社, 北京, 1991) 188쪽에서 인용하면 "'立賣馬文契人何敎化, 見在亦集乃路正街住坐. 今爲端錢使用, 別無得處, 今□主買到這烈特扇馬壹疋, 年当十歲, 当衆面議, 依時価錢中統宝鈔柒拾伍貫, …与同街住人李拜延數木爲主. 其馬好歹主…馬來處不明, 賣主一面承当, 幷不干買主之事. 一賣已後兩無番悔, 如…"이어서 『노걸대(老乞大)』의 마계(馬契)와 기본적으로 같은 문면(文面)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불명한 곳이나 파손된 곳을 이 마계(馬契)에 의해서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계차청전(啓箚靑錢)』「外集」(권11)의 '공사필용(公私必用)'에도 '매마계식(買馬契式)'이 있지만, 그 문면(文面)은 이것과 매우 다르다.

飜老 제67화 몰 글월

[牙] ·내 ·이 흔 글·월 ·쓰·과·라. ·내 닐·고·마. ·네 드르·라.

遼東·자·새·셔 :사·는 :사·름 王 ·아·뫼 ·이·제 :돈 ·쓰·고·져 ·ᄒᆞ·야 ·ᄐᆞ·록[11] 내 본·디 :사·온[12] 졀·다악·대몰[13] ᄒᆞᆫ 피·리 ·쉬[14] 다·ᄉᆞᆺ :서·리·오 왼 :뒷다리 우·희 ·인 마·즌[15] ·보·라·미 잇ᄂᆞ·니 :셔·울[16] 즈름·ᄒᆞ·는 羊市 져제 거·릿 ·븍·녁·의:셔 :사·는 張三·을 의빙ᄒᆞ·야[17] 즁신[18] 사·마 山東濟南府·엣 나·그·내 李五·의게 ·ᄑᆞ라 ·주·워 니·르·리[19] :님·자 도의·여 :두 ·녁 ·말·로 ·의·뎡·ᄒᆞ·야[20] 시·딕갑·스·로[21] ·시·푼은[22] ·열:두 량·애 ·ᄒᆞ·야 그 은·을 글·월ᄒᆞᆫ 나·래 홈·ᄢᅴ :주·믈 ᄎᆞ·게[23] ᄒᆞ·고 ·ᄠᅩ·로[24] ·ᄢᅥ·디·기[25] 업·게 :홀디·니 ᄒᆞ다·가 ᄆᆞ·리 :됴·홈 구·주

---

11) '·ᄐᆞ·록'은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으나 <老諺>의 대역에는 '드듸여'로 교체되었다. 아마도 "(하여서) 드디어"의 뜻으로 쓰인 후치사로 보인다.

12) '본·디 :사·온'은 원문 '元買'의 언해로서 "원래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온"의 뜻.

13) '졀·다악·대몰'은 "절다(赤馬) 악대말(去勢馬), 붉은 색의 불깐 말"을 말함. 제61화의 주2, 3 참조.

14) '·쉬'는 다른 자료에서 예가 보이지 않으나 <老諺>에 '나히'로 대역된 것으로 보아 동물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5) '·인 마·즌'은 "낙인이 찍힌"의 뜻.

16) ':셔·울'은 원·명(元·明)의 수도인 북경(北京)을 말함.

17) '의빙ᄒᆞ·야'는 "의빙(依憑)하여, 의거하여"의 뜻.

18) '즁신'은 '중인(中人), 중개인'을 말함.

19) '니·르·리'는 "길이, 내내"의 뜻.

20) '·의·뎡·ᄒᆞ·야'는 "의정(議定)하여, 논의하여 정하고"의 뜻.

21) '시·딕갑·스·로'는 "시직(時直) 값으로, 현재의 시세로, 시가로"의 뜻.

22) '·시·푼은'은 "십성(十成) 은자(銀子), 은으로만 만든 은자"를 말함. '十分銀'을 말함.

23) 'ᄎᆞ·게'는 "가득 차게, 전액을 모두"의 뜻.

24) '·ᄠᅩ·로'는 "따로, 달리"의 뜻. '·ᄡᅡ·로'가 원형이며 ㅂ자음에 의하여 원순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임.

25) '·ᄢᅥ·디·기'는 원문 '欠少'의 언해로서 "떨어지기, 부족하기, 빚지기"라는 뜻이다.

ᄆᆞ·란26) 살 :님·재 ·제 보고 ·ᄒᆞ다·가 ᄆᆞ릐 來歷·이 不明ᄒᆞᆫ ·일라ᄂᆞᆫ ·ᄑᆞ·ᄂᆞᆫ :님재 ᄒᆞ온·자 맛ᄃᆞ리니27) 홍·졍 ᄆᆞᆺᄎᆞᆫ 후에 ·각·각 므르기를 듣디 :마·져 ·ᄒᆞ다·가 몬져 므르리란 구의나·깃 은 닷 량을 벌로28) 내여 므르져 아·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주·워 ·ᄡᅳ게 ᄒᆞ·야·도 ·잡:말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후에 미·들 ·고·디 :업·슬·가 ᄒᆞ·야 ·부·러 ·이 문긔 ᄆᆡᆼ·ᄀᆞ·라 ·ᄡᅳ져.

·아·모 ·ᄒᆡ ·아·모 ·ᄃᆞᆯ :아·모 ·날
·글·월 ᄆᆡᆼ·ᄀᆞᆫ :사ᄅᆞᆷ 王 아뫼 일·홈 두고
ᄌᆞ름 張 :아·뫼 일·홈 ·두엇·다

[牙] 그 나ᄆᆞᆫ ᄆᆞᆯ 글·월도 :다 써·다.

老諺 제67화 ᄆᆞᆯ 글월

[牙] 내 이 ᄒᆞᆫ 글월 쓰과라. 내 닐거든 네 드르라.

遼東 잣 안해셔 사ᄂᆞᆫ 사ᄅᆞᆷ 王 아뫼 이제 돈 ᄡᅳ고져 ᄒᆞ야 드듸여29) 내 본ᄃᆡ 사온 졀다 악대ᄆᆞᆯ ᄒᆞᆫ 필이 나히 다습이오30) 왼녁 뒷다리 우희 인 마즌 보ᄅᆞᆷ 잇ᄂᆞ니를 京城31) ᄌᆞ름ᄒᆞᄂᆞᆫ 양 져제 거리 븍녁킈셔 사ᄂᆞᆫ 張三을 의빙ᄒᆞ여 中人을 삼아 山東 濟南府엣 나그내 李五의게 ᄑᆞ라 주어 永遠히32) 님자 삼아 두 녁 말로 議定ᄒᆞ야 時直 갑스로 십 푼 은 열

즉 "외상을 하지 않고 값을 일시불로 한다"는 뜻.

26) ':됴·홈 구·주ᄆᆞ·란'은 ':둏-(好) + -·옴(동명사형) + 궂-(歹) + -·움(동명사형) + -ᄋᆞ·란(주제격)'의 형태구성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일랑"의 뜻.

27) '맛ᄃᆞ리니'는 '맛ᄃᆞᆮ-(對) + -이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맞닥치다, 감당하다"의 뜻.

28) 원문에는 '도'로 보이나, <老諺>과 내용을 감안하여 '로'로 판단함.

29) <飜老>에서는 '·ᄐᆞ·록'임.

30) <飜老>에서는 '·쉬 다·ᄉᆞᆺ :서·리·오'임.

31) <飜老>에서는 ':셔·울'임.

두 냥애 ᄒᆞ야 그 은을 글월ᄒᆞᆫ 날의 ᄒᆞᆷᄭᅴ 주믈 ᄎᆞ게 ᄒᆞ고 ᄠᅩ로 ᄣᅥ디미 업게 ᄒᆞ리라 ᄒᆞ다가 ᄆᆞᆯ의 됴쿠즘으란33) 살 님재 제 보고 ᄒᆞ다가 ᄆᆞᆯ의 來歷이 不明ᄒᆞ거든34) ᄑᆞᄂᆞᆫ 님재 ᄒᆞᆫ자 맛ᄃᆞ리라. 홍졍 ᄆᆞᆺᄎᆞᆫ 후에 각각 므르기를 허티 마쟈35) ᄒᆞ다가 몬져 므르ᄂᆞᆫ 이란 구의 나기 은 닷 량을 벌ᄒᆞ야36) 므르쟈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주어 ᄡᅳ게 ᄒᆞ야도 잡말 못ᄒᆞ리라. 후에 의빙ᄒᆞᆯ ᄃᆡ37) 업슬가 저허 부러 이 문긔를 ᄆᆡᆼ그라 ᄡᅳ게 ᄒᆞ노라.38)

아모 ᄒᆡ 아모 ᄃᆞᆯ 아모 날
글월 ᄆᆡᆼᄀᆞᆫ 사ᄅᆞᆷ 王 아뫼 일홈 두고
ᄌᆞ름 張 아뫼 일홈 두엇다

[牙] 그 나ᄆᆞᆫ ᄆᆞᆯ 글월도 다 써다.

現代譯 제67화 말 매매 계약서

[중개인] 내 이 한 매매계약서를 쓰겠소. 내가 읽을 테니 당신 들어 보시오.

요양성(遼陽城)에 성안에 사는 사람 왕 아무개가 지금 돈을 쓰고자 하여 드디어 원래 자기 것으로 사들인 붉은 색의 불깐 말 한 마리를 파는데 나이가 5살이고 왼쪽 다리 위에 낙인 찍힌 표시가 있다. 북경 양시(羊市) 시장거리의 북쪽에 살고 있는 장삼(張三)을 의거하여 중개인으로 삼고 산동(山東) 제남부(濟南府) 객상(客商)인 이오(李五)에게 팔

32) <飜老>에서는 '니·르·리'임.

33) <飜老>에서는 ':됴·홈 구·주ᄆᆞ·란'임.

34) <飜老>에서는 '不明ᄒᆞᆫ ·일라ᄂᆞᆫ'임.

35) <飜老>에서는 '듣디 :마·져'임.

36) <飜老>에서는 '벌로 내여'임.

37) <飜老>에서는 '미·들 ·고·디'임.

38) <飜老>에서는 '·ᄡᅳ져'임.

아 주어 영원한 소유자가 되게 하겠음. 두 쪽의 말로 의논하여 시가로 십분(十分) 은자 열두 냥에 정하고 그 은자를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모두 일시불로 하여 따로 외상은 없게 할 것이다. 만일 말의 좋고 나쁨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스스로 보았으며 만일 말의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일이랑 판 사람이 혼자 그 책임을 지기로 함. 흥정이 끝난 다음에 각자 무를 수는 없음. 만일 먼저 무르자고 한 사람은 관은(官銀) 5냥을 벌금으로 내어 무르자고 하지 않은 사람을 주어 쓰도록 하여도 할 말 없음. 후에 믿을 곳이 없을까 하여 일부러 이 문기(文記)를 작성하여 쓰고자 함.

모년모일(某年月日).
계약인(契約人) 왕객(王客) 서명(署名)
중개인(仲介人) 마이(馬二) 서명(署名)

[중개인] 그 남은 말들의 매매계약서도 모두 썼습니다.

(原文) 제68화 該多少牙稅錢?

[牙] 咱們筭了牙稅錢着. 舊例買主管稅, 賣主管牙錢. 你各自筭將牙稅錢來.
[高] 我這一百零五兩, 該多少牙稅錢?
[牙] 你自筭. 一兩該三分,[1] 十兩該三錢.
[高] 一百零五兩, 牙稅錢該三兩一錢五分.
[牙] 牙稅錢都筭了.
[客] 我這馬契, 幾時稅了?[2]

1) '一兩該三分'은 "한 냥에 3분을 건다"의 뜻이다. 『원전장(元典章)』「호부(戶部)」(권8) '과정・계본(課程・契本)'의 '계본세전(契本稅錢)'조에 "商稅는 30分에 대하여 1分을 징수함"이라는 규정이 있어 당시 세금이 대체로 30분의 1이었음을 알 수 있다. 1량(100분)에 3분(分)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된다.

[牙] 這的有甚麽難? 你着一箇火伴, 跟我去來, 到那裏[3]便了. 更不時, 你都只這裏等候着. 我去稅了, 送將來與你.

(飜老) 제68화 즈름쌉 글월 벗깂 갑

[牙] ·우리 즈름·쌉 글·월 벗·깂 갑·돌[4] 혜·져. 舊例에·는 살 님:재 ·글:월 벗·깂 갑·슬 ᄀᆞᅀᆞ:말·오[5] 폴 :님·재 즈릆 ·갑슬 ᄀᆞᅀᆞ마·ᄂᆞ·니 :네 ·각·각 즈름 ·갑·과 ·글·웘 ·갑:돌 :헤·라.
[高] ·우·리 ·이 一百 ·뽄 닷 량·애 牙錢 稅錢·이 :언·메·나 ᄒᆞ·뇨?
[牙] :네 :헤·라. ᄒᆞᆫ 량·애 :세 ·푼·식·이·오 ·열 량·애 :세 :돈 ·시·기·면 一

2) '幾時稅了'는 "언제 세금을 낼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원대(元代)에 상품을 매매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전장(元典章)』「호부(戶部)」(권8) '과정・계본(課程・契本)'의 '관방세용계본(關防稅用契本)'조에 "보통 諸人인 田宅, 人口, 頭疋을 典賣(전당 잡힘과 판매)하여 작성하는 文契(계약서)를 報하기 위해서는 務(稅務)에 가서, 稅를 投하여야 하며, 隨卽에 契本을 粘連하여 買主에게 給付함, 每本에 '宝鈔 3錢을 납입함"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의하면 상거래가 성립되면 중개인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호부(戶部, 稅務署에 해당)가 발행한 '계본(契本)'(收入印紙와 같음)을 사서 계약서에 붙이고 매주(買主)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계본(契本)'의 값은 당초에는 중통초(中統鈔) 3전(錢)이었으나 후일에는 그 다섯 배에 해당하는 지원초(至元鈔) 3전(錢)으로 올랐다. 그런데 중개인이 세무서의 관리와 결탁하여 이 '계본(契本)'을 붙이지 않고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저지르므로 정부는 '계본(契本)'을 붙이지 않는 경우는 탈세(脫稅)로 간주하고 처벌하였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원전장(元典章)』의 전게(前揭) 부분에 나와 있다. 이 마계(馬契)의 경우 중개인은 마시(馬市)에 있는 세무서 '대도세과제거사(大都稅課提擧司)'에 가서 위에서 언급한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했다. '대도세과제거사(大都稅課提擧司)'는 지대(至大) 원년(元年, 1308)에 '대도선과제거사(大都宣課提擧司)'로 개칭되었다(『元史』 권85 '百官'조). 그러나 중개인이 손님 중의 한 사람과 같이 가도 된다고 하다가 바로 또 자기 혼자 가려고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무슨 부정을 저지를 작정이었던 것 같다.
3) '那裏'이고 "저 쪽"이란 뜻이 된다. 여기서 '那裏'는 말 시장(馬市)에 있던 '대도세과제거사(大都稅(宣)課提擧司)'일 것인데 중개인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
4) '글·월 벗깂 갑'은 '稅錢'을 언해한 것으로 "계약서를 벗기는 값, 세금"에 해당한다.
5) 'ᄀᆞᅀᆞ:말·오'는 "주관하고, 담당하고"의 뜻.

百 ·뽄 닷 량·애.

[高] 牙錢稅錢·애 :석 ·량 훈 :돈 ·닷 :분·이 ·드노소·니.

[牙] 牙錢稅錢·을 :다 ·혜·어·다.

[客] ·우·리 ·이 물 :글·워·를 어·느 ·제 벗·기려·뇨?[6)]

[牙] ·이·거시 므·슴 어·려:운 ·고·디 잇└·뇨? :네 훈 :벋·훈·야 :날 ·조·차 ·가 뎨 가·면 ·곧 ·그·제어·니[7)]쓰·나. ·또 그·리 :몯훈거·든 너:희 ·다 그저 예·셔 기·들·우·라. ·내 ·가 벗·겨 보·내·여 너 ·주·마.

(老諺) 제68화 즈름쌉 글월 벗길 쌉

[牙] 우리 즈름쌉 글월 벗길 쌉 혜아리쟈. 舊例에는 살 님재 글월 벗길 쌉슬 ᄀ음알고 폴 님재 즈름갑슬 ᄀ음아└니 네 각각 즈름갑 글월 쌉슬 혜라.

[高] 우리 이 一百이오 뽄이 닷 냥애 희오니 즈름쌉 글월 벗기는 갑시[8)] 얼머나 훈뇨?

[牙] 네 손조 혜라. 훈 냥이 서 푼식이오 열 냥애 서 돈식 훈니 一百이오 뽄 닷 냥애.

[高] 즈름갑 글월갑시 훈오니 석 냥 훈 돈 오푼이로소니.[9)]

[牙] 즈름갑 글월갑슬 다 혜어다.

[客] 우리 이 물 글월을 언제 벗기료?

[牙] 이야 므슴 어려옴이 이시리오?[10)] 네 훈 벗으로 훈여[11)] 날 조차 가 뎨 가면 곳 훈리라. 쏘 그리 아니커든 너희 다 그저 예셔 기드리라. 내 가 벗겨 보내여 너놀 주마.

(現代譯) 제68화 仲介料와 稅金

[중개인] 우리 중개료와 세금을 계산합시다. 옛날 예에는 산 사람이 세금을 담당하고 판 사람이 중개료를 부담하는 것이니 당신들 각자 중개료와 세금을 계산해 보시오.

[고려인] 우리 일백(一百) 냥과 우수리 5냥 중에서 중개료와 세금은 얼마가 됩니까?

[중개인] 자신이 계산해 보시오. 한 냥에 세 푼씩이고 열 냥은 세 돈(3錢)씩이면 일백(一百) 냥과 우수리 다섯 냥에.

[고려인] 중개료와 세금에 각각 석 냥 한 돈 다섯 푼(3兩 1錢 5分)이 드는군요.

[중개인] 중개료와 세금이 다 계산되었습니다.

[말장수] 우리 이 말의 계약서는 언제 세금을 지불하는가?

[중개인] 그것이 무슨 어려운 것이 있겠어요? 당신 동행을 시켜서 나를 좇아가면 곧 그 때 내지요. 또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신들은 모두 그저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세금을 지불하고 당신들에게 주겠소.

(原文) 제69화 你要番悔?

[客] 我不曾好生看. 這箇馬元來有病.[1)] 那鼻子裏流膿, 是[疒+桑]馬.[2)] 我怎

---

6) "·이 물 :글·워·를 어·느 ·제 벗·기려·뇨"는 "언제 세금을 낼 것인가?"의 뜻.

7) '·그·제어·니'는 '·그·저(故) + -ㅣ + -어·니'의 형태구성으로 "그대로"의 뜻인 듯. 성조가 거성임이 이해할 수 없다.

8) <飜老>에서는 '牙錢 稅錢·이'임.

9) <飜老>에서는 '·닷 :분·이 ·드노소·니'임.

10) <飜老>에서는 '·고·디 잇└·뇨'임.

11) <飜老>에서는 ':벋·훈·야'임.

1) <老諺>에는 원문에 차이가 있다.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有甚麽病(므슴 병이 잇└뇨)?"라는 대화가 추가되었다. 아마도 아자(牙子), 즉 중개인이 한 말로 보이는데 <刪老> 이후에 부분적인 원문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의 이 대화가 들어가면 주고받는 말이 좀더 분명해진다.

2) '(疒+桑)馬'의 '(疒+桑)'은 '嗓'이라고도 쓴다. 『남촌철경록(南村輟耕錄)』(권23) '嗓'에는 "보통 六畜이 勞傷하여, 콧속에 항상 고름 물이 흐르는 말이 있는데 이

麽敢買將去. 不爭將去時, 連其餘的馬 都染的壞了.

[牙] 這們的, 你要番悔?

[客] 我委實不要.

[牙] 你旣不要時, 契上明白寫着, "如馬好歹 買主自見". 先悔的罰銀五兩. 官憑印信, 私憑要 約.[3] 你罰下銀五兩, 與他賣主, 悔將去便是. 不須惱懆.[4]

[客] 這們時, 你拿出這箇馬契來, 問他們, 元定價錢內中, 除了五兩銀子,[5] 做番悔錢, 扯了文契 着. 這箇馬悔了. 該着八兩銀價錢. 你要過的牙錢, 通該着一錢二分, 你却迴將來.

[牙] 那們時, 迴與你. 你都這裏等候着, 我稅契去.

[客] 要甚麽等你? 我赶着馬, 下處兌付[6]草料去. 你稅了契時, 到明日, 我下處送來. 相別散了.

(飜老) 제69화 :네 므르·고·져 ·ᄒᆞ·노괴·여?

[客] :내 일·즉 ᄀᆞ·장 보·디 아·니·호·니 ·이 ᄆᆞ·리 본·ᄃᆡ :병·이 잇·고·나? ·더 고·해 고[7] 흐르ᄂᆞ·니 ·고 :내·ᄂᆞᆫ ᄆᆞ·리·로고·나. ·내 :엇·디 ·사 가·져 가·리·오? ᄆᆞ더·니[8] 너·겨 가·져 가·면 다ᄅᆞᆫ ᄆᆞᆯ조·차 :다 뎐:셤·ᄒᆞ야[9] ·헤·야디·리로·다.[10]

런 병에 걸린 말을 '(疒+桑)馬'이라 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老覽』에서도 이것을 인용하였다.

3) '官憑印信, 私憑要約'은 언해가 '구의옌 ·인·을 믿·고 아·ᄅᆞ·매·ᄂᆞᆫ 긔·약·을 미·들 거·시:니'라고 되었다. 아마도 당시의 속담일 것이다. '要約'은 약속을 가리킨다.

4) '惱懆'는 "화를 내는 것". <原老>에서는 '煩惱'이었는데 이것은 "고민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

5) '除了五兩銀子'는 계약서에 쓴 대로 물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물려서 원금을 돌려받을 때 그 가운데 다섯 냥을 제하게 될 것임.

6) '兌付'는 '對付'라고도 쓰며 "대응(對應)하는 것"을 말함.

7) '고'는 "콧물"을 말함. '고·해 고 흐르ᄂᆞ·니'는 "코에 콧물이 흐르나니"의 뜻.

8) 'ᄆᆞ더·니'는 "괜찮다고"임.

9) '뎐:셤·ᄒᆞ야'는 "전염(傳染)하여, 옮아서"임.

10) '·헤·야디·리로·다'는 "해어질 것이다, 다칠 것이다"의 뜻.

[牙] ·이·러·면 :네 므르·고·져 ·ᄒᆞ·노괴·여?

[客] ·내 진·실·로 아·니 :호·리·라.

[牙] :네 ᄒᆞ·마 :마·다ᄒᆞ·면 ·글·워·릐 명·ᄇᆡᆨ·이[11] ·써ᄂᆞ·니 ᄒᆞ다·가 ᄆᆞ·리 :됴·홈 구·주·므·란 살 ·님·재 :제 보·고 몬져 므르져 ·ᄒᆞᄂᆞ니·란 은 닷 량 ·벌·ᄒᆞ·져[12] ·ᄒᆞ·얏ᄂᆞ·니 구의옌 ·인·을 믿·고 아·ᄅᆞ·매·ᄂᆞᆫ 긔·약·을 미·들 거·시:니[13] :네 은 닷 량·을 ·벌·로 내·여 더 ᄑᆞ·ᄂᆞᆫ :님·자 주·고 믈·러 가·면 ·곧 그:제어·니[14]ᄯᆞ·나. 구·틔·야 ·노·ᄒᆞ·야 ·말·라.

[客] ·이·러·면 :네 ·이 ᄆᆞᆯ ·글·월 :내·여다·가 ·더 :사·ᄅᆞᆷᄃᆞ·려 무·러 ·처·섬·의 :뎡·ᄒᆞᆫ 갑·새·셔 닷 량 은·을 더·러 :내:여 므르는 갑:새 :헤·오 ·글·월 ·믜·혀[15] ᄇᆞ·리라. ·이 ·ᄆᆞᆯ 믈·러·다. 은 여·듧 량 ·갑·시 ·들어·든 네 바·다 잇ᄂᆞᆫ 즈ᇝ·갑·도 모·도·와 ᄒᆞᆫ :돈 :두 ·푼·이·로소·니 ·ᄯᅩ 믈·러 ·오·라.

[牙] 그·러·면 도로 ·내여 너 :주·마. 네 :다 예·셔 ·기·들우라. ·우·리 ·글·월 벗·기·라 ·가·노·라.

[客] ᄆᆞ·스ᄆᆞ·려 ·너 기·들·우·료? 우리 ᄆᆞᆯ 모·라 ·하·츄·에 草料 쟝·망ᄒᆞ·라[16] ·가·노·라. :네 ·글·월 벗·겨·든 ᄅᆡ·실 ·우·리 하·츄·로 보·내여라. 서르 ·여·희·여 나·니·라.[17]

---

11) '명·ᄇᆡᆨ·이'는 "명백(明白)하게"임.

12) 'ᄒᆞ다·가 ᄆᆞ·리 :됴·홈 구·주·므·란 살 ·님·재 :제 보·고 몬져 므르져 ·ᄒᆞᄂᆞ니·란 은 닷량 ·벌·ᄒᆞ·져'는 말 매매계약서에 쓰인 내용이다. 제67화의 매매 계약서를 참조할 것.

13) '구의옌 ·인·을 믿·고 아·ᄅᆞ·매·ᄂᆞᆫ 긔·약·을 미·들 거·시:니'는 원문 '官憑印信 私憑要約'의 언해로서 "관청에서는 도장을 믿고 사사로운 일에는 약속을 믿을 것이니"의 뜻으로 당시의 속담임. '아·ᄅᆞ·매·ᄂᆞᆫ'은 '아·ᄅᆞᆷ(私) + -·애(처격) + -·ᄂᆞᆫ(주제격)'의 형태구성이고 '긔·약'은 "기약(期約), 약속"을 말함.

14) '그:제어·니'는 '그저(是) + -·ㅣ + -어·니'의 형태구성으로 "그대로다, 안될 것 없다"의 뜻. 성조가 평성임을 주의할 것. 제68화 주7 참조.

15) '·믜·혀'는 "무너뜨리다, 없애버리다, 찢어버리다"의 뜻.

16) '쟝·망ᄒᆞ·라'는 "장만하러, 마련하러"의 뜻. <老諺>에서는 이미 '장만ᄒᆞ라'임.

17) '나·니·라'는 "나가 다니다"의 뜻. '나-(出) + ·니-(行)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의 복합동사임.

(老諺) 제69화 네 ᄆᆞᄅᆞ고져 ᄒᆞᄂᆞ다?

[客] 내 일즙[18] ᄀᆞ장 보디 아니ᄒᆞ엿더니 이 ᄆᆞᆯ이 본ᄃᆡ 병이 잇고나?

[牙] ᄆᆞ슴 병이 잇ᄂᆞ뇨?[19]

[客] 뎌 코힉셔 코 흐르니 코 내ᄂᆞᆫ ᄆᆞᆯ이로고나. 내 엇디 감히 가져 가리오? ᄆᆞ더니 너겨 가져 가면 다ᄅᆞᆫ ᄆᆞᆯ조차 다 뎐염ᄒᆞ여 해야디로다.

[牙] 이러면 네 ᄆᆞᄅᆞ고져 ᄒᆞᄂᆞ다?[20]

[客] 내 진실로 말고져 ᄒᆞ노라.

[牙] 네 임의 마다ᄒᆞ면 글월에 明白키 써시되[21] ᄒᆞ다가 ᄆᆞᆯ의 됴홈 구즘으란 살 님재 제 보고 몬져 믈으쟈 ᄒᆞᄂᆞ니란 은 닷 냥 벌ᄒᆞ쟈 ᄒᆞ얏ᄂᆞ니 구의ᄂᆞᆫ 인신을[22] 밋고 ᄉᆞᄉᆞᄂᆞᆫ[23] 언약을[24] 미들 써시니 네 은 닷 냥을 벌로 내여 뎌 ᄑᆞᆫ 님자ᄅᆞᆯ 주고 믈러가면 곳 올커니ᄯᆞ녀? 구틔야 노ᄒᆞ야 말라.

[客] 이러면 네 이 ᄆᆞᆯ 글월ᄅᆞᆯ 내여다가 뎌들ᄃᆞ려 무러 처엄 뎡ᄒᆞᆫ 갑새셔 닷 냥 은을 더러 내여 므르는 갑새 혜고 ᄡᅳᆯ월 믜여[25] ᄇᆞ리라. 이 ᄆᆞᆯ 믈러다 ᄒᆡ오니 은 여듧 냥 갑시니 네 바다 잇ᄂᆞᆫ ᄌᆞ름 갑도 모도와 ᄒᆞᆫ 돈 두 ᄑᆞᆫ이니 네 ᄯᅩ 도로 가져오라.[26]

[牙] 그러면 도로 너를 주마.[27] 네 다 예셔 기ᄃᆞᆯ오라. 우리 글월 벗기라 가노라.

[客] ᄆᆞ스ᄒᆞ라[28] 너를 기ᄃᆞᆯ오료? 우리 ᄆᆞᆯ 모라 햐쳐에 草料 쟝만ᄒᆞ라 가노라. ᄂᆡ일 다ᄃᆞ라[29] 우리 햐쳐로 보내여라. 서르 여희여 흣터디쟈.[30]

18) <飜老>에서는 '일·즉'임.
19) 이 구절은 원문 '有甚麽病'의 언해로서 <老諺>에만 삽입된 것으로 <原老>는 물론이고 <刪老>와 <飜老>에 없는 구절이다. 주1 참조.
20) <飜老>에서는 '·ᄒᆞ·노괴·여'임.
21) <飜老>에서는 '명·빅·이 ·쎳ᄂᆞ·니'임.
22) <飜老>에서는 '·인·을'임. "인(印), 인신(印信)"임.
23) <飜老>에서는 '아·ᄅᆞ·매·ᄂᆞᆫ'임.
24) <飜老>에서는 '긔·약·을'임.
25) <飜老>에서는 '·믜·혀'임.
26) <飜老>에서는 '믈·러 ·오·라'임.
27) <飜老>에서는 '·내여 너 :주·마'임.

(現代譯) 제69화 이 말은 물러주게

[말장수] 내가 미처 잘 보지 않았지만 이 말은 원래 병이 있었소. 저 코에 콧물이 흐르니 콧물 내는 말입니다. 내 어찌 사 갖고 갈 수 있겠소? 만일 괜찮다고 여기고 가져가면 다른 말까지 모두 전염되어 해어질 것입니다.

[중개인] 그럼 당신은 무르고자 하는 것이오?

[말장수] 나는 정말 아니할 것이오.

[중개인] 당신이 이미 그만두자고 한다면 계약서에 명백히 써 있는데 "만일 말이 좋고 나쁨에 대하여는 산 임자가 스스로 보았고 먼저 무르자는 사람은 은 다섯 냥으로 벌하자"고 하였으니 '관청에서는 도장으로 믿고 사사로운 일은 약속을 믿을 것'이란 속담처럼 당신은 벌금 다섯 냥을 내어서 판 사람에게 지불하고 무르면 곧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구태여 성내지 마시오.

[말장수] 그럼 당신 이 말의 계약서를 내어다가 저쪽 사람들에게 물어서 처음 정한 값에서 다섯 냥 은자를 덜어내어 무르는 값으로 계산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시오. 이 말은 물러주었소. 은자 여덟 냥 값이 들었으니 당신이 받은 중개료도 합해서 한 돈 두 푼(1錢 2分)이니 또 물러 주시오.

[중개인] 그러면 도로 내어서 당신을 주마. 당신들 모두 여기서 기다리시오. 우리 세금 내러 갑니다.

28) <飜老>에서는 'ᄆᆞ·스ᄆᆞ·려'임.
29) <飜老>에서는 'ᄅᆡ·실'임.
30) <飜老>에서는 '나·니·라'임.

[말장수] 무엇하러 당신을 기다리겠소? 우리는 말을 몰아서 숙소에 가서 말먹이 준비를 할 것이오. 당신이 세금 내는 일이 끝나면 내일 내 숙소로 계약서를 보내시오. 서로 헤어져 갑시다.

原文 제70화 涿州賣羊

[漢] 你這人蔘布疋, 不曾發落. 還有些時住裏. 我別沒甚買賣. 比及你賣布的其間, 我買些羊, 到涿州[1]地面賣去, 走一遭迴來, 咱們商量別買貨物如何?
[高] 這們時也好. 你買羊時, 咱們一處去來. 我也閑看價錢去.

—到街上立地其間, 一箇客人赶着一群羊過來—
[漢] 大哥, 你這羊賣麽?
[客] 可知賣裏. 你要買時, 咱們商量.

飜老 제70화 탁주(涿州) ᄯᅡ해 양 ᄑᆞᆯ라 가다

[漢] 네 ·이 人蔘·과 ·뵛필·ᄃᆞᆯ·ᄒᆞᆯ[2] 일·즉 디·텨[3] 아·니ᄒᆞ야 잇ᄂᆞ·녀? 당시·예[4] :져·그·나 이시·면 머·믈·로고나. ·내 ·별·히 :아:ᄆᆞ·란 홍정 :업·스·니 :네 ·뵈 ·ᄑᆞᆳ ᄀᆞᆯ·와[5] 그 ᄉᆞ·이 ·예 ·내 양 ·사 涿州ᄯᅡ·해[6] ·가 ·ᄑᆞᆯ·라 ·가 ᄒᆞᆫ 디·위 ᄃᆞᆫ·녀:오·리·라. ·우·리 ·다·티[7] 살 홍정ᄀᆞᅀᆞ·ᄆᆞᆯ[8]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니·오?
[高] ·이·러·면 ·ᄯᅩ :됴·토·다. :네 양 ·사거·든 ·우·리 ᄒᆞᆫ·ᄃᆡ 가·져. 나·도 :놀·며 ·갑 보·라 가·져.

—거·리·예 ·가 ·셔·실[9]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물[10] 양 모·라 :디·나·가·더·니—
[漢] ·큰형·님, 네 ·이 양·을 ·ᄑᆞᆯ·다?
[客] 그·리어·니. ·ᄑᆞᆯ·리·라. 너·옷 사·고·져커·든 ·우·리 :의논ᄒᆞ져.

老諺 제70화 羊을 사 涿州 ᄯᅡ히 ᄑᆞᆯ라 가

[漢] 네 이 人蔘과 布匹을[11] 일즙 디텨 아니ᄒᆞ야시니 당시롱[12] 저기 머믈미 이실로다.[13] 내 다ᄅᆞᆫ 아ᄆᆞ란 홍정 업스니 네 뵈 ᄑᆞᆯ믈 미처[14] 그 ᄉᆞ이예 내 羊을 사 涿州 ᄯᅡ히 가 ᄑᆞᆯ라 가 ᄒᆞᆫ 디위 ᄃᆞᆫ녀오리라. 우리 별로[15] 살 貨物을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뇨?
[高] 이러면 ᄯᅩ 됴토다. 네 양을 사거든 우리 ᄒᆞᆫᄃᆡ 가쟈. 나도 놀며 갑슬

---

1) '탁주(涿州)'는 직예순천부(直隸順天府)를 말한다. 진대(秦代)에는 상곡군(上谷郡), 위진(魏晉) 시대에는 범양군(范陽郡)이 있었고 원대(元代)에는 탁주로(涿州路)를 두었다(『老覽』). 북경(北京)에서 서남(西南) 쪽으로 약 50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원대(元代)의 역로(驛路)가 이곳에서 남쪽의 산동(山東) 방면으로 가는 길과, 서쪽의 산서(山西) 방면으로 가는 길로 갈라진다.
2) '·뵛필·ᄃᆞᆯ·ᄒᆞᆯ'은 고려인들이 가져온 모시 베를 말함. '(모시) ·뵈(布) + -ㅅ(사이 ㅅ) + 필(疋) + -·ᄃᆞᆯㅎ(복수) + -·ᄋᆞᆯ(대격)'의 형태구성으로 "모시 베의 여러 필들을"의 뜻.
3) '디·텨'는 '디·텨·ᄒᆞ다'의 부사형으로 "처치하다"의 뜻. 원문 '發落'의 언해임.
4) '당시·예'는 "아직, 그래도"의 뜻.
5) '·뵈 ·ᄑᆞᆳ ᄀᆞᆯ·와'는 '·뵈(布) + ·ᄑᆞᆯ(賣) + -ㅅ(사이 ㅅ) + ᄀᆞᆯ·와(幷)'의 형태구성으로 "베를 파는 동시에"의 뜻.
6) '涿州ᄯᅡ·해'는 "탁주땅에"의 뜻. 주1 참조.
7) '·다·티'는 "따로, 별도로"의 뜻.
8) '홍정ᄀᆞᅀᆞ·ᄆᆞᆯ'은 '홍정(賣買) + ᄀᆞᅀᆞ·ᄆᆞᆯ(管掌)'의 형태구성으로 "장사할 거리, 장사 감"을 말함.
9) '·가 ·셔·실'은 "가서 있을"의 뜻. '·가-(去) + -·셔 + 이·시-(在) + -ㄹ(관형사형)'의 형태구성임.
10) '물'은 "무리, 떼"를 말함.
11) <飜老>에서는 '·뵛필·ᄃᆞᆯ·ᄒᆞᆯ'임.
12) <飜老>에서는 '당시·예'임.
13) <飜老>에서는 '이시·면 머·믈·로고나'임.
14) <飜老>에서는 '·뵈 ·ᄑᆞᆳ ᄀᆞᆯ·와'임.
15) <飜老>에서는 '·다·티'임.

보라 가쟈.

—거리예 가셔실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무리 양을 모라 디나오거늘—

[漢] 큰형아! 네 이 羊을 ᄑᆞᆯ다?

[客] 그리어니. ᄑᆞᆯ리라. 네 사고져커든 우리 의논ᄒᆞ쟈.

(現代譯) 제70화 羊을 팔러 탁주(涿州)로

[중국인] 당신의 이 인삼과 베 필들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잠시 동안은 여기에 머물겠구나. 나는 별로 장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이 모시 베를 팔고 있는 사이에 나는 양을 사서 탁주(涿州) 땅으로 팔러 가서 한참 있다 오겠네. 우리 따로 살 장사 감들은 돌아와서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인]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당신이 양을 사러 간다면 우리 같이 갑시다. 나도 놀면서 값을 보러 갑시다.

—거리에 가 있는 사이에 한 상인이 한 떼의 양을 몰아 지나간다—

[중국인] 여보시오 친구, 당신 이 양을 팔 것이오?

[양몰이] 그렇습니다. 팔 것이오. 당신이 사려고 하면 우리 상담합시다.

(原文) 제71화 我濫賤賣與你

[漢] 這箇羝羊,1) 臊胡羊,2) 羯羊,3) 羖攊羔兒, 母羖攊, 共通要多少價錢?

[客] 我通要三兩銀子.

[漢] 量這些羊, 討這般大價錢. 好綿羊却賣多少?

[客] 討的是虛, 還的是實. 你與多少?

[漢] 你這們胡討價錢. 我還你多少的是?

[客] 你說的是. 這們, 便4)我減了五錢着. 你來.

[漢] 你休減了五錢. 你說老實價錢, 只一句兒話還你. 我與你二兩銀. 肯時便賣, 你不肯時赶將去 罷.

[客] 休要只說二兩. 你再添五錢, 賣與你.

[漢] 添不得. 肯時肯, 不肯時罷.

[客] 我是快性的, 撿好銀子來. 臨晚也, 我濫賤賣與你.

[漢] 火伴, 你再下處好去坐的着. 我赶着羊, 到涿州賣了, 便迴來.

(飜老) 제71화 내 네손ᄃᆡ 디우 ᄑᆞ라주마

[漢] ·이 수양, 아질게양,5) 악·대양,6) ·염·쇠 삿·기, ·암·염:쇼 모도·와 :언·머·만 갑·새 ·ᄑᆞᆯ·오져 ·ᄒᆞ·ᄂᆞ·다?

[客] ·내 :대·되 :석 ·량 은을 바·도리·라.

[漢] :혜·어·든 ·이·맛·감7) 양·의 ·이·런 ·큰 ·갑슬 바·도·려커시·니 :됴·ᄒᆞᆫ 털 :긴 양·ᄋᆞ:란 ·ᄯᅩ :언·메·예 ·ᄑᆞᆯ·고?

[客] ᄭᅬ·오ᄂᆞ·닌8) :거·즛 :이·리·오 가·프리·ᅀᅡ 진·짓 ·갑·시·니 :네 :언·메·나

1) '羝羊'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숫양, 또는 뿔이 있는 거세(去勢)한 양을 말한다(『老覽』).
2) '臊胡羊'은 "뿔이 있는 거세(去勢)하지 않은 양"을 말한다(『老覽』).
3) '羯羊'은 "거세한 숫양, 불깐 숫양"을 말한다.

4) '這們, 便我減了五錢着'은 <飜老>에서 '這們便, 我減了五錢着'으로 구절을 띄었다. '便'이 다음 구절에 오는 것을 잘못 이해하였다.
5) '아질게양'은 "어린 양"을 말함. '아질게'는 몽고어 'ajirɣai'의 차용어로 "어리다"의 뜻. 제61화 주32 참조.
6) '악·대양'은 "거세한 양, 불깐 양"을 말함. '악·대'는 몽고어 'aqda'(거세하다)의 차용어임. 제61화 주2 참조.
7) '·이·맛·감'은 "이만큼, 이 정도의"의 뜻.
8) 'ᄭᅬ·오ᄂᆞ·닌'은 'ᄭᅬ·오-(誘) + -ᄂᆞ-(현재) + -ㄴ(관형사형) +·이(형식명사) + -ㄴ(주제격)'의 형태구성으로 "유혹하는 것은"의 뜻.

풀·다?

[漢]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도려커·든 ·내 너·를 :언·메·나 ·주·워·사 올·홀·고?

[客] 네 닐·움·도 ·올·타. ·이·러·면 ·내 닷 :돈·만 더·로마. ·이바.[9]

[漢] :네 닷 :돈 ·덜·어·라 :말·오, :네 고·디시·근 ·갑·슬 니르·면 그저 훈 :마·래 너·를 가·포마. ·내 너·를 :두 ·량 은·만 ·주·리·니 ·즐·기거든 ·곧 ·풀·오 :네 ·말·어·든 모·라 가·져 ·가·도 므던ᄒ·다.

[客] :다·믄 :두 ·량·만 니ᄅ·디 :말오 :네 ·또 닷 ·돈·만 더·ᄒ·야·든 네게 ·프·로마.

[漢] 더 주·디 :몯·ᄒ·리로·다. ·즐·기거·든 ·즐·기·고 ·슬·커·든 마·로덕·여.

[客] ·나·는 :셩 섀룬[10] :사·ᄅ·미·니 ·됴·흔 은·으·로 골·히·여 가·져 ·오·라. :나·죵·애 다ᄃ·라[11] ·내 네:손·ᄃᆡ 디·우[12] ·프·라 ·주·마.

[漢] :버다! :네 ·또 ·하·츄·에 :됴·히 ·가 안·자 이시·라. ·내 양 모·라 涿州 가 ·풀·오 ·즉·재 ·도·라·오·리·라.

(老諺) 제71화　내 너손ᄃᆡ 디워 프라 주마

[漢] 이 수양, 아질개양, 악대양, 염쇼삿기, 암염쇼 모도아 언머 갑싀 풀려 ᄒᆞᄂᆞᆫ다?

[客] 내 대되 석 냥 은을 바드리라.

[漢] 혜아리건대[13] 이만싼[14] 양에 이런 큰 갑슬 바드려 ᄒ면[15] 됴흔 소옴

9) '이·바'는 원문 '你來'의 언해로 "여보시오, 여보"의 뜻.
10) ':셩 섀룬'은 "성질이 급한"의 뜻. 원문 '快性的'의 언해다.
11) ':나·죵·애 다ᄃ·라'는 '臨晩也'의 언해로서 "파장이어서, 끝에 이르러서"의 뜻. 원래의 뜻은 "저녁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져서"의 뜻임.
12) '디·우'는 "떨어지게, 값 싸게, 지게"의 뜻.
13) <飜老>에서는 ':혜·어·든'임.
14) <飜老>에서는 '·이·맛·감'임.

티양은[16] 또 언머에 풀다?

[客] 뫼오ᄂᆞ니ᄂᆞᆫ 거즛 거시오 갑ᄂᆞᆫ이야 진짓 거시라. 네 언머나 줄다?[17]

[漢]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 ᄒ니 내 너롤 언머나 갑파야 올홀고?

[客] 네 니롬도 올타. 이러면 내 닷 돈만 덜오마. 이바.

[漢] 네 닷 돈을 더디 말고[18] 네 고디식ᄒᆞᆫ 갑슬 니ᄅ면 그저 ᄒᆞᆫ 말에 네게 갑프마. 내 너롤 두 냥 은을 줄 써시니 즐기거든 풀고 네 즐겨 아니커든[19] 모라가미 므던ᄒ다.

[客] 다만 두 냥만 니ᄅ디 말고 네 또 닷 돈만 더ᄒ야든 네게 풀마.

[漢] 더 주디 못ᄒ리로다. 즐기거든 즐기고 슬커든 말라.[20]

[客] 나ᄂᆞᆫ 셩 섀룬 사ᄅᆞᆷ이니 됴흔 은을 골히여 오라. 나죵애 다ᄃ라 내 너 손ᄃᆡ 디워 프라 주마.

[漢] 벗아! 네 또 햐쳐에 됴히 가 안자시라. 내 양 모라 涿州 가 풀고 즉시 도라오리라.

(現代譯) 제71화 당신에게 싸게 팔아주마

[점주인] 이 숫양, 어린 숫양, 불깐 양, 염소 새끼, 암컷 양 모두 해서 얼마 값에 팔고자 합니까?

[양장수] 내가 전부 석 냥 은자를 받겠습니다.

[중국인] 생각해 보시오. 기껏 이 정도의 양으로 그렇게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털이 긴 양(綿羊)일랑 얼마에 팔 것인가요?

[양장수] '부르는 것은 거짓이고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값'이니 당신

15) <飜老>에서는 '바·도·려커시·니'임.
16) <飜老>에서는 '털 :긴 양·으:란'임.
17) <飜老>에서는 '·풀·고'임.
18) <飜老>에서는 '·덜·어·라 :말·오'임.
19) <飜老>에서는 '·말·어·든'임.
20) <飜老>에서는 '마·로덕·여'임.

은 얼마나 내겠소?

[중국인]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값을 받으려고 하니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어야 옳겠소이까?

[양장수] 당신 말도 옳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닷 돈만 덜겠습니다. 여보시오, 어떠시오?

[중국인] 당신이 다섯 돈을 깎아준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정당한 값을 말하면 그저 한 마디로 당신에게 지불할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두 냥을 줄 것이니 좋거든 곧 팔고 당신 그만 두겠으면 몰아가도 좋아요.

[양장수] 두 냥만 말하지 말고 당신 다섯 돈만 더 내면 당신에게 팔겠소.

[중국인] 더 주지 못하겠소. 좋으면 좋고 싫거든 그만 두시오.

[양장수]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니 좋은 은자로 가려서 가져오시오. 파장이라 당신에게 싸게 팔아준 것이오.

—중국인이 고려인을 보고 탁주(涿州)에 동행하기를 거절하면서—

[중국인] 친구여, 자네는 숙소에 잘 쉬고 있게. 나는 양을 몰고 탁주(涿州)에 가서 팔고 즉시 돌아오겠네.

原文 제72화 你要甚麽綾子?

[漢] 我恰尋思來, 這幾箇羊也, 當走一遭. 旣要去時, 我有些餘剩的銀子, 閑放着怎麽? 一發買段子[1]將去?

[高] 咱們鋪裏商量去來.

[漢] 賣段子的大哥, 你那天靑胸背,[2] 柳靑膝欄,[3] 鴨綠界地雲, 鸚哥綠寶相花, 黑綠天花嵌八寶, 草綠蜂赶梅, 栢枝綠四季花, 葱白骨朶雲, 桃紅雲肩,[4] 大紅織金,[5] 銀紅西蕃蓮, 肉紅纏枝牡丹, 閃黃筆管花, 鵝黃四雲,[6] 柳黃穿花鳳, 麝香褐膝欄,[7] 艾褐玉塼堦, 密褐光素, 鷹背褐海馬, 茶褐暗花, 這們的紵絲和紗羅都有麽?

[主] 客人, 你要南京的那杭州的那蘇州, 的那?

[漢] 大哥, 南京的顔色好又光細, 只是不耐穿. 杭州的經緯相等. 蘇州的十分澆薄, 又有粉飾不牢 壯. 你有好綾子麽?

[主] 你要甚麽綾子?

[漢] 我要官綾子.

[主] 那嘉興綾子不好? 客官, 你要絹子麽? 我有好山東大官絹, 謙涼絹, 易州

---

1) '段子'는 '緞子'라고도 쓴다. 한 벌의 길이로 재단(裁斷)한 '段疋'(옷감)의 형태로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직물(絹織物)을 총칭하므로 '옷감'의 뜻이다.

2) '天靑胸背'는 '하늘색(天靑)'의 '흉배(胸背)'를 말한다. '흉배(胸背)'는 가슴과 등 부분에 둥그렇게 용(龍) 등의 수를 놓은 옷감이다. 『원사(元史)』(권105)에 "일반적으로 단필(段疋, 옷감)의 직조(織造)에 주신(周身, 体中을 말함)의 대룡(大龍)은 금하고, 흉배(胸背)의 소룡(小龍)은 금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3) '柳靑膝欄'은 '버드나무빛 푸른색(柳靑)'의 '스란(膝欄)'을 말한다. '스란(膝欄)'은 치마의 옷감으로 무릎쯤에 무늬를 놓은 비단을 말함.

4) '桃紅雲肩'은 '복숭앗빛(桃紅)'의 '어깨걸이(雲肩)'를 말함. '도홍(桃紅)'은 "복숭앗빛의 붉은 색"을 말한다. 도색(桃色)을 말하며 『철경록(輟耕錄)』(권11)에도 보인다. '운견(雲肩)'은 "등에서 어깨로 걸치는 숄 같은 것"을 말한다. 『원사(元史)』(권78) 「여복(輿服)」 '의위복색(儀衛服色)'조에 "雲肩의 制는 四雲垂와 같고, 파란 녹색, 黃羅五色인데, 金을 박는다"라는 설명이 있다. 또한 宮女의 복장으로서는 『원사(元史)』(권71) 「예악(禮樂)」의 '악대(樂隊)'조에 부녀(婦女) 20명이 "寬袖衣에 雲肩, 霞綬, 玉佩를 가함"이라고 있다.

5) '大紅織金'은 "진한 붉은 색의 금실로 짠 비단"을 말함. '다홍(大紅)'의 "진한 붉은 색"은 당시 표준적인 붉은 색으로 명(明) 송은성(宋応星)의 『천공개물(天工開物)』(권3)에 "大紅色은 紅花餠 一味를 사용하여, 烏梅水로 달이고 또 堿水로 몇 번 헹군다. 또한 稻藁灰(짚을 태운 재)로 맑은 물(堿水)을 대신해도 功用은 같다. 헹구면 헹굴수록 색깔은 선명해진다"라는 설명이 있다.

6) '鵝黃四雲'은 "누른색의 비단에 네 개의 구름을 수놓은 비단"을 말한다. '아황(鵝黃)'은 거위(鵞鳥)의 물갈퀴와 같은 선명한 누른색을 말한다. 『천공개물(天工開物)』(권3)에 "鵝黃色은 노란 움(黃蘗)을 삶아 염색하고 청대(靛)의 물로 위를 덮는다"라는 설명이 있다.

7) '麝香褐膝欄'은 '사향갈색(麝香褐色)'의 '스란(膝欄) 비단'을 말함. '사향차갈(麝香茶褐)'도 "사향의 갈색(麝香褐)"을 가리킨다. 『철경록(輟耕錄)』(권11)에 "土黃·檀子를 사용하고 煙墨을 넣어 섞는다"라고 그 제법이 적혀 있다.

絹, 倭絹, 蘇州絹, 水光絹, 白絲絹.

[漢] 我只要大官絹, 白絲絹, 蘇州絹, 水光絹. 其餘的都不要. 你有好絲麽? 我多要些.

[主] 要甚麽絲?

[漢] 我要白湖州絲, 花拘絲. 那定州絲不要.

(飜老) 제72화 네 므슴 고로를 과ᄒᆞᄂᆞ다?

[漢] ·내 앗·가 ᄉᆡᆼ각:호·니 ·이 아:니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ᆫ·닐 거시·니 ᄒᆞ·마 :가·려ᄒᆞ거·니 내게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히미 ·두·워 므·슴ᄒᆞ·료? 이믜셔 :비·단 ·사 가지·고 가·쟈.

[高] ·우·리 ·푸·에[8] :혜·아·리·라 가·져.

[漢] :비·단 ·ᄑᆞ·ᄂᆞᆫ ·큰형·님! 네 그 텬쳥비·쳇 ·흉·븨ᄒᆞᆫ :비·단·과[9] :류쳥비·쳇 무룹도·리·로 문ᄒᆞᆫ :비·단,[10] ·야투·루비·쳇 ·벽드·르헤 운문·ᄒᆞ·욘 :비·단,[11] :연·초·록·비체 ·보·샹화문 ·ᄒᆞ·욘 :비·단,[12] ·연·야투·루비·체 텬화·의 팔·보 ·ᄢᅵᄒᆞᆫ 문·앳 :비·단,[13] ·초·록비·체 :버·리 ᄆᆡ화 버·므·러 잇·ᄂᆞᆫ 문·읫 :비·단,[14] 디·튼 ·초·록·비·체 :ᄉᆞ·계·화문ᄒᆞᆫ ·비단,[15] ·옥·ᄉᆡᆨ

비·체 :굴·근 ᄣᅦ·구·룸문·ᄒᆞ·욘 :비단,[16] 도홍비·체 엇·게·예 ·구·룸문ᄒᆞ·고 년·뒨 :쇼·화 문ᄒᆞᆫ :비·단,[17] ·다홍비·체 ·금 ·드·려 ·ᄧᆞᆫ :비·단,[18] 은홍비·체 효·근 련·곳 문ᄒᆞᆫ :비 ·단,[19] ·슉홍비·체 너·츨·모·란문ᄒᆞᆫ :비·단,[20] :연류:황비체 ·붇곳문ᄒᆞᆫ :비·단,[21] 디·튼 류·황비·체 :ᄉᆞ운문ᄒᆞᆫ :비·단,[22] 노·론비·체 쳔화:봉문·ᄒᆞ·욘 :비·단,[23] :샤·향비·쳇 ·스란문 ·비·단,[24] ·�비·체 ·벽·드·르문 :비·단,[25] 노론 ·차·할믠 :비·단,[26] :ᄆᆡ

---

8) '·푸·에'는 '·푸(鋪) + -·에(처격)'의 형태로 "점포에, 가게에"의 뜻임. <老諺>에서는 '푸ᄌᆞ에(鋪子)'로 바뀌었음. 중국어의 차용임.

9) '텬쳥비·쳇 ·흉·븨ᄒᆞᆫ :비·단'은 '天靑胸背'를 말함. "하늘빛의 흉배를 한 비단"을 말함. 주2 참조.

10) ':류쳥비·쳇 무룹도·리·로 문ᄒᆞᆫ :비·단'은 '柳靑膝欄'을 말함. "버들빛의 푸른 스란 무늬의 비단"을 말함. 주3 참조.

11) '·야투·루비·쳇 ·벽드·르헤 운문·ᄒᆞ·욘 :비·단'은 '鴨綠界地雲'을 말하는 것으로 "초록빛의 벽돌에 구름무늬를 놓은 비단"이란 뜻.

12) ':연·초·록·비체 ·보·샹화문·ᄒᆞ·욘 :비·단'은 '鸚哥綠寶相花'의 언해. "연초록빛의 보상화(寶相花)를 무늬로 한 비단"을 말함. '寶相花'는 당초(唐草) 무늬의 주제가 되는 가상적인 불가(佛家)의 꽃임.

13) '·연·야투·루비·체 텬화·의 팔·보 ·ᄢᅵᄒᆞᆫ 문·앳 :비·단'은 '黑綠天花嵌八寶'의 언해로서 "검은 초록빛 천화(天花)의 팔보(八寶)를 상감한 비단"이란 뜻. '·ᄢᅵᄒᆞᆫ'은 "상감한, 상안한"의 뜻.

14) '·초·록비·체 :버·리 ᄆᆡ화 버·므·러 잇·ᄂᆞᆫ 문·읫 :비·단'은 '草綠蜂赶梅'의 언해로서 "초록빛의 벌이 매화(梅花) 꽃에 걸려 있는 무늬의 비단"을 말함. '버·므·러'는 "걸리어, 얽매어"의 뜻.

15) '디·튼 ·초·록·비·체 :ᄉᆞ·계·화문ᄒᆞᆫ ·비단'은 '栢枝綠四季花'를 언해한 것으로 "짙은 초록빛에 네 계절의 꽃을 무늬로 박은 비단"을 말함. '栢枝綠'은 "측백나무 가지의 초록색"이므로 짙은 녹색을 말함.

16) '·옥·ᄉᆡᆨ비·체 :굴·근 ᄣᅦ·구·룸문·ᄒᆞ·욘 :비단'은 '葱白骨朶雲'을 언해한 것으로 "파뿌리와 같은 옥색 빛에 굵은 떼구름을 무늬로 한 비단"이란 뜻.

17) '도홍비·체 엇·게·예 ·구·룸문ᄒᆞ·고 년·뒨 :쇼·화문ᄒᆞᆫ :비·단'은 '桃紅雲肩'을 언해한 것으로 "도홍빛의 어깨걸이에 구름무늬를 하고 보통 곳은 작은 꽃무늬를 한 비단"이란 뜻. '년·뒨'은 "보통의 곳은, 여느 곳은, 다른 곳은"의 뜻. ':쇼·화문ᄒᆞᆫ'은 "소화문(小花紋)한"임. 주4 참조.

18) '·다홍비·체 ·금 ·드·려 ·ᄧᆞᆫ :비·단'은 '大紅織金'을 언해한 것으로 "짙은 붉은 색에 금실을 드려서 짠 비단"임. 주5 참조.

19) '은홍비·체 효·근 련·곳 문ᄒᆞᆫ :비·단'은 '銀紅西蕃蓮'을 언해한 것으로 "은홍(銀紅)빛의 작은 연꽃을 무늬로 박은 비단"을 말함. 원문의 '西番蓮'은 '大麗花'와 같다고 했으나 '大麗花'는 '달리아(Dlia)'를 음차한 것이다. '달리아'를 '西番蓮'이라 하고 그것을 '효·근 련곳(작은 연꽃)'으로 본 것 같다.

20) '·슉홍비·체 너·츨·모·란문ᄒᆞᆫ :비·단'은 '肉紅纏枝牡丹'을 언해한 것으로 "고기 빛깔의 붉은색(肉紅)에 모란꽃과 넝쿨을 무늬로 한 비단"을 말함.

21) ':연류:황비체 ·붇곳문ᄒᆞᆫ :비·단'은 '閃黃筆管花'를 언해한 것으로 "연한 유황빛의 붓꽃을 무늬로 한 비단"을 말함.

22) '디·튼 류·황비·체 :ᄉᆞ운문ᄒᆞᆫ :비·단'은 '鵝黃四雲'을 언해한 것으로 "짙은 유황(硫黃)빛의 네 구름을 무늬로 한 비단"을 말함. 원문 '鵝黃'의 색깔에 대하여는 주6 참조.

23) '노·론비·체 쳔화:봉문·ᄒᆞ·욘 :비·단'은 '柳黃穿花鳳'의 언해로서 "노란빛의 천화봉(穿花鳳)을 무늬로 한 비단"을 말함.

24) ':샤·향비·쳇 ·스란문 ·비·단'은 '麝香褐膝欄'의 언해로서 "사향(麝香) 갈색(褐色)의 스란 비단"을 말함. 주7 참조.

25) '·ᄡᅮᆨ비·체 ·벽·드·르문 :비·단'은 '艾褐王塼塔'의 언해로서 "쑥빛의 벽돌을 무늬

둥비·쳇 ·차·할 :히·마문 :비·단,[27] :감·찰 ·스·믠문 :비·단,[28] ·이·런 :비·단·과 사·와[29] 로·왜[30] :다 잇ᄂᆞ·녀?

[主] 나·그·내·여! :네 南京·치·를 과·ᄒᆞ[31]·ᄂᆞ·녀? 杭州[32]·치·를 과·ᄒᆞ·ᄂᆞ·녀? 蘇州[33]·치·를 과·ᄒᆞ·ᄂᆞ·녀?

[漢] ·큰형·님 남경·치·는 ·ᄆᆞ·리 :됴·코 ·ᄯᅩ ·빗·나·고 ·ᄀᆞ·놀어·니·와 :다·믄 오·래 닙·디 :몯·홀 거·시·오, 杭州·치·ᄂᆞᆫ ·놀·씨[34] ᄒᆞᆫ가·지·오, 蘇州·치·ᄂᆞᆫ ᄀᆞ·장 :엷·고, :ᄯᅩ 푼·ᄌᆞ[35] 머겻·고 굳·디 아·니ᄒᆞ·니·라. :네 :됴·ᄒᆞᆫ ·고·로[36] 잇ᄂᆞ·녀?

[主] :네 므·슴 고·로·를 과·ᄒᆞ·ᄂᆞᆫ·다?

[漢] ·내 구의나·깃 고·로·를 과·ᄒᆞ·노·라. ·더 嘉興[37]·의·셔 난 고·로·ᄂᆞᆫ

로 한 비단"을 말함.

26) '노론 ·차·할 믠:비·단'은 '密褐光素'은 "노란 차갈(茶褐)색 무늬의 비단"을 말함. '·차·할'은 '茶褐'을 말함.

27) ':매 둥비·쳇 ·차·할 :히·마문 :비·단'은 '鷹背褐海馬'의 언해로 "매의 등과 같은 다갈색의 해마(海馬) 무늬를 넣은 비단"을 말함.

28) ':감·찰 ·스·믠 문 :비·단'은 '茶褐暗花'의 언해로 "다갈색에 스며든 무늬가 있는 비단"을 말함. 원문 '暗花'는 "뚜렷이 안 보이게 한 모양", "비쳐 보이게 짠 모양"의 뜻이다. 『원사(元史)』(권78) 「여복(輿服)」조에 "서인(庶人)이 자황(赭黃)을 입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오직 암화(暗花)의 저사(紵糸)·주(紬)·능(綾)·라(羅)·모직물(毛織物)만을 입도록 허용함"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것이 일반 서민의 복장에 쓰이는 옷감임을 알 수 있다.

29) '사·와'는 "사(紗)와, 비단과"를 말함.

30) '로·왜'는 "라(羅)와가, 깁과가"임, '·왜'는 '-·와(공동격) + -ㅣ(주격)'의 복합격으로 '-와가'의 뜻.

31) '과·ᄒᆞ-'는 "칭찬하다, 부러워하다, (상품을) 찾다"의 뜻.

32) '杭州'는 원대(元代)에 항주로(杭州路)를 두었고 명대(明代)에 항주부(杭州府)가 되었다. 『老覽』(下:2앞) 참조.

33) '蘇州'는 원대(元代)에 평강로(平江路)가 되었고 명대(明代)에 소주부(蘇州府)가 되었다. 『老覽』(下:1뒤) 참조.

34) '·놀·씨'는 "날 줄(經, 가로의 줄)과 씨 줄(緯, 세로 줄)"을 말함.

35) '푼·ᄌᆞ'는 "풀"을 말함. '푼·ᄌᆞ 머겻·고'는 "풀을 먹여 빳빳하게 한 것"을 말함.

36) '·고·로'는 "綾, 무늬가 있는 비단"을 말함.

37) '嘉興'은 원대(元代)에 '가흥로(嘉興路)'를 두었고 명대(明代)에 가흥부(嘉興府)를 두었다. 능(綾)을 많이 생산하는 고장임. 『老覽』(下:2뒤) 참조.

:됴·티 아·니ᄒᆞ·니·라.

[主] 나·그·내·여! :네 :깁 과홀·다? 내게 :됴·ᄒᆞᆫ 山東셔 난 ·큰 구의나·깃 :깁:과 얼믠 :깁·과 易州[38]·셔 난 조·븐 :깁:과 :예[39] :깁·과 蘇州ㅅ:깁·과 제·ᄆᆞ·레 미·론 ·흰 :깁[40]·과 ·힌 싱:깁[41]·과 잇·다.

[漢] ·내 :다·믄 大官絹·과 白絲絹·과 蘇州絹·과 水光絹·과·을 ·과·ᄒᆞ·노·라. 그 나·ᄆᆞ·니·ᄂᆞᆫ :다 ·마·다. :네 :됴·ᄒᆞᆫ :실 잇ᄂᆞ·녀? ·내 :마·니 ᄒᆞ·고·져 ·ᄒᆞ·노·라.

[主] ᄆᆞ·슴 시·를 과·ᄒᆞ·ᄂᆞᆫ·다?

[漢] ·내 ·힌 ᄀᆞ·장 :ᄀᆞ·ᄂᆞᆫ 湖州[42]셔 ·난 :실·와 :굵·고 ·곳 다ᄅᆞᆫ :실[43]·과를 ᄒᆞ·고·져 ·ᄒᆞ·노·라. 그 定州·셔 난 :실·란 :마·다. ·이 :비·단·과 고·로·와 :깁·과 사·와 로·돌·햇 것·돌·홀.

老諺 제72화 네 므슴 綾을 ᄒᆞ려 ᄒᆞᄂᆞ다

[漢] 내 앗가 싱각ᄒᆞ니 이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ᆫ닐 거시니 이믜 가려 ᄒᆞ면 내게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힘이 노하 두워 므슴ᄒᆞ료? 이믜셔 비단 시[44] 가져가쟈.

[高] 우리 푸ᄌᆞ에[45] 혜아리라 가쟈.

[漢] 비단 ᄑᆞᄂᆞᆫ 큰형아! 네 더 텬청 빗체 흉븨ᄒᆞᆫ 비단과 류쳥 빗체 무룹

38) '易州'는 보정부(保定府)에서 서쪽으로 1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금대(金代)에 중도로(中都路)에 속했다가 원대(元代)에 대도로(大都路)에 속하게 되었음. 후에 다시 보정부(保定府)에 속함. 『老覽』(下:2앞) 참조.

39) ':예'는 '왜(倭)'를 말함.

40) '제·ᄆᆞ·레 미·론 ·흰 :깁'은 '水光絹'을 말함.

41) '·힌 싱:깁'은 '白絲絹'을 말함.

42) '湖州'는 한(漢) 초에 형국(荊國)에 속했고 삼국(三國) 시대에 오(吳)가 오흥군(吳興郡)이라 하였다. 수대(隋代)에 湖州를 두었고 원대(元代)에 로(路)를 두었으며 명대(明代)에 부(府)를 두었다. 『老覽』(下:2뒤) 참조.

43) ':굵·고 ·곳 다ᄅᆞᆫ :실'은 '花拘絲'의 언해로서 "굵고 꽃을 단 실"을 말함.

44) '시'는 '사'의 목판이 마모한 것으로 보임.

45) <飜老>에서는 '·푸·에'임.

도리로 문훈 비단, 압두록 빗체[46] 벽드르헤 운문훈[47] 비단, 연초록 빗체 보샹화문훈 비단, 연야토룩 빗체 텬화의 팔보 쪄훈 문엣 비단, 초록 빗체 버리 미화 뜨로는[48] 문엣 비단, 디튼 초록 빗체 亽계화 문훈 비단, 옥식[49] 빗체 굴근 뻬구룸 문훈 비단, 桃紅 빗체 엇게예 구룸 문훈 비단, 다홍 빗체 금 드려 뽄 비단, 은홍 빗체 西蕃蓮[50] 문훈 비단, 肉紅 빗체 너출모란 문훈 비단, 연뉴황 빗체 붓곳 문훈 비단, 디튼 뉴황 빗체 四雲 문훈 비단, 노른 빗체 穿花鳳 문훈 비단, 샤향 빗체 슬란 문훈 비단, 빡 빗체 벽드르 문훈 비단. 노론 차할 빗체 비단, 마등[51] 빗체 히매 문훈 비단, 감찰 빗체 스뮌 문훈 비단, 이런 비단과 紗羅ㅣ[52] 다 인느냐?

[主] 나그내 네, 南京 치를 훗려 훈는다?[53] 杭州 치를 훗려 훈는다? 蘇州 치를 훗려 훈는다?

[漢] 큰형아! 南京 치는 빗치 됴코 쏘 빗나고 ᄀ놀거니와 다만 오래 닙디 못훌 써시오, 杭州 치는 뻬놀히[54] 굿고, 蘇州 치는 ᄀ장 엷고, 쏘 픈즈머것고 질긔디[55] 아니훗니라. 네게 됴훈 綾이[56] 인느냐?

[主] 네 므슴 綾을 훗려 훈는다?

[漢] 내 구의나기 綾을 훗려 훗노라. 더 嘉興綾은 됴티 아니훗니라.

[主] 나그내야! 네 깁을 훌다? 내게 됴훈 山東셔 난 구의ㅅ 나기 깁과 얼뮌 깁과 易州셔 난 조븐 깁과 왜깁과 蘇州 깁과 제믈엣 깁[57]과 흰 싱깁이 잇다.

46) <飜老>에서는 '·야투·루비·쳇'임.
47) <飜老>에서는 '운문·훗·욘'임.
48) <飜老>에서는 '버·므·러 잇·는'임.
49) '옥식'은 '옥쉭'의 오각으로 보임.
50) <飜老>에서는 '효·근 련·곳'임.
51) <飜老>에서는 ':매 둥'임. '마등'은 착오로 보임.
52) <飜老>에서는 '사·와 로·왜'임.
53) <飜老>에서는 '과·훗·느·녀'임. 이하 같음.
54) <飜老>에서는 '·놀·씨'임.
55) <飜老>에서는 '굳·디'임.
56) <飜老>에서는 '·고·로'임. 이하 같음.
57) <飜老>에서는 '제·므·레 미·론 ·흰 :깁'임.

[漢] 내 다만 大官絹과 白絲絹과 蘇州絹과 水光絹을 훗려 훗노라. 그 나믄 이는 다 마다. 네게 됴훈 실 인느냐? 내 만히 훗고져 훗노라.

[主] 므슴 실을 훗려 훈는다?

[漢] 내 흰 湖州셔 난 실과 굵고 것다론[58] 실을 훗고져 훗노라. 더 定州ㅅ 실은 마다.

現代譯 제72화 당신 무슨 비단을 사려는고?

[중국인] 내 지금 생각났는데, 이 몇 마리 양들도 한참 동안 팔러 가야 되고, 어차피 간다면 나한테 남은 돈이 있으니 심심하게 두어서 무엇 하겠나? 이제 비단 사 가지고 가세.

[고려인] 그럼 옷감 집에 거래하러 가 보십시다.

—옷감 가게에서—

[중국인] 비단 파는 주인아저씨! 당신 집에 하늘색의 흉배가 있는 비단과 유청색(柳青色)의 스란 비단, 초록색의 벽돌에 구름무늬를 놓은 비단, 연초록빛의 보상화(寶相花)를 무늬로 한 비단, 검은 초록빛의 천화(天花)의 팔보(八寶)를 상감한 비단, 초록빛의 벌이 매화(梅花)에 걸려 있는 무늬의 비단, 짙은 초록색에 네 계절의 꽃을 무늬로 한 비단, 옥색빛의 굵은 떼구름을 무늬로 한 비단, 도홍빛의 어깨걸이에 구름무늬를 한 비단, 짙은 붉은색에 금실을 드려서 짠 비단, 은홍(銀紅)빛에 작은 연꽃을 무늬로 한 비단, 살코기 빛깔의 넝쿨 모란꽃을 무늬로 한 비단, 연유황(硫黃)빛의 붓꽃을 무늬로 한 비단, 짙은 유황(硫黃)빛의 네 구름을 무늬로 한 비단, 노란빛에 천화봉(穿花鳳)을 무늬로 한 비단, 사향(麝香) 갈색(褐色)의 스란 무늬 비단, 쑥빛의 벽돌을 무늬로 한 비단, 노란 다갈색(茶褐色)의 맨 무늬 비단, 매의 등 색깔에 다갈색 해마(海

58) <飜老>에서는 '·곳 다론'임.

馬) 무늬의 비단, 다갈색에 스며든 무늬가 있는 비단, 이런 비단과 사(紗)와 로(羅)가 다 있는가?

[점주인] 손님! 당신은 남경(南京)의 것을 찾으십니까? 항주(杭州)의 것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소주(蘇州)의 것을 찾으십니까?

[중국인] 주인아저씨, 남경 것은 물이 좋고 또 빛나고 가늘지만 다만 오래 입지 못할 것이고 항주(杭州) 것은 날줄과 씨줄이 똑같고 소주(蘇州) 것은 제일 엷고 또 풀을 먹였고 튼튼치 않습니다. 당신네 가게에 좋은 비단 있는가?

[점주인] 손님이 무슨 비단을 찾으십니까?

[중국인] 나는 관청에서 낸 비단을 찾습니다. 저기 가홍(嘉興)에서 난 비단은 좋지 않아요.

[점주인] 손님! 당신은 비단을 찾으십니까? 내게 좋은 산동(山東)에서 난 관청의 비단과 성글게 짠 비단과 이주(易州)에서 난 좁은 비단과 일본 비단, 소주(蘇州) 비단, 제 물에 하얀 비단과 하얀 생 비단이 있습니다.

[중국인] 나는 다만 대관비단(大官絹)과 흰 실 비단(白絲絹), 소주비단(蘇州絹), 제 물에 하얀 비단(水光絹)을 찾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싫습니다. 당신네 가게에 좋은 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사려고 합니다.

[점주인] 무슨 실을 찾으십니까?

[중국인] 내가 하얗고 제일 가느다란 호주(湖州)에서 난 실과 굵고 꽃을 단 실을 사고자 합니다. 정주(定州)에서 난 실은 싫습니다.

原文 제73화 你與多少價錢?

[主] 這段疋綾絹紗羅等項, 你都看了. 你端的[1]要買甚麽段子?

[漢] 別箇不要. 只要深靑織金胸背[2]段子. 我老實對你說, 不是我自穿的, 要

1) '端的'은 "정말로, 결국"의 뜻이다. 여기서는 "어느 것을 정말로 사겠는가"의 의미이다.

拿去別處轉賣, 尋些利錢的. 你老實討價錢.

[主] 這織金胸背要七兩.

[漢] 你休這般胡討, 倒悞了你買賣. 我不是利家.[3] 這段子價錢, 我都知道. 這織金胸背是蘇州 來的草段子, 你討七兩時, 這南京來的, 淸水織金絨段子, 却賣多少?

[主] 不須多說. 你旣知道價錢, 你與多少?

[漢] 這織金胸背, 與你五兩, 是實實的價錢. 你肯時我買, 不肯時我別處商量去.

[主] 你旣知道價錢, 要甚麽多說? 揀好銀子來, 賣與你.

[漢] 這段子買了也.

飜老 제73화 네 언머를 줄다?

[主] ·이 :비·단·과 고·로·와 :깁·과 사·와 로 ·둘·햇 것·둘·홀 :네 :다 ·보·와·니 :네 :졍·히 므·슴 :비·단 ᄒᆞ고·져 ·ᄒᆞ·ᄂᆞ·다?

[漢] 녀느 거·슨 :마·다. :다·믄 디·튼 ·야·쳥 직금·흉·븨ᄒᆞᆫ :비·단[4] ᄒᆞ·고·져 ·ᄒᆞ·노·니 ·내 고·디·시·기 너ᄃᆞ·려 닐오·마. ·내 니부·려 ·ᄒᆞ·ᄂᆞᆫ[5] :주·리 아·니·라 다ᄅᆞᆫ ·ᄃᆡ 가·져·가 옮·겨 ·ᄑᆞ·라 니:쳔[6] ·얻·고·져 ·ᄒᆞ·노·니 :네 고·디·시·기 ·갑·슬 바·다·라.

[主] ·이 ·직금·흉·븨:예[7] 닐·굽 량을 바·도리·라.

2) '深靑織金胸背'는 "짙은 푸른색에 금실을 넣어 짠 흉배(胸背)(가 있는 비단)"를 말함. <原老>에서는 "鴉靑金胸背"로 "아청빛에 금색 흉배를 단 비단"으로 되었다. 차라리 이 쪽이 알기 쉽다.

3) '利家'는 "풋내기"를 말한다. 보통은 '戾家'라고 쓴다. '行家'(전문가)의 반대말이다. 『문씨정운관첩(文氏停雲館帖)』(제4권) 발(跋)에 "단지 이것이 行家이고, 利家가 아님"(明 · 孫鑛 『書畵題跋』 卷2 上)이라는 구절이 있다.

4) '디·튼 ·야·쳥 직금·흉·븨ᄒᆞᆫ :비·단'은 '深靑織金胸背段子'를 언해한 것으로 "금실을 넣어 짠 흉배(胸背)가 있는 짙은 아청빛 비단"이란 뜻이다.

5) '니부·려 ·ᄒᆞ·ᄂᆞᆫ'은 "입으려 하는"의 뜻.

6) '니:쳔'은 "이전(利錢), 이익"을 말함.

[漢] :네 ·이·리 간:대·로 바·도·려 ᄒᆞ디 :말라. 도ᄅᆞ·혀 네 ·홍졍 머:믈·울[8] 거·시·라. ·내 홍졍바·치[9] 아·니라·도 ·이 :비·ᄃᆞᆫ·갑ᄉᆞᆯ :내 :다 :아·노·라. ·이 ·직금·흉·븨 :비·다·ᄂᆞᆫ 蘇州·셔 온 사·오나·온 :비·다·니·로소·니 :네 닐·굽 ·량·을 바·도·려 ·ᄒᆞ·거·시니 ·이 南京·의셔 온 ᄑᆞᆫ·ᄌᆞᆺ·긔[10] :업·슨 ·직금ᄒᆞᆫ[11] ·ᄀᆞ·ᄂᆞᆫ :됴·ᄒᆞᆫ ·비·단·의·란 ·ᄯᅩ :언·메·예 ᄑᆞᆯ·다?

[主] 구·틔·여 :말 ·한 :양[12] :말·라.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네 :언·머·를 줄·다?

[漢] ·이 ·직금·흉븨 :비·단·을 :너·를 ·닷 ·량·만 주·미·ᅀᅡ ·이 진·짓 비·디·니[13] :네 ·즐·기·거 든 ·내 사·고 ·즐·기·디 아·니커·든 ·내 다ᄅᆞᆫ ·ᄃᆡ :의·론 ᄒᆞ·라 :가·리라.

[主]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므스므·라 :말 한 :양 ᄒᆞ:ᄂᆞ·뇨? :됴·ᄒᆞᆫ 은 ᄀᆞᆯ·ᄒᆡ여[14] 가져오·라. 네:손·ᄃᆡ ·ᄑᆞ·로·마.

[漢] ·이 :비·단 사·다.

老諺 제73화 네 언머를 줄ᄶᅡ ?

[主] 이 비단과 綾과[15] 깁과 사과[16] 로 들헷 ᄡᅥ슬[17] 네 다 보왓ᄂᆞ니 네 졍히 므슴 비단을 사고져[18] ᄒᆞᄂᆞᆫ다?

7) '·직금·흉·븨:예'는 '織金胸背'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금실을 넣어 짠 흉배(胸背)가 있는 짙은 아청빛 비단"을 말한다. 주4 참조.
8) '머:믈·울'은 '悞了'의 언해로 "머물, 중지할"의 뜻.
9) '홍졍바·치'는 "장사꾼, 장사치"를 말함. 원문 '利家'의 언해이므로 "풋내기 장사꾼"을 말함. 주3 참조.
10) 'ᄑᆞᆫ·ᄌᆞᆺ·긔'는 "풀기가"의 뜻. 'ᄑᆞᆫ·ᄌᆞ'는 "풀"을 말함. 제72화 주35 참조.
11) '·직금ᄒᆞᆫ'은 "직금(織金)한, 금실을 넣어 짠"의 뜻.
12) '·한 :양'은 "많은 척"의 뜻.
13) '진·짓 비·디·니'의 '빋'은 가격을 말함. 따라서 "진짜 가격이니"의 뜻.
14) 'ᄀᆞᆯ·ᄒᆡ여'는 "골라서"임.
15) <飜老>에서는 '고·로·와'임.
16) <飜老>에서는 '사·와'임.
17) <飜老>에서는 '로 ·돌·햇 것·돌·홀'임.

[漢] 다ᄅᆞᆫ[19] 거슨 마다. 다만 디든[20] 야쳥 직금 흉븨ᄒᆞᆫ 비단을 ᄒᆞ고져 ᄒᆞ노니 내 고디시기 너ᄃᆞ려 닐ᄋᆞ마. 내 니브려 ᄒᆞᄂᆞᆫ 줄이 아니라 다ᄅᆞᆫ ᄃᆡ 가져가 옮겨 ᄑᆞ라 니쳔 엇고져 ᄒᆞ노니 네 고디시기 갑슬 바드라.

[主] 이 직금흉븨에 닐곱 냥을 바드리라.

[漢] 네 이리 간대로 바드려 말라. 도로혀 네 홍졍을 머믈울이로다[21] 내 홍졍바치 아니라도 이 비단 갑슬 내 다 아노라. 이 직금흉빈 비단은 蘇州셔 온 사오나온 비단이니[22] 네 닐곱 냥을 바드려 ᄒᆞ면 이 南京의셔 온 ᄑᆞᆫᄌᆞᄭᅴ[23] 업슨 직금ᄒᆞᆫ ᄀᆞᄂᆞᆫ 됴흔 비단으란 ᄯᅩ 안머의 ᄑᆞᆯᄶᅡ?

[主] 구틔여 말 한 양 말라. 네 임의 갑슬 알거니 네 언머를 줄ᄶᅡ?

[漢] 이 직믄흉빈 비단을 너를 닷 냥만 줌이 이 진짓 갑시니[24] 네 즐기거든 내 사고 즐기디 아니커든 내 다ᄅᆞᆫ 고ᄃᆡ 의눈ᄒᆞ라[25] 가리라.

[主] 네 임의 갑슬 알면 므슴ᄒᆞ라 말 한 양 ᄒᆞᄂᆞ뇨? 됴ᄒᆞᆫ 은 ᄀᆞᆯᄒᆡ여 가져오라. 네손ᄃᆡ ᄑᆞᆯ마.

[漢] 이 비단 사다.

現代譯 제73화 얼마를 주겠소?

[점주인] 이 비단과 고로(綾), 깁(絹), 사(紗), 나(羅) 들의 것들을 당신이 다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무슨 비단을 사려고 합니까?

[중국인] 다른 것은 그만 두시오. 다만 짙은 아청(鴉靑)색에 금실로 짠 흉배(胸背)가 있는 비단을 사고자 합니다. 내가 솔직히 당신에게 말하지

18) <飜老>에서는 'ᄒᆞ고·져'임.
19) <飜老>에서는 '녀느'임.
20) '디든'은 '디튼'의 오각인 듯함.
21) <飜老>에서는 '머:믈·울 거·시·라'임.
22) <飜老>에서는 ':비·다·니·로소·니'임.
23) <飜老>에서는 'ᄑᆞᆫ·ᄌᆞᆺ·긔'임.
24) <飜老>에서는 '비·디·니'임.
25) <飜老>에서는 ':의·론ᄒᆞ·라'임.

만,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져가 옮겨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을 말하시오.

[점주인] 직금(織金) 흉배(胸背)의 것은 일곱 냥을 받겠습니다.

[중국인] 당신 이렇게 마음대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네와 흥정을 그만둘 것이오. 내가 장사꾼이 아니라도 이 비단의 가격은 다 알고 있소. 이 직금 흉배한 비단은 소주(蘇州)에서 가져온 나쁜 비단인데 당신이 일곱 냥을 받으려 한다면 이 남경(南京)에서 온 풀기 없는 직금(織金)한 가늘고 좋은 비단은 또 얼마에 팔 것인가?

[점주인] 굳이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당신이 이미 값을 알고 있으니 얼마를 주실 생각인가요?

[중국인] 저 직금(織金) 흉배(胸背)한 비단은 당신에게 다섯 냥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격이니 당신이 좋다고 하면 내가 사고 좋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에 물으러 갈 거요.

[점주인] 당신이 이미 시가를 아신다면 무엇 하러 말을 많이 하겠는가? 좋은 은자를 골라서 가져오시오. 당신에게 팔겠소.

[중국인] 이제, 이 비단은 샀어.

原 文 제74화 有多少尺頭?

[漢] 咱們再商量, 這箇柳青紵絲,[1] 有多少尺頭? 勾做一箇襖子麼?

1) '柳青紵絲'는 "버드나무빛의 녹색(柳青) 저사(紵絲)"를 말함. '紵糸'는 정교한 모양으로 짠 직물의 일종이다. 『격지경언(格知鏡言)』(권27) 「각사(刻糸)」조에 의하면 "'紵'는 '織'의 음이 변한 것이어서 '注糸'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또한, 송(宋) 오자목(吳自牧)의 『몽양록(夢粱綠)』(권18)에서는 "紵糸란 染糸를 갖고 여러 가지 색깔로 짠 것. 織金, 閃褐, 間道 등이 있음"이라는 설명이 있다. 전술한 「지원역어(至元譯語)」'인사문(人事門)'조에 "紵糸匠, 禿魯哥兀蘭"이란 설명이 있다. 여기서 '禿魯哥'란 몽고어의 'türgä, turga'의 음차이고 직물(織物)을 가리킨다.

[主] 你說甚麼話? 滿七托[2]有餘. 官尺[3]裏二丈八, 裁衣尺[4]裏二丈五. 你一般身材, 做襖子時, 細褶[5]兒也儘勾了. 若做直身[6]襖子, 也有剩的.

[漢] 你打開, 我托看. 那裏滿七托? 剛剛的七托少些.

[主] 你身材大的人, 托比別人爭多.

[漢] 這段子地頭是那裏的?

2) '托'은 한쪽 어깨로부터 반대쪽 팔(손)을 편 길이로, 약 넉 자(尺, 121cm)인데,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에는 자[尺]의 종류에 따라 길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원전장(元典章)』「공부(工部)」(권1) '단필절경준제(段疋折耕准除)'의 조에 "직조단필(織造段疋) 내(內)에 저사(紵糸) 6발[托]마다 정사(正糸) 40량을 사용하여 생정사(生淨糸) 36량을 얻고, 8발은 정사 50량을 사용하여 생정사(生淨糸) 47량 7전(錢)을 얻음"이란 기사가 있고, 또 같은 책의 '금치비박단백(禁治紕薄段帛)'조에 의하면 당시 시판(市販)의 단필(段疋)은 길이 5발 반 이상, 폭은 관척(官尺)으로 1尺 6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3) '官尺'은 "관에서 제조한 자"를 말한다. 원대(元代)의 도량형(度量衡) 제도는 송대(宋代)의 그것을 이어받고 있다. 송(宋)에서는 옷감의 길이를 재는 자는 재정을 담당하는 관아인 삼사(三司)의 태부사(太府寺)가 제조하고 있어서 '태부포백척(太府布帛尺)'이라고 불리었다(宋 蔡元定 『律呂新書』). 출토된 실물에 의하면, 일척(一尺)의 길이는 31.2cm이다(『文物』 1966년 5期 '武漢市十里舖北宋墓出土漆器等文物', 山田慶兒・淺原達郎 譯 『中國古代度量衡図集』, みすず書房, 1985, 62쪽 참조). 여기서의 관척(官尺)도 태부포백척(太府布帛尺)을 가리킬 것이다.

4) '裁衣尺'은 "옷감 장수들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명(明) 주재육(朱載堉)의 『악률전서(樂律全書)』(권22) 「심도편(審度編)」에 의하면, 당시의 관척(官尺)에는 '裁衣尺(鈔尺), 營造尺(曲尺), 量地尺(銅尺)'의 세 종류가 있었는데 재의척(裁衣尺)의 실제 길이는 출토 실물에 의하면 길이가 34.5cm이다(『中國古代度量衡図集』 62쪽). 여기에 있는 '官尺으로 2丈 8, 裁衣尺으로 2丈 5'의 비율에 거의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관척(官尺)으로는 송대(宋代) 이래의 태부포백척(太府布帛尺)이 사용되고, 그것과는 별도로 명대(明代)에도 전승된 재의척(裁衣尺)이 민간에서는 병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細褶'은 '細摺'이라고도 쓴다. 옷의 허리 부분에 있는 가는 주름을 말한다. 『老覽』에서는 '가느다란 주름'으로 되어 있다. 『원사(元史)』(권78) 「여복(輿服)」조에 "辮線襖의 制는 窄袖衫과 같고, 허리에 辮線細摺을 만든다"라는 제조법의 설명이 있고, 또 같은 장(권79)에 "궁정의 숙위병사(宿衛兵士)의 복장을 말하여, '紫袖細褶辮線襖'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신강(新疆) 위구르 자치구(自治區)의 원대(元代) 분묘(墳墓)에서 '黃色油絹織金錦邊襖'(길이 124cm)가 발견되었으나, 그것에는 허리 부분에 30의 '辮線'이 보인다고 한다(『文物』 1973년 10期 '塩湖古墓').

6) '直身'은 주름이 없는 보통의 장의(長衣)를 말한다.

[主] 你說是我識貨物, 却又不識. 這段子是南京的, 不是外路7)的. 你仔細看, 沒些箇粉飾,8) 好淸水9)段子.

[漢] 要多少價錢?

[主] 這段子價錢, 誰不知道? 要甚麽討價錢, 若討時討五兩, 老實價錢四兩, 拿銀子來便是.

[漢] 這段子也買了.

(飜 老) 제74화 이 비단이 자히 언머고?

[漢] ·우·리 ·쏘 ·의·론ᄒᆞ·져. ·이 :류·청 :비단·이 ·자·히 :언·머·고? ᄒᆞᆫ ·옷 ᄌᆞ·래10) 지·술가?

[主] :네 므·슴 ·마·롤 니ᄅᆞᄂᆞᆫ·다? ᄀᆞ득ᄒᆞᆫ 닐·굽 :발11) 남즉ᄒᆞ:니 구윗 ·자·호·로·ᄂᆞᆫ12) ·스·므 여·듧 ·자·히·오, 바·ᄂᆞ·질 ·자·호·로·ᄂᆞᆫ13) ·스·므 대 ·자·히·니 너희 ·ᄒᆞᆫ가·짓 ·몸 얼구·레14)·ᄂᆞᆫ ·옷 지·ᅀᅳ·면 ·ᄀᆞ·ᄂᆞᆫ 주·룸15)·도 :유·여ᄒᆞ·고 ·ᄒᆞ·다·가 ·딕녕·옷·곳16) 지·ᅀᅳ·면 나·몰 ·주·리

---

7) '外路'는 대도(大都) 혹은 '성문 안'(腹裏) 이외의 지방을 가리킨다. 宋代의 18路(『老覽』).

8) '粉飾'은 풀을 먹여 만든 가짜의 물품이다. 『원전장(元典章)』「공부(工部)」(권1) '禁治紕薄段帛'조에 시판(市販)의 단필(段疋)에 불량품이 많음을 말하고 '粉飾을 添加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9) '淸水'는 '순수하다'는 뜻인데 문맥상 '진짜'의 의미이다. 앞의 장면과 같은 곳에서 '淸水夾密의 段疋임을 須要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10) 'ᄌᆞ·래'는 "자라게, 충분하게"의 뜻.

11) ':발'은 원문 '托'의 번역으로 "한쪽 어깨로부터 반대쪽 팔(손)을 편 길이, 약 넉 자(尺, 121cm)"임. 주2 참조.

12) '구윗 ·자·호·로·ᄂᆞᆫ'은 '구윗 ·자ㅎ(官尺) + -·오·로·ᄂᆞᆫ(복합조사)'의 형태구성으로 "관척(官尺)으로는"의 뜻. '관척(官尺)'에 대해서는 주3 참조.

13) '바·ᄂᆞ·질 ·자·호·로·ᄂᆞᆫ'은 "재의척(裁衣尺)으로는"임. '재의척(裁衣尺)'에 대하여는 주4 참조.

14) '·몸 얼구·레'는 "몸의 크기에"의 뜻. '얼구·레'는 '얼굴(形) + -·에'의 형태구성으로 "모습에, 크기에"의 뜻.

15) '·ᄀᆞ·ᄂᆞᆫ 주·룸·도'는 원문 '細褶'의 직역으로 "가느다란 옷주름"을 말함. '細褶'에

이시·리·라.

[漢] :네 펴·라. ·내 ·발·마 :보·마.17) 어·듸 닐·굽 :발 ·ᄎᆞ·뇨? 계·우 닐·굽 :발 낟브·다.

[主] 네 ·몸 ·큰 :사ᄅᆞ·믄 ᄒᆞᆫ :발·도 ·놈·과 견·조·면 ·어·머·리18) 너·므리·라.

[漢] ·이 ·비·단·이 미·틔 ·치·가19) 어·듸 ·치·고?

[主] :네 닐·오·ᄃᆡ ·내 貨物 :아노·라 :호·ᄃᆡ ·쏘 모·ᄅᆞᄂᆞ·다. 이 :비·단·은 南京 ·치·오 :외·방 치20) 아·니·니 :네 ·ᄌᆞ·셔·히 보·라. :잠·깐·도 푼·ᄌᆞᆺ:긔21) :업·고 :됴·ᄒᆞᆫ 淸水段 子22) ㅣ·라.

[漢] ·갑·슬 언·메·나 바·돌·다?

[主] :이 ·비·단 ·갑·슬 ·뉘 모·ᄅᆞ·료? 므·스므·려 ·갑·슬 쐬·오리·오23)? 바·돌디·면 닷 량·을 바·도·련마·ᄅᆞᆫ24) 고·든 ·갑·슨 :넉 량·이니 은·을 가·져 오·면 ·곧 그:제·라

[漢] :이 :비·단·도 ·사·다

대하여는 주5 참조.

16) '·딕녕·옷·곳'은 '·딕녕(直領) + ·옷(衣) + -·곳(강세첨사)'의 형태구성으로 "직령의 옷을"의 뜻. 직령(直領)옷은 조선시대에 입던 소매가 넓고 깃이 빳빳한 웃옷을 말함.

17) '·발·마 :보-'는 "몇 발인지 팔로 재어 봄"임.

18) '·어·머·리'는 "아주 멀리, 매우 크게"의 뜻.

19) '미·틔 ·치'는 원문 '地頭'의 언해로 "원산지"의 뜻인데 여기서는 "(중국) 본토의 것"을 말한다.

20) ':외·방 치'는 원문 '外路的'의 언해로 "타지/타국의 것"의 뜻. '外路'에 대하여는 주7 참조.

21) '푼·ᄌᆞᆺ:긔'는 "풀기, 풀을 먹인 기운"의 뜻. 그러나 이것은 원문 '粉飾'을 언해한 것으로 원래의 의미는 "풀을 먹여 꾸민 물품"을 말한다.

22) '淸水段子'는 "분식(粉飾)을 하지 않은 순수한 옷감"이란 뜻. 주9 참조.

23) '쐬·오리·오'는 "부르겠는가"의 뜻. '쐬·오다'는 "(값을)부르다, 매기다"의 뜻.

24) '바·돌디·면 닷 량·을 바·도·련마·ᄅᆞᆫ'은 "받을 것이면 다섯 냥을 받으련만"으로 언해되었으나 원문 '若討時討五兩'는 원래 "(값을) 부르려면 다섯 냥을 부르겠지만"의 뜻이다. 번역자의 한어 이해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老諺 제74화 이 비단이 자히 언머고?

[漢] 우리 ᄯᅩ 혜아리쟈. 이 류쳥 비단이 자히 언머고? ᄒᆞᆫ 오ᄉᆞᆯ ᄌᆞ래 지을ᄶᅡ?

[主] 네 므슴 말을 니ᄅᆞᄂᆞᆫ다? ᄀᆞ독ᄒᆞᆫ 닐곱 발 남즉ᄒᆞ니 구읫 자ᄒᆞ로ᄂᆞᆫ 스믈 여듧 자히오 바ᄂᆞ질 자ᄒᆞ로ᄂᆞᆫ 스믈 대 자히니 너희 ᄒᆞᆫ가지 몸 얼굴에ᄂᆞᆫ 오ᄉᆞᆯ 지으면 ᄀᆞᄂᆞᆫ 주롬도 유여ᄒᆞ고 ᄒᆞ다가 딕녕옷곳 지으면 ᄯᅩ 남음이 이시리라.[25]

[漢] 네 펴라. 내 발마보자.[26] 어ᄃᆡ 닐곱 발이 ᄎᆞ뇨? 계요 닐곱 발이 낫브다.

[主] 네 몸 큰 사ᄅᆞᆷ은 ᄒᆞᆫ 발도 ᄂᆞᆷ과 견조면 만히[27] ᄡᅳ리라.[28]

[漢] 이 비단이 밋ᄡᅡ치가[29] 어ᄃᆡᆺ 치고?

[主] 네 니ᄅᆞ되 내 貨物 아노라 호되 ᄯᅩ 모ᄅᆞᄂᆞ다. 이 비단 南京 치오 외방치 아니니 네 자셔히 보라. 죠곰도[30] 푼ᄌᆞᄭᅴ 업고 됴ᄒᆞᆫ 淸水엣 段子라.

[漢] 갑슬 언머나 바들다?

[主] 이 비단 갑슬 뉘 모로료? 므슴아라 갑ᄉᆞᆯ 쐬오리오? 만일 쐬오면[31] 닷 냥을 쐬오려니와 고디식ᄒᆞᆫ 갑슨 넉 냥이니 銀을 가져오미 곳 올ᄒᆞ니라.

[漢] 이 비단도 사다.

現代譯 제74화 이 비단이 한 자에 얼마인가?

[중국인] 우리 또 홍정합시다. 이 유청(柳靑)빛의 비단이 한 자[尺]에 얼마요? 옷 한 벌 짓기에 충분하겠오?

[점주인]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곱 발을 채우고 남으니 관척(官尺)으로는 스물여덟 자이고 바느질자(裁衣尺)로는 스물 댓 자이니 당신정도 체격에는 옷을 지으면 가는 주름을 잡을 정도 여유가 있고 만일 직령(直領) 옷을 지으면 남을 것입니다.

[중국인] 당신 펴보시오. 내가 팔로 재어봅시다. 어디가 일곱 발이 넘는가? 일곱 발이 조금 못되네.

[점주인] 당신처럼 몸이 큰 사람은 한 발[托]도 남들과 견주어보면 훨씬 더 될 겁니다.

[중국인] 이 비단은 본토 것이오, 어디 것이오?

[점주인] 당신, "내가 물품을 잘 안다"고 하더니 잘 모르는군요. 이 비단은 남경(南京) 것이고 외방(外方) 것이 아니니 자세히 보세요. 풀기가 전혀 없는 순수한 비단입니다.

[중국인] 값을 얼마나 받을 것이오?

[점주인] 이 비단 값을 누가 모르겠어요? 값을 매길 것도 없습니다. 받으려고 한다면야 다섯 냥도 받겠지만 실제값이 넉 냥이니 은을 가져오시면 그뿐입니다.

[중국인] 이 비단도 샀다.

25) <飜老>에서는 '나·ᄆᆞᆯ ·주·리 이시·리·라.'임.
26) <飜老>에서는 '·발·마 :보·마'임.
27) <飜老>에서는 '·어·머·리'임.
28) <飜老>에서는 '너·므리·라'임.
29) <飜老>에서는 '미·틔 ·치·가'임.
30) <飜老>에서는 ':잠·ᄊᆞᆫ·도'임.
31) <飜老>에서는 '바·돌디·면'임.

原文 제75화 馬具

[主] 你這鞍子, 轡頭, 鞦,[1] 攀胸, 鞊,[2] 鞍橋子,[3] 鴈翅板,[4] 鐙韂皮,[5] 肚帶,

1) '鞦'는 "마소의 꼬리 밑의 밀치에 걸어 안장 또는 길마에 잡아매는 끈이다. 밀치끈." 언해에서는 '고돌개'로 언해하였는데 '고돌개'는 말안장의 가슴걸이에 다는 방울, 또는 굴레의 턱 밑에 돌아가는 방울 달린 가죽 끈을 말한다. 마구(馬具)에 대하여는 『박통사(朴通事)』 상(上)에도 상세한 묘사가 있다.
2) '鞊'는 "말을 탄 사람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등으로 말 배의 양쪽에 늘어트린 가리개"를 말한다. 고유어로 '말다래'라고 하며 한자어로는 '障泥'라고 한

接絡, 籠頭, 包糞, 編繮,[6] 繮繩, 兜頦,[7] 閘口,[8] 汗替,[9] 皮替, 替子, 都買

다.

3) ‘鞍橋子’는 안장 앞뒤에 있는 돌기(突起)한 부분을 말한다. ‘기ᄅᆞ맛 가지’로 언해하였다.

4) ‘鴈翅板’은 안장 밑에 까는 판자, ‘안판(鞍板)’을 가리킨다. 『흑달사략(黑韃事略)』에 “안장(鞍)의 기러기 날개(雁翅)는 앞은 豎하여 뒤는 평평하고, 고로 折旋해도 膊은 상처입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다. 『老覽』의 ‘替子’에 대한 설명에서 “指甲替는 鞍의 兩雁翅 밑에 부착하여 장식으로 함”이라는 주석이 있어 말안장에 까는 기러기 날개판은 원래 두 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朴通事』(上)에서도 안장을 묘사하는 곳에서 ‘雁翅板’이 나온다. 언해문 ‘두으리’는 새 따위를 기르는 동그란 새장을 말한다. 아마도 기러기 날개 모양으로 보지 않고 새장 모양의 판자로 보아 이런 명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회전(明會典)』(권150) 「안차(安車)」의 항목에 “전후의 창살[車欞] 및 안시판(雁翅板) 밑의 끌채[轅] 二條는 모두 朱紅漆”이라는 설명이 있어, 마차에 말을 연결하는 끌채[轅]를 설치할 때에도 유사한 판자를 붙인 것 같다. 화각본(和刻本) 『사림광기(事林廣記)』 「경집(庚集)」(권10)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雁翅板, 答塔孫”이라고 있다. ‘答塔孫’은 몽고어 ‘qabdasu’의 음차 표기이고 ‘안장을 얹기 위한 판자’를 말한다.

5) ‘鐙鞦皮’의 ‘등(鐙)’은 안장(鞍裝)의 양쪽에 달린 발을 디디는 마구를 말한다. ‘등자의 가죽끈’은 원문의 ‘鐙鞦皮’를 옮긴 것으로 ‘鐙皮’와 같다. 등자를 늘어뜨려서 매달기 위한 가죽끈으로써 발의 위치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명(明) 척계광(戚繼光)의 『연병실기(練兵實紀)』(권6)에 “보통 遠路를 갈 때에 또 꼭 鐙皮를 길게 하면 腿膝은 酸疼(마비와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다. <原老>에서는 ‘鐙徹皮’라고 하였는데 ‘徹’은 ‘鞦’의 차자(借字)이다. 『용감수감(龍龕手鑑)』에 “鞦, 鐙鞦皮飾也”라는 해석이 있다. 등피(鐙皮)에 다는 장식을 가리킨다. 전술한 「지원역어(至元譯語)」 ‘안마문(鞍馬門)’조에 “鐙鞦皮, 禿也速兒”라는 기사에서 ‘禿也速兒’는 몽고어 ‘huyāsur’의 음차 표기이고 “안장을 묶기 위한 가죽끈”을 말한다.

6) ‘編繮’의 언해 ‘다혼석’은 “고삐줄, 즉 말을 타고 어거할 수 있도록 고삐와 연결한 줄”을 말한다.

7) ‘兜頦’는 말의 얼굴 부위에 붙이는 금속제의 장식을 말한다.

8) ‘閘口’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한다, 마함(馬銜)이라고도 한다. ‘閘口’는 본래 수문(水門)을 가리키므로 그냥은 의미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마함(馬銜)을 ‘수작환(水嚼環)’이라고도 했고(『老覽』) 현대어에서는 ‘嚼口’라고 하므로 ‘閘’는 ‘嚼’의 차자(借字)임을 유추할 수 있다.

9) ‘汗替의’ ‘替’는 안장의 밑, 장니 위에 덮는 땀받이용 깔개. 옛날에는 ‘韉’, 지금은 ‘鞍褥’이라고 한다. 혜림(慧琳)의 『일체경음의(一切経音義)』(권61)에 “韉, 鞍下氈替”라는 설명이 있다. 『통감(通鑑)』(권195)에 “虎皮를 韉로 함”이라는 풀이가 있

了.

(飜老) 제75화 마구

[主] 네 기·ᄅᆞ·매,[10] 굴·에, 고돌·개,[11] ·가·숨거·리,[12] ·돌·애,[13] 기·ᄅᆞ·맛·가·지,[14] 두으·리,[15] :둥피,[16] 오·랑,[17] ·셕 ·바굴·에,[18] 밀마·기,[19] 다·혼·셕,[20] 쥬리·울,[21] ·ᄌᆞ·가· 미,[22] 마·함.[23] ·쏨어·치,[24] 갓어·치,[25]

어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다. 『朴通事』(上)에도 ‘皮汗替’가 보이는데 ‘汗替’는 말의 등에 직접 깔아 땀받이를 하는 얇은 천, ‘皮替’는 ‘替子’ 위에 다는 장식, ‘替子’는 털의 부스러기를 안에 넣고 두껍게 한 것으로 ‘厚替’라고도 한다(『老覽』).

10) ‘기·ᄅᆞ·매’는 “말안장(鞍裝)”을 말함.

11) ‘고돌·개’는 원문 ‘鞦’의 언해로서 “밀치끈. 즉 마소의 꼬리 밑의 밀치에 걸어 안장 또는 길마에 잡아매는 끈”을 말한다. 주1 참조.

12) ‘·가·숨거·리’는 ‘攀胸’의 언해임. ‘·가·숨거·리’는 “가슴걸이. 즉 말의 가슴에 걸어 안장에 매는 가죽 끈”을 말함.

13) ‘·돌·애’는 원문 ‘韂’의 풀이로서 “말다래. 즉 말을 탄 사람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등으로 말배의 양쪽에 늘어트린 가리개”를 말함. 주2 참조.

14) ‘기·ᄅᆞ·맛·가·지’는 원문 ‘鞍橋子’를 풀이한 것으로 “말안장 앞뒤에 있는 돌기(突起)한 부분”을 말한다. 주3 참조.

15) ‘두으·리’는 원문 ‘鴈翅板’을 풀이한 말로 “안장 밑에 까는 판자(鞍板)”를 말한다. 원래 ‘두으리’는 새 따위를 기르는 동그란 새장을 말한다. 아마도 기러기 날개 모양으로 보지 않고 새장 모양의 판자로 보아 이런 명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4 참조.

16) ‘:둥피’는 ‘鐙鞦皮’를 풀이한 말인데 ‘등피(鐙皮)’로 줄여 부른 것 같다. “등자를 연결한 가죽 끈”을 말함. 주5 참조.

17) ‘오·랑’은 “오랑. 즉 안장을 얹기 위하여 말배에 띈 띠”를 말함. 몽고어 ‘olang(腹帶)’의 차용어로 ‘오랑’은 고려 말부터 사용되었다.

18) ‘·셕 ·바굴·에’의 ‘·셕’은 ‘·셗’으로도 쓰이며 “말고삐(按轡)”를 말한다. ‘·바굴·에’는 “말굴레”를 말한다. 따라서 ‘·셕 ·바굴·에’는 “말고삐와 굴레”를 가리킴. “바굴레(籠頭)”(『朴解』 中:11) 참조.

19) ‘밀마·기’는 ‘包糞’의 풀이로 “말의 뒤(肛門)를 막아 마분(馬糞)을 길에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함. 한어(漢語)로는 ‘包糞, 말똥(馬糞) 싸개’로 되었음.

20) ‘다·혼·셕’은 원문 ‘編繮’을 풀이한 것으로 “사람이 말을 타고 어거할 수 있도록 고삐와 연결한 줄”을 말함. 주6 참조.

21) ‘쥬리·울’은 원문 ‘繮繩’를 풀이한 것으로 “후릿고삐, 말고삐 줄”을 말함. “鞦 쥬

·할어·치,[26] :다 ·사·다.

(老諺) 제75화 마구

[主] 네 이 기ᄅ마, 구레, 고둘개, 가슴거리, 돌애, 기ᄅ마 가지, 둥울,[27] 등피, 오랑, 혁 바구레,[28] 밋마기, 다ᄒ혁,[29] 쥬리올 ᄌ가미, 마함, 갓어치, 핫어치, 다 사다.

(現代譯) 75화 馬具를 사다

[점주인] 당신이 이 안장, 굴레, 밀치끈, 가슴걸이, 말다래, 안장가지, 기러기 날개판(雁翅 板), 등자(鐙)의 가죽끈, 오랑(腹帶), 말고삐, 밑마개, 고삐줄, 후릿고삐, 턱자가미, 재갈, 땀받이 언치, 가죽 언치, 핫것 언치를 모두 샀네.

리울 덕 韁 쥬리울 강"(『訓蒙字會』 중:13) 참조.

22) '·ᄌ·가·미'는 원문 '兜頦'를 풀이한 것으로 "말의 턱자가미에 붙이는 장식"을 말함. 주7 참조.

23) '마·함'은 원문 '嚼口'를 풀이한 것으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함. '마함(馬銜)'에서 온 한자어. 주8 참조.

24) '·ᄯᆷ어·치'는 원문 '汗替'의 풀이로 "말의 땀받이로 쓰는 언치"를 말함. '어·치'는 "언치. 즉 가축의 등에 깔아주는 방석이나 담요"를 말함.

25) '갓어·치'는 원문 '皮替'의 풀이로 "가죽 언치. 즉 말 등에 깔아주는 가죽으로 된 깔개"를 말함.

26) '·할어·치'는 원문 '替子'의 풀이로 "핫것으로 된 언치"를 말함.

27) <飜老>에서는 '두으·리'임.

28) <飜老>에서는 '·셕 ·바굴·에'임.

29) <飜老>에서는 '다·혼·셕 '임.

(原文) 제76화 買弓

[漢] 再買一張[1]弓去.

—到賣弓的房子裏, 問道—

[漢] 有賣的[2]好弓麽?

[主] 可知有. 沒時, 做甚麽買賣裏?

[漢] 你將這一張黃樺弓[3]上弦着. 我試扯, 氣力[4]有時, 我買.

[主] 新上了的弓. 慢慢的扯.

[漢] 是好弓時, 怕甚麽扯? 這弓弝[5]裏軟, 難扯, 沒迴性.[6]

[主] 這弓你却是胡包彈. 這的弓, 你還嫌甚麽? 由他說, 包彈[7]的是買主.

---

1) '張'은 활을 세는 단위다.

2) '賣的'은 "파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주인을 부르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동사 '有'가 뒤에 오므로 "살 만한"의 뜻.

3) '黃樺弓'은 "활시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란 벚나무의 껍질을 붙인 활"을 말한다. 이 황화궁(黃樺弓)의 그림은 『무경총요(武経總要)』「전집(前集)」(권13) '기도(器図)'와 『삼재도회(三才図會)』「기용(器用)」(권6) 등에 보인다.

4) '氣力'은 '궁력(弓力). 즉 활의 발사력(發射力)'을 말한다. 그 궁력(弓力)의 측정법은 『천공개물(天工開物)』(15권) 「호시(弧矢)」조에 있는데 강한 것은 120근(斤), 약한 것은 그 절반이라고 한다. 12근(斤)을 "一箇의 氣力"이라고 하여 궁력의 기본 단위로 한다(『朴覽』 下).

5) '弓把'는 활의 중심부, 즉 활을 잡는 부분을 말하며 '弝'라고도 쓴다. 고유어로는 '활짱. 즉 활의 본체'라고 한다.

6) '廻性'에 대하여는 명(明) 왕가옥(汪砢玉)의 『산호망(珊瑚網)』(권23) 하(下)권에 "宝刀를 按하면 곧 휘어지고, 이것을 舍하면 곧 勁直함이 처음과 같도다. 世俗에서는 이것을 回性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즉 탄력(彈力)을 가리킨다.

7) '包彈'은 "헐뜯다"의 뜻. 『朴通事』(中)에 "駁彈的是買主—헐뜯는 게 살 사람—"라는 구절이 있다. <原老>에서는 '褒彈'이었는데 『朴覽』(中)에 "'褒'는 '包'로 하는 것이 옳고, 북송(北宋)의 명재판관(名裁判官) 포승(包拯, 일명 포청천)이 자주 사람을 헐뜯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褒彈'은 칭찬하는 것과 헐뜯는 것을 모두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이 '헐뜯다'는 의미로만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朴覽』의 설명은 속설(俗說)인 것 같다. 원대(元代)의 잡극(雜劇) 등에도 많은 용례가 있다.

[漢] 這一張弓爲甚麽不樺了?

[主] 你不理會的. 這弓最好. 上等弓, 若樺了時, 買的人不信. 教人看了面子上的角,8) 背子 上鋪 的肋, 商量了價錢, 然後 樺了也不遲裏.

[漢] 這弓卸下,9) 弝子小些箇, 弰兒10)短. 弓也買了也.

(飜老) 제76화 활 ᄒᆞᆫ 댱 사라가져

[漢] :ᄯᅩ 활 ᄒᆞᆫ 댱11) 사·라가·져

—활 ·풀 지·븨 ·가 무·로·ᄃᆡ—

[漢] ·풀 :됴·ᄒᆞᆫ 활 잇ᄂᆞ·녀?

[主]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 ·업·스·면 므·슴 흥졍ᄒᆞ·리·오?

[漢] :네 ·이 누·른 :봇 니·핀 활12) ᄒᆞᆫ 댱 가·져다·가 시·울 연즈·라. ·내 ·혀 보·져. 힘 잇거·든13) ·내 :사·리·라.

---

8) '面子上的角'은 "겉에 붙인 뿔"의 뜻이다. 이 시대의 활을 만드는 방법은 전술한 『천공개물(天工開物)』(권15) 「호시(弧矢)」조에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이에 의하면 먼저 대나무(북방에서는 소나무)와 물소뿔을 합하여 붙여서 본체를 만들고 양끝에 뽕나무를 연결한다(이 부분을 '弓稍'라고 함). 그 맨 끝에 활시위를 걸기 위한 활고자를 새긴다(이 부분이 '拍子' 즉 '활고자'). 뿔이 안쪽으로 가도록 하고 활시위를 당길 때에 뒤쪽으로 탄력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소의 힘줄을 아교(阿膠)로 붙이고, 그 바깥쪽을 자작나무의 껍질로 붙여서 고정시킨다.

9) '卸下'는 활시위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10) '弰兒'는 '弓稍' 또는 '稍兒'라고 한다. 이것은 활 양끝의 뽕나무를 붙인 부분을 말하며 고유어로는 '활고재(弓稍)'라고 한다. 이 부분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붙이지 않는다. 『화관색전(花關索伝)』「전집(前集)」에 "黃花(樺)弓, 稍長弝矩(短)—황화궁은 '稍'가 길고 '弝'가 짧다"라는 기사가 있고, 『대당진왕사화(大唐秦王詞話)』 제28회에 역시 "稍長靶短"이라는 대사가 있어, '弓稍'가 긴 것이 좋은 활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 같다.

11) '댱'은 '張'을 말하며 활을 세는 단위다. 주1 참조.

12) ':봇 니·핀 활'은 원문 '黃樺弓'을 풀이한 것으로 "벚나무(樺)를 입힌 활"이란 뜻이다. ':봇 니·핀 활'의 ':봇'은 '벚나무'를 말한다. "樺皮木 봇나무"(『譯語類解』 하:42), "上樺 봇 올리다"(『譯語類解補』 15) 참조.

13) '힘 잇거·든'은 원문 '氣力有時'를 언해한 것으로 '힘[氣力]'에 대하여는 주4 참

[主] ᄌᆞᆺ 연즌 화·를 날회여 혀·라.

[漢] ·이 :됴·ᄒᆞᆫ 화·리·면 므·슴 혀·기·를 져흘고? ·이 화·리 :쥴·동·이14) 므르·니 혀·디 어·렵·다. :돌:셩15)·이 :업·다.

[主] ·이 화·를 :네 ·ᄯᅩ 간:대·로 :ᄒᆞ·나·므·라ᄂᆞ·다.16) ·이·런 화·를 :네 다·하 므·스·글 나·므·라ᄂᆞᆫ·다? 제 ᄆᆞᅀᆞᆷ조·초 니ᄅᆞ·나 :마·나 :ᄒᆞ·나:므·라ᄂᆞ·니·ᅀᅡ 살 :님·재·라.

[漢] ·이 ᄒᆞᆫ 댱 화·를 :엇·디 ·봇 아·니 니·펏ᄂᆞ·뇨?

[主] :네 모·ᄅᆞᄂᆞ·다. ·이 화·리 ᄀᆞ·장 :됴·ᄒᆞ·니 上等·엣 화·리·니 ·ᄒᆞ·다·가 ·봇 니·피·면 살 :사·ᄅᆞ·미 믿·디 아·니홀 거·실시 :사·ᄅᆞ·모·로 ·ᄒᆞ·야 面·에 올·인 ·쁠·와 ·등 우·희 ᄭᆞ·론 ·힘17) :뵈오 ·갑·슬 :의·론ᄒᆞᆫ :후·에 ·봇 니·펴·도 더·듸·디 아·니커·니ᄯᆞ·나.

[漢] ·이 활 브·리우·라.18) 오·뇌19) :쟉·고 고·재20) 뎌ᄅᆞ·다. 활·도 ·사·다.

(老諺) 제76화 활 사라 가쟈

[漢] ᄯᅩ ᄒᆞᆫ 댱 활 사라 가쟈.

조.

14) ':쥴·동·이'는 원문 '弓弝'를 풀이한 것으로 "활의 중심부, 즉 활을 잡는 부분"을 말하며 '활짱, 줌통'이라고 한다. ':쥴·동·이'의 '·동·이'는 "동강, 부분"을 말함.

15) ':돌:셩'은 원문 '迴性'을 풀이한 것으로 "돌아가는 성질, 탄력"을 말함. 주6 참조.

16) ':ᄒᆞ·나·므·라ᄂᆞ·다'는 원문 '包彈'의 언해로서 "타박하다, 헐뜯다, 나무라다"의 뜻. 주7 참조.

17) '·힘'은 "심줄"을 말함.

18) '활 브·리우·라'는 '這弓卸下'의 언해로서 '卸下'는 "활에서 시위를 빼내다"의 뜻이다. 주9 참조. 따라서 '활 브·리우·라'는 "활을 풀다, 활에서 시위를 빼내다"의 뜻이다.

19) '오·뇌'는 원문 '弝子'의 풀이로 "활오내, 활짱 머리에 시위를 매는 곳"을 말함. "활오뇌 弝"(『訓蒙字會』 중:28).

20) '고·재'는 '弰兒'의 풀이로 "활고자, 활고재, 활 양끝의 뽕나무를 붙인 부분"을 말하며 '弓稍'라고도 한다. 이 부분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붙이지 않는다. 주9 참조.

—활 풀 집의 가 무로듸—

[漢] 풀 됴흔 활 잇느냐?

[主] 그리어니 인느니라.[21] 업스면 므슴 흥정ᄒ리오?

[漢] 네 이 ᄒᆞᆫ 댱 누론 봇 닙힌 활 가져다가 시욹 연즈라. 내 ᄃᆞ릐여 보와[22] 힘이 잇거든 내 사리라.

[主] ᄀᆞᆺ 연즌 활이니 날회여 ᄃᆞ릐라.[23]

[漢] 이 됴흔 활이면 므슴 혀기를 저프리오? 이 활이 좀이[24] 므ᄅᆞ니 ᄃᆞ릐기 어렵다. 돌 셩이 업다.

[主] 이 활을 ᄯᅩ 간대로 흔나므라는괴야.[25] 이런 활을 네 다홈[26] 므서슬 나므라는다? 제대로[27] 니ᄅᆞ나마나 흔나므라는 이아 살 님재라.

[漢] 이 ᄒᆞᆫ 댱 활은 엇디 봇 아니 님폇ᄂᆞ뇨[28]?

[主] 네 모ᄅᆞ는고야. 이 활이 ᄀᆞ장 됴흐니 上等엣 활이니 만일 봇 닙피면 살 사ᄅᆞᆷ이 밋디 아니홀 쩌시니 사ᄅᆞᆷ으로 히여 面에 올닌 쌜과 등 우희 ᄌᆞᆫ 힘 뵈고 갑슬 의논ᄒᆞᆫ 후에 봇 닙펴도 더듸디 아니리라.

[漢] 이 활 ᄇᆞ리오라. 온닉[29] 적고 고재 더ᄅᆞ다. 활도 사다.

現代譯 제76화 활을 사다

[중국인] 그리고 또 활을 한 장 사러 가세.

21) <飜老>에서는 '잇닷 :마리·사 니ᄅᆞ·려'임.
22) <飜老>에서는 '·혀 보·져'임.
23) <飜老>에서는 '혀·라'임.
24) <飜老>에서는 ':줠·동·이'임. '좀이'는 '줌, 주먹, 잡이'를 말함.
25) <飜老>에서는 ':흐·나·므·라ᄂᆞ·다'임.
26) <飜老>에서는 '다·하'임. '다홈, 다하'는 모두 "그래도, 도리어, 또한"의 뜻.
27) <飜老>에서는 '제 ᄆᆞ숨조·초'임.
28) <飜老>에서는 '니·폇ᄂᆞ·뇨'임.
29) <飜老>에서는 '오·닉'임.

—활 파는 집에 가서 묻는다—

[중국인] 살만한 좋은 활이 있소?

[점주인] 물론 있고말고요. 없으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중국인] 주인 그 벚나무 껍질 입힌 활(黃樺弓) 한 장 가져다가 활시위를 얹으시오. 내가 당겨 보고 궁력(弓力)이 있으면 사겠소.

[점주인] 방금 얹은 활이니 천천히 당기세요.

[중국인] 이것이 좋은 활이라면 어째서 당기는 것을 두려워하겠나? 이 활 짱이 물러서 당기기가 어렵고 탄력도 없구나.

[점주인] 이 활을 당신 멋대로 헐뜯는군요. 이런 활을 당신이 또 무엇을 탓하나요? 당신 마음대로 떠들거나 말거나이지만 헐뜯는 사람이야말로 살 사람이죠.

[중국인] 그쪽 한 장의 활은 어째서 벚나무 껍질을 안 입혔소?

[점주인] 손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 활은 가장 좋은 것이지만, 최상급 활에 만일 벚나무 껍질을 붙이면 사는 사람이 믿지를 아니할 것이니 먼저 손님에게 활 안쪽의 물소뿔과 등 뒤쪽에 붙인 쇠힘줄을 보이고 값을 거래하고 나서 벚나무 껍질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인] 이 활의 시위를 빼주시오. 활고자가 작고 활짱의 양끝도 짧아요. 이제 활도 샀구나.

原文 제77화 買弓弦

[漢] 有賣的弓弦時將來, 我一發買一條, 就這裏上了這弓着.

[主] 弦有. 你自揀着買.

[漢] 這的忒細, 這的却又麤倴.[1] 似這一等兒着中, 恰好. 這弓和弦, 都買了也.

1) '麤倴'은 '粗笨', '粗坌'이라고도 쓴다. "굵다"는 뜻이다.

(飜 老) 제77화 활시울 ·사·다

[漢] ·풀 활시·울 잇거·든 가·져 ·오·라, ·내 이·믜·셔 ᄒᆞ나 ·사, 드·듸·여 예·셔 화·를 지·후 리·라.[2]

[主] 시·울 잇·다. :네 ᄀᆞᆯ·히·여 사·라.

[漢] ·이·ᄂᆞᆫ 너므 ·ᄀᆞ·ᄂᆞᆯ·오 ·이·ᄂᆞᆫ ·ᄯᅩ :굴·고 :둔·박ᄒᆞ·다.[3] ·이 ᄒᆞᆫ가·짓 ·치·ᅀᅡ 맛·다. ·ᄒᆞ·ᄆᆞ·시[4] 됴·타. ·이 활·와 시·울·와 :다 ·사·다.

(老 諺) 제77화 활시울 사다

[漢] 풀 활시욹 잇거든 가져 오라. 내 ᄒᆞᆫ 번의 ᄒᆞᆫ 오리 사[5] 임의셔 예셔 이 활을 짓쟈.

[主] 시욹 이시니 네 손조 ᄀᆞᆯ히여 사라.

[漢] 이ᄂᆞᆫ 너모 ᄀᆞ놀고 이ᄂᆞᆫ ᄯᅩ 굵고 둔박ᄒᆞ다. 이 ᄒᆞᆫ 가지 치야 맛다. 마치[6] 됴타. 이 활과 시욹을 다 사다.

(現代譯) 제77화 활시위를 사다

[중국인] 활시위 파는 게 있으면 가져오시오. 내가 이제 하나를 사서 여기서 드디어 활을 만들어 보겠소.

[점주인] 시위는 여기 있습니다. 손님께서 골라서 사십시오.

[중국인] 이쪽은 너무 가늘고, 이쪽은 너무 굵고 투박하네. 이것 하나가

2) '지·후리·라'는 "지을 것이다"의 뜻.
3) ':굴·고 :둔·박ᄒᆞ·다'는 원문 '麤倴'의 언해로서 "굵고 투박하게 생겼다"의 뜻. 주1 참조. ':둔·박ᄒᆞ·다'는 '둔팍ᄒᆞ다'로도 씀. "투박하다"를 말함.
4) '·ᄒᆞ·ᄆᆞ·시'는 원문 '恰'의 풀이로 "마치, 흡사"의 뜻으로 보임.
5) <飜老>에서는 '이·믜·셔 ᄒᆞ나 ·사'임.
6) <飜老>에서는 '·ᄒᆞ·ᄆᆞ·시'임.

알맞을 것 같다. 딱 좋은데…. 이제 활과 시위를 모두 샀다.

(原 文) 제78화 買箭弓

[漢] 再買幾隻箭.

[主] 這鈚子,[1] 虎爪,[2] 鹿角樸頭,[3] 響樸頭,[4] 艾葉,[5] 柳葉,[6] 迷針箭,[7] 這箭簳是竹子的, 這的是木頭的.

1) '鈚子'는 '비자전(鈚子箭)'을 말한다. '비자전(鈚子箭)'은 "촉이 크고 긴 화살"을 말한다(『老朴集覽』). 『수호전(水滸伝)』(제83회)에 "雕翎鈚子箭"이 나온다. 언해 '셔보조'는 그저 '화살'이란 뜻이다.
2) '虎爪'는 "호조전(虎爪箭)"을 말한다, '호조전(虎爪箭)'은 호조형(虎爪形), 즉 호랑이 발톱과 같은 화살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老朴集覽』) 언해에는 '거리살'이라고 하였다. 송(宋)의 『무경총요(武経總要)』「前集」(권13) '기도(器図)', 『삼재도회(三才図繪)』「병기류(兵器類)」에 보이는 '철골려추전(鐵骨麗錐箭)'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3) '鹿角樸頭'는 "사슴뿔 고두리살"을 말하며 "사슴뿔로 둥글게 만든 화살촉을 단 연습용 화살"을 말한다. '樸頭'는 화살촉의 끝을 동그랗게 하여 연습용으로 쓰는 화살을 가리킨다. 언해에서 '樸頭'는 모두 '고도리'로 번역하였다. 고유어에서는 '고두리살'로 불렸던 것이다. 전술한 『무경총요(武経總要)』와 『삼재도회(三才図繪)』에 '목두박전(木頭樸箭)', 즉 나무로 촉을 박은 연습용 화살이 보인다.
4) '響樸頭'는 "소리 나는 고두리살"을 말하며 날아갈 때에 소리가 나게 만든 순무 모양의 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 『무경총요(武経總要)』, 『삼재도회(三才図繪)』에 '鳴鶻箭, 鳴鈴飛号箭'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향박두(響樸頭)의 일종일 것이다.
5) '艾葉'은 '애엽전(艾葉箭)'을 말한다. '애엽전(艾葉箭)'은 쑥잎 모양의 톱날 같은 눈금이 있는 긴 화살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老朴集覽』) 『무경총요(武経總要)』, 『삼재도회(三才図繪)』에 보이는 '烏龍鐵脊箭'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언해에서는 '미상(未詳)'으로 하였다.
6) '柳葉'은 '유엽전(柳葉箭)'을 말한다. '유엽전(柳葉箭)'은 버드나뭇잎 모양의 뾰족하고 긴 화살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老朴集覽』) 『조선사략(朝鮮史略)』(卷中)에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유엽전(柳葉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7) '迷針箭'은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마미침(馬迷針)' 상태의 화살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고 한다(『老朴集覽』). 여기서 '마미침(馬迷針)'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청(清)의 『옹정주비(雍正朱批)』(권174-9)에 "迷鏃箭頭 一万個를 私造함"이란 기사가 있는데 일종의 독화살(毒矢)로 보인다.

[漢] 再買這弓箭撒袋.[8] 諸般的都買了也.

(飜老) 제78화 화살 사져

[漢] ·또 여·러 :낫 ·살 사·져.

[主] ·이 ·셔보·조[9] 거리살,[10] 鹿角·오·로 밍·ᄀᆞᆫ 고도·리,[11] :울·고도·리,[12] 未詳,[13] :류·엽: 전,[14] 未詳,[15] ·이 ·삿·대[16]·는 ·대·오[17] ·이·는 남·기로·다.

[漢] ·또 화·살 녀흘 궁딕동·개[18] 사·져. 여·러 가·짓 거·슬 ·다 ·사·다.

---

8) '弓箭撒袋'는 '弓袋'라고도 하며 "동개", 즉 활을 넣는 가죽제의 주머니를 말한다. 옛날에는 '弓衣'라고 하였다. '동개'는 가죽으로 만들며 활은 반만 들어가고 화살은 아랫도리만 들어가게 되었다.

9) '·셔보·조'는 "사냥에 쓰이는 화살"을 말함. 여기서는 원문 '鈚子箭'을 풀이한 것으로 '비자전(鈚子箭)'은 "촉이 크고 긴 화살"을 말함. 주1 참조.

10) '거리살'은 "촉이 갈라지게 만든 화살"을 말함. 여기서는 원문 "虎爪箭"을 풀이한 말이다. 주2 참조.

11) '鹿角·오·로 밍·ᄀᆞᆫ 고도·리'는 "사슴뿔로 만든 고두리살"을 말한다. 여기서는 원문 '鹿角樸頭'를 풀이한 말이며 '고도·리(樸頭)'는 "연습용 화살"을 말함. 주3 참조.

12) ':울·고도·리'는 "響樸頭-소리 나는 고두리살"을 풀이한 것이다.

13) 원문 '艾葉'은 '未詳'으로 두었다. '艾葉箭'에 대해서는 주5 참조.

14) ':류·엽:전'은 "유엽전(柳葉箭), 버드나뭇잎 모양의 뾰족하고 긴 화살촉을 단 화살"을 말한다. 주6 참조.

15) 원문 '迷針箭'도 '未詳'으로 하였다. '미침전(迷針箭)'에 대하여는 주7 참조.

16) '·삿·대'는 '·살(箭) + -ㅅ(사이 ㅅ) + ·대(簳)'의 형태구성으로 "화살대"를 말함. 'ㅅ(사이 ㅅ)' 앞의 어간 말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16세기까지 유행하였다.

17) '·대·오'는 '·대(竹) + -ø(서술격조사) + -·오(연결어미 -고)'의 형태구성으로 "대나무이고"의 뜻. 서술격조사나 반모음 'j' 다음에 'ㄱ'이 탈락하는 현상도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어간의 '이'모음 뒤에서는 수의적.

18) '궁딕동·개'는 한자어 '궁대(弓袋)'와 고유어 '동개'가 결합된 복합어. '동개'는 "궁대(弓袋)와 같이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지는 기구"임. 활은 반만 들어가고 화살은 아랫도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음.

(老諺) 제78화 화살 사쟈

[漢] 또 여러 낫 살 사쟈.

[主] 이 셔보조, 거리살, 노각고도리,[19] 제오도리,[20] 艾葉箭,[21] 柳葉箭,[22] 迷針箭,[23] 이 살대는[24] 대오 이는 남기로다.

[漢] 또 화살 녀흘 등딕도개[25] 사쟈. 여러 가짓 것 다 사다.

(現代譯) 제78화 화살을 사다

[중국인] 또 화살도 몇 개 사세.

[점주인] 이 비자화살(鈚子箭), 호조전(虎爪箭), 사슴뿔 고두리살(鹿角樸頭), 소리 나는 고두리살(響樸頭), 애엽전(艾葉箭), 유엽전(柳葉箭), 미침전(迷針箭) 등이 있소이다. 이쪽 화살대는 대나무고, 이쪽은 나무입니다.

[중국인] 그리고 화살을 담아 넣는 궁대(弓袋), 동개를 삽시다. 여러 가지 것을 모두 샀네.

(原文) 제79화 買什物

[漢] 再買些椀子什物.[1]

---

19) <飜老>에서는 '鹿角·오·로 밍·ᄀᆞᆫ 고도·리'임.

20) <飜老>에서는 ':울·고도·리'임.

21) <飜老>에서는 '未詳'임.

22) <飜老>에서는 ':류·엽:전'임.

23) <飜老>에서는 '未詳'임.

24) <飜老>에서는 '삿·대·는'임.

25) <飜老>에서는 '궁딕동·개'임. 아마 '등딕도개'는 이것의 착오로 보임.

[主] 鍋兒, 鑼鍋,[2] 荷葉鍋,[3] 兩耳鍋,[4] (玆+瓦)楪子,[5] 木楪子, 漆楪子. 這紅漆匙,[6] 黑漆匙, 銅匙, 紅漆筯. 三脚,[7] 甑兒, 這盤子[8]是大盤子, 小盤子, 漆椀. 這漆器家火, 一半兒是通布 裏[9]的, 一半兒是膠漆[10]的. 再有些薄薄的生活. 其餘的都是布裏的, 是主顧生活.[11] 其餘的 都是市賣的.

飜老 제79화 사발와 그릇 벼돌 사져

[漢] ·ᄯᅩ 사발·와 그·릇 벼·돌[12] 사·져.

[主] 가·마, 노고, 너르ᄡᅧᆫ 가·마,[13] :두 ·녀·긔 자·블 ·귀 잇ᄂᆞᆫ 발·아딘[14] 가·마. ᄌᆞ·긔 사뎝· 시,[15] 나모뎝·시, 옷·칠·ᄒᆞᆫ 뎝·시. ·이 블근 ·칠ᄒᆞᆫ ·술,[16] 거·믄 ·칠ᄒᆞᆫ 술, ·놋·술. 블·근 ·칠ᄒᆞᆫ ·져,[17] 아·리·쇠 시·르.[18] ·이 반, ·이 ·큰 반, :져·근 반. ·칠ᄒᆞᆫ 사·발, ·이 ·칠ᄒᆞᆫ 그·릇, 연장·돌, :바·ᄂᆞᆫ :대·되 ·뵈·로 ·ᄡᅳ니·오 :바·ᄂᆞᆫ ·플 ·드·리·고 ·칠ᄒᆞᆫ 거시·라. ·ᄯᅩ 사오나·온 :셩·녕[19] 잇·다. 그 나·ᄆᆞ니·ᄂᆞᆫ :다 ·뵈 ·ᄲᅡ 잇ᄂᆞ·니 ·이·ᄂᆞᆫ 마·초·온 ·셩·녕[20]·이·오 그 나·ᄆᆞ·니·ᄂᆞᆫ :다 져·제 ·ᄑᆞ·ᄂᆞ·니로·다.

1) '什物'은 일상용구를 말한다. 여기서는 식기(食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老朴集覽』)
2) '鑼鍋'는 군중(軍中)에서 동라(銅鑼)와 냄비를 겸하여 사용하게 만든 것이다. 소위 중화과(中華鍋)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이 말이 그대로 차용되어 '노구', 또는 '노구솥'으로 쓰였다.
3) '하엽과(荷葉鍋)'는 연잎 모양으로 벌어진 냄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兩耳鍋'는 "손잡이가 두개 있는 솥"을 말함. <原老>에는 '六耳鍋'였는데 '육이과(六耳鍋)'의 '耳'는 솥에 달려있는 귀 모양의 손잡이를 말하며 이러한 손잡이가 여섯 개 있는 솥을 말한다. 원(元) 왕보(王黼)의 『중수선화박고록(重修宣和博古錄)』(권19) '한수이복(漢獸耳鍑)'에 "지금 바로 솥에 六耳가 있듯이"라는 구절이 있다.
5) '(玆+瓦)楪子'의 '楪子'는 작은 접시를 말한다.
6) '紅漆匙'는 붉은 칠을 한 숟가락이다. 몽고인과 여진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한인(漢人)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老朴集覽』)
7) '三脚'은 냄비나 시루(甑) 등을 얹는 다리가 셋인 받침대를 말한다.
8) '盤子'는 큰 접시를 말한다.
9) '通布裏'는 칠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에 삼베를 붙이고 옻칠을 하는 기법이다. 명(明) 황성(黃成)의 『(髹)飾錄』에서는 '布漆'이라고 한다.
10) '膠漆'은 "옻칠을 바르는 것"을 말함.『輟耕錄』 권30 '(髟+彡+木)器' 條의 漆器製造法에 의하면 먼저 소나무의 薄片을 아교로 붙이고 木地(칠하기 전, 나뭇결 모양이 나오게 만든 것)를 만들고, 그것을 '漆工'(옻칠하는 장인)이 사서 칼로 형태를 가다듬어 소가죽의 아교와 생칠(生漆)을 섞은 것으로 틈을 메우고, 거기에 '膠漆'을 바른다고 한다.
11) '主顧生活'은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맞춘 고급품을 말한다. '主顧'는 '단골손님', '고객'이라는 뜻이므로, 언해의 '마초온 셩녕이오'에서 '마초온'의 문맥적 의미는 "단골손님의 주문으로 만들어 놓은"이 된다.
12) '벼·돌'은 "등속들, 따위들"의 뜻.

老諺 제79화 사발과 그릇 벼들 사쟈

[漢] ᄯᅩ 사발과 그릇 벼들 사쟈.

[主] 가마, 노고, 헤너러딘[21] 가마, 두 귀 가진 가마.[22] ᄌᆞ긔 뎝시,[23] 나모뎝시, 옷칠ᄒᆞᆫ 뎝시. 이 블근 칠ᄒᆞᆫ 술, 검은 칠ᄒᆞᆫ 술, 놋술. 블근 칠ᄒᆞᆫ 져, 놋져. 이리쇠 시르,[24] 이 반, 이 큰 반, 져근 반. 칠ᄒᆞᆫ 사발, 이 칠ᄒᆞᆫ 그릇 벼ㅣ[25] 반은 대되 뵈로 ᄡᅳ니오 반은 아교칠 ᄒᆞᆫ 거시라. ᄯᅩ 사오나온 셩녕이 잇다. 그 나믄 이ᄂᆞᆫ 다 뵈로 ᄡᅡᆫ 거시니 이ᄂᆞᆫ 마최옴 셩녕[26]이오

13) '너르ᄡᅧᆫ 가·마'는 "벌어진 솥"을 말함.
14) '발·아딘'은 "벌어진"을 말함.
15) 'ᄌᆞ·긔 사뎝·시'는 "자기(瓷器) 접시"를 말함.
16) '·술'은 "숟가락"을 말함.
17) '·져'는 "젓가락"을 말함.
18) '아·리·쇠 시·르'는 원문 '三脚 甑兒'의 풀이로서 "삼각 시루"를 말함. '아·리·쇠'는 "삼각(三脚)", '시·르'는 "시루(甑兒)"를 말함.
19) ':셩·녕'은 "공정품, 공산품, 공업적으로 만든 것"을 말함. "工程 셩녕"(『同文類解』 하:17).
20) '마·초·온 ·셩·녕'은 원문 '主顧生活'의 언해이며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맞춘 고급품"을 말한다. 주11 참조.
21) <飜老>에서는 '너르ᄡᅧᆫ'임.
22) <飜老>에서는 ':두 ·녀·긔 자·블 ·귀 잇ᄂᆞᆫ 발·아딘 가·마'임.
23) <飜老>에서는 '·ᄌᆞ·긔 사뎝·시'임.
24) <飜老>에서는 '아·리 ·쇠 시·르'임.
25) <飜老>에서는 '연장·돌'임.
26) <飜老>에서는 '마·초·온 ·셩·녕'임.

그 나믄 이는 다 져제 ᄑᆞᄂᆞ니로다.

現代譯 제79화 그릇 사기

[중국인] 또 사발과 그릇 등속을 사세.

[점주인] 냄비, 노구, 벌어진 솥[荷葉鍋], 두 쪽에 잡을 귀가 있는 벌어진 솥[二耳鍋]. 자기(瓷器) 접시, 나무 접시, 옻칠한 접시. 이것은 붉게 옻칠한 숟가락, 검게 옻칠한 숟가락, 놋숟가락. 붉게 옻칠한 젓가락, 받침대 셋인 시루. 이 접시들은 큰 접시, 작은 접시, 옻칠한 사발이 있습니다. 이 칠기(漆器)의 그릇과 연장들은 반이 대부분 베로 감싼 것이고, 반은 아교 칠한 것입니다. 또 조잡한 물건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모두 베로 감싸 있으니 이것은 맞춘 물품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原文 제80화 親族宴

[漢] 今日備辦了些箇茶飯, 請咱們衆親眷[1]閑坐的.[2]

公公,[3] 婆婆, 父親, 母親, 伯伯, 叔叔, 哥哥, 兄弟, 姐姐, 妹子, 外甥, 姪兒, 姪女, 舅舅, 女婿, 妗子, 又嬸母,[4] 姨姨, 姑姑, 姑夫, 姨夫, 姐夫, 妹夫,

1) '衆親眷'은 "여러 친척"을 말한다. 제96화에서 미루어 볼 때에 여기서 친척을 초대한 것은 중국인인 王씨로 생각되지만, 요양(遼陽)에 거주하는 王씨의 親族이 大都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마도 중국어의 복잡한 친족 호칭의 습득을 위해 특별히 이 화(話)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 '閑坐的'의 '坐的'은 '坐地'라고도 쓰며 "앉는 것"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함의하고 있을 것이다. 언해문은 "안자셔 말ᄒᆞ져"로 되었다.
3) '公公'은 할아버지 즉 조부(祖父)를 말한다. <原老>에서는 '翁翁'이었는데 조부를 '翁翁'이라고 하는 것은 송대(宋代)의 말이고 명대(明代)에는 '公公'이라고 하였다.
4) '妗子 又嬸母'에 대하여는 송(宋) 장뢰(張耒)의 『명도잡지(明道雜志)』에 '妗'은

外甥女婿,[5] 叔伯哥哥兄弟, 姑 舅哥哥兄弟, 房親哥哥兄弟, 兩姨哥哥兄弟, 親家公, 親家母, 親家伯伯, 親家舅舅, 親家姨姨, 使喚的奴婢, 都請將來.

攔門盞兒都把[6]了. 請家裏坐的.

今日些小淡薄禮, 虛請[7]親眷. 酒也醉不得, 茶飯也飽不得, 休怪.

[親] 休這般說, 不當. 教你一日辛苦. 我們酒也醉了, 茶飯也飽了. 你休怪.

飜老 제80화 모든 아ᅀᆞᆷ돌 청ᄒᆞ져

[漢] 오·늘 ·차반 여·투·워[8] ·우·리 모·든 아·ᅀᆞᆷ·돌[9] ·청·ᄒᆞ·야 안·자·셔 :말ᄒᆞ·져.

'舅母', '嬸'은 '世母'의 두 글자를 각각 줄인 것이라고 한다(『老朴集覽』). 제57화 주2 참조.
5) '外甥女婿'는 외손녀의 사위를 말한다(『老朴集覽』). '外甥'에는 딸의 자식과 누이의 자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손녀(外孫女)의 남편을 가리킨다.
6) '攔門盞兒都把'의 '攔門'은 혼례에 참가하는 하객들에게 문전에서 권하는 술을 말하는 것으로, 송(宋)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5) '취부(娶婦)'에 의하면 혼례의 날에 신랑 집의 문에서 하인이나 가인(家人)이 신부에게 축의(祝儀)를 조르는 것을 '난문(攔門)'이라고 하였다. 그때에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금전기(金錢記)』「잡극(雜劇)」 3折 '살미(煞尾)'에 "攔門慶賀酒"라는 구절이 있어서 알 수 있다. 다만 원(元) 민한경(關漢卿)의 산곡(散曲)「이십환두·야불라(二十換頭·也不羅)」에 "諸親眷을 聚集하여, 우선 一盞의 攔門을 권함"이란 구절은 신랑에 대해서 한 말이다. 여기서는 초대한 손님을 집안으로 들이기 전에 우선 문전(門前)에서 권하는 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습관이 당시에 일반적인 것인지, 『老乞大』 편자(編者)의 오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 80화 자체가 원래 혼례의 연회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把盞'은 "술을 마시는 것"이라는 뜻이다. 원대(元代) 잡극(雜劇)에 이러한 용례가 보인다.
7) '虛請'은 원래 "허위의 보고로 급료 등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음식도 없는데 손님을 초대하였다는 겸사(謙辭)로 쓰였다.
8) '여·투·워'는 "준비하여, 마련하여"의 뜻임. '여토다'로도 쓰임.
9) '모·든 아·ᅀᆞᆷ·돌'은 원문 '衆親眷'의 언해로서 "여러 친척"을 말함. '아·ᅀᆞᆷ·돌'은 "친척들"임.

·하·나·비, ·할·미, 아·비, ·어·미, 아·빅 동싱[10] ᄆᆞᆮ형, 아·빅 동싱 아ᅀᆞ, 동싱 형, 동싱 아ᅀᆞ,[11] 동싱 ᄆᆞᆮ누의, 동싱 아ᅀᆞ 누의, 누의게 난 아ᄃᆞᆯ, 동싱 형데의 난 아ᄃᆞᆯ, 동싱 형·데·게 난 아·촌·ᄯᆞᆯ,[12] ·어·믜 ·오·라·비 사·회,[13] ·어믜 ·오라·븨 :겨·집,[14] 아ᅀᆞ 아자·븨 :겨·집,[15] ·어·믜 :겨·집 동싱, 아·븨 동싱 누의, 아·븨 동싱 누의 남진,[16] ·어·믜 ·겨·집 동싱·의 남진, ᄆᆞᆮ 누의 남진, 아ᅀᆞ 누의 남진, ·ᄯᆞ·릐 사·회,[17] 동·셩 :ᄉᆞ·촌 형·데,[18] 아·븨 누의 어·믜 ·오라·빅게·셔 난 형·데,[19] 륙·촌 형·데,[20] ·어·믜 :겨·집 동싱·의게·셔 난 형·데, 사·돈·짓[21] 아·비, 사·돈짓 ·어·미, 사·돈·짓 아자·비, 사·돈짓 ·어·믜 ·오·라·비, 사·돈·짓 아·ᄌᆞ미, ·ᄇᆞ·리·ᄂᆞᆫ :죵·ᄃᆞᆯ, :다 ·청·ᄒᆞ·야 ·오·라.

ᄀᆞᆺ ·와 문 ·들·어·든[22] 슌빅 ᄒᆞᆫ ·잔곰 ·받ᄌᆞ·오·라. ·청·ᄒᆞ·뇌 지븨 ·

10) '동싱'은 "동생(同生), 같이 태어난 형제들"을 말함. 이것이 "아우"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근대 국어 이후의 일이다.
11) '兄弟'는 "동생, 아우"를 말함. 제12화 주2 참조.
12) '아·촌·ᄯᆞᆯ'은 "조카딸"을 말함. '동싱 형·데·게 난 아·촌·ᄯᆞᆯ'은 '姪女'의 언해로 "동생에게서 난 조카딸"을 말함.
13) '·어·믜 ·오·라·비 사·회'는 원문 '舅舅'의 풀이로 "외숙의 사위"를 말함.
14) '·어믜 ·오라·븨 :겨·집'은 '妗子'의 언해로 "외숙모(外叔母)"를 말함. 주4 참조. '嬸子'는 '嬸母'를 말하며 "숙부의 부인"을 말하는데 '嬸娘' 또는 '嬸子'라고도 한다. 주4 참조.
15) '아ᅀᆞ 아자·븨 :겨·집'은 원문 '嬸母'의 풀이로서 "숙모"를 말한다. 제57화 주2 참조.
16) '아·븨 동싱 누의 남진'은 '姑夫'의 풀이로 "고모부"를 말함.
17) '·ᄯᆞ·릐 사·회'는 원문 '外甥女婿'의 언해이며 그 뜻은 "외손녀사위"를 말한다. 주8 참조.
18) '동·셩 :ᄉᆞ·촌 형·데'는 원문 '叔伯哥哥兄弟'의 언해로 "숙부와 백부에게서 난 형과 동생"이란 뜻으로 "같은 성(同姓)의 사촌 형제"를 말함.
19) '아·븨 누의 어·믜 ·오라·빅게·셔 난 형·데'는 원문 '姑舅哥哥兄弟'의 언해로 "숙부와 외숙부에서 난 형제, 즉 고종사촌, 이종사촌들"을 말함.
20) '륙·촌 형·데'는 "육촌 형제"를 말하며 원문 '房親哥哥兄弟'의 풀이다.
21) '사·돈·짓'은 '사·돈(査頓) + ·집(家)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으로 'ㅅ' 앞에서 어간 말자음 'ㅂ'의 탈락이 있음. 제78화 주16 참조.
22) '문 ·들·어·든'은 "문에 들어서면"의 뜻으로 원문 '欄門'을 풀이한 것이다. 이 말

드러 안ᄌᆞ쇼셔.

오·늘 :잠·싼 :담·박ᄒᆞᆫ[23] :이·레 ·쇽졀 :업·시 아·ᅀᆞᆷ·ᄃᆞᆯ ·청·ᄒᆞ·야[24] 수울·도 ·취티 ·몯ᄒᆞ며 ·차·반·도 ·ᄇᆡ브르·디 :몯·ᄒᆞ·샤이·다. 허·믈 :마·ᄅᆞ 쇼·셔.

[親] ·이·리 니ᄅᆞ·시·디 :마·ᄅᆞ쇼·셔. ·당·티 :몯·ᄒᆞ·야이·다[25]. 너·를 ·ᄒᆞ·야 ᄒᆞᆯ·ᄅᆞᆯ[26] :내·내 :슈·고 ᄒᆞ·게 ᄒᆞ·과이·다. ·우·리·ᄂᆞᆫ 수을·도 :취ᄒᆞ·며 ·차·반·도 ·ᄇᆡ브르·과이·다. :네 허·믈 :마·ᄅᆞ 쇼·셔.

(老諺) 제80화 모든 권당을 칭ᄒᆞ야

[漢] 오늘 차반 여토와 우리 모든 권당을[27] 칭ᄒᆞ야 힘힘이 안젓쟈.[28]

하나비, 할미, 아비, 어미, 아븨 ᄆᆞᆺ형,[29] 아븨 아ᄋᆞ, 형, 아ᄋᆞ, ᄆᆞᆺ누의, 아ᄋᆞ 누의, 누의게 난 아ᄃᆞᆯ, 동싱 형데의 난 아ᄃᆞᆯ, 동싱 형데게 난 아촌ᄯᆞᆯ, 어믜 오라비, 사회, 어믜 오라븨 겨집, 아ᄋᆞ 아자븨 겨집, 어믜 겨집 동싱, 싱븨동동누의,[30] 아븨 동싱 누의 남진, 어믜 겨집 동싱의 남진, ᄆᆞᆺ누의 남진, 아ᄋᆞ 누의 남진, ᄯᆞᆯ의 사회, 同姓 四寸형 아ᄋᆞ,[31] 異姓 四

은 혼례에 참가하는 하객들에게 문전에서 권하는 술을 말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언해라고 보기 어렵다. 주4 참조.
23) ':담·박ᄒᆞᆫ'은 원문 '淡薄'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의 뜻.
24) '·쇽졀 :업·시 아·ᅀᆞᆷ·ᄃᆞᆯ ·청·ᄒᆞ·야'는 원문 '虛請親眷'을 직역한 것으로 "쓸데없이 친척들을 초청하여"의 뜻이다. '虛請'은 겸양의 의미로 쓰였다. 주10 참조.
25) '·당·티 :몯·ᄒᆞ·야이·다'는 원문 '不當'을 풀이한 것으로 "옳지 않다"의 뜻으로 쓴 것이다.
26) 'ᄒᆞᆯ·ᄅᆞᆯ'은 "하루를"의 뜻.
27) <飜老>에서는 '아·ᅀᆞᆷ·ᄃᆞᆯ'임.
28) <飜老>에서는 '안·자·셔 :말ᄒᆞ·져'임.
29) <飜老>에서는 '아·비 동싱 ᄆᆞᆮ형'임. 이하 '동싱(同生)'은 빠짐.
30) <飜老>에서는 '아·븨 동싱 누의'임. '싱븨동동누의'는 '아·븨 동싱 누의'의 오각(誤刻)으로 보임.
31) <飜老>에서는 '동·셩 :ᄉᆞ·촌 형·데'임.

寸형 아ᅀᆞ,32) 同姓 六寸형 아ᅀᆞ, 어믜 겨집 동싱의게셔 난 형뎨, 사돈짓 아비, 사돈짓 어미, 사돈짓 아자비, 사돈짓 어먹오라비,33) 사돈짓 어믜 겨집 동싱,34) ᄇᆞ리ᄂᆞᆫ 奴婢를 다 請ᄒᆞ야 오라.

ᄆᆞᆫ드림잔 다35) 밧ᄌᆞ오라. 청ᄒᆞ노니 집의 드러 안ᄌᆞ쇼셔.

오늘 잠ᄭᅡᆫ 담박ᄒᆞᆫ 녜로36) 쇽졀업시 권당을 청ᄒᆞ야 술도 취티 못ᄒᆞ고 차반도 비브리디 못ᄒᆞ여다.37) 허믈 말라.

[親] 이리 니ᄅᆞ디 말라.38) 당티 못ᄒᆞ여라. 널로 ᄒᆞ여곰 ᄒᆞᆯᄅᆞᆯ 슈고ᄒᆞ여다.39) 우리 술도 취ᄒᆞ고 차반도 비브르다. 네 허믈 말라.

(現代譯) 제80화 가족 연회

[중국인] 오늘은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 모든 친척들을 청하여 한가롭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백부(伯父)님, 숙부(叔父)님, 형님, 남동생, 누나, 여동생, 남자 조카(누이의 아들), 남자 조카(형제의 아들), 여자 조카(형제의 딸), 외삼촌, 사위, 외숙모, 그리고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고모부, 이모부, 매형, 매제, 외손녀사위, 고종사촌 형제, 친사촌 형제, 고모네 아들딸과 외숙부의 아들딸, 재종 형제자매, 이종사촌 형제 (이모네 아들 딸),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의 백부님, 아내의 숙부님, 아내의 이모님, 고용하고 있는 하인들도 모두 불렀소이다.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제 막 와서 문에 들어온 분은 순배(巡杯) 한 잔씩 바치겠습니다. 어서 집안에 들어와 앉으십시오.

—연회가 끝나고—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쓸데없이 친척분들을 초청해서 술도 취할 만큼 못 드리고 음식도 배불리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나무라지 마십시오.

[친척들] 그런 말을 하지 말게. 당치않네. 자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수고하게 하였네그려.

우리는 술도 취했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네 그려. 자네야말로 허물하지 말게.

32) <飜老>에서는 '아·븨 누의 어·믜 ·오라·비게·셔 난 형·뎨'임.
33) <飜老>에서는 '·어·믜 ·오·라·비'임. '어먹오라비'는 "어믜오라비"의 오각(誤刻)으로 보임.
34) <飜老>에서는 '아·ᄌᆞ미'임.
35) <飜老>에서는 'ᄀᆞᆽ ·와 문 ·들·어·든 슌비 ᄒᆞᆫ ·잔곰'임. 원문 '欄門'을 풀이한 것으로 <飜老>보다 조금 발전된 언해로 보인다. 주9 참조.
36) <飜老>에서는 ':이·레'임.
37) <飜老>에서는 ':몯·ᄒᆞ·샤이·다'임.
38) <飜老>에서는 '니ᄅᆞ·시·디 :마·ᄅᆞ쇼·셔'임.
39) <飜老>에서는 ':슈·고 ᄒᆞ·게 ᄒᆞ·과·이·다'임.

(原文) 제81화 車房

[甲] 如今正是臘月,1) 天氣寒冷. 拾來的糞2)將來, 熰着些火, 熱手脚.

1) '蠟月'은 "음력 12월, 즉 섣달"을 말한다. 주인공들은 7월말이나 8월초에 대도(大都)에 도착했을 것이므로 대도에 온지 벌써 4개월이 지난 것이 된다.
2) '糞'은 "연료로 쓰는 소나 말의 배설물"을 말한다. 원대(元代)의 북경(北京)에서는 난방(煖房)할 때에 석탄이나 장작을 사용하였으나 그것은 매우 고가(高価)였고 소나 말의 똥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주어다가 때면 돈이 들지 않았다. 『분아귀(盆兒鬼)』「잡극(雜劇)」 3折의 대사에 "俺去時節灶窩裏理着些牛糞火兒—나는 나갈 때에 아궁이[灶]에 소똥[牛糞]의 불을 묻어두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朴通事』(下)에는 난방에 석탄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다.

[乙] 糞拾在筐子裏頭. 收進來, 休教別人將去了.

[甲] 這車子, 折了車網子,[3] 輻條將來.

[乙] 可惜了, 咱們後頭不修理那, 車軸, 車釧,[4] 車鐗,[5] 車頭, 車梯,[6] 車廂,[7] 車轅,[8] 繩索都 好.

[甲] 樓子車,[9] 庫車,[10] 驢騾大車,[11] 坐車兒,[12] 都好生房子裏放着. 休教雨雪濕了.

---

3) '車網子'의 '網'은 '輞'이라고 써야 한다. "차륜(車輪)의 바깥살"을 말한다.
4) '車釧'은 "바퀴통의 바깥을 덮는 철로 된 테"(『老朴集覽』)를 말함. 옛날에는 '輨'이라고 했다. '車釧'은 그 속칭이다(『訓蒙字會』 中).
5) '車鐗'은 "차축과 바퀴통 사이에 끼어 넣어 바퀴통과 차축이 서로 마멸(磨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는 철"을 말한다(『老朴集覽』). 『석명(釋名)』에 "鐗은 間이다. 間은 釭과 軸 사이를 相摩하지 않게 함"이라는 설명이 있다. '車諫'과 '車鐗'의 고대의 실물에 대하여는 "中國古獨輈馬車的結構"(『文物』 1985년 8期) 참조.
6) '車梯'는 "사륜차(四輪車)"를 말한다. 앞의 두 바퀴가 높고, 뒤의 이륜(二輪)이 낮은 등산용의 차를 말하는 것이다(『묵자(墨子)』 「경설(經說)」 上). 명(明) 갈근(葛昕)의 『집옥산방집(集玉山房集)』(권8) 「가중규건승(賈中葵巾丞)」에 "双車도 또한 梯를 사용하려고 함"이란 구절과 "双輪車 만일 공히 車梯를 얻지 못하면"이라는 구절을 보면 이륜차(二輪車)를 사륜차(四輪車)처럼 사용하기 위한 도구인 것 같기도 하다.
7) '車廂'은 "마차에서 사람이 타도록 방처럼 만든 부분"을 말한다.
8) '車轅'은 "마소가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하여 수레의 양옆에 길게 나온 나무"를 말한다. 보통 "끌채"라고 한다.
9) '樓子車'는 "누차(樓車)"를 가리키는 듯하다. "위를 누각처럼 만들어 눈비를 가릴 수 있게 만든 수레"로 보인다.
10) '庫車'는 몽골인들이 "옷 같은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갈무리하기 위하여 만든 창고 같은 수레"이다(『老朴集覽』). 명(明) 주기(周祈)의 『명의고(名義考)』(권12) 「치중(輜重)」에 "소위 庫車는 『字林』에 衣物을 載하는 車"라는 설명이 있다.
11) '驢騾大車'는 "수레에 대여섯 마리의 노새를 매어 평지에서만 짐을 나르게 만든 큰 수레"를 말한다(『老朴集覽』). 『명회전(明會典)』 「사례(事例)」에 "民間에서 驢騾車를 사용하여 物貨를 裝載하는 자는 每輛에 鈔二百貫을 납입하게 함"이라는 조세(租稅) 규정이 있다.
12) '坐車兒'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작은 수레"를 말한다. 주로 부인들이 타고 다녔다.

(飜老) 제81화 수레

[甲] ·이·제·는 :졍·히 :섯·ᄃᆞ리·니[13] 하·늘·도 ·칩·다. 주·ᅀᅥ 온 ᄆᆞᆯᄯᅩᆼ 가·져다·가 ·블 무희·워[14] ·손·발 데·워지·라.

[乙] ᄆᆞᆯᄯᅩᆼ·이 주·ᅀᅥ 광조·리 안·해 다·마 잇ᄂᆞ·니 거·두·워 ·드·려오·고 다ᄅᆞᆫ :사·ᄅᆞᆷ 가·져 가·게 :말·라.

[甲] ·이 술·위 술·윗 바·횟 밧돌·이[15] ·히·여·디·도·다. ·살·돌 가·져·오·라.

[乙] 앗가:올·셔. ·우·리 ·후·에 아니 슈·리ᄒᆞ·려? 술·윗·통,[16] 술·윗·통·앳 구뭇 :부·리 돌·이·로[17] 바·가 잇ᄂᆞᆫ ·쇠, 술·윗·통 구·무 ·안·히 달·티 아·니·케 기조·치[18]·로 바·가 잇ᄂᆞᆫ ·쇠,[19] 술·윗 알ᄑᆡ 괴·오·ᄂᆞᆫ 나모,[20] 술·위 :뒤 괴· 오·ᄂᆞᆫ 나모,[21] 술·윗 :두 ·녁 란간,[22] 술·윗 ᄂᆞ롯,[23] :바·돌[24] 다 ·됴·ᄒᆞ·야 잇·다

[甲] 집 ᄒᆞᆫ 술·위,[25] 자·븐 ·것 년는 술·위,[26] 나귀 노·새 메·우·ᄂᆞᆫ ·큰

---

13) ':섯·ᄃᆞ리·니'는 원문 '蠟月'의 풀이로 "섣달(12월)이니"의 뜻.
14) '무희·워'는 '무희-(�) +-·우-(사역형)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불을) 피워서"임.
15) '바·횟 밧돌·이'은 "바퀴의 바깥살"을 말함. 주3 참조.
16) '술·윗·통'은 "굴대(車軸)"를 말함.
17) 원문 '車釧'의 언해로 '구뭇 :부·리 돌·이·로'는 '구무(孔) + -ㅅ(사이 ㅅ) + :부·리(가장자리) + 돌-(回) + -·이(명사파생) +-·로(조격)'의 형태구성으로 "구멍의 가장자리에 있어 돌게 하는 것으로, 굴대 구멍의 덧방쇠로"의 뜻을 말함. 주4 참조.
18) '기조·치'는 "세로[縱]"를 말함.
19) 원문 '車鐗'의 언해로 차축과 바퀴통 사이에 끼어 넣어 바퀴통과 차축이 서로 마멸(磨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는 철을 말한다. 주5 참조.
20) 원문 '車頭'의 풀이로 "수레의 앞을 받치는 나무"임.
21) '술·위 :뒤 괴·오·ᄂᆞᆫ 나모'는 원문 '車梯'의 언해로 보이나 원래의 뜻과 다르다. '車梯'는 "사륜차(四輪車)"를 말한다. 주6 참조.
22) '술·윗 :두 ·녁 란간'은 "수레 양 쪽의 난간"이란 말로 원문 '車廂'의 언해임. 주7 참조.
23) '술·윗 ᄂᆞ롯'은 '車轅'의 풀이임. 주8 참조. 'ᄂᆞ롯'은 "끌채[轅]"를 말함.
24) ':바·돌'은 원문 '繩索'의 풀이로 "밧줄"을 말함.
25) '집 ᄒᆞᆫ 술·위'는 원문 '樓子車'의 언해임. 주9 참조.

·술·위,[27] ᄐᆞ·ᄂᆞᆫ 술·위, :다 :됴·히 지·븨 ·드·려 노·하 두·고 :눈·비·예 젓·게 :말·라.

老諺 제81화 술위

[甲] 이제 정히 섯ᄃᆞᆯ이니 하ᄂᆞᆯ히 친다.[28] 주어 온 ᄆᆞᆯᄯᅩᆼ 가져다가 블 무휘워 손발 대이쟈.

[乙] ᄆᆞᆯᄯᅩᆼ을 주워[29] 광조리 안히 이시니[30] 거두어 드려오고 다ᄅᆞᆫ 사ᄅᆞᆷ 가져 가게 말라.

[甲] 이 술위 술윗박회 밧도리 해야디거다. 살들 가져오라.

[乙] 앗가올샤. 우리 후의 아니 修理ᄒᆞ랴? 술윗통, 술윗통엣 구무부리 도리로 박은 쇠, 술윗통 안히 달티 아니케 기조치로 박은 쇠, 술윗 압 괴오ᄂᆞᆫ 나모, 술위 뒤 괴오ᄂᆞᆫ 나모, 술윗 두 녁 난간, 술윗 ᄂᆞ롯, 바ᄃᆞᆯ 다 됴타.

[甲] 집 지은 ᄉᆞᆯ위, 잡은 것 년ᄂᆞᆫ 술위, 나귀 노새ᄃᆞᆯ 머오ᄂᆞᆫ[31] 큰 술위, ᄐᆞᄂᆞᆫ 술위, 다 됴히 집의 드려 노하 두고 雨雪에 젓게 말라.

現代譯 제81화 수레 곳간에서

이 회화는 누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주인공 일행은 수레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제52화), 주인공들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묵은 곳은 '수렛방(車房)'이어서(제58화) 그곳에서 주워들은 말을 중심

26) '자·븐 ·것 년는 술·위'는 원문 '庫車'의 언해임. 주10 참조.
27) '나귀 노·새 메·우·ᄂᆞᆫ ·큰 ·술·위'는 원문 '驢騾大車'의 언해임. 주11 참조. '메·우·ᄂᆞᆫ'은 "지게 하는, 끌게 하는"의 뜻.
28) <飜老>에서는 '·칩·다'임.
29) <飜老>에서는 'ᄆᆞᆯᄯᅩᆼ·이 주·ᅀᅥ'임.
30) <飜老>에서는 '다·마 잇ᄂᆞ·니'임.
31) <飜老>에서는 '메·우·ᄂᆞᆫ'임.

으로 제81화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甲] 이제는 정말로 섣달이니 하늘도 춥구나. 주워온 말똥을 가져와서 불을 때어 손발을 따뜻하게 하자.

[乙] 말똥을 주워서 바구니 속에 담아 놓았으니 거두어들여 오시오. 딴 사람들이 가져가게 마시오.

[甲] 이 수레는 바퀴의 바깥살이 부러졌구나. 살들을 가져오게.

[乙] 아깝습니다. 나중에 수리하지 않겠는가? 굴대(車軸), 굴대 구멍의 덧방쇠,[32] 차축의 철 덮개, 수레 앞을 받치는 나무, 수레 뒤를 받치는 나무, 수레 양쪽의 난간, 수레 끌채, 밧줄들은 모두 괜찮소이다.

[甲] 집을 만든 수레, 짐 넣는 수레, 나귀나 노새가 끄는 큰 수레, 사람이 타는 수레, 모두 제대로 집에 들여 넣고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게.

原文 제82화 賭射箭

[甲] 似這般冷時, 咱們遠垜子[1]放着射, 賭一箇羊.

[乙] 咱們六箇人,[2] 三掤兒[3]箭, 勾射了.

32) 원문 '車釧'은 바퀴통의 바깥을 덮는 철로 된 테(『老朴集覽』). 옛날에는 '輨'이라고 했다. '車釧'은 그 속칭이다(『訓蒙字會』 中).

1) '遠垜子'의 '垜子'는 표적을 가리킨다. 벽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또는 짚, 수숫대를 묶어 화살의 과녁을 만든다(『老朴集覽』). 활쏘기 시합에 대하여는 『의례(儀礼)』의 「향사례(鄕射礼)」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원대(元代)에는 12월 하순에 몽고인 귀족들이 짚으로 만든 인형이나 개를 과녁으로 하여 교대로 활을 쏘는 '사초구(射草狗)'라는 의식이 있었다(『元史』 권77 「祭祀」). 그리고 원(元) 웅몽상(熊夢祥)의 『석진지(析津志)』 「풍속 · 세기(風俗 · 歲紀)」에는 10월에 무관(武官)들이 행하는 '사포(射圃)'라는 행사에 왕세자가 세 개의 화살을 쏘아 높고 멀리 날아가게 하는 '개타장(開垜場)'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2) '六箇人'으로 여섯 사람이 시합을 하는 것인데 세 사람씩 두 조로 갈라서 시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甲] 那邊先射過來.

[乙] 人呌喚大了.4)

纔射的歪了. 高些箇射,5) 休小了.6) 低射時, 竄到7)了.

誰贏誰輸, 由他.8)

[甲] 你看, 早裏,9) 一會兒, 再添一枝箭時, 咱們滿了.

[乙] 我贏了. 輸了的, 做筵席着.

---

3) '三掤兒'의 '掤'은 화살을 넣는 통의 뚜껑을 가리키지만, 속된 말로는 세 개의 화살을 '일붕(一掤)'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붕(三掤)'은 9대의 화살을 말한다. 한 사람당 3대씩이고 각 조당 9대씩이 될 것이다.

4) '人呌喚有'는 활 쏠 때에 과녁에 맞히었는지 상대방 조의 사람이 큰 소리로 알려 주는 것 같다. 상대방 조가 끝나고, 이쪽이 쏘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原老>와 원문의 차이가 있어서 의미가 다르다. <原老>에서는 다음의 '大了'를 "과녁에 맞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 원대(元代) 한어(漢語)에 이러한 뜻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즉, <原老>에서는 이 부분이 "人呌喚有, 大了也, 恰好者."로 되어 다음에 '恰好者'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에 비로소 전체 문맥이 잘 맞는다. 그러나 <飜老>에서는 이 부분을 "人呌喚大了—사ᄅᆞ미 짓글휴믈 크게 ᄒᆞᄂᆞ다—"로 "과녁에 맞다"의 의미를 반영하지 않았다.

5) '高些箇射'의 '高射'에 대하여는『사경(射經)』「보사병색(步射病色)」에 "開弓勘手란 앞의 손이 너무 높고, 뒤의 손이 낮아서 수평을 이루지 못함을 말한다. 開弓提手란 앞의 손이 너무 낮고 뒤의 손이 높은 것을 말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궁시(弓矢)의 앞뒤가 수평하지 못하면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지 않는다.

6) '休小了'의 '小'는 '手小'를 말한다. 송(宋) 왕거(王琚)의『사경(射經)』「보사병색(步射病色)」에 "手小란 손을 斂定하여 활에서 일찍 손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함"이라는 설명이 있어, 활을 쏠 때에 늦게 화살을 놓으면 저절로 활 전체가 내려가고 얕게 쏘게 되어 화살은 과녁에 닿기 전에 떨어진다. 반대로 너무 일찍 놓으면 화살이 높이 떠서 과녁 위로 날아가 버린다. 乙의 동료가 너무 높이 쏘았으므로 '休小了'라고 한 것이다.

7) '竄到'는 화살이 과녁에 닿기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해는 '근드·거 ·가·ᄂᆞ니·라(흔들리면서 간다)'라고 하였다.

8) '由他'는 "운(運)에 맡기다,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의 뜻이다. 제32화 주2 참조.

9) '早裏'는 "이르다"란 뜻이다. 甲이 연속해서 8대를 과녁에 맞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지만 거의 이긴 것으로 본 것이다.

(飜老) 제82화 활 ᄡᅩ기 내기

[甲] ·이·리 ·치·우·니 ·우·리 :먼 :솔10) 노·하 두·고 ·ᄡᅩ·아 ᄒᆞᆫ 양 :던·져.11)

[乙] ·우·리 여·슷 :사·ᄅᆞ·미 :세 :젼동12) ·살·로 :유·여·히 ·ᄡᅩ·리로·다.

[甲] 뎌녀·기 몬져 ·ᄡᅩ·라

[乙] :사·ᄅᆞ·미 짓글·휴·믈13) ·크·게 ·ᄒᆞ·ᄂᆞ·다.14)

[乙] 앗·가 ·ᄡᅩ·몰 기·우·로15) ·ᄒᆞ·야·다. 놉ᄌᆞ시 ·ᄡᅩ·고 ·ᄠᅥ·디·게 :말·라. ᄂᆞᆽ가·이 ·ᄡᅩ·면 근드·거16) ·가·ᄂᆞ니·라.

[乙] ·뉘 이·긔·며 ·뉘 :몯 이·긔니·오? 더·뎌 두·고·셔.17)

[甲] :네 보·라. 일·엇·다.18) ᄒᆞᆫ 디·위 ·ᄯᅩ ·살 ᄒᆞ나·만 더으·면 ·우·리 ·ᄎᆞ·리로·다.19)

---

10) ':솔'은 "과녁"을 말함. "帿 솔 후 俗呼布培"(『訓蒙字會』 중:14).

11) ':던·져'는 ':던-(賭) + -·져(청유형 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내기를 하자"의 뜻.

12) ':젼동'은 '三掤兒'의 언해로서 "전통(箭筒), 화살통"을 말함. 주3 참조.

13) '짓글·휴·믈 '은 '짓글·히-(呌) + -오/우ㅁ(동명사형) + -·을'의 형태구성으로 "짓거리는 것을"의 뜻.

14) 원문 '人呌喚大了'는 활 쏠 때에 과녁에 맞히었는지 상대방 조의 사람이 큰 소리로 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조가 끝나고, 이쪽이 쏘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끝 부분의 '大了'는 "과녁에 맞다"의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큰소리"로 해석하였다. 아마도 원대(元代) 한어(漢語)에 쓰던 말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4 참조.

15) '기·우·로'는 "기울게"의 뜻.

16) '근드·거'는 "흔들리어, 근덕이어"의 뜻. '근득-(竄)'의 부사형.

17) '더·뎌 두·고·셔'는 "던져두고서, 놔두고서"의 뜻.

18) '일·엇·다'는 "일찍이었다"의 뜻.

19) '·ᄎᆞ·리로·다'는 "찰 것이다"의 뜻.

[甲] ·내 이·긔와·다. ·몯 이·긔·니·는 이바·디[20] ᄒᆞ·라.

(老諺) 제82화 활 ᄡᅩ기 내기

[甲] 이리 치우니 우리 멀리 솓티고[21] ᄡᅩ아 ᄒᆞᆫ 양을 던으쟈.
[乙] 우리 여슷 사ᄅᆞᆷ이 세 전동살로 유여히 ᄡᅩ리로다. 더 편이[22] 몬져 ᄡᅩ라.

[甲] 사ᄅᆞᆷ이 짓괴기를[23] 크게 ᄒᆞ더니.

[乙] ᄀᆞᆺ ᄡᅩ기를 기우로 ᄒᆞ여다. 놉즈기[24] ᄡᅩ고 ᄠᅦ디게 말라. ᄂᆞ즈기 ᄡᅩ면 근드겨[25] 가ᄂᆞ니라.

[乙] 뉘 이긔며 뉘 못 이긔뇨? 더뎌 두고.[26]

[甲] 네 보라. 일럿다. ᄒᆞᆫ 디위 ᄯᅩ 살 ᄒᆞ나만 더ᄒᆞ면 우리 ᄎᆞ리로다.

[甲] 우리 이긔여다.[27] 못 이긔니는 이바디ᄒᆞ라.

20) '이바·디'는 "잔치"를 말함. "宴 이바·디 연"(『訓蒙字會』 하:15).
21) <飜老>에서는 ':솔 노·하 두·고'임.
22) <飜老>에서는 '뎌녀·기'임.
23) <飜老>에서는 '짓글·휴·믈'임.
24) <飜老>에서는 '놉ᄌᆞ시'임.
25) <飜老>에서는 '근드·거'임.
26) <飜老>에서는 '두·고·셔'임,
27) <飜老>에서는 '이·긔와·다'임.

(現代譯) 제82화 활쏘기 내기

이 장면은 아마도 주인공들이 북경(北京)에서 사람들이 활쏘기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제82화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인공을 갑(甲), 을(乙)로 한다. -역주자

[甲] 이렇게 추우니 우리 멀리 과녁을 놓아두고 활을 쏘아 양 한 마리 내기하세.
[乙] 우리 여섯 사람이 세 전통(箭筒)의 화살로 충분히 쏠 것입니다. 그쪽이 먼저 쏘시오.

—甲쪽의 사람이 과녁을 마쳤다—
[甲]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를 크게 하는구나.

—乙쪽의 사람이 실수로 잘못 쏘았다—
[乙] 이번에 쏘는 것을 기울게 하였소. 높직하게 쏘아보고 (활에서 손을) 일찍 떼지 마시오. 낮게 쏘면 화살이 흔들거리며 갑니다.

—乙쪽의 화살이 또 빗나갔기 때문에—
[乙] 누가 이기며 누가 못 이긴 사람인고? 내버려두세.

—甲쪽이 계속 맞히니까—
[甲] 당신들 보게. 아직 이르지만, 이제 화살 하나만 한 번 더 맞히면 우리가 만점일세.

—마지막 화살을 맞혔기 때문에—
[甲] 내가 이겼네. 진 사람이 잔치를 여시오.

原文 제83화 漢兒茶飯

[甲] 咱們做漢兒茶飯着. 頭一道團攛湯,[1] 第二道鮮魚湯, 第三道雞兒湯, 第四道五軟三下鍋,[2] 第五道乾按酒,[3] 第六道灌肺,[4] 蒸餅,[5] 脫脫麻食,[6] 第七道粉湯,[7] 饅頭,[8] 打散.

1) '団攛湯'은 언해에서는 '제법미상(製法未詳)'으로 되었으나 『老覽』에 의하면 고기 경단이나 고기를 얇게 썬 것을 탕에 넣은 것, 또는 닭고기, 돼지 허파, 배를 아주 가늘게 썰어서 분피(紛皮)로 감싼 것을 넣은 탕이라고 한다. <原老>에서는 '細紛'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녹두(綠豆)의 전분(澱粉)으로 만든 일종의 수제비이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6) 「십육일(十六日)」에 '과두세분(科斗細紛)'이란 음식 이름이 등장하며 그 형태는 '올챙이'와 같았다고 한다(中村喬; 『宋代の料理と食品』 354쪽 참조).
2) '오연삼화과(五軟三下鍋)'는 『朴通事』(上)에도 보이며, 『朴覽』(上)의 해설에 의하면 "다섯 종류의 뼈가 없는 정육(精肉)을 얇게 썰어서 소금에 볶아 식초로 삶고 여기에 썬 파를 섞어서 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해에는 '製法未詳'이다. 원래 '삼하과(三下鍋)'는 원(元) 홀사혜(忽思慧)의 『음선정요(飮膳正要)』「취진이찬(聚珍異饌)」에 '삼하과(三下鍋)'가 있으며 그에 의하면 양(羊)의 족발을 '초과(草果)'(생강의 일종), '양강(良薑, 山椒의 옛 이름)'을 넣고 삶은 국물에 양의 뒷다리 고기로 만든 경단과 네모나게 썬 '기자((食+其)子)'(국수의 일종), 양의 발굽, 편식(扁食, 만두)을 넣은 다음 후추, 소금, 식초로 맛을 낸 것이다.
3) '乾按酒'는 "마른안주"를 말한다. '안주(按酒)'가 "술안주"를 말한다면 '乾按酒'는 "마른안주"란 뜻이고 아마도 말린 고기나 생선 말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灌肺'의 '灌'은 그 속에 다른 조리 품을 채운 요리로 '순대'같은 것을 말한다. '灌肺'는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庚集」'음식류(飮食類)'에 의하면 "양의 심장이 달린 허파에 밀가루, 녹두가루, 생강 국물, 다진 깨, 다진 살구, 소금, 고기 국물 등을 섞어서 반죽한 것을 채워서 삶은 것"이라고 한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몽양록(夢粱錄)』 등에 빈번히 나타나는 송대(宋代)의 인기 요리의 하나였다.
5) '蒸餅'은 "속이 들어 있지 않는 흰 빵"을 말한다. 요즘의 중국 요리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이것은 '취병(炊餅)'이라고도 하는데 고기나 야채를 넣고 싸서 먹는다.
6) '脫脫麻食'은 언해에 '투투멋'이라 하였고 앞에 든 『음선정요(飮膳正要)』「취진이찬(聚珍異饌)」에 '禿禿麻食, 係手撇麵'이란 설명이 있어 증병과는 달리 국수의 일종으로 수제비임을 알 수 있다.
7) '粉湯'은 "밀가루를 풀어서 양념을 한 탕"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紛羹'이 있는데 이것은 녹두를 갈아 만든 녹말로 가늘게 만든 국수가 들어간 탕 종류를 말한다. 이것도 또한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몽량록(夢粱錄)』 등에 빈번히 등장하는 음식 이름이다. 명(明) 호시(胡侍)의 『진주선(眞珠船)』(권5) 「紛羹」조에 "지금 사람들은 연회가 끝나면 꼭 분갱(紛羹)을 권하는 것은 그 연유가 아주멀리 거슬러 올라가고, 송(宋) 진정민(陳正敏)의 『둔제한람(遯齊閑覽)』에 말하노니 태조(太祖)가 내연(內宴)에 명하여 먼저 분(紛)을 권하므로 두식(頭食)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훗날 사람들이 연회가 끝나고 처음에 이 음식을 권하는 것은 대체로 그 맛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乙] 咱們點看這果子菜蔬, 整齊麽不整齊?

[甲] 這藕菜[9] 黃瓜, 茄子, 生葱, 薤, 蒜, 蘿蔔, 冬瓜, 胡蘆, 芥子, 蔓菁, 赤根,[10] 海帶.[11] 這按酒 煎魚, 羊雙腸, 頭, 蹄, 肚兒, 睛, 脆骨, 耳朶. 這果子 棗兒, 乾柹, 核桃, 乾葡萄, 龍眼, 荔支, 杏子, 西瓜, 甛瓜, 柑子, 石榴, 梨兒, 李子, 松子, 粆(炒)糖[12] 蜜栗子.

[乙] 這肉都煮熟了. (孛+頁)項骨, 背皮, 肋扇, 前膊, 後腿, 胸子, 却怎麽不見一箇後腿?

[甲] 饅頭餡兒裏使了.

[乙] 湯水茶飯, 都完備了.

[甲] 日頭落了. 疾忙擡肉[13]時散着.

8) '饅頭'는 '羊肉饅頭'를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고기소를 넣은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包子'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양육만두(羊肉饅頭)로서 "양고기를 소로 넣은 만두"를 말한다. <飜老> 및 『朴通事』(上)에서 '분탕(粉湯)과 만두(饅頭)'로 연을 끝내는 것은 전술한 『둔제한람(遯齊閑覽)』의 기사에 부합되지만, 뒤의 '대육(擡肉)'이 다시 등장하는 것과는 모순이 된다. 주7 참조.
9) '藕菜'의 '藕'는 '연(蓮)'을 말하는데 여기서 '藕菜'는 야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宋) 조훈(曹勛)의 『북수견문록(北狩見聞錄)』에 북방(北方)으로 연행되는 송(宋)의 휘종(徽宗)이 상인들한테서 '취병우채(炊餠藕菜)의 類'를 받는다는 기사가 있다. 구운 떡과 야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赤根'은 '시근치'로 언해되었다. "시금치"를 말한다.
11) '海帶'는 "다시마"를 말한다. 다만 『본초강목(本草綱目)』(권19)에는 '海帶'와 '다시마'를 별도로 들었으므로 이들이 구별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마를 어떻게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2) '粆糖'의 '粆'는 '炒'라고 써야 한다. "볶는다"는 뜻이며 아래의 '糖'에 이끌려서 '(米+少)'라고 썼을 것이다.

[乙] 咱們今日筵席, 喫了多少酒?
[甲] 喫了二兩銀的酒.
[乙] 咱們通是十數箇人, 怎麽喫二兩銀的酒?
[甲] 也不只十數箇人喫. 下頭伴當們偏不喫?
[乙] 這筵席散了.

(飜老) 제83화 漢兒의 차반

[甲] 漢兒·의 ·차·반 ᄒᆞ·져, ·첫 ᄒᆞᆫ :도·ᄂᆞᆫ14) 團攛湯 製法未詳,15) :둘·재·ᄂᆞᆫ 싱션·탕,16) :셋· 재·ᄂᆞᆫ ·ᄃᆞᆰ:탕,17) 第四道 五軟三下鍋 製法未詳,18) 다·ᄉᆞᆺ·재·ᄂᆞᆫ ᄆᆞ론 안·쥬, 여·ᄉᆞᆺ·재·ᄂᆞᆫ ·납·폐 :권ᄒᆞ·니,19) 중·편,20) 투투·먿,21)

13) '擡肉'은 할육(割肉)의 '挈設'을 위하여 "고기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말한다. <飜老>에서는 <原老>에는 있었던 앞의 '割肉水飯'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挈設'은 대개 茶飯 중의 体薦(고기를 썰어서 상대에게 권함)이다. 호어(胡語-몽고어를 말함)로는 '설설(挈設)'이라고 한다. 상빈(上賓)에는 곧 양배피(羊背皮-양의 등 껍질), 마배피(馬背皮-말의 등껍질) 유(類)를 사용하고, 그 남은 손님(賓)에게는 앞다리 뒷다리(前手後手)의 유(類)를 사용함"이라는 기사가 있다. 즉 북쪽 사람(몽고인을 말함)의 연회에서는 마지막에 고기를 칼로 썰어 먹고는 끝을 보았던 모양인데 귀한 손님과 나머지 손님은 썰어 먹는 고기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飜老>와 『朴通事』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중국풍의 식사로 만들었다. 또한 여기서 요리가 일곱 가지(七道)인 것도 명(明) 엽자기(葉子奇)의 『초목자(草木子)』(권3,下)에 "北人의 茶飯은 開割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湯食은 五가 아니면 七, 挈設을 割하여 散한다"라는 기사와 일치한다.
14) '·첫 ᄒᆞᆫ :도·ᄂᆞᆫ'는 원문 '頭一道'를 직역한 것으로 "처음의 1도는"의 뜻.
15) '團攛湯 製法未詳'은 "團攛湯의 製法은 未詳, 團攛湯을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른다"의 뜻. 그러나 주1에 의하면 '단찬탕(團攛湯)'은 "고기 경단이나 고기를 얇게 썬 것을 탕에 넣은 것"을 말함.
16) '싱션·탕'은 '鮮魚湯의 해석으로 "생선의 국이나 찌게"를 말함.
17) '·ᄃᆞᆰ:탕'은 '雞兒湯'의 해석으로 "닭을 넣은 국이나 찌게"를 말함. 다만 다음에 '製法未詳'이므로 이것도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함.
18) '第四道 五軟三下鍋 製法未詳'은 언해가 없음. 원문을 그대로 옮김.
19) '·납·폐 :권ᄒᆞ·니'는 원문 '灌肺'의 해설이나 알 수 없다. <老諺>에는 '난폐 권ᄒᆞ니'여서 혹시 '灌肺(관폐)'의 오독(誤讀)이거나 "납폐(納肺) 권(捲)한 것"이 아닌가 한다. '灌肺'는 "일종의 순대"임. 주4 참조.

닐·굽·재·ᄂᆞᆫ ·스·면,22) ·상화,23) ·각·산홀24) 거·시·라.
[乙] ·우·리 ·이 :과·실·와 :ᄎᆡ소·를 :뎜·고ᄒᆞ·야25) 보·져. :졍·졔ᄒᆞᆫ·가26) :졍·졔·티 아·니 ᄒᆞᆫ·가?
[甲] ·이 년ᄀᆞᆫ27) :외,28) 가지, ·파, ·부·ᄎᆡ,29) 마·늘, 댓무수,30) 동화,31) ·박, 계·ᄌᆞ, 쉿무수, 시·근:ᄎᆡ, 다ᄉᆞ·마. ·이 안·쥬·ᄂᆞᆫ 믓고·기32) :젼ᄒᆞ·니33) 양·의 ·챵·ᄌᆞ, 머·리, ·발,34) :양 눈, 망·울, 삭삭ᄒᆞᆫ ·ᄲᅧᆺ·근,35) ·귀. ·이 :과·시:론 :대·초, ᄆᆞ론 :감, 당츄·ᄌᆞ,36) ᄆᆞ론 보도, 룡·안, :례·지,37) 술·고,

20) '중·편'은 원문 '蒸餅'의 해설로서 "속이 들어 있지 않은 흰 빵"을 말함. 주5 참조.
21) '투투·먿'은 원문 '禿禿麻食'의 언해로, "국수의 일종"임. 『朴覽』(中:1)에 "禿禿麽思 一名 手撇麵 卽本國 믜역져비 禿字音 투 上聲, 讀麽思二合爲音맛 急呼則用思字曰 투투맛 慢言之則用食字曰 투투마시 元時語如此(하략)"이란 설명이 있어 '禿禿麻食'은 '투투마시'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禿禿麽思'의 '투투먿'으로 읽었다. 우리말로는 '믜역져비, 수제비'를 말함. 주6 참조.
22) '·스·면'은 원문 '粉湯'의 언해로 "가늘게 만든 국수가 들어간 탕"을 말함. 주7 참조.
23) '·상화'는 "羊肉饅頭, 양고기를 넣은 만두"를 말함. 주8 참조.
24) '·각·산홀'은 원문 '打散'을 언해한 것으로 "각산(各散)할, 각자 흩어질"의 뜻.
25) ':뎜·고ᄒᆞ·야'는 "점고(點考)하여, 명단의 것을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조사하여"임.
26) ':졍·졔ᄒᆞᆫ·가'는 "정제(整齊)한가?, 정돈되어 가지런한가?"의 뜻.
27) '년ᄀᆞᆫ'은 "연근(蓮根), 연꽃 부리"를 말한다. 원문 '藕菜'의 '藕'는 '연(蓮)'을 말하는데 여기서 '藕菜'는 야채를 총칭하는 것으로 '연근'으로 언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老諺>의 '년근ᄎᆡ'가 원문의 뜻과 가깝다. 주9 참조.
28) ':외'는 원문 '황과(黃瓜)의 풀이로 "오이"를 말함.
29) '·부·ᄎᆡ'는 "부추". "薤 부ᄎᆡ 헤"(『訓蒙字會』 상:7).
30) '댓무수'는 원문 '蘿蔔'의 언해로 "무우, 도는 당근"을 말함.
31) '동화'는 원문 '冬瓜'의 언해로 "동아, 호박 모양의 박"을 말함.
32) '믓고·기'는 '믈(水) +-ㅅ(사이 ㅅ) + 고기(魚)'의 형태구성으로 "물고기"를 말함.
33) ':젼ᄒᆞ·니'는 "煎하니, 굶이니"의 뜻으로 '믓고·기 :젼ᄒᆞ·니'는 원문 '煎魚'의 언해임.
34) '양·의 ·챵·ᄌᆞ, 머·리, ·발'은 원문 '羊雙腸, 頭, 蹄'의 언해임.
35) '삭삭ᄒᆞᆫ ·ᄲᅧᆺ·근'은 원문 '脆骨'의 언해로 "연약한 뼈끝, 연골, 도가니"를 말함.
36) '당츄·ᄌᆞ'는 원문 '核桃'의 언해로 "당추자(唐楸子), 호도(胡桃)"를 말함.

:슈·박, ·춤외, 감·ᄌᆞ,[38] ·셕류, 빈, 외·엿, :잣, 사탕,[39] ·ᄊᆞ·레 조·린 :밤.

[乙] ·이 고·기 다 술·마 닉거·다. 목:뼈, ·븨피,[40] 녑·발·치,[41] 앏엇·게, ·뒷다리, 흉·ᄌᆞ,[42] ·또 :엇·디 ᄒᆞᆫ :뒷다리 :업·스·뇨?

[甲] 상홧 소·해[43] ·ᄡᅳ·다.

[乙] :탕·쇠[44]·와 ·차반·이 :다 ᄀᆞᆽ거·다.[45]

[甲] ·히 ·디ᄂᆞ·다, 샐·리 :대·육[46] 받ᄌᆞ·와·든 각·산홀 거·시·라.

[乙] ·우·리 오·ᄂᆞᆳ 이바·디:예 :언·멋 수·를 머거·뇨?

[甲] 은 :두 ·량읫 수·를 머·거·다.

[乙] ·우·리 :대·되 여라·믄 :사ᄅᆞ·미 :엇·디 :두 ·량 은·읫 수·를 머·그·뇨?

[甲] ·또 여라·믄 :사·ᄅᆞ·미 머·글 :ᄲᅮ·니 아·니·라 아·랫 ·번·당·은[47] ·독·벼·리 아·니 머·그· 려?

[乙] ·이 이바·디 ·각·산·ᄒᆞ·야·다.

37) ':례·지'는 원문 '荔支'의 언해로 "여지, 용안"을 말함.
38) '감·ᄌᆞ'는 원문 '柑子'의 풀이로 "밀감(蜜柑)"을 말함.
39) '사탕'은 원문 '粆糖'의 언해로 '粆糖'은 '炒糖'이 옳다. 주12 참조.
40) '·븨피'는 원문 '背皮'의 언해로 "양배피(羊背皮-양의 등껍질), 마배피(馬背皮-말의 등껍질)" 등의 음식을 말함. 이에 대하여는 주13 참조.
41) '녑·발·치'는 원문 '肋扇'의 언해로 "갈비"를 말함.
42) '흉·ᄌᆞ'는 '胸子'의 언해로 "가슴부분의 고기"를 말함.
43) '상홧 소·해'는 "만두소"를 말함.
44) ':탕·쇠'는 원문 '湯水'의 언해로 "탕수, 국물"을 말함.
45) 'ᄀᆞᆽ거·다'는 'ᄀᆞᆽ-[備] + -거·다(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ᄀᆞᆽ-'은 'ᄀᆞᆾ-'을 팔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적은 것. "갖추었다"의 뜻.
46) ':대·육'은 원문 '擡肉'을 말하며 음식의 마지막 순서인 할육(割肉)의 '설설(挈設)'을 위하여 "고기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飜老>에서는 이 몽고식 할육(割肉)의 음식 코스가 제외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설설(挈設)'을 위하여 '擡肉'하는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주13 참조.
47) '아·랫 ·번·당'은 원문 '下頭伴當'의 언해로 "아랫종"을 말함.

老諺 제83화 우리 한 차반 밍그쟈.

[甲] 우리 한[48] 차반 밍그쟈.[49] 첫 ᄒᆞᆫ 도ᄂᆞᆫ 團攛湯이오, 第二道ᄂᆞᆫ[50] 싱션탕이오, 第三道ᄂᆞᆫ ᄃᆞᆰ탕이오, 第四道 五軟三下鍋 製法未詳, 第五道ᄂᆞᆫ ᄆᆞ론 안쥬, 第六道ᄂᆞᆫ 난폐 권ᄒᆞ니,[51] 증편, 투투멋, 第七道ᄂᆞᆫ ᄉᆞ면과 상화니 각산홀 써시라.

[乙] 우리 이 과실과 ᄎᆡ소ᄅᆞᆯ 뎜고ᄒᆞ여 보쟈. 정제ᄒᆞᆫ가 정졔티 아니ᄒᆞᆫ가?

[甲] 이 년근ᄎᆡ,[52] 외, 가지, 파, 부ᄎᆡ, 마ᄂᆞᆯ, 댓무우,[53] 동화, 박, 계ᄌᆞ, 쉬무우,[54] 시근ᄎᆡ, 다ᄉᆞ마. 이 안쥬ᄂᆞᆫ ᄆᆡᆺ고기 젼ᄒᆞ니,[55] 양의 챵ᄌᆞ, 머리, 발, 양 눈, 망올, 삭식ᄒᆞᆫ ᄲᆡᄉᆞ,[56] 귀. 이 과실은 대쵸 ᄆᆞ론 감, 호도,[57] ᄆᆞ론 보도, 룡안, 녀지, 술고, 슈박, 춤외, 감ᄌᆞ, 셕뉴, 빈, 외앗, 잣, 사당,[58] ᄭᅮᆯ에 조린 밤이라.

[乙] 이 고기 다 술마 닉거다, 목댱뼈,[59] 겁지운,[60] 녑팔치, 업엇게, 뒷다리, 가숨, 또 엇디 ᄒᆞᆫ 뒷다리 업ᄉᆞ뇨?

[甲] 샹화소에 ᄡᅳ니라.

[乙] 湯水[61]와 茶飯이 다 ᄀᆞ지다.

48) <飜老>에서는 '漢兒·의'임.
49) <飜老>에서는 '·차·반 ᄒᆞ·져'임.
50) <飜老>에서는 ':둘·재·ᄂᆞᆫ'임. 이하 같음.
51) <飜老>에서는 '·납·폐 :권ᄒᆞ·니'임.
52) <飜老>에서는 '녀ᇇ근'임. 주25 참조.
53) <飜老>에서는 '댓무수'임.
54) <飜老>에서는 '쉿무수'임.
55) <飜老>에서는 'ᄆᆡᆺ고·기 :젼ᄒᆞ·니'임.
56) <飜老>에서는 '·ᄲᅧᆺ·근'임.
57) <飜老>에서는 '당츄·ᄌᆞ'임.
58) <飜老>에서는 '사탕'임.
59) <飜老>에서는 '목:뼈'임.
60) <飜老>에서는 '·븨피'임. 아마도 "껍질"로 보임.
61) <飜老>에서는 ':탕·쇠'임. 이하 같음.

[甲] ᄒᆡ 뎌시니 ᄲᆞᆯ리 대육 드러든 ᄒᆞᆺ터디쟈.
[乙] 우리 오ᄂᆞᆯ 이바디에 언멋 술을 먹거뇨?
[甲] 두 냥 은엣 술을 머거다.
[乙] 우리 대되 열라믄 사ᄅᆞᆷ이 엇디 두 냥 은에 술을 먹그료?
[甲] ᄯᅩ 여라믄 사ᄅᆞᆷ만 먹글 ᄲᅮᆫ이 아니라 아랫 반당은 독별이 먹디 아니랴?
[乙] 이 이바디 ᄒᆞ터디거다.

(現代譯) 제83화 중국요리

[甲] 자, 중국요리를 만듭시다. 맨 처음은 '단찬탕(團攛湯)'[제법은 미상], 두 번째는 생선 탕, 셋째는 닭 탕, 넷째는 오연삼하과(五軟三下鍋), 다섯째는 마른안주, 여섯째는 관폐[灌肺, 순대의 일종]와 흰빵, 투투맛[수제비], 일곱째는 국수와 만두, 그리고 각자 해산할 것이오.
[乙] 우리 과일과 채소를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정돈되어 가지런한가? 그렇지 않은가?
[甲] 여기에는 연근(蓮根), 오이, 가지, 파, 부추, 마늘, 무, 동아(冬瓜), 박, 겨자, 순무, 시금 치, 다시마가 있네. 여기 술안주는 생선 찌게, 양의 창자, 머리, 발굽, 양의 눈, 망울, 도가니 뼈, 귀가 있네. 여기 과일은 대추, 곶감, 호두, 건포도, 용안(龍眼), 여지, 마른 은행, 수박, 참외, 귤, 석류, 배, 오얏, 잣, 사탕, 꿀에 절인 밤이 있네.
[乙] 여기 고기는 다 삶아서 익었겠소. 목 뼈, 등껍질, 갈비, 앞 어깨, 뒷다리, 가슴, 그런데 어찌하여 뒷다리가 하나 없소?
[甲] 만두소로 썼소.
[乙] 국과 요리가 다 준비되었소.

—잔치가 시작되어 끝이 날 무렵에—

[甲] 해도 저물었소. 고기를 먹었으면 빨리 끝을 내도록 합시다.

—잔치가 끝나고—
[乙] 우리 오늘 잔치에 얼마나 술을 마셨나?
[甲] 은자 두 냥의 술을 마셨네.
[乙] 우리 모두 십여 명이 어찌 두 냥 은자 분의 술을 마셨단 말인가?
[甲] 십여 명만 먹었을 뿐 아니라 아래 하인들이라고 따로 먹지 않았겠소?
[乙] 이 잔치가 끝났네.

(原 文) 제84화 看甚麽病

[漢] 我有些腦痛頭眩, 請太醫[1]來診候脉息,[2] 看甚麽病.

—太醫說—
[太] 你脉息浮沉,[3] 你敢傷着冷物來.
[漢] 我昨日冷酒多喫了.
[太] 那般時, 消化不得, 因此上, 腦痛頭眩, 不思飲食. 我這藥裏頭, 與你些剋

---

1) '太医'는 본래 궁중(宮中)의 의관(医官)을 가리키는데 송·원대(宋·元代)에서는 의사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명(明) 고기원(顧起元)의 『객좌췌어(客座贅語)』(권10)에는 홍무(洪武) 26년(1393)에 의사를 '太医·大夫·郎中'이라고 칭하는 것을 금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병든 것은 漢人인 王氏로 보인다(제96화 참조).
2) '脈息'은 원래 맥(脈)과 호흡(呼吸)을 가리키지만 구어(口語)에서는 맥(脈)을 의미한다.
3) '浮沉'은 '浮沈'과 같다. 『老朴集覽』의 설명에 의하면 원문의 '浮沈'에서 먼저 '부맥(浮脈)'은 맥이 강하고 만지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침맥(沈脈)'은 맥이 약하여 맥을 짚을 때에 세게 누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맥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은 맥이 흐트러져 있다는 의미다. 『老朴集覽』의 이 부분의 설명은 『철경록(輟耕錄)』(권19) '맥(脈)'에서 인용한 것이다.

化的藥餌, 喫了 便敎無事. 消痞丸,[4] 木香分氣丸,[5] 神芎丸,[6] 檳榔丸,[7] 這幾等藥裏頭, 堪服治飮食停滯, 只喫一服檳榔丸. 食後喫, 每服三十丸, 生薑湯送下, 喫了時, 便動臟腑. 動一兩次時, 便思 量飯喫. 先喫些薄粥補一補, 然後喫茶飯.

—明日太醫來問—

[太] 你好些箇麽?

[漢] 今日早晨, 纔喫些粥, 較[8]好些了. 明日病痊痾了時, 太醫上重重的酬謝.

4) '消痞丸'은 송(宋) 진사문(陳師文)의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권10)에 "비전(秘伝) 신선소비환(神仙消痞丸)은 소아(小兒)의 모든 비질(痞疾)을 낫게 한다. 모두 한온(寒溫)이 조절되지 못하여, 유포절(乳哺節)을 읽거나 혹은 생냉(生冷)의 과자(菓子), 점식(粘食) 등의 음식을 담(啖)하고, 비위미약(脾胃微弱)하여 소화(消化)하지 못함에 인(因)한다"라는 설명이 있어 그 효능을 알 수 있다.

5) '木香分氣丸'의 '목향(木香)'은 국화과(菊花科)의 다년초(多年草). 그 뿌리를 말린 것은 건위제(健胃劑)로 사용된다.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권3)에 "목향분기환(木香分氣丸)은 모든 기역(氣逆), 심흉만민(心胸滿悶), 복협허창(腹脇虛脹), 음식불소(飮食不消), 건구(乾嘔)를 낫게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 건위(健胃)는 소화제임을 알 수 있다.

6) '神芎丸'에 대하여는 송(宋) 양사영(楊士瀛)의 『인제직지(仁齊直指)』(권15)에 "신궁환(神芎丸)은 모든 열증(熱症)을 낫게 하고, 상복(常服)하면 보양(保養)한다. 담음(痰飮-가래 걸림)을 제거하여 주식(酒食)을 없앤다"라는 효능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동의보감(東医宝鑑)』「잡병편(雜病篇)」(권1)의 '하약(下藥)'조에 '신궁도수환(神芎導水丸)'이란 약명(藥名)이 보인다. '芎'은 천궁(川芎), 또는 궁궁이를 말하는 것으로 뿌리를 약용(藥用)으로 사용하는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쓰인다.

7) '檳榔丸'은 빈랑수(檳榔樹)의 열매로 만든 약이다. 빈랑수는 야자과(椰子科)의 알렉카족에 속하는 상록수(常綠樹)로 높게 자란다. 주로 열대 아시아에서 재배되며 그 열매에는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기호품(嗜好品) 또는 약품으로 사용된다. 금(金) 장원소(張元素) 『병기기의보명집(病機氣宜保命集)』(卷中) '내상론(內傷論)'에 소화불량의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빈랑환(檳榔丸)'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매복(每服) 십오환(十五丸)에서 이십환(二十丸)에 이르는 것을 미음(米飮)과 함께 삼킨다. 생강탕도 또한 좋다"라는 복용하는 방법을 적어놓았다.

8) '較'는 차도가 있는 것을 말하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好'와 중복된다.

飜老 제84화 므슴 병고?

[漢] ·내 :져·기 ᄃᆡ고·리[9] 앏·프·며 머·리·도 ·어·즐·ᄒᆞ·예·라. 의원 ·쳥·ᄒᆞ·야 다·가 ·ᄆᆡᆨ 자·펴 ·보·아지·라. 므·슴 :병·고 보라.

—의원:이 닐·오·ᄃᆡ—

[太] 네 ·ᄆᆡᆨ·이 부ᄒᆞ·락 팀ᄒᆞ·락[10] ·ᄒᆞ·ᄂᆞ·다. :네 :링·므·레[11] 샹ᄒᆞᆫ ·ᄃᆞᆺ ᄒᆞ·다.

[漢] ·내 어·제 ·ᄎᆞᆫ 수울 ·만·히 머·고·라.

[太] 그·러·면 ·ᄉᆞ·디[12] 아·니·ᄒᆞ·여·셔 ·이·런 젼·ᄎᆞ·로 ᄃᆡ고·리 앏프·고 머·리 ·어·즐ᄒᆞ·고 :음·식 ᄉᆞ랑 아·니·ᄒᆞ·오니·라. ·내 ·이 ·약 ᄃᆞᆼ·에 너·를 쇼·화ᄒᆞᆯ ·약·을 :주·리·니 머·그·면 곧 :ᄒᆞ·야·곰 :일:업·스리·라. 藥名 藥名 藥名 藥名,[13] ·이 여·러 :등 ·약 ᄃᆞᆼ·에 ·음·식 머·믄 것 고·틸 거·슬 머·검·즉 ᄒᆞ·니[14] 오·직 檳榔丸 ᄒᆞᆫ ·복·만[15] 머·글 거·시·니 食後·에 머·구·ᄃᆡ, :ᄆᆡ ᄒᆞᆫ ·복·애 셜·흔 환·식 ·ᄒᆞ·야 ᄉᆡᆼ앙[16] ᄃᆞᆯ·힌 ·므·레 ᄂᆞ·리우·라.[17] 머·그·면 장·뷔[18] ·동·ᄒᆞ·야 ᄒᆞᆫ:두 번 :동 ᄒᆞ면 ·곧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 몬져 ᄆᆞᆯ·근 ·쥭 머·거 :보긔[19] ᄒᆞᆫ :후·에 :음·식

9) 'ᄃᆡ고·리'는 "머리"를 말함.

10) '부ᄒᆞ·락 팀ᄒᆞ·락'은 "부(浮)하락 침(沈)하락, 오르락내리락"으로 원문 '浮沈'을 직역한 것이다. 주3 참조.

11) ':링·므·레'는 "냉물(冷物)에, 찬 것에"의 뜻.

12) '·ᄉᆞ·디'는 '·ᄉᆞᆯ-(化) + -·디(부정)'의 형태구성으로 "소화가 되지 (않다)"의 뜻.

13) 여기의 '藥名'은 "消痞丸, 木香分氣丸, 神芎丸, 檳榔丸"을 말함. 이에 대하여는 주4~7 참조.

14) '머·검·즉 ᄒᆞ·니'의 뜻은 '먹음직 하니'가 아니라 "먹어야 하니"의 뜻.

15) '·복'은 "복(服), (약을) 먹음"의 뜻.

16) 'ᄉᆡᆼ앙'은 "생강(生薑)"을 말함.

17) 'ᄂᆞ·리우·라'는 'ᄂᆞ·리-(降) + -우-(사역형) + -·라(명령형 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내리우다, 내리게 하다"의 뜻.

18) '장·뷔'는 "장부가"의 뜻. '장부(臟腑)'는 "내장의 여러 기관"을 말함.

머·그·라.

—이·틋·날 의원·이 ·와 무·로·ᄃᆡ—

[太] ·네 :져·그·나 :됴·커·녀.

[漢] 오·ᄂᆞᆯ 아·ᄎᆞ·미 ᄀᆞᆺ ·쥭 머구·니 :져·기 :됴·ᄒᆞ·애·라. ᄂᆡ·실 :병·이 :다 :됴·커·든 의원·ᄭᅴ :만·히 은·혜 갑고 :샤·례:호·리이·다.

老諺 제84화 므슴 병고 보라

[漢] 내 져기 골치20) 알ᄑᆞ고 머리도 어즐ᄒᆞ니 의원 청ᄒᆞ여다가 脈 잡혀 보아지라. 므슴 병고 보라.

—의원이 닐오ᄃᆡ—

[太] 네 脈이 浮ᄒᆞ락 沈ᄒᆞ락21) ᄒᆞ니 네 冷物에22) 샹ᄒᆞᆫ 듯ᄒᆞ다.

[漢] 내 어제 ᄎᆞᆫ 술을 만히 먹으롸.

[太] 그러면 消化티23) 못ᄒᆞ여 이런 젼ᄎᆞ로 ᄃᆡ골이 알ᄑᆞ고 머리 어즐ᄒᆞ고 음식 ᄉᆡᆼ각24) 아니 ᄒᆞᄂᆞ니라. 내 이 약 듕에 너ᄅᆞᆯ 쇼화ᄒᆞᆯ 약을 줄 거시니 먹으면 곳 ᄒᆞ여곰 일 업ᄉᆞ 리라. 消痞丸, 木香分氣丸, 神芎丸, 檳榔丸, 이 여러 가지 약 듕에 음식 머믄 것 곳25) 거슬 먹엄즉ᄒᆞ니 오직 檳榔丸 ᄒᆞᆫ 복만 먹을 거시니 食後에 먹으되 ᄆᆡ ᄒᆞᆫ 복애 셜ᄒᆞᆫ 환 식 ᄒᆞ여 生薑湯에26) ᄂᆞᆯ이오라. 먹으면 곳 臟腑ㅣ27) 動ᄒᆞ여 ᄒᆞᆫ두 번 動ᄒᆞ면 곳

19) ':보긔'는 "보기(補氣), 기운을 보함"을 말함.
20) <飜老>에서는 'ᄃᆡ고·리'임.
21) <飜老>에서는 '부ᄒᆞ·락 팀ᄒᆞ·락'임.
22) <飜老>에서는 ':네 :령·므·레'임.
23) <飜老>에서는 '·스·디'임.
24) <飜老>에서는 'ᄉᆞ랑'임.
25) <飜老>에서는 '고·틸'임. 아마도 '곳칠'의 '칠'이 탈각(脫刻)한 것으로 보임.
26) <飜老>에서는 'ᄉᆡᆼ앙 달·힌 ·므·레'임.
27) <飜老>에서는 '장·뷔'임.

밥 먹기 를 ᄉᆡᆼ각ᄒᆞ리니28) 몬져 믈근 쥭 먹어 보ᄒᆞ고 그린29) 후에 차반 먹으라.

—이틋날 太醫ㅣ30) 와 무로ᄃᆡ—

[太] 네 져그나 됴커냐?

[漢] 오ᄂᆞᆯ 아ᄎᆞᆷ에 ᄀᆞᆺ 쥭 먹으니 져기 됴해라.31) ᄂᆡ일 병이 다 됴커든 太醫ᄭᅦ32) 만히 은혜 갑파 샤례호리라.

現代譯 제84화 무슨 병인가?

[중국인] 내가 골치가 조금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네. 의원을 청하여 맥을 잡혀보고 싶네. 무슨 병인지 보시오.

—의원이 말하기를—

[의 원] 당신은 맥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군요. 당신은 차가운 것을 먹고 탈이 난 것 같소.

[중국인] 내가 어제 찬술을 많이 먹었어요.

[의 원]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음식 생각이 나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이 약 가운데 당신께 소화시킬 약을 줄 것이니 먹으면 곧 별탈이 없이 나을 것입니다. 소비환(消痞丸), 목향분기환(木香分氣丸), 신궁환(神芎丸), 빈랑환(檳榔丸) 등의 몇 가지의 약 가운데 음식에 체한 것을 고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오직 빈랑환(檳榔丸) 한 복을 먹어보시오. 식후에 먹되 매번 한 복에 30

28) <飜老>에서는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임.
29) <飜老>에서는 ':보긔 ᄒᆞᆫ'임.
30) <飜老>에서는 '의원·이'임.
31) <飜老>에서는 ':됴·ᄒᆞ·애·라'임.
32) <飜老>에서는 '의원·ᄭᅴ'임.

알씩을 생강 달인 물에 드시오. 먹고 나면 내장이 움직이어서 한두 번 움직이면 곧 식욕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묽은 죽을 드셔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의원이 와서 묻는다—

[의 원] 당신 조금 좋아졌어요?

[중국인] 오늘 아침 막 죽을 먹었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 병이 나으면 의원님께 많이 은혜 갚고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5. 사람 사는 도리

이 장은 지금까지의 회화체 문장과는 달리, 산문체 문장으로 되었으며 내용도 여행 중에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일종의 처세(處世)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회화체로 이어지던 이야기의 줄거리 전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아마도 원래에는 없었던 부분을 나중에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原文 제85화 每日快活

咱們每年每月每日快活, 春夏秋冬一日也不要撇了. 咱人今日死的, 明日死的, 不理會得. 安樂[1]時不快活時, 眞箇呆人. 死的後頭, 不揀甚麽, 都做不得主張. 好行的馬,[2] 別人騎了, 好襖子 別人穿了, 好媳婦, 別人取了, 活時節, 着甚麽來由不受用?

---

1) '安樂'은 제1화 주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몸이 건강함"의 뜻으로 원대(元代)에 많이 사용되던 말이다. 즉 원곡(元曲)에 자주 등장하는 시(詩)에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다시 오는 젊은 날이 없다. 황금(黃金)을 귀하다고 하지 마라. 안락(安樂)에 가장 좋은 돈(錢)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다.

2) '好行的馬'는 돈황(敦煌)에서 발견한 唐(당) 王梵志(왕범지)의 시(詩) '三惡道'(地獄)에 "沈淪하면 집안에 사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옷이 있어도 입지 못하며, 말이 있어도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現世의 허무함을 설파하였다. 대개는 현세에 집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여기서는 살아 있을 때에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

(飜老) 제85화 우리 ᄒᆡ마다 ᄃᆞᆯ마다 날마다 즐기고

.우·리 ᄒᆡ마다 ᄃᆞᆯ마다 날마다 ·즐·기·고 春夏秋冬·애 ᄒᆞ라·도 더·디·디 :마·져. ·우·리 :사·라·미 오·ᄂᆞᆯ 주·글 ·동 ᄅᆡ·실 주·글 ·동3) 모·ᄅᆞ·ᄂᆞᆫ 거·시·니, 편안ᄒᆞᆫ 저·긔 ·즐·기·디 아·니 ᄒᆞ·면 진짓 어·린 :사·ᄅᆞ·미4) 어·닛·ᄃᆞᆫ. 주·근 :후·에·ᄂᆞᆫ :아·모 것·도 ᄀᆞᆯ·히·디 :몯ᄒᆞ·야 :다 :쥬·변 :몯·ᄒᆞᆯ5) 거·시·니 :됴·히 ·걷·던 ᄆᆞᆯ·도 다ᄅᆞ·니 ·ᄐᆞ·며 :됴ᄒᆞᆫ ·옷·도 다ᄅᆞ·니 니·브·며 :됴·ᄒᆞᆫ :겨·집·도 다ᄅᆞ·니 :얻·ᄂᆞ·니 사·라신6) 저·긔 므·슴 젼·ᄎᆞ·로 ·ᄡᅳ·디 아·니ᄒᆞ·료?

(老諺) 제85화 우리 每年 每月 每日에 즐기고

우리 每年 每月 每日에7) 즐기고 春夏秋冬에 ᄒᆞᄅᆞ도 ᄇᆞ리디8) 마쟈. 우리 사ᄅᆞᆷ이 오ᄂᆞᆯ 죽을 ᄯᅩᆼ ᄂᆡ일 죽을 ᄯᅩᆼ 아디 못ᄒᆞ니9) 편안ᄒᆞᆫ 적의 즐기디 아니ᄒᆞ면 진짓 어린 사ᄅᆞᆷ이라10) 죽은 후에ᄂᆞᆫ 아므것도 ᄀᆞᆯ히디 못ᄒᆞ여 다 쥬당티 못ᄒᆞ여 됴히 것든 ᄆᆞᆯ도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ᄐᆞ며 됴ᄒᆞᆫ 옷도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니브며 됴ᄒᆞᆫ 겨집도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엇ᄂᆞ니 사라신 적의 므슴 젼ᄎᆞ로 ᄡᅳ디 아니ᄒᆞ리오.

3) '오·ᄂᆞᆯ 주·글 ·동 ᄅᆡ·실 주·글 ·동'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의 뜻. '~동 ~동'은 "행동의 반복"을 말할 때 쓰는 구문임.
4) '어·린 :사·ᄅᆞ·미'은 "어리석은 사람"임.
5) ':쥬·변 :몯·ᄒᆞᆯ'은 "자기 마음대로 못할"의 뜻임. ':쥬·변'은 "자유, 독단"의 뜻.
6) '사·라신'은 '살-(生) -·아(연결어미) + 시-(在)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살아 있는"의 뜻.
7) <飜老>에서는 'ᄒᆡ마다 ᄃᆞᆯ마다 날마다'임.
8) <飜老>에서는 '더·디·디'임.
9) <飜老>에서는 '모·ᄅᆞ·ᄂᆞᆫ 거·시·니'임.
10) <飜老>에서는 '어·린 :사·ᄅᆞ·미어·닛·ᄃᆞᆫ'임.

(現代譯) 제85화 인생은 유쾌하게

우리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춘하추동(春夏秋冬) 하루라도 버리지 말자. 우리 사람이란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니 건강할 때에 즐기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죽은 후에는 아무 것도 가리지 못하고 모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니 잘 달리는 말도 다른 사람이 타고 좋은 옷도 다른 사람이 입으며 좋은 마누라도 다른 사람이 얻으니 살아 있을 때에 무슨 이유로 쓰지 않겠는가?

(原文) 제86화 老實常在 脫空常敗

大槩人的孩兒, 從小來 好教道的成人時, 官人前面行着. 他有福分1)時, 官人也做了. 若教道他不立身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 咱們盡了爲父母的心, 不曾落後. 你這小孩兒, 若成人時, 三條路2)兒中間裏行着, 別人東西休愛, 別人折針也休拿, 別人是非休說. 若依着這般用心行時, 不揀幾時, 成得人了. 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3) 休做賊說謊, 休姦猾懶惰, 官人們前面, 出不得氣力行時, 一日也做不得人.

1) '福分'에 대해서 언해에서는 '복과 분'이라고 하였으나 '福分'이 합쳐서 "타고난 행운", "복"이란 뜻을 나타낸다.
2) '三條路'는 삼차로(三叉路)의 한가운데 길을 말한다. 즉 정도(正道)를 가라는 것이다. 『임풍자(任風子)』「雜劇」 2折에 주인공이 '삼조로(三條路)' 중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선인(仙人)인 마단양(馬丹陽)이 "헤매지 말고 正道를 가거라"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3) '老實常在, 脫空常敗'는 또 '老實的終須在, 脫空的終須敗'라고도 하며 "성실한 것은 끝내 좋으며 속임수는 끝내 실패한다"는 뜻으로 원대(元代)에 널리 쓰이던 격언이었다. 원대(元代) 잡극(雜劇)의 『옥호춘(玉壺春)』(3折), 『호접몽(蝴蝶夢)』(4折), 『쟁보은(爭報恩)』(2折), 『포장합(抱粧盒)』(2折) 등에 이 구절이 상하구(上下句) 따로따로 대사에 나타난다. '脫空'은 "속임수, 엉터리"란 뜻이다.

飜老 제86화 져믄 적브터 됴히 ᄀᆞᄅᆞ쳐

:대·개ᄒᆞᆫ·디 :사·ᄅᆞ·ᄆᆡ ·ᄌᆞ·식·이 져·믄 적브·터 :됴·히 ᄀᆞᄅᆞ·쳐 :사·ᄅᆞᆷ 도의·면 ·관원 앏·픠 ᄃᆞᆫ니다·가 저·옷 ·복·과 ·분4) 곳 이시면 관원·도 도의·리·라. ·ᄒᆞ·다·가 저·를 ᄀᆞᄅᆞ ·쳐·도 ·립신5) :몯ᄒᆞ·고 :사·ᄅᆞᆷ 도의·디 :몯ᄒᆞ·면 그·도 ·제 :명·이어·니ᄯᆞ·나. ·우·리·ᄂᆞᆫ ·부·모 도의여 잇ᄂ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다ᄒᆞ야 ᄂᆞ:ᄆᆡ게 ·ᄢᅥ디·디 ·말 거·시·라. 네 이 아·ᄒᆡᄃᆞᆯᄒᆡ ᄒᆞ·다가 :사ᄅᆞᆷ·곳 도의면 :세 가·ᄅᆞᆺ 길·헤 가·온·ᄃᆡ ·ᄃᆞᆫ·닐 거시·라6). 다ᄅᆞᆫ :사·ᄅᆞ·ᄆᆡ 거·슬 ᄉᆞ랑·티 ·말·며 ᄂᆞ·ᄆᆡ 것·슨 바·ᄂᆞᆯ도 가·지·디 :말·며 ᄂᆞ·ᄆᆡ ·올·ᄒᆞ·니 :외·니 니ᄅᆞ·디 :말 ·라. ·이다·이 :용·심·ᄒᆞ·야7) ᄃᆞᆫ·니·면 :아·모 제·라 :업·시 :사·ᄅᆞᆷ ·도의·리라. 샹·녯 :말 ·ᄉᆞ·매 닐·오·ᄃᆡ "고·디시·그니·ᄂᆞᆫ 댱샹8)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댱샹 ·패·ᄒᆞᆫ·다"9) ·ᄒᆞ·ᄂᆞ니·라. 도즉ᄒᆞ·기·와 :거·즛:말 니ᄅᆞ·기 ·말며 간·곡ᄒᆞ·고 아·니 완츨ᄒᆞ·고10) 게으르·기·ᄃᆞᆯ :말·라. 관원 앏·픠 ·힘:내 ᄢᅧ ᄃᆞᆫ·니·디 아·니ᄒᆞ·면 ·ᄒᆞᄅᆞ·도 :사·ᄅᆞᆷ 도의·디 :몯ᄒᆞ·리·라.

老諺 제86화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져거셔브터 잘 ᄀᆞᄅᆞ쳐

대개11)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져거셔브터12) 잘 ᄀᆞᄅᆞ쳐 사ᄅᆞᆷ되면 관원 앏픠 ᄃᆞᆫ니다가 제 복 분13)이 이시면 관원도 되ᄂᆞ니라. ᄒᆞ다가 저를 ᄀᆞᄅᆞ쳐도 立身 못ᄒᆞ고 사ᄅᆞᆷ되디 못ᄒᆞ면 ᄯᅩ14) 제 명이어니ᄯᆞ녀. 우리ᄂᆞᆫ 부모 되여 잇ᄂᆞᆫ ᄆᆞ음을 다ᄒᆞ여 ᄂᆞᆷ의게 ᄢᅥ디디 말 ᄲᅥ시 라. 네 이 아ᄒᆡ들ᄒᆡ ᄒᆞ다가 사ᄅᆞᆷ곳 되면 세 오리15) 길헤 가온대로 ᄃᆞᆫ닐 거시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거ᄉᆞᆯ ᄉᆞ랑티 말며 ᄂᆞᆷ의 것근 바ᄂᆞᆯ도 가지디 말며 ᄂᆞᆷ의 是非16) 닐으디 말라. ᄒᆞ다가 이대로17) 용심ᄒᆞ여 ᄃᆞᆫ니면 아모 제라 업시 사ᄅᆞᆷ되리라. 샹언에18) 니로되 "고디식ᄒᆞ니ᄂᆞᆫ 샹샹19)에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샹샹에 패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도적ᄒᆞ기와 거즛말 니ᄅᆞ기 말며 姦猾ᄒᆞ기와20) 懶惰티21) 말라. 관원의 앏픠 氣力을 내디22) 못ᄒᆞ여 ᄃᆞᆫ니면 ᄒᆞᄅᆞ도 사ᄅᆞᆷ되디 못ᄒᆞ리라.

現代譯 제86화 아동 교육

대개 사람의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사람이 되면 벼슬아치 앞에 다니다가 제가 복이 있으면 벼슬아치도 될 것이다. 만일 가르쳐도 입신(立身)하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도 제 운명일 뿐이로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 마음을 다하여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아이들이 만일 어른이 되면 세 갈래의 길에서 한가운데를 가게 하여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은 부러진 바늘이라도 갖지 말며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라. 만일 이렇게 조심하여 다니면 어떤

---

4) '·복·과 ·분'은 원문 '福分'의 언해로서 "복을 누리는 분수"의 뜻을 말함. 주1 참조.
5) '·립신'은 "입신(立身), 출세하는 것"을 말함.
6) ':세 가·ᄅᆞᆺ 길·헤 가·온·ᄃᆡ ·ᄃᆞᆫ·닐 거시·라'는 '三條路'의 언해로서 "정도(正道)를 가다"의 뜻. 이에 대해서는 주2 참조.
7) ':용·심·ᄒᆞ·야'는 "용심(用心)하여, 주의하여"의 뜻.
8) '댱샹'은 "장상(長常), 늘"의 뜻.
9) "고·디시·그니·ᄂᆞᆫ 댱샹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댱샹 ·패·ᄒᆞᆫ·다"는 원문 '老實常在, 脫空常敗'의 언해로서 "성실한 것은 끝내 좋으며 속임수는 끝내 실패한다"는 뜻.
10) '아·니 완츨ᄒᆞ·고'는 "사납다, 모질다, 포악하다"의 뜻. '완츨ᄒᆞ·고'는 "훤칠하고"의 뜻.
11) <飜老>에서는 ':대·개ᄒᆞᆫ·디'임.
12) <飜老>에서는 '져·믄 적브·터'임.
13) <飜老>에서는 '복·과 ·분'임.
14) <飜老>에서는 '그·도'임.
15) <飜老>에서는 ':세 가·ᄅᆞᆺ'임.
16) <飜老>에서는 '·올·ᄒᆞ·니 :외·니'임.
17) <飜老>에서는 '·이다·이'임.
18) <飜老>에서는 '샹·녯 :말 ·ᄉᆞ·매'임.
19) <飜老>에서는 '댱샹'임.
20) <飜老>에서는 '간·곡ᄒᆞ·고 아·니 완츨ᄒᆞ·고'임.
21) <飜老>에서는 '게으르·기·ᄃᆞᆯ'임.
22) <飜老>에서는 '·힘:내 ᄢᅧ'임.

때에도 사람이 될 것이다. 격언(格言)에 "성실함은 항상 잘 되며 속임수는 항상 실패한다."라고 하지 않는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간사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벼슬아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原文) 제87화 隱惡揚善

火伴中間, 自家能處休說, 休自誇. 別人落處休笑. 船是從水裏出, 旱地裏行不得,1) 須要車子載着. 車子水裏去時, 水裏行不得, 須用船裏載着. 一箇手打時響不得, 一箇脚行時去不得. 咱們人厮將就2)厮附帶3)行時好. 又這火伴們, 好的歹的, 都厮扶助着行. 人有好處揚說着, 人有歹處掩藏着. 常言道, "隱惡揚善". 若是隱人的德, 揚人的非, 最是歹勾當.

(飜老) 제87화 버듸 ᄉᆞᅀᅵ

:버·듸 ᄉᆞ·ᅀᅵ·예 내 ·어·딘 ·곧 니ᄅᆞ·디 :말·며, 내 ·몸 쟈·랑 :말·며, ᄂᆞ·ᄆᆡ 딘 ·곧4) :웃·디 :말·라. ·ᄇᆡ·ᄂᆞᆫ ·므·레·셔조·차 ·니·고 무·틔·ᄂᆞᆫ ᄃᆞᆫ·니·디 :몯·ᄒᆞ·야 모·로·매 술·위·로 시·르·며 술·위·ᄂᆞᆫ ·므·레 가·면 ·므·레 ᄃᆞᆫ·니·디 :몯·ᄒᆞ·야 모·로·매 ·ᄇᆡ·로·ᅀᅡ :신·ᄂᆞ니라. ᄒᆞᆫ ·소·ᄂᆞᆯ ·티·면 소·릐 나·디 아·니ᄒᆞ·고, ᄒᆞᆫ ·발·로 거·르·면 가·디 :몯·ᄒᆞ·ᄂᆞ니·라. ·우·리 :사·ᄅᆞ·미 서르 :둘·우·며5) 서르 더·브사·라6) ᄃᆞᆫ·니·면 :됴·커·니ᄯᆞ·나. ·ᄯᅩ ·이 :벋·둘·히

1) '行不得'은 "정도가 심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능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行得'이라고 긍정형으로 말해도 의미는 같다.
2) '將就'는 "참고 양보한다"는 의미이다. '遷就'라고도 쓴다.
3) '附帶'는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으로 볼 때에 "서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ᄂᆞ·ᄆᆡ 딘 ·곧'은 원문 '別人落處'를 직역한 것이다. "남의 떨어진 곳,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한다.

:됴·ᄒᆞ·니 구·즈·니 :다 서르 잡드·러7) ᄃᆞᆫ·니·며, :사·ᄅᆞ·미 :됴·ᄒᆞᆫ ·곧 잇거·든 ·펴 내여 니ᄅᆞ며, :사·ᄅᆞ·미 사·오나·온 ·고·디 잇거든 ᄢᅳ·려8) 갈·믈9)·디니라 샹·녯 :말·ᄉᆞ·매 닐·오·ᄃᆡ "사·오나·온 :일·란 그·ᅀᅵ·고10) :됴·ᄒᆞᆫ :일·란 ·펴 ·낼 거·시·라" ·ᄒᆞ·ᄂᆞ니·라. ·ᄒᆞ·다·가 :사·ᄅᆞ·미 :어·딘 :일·란 그·ᅀᅵ·고 사·오나·온 :일·란 ·펴 내·요·미 ᄀᆞ·장 사·오나·온 :이·리·라.

(老諺) 제87화 벗들 ᄉᆞ이

벗들11) ᄉᆞ이에 내 능ᄒᆞᆫ12) 곳을 니ᄅᆞ디 말며, 내 몸 쟈랑 말며, ᄂᆞᆷ의 딘 곳 웃디 말라. ᄇᆡᄂᆞᆫ 믈에셔 조차 나고 무틔ᄂᆞᆫ ᄃᆞᆫ니디 못ᄒᆞ야 모로미 술위로 시르며, 술위ᄂᆞᆫ 믈에 가면 믈에 ᄃᆞᆫ니디 못ᄒᆞ야 모로미 ᄇᆡ로야 싯ᄂᆞ니라. ᄒᆞᆫ 손을 더면13) 소릐 나디 아니ᄒᆞ고 ᄒᆞᆫ 발로 거르면 가디 못ᄒᆞᄂᆞ니라. 우리 사ᄅᆞᆷ이 서르 두워라ᄒᆞ여14) 서르 더브러15) ᄃᆞᆫ기면 됴ᄒᆞ니라. ᄯᅩ 이 벗들희 됴ᄒᆞ니 구즈니를 다 서르 잡드러 ᄃᆞᆫ니쟈. 사ᄅᆞᆷ이 됴ᄒᆞᆫ 곳디 잇거든 내여 니르며, 사ᄅᆞᆷ이 사오나온 곳디 잇거든 ᄀᆞᆷ촐 ᄡᅥ시니라.16) 샹언에 니ᄅᆞ되 "사오나온 일란 그이고 됴ᄒᆞᆫ 일란 들어나게 ᄒᆞ라17)" ᄒᆞ니라. ᄒᆞ다가 사ᄅᆞᆷ의 어딘 일란 그이고 사오나온 일란 드러내미18) ᄀᆞ장 사오나온 일이라.

5) ':둘·우·며'는 원문 '將就'의 언해로서 "두르며, 참고 양보하며"의 뜻. 주2 참조.
6) '더·브사·라'는 원문 '附帶'의 언해로서 "함께 살아"의 뜻. 주3 참조.
7) '잡드·러'는 원문 '扶助'를 언해한 것으로 "잡아주어, 붙들어 주어, 도와주어"의 뜻.
8) 'ᄢᅳ·려'는 "꾸리어, 싸서, 감싸서"의 뜻. 원문 '掩藏'의 '掩'을 직역한 것임.
9) '갈·믈'은 "감출, 갈무리할"의 뜻. 원문 '掩藏'의 '藏'을 직역한 것임.
10) '그·ᅀᅵ·고'는 "기이고, 숨기고"의 뜻. 원문 '隱惡'의 '隱'을 직역한 것임.
11) <飜老>에서는 ':버·듸'임.
12) <飜老>에서는 '·어·딘'임.
13) <飜老>에서는 '·티·면'임.
14) <飜老>에서는 ':둘·우·며'임.
15) <飜老>에서는 '더·브사·라'임.
16) <飜老>에서는 'ᄢᅳ·려 갈·믈·디니라'임.
17) <飜老>에서는 '·펴 ·낼 거·시·라'임.
18) <飜老>에서는 '·펴 내·요·미'임.

現代譯 제87화 친구 사귀기

친구 사이에서는 자기 장점을 말하지 말고 내 몸 자랑하지 말며 남의 단점을 비웃지 마라. 배는 물에서 다니고 육지로는 다니지 못하니까 수레로 실어 나르며 수레는 물에 가면 다니지 못하니까 반드시 배로 싣는 것이다. 한 손을 쳐서는 소리 나지 않고 한 발로 걸으면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참고 양보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친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서로 잡고서 가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펴내어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으면 감싸서 숨겨 주는 것이다. 속담에도 "나쁜 일은 숨기고, 좋은 일일랑 펴낼 것이라"라는 말이 있다. 만일에 남의 어진 일은 숨기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다.

原文 제88화 做奴婢

咱們做奴婢的人, 跟着官人們行時, 這裏那裏下馬處,[1] 將官人的馬牽着,[2] 好生絟着. 肥馬涼着, 瘦馬鞍子摘了, 絆了脚, 草地裏撒了, 敎喫草. 布帳子疾忙打起着. 鋪陳[3]整頓着. 房子[4]裏搬入去着. 鞍子, 轡頭, 自己睡臥房子裏放着.

1) '下馬處'는 "말에서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숙박하기 위하여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방민족들이 지방을 여행할 때에 천막을 치고 야영하기 위하여 말을 세워 내리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벼슬아치가 부임(赴任)하는 것도 '하마(下馬)'라고 한다.
2) '馬牽着'은 "말의 고삐를 잡아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原老>에는 '牽控拿者'로 되어 있고 같은 뜻이다.
3) '鋪陳'은 "나란히 늘어놓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요, 이불 등의 침구(寢具)를 말한다. 『연환계(連環計)』「잡극(雜劇)」 3折에 "포진(鋪陳)을 수습(收拾)하여 나는 부인(夫人)과 헐식(歇息, 쉬다)하자"라는 구절이 있다.
4) '房子'는 '방'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천막 속의 방, 즉 "장방(帳房)"을 말한다.

上頭着披氈盖着. 那的之後, 鑼鍋[5]安了着. 疾忙茶飯做着. 肉熟了, 撈出來. 茶飯喫了時, 椀子家具收拾了. 官人們睡了時, 敎一箇火伴伺候着. 若這般謹愼行時, 便是在下人,[6] 扶侍[7]官長[8]的道理.

飜老 제88화 아랫 사ᄅᆞᄆᆡ 노연 셤기ᄂᆞᆫ 일

·우리 :죵 도의여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ᆫ 노·연·네[9] 조·차 ᄃᆞᆫ·닐 ·제 여·긔뎌·긔 ᄆᆞᆯ ᄇᆞ·린 ·ᄃᆡ 노·여·늬 ᄆᆞ·ᄅᆞᆯ 잇·거다·가 :됴·히 ᄆᆡ·오 ·ᄉᆞᆯ·진 ᄆᆞᆯ·란 :서·늘·케 ᄒᆞ·고 여·윈 ᄆᆞᆯ·란 기·르·마 밧·기·고 ·발 지·달 ·ᄡᅳ·고[10] 기·ᅀᅳᆫ ᄯᅡ·해[11] 노·하 :ᄒᆞ·야·곰 ·플 먹게 ᄒᆞ·고 ·뵈 :댱·을[12] 섈·리 ·티·고 ᄭᆞᆯ애[13] 그ᄌᆞ니[14] ·ᄭᆞᆯ·오, 방·의 올·마 ·들·오, 기·르·마·와 굴에·란 내 ·자·ᄂᆞᆫ 방·의 노·코, 우·희 :안·롱[15]·으·로 둡·고, 그·리·ᄒᆞᆫ :후·에 노고[16] 안·치·고 섈·리 ·차·반

5) '鑼鍋'는 이미 우리말의 외래어가 되어 '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야영할 때에 쓰는 냄비"를 말한다. 제79화 주2를 참조.
6) '在下人'은 관인(官人) 가운데 "윗사람을 섬겨야 할 아랫사람"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권62)의 『중용(中庸)』을 둘러싼 의론 가운데 "앞서 南軒上殿의 文字를 보니, 대개 人主를 扶持한다는 心術을 말씀하시기를, 또한 在下人의 心術이 마땅히 필요하며 그래야 비로소 扶持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송대(宋代) 이후의 많은 경서(經書) 해석에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이 주목된다. 여기서 "人主를 扶持"한다는 '扶持(부지)'는 '扶侍'와 같은 뜻으로 "섬기다"는 뜻이다. 주7 참조.
7) '扶侍'는 "섬기다"는 뜻으로 '伏侍', '伏事', '服事'라고도 쓴다. '扶持'도 같은 뜻이다.
8) '官長'은 고위직의 관인(官人)을 말하는데, '長官'이라고도 쓴다.
9) '노·연·네'는 '노·연[使長] + -·네(복수)'의 형태구성으로 "웃어른들, 상전들"의 뜻. 여기서는 "상관(上官)"을 말함.
10) '·발 지·달 ·ᄡᅳ·고'는 '·발(脚) + 지·달 ·ᄡᅳ-[絟] + -·고(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말의) 발을 얽매고"의 뜻. 원문 '絆了脚'의 직역임.
11) '기·ᅀᅳᆫ ᄯᅡ·해'는 'ᄀᆡᇫ-[茂] + -·은(관형사형) + ᄯᅡᇂ[地] + -·애'의 형태구성으로 "(풀이) 무성한 땅에"의 뜻. 원문 '草地'의 언해임.
12) '·뵈 :댱·을'은 원문 '布帳子'의 언해로 "천으로 된 장막"을 말함.
13) 'ᄭᆞᆯ애'는 원문 '鋪陳'의 언해로 "까는 것, 침구"를 말함.
14) '그ᄌᆞ니'는 "가지런히"의 뜻. 'ᄀᆞᄌᆞ기'와 같은 말로 원문 '整頓'의 풀이임.
15) ':안·롱'은 원문 '披氈'의 풀이로 "모전. 즉 덮는 담요"를 말함.
16) '노고'는 '鑼鍋'를 말하며 "야영할 때에 쓰는 냄비"임. 주2 참조.

밍·ᄀᆞᆯ·오, 고·기 닉거·든 건·뎌 :내·오, ·차·반 머·거·든 사발·와 그·릇 ·벼·ᄅᆞᆯ[17] 간슈ᄒᆞ·고[18] 노·연·돌·히 ·자·거·든 ᄒᆞᆫ 동·모 ·ᄒᆞ·야[19] ·보ᄉᆞᆲ·펴 ·ᄃᆡ·후ᄒᆞ·게[20] ᄒᆞ·라. :만·이 ·레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곧 ·이 아·랫 :사·ᄅᆞ·ᄆᆡ 노·연 셤기·ᄂᆞᆫ :이·리어·니ᄯᆞ·나.

(老諺) 제88화 아랫 사ᄅᆞᆷ의 官長 모시ᄂᆞᆫ 道理

우리 죵 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官人을[21] 조차 ᄃᆞᆫ닐 제 여긔뎌긔 ᄆᆞᆯ ᄂᆞ리ᄂᆞᆫ ᄃᆡ[22] 官人의 ᄆᆞᆯ을 잇그러다가 됴히 ᄆᆡ고 ᄉᆞᆯ진 ᄆᆞᆯ란 서늘케 ᄒᆞ고 여윈 ᄆᆞᆯ란 기ᄅᆞ마 벗기고 발에 지달ᄡᅳ고 플 기은[23] ᄯᅡ희 노하 ᄒᆞ여곰 플 먹게 ᄒᆞ고 布帳[24]을 ᄲᆞᆯ리 티고 鋪陳을[25] 졍졔히[26] ᄒᆞ고 방의 올마 들거든 기ᄅᆞ마과 굴에란 내 자ᄂᆞᆫ 방의 노코 우희 안롱으로 덥고 그리ᄒᆞᆫ 후에 노고 안치고 ᄲᆞᆯ리 차반 밍글고 고기 닉거든 건뎌 내여 와 茶飯 먹어든 사발과 그릇 ᄲᅧ를[27] 슈습ᄒᆞ고[28] 官人들히 자거든 ᄒᆞᆫ 벗으로[29] ᄒᆞ여 伺候[30]ᄒᆞ게 ᄒᆞ라. 만일 이리 조심ᄒᆞ여 ᄃᆞᆫ니면 곳 이 아랫 사ᄅᆞᆷ의 官長 모시ᄂᆞᆫ 道理어니ᄯᆞ녀.

---

17) '·벼·ᄅᆞᆯ'은 "등속을, 따위들을"을 말함.
18) '간슈ᄒᆞ·고'는 "간수하고, 간직하고"의 뜻.
19) '동·모 ·ᄒᆞ·야'는 "동무가 되어"의 뜻.
20) '·ᄃᆡ·후ᄒᆞ·게'는 원문 '伺候'의 언해로 "대후(待候)하게, 웃어른의 명령을 기다리게"의 뜻.
21) <飜老>에서는 '노·연·네'임.
22) <飜老>에서는 'ᄇᆞ·린 ·ᄃᆡ'임.
23) <飜老>에서는 '기·ᅀᅳᆫ'임.
24) <飜老>에서는 '·뵈 :댱·을'임.
25) <飜老>에서는 'ᄶᆞᆯ애'임.
26) <飜老>에서는 '그ᄌᆞ니'임.
27) <飜老>에서는 '·벼·ᄅᆞᆯ'임.
28) <飜老>에서는 '간슈ᄒᆞ·고'임.
29) <飜老>에서는 '동·모'임.
30) <飜老>에서는 '·ᄃᆡ·후'임.

(現代譯) 제88화 상전 섬기기

우리 종 되어 있는 사람은 상전을 따라 다닐 때에 여기저기 말 내리는 곳에 상전의 말을 이끌어다가 잘 매어두고 살찐 말은 시원하게 하고, 여윈 말은 안장을 벗기고 발을 묶어 풀밭에 놓아 주어 풀을 뜯어먹게 한다. 천막을 빠르게 치고, 요와 이불 등을 정돈하여 깔고 방에 옮겨 놓는다. 안장과 굴레는 자기가 자는 방에 놓고, 위에 담요를 덮어두어라. 그렇게 한 후에 노구를 안치고 빨리 식사를 만드는데 고기가 익었으면 건져내고 식사가 끝나면 사발과 그릇을 간수하여라. 상전이 쉬실 때에는 친구가 되어 보살펴 대후(待候)하게 하라. 만일에 이렇게 조심해서 다니면 곧 아랫사람이 상전을 섬기는 일이 되는 법이다.

(原文) 제89화 接濟朋友

咱們結相識[1]行時, 休說你歹我好, 朋友的面皮,[2] 休敎羞了. 親熱和順行時, 便是一箇父母生的弟兄一般, 相待相顧眄[3]着行. 朋友們, 若困中沒盤纏[4]時, 自己錢物[5]休愛惜, 接濟朋友們使着. 朋友若不幸, 遭着官司口舌[6]時, 衆朋友們, 向前救濟着. 若不救時, 傍人要唾罵. 有些病疾時, 休迴避, 請太醫[7]下藥

---

1) '結相識'의 '相識'은 "아는 사람, 친구"의 뜻으로 이 구절은 "친구를 사귀다"로 해석할 수 있다.
2) '面皮'는 "얼굴, 체면"의 뜻으로 쓰였다. 제47화 주14 참조.
3) '顧眄'는 "걱정하다, 마음을 쓰다"의 뜻이다. '顧盼'이라고 쓰는 것이 옳지만 '眄'는 자주 '盼' 대신에 사용된다. "걱정하다"의 뜻이다.
4) '盤纏'은 "생활비, 여비" 등의 용돈을 말한다. 제9화 주10 참조.
5) '錢物'은 '돈'을 말한다. 제20화 주2 참조.
6) '官司口舌'의 '官司'는 관청을 말하고 '口舌'은 "말다툼, 소동"을 의미하므로 "관청의 소송"을 말한다. 보통 관재수(官災數)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로 보인다.
7) '太医'에 대하여는 제84화 주1 참조.

看治着. 早起晩夕, 休離了, 煎湯煮水, 問候着. 若這般相看時, 便有十分病也減了五分. 朋友有些病疾, 你不照覷他, 那病人想着沒朋友的情分, 悽惶時, 縱有五分病, 添做十分了.

(飜老) 제89화 벋 지서 둗닐디면

·우·리 :벋 지·ᅀᅥ 듣·률·디·면[8] 너 사·오나·오·니 나 ·어·디로·니[9] 니르디 말며, :벋·븨·의[10] ᄂᆞᆾ갓[11] 븟·그리·게 :말·라. ᄉᆞ랑ᄒᆞ·고 화동·ᄒᆞ·야 ᄃᆞᆫ·니·면 ·곧 ᄒᆞᆫ ·부·모·의·게 난 형·뎨·와 ᄒᆞᆫ가·지·니, 서르 :ᄃᆡ·졉ᄒᆞ·며 서르 ·보·살·펴 ᄃᆞᆫ·니·라. :벋·둘·히 ·ᄒᆞ·다·가 어·려·온 제 ·ᄡᅳᆯ ·것 :업·슨 저·긔 내 :쳔 앗·기·디 :말·오 ·벋·둘·ᄒᆞᆯ ·주·워 ·ᄡᅳ·게 ᄒᆞ·라. :버·디 ·ᄒᆞ·다·가 :됴티 몯·ᄒᆞ·야 구위ᄌᆞᆼ·과[12] :구·셔·렛 ·ᄋᆡ·글[13] 맛·나 잇거든 모·ᄃᆞᆫ ·벋·둘·히 나ᅀᅡ가 :구·졔ᄒᆞ·라. ·ᄒᆞ·다·가 :구·티 아·니ᄒᆞ·면 겨·틧 :사·ᄅᆞᆷ·이 ·춤 ·받·고 ᄭᅮ·지·즈리·라. :병·ᄒᆞ·야 잇거·든 :에·도·디[14] :말·오 의원 ·청·ᄒᆞ·야 ·약 ·ᄢᅧ ·보ᅀᆞᆲ펴 고·티·며 아ᄎᆞᆷ 나조·ᄒᆡ ᄢᅥ나·디 :말·오 :탕 달·히·며 ·믈 더·이며 :병·즁 무·르·라. ·이·러ᄐᆞ·시 서르 간슈ᄒᆞ·면 ·곧 ·열 :분·만ᄒᆞᆫ :병·이라도 닷 :분·이·나 :덜·리·라. :버·디 :병·ᄒᆞ야 잇거·든 :네 ·보·ᅀᆞᆲ·피·디 아·니ᄒᆞ면 ·뎌 :병ᄒᆞ·니 너·교·ᄃᆡ[15] :버·딘 ·ᄠᅳ·디 :업세·라

8) '둗·률·디·면'은 '둗·리-[行] + -우ㄹ디면(가정의 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다니게 될 것이라면"의 뜻.
9) '·어·디로·니'는 '·어·딜-[仁] + -오/우ㄴ(관형사형)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어진 사람"의 뜻.
10) ':벋·븨·의'는 ':벋(友) + ·븨(輩) +-·의'의 형태구성으로 보임. ':벋·븨'는 "붕우(朋友), 벗의 무리, 벗들"을 말함.
11) 'ᄂᆞᆾ갓'은 원문 '面皮'의 직역으로 "얼굴, 체면"을 말함.
12) '구위ᄌᆞᆼ·과'는 '구위ᄌᆞᆼ(官司) +-·과(공동격)'의 형태구성으로 "관청과"의 뜻.
13) ':구·셔·렛 ·ᄋᆡ·글'은 ':구·셜(口舌) +-·에(처격) + -ㅅ(사이 ㅅ) + ·ᄋᆡᆨ(厄) + -·을(대격)'의 형태구성으로 "구설의 액(厄), 시비의 화(禍)"를 말함.
14) ':에·도·디'는 "피하지, 비켜가지"의 뜻.
15) '너·교·ᄃᆡ'는 '너·기-(念) + -오/우·ᄃᆡ(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여기되, 생각하되"의 뜻.

·ᄒᆞ·야 슬허·ᄒᆞ·면, 비록 :오 분·만ᄒᆞᆫ :병·이라·도 닷 :분맛 ·병·이라·도 더어 ·열 ·분·이 도의·여 가ᄂᆞ·니·라.

(老諺) 제89화 벗지어 ᄃᆞᆫ닐 쟉시면

우리 벗지어 ᄃᆞᆫ닐쟉시면[16] '너 사오나오며 나 엇일롸[17]' 니ᄅᆞ디 말고 벗의[18] ᄂᆞᆾ갓출 븟그업게 말라.[19] ᄉᆞ랑ᄒᆞ고 화동ᄒᆞ여 ᄃᆞᆫ니면 곳 ᄒᆞᆫ 父母의게 난 형뎨과 ᄒᆞᆫ가지니 서ᄅᆞ ᄃᆡ접ᄒᆞ며 서ᄅᆞ 보살펴 ᄃᆞᆫ니라. 벗들히 ᄒᆞ다가 어려온 제 ᄡᅳᆯ 것 업슨 적의 내 쳔을 앗기디 말고 벗들 주어 ᄡᅳ게 ᄒᆞ쟈. 벗이 만일 不幸ᄒᆞ야 구의만과[20] 口舌의 ᄋᆡᆨ을 죠낫거든[21] 모든 벗들히 나아가 구졔ᄒᆞ라. ᄒᆞ다가 구티 아니ᄒᆞ면 겨틔 사ᄅᆞᆷ이 춤 밧고 ᄭᅮ지즈리라. 병드러[22] 잇거든 에도디 말고 태의를[23] 쳥ᄒᆞ야 보살펴 곳티며 아ᄎᆞᆷ 나조ᄒᆡ ᄢᅥ나디 말고 탕 달히며 믈 데이며 병증 무로라. 이러ᄐᆞ시 서ᄅᆞ 보살피면[24] 곳 열分만 ᄒᆞᆫ 병이 잇다가도 五分이나 덜리라. 벗이 병드러 잇거든 네 더놀 보살피디 아니ᄒᆞ면 뎌 병든 사ᄅᆞᆷ이 ᄉᆡᆼ각ᄒᆞ되 '벗인 ᄠᅳᆺ이 업다' ᄒᆞ여 슬허ᄒᆞ면 비록 五分만ᄒᆞᆫ 병이라도 더 十分이 되ᄂᆞ니라.

16) <飜老>에서는 '둗·률·디·면'임.
17) <飜老>에서는 '·어·디로·니'임. '엇일롸'는 '어딜-(仁) + -롸(일인칭 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얻일-', '엇일-'은 '·어·딜-'의 다른 표기임.
18) <飜老>에서는 ':벋·븨·의'임.
19) <飜老>에서는 '븟·그리·게 :말·라'임.
20) <飜老>에서는 '구위ᄌᆞᆼ·과'임.
21) <飜老>에서는 '맛·나 잇거든'임. '죠낫거든'은 "遭낫거든"으로 보이며 '맛낫거든'의 착오로 보인다.
22) <飜老>에서는 ':병·ᄒᆞ·야'임.
23) <飜老>에서는 '의원'임.
24) <飜老>에서는 '간슈ᄒᆞ·면'임.

(現代譯) 제89화 친구는 서로 돕고

우리가 친구로 사귀어 다니려면 "너는 나쁘고 나는 좋다"라는 말은 하지 말며 친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아끼고 서로 어울려 다니면 곧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와 한가지니 서로 대접하며 서로 보살펴 다니라. 만일 친구가 어려울 때, 쓸 것이 없을 때는 내 돈을 아끼지 말고 벗들에게 빌려주어 쓰게 해라. 만일 친구가 상황이 좋지 못하여 관청으로부터 구설(口舌)의 액(厄)을 입었거든 모든 친구들이 나아가 구제하여라. 만일 도와주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침 뱉고 꾸짖으리라. 만일 병들었다면 모르는 척하지 말고 의사를 불러 약을 쓰고 보살펴 고쳐주며 아침 저녁으로 떠나지 말고 약 달이며 물을 덥게 하며 병증(病症)을 물어보라. 이렇듯이 서로 돌봐주면 설사 열 정도의 심한 병이라도 다섯 정도로 덜어질 것이다. 친구가 병들었는데 네가 보살피지 아니하면 그 병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 슬퍼하면 비록 다섯 정도의 병이라도 더 심하게 되어 열 정도로 되어 갈 것이다.

(原文) 제90화 狐朋狗黨

咱們世上人, 做男兒行時, 自己祖上的名聲,[1] 休壞了. 凡事要謹愼行時, 卓立的男子. 父母的名聲, 辱磨[2]了時, 別人唾罵也. 父母在生時, 家法名聲好來,

1) '名聲'은 <原老>에서는 '名聽'이었다. '名聽'은 원(元)의 한아언어(漢兒言語) 자료에서 발견되는데 원(元) 나관석(貫雲石)의 『직해효경(孝經直解)』에 "身已上有好的名聽,…身已不落在歹名聽裏"(자신의 몸에는 항상 좋은 평판이 있고, 나쁜 평판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에서는 '평판'의 의미가 있고 『계차청전(啓箚靑錢)』「전집(前集)」(권10) '문답기담(問答綺談)'에 "久聞哥的名聽, 無便根隨"(형의 명성은 오래도록 듣고 있었습니다만,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는 예에서는 '명성'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田産家計[3]有來, 孳畜頭口[4]有來, 人口[5]奴婢[6]有來. 爺孃亡沒之後, 落後下的孩兒們, 不務營生,[7] 敎些幇閑[8]的潑男女,[9] 狐朋狗黨,[10] 每日穿茶房入酒肆, 妓女人家, 胡使錢. 衆親眷, 街坊老的們,[11] 勸說 "你爲甚麽省不得, 執迷

2) '辱磨'는 "부끄럽게 하다"는 뜻이나 여기서 문맥에 맞추어 "더럽히다"로 언해한다. 잡극(雜劇) 등의 자료(資料)에서는 '辱沒', '辱抹', '辱莫' 등 여러 가지로 쓴다.
3) '田産家計'는 '가계(家計)'와 같으며 "가재(家財)", 즉 "동산(動産)"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物業'이었는데 '物業'은 주로 부동산을 말한다. 『죽오청금(竹塢聽琴)』「잡극(雜劇)」'설자(楔子)'에 "家私裏外, 田産物業"이란 구절이 있다. 여기서 '家私'는 '가계(家計)'와 같으며 동산(動産)을 말한다면 '物業'은 부동산을 가리킨다.
4) '孳畜頭口'의 '孳畜'은 가축(家畜), 주로 작은 가축을 말한다. 원(元) 서원서(徐元瑞)의 『이학지남(吏學指南)』 '양천자산(良賤孳産)'에 이 말의 뜻이 설명되어 있다. 또 '頭口'는 '頭疋'이라고도 쓰며 이것은 말, 소와 같은 큰 가축을 말한다. 제8화 주6 참조. "頭疋"은 『이학지남(吏學指南)』 '양천자산(良賤孳産)'에 "頭疋(匹과 같음)은 우양(牛羊)의 유(類)를 두(頭)라고 하여, 타마(駝馬-낙타나 말)의 유(類)를 필(疋)이라고 함"이라는 설명이 있다(정광・정승혜・양오진 2002).
5) '人口'는 전술한 『이학지남(吏學指南)』 '양천자산(良賤孳産)'에 "동거(同居)하는 가속(家屬)을 인(人)이라 하고 부리는 구천(驅賤)을 구(口)라고 함"이란 설명이 있어 동거하는 식객이나 하인들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정광・정승혜・양오진 2002), 여기서는 "노복(奴僕)"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95화에서 몰락한 주인이 인구(人口)를 판다는 구절이 있어 사고 팔 수 있는 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 '奴婢'는 전술한 『이학지남(吏學指南)』 '양천자산(良賤孳産)'조에 "노비(奴婢), 지금은 구구(驅口)라고 통칭함"이라는 기사가 있어 구구(驅口)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구(驅口)'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남녀를 말한다. 제39화 주4 참조. 여기서는 '인구(人口)'와 '노비(奴婢)'가 복합어가 되어 "가복(家僕)"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7) '營生'은 "생업(生業), 가업(家業)"을 말한다.
8) '幇閑'은 "남에게 붙어살면서 직업이 없는 남자"를 말한다. 『老覽』(下:3뒤)에 "幇閑的은 남에게 붙어살면서 정식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一說에 의하면 雜劇을 연기하는 사람이다(幇閑的 人有依附於人而無正身差役之苦者也 一說裝扮雜劇之人)"라는 주석이 있다.
9) '潑男女의' '潑'은 '발천(潑賤)'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천하다"라는 뜻으로 남에게 욕할 때에 쓰는 말이다. '男女'는 원래 아이를 뜻하였는데 훗날에 고용인의 자칭이 되었다가 사람을 욕하는 말로 바뀌었다.
10) '孤朋狗党'은 "나쁜 노름 친구"를 말한다. '孤群狗党'이라고도 하며 원(元)의 잡극(雜劇)에는 다수의 예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다"는 뜻이 되었다.
11) '街坊老的們'의 '街坊'은 "근처, 동네, 또는 근방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제12화

着心?" 迴言道, "使時使了我的錢, 壞時壞了我的家私, 干你甚麽事?" 因此上, 衆人再不曾勸他, 隨着他胡使錢. 每日十數箇幇閑的, 家裏媳婦孩兒, 喫的, 穿的都是這呆廝的錢.12) 騎的馬, 三十兩一疋好(馬 +竄)行馬. 鞍子13)是時樣減銀事件的好鞍轡,14) 通使四十兩銀.

(飜老) 제90화 여ᅀᅳ ·벋 지·ᅀᅳ·며 가·히·와 ·ᄆᆞᆯ 지·ᅀᅥ

·우·리 :셰·샹·앳 :사ᄅᆞ미 남·지 ᄃᆞ외·여 ᄃᆞᆫ·닐·딘·댄, 내 ·조·샹 명셩·을 ·ᄒᆞ·야ᄇᆞ·리·디 :말·오, 믈읫 :이·롤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어:딘 남·지어·니 ᄯᅡ나. ·부·못 명셩·을 :더·러·이·면 ·ᄂᆞ·미 ·춤 ·받·고 구지·즈리·라. ·부·뫼 사·라 :겨·신 저·긔 家庭·엣 ·법·령·과 명셩·이 :됴·ᄒᆞ·며, 뎐·디 가:산·도 이시·며, 기ᄅᆞ논 효ᄀᆞᆫ 즘싱·과 :굴·근 즘싱·도 이시·며, 더·브·럿·는 :사·ᄅᆞ·미·며 :죵·ᄃᆞᆯ·도 잇다·가 ·부·뫼 :업·스·신 :후·에 :혼·ᄌᆞ·식·ᄃᆞᆯ·히 사·롤 :일15) 일우·기 ·힘·ᄡᅳ·디 아·니ᄒᆞ·고 노·ᄅᆞᆺᄒᆞ·며,16) 홍ᄯᅮᆼ·여17) :놀·며, 보·피·ᄒᆞ·ᄂᆞᆫ18) 남진 :겨·집·ᄃᆞᆯ·ᄒᆞ·야 여ᅀᅳ ·벋 지·ᅀᅳ·며,19) 가·히·와 ·ᄆᆞᆯ20) 지·ᅀᅥ,21) :ᄆᆡ·실

주3 참조.

12) <飜老>에서는 "每日十數箇幇閑的家裏, 媳婦孩兒, 喫的穿的, 都是這呆廝的錢."로 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每日十數箇幇閑的, 家裏媳婦孩兒, 喫的, 穿的都是這呆廝的錢."으로 구절을 나누어야 한다.
13) '鞍子'는 '鞍橋子'를 말함. "안장 앞뒤에 있는 돌기(突起)한 부분"을 가리킨다. 제75화 주3 참조.
14) '鞍轡'은 "안장과 굴레"를 말함.
15) '사·롤 :일'은 '살-(生) +-·오/우ㄹ(관형사형) + :일(事)'의 형태구성으로 "살아갈 일"의 뜻.
16) '노·ᄅᆞᆺᄒᆞ·며'는 "놀이하며, 노름하며"의 뜻.
17) '홍ᄯᅮᆼ·여'는 '홍ᄯᅮᆼ이-(閑)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홍뚱항뚱하며, 하는 일이 없이 놀며"의 뜻.
18) '보·피·ᄒᆞ·ᄂᆞᆫ'은 "건달로 놀면서 지내는"의 뜻.
19) '여ᅀᅳ ·벋 지·ᅀᅳ·며'는 '狐朋狗黨'의 '狐朋'을 직역한 것으로 "여우와 친구를 삼으며"의 뜻으로 "나쁜 친구를 사귀며"의 뜻.
20) '·ᄆᆞᆯ'은 "무리, 떼"를 말함.
21) '가·히·와 ·ᄆᆞᆯ 지·ᅀᅥ'는 '狐朋狗黨'의 '狗黨'을 직역한 것으로 "개와 떼를 지어, 나

차 ·ᄑᆞ·ᄂᆞᆫ 지·븨 ᄣᅦ 나·ᄃᆞᆯ며22) 술 ·ᄑᆞ·ᄂᆞᆫ 져제·와 ·녀·기·의23) 지·븨 드러·가 간:대·로 :쳔 ᄡᅳ·거·든 모·ᄃᆞᆫ 아·ᅀᆞᆷ·과 이·웃·짓24) 늘·그·니·ᄃᆞᆯ·히 말·여 닐·오·ᄃᆡ ":네 :엇·디 ·ᄢᅵᄃᆞ·라 ᄉᆞᆲ·피·디 :몯·ᄒᆞᄂᆞᆫ·다" ·ᄒᆞ·야·든 ᄆᆞᅀᆞᆷ·ᄆᆞᆯ 어·리·워25) 가·지고·셔 :ᄃᆡ·답·ᄒᆞ·요·ᄃᆡ "·ᄡᅥ·도 내 쳔 ·ᄡᅳ·며 ·ᄒᆞ·야ᄇᆞ·려·도 내 짓 거슬 ·ᄒᆞ·야ᄇᆞ·리ᄂᆞ·니 네게 ᄆᆞ·ᄉᆞ :이·리 ·브·트·뇨?" ·이·러홀·ᄉᆡ ·모·ᄃᆞᆫ :사·ᄅᆞ·미 노의·여26) 말·이·디 아·니ᄒᆞ·니 제 ᄆᆞᅀᆞᆷ·으·로 :쳔 간:대·로 ·ᄡᅮ·ᄃᆡ :ᄆᆡ·실 여라·믄 노·ᄅᆞᆺ바·치 지·빗 :겨·집·과 아ᄒᆡ·의 머·글 ·것 니·블 거·시 :다 ·이 어·린 ·노·ᄆᆡ27) :쳔·이·라. ·ᄐᆞ·ᄂᆞᆫ ᄆᆞ·른 은 셜·흔 량 ᄊᆞᆫ28) ᄒᆞᆫ 피·리 ᄀᆞ:장 :건·ᄂᆞᆫ ᄆᆞ·리·오 ·기·르마·ᄂᆞᆫ 시·톄·옛29) 은 ·입·ᄉᆞ·ᄒᆞ·욘30) ·ᄉᆞ겨·넷31) :됴·ᄒᆞᆫ ·기·르마 굴·에·ᄃᆞᆯ·히32) :대·되 마·ᅀᆞᆫ 량 은 ·ᄡᅥ 잇·고.

(老諺) 제90화 여ᄋᆞ 벗 지으며 가히와 무리 지어

우리 세샹 사ᄅᆞᆷ이 男兒ㅣ33) 되여 ᄃᆞᆫ닐쩐대, 내 조샹 명셩을34) ᄒᆞ여ᄇᆞ리디

쁜 친구들과 어울리며"의 뜻.
22) 'ᄣᅦ 나·ᄃᆞᆯ며'는 'ᄣᅦ-(慣) + 나·ᄃᆞᆯ-(出入) +-며(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자주 드나들며, 늘 출입하며"의 뜻.
23) '·녀·기·의'는 원문 '妓女'의 언해로서 "여기(女妓)의, 여자 기생의"의 뜻.
24) '이·웃·짓'은 "이웃집"을 말함.
25) '어리·워'는 '어리-(愚) + -우-(피동형)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어리석게 되어"의 뜻.
26) '노의·여'는 "다시는"의 뜻. 'ᄂᆞ외야'의 변화형임.
27) '어·린 ·노·ᄆᆡ'는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사람"의 뜻.
28) 'ᄊᆞᆫ'은 'ᄊᆞ-(値) + -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가치가 있는"의 뜻. 'ᄊᆞᆫ'은 'ᄉᆞᆫ'(ᄉᆞ다 > ᄊᆞ다)의 변화형이다.
29) '시·톄·옛'은 '시·톄(時體) + -·예(처격) + -ㅅ(사이ㅅ)'의 형태구성으로 "시체(時體)에의, 당대에 유행하는, 당시의 풍습에 따르는"의 뜻.
30) '·입·ᄉᆞ·ᄒᆞ·욘'은 '·입·ᄉᆞ·ᄒᆞ-(入絲) + -이(사역형) + -·오/우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입사(入絲)시킨, 은사(銀絲)를 입힌"의 뜻.
31) '·ᄉᆞ겨·넷'은 "사견(紗絹)에의, 비단에의"의 뜻.
32) '·기·르마 굴·에·ᄃᆞᆯ·히'는 '鞍轡'의 직역으로 "말안장과 굴레"를 말함.
33) <飜老>에서는 '남·지'임.
34) <飜老>에서는 '·조·샹 명셩·을'임.

말고, 믈읫 일을 조심ᄒᆞ여 ᄃᆞ니면 어딘 男子ㅣ 어니ᄯᆞ녀. 父母의 名聲을[35] 더러이면 ᄂᆞᆷ이 춤 밧고 ᄭᅮ지즈리라. 父母ㅣ 사라신 적의 家法과[36] 名聲이 됴흐며, 뎐디 가산도 이시며, 기ᄅᆞᄂᆞᆫ 효근 즘싱과 굴근 즘싱도 이시며, 더브런ᄂᆞᆫ 사ᄅᆞᆷ이며 죵들도 잇다가 부뫼 업슨 후에 후ᄌᆞ식돌히[37] 살올 일 일오기 힘ᄡᅳ디 아니ᄒᆞ고 노롯ᄒᆞ며 홍ᄯᅩᆼ여 놀며 보피로온[38] 男女로 ᄒᆞ여[39] 여ᄋᆞ 벗 지으며 가히와 무지[40] 지어 每日 차 ᄑᆞᄂᆞᆫ 집의 ᄣᅦ나들며 술 ᄑᆞᄂᆞᆫ 져제와 녀기 ᄑᆞ져의[41] 드러가 간대로 쳔을 ᄡᅳ거든 모든 권당과 이우지 늘근이돌히 말려 니로ᄃᆡ "네 엇디 술피디 몯ᄒᆞᄂᆞᆫ다" ᄒᆞ면 ᄆᆞᄋᆞᆷ을 어리워 가지고셔 ᄃᆡ답ᄒᆞ여 니로ᄃᆡ[42] "ᄡᅧ도 내 쳔을 ᄡᅳ고 ᄒᆡ여ᄇᆞ려도 내 짓거슬 ᄒᆡ여ᄇᆞ리ᄂᆞ니 네게 므슴 일이 브트뇨?" 이런 젼ᄎᆞ로[43] 모든 사ᄅᆞᆷ이 다시[44] 말리디 아니ᄒᆞ니 제 ᄆᆞᄋᆞᆷ으로 쳔을 간대로 ᄡᅳ니, 每日 열아믄 노롯바치 집의 겨집과 아ᄒᆡ의 먹ᄂᆞᆫ 것 닙ᄂᆞᆫ 거시 다 이 어린 놈의 쳔이라. ᄐᆞᄂᆞᆫ ᄆᆞᆯ은 셜흔 냥 ᄊᆞᆫ ᄒᆞᆫ 필 ᄀᆞ장 것ᄂᆞᆫ ᄆᆞᆯ이오 기ᄅᆞ마ᄂᆞᆫ 시톄예 은 입ᄉᆞᄒᆞᆫ ᄉᆞ견엣 됴흔 기ᄅᆞ마 구레니 대되 마은 냥 은을 ᄡᅧ더라.

(現代譯) 제90화 나쁜 친구를 사귀다

우리가 세상에 사나이가 되어 다니려면 자기 조상의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근신(勤愼)하여 행하면 좋은 남자이지 않겠는가? 부모의 명성을 더럽히면 남들이 침 뱉고 꾸짖을 것이다.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는 집안의 법도나 명성도 훌륭하고, 논밭과 재산도 있었으며 기르는 크고 작은 가축도 있었고 부리는 일꾼 노비(奴婢)도 있었으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에 자손들이 살 일에 힘쓰지 않고, 노름하고 아첨이나 잘 하는 남자 여자들과 나쁜 친구가 되어서 매일 차 파는 집에 늘 드나들고 술파는 시장과 기생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이나 동네 노인들이 충고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깨달아 살피지 못하는가?" 하거든 마음을 어리석게 가지고 대꾸하기를 "써도 내 돈을 쓰며 버려도 내 집 것을 버리는데 그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리지 아니하니 제 마음대로 돈을 함부로 쓴다. 매일 십여 명씩 노름 집의 부인과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이 어리석은 놈의 돈으로 마련한다. 타는 말은 은자 삼십 냥짜리 하는 제일 잘 달리는 말이고, 안장은 최신 유행의 줄 넣은 비단으로 싼 좋은 안장, 굴레 들이 모두 은자 사십 냥을 쓴 것이다.

35) <飜老>에서는 '·부·못 명셩·을'임.
36) <飜老>에서는 '家庭·엣 ·법·령·과'임.
37) <飜老>에서는 ':훗·ᄌᆞ·식·돌·히'임.
38) <飜老>에서는 '보·피·ᄒᆞ·ᄂᆞᆫ'임.
39) <飜老>에서는 '남진 :겨·집·돌·ᄒᆞ·야'임.
40) <飜老>에서는 '·물'임. 여기의 '무지'는 "무리"의 오각으로 보임.
41) <飜老>에서는 '·녀·기·의 지·븨'임.
42) <飜老>에서는 ':ᄃᆡ·답·ᄒᆞ·요·ᄃᆡ'임.
43) <飜老>에서는 '·이·러홀·시'임.
44) <飜老>에서는 '노의·여'임.

(原文) 제91화 按四時穿衣服

穿衣服時, 按四時穿衣服, 每日脫套換套.[1] 春間好青羅[2]曳撒, 白羅大搭胡,[3]

1) '脫套換套'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함.『老覽』(下:3뒤)에 "脫套換套의 '套'는 물건의 단위를 칭하는 말이다.「事物紀原」에 의하면 무릇 머리 장식품은 '頂'이라 하고 衣服은 '套'라고 한다. 날이 지남에 따라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脫套換套 套物項之稱 事物紀原云凡首飾曰頂 衣服曰套 言逐日脫已着之服而換着別件衣也)"는 주석이 있다.
2) '青羅'는 "푸른색의 비단옷"을 말한다. <原老>에는 '紫羅'인데 이것은 "보라색의 비단옷"을 말한다.『원사(元史)』(권3)「여복지(輿服志)」의 규정을 보면 오품(五品) 이상의 문무(文武) 관원(官員)이 '보라색의 비단옷'(紫羅服)을 입도록 되었다.
3) '搭胡'는 '搭護 · 答忽 · 答胡 · 荅胡' 등으로도 쓰는데 "소매 없는 겉옷"을 말한다.『사림광기(事林廣記)』「경집(庚集)」(권10)「지원역어(至元譯語)」'의복문(衣服門)'조에 "番皮 · 荅胡"라는 단어가 있다. 원래는 가죽옷을 가리키는 몽고어 'daqu'의 음차(音借) 표기지만, 원대 희곡『생금각(生金閣)』「잡극(雜劇)」3折에 '綿搭(衤+護, 濩의 우측)'라는 어휘가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중국에 들어가서 다른

柳綠羅細摺[4]兒. 到夏間, 好極細的毛施布布衫, 上頭繡銀條紗[5]搭胡, 鴨綠[6]紗直身, 到秋間是羅衣裳. 到冬間, 界地紵絲[7]襖子, 綠紬襖子, 織金膝欄[8]襖子, 茶褐[9]水波浪地兒四花[10]襖子, 靑六雲襖子, 茜紅氈段, 藍綾子袴兒, 白絹汗衫, 銀褐[11]紵絲板摺[12]兒, 短襖子, 黑綠紵絲比甲,[13] 這般按四時穿衣裳.

소재(素材)로 된 옷도 가리키게 되었다. 『朴覽』(上)에서는 '比甲, 背子'(둘 다 소매가 없는 조끼 류의 윗옷)의 속칭을 '搭護'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元明戲曲中的蒙古語』(方齡貴,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의 15쪽을 참조.

4) '細摺'은 '細褶'이라고도 쓴다. "옷의 허리 부분에 있는 가는 주름"을 말한다. 제74화 주6 참조.

5) '繡銀條紗'는 『老覽』(下:3뒤)에 "수은조사(繡銀條紗)는 무늬가 없는 흰 천으로서 흰 털실만으로 胸背를 짜서 만든 것이다(繡銀條紗 紗之白而無紋者 只以白絨線織成胸背而已)"라는 주석이 있다.

6) '鴨綠'은 제72화 참조.

7) '紵糸'는 정교한 모양으로 짠 직물의 일종이다. 제72화 주1 참조.

8) '膝欄'은 "스란. 즉 치마의 옷감으로 무릎쯤에 무늬를 놓은 비단"을 말함. 제74화 주3 참조.

9) '茶褐'은 "다갈색(茶褐色)"을 말함. 『철경록(輟耕錄)』(권10)의 「채회법(采繪法)」에 복식(服飾)의 색채(色彩) 조합(調合)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각종의 갈색(褐色)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다. '다갈색(茶褐色)'은 '토황(土黃)'을 주로 하여 '칠록(漆綠)', '연묵(煙墨)', '괴화(槐花)'를 합쳐서 낸 색깔이라고 한다.

10) '四花'는 "꽃 모양이 넷이 있는 직물"을 가리킨다. 원대(元代)에는 꽃 모양의 수효에 따라 관직을 표시하였는데 원사(元史)』(권78) 「여복(輿服)」조에 "직위(職位)가 육품(六品), 칠품(七品)의 관리는 육화(六花) 무늬의 옷을 입고, 팔품(八品), 구품(九品)의 관리는 사화(四花) 무늬를 입는다"고 한다. 제72화 주6 참조.

11) '銀褐'은 "은빛 갈색"을 말한다. '銀褐'의 색깔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철경록(輟耕錄)』(권11)에 "銀褐은 '粉'을 사용하여 흰색을 내고 '藤黃'을 넣고 섞어 갈색을 낸다"는 설명이 있다.

12) '板褶'에 대하여는 언해에서 '너·븐 주·룸 텬·릭'(넓은 주름이 있는 철릭 옷)이라 하였다.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3) '比甲'은 "소매가 없고 양쪽 옷섶에 주름이 잡힌 옷"을 말한다. 즉 본국(本國)의 '돕지텰릭'이다. 부녀자(婦女子)들도 이 모양에 맞추어 짧은 저고리를 만들어 입는데 역시 '比甲'이라 부른다. 통칭하여 '搭護'라고 한다(比甲 衣之無袖對襟爲襞積者曰比甲 卽本國돕지텰릭 婦女亦依此制爲短襖着之 亦曰比甲 通稱搭護)"(『朴覽』中:8뒤)는 설명이 있다.

(飜老) 제91화 ᄉᆞ졀조초 옷 니보ᄃᆡ

·옷 니·블·딘·댄 :ᄉᆞ·졀조·초[14] ·옷 니·보·ᄃᆡ 날마다 ᄒᆞᆫ ·볼[15] 밧·고 ᄒᆞᆫ ·볼 ᄀᆞ·라닙ᄂᆞ·니, 보·믹·ᄂᆞᆫ :됴·ᄒᆞᆫ ·야·쳥 로[16] 이·삭·딕·녕[17]·에, ·힌 로[18] ·큰 더그·레[19]·에 ·푼:류·쳥 로[20] ·ᄀᆞ·ᄂᆞᆫ 주·룸 텬·릭[21]·이·오, 녀·름 다ᄃᆞᆮ거·든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젹삼·애, 우·희·ᄂᆞᆫ 제 :실·로 :슈·질 노ᄒᆞᆫ[22] ·힌 뮌紗[23] 더그·레, ·야·투·로 사[24] ·딕·령·이·오, ᄀᆞ술·히 다ᄃᆞᆮ거·든 로 ·오·시·오,[25] 겨·ᅀᅳ·리 다ᄃᆞᆮ거·든 ·벽드·르문·엣[26] :비:단 ·핟·옷[27]·과 ·초·록 면듀[28] ·핟·옷·과 금·으·로 ·ᄧᅡ[29] ·시·란ᄒᆞᆫ[30] ·핟·옷·과 :감·차·할[31] ·믈·결 바·탕·애

---

14) ':ᄉᆞ·졀조·초'는 ':ᄉᆞ·졀(四節) + 좇-(從) + -·오(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사계절(四季節)에 좇아서"의 뜻.

15) 'ᄒᆞᆫ ·볼'은 "한 벌"을 말함.

16) '·야·쳥 로'는 '鴉靑羅'를 말하며, 원문 '靑羅'를 풀이한 것으로 "아청빛의 비단"을 말한다. 주1 참조.

17) '이·삭·딕·녕'은 "직령(直領)의 한가지"임. 직령(直領)은 "조선시대에 입던 소매가 넓고 깃이 뻣뻣한 웃옷"을 말함. 제74화 주16 참조.

18) '·힌 로'는 원문 '白羅'의 풀이로 "흰 비단"을 말함.

19) '더그·레'는 "조선시대의 군복으로, 아랫부분이 세 자락으로 갈라진 웃옷"을 말함. '더그·레'는 원문 '大搭胡'의 풀이로 주2 참조.

20) '푼:류·쳥 로'는 '柳綠羅'의 풀이로 "버드나무 색(柳靑色)의 비단"을 말함.

21) '·ᄀᆞ·ᄂᆞᆫ 주·룸 텬·릭'은 '細摺'의 풀이로 "옷의 허리 부분에 가는 주름이 있는 철릭(公服)"을 말한다. 주3 참조. '텬·릭'은 '철릭'으로 음운 변화를 하였고 '天翼, 天益'으로 표기하며 "조선시대 문관의 공복(公服)"을 말한다.

22) ':슈·질 노ᄒᆞᆫ'은 ':슈·질(繡) + 놓-(飾) + -ᄋᆞᆫ(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수(繡) 놓은"의 뜻.

23) '뮌紗'는 "아무런 수를 놓지 않은 비단, 민 비단"의 뜻.

24) '·야·투·로 사'는 '鴨綠紗'의 직역으로 "야투로(푸른색의 일종) 색깔의 비단"임.

25) '로 ·오·시·오'는 '로(羅) + ·옷(衣) + -·이(계사) + -·오(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비단 옷이고"의 뜻.

26) '·벽드·르문·엣'은 "벽돌 무늬에의"임.

27) '·핟·옷'은 "두 겹으로 만들어서 속에 솜을 두고 지은 옷"임.

28) '면듀'는 원문 '紬'의 풀이로 '綿紬, 명주'를 말함.

29) '금·으·로 ·ᄧᅡ'는 원문 '織金'의 풀이로 "금실을 넣어 짜서"의 뜻.

:ᄉᆞ·화문ᄒᆞᆫ :비·단 ·한·옷·과 ·야·청비·체 ·구·름 여슷·곰문32) 둔 ·비·단 ·한·옷·과 곡도숑33) ·믈 ·드·린 블·근비·체 털조·쳐 ·드·려 ·ᄧᆞᆫ :비·단34)·과 ·람 고로·와·로 ·히·욘 고의35)·예 ᄇᆡᆨ:깁 :한·삼·과 부희여ᄒᆞᆫ36) 비·쳇 :비·단 너·븐 주·룸 텬·릭·과 뎌른 ·한·져·구·리·와 :희·무·로37) :비·단 비·게38)·와 ·ᄒᆞ·야 ·이·러ᄐᆞ·시 :ᄉᆞ·졀조·초 ·옷·돌 닙·더·라.

老諺 제91화 ᄉᆞ졀을 조차 오ᄉᆞᆯ 닙드라

오ᄉᆞᆯ 니블쩐대 ᄉᆞ졀을 조차 옷 니브되 날마다 ᄒᆞᆫ 불 벗고 ᄒᆞᆫ 불 ᄀᆞ라닙ᄂᆞ니, 봄의ᄂᆞᆫ 됴흔 야쳥노 이삭딕녕에, 흰 노 큰 더그레예 ᄑᆞ룬39) 뉴쳥노 ᄀᆞᄂᆞᆫ 줄옴 텰릭이오, 녀름 다ᄃᆞᆺ거든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젹삼에, 우에ᄂᆞᆫ 슈 노흔40) 흰 면사 더그레에 야토로사 딕녕이오, ᄀᆞ올히 다ᄃᆞᆺ거든 노오시오, 겨울이 다ᄃᆞᆺ거든 벽드르문엣 비단옷과41) 초록 면듀 핫옷과 금으로 ᄧᆞᆫ42) 膝欄ᄒᆞᆫ43) 핫옷과 감찰 비치44) 믈쎨 바탕에 ᄉᆞ화 문ᄒᆞᆫ 비단 핫옷과 야쳥 빗체 六雲文45) 비단 핫옷과 곡도숑 믈드린 블근 빗체 털 조차 ᄧᆞᆫ 비단과

30) '·시·란ᄒᆞᆫ'은 '膝欄'을 말함. 제72화 주3 참조.
31) ':감·차·할'은 "다갈색의 하나"임.
32) '·구·름 여슷·곰문'은 원문 '六雲'의 풀이로 "구름 여섯씩의 무늬"를 말함.
33) '곡도숑'은 원문 '茜'의 풀이로 "(진홍색의 원료가 되는) 꼭두서니 풀"을 말함.
34) '털조·쳐 ·드·려 ·ᄧᆞᆫ :비·단'은 '氈段'의 언해로 "양털을 들여서 짠 비단"을 말함.
35) '·람 고로·와·로 ·히·욘 고의'는 '藍綾子袴兒'를 직역한 것으로 "남색(藍色)의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고의(짧은 바지)"를 말함.
36) '부희여ᄒᆞᆫ'은 원문 '銀褐'의 풀이로 "뿌연, 열은 흰색의"의 뜻.
37) ':희무·로'는 원문 '黑綠'의 풀이로 "검정과 초록의 간색(間色)의, 쇠빛의" 뜻.
38) '비·게'는 "비갑(比甲, 소매가 없고 양쪽 옷섶에 주름이 잡힌 옷)"을 말함. 주13 참조.
39) <飜老>에서는 'ᄑᆞᆫ'임.
40) <飜老>에서는 ':슈·질 노ᄒᆞᆫ'임.
41) <飜老>에서는 ':비:단 ·한·옷·과'임.
42) <飜老>에서는 '·ᄧᆞ'임.
43) <飜老>에서는 '·시·란ᄒᆞᆫ'임.
44) <飜老>에서는 ':감·차·할'임.

남능 고의에46) 흰 깁 한삼과 은47) 빗채 비단 너븐 주름 텰릭과 뎌른 핫옷과48) 黑錄49) 빗체 비단 비게를 ᄒᆞ여 이러트시 ᄉᆞ졀을 조차 오ᄉᆞᆯ 닙드라.

現代譯 제91화 사철에 따라 사치한 옷

옷을 입을라치면 사계절(四季節)에 따라 옷을 입는데 날마다 한 벌은 벗고 한 벌은 갈아입는다. 봄에는 좋은 아청(鴉靑)색 비단 직령(直領)에, 흰 비단의 더그레에, 유청색(柳靑色) 파란 비단에 허리에 가는 주름을 넣은 철릭이다. 여름이 되면 매우 가는 모시베 적삼에 위에는 제실로 수놓은 흰 민 비단 더그레, 압록(鴨綠)색 가는 비단 직령(直領)이고, 가을이 되면 비단 옷이고, 겨울이 되면 벽돌 무늬의 비단 솜옷과 초록색 명주솜옷과 금실을 넣어 짜고 스란[膝欄]한 솜옷과 다갈색(茶褐色) 물결 바탕에 꽃 네 개씩 무늬를 넣은 비단 솜옷과 아청(鴉靑)빛의 구름 여섯을 무늬로 넣은 비단 솜옷과 꼭두서니를 물들인 붉은 빛 모전(毛氈)의 비단과 쪽색의 비단으로 만든 고의에 흰색 한삼(汗衫)과 은갈(銀褐)색의 비단으로 만든 넓은 주름을 넣은 철릭과 짧은 솜옷 저고리와 흑록(黑綠)색 세 겹의 비갸 옷을 하여 이렇게 사철에 맞추어 옷을 입는다.

原文 제92화 繫腰

繫腰1)時, 也按四季. 春裏繫金條環. 夏裏繫玉鉤子, 最低的是菜玉,2) 最高的

45) <飜老>에서는 '·구·름 여슷·곰문 둔'임.
46) <飜老>에서는 '·람 고로·와·로 ·히·욘 고의'임.
47) <飜老>에서는 '부희여ᄒᆞᆫ'임.
48) <飜老>에서는 '·한·져·구·리·와'임.
49) <飜老>에서는 ':희무·로'임.

1) '繫腰'는 허리띠를 말하는 금・원대(金・元代)의 말이다. 『초목자(草木子)』(권3)

是羊脂玉.3) 秋裏繫減金4)鉤子, 尋常的不用, 都是玲瓏花樣的. 冬裏繫金厢寶石鬧裝,5) 又繫有鬉眼6)的烏犀7)繫腰.

(飜 老) 제92화 ᄯᅴ도 ᄯᅩ ᄉᆞ졀조초 ᄒᆞ요ᄃᆡ

·ᄯᅴ·도 ·ᄯᅩ :ᄉᆞ·졀조·초 ᄒᆞ·요·ᄃᆡ, 보·ᄆᆡ·ᄂᆞᆫ 금·토환8) ·ᄯᅴ·오, 녀르·메·ᄂᆞᆫ ·옥·으·로 ·ᄯᅴᆺ 그·테 ·갈갈이9) ᄒᆞ니 ᄯᅴ요·ᄃᆡ ᄀᆞ·장 사·오·나·와·ᅀᅡ :ᄎᆡ·옥10)·이·오 ᄀᆞ·장 노·프니·ᄂᆞᆫ 양지·옥11)·이·오, ᄀᆞ술·ᄒᆡ·ᄂᆞᆫ 금·으·로

에 "모자(帽子)와 계요(繫腰)는 원(元)의 옷"이라는 구절이 있다.

2) '菜玉'은 『격고요론(格古要論)』(卷中) 「옥기(玉器)」에 "채옥(菜玉)은 푸른 것(靑)이나, 녹(綠) 색이 아니라 색깔이 채엽(菜葉)과 같아 옥(玉) 중에서 최저(最低)의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3) '羊脂玉'은 백옥(白玉)의 일종으로 색깔이 반투명(半透明)하여 양(羊)의 비계(脂)와 같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4) '減金'은 "금을 덜 들인"의 뜻으로 금세공(細工)의 방법으로 보인다. <原老>에는 '鹹鐵'인데 이때의 '鹹'은 '減'의 잘못이다. '감철(減鐵)'은 "가벼운 쇠"란 의미로 철을 제련(製鍊)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인다. 원대(元代) 이전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련된 쇠인지는 알 수 없다. 『원사(元史)』(권78) 「여복(輿服)」조에 "허리띠[繫腰]는 오품(五品) 이하에게는 은(銀) 및 감철(減鐵)의 사용을 허용함", 또한 같은 책(권90) 「백관(百官)」조에 '감철국(減鐵局)'이 있으며 "어용(御用) 및 제궁저(諸宮邸)의 계요(繫腰)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원(元) 공재(孔齊) 『지정직기(至正直記)』(권4) 「감철위패(減鐵爲佩)」에서는 "감철(減鐵)은 여진(女眞)의 유제(遺制)이고, 허리띠로 사용하면 무거워서 녹이 나기 쉽다"고 기록하여 주로 허리띠의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鬧裝'은 『老覽』(下:3뒤)에 "金石과 각종 보석을 박아서 만든 띠이다(鬧裝 用金石雜寶裝成爲帶者)"라는 주석이 있다.

6) '鬉眼'은 "물소ᄲᅮᆯ의 무늬 모양"을 말한다. 전술한 『격고요론(格古要論)』(卷中) 「서각(犀角)」조에 "그 무늬(紋)는 어자(漁子-魚卵을 가리킴)와 닮았으며 이것을 속문(粟紋)이라고 한다. 모든 속문(粟紋) 가운데는 눈(眼)이 있는데 이것을 속명(粟明)이라고 한다"는 설명이 있다. '종안(鬉眼)'이란 이 '속명(粟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무늬가 확실하게 비쳐보이게 만든 것을 '통서대(通犀帶)'라고 하며 띠 가운데 가장 고급품이었다.

7) '烏犀'는 "물소"이나 여기서는 "오서각(烏犀角), 물소ᄲᅮᆯ"을 말함.

8) '금·토환'은 '金絛環'을 말하는 것으로 "금실로 만든 고리"를 말한다.

9) '·갈갈이'는 "갈고리[鉤子]"를 말함.

·입·ᄉᆞ·ᄒᆡ·욘12) 구·ᄌᆞ·ᄯᅴ13) ᄯᅴᄂᆞ·니 샹·햇 거·슨 ·ᄡᅳ·디 아·니·코 :다 설·픠·에14) 곳 사·굔15) 거·시러·라. 겨·ᅀᅳ·리어·든 금·으·로 ·각 ·식 :보·셕·에 :젼메·워16) 워즈런즈러니17) ·ᄭᅮ·민 ·ᄯᅴ:를 ᄯᅴ·며 ·ᄯᅩ ᄎᆞᆼᄭᅮ무18) 잇ᄂᆞᆫ 烏犀角19)·으·로 ᄆᆡᆼ·근 ·ᄯᅴ·를 ᄯᅴ·엿·고.

(老 諺) 제92화 ᄯᅴ도 ᄯᅩ ᄉᆞ졀을 조차 ᄒᆡ오되

ᄯᅴ도 ᄯᅩ ᄉᆞ졀을 조차 ᄒᆡ오되, 봄에ᄂᆞᆫ 금툐환 ᄯᅴ고, 녀름에ᄂᆞᆫ 옥으로 ᄯᅴ 긋테 갈구리20) ᄒᆞ니를 ᄯᅴ오되 ᄀᆞ장 ᄂᆞᄌᆞ니아21) 菜玉이오 ᄀᆞ장 놉프니ᄂᆞᆫ 羊脂玉이오, ᄀᆞ술히ᄂᆞᆫ 금 입ᄉᆞ혼22) 구ᄌᆞ를 ᄯᅴᄂᆞ니 샹네 ᄡᅥ손23) ᄡᅳ디 아니코 다 설픠게 곳 사긴 거시러라. 겨울이어든 금으로 보셕에 젼메워 워젼즈러니24) ᄭᅮ민 ᄯᅴ를 ᄯᅴ며 ᄯᅩ 종구무 잇ᄂᆞᆫ 오셔각으로 ᄆᆡᆼ근 ᄯᅴ를 ᄯᅴ엿드라.

---

10) ':ᄎᆡ·옥'은 "菜玉(채소 빛깔의 옥)"을 말함. 주2 참조.

11) '양지·옥'은 "양지옥(羊脂玉)"을 말함. 주3 참조.

12) '·입·ᄉᆞ·ᄒᆡ·욘'은 '·입·ᄉᆞ·ᄒᆞ-(入絲ᄒᆞ-) + -·ㅣ(사동형) + 오/우ㄴ(관형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입사(入仕)시킨, 주을 넣게 한"의 뜻.

13) '구·ᄌᆞ·ᄯᅴ'는 "구자(鉤子) 띠, 갈고리가 붙은 띠"를 말함.

14) '설·픠·에'는 "성기게"의 뜻이나 여기서는 "영롱(玲瓏)하게"의 뜻으로 보임.

15) '곳 사·굔'은 '곳[花] + 사기-[刻] + ·오/우ㄴ'의 형태구성으로 "꽃을 사겨 넣은"의 뜻.

16) ':젼메·워'는 "상감(象嵌)하여"의 뜻.

17) '워즈런즈러니'는 "울긋불긋하게, 매우 요란하게, 화려하게"의 뜻.

18) 'ᄎᆞᆼᄭᅮ무'는 '鬉眼'의 풀이로 <老諺>에서는 '종구무'다. 'ᄎᆞᆼ(鬉) + ᄭᅮ무(孔, 眼)'의 복합어로 "종(鬉) 구멍"의 뜻. '鬉眼'은 주6 참조. 'ᄎᆞᆼᄭᅮ무'를 "털구멍"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19) '烏犀角'은 "물소의 ᄲᅮᆯ"을 말함.

20) <飜老>에서는 '·갈갈이'임.

21) <飜老>에서는 '사·오·나·와·ᅀᅡ'임.

22) <飜老>에서는 '금·으·로 ·입·ᄉᆞ·ᄒᆡ·욘'임.

23) <飜老>에서는 '샹·햇 거·슨'임.

24) <飜老>에서는 '워즈런즈러니'임.

(現代譯) 제92화 허리띠도 사철에 따라 갈아 띠고

허리띠도 또한 사철에 따라 바꾸어 차는데 봄에는 금(金)으로 만든 고리띠를 띠고 여름에는 옥(玉)으로 띠의 끝에 갈고리를 단 것을 띠는데 (갈고리는) 제일 나쁜 것이라야 채옥(菜玉)이고 제일 좋은 것은 양지옥(羊脂玉)이다. 가을에는 금실을 입사(入絲)한 갈고리 띠를 띠는데 보통의 것은 쓰지 않고 다 영롱(玲瓏)한 꽃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이더라. 겨울이 되면 금에다가 각색 보석을 상감(象嵌)하여 울긋불긋하게 꾸민 띠를 띠며 또 종안(鬉眼), 물소뿔의 무늬가 있는 오서각(烏犀角-검은 물소뿔)으로 만든 띠를 띠었다.

(原文) 제93화 帽子

頭上戴的好貂鼠,[1] 皮披肩, 好纏椶金頂大帽子,[2] 這一箇帽子, 結裹四兩銀子. 又有紵絲剛叉帽兒, 羊脂玉頂子,[3] 這一箇帽子, 結裹三兩銀子. 又有天青紵絲[4]帽兒, 雲南氈[5]帽兒, 又有貂鼠皮狐帽, 上頭都有金頂子.

---

1) '貂鼠(초서)'는 족제빗과에 속하는 담비로서 『석진지집일(析津志輯佚)』「물산(物産)」조에 "이것은 '초서(貂鼠)'의 류(類)를 말하며, 제일 좋은 '은서(銀鼠)'는 매년 남성(南城)의 '초서국(貂鼠局)'에서 수납하고 이보다 못한 '청서(靑鼠)'로 만든 '탑호(搭護)'는 '은서(銀鼠)' 또는 '수달(水獺)'로 테두리를 친다"고 한다.
2) '帽子'는 『흑달사략(黑韃事略)』에 의하면 몽고인의 남자가 쓰는 것을 말하며, "겨울에는 모자(帽), 여름에는 갓(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림광기(事林廣記)』(至順刊本) 「후집(後集)」(권10) '복식류(服飾類)'에 "모자(帽子)는 또한 외국의 것에 의존한다. 혹은 금수(禽獸)의 피모(皮毛), 우마(牛馬)의 꼬리 및 종모등죽(棕毛藤竹)으로 모자를 만들고, 혹은 견백소금직금(絹帛銷金織金)으로도 이것을 만든다. 지금은 속통용(俗通用)함"이란 설명이 있다.
3) '羊脂玉頂子'에 대하여는 『飜朴』(上)에 "上等의 玲瓏한 羊脂玉頂兒"라는 구절이 있다. '羊脂玉'은 제92화 주7 참조.
4) '天青紵絲'의 '天青'은 제72화에 '天青胸背'에 나오며 "텬청비쳇, 천청 빛"으로 언해하였다. '紵絲'는 "정교한 모양으로 짠 직물의 일종"이다. 제74화 주1 참조.

(飜老) 제93화 머리에 슨 거슨

머·리·예 ·슨 거·슨 :됴·훈 돈피 슥:염[6]·이·오 :됴·훈 총나못[7] :실·로 밋·고 금딩·즈[8] 브·틴 ·갇[9]·이·니 ·이 훈 ·가·디 :넉 량 ·은 ·드·러·사 밍·ᄀ·라 내·엿·고, ·또 :비·단·으·로 드르[10] :두 ·넉 가르 ·빠[11] 돌마·기[12] ·ᄃ·론 갇·애 양지·옥 딩·ᄌ 브·터시·니 이 훈 ·갇·은 :석 량 은·으·로 ·드려·사 밍·ᄀ·라 내·엿·고, ·또 텬청비·쳇 :비·단·갇·과 운남·의·셔 훈 시·욱[13]·갇·과 ·또 돈피털[14]·갇과·ᄋ 우·희 :다 금딩·ᄌ 잇·더·라.

(老諺) 제93화 머리에 쁜 거손

머리에 쁜 거손 됴흔 돈피 이엄[15]이오 됴흔 증나모[16] 실로 밋고[17] 그 딩

---

5) '雲南氈'은 중국 운남(雲南)에서 짠 모직물을 말한다. 중국 최남부에 위치한 운남성(雲南省)은 원대(元代)에 처음으로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의 특산 중에 모직물(毛織物)이 있었으며 <飜朴> 中에도 "雲南氈大帽"라는 구절이 있다.
6) '돈피 슥:염'의 '돈피'는 "담비"를 말한다. "貂 돈피 툐 俗呼貂鼠"(『訓蒙字會』 상:10) 참조. '슥:염'은 '皮披肩'의 풀이로 "어깨를 덮는 가죽"의 뜻이나 현재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老諺>에서는 '이엄(耳掩)'으로 바뀌었는데 '이엄(耳掩)'은 "관복(官服)을 입을 때에 사모(紗帽) 밑에 쓰는 모피(毛皮)로 만든 방한구(防寒具)"를 말한다.
7) '총나못'은 원문 '椶'의 풀이로 "총나무의, 종려나무의"의 뜻.
8) '금딩·ᄌ'는 "금정자(金頂子)"를 말함. '딩·ᄌ'는 "모자, 전립(戰笠) 따위의 꼭지에 붙인 장식"을 말하며 품계에 따라 금, 은, 옥, 석(石)의 차이가 있다, '증자(鍇子)'라고도 한다.
9) '·갇'은 "갓(笠)"을 말함.
10) '드르'는 '갓도래, 갓드롱, 갓양태'라고도 부르는 "모자의 테, 차양"을 말함.
11) '가르 ·빠'는 "갈라 따서, 갈라내어"의 뜻. '·빠'는 'ᄠ-[취)]+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임.
12) '돌마·기'는 "단추"를 말함.
13) '시·욱'은 "모전, 담요, 털로 짠 것"을 말함.
14) '돈피털'은 "담비털, 초서피(貂鼠皮)"를 말함. 주6 참조.

ᄌᆞ18) 브틴 갓이니, 이 ᄒᆞᆫ 갓은 넉 량 은을 드려 ᄆᆡᆼ그랏고,19) ᄯᅩ 비단으로 드르 두 녁 가르ᄲᅡ20) 돌마기 돌온 갓애 양지오21)딩ᄌᆞ 브텨시니, 이 ᄒᆞᆫ 갓은 셕 량 은을 드려 밍그라 내엿고, ᄯᅩ 텬청 빗체 비단 갓과 雲南에셔 난 젼으로 ᄒᆞᆫ22) 갓과 ᄯᅩ 돈피 털 깃애23) 우희 다 금딩ᄌᆞ 잇드라.

(現代譯) 제93화 머리에 쓴 것은

머리 위에 쓴 것은 좋은 담비 털로 된 어깨까지 가려지는 이엄(耳掩)이고 좋은 종려나무 실로 만든 갓에 꼭지에 금정자(金頂子)를 쳤으니 이 갓 하나가 넉 냥의 은자를 들여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비단으로 한 갓양태를 두 편으로 갈라내어 단추를 달은 갓에 양지옥(羊脂玉) 정자(頂子)를 부쳤으니 이 한개 갓에 은자 석 냥을 들여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하늘 푸른색의 비단으로 만든 갓과 운남(雲南)에서 난 양털로 짠 갓에 모두 위에는 금정자(金頂子)를 부쳤더라.

(原文) 제94화 穿靴

穿靴時, 春間穿皂廃皮靴, 上頭縫着倒提雲.1) 夏間穿猠皮2)靴. 到冬間穿嵌金

15) <飜老>에서는 'ᄉᆞ:염'임. '이엄'은 "이엄(耳掩)"을 말함. 주6 참조.
16) <飜老>에서는 '총나못'임. '증나모'는 "종(椶) 나무"로 보임.
17) <飜老>에서는 'ᄆᆡᆺ·고'임.
18) <飜老>에서는 '금딩·ᄌᆞ'임.
19) <飜老>에서는 '밍·ᄀᆞ·라 내·엿·고'임.
20) <飜老>에서는 '·ᄲᅡ'임.
21) <飜老>에서는 '양지·옥'임.
22) <飜老>에서는 '시·욱'임. '젼으로 ᄒᆞᆫ'의 '젼으로'는 "전(氈)으로"로 보임.
23) <飜老>에서는 '·갇과·ᄋᆡ'임. '깃애'는 '갓애'의 탈획으로 보임.

1) '倒提雲'은 『老覽』(下:3뒤)에 "대개 구름 모양의 무늬를 가리키는데 머리 쪽은 아

線藍條子白廃皮靴. 氈襪穿好絨毛襪子, 都使大紅紵絲緣口子. 一對靴上, 都有紅絨鴈爪,3) 那靴底, 都是兩層淨底, 上的線, 蠟打了, 錐兒細線, 上的分外的牢壯, 好看.

(飜老) 제94화 훠롤 시놀뎬

훠·롤 시·놀·딘·댄 ·봄 ᄉᆞ·ᅀᅵ·ᄂᆞᆫ 거·믄 기·ᄌᆞ피4) 훠5) 시·노·ᄃᆡ, 우·희 ·구룸 갓·고·로6) 드·리·옛·게 ·호·와 잇·고,7) 녀·름 ᄉᆞ·ᅀᅵᄂᆞᆫ :뎐피 훠8) :신·고, 겨·ᅀᅳ·렌 ·람:비·단 갸·품9)·에 금·션10) 조·쳐 ·ᄢᅦ·ᄇᆡᆨ 기·ᄌᆞ피 훠11) 시·노·ᄃᆡ, 시·욱 쳥·은12) :됴ᄒᆞᆫ ·ᄀᆞ·ᄂᆞᆯ·오 보ᄃᆞ·라·온 터·리·로 미·론13) 쳥 시·너

래로 향하게 하고 꼬리 쪽은 위로 향하게 하여 신발의 코를 장식한 것이다(倒提雲 盖謂作雲形 以頭向下以尾向上 綴着靴頭爲飾者也)"이란 주석이 있다.
2) '猠皮'는 "양(羊)의 가죽"을 말한다. 양의 가죽에 붙은 털을 모두 없애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삶은 것이다. 『朴覽』(上:9뒤)에 "「質問」에 의하면 양가죽의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부드럽고 갈기 구멍(鬃眼)이 있어 신을 만들면 보기가 좋다고 한다. 지금 按컨대 '猠'자는 韻書에 수록되지 않아 字義가 未詳"이란 주석이 있다.
3) '鴈爪'는 "기러기 발톱 모양의 장식"을 말한다. 『老覽』(下:4앞)에 "「音義」에 의하면 '신코'이며 一說에는 '靴纓'[신끈]이라 한다고 하였다. 지금 按컨대 '靴纓'은 곧 '鴈爪'이므로 「音義」에서 '一說'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音義云靴엣 고 一說靴纓 今按靴纓卽鴈爪 音義稱一說誤)"라는 주석이 있다.
4) '기·ᄌᆞ피'는 "큰 노루(皀麅) 가죽"을 말함.
5) '훠'는 '靴'의 표기로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말함.
6) '갓·고·로'는 "거꾸로, 반대로"의 뜻.
7) '·호·와 잇·고'는 '·호-(縫) + -·아(연결어미) + 잇-(在) + -·고(연결어미)'의 형태 구성으로 "꿰맸고, 박았고"의 뜻.
8) ':뎐피 훠'는 '猠皮靴'의 표음으로 "양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말함. '猠皮'는 주2 참조.
9) '갸·품'은 "솔기를 꾸미는 오라기를 말하며 옷이나 신 따위를 장식하려고 그 솔기에 다른 띠오리를 끼운 것"이다.
10) '금·션'은 '金線'의 표음으로 "금실로 된 선"을 말함.
11) '·ᄇᆡᆨ기·ᄌᆞ피훠'는 "흰 노루 가죽 구두"를 말함.
12) '시·욱 쳥·은'은 '시·욱(氈) + 쳥(襪)'의 복합어로 "털로 된 버선, 털양말"을 말함.
13) '미·론'은 "밀어 낸, 전부를 ~로 만든"의 뜻.

이·쇼·ᄃᆡ :다 ·다홍 :비·단[14]·오·로 ·깃 ·ᄃᆞ:라 이시·니, ᄒᆞᆫ 솽 훠[15]·예 :다 블·근 :실·로 ·고[16] ·ᄃᆞ·라 잇·더·라. ·뎌 훠 챵[17]·이 :다 :두 층 ·조·ᄒᆞᆫ 챵·애 ·호·와 잇ᄂᆞᆫ :시·른 :밀[18] ·텨 잇·고 :솔·오·ᄌᆞᆫ[19] ·ᄀᆞ·ᄂᆞᆯ·오 노·ᄒᆞᆫ[20] :굴·그·니 ·호·와 잇ᄂᆞᆫ ·양·이 ·분·외[21]·로 구·드·니 보니 ·됴터·라.

(老諺) 제94화 훠ᄅᆞᆯ 신을딘대

훠ᄅᆞᆯ 신을딘대 봄에ᄂᆞᆫ[22] 거믄 기ᄌᆞ피 훠ᄅᆞᆯ 신오되, 우희 구룸 깃고로[23] 드리웟게 호와 잇고, 녀름에ᄂᆞᆫ 뎐피훠ᄅᆞᆯ 신고, 겨을에ᄂᆞᆫ 그 션조차 남비단 갸품 씐 흰[24] 기ᄌᆞ피 훠ᄅᆞᆯ 신오되, 시욹쳥은 됴흔 보드라온 털로 미론 쳥 신어쇼ᄃᆡ 다 다홍비단으로 깃 ᄃᆞ라 이시니, ᄒᆞᆫ 빵 훠에 다 블근 실로 고 ᄃᆞ라 잇더라. 뎌 훠 챵이 다 두 층 조ᄒᆞᆫ 챵애 ᄃᆞ라[25] 잇ᄂᆞᆫ 실은 밀텨 잇고 송고손[26] ᄀᆞᄂᆞᆯ고 노ᄒᆞᆫ 굴그니 ᄃᆞ라 잇ᄂᆞᆫ 양이 분외에[27] 구드니 보기 됴트라.

---

14) '·다홍 :비·단'은 원문 '大紅紵絲'의 직역으로 "붉은 비단"을 말함.
15) '솽 훠'는 '雙靴'의 표음으로 원문 '一對靴'의 언해인데 "한 켤레의 구두"를 말함.
16) '·고'는 "코, 장식"을 말함.
17) '챵'은 "구두의 창, 신발의 밑바닥"을 말함.
18) ':밀'은 '蜜'의 표음으로 실을 질기게 하기 위하여 초, 즉 밀납(蜜蠟)을 칠할 때의 "밀"을 말함.
19) ':솔·오·ᄌᆞᆫ'은 ':솔·옺(錐) + -·은'의 형태구성으로 "송곳은"의 뜻.
20) '노·ᄒᆞᆫ'은 "놓(繩)은, 노끈은"의 뜻.
21) '·분·외'는 원문 '分外'의 표음으로 "제 분수의 바깥, 분수에 지나침"의 뜻.
22) <飜老>에서는 '·봄 ᄉᆞ·ᅀᅵ·ᄂᆞᆫ'임.
23) <飜老>에서는 '갓·고·로'임.
24) <飜老>에서는 '·ᄇᆡᆨ'임.
25) <飜老>에서는 '·호·와'임.
26) <飜老>에서는 ':솔·오·ᄌᆞᆫ'임.
27) <飜老>에서는 '·분·외·로'임.

(現代譯) 제94화 신발을 신으려면

신발을 신으려면 봄에는 검은 노루 가죽의 구두를 신되 신발 위에 구름을 거꾸로 들어가게 박아있고, 여름 사이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겨울에는 금선(金線)을 따라 쪽빛 비단으로 솔기에 오라기를 붙인 흰 노루 가죽 구두를 신되 털로 짠 버선은 좋고 가늘고 보드라운 털로 짠 버선을 신었는데 모두 붉은 비단으로 깃을 달았으니 한 쌍 구두에 모두 붉은 실로 장식을 달았더라. 이 구두의 밑창은 두 층의 좋은 창이고 박은 실은 밀납(蜜蠟)을 칠했고 송곳은 가늘고 실을 굵으니 박은 모습이 분수 밖으로 굳으니 보기 좋더라.

(原文) 제95화 幇閑的那廝們

喫飯時, 揀口[1]兒喫. 清早晨起來, 梳頭洗面了, 先喫些箇醒酒湯,[2] 或是些點心,[3] 然後打餅熬羊肉, 或白煮[4]着羊腰節胸子. 喫了時, 騎着鞍馬, 引着伴儅,

---

1) '揀口'는 편식(偏食)하는 것을 말한다. 『양주몽(揚州夢)』「잡극(雜劇)」 2折 [살미(煞尾)]곡(曲)에 "자미진수(滋味珍饈) 있어서 간구아(揀口兒-편식하는 아이)에 공(供)함"이라는 대사가 있다.
2) '醒酒湯'은 "술 깨는 국"이란 뜻으로 전날 술을 과음(過飮)하여 머리가 아프고 몸이 나른할 때에 먹는 시큼한 국을 말하며 우리의 해장국에 해당한다. 뼈를 삶은 국물에 얇게 썬 고기와 짧게 자른 국수를 넣고 후추, 식초, 파를 넣어 시큼하게 만든 탕이다(『老覽』(下:4앞)). 『도성기승(都城紀勝)』 및 『몽양록(夢粱錄)』(권19)의 「사사육국(四司六局)」조에 '향약국(香藥局)'이 관장하는 약으로 '성주탕약(醒酒湯藥)'이 보인다.
3) '點心'은 『老覽』(하:4앞)에 『철경록(輟耕錄)』(권17)의 기사를 인용하여 "지금의 아침 식사 전후,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식사 전에 가볍게 먹는 것을 '點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속된 말로 작은 만두(饅頭)를 '점심포아(點心包兒)'라고 부른다"라고 기술하였다. 실제로 언해에서 이 부분을 "或是些點心—혹 효근 상화 먹고—"라고 번역하여 '작은 만두'를 먹는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는 '간식'으로

着幾箇幇閑的盤弄着, 先投大酒肆裏坐下, 一二兩酒肉, 喫了時, 酒帶半酣, 引動淫心, 唱的人家[5]裏去. 到那裏, 敎那彈弦子[6]的謊厮[7]們, 捉弄着, 假意兒叫幾聲 "舍人[8]公子" 早開手[9]使錢也. 那錢物只由那幇閑的人支使, 他只粧孤,[10] 正面兒坐着, 做好漢. 那厮們, 將着銀子花使了, 中間剋落了一半兒, 養活他媳婦, 孩兒. 一箇日頭, 比及到晚出來時, 至少使三四兩銀子. 後來使的家私, 漸漸的消乏了. 人口,[11] 頭疋, 家財, 金銀器皿, 都盡賣了, 田産房舍也典儅了. 身上穿的也沒, 口裏喫的也沒, 幇閑的那厮們, 更沒一箇肯偢倸[12]的, 如今跟着官人拿馬, 且得暖衣飽飯.

이해한다.

4) '白煮'는 "다른 향신료를 넣지 않고 맨 물에 삶는 것"을 말한다. 닭의 백숙(白熟)과도 같은 것이다.

5) '唱的人家'는 언해가 '놀애 브르는 사ᄅᆞ믜 지븨'로 되어 있어 "가기(歌妓)가 있는 집, 홍등가(紅灯街)"로 보인다.

6) '弦子'는 악기(樂器)의 이름으로 '삼현자(三弦子)'라고도 불리며 일본의 사미센(三味線)과 같은 악기다. 목이 가늘고 길며 공명을 일으키는 향동(響胴)은 동그랗고 짧다. 세 개의 현(弦)을 켜서 연주하는 월금(月琴)을 닮은 악기이다(『老覽』下:4앞).

7) '謊厮'는 '거짓말쟁이'란 의미로 원곡(元曲) 등에 많이 쓰인다. 『철괴이(鐵拐李)』「잡극(雜劇)」 2절(折)에 보인다. "호객(呼客)꾼, 바람잡이"의 뜻이다.

8) '舍人'은 원래 관직명(官職名)이지만 원대(元代)에는 귀족이나 부자의 자제(子弟)를 부르는 말로도 쓰였다. 조선시대 "나으리" 정도의 호칭으로 보인다.

9) '開手'는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언해에서 이 부분을 '舍人公子 早開手使錢也—샤싄 공ᄌᆞ하 일즈시 손 여러 쳔량 내여 ᄡᅳ쇼셔 ᄒᆞ야든—'과 같이 '손 여러'로 직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다, 일에 착수하다'라는 뜻이다. 즉, 이 부분은 '일찌감치 돈을 내어 쓰기 시작하다'를 말한다.

10) '粧孤'는 『老覽』(下:4앞)에 "질문에 답하기를 벼슬아치 또는 부자인 척하고 가장하거나 뽐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겉으로 대범한 모양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質問云假粧官人也 又云假粧作富貴模様 又云如人好做大模樣)"을 말한다는 내용이 있다. '장고(粧孤)'의 '孤'는 '고로(孤老)'의 준말이며 원대(元代)의 연극 등에서 관리를 가리키는 일종의 은어(隱語)였다. 홍등가(紅灯街)에서 큰 부자인 체하는 말로 이 말이 쓰인 예가 잡극(雜劇), 산곡(散曲) 등에 보인다.

11) '人口'는 "집안의 종, 즉 가복(家僕)"을 말한다. 제90화 주5 참조.

12) '偢倸'는 "상대하다, 취급하다"의 뜻. '瞅睬'로도 쓴다.

(飜老) 제95화 후에 지븨 ᄡᅳᆯ 거시 점점 업서

·밥 머·글 제·는 이·베 머·검·즉 ᄒᆞ·니·로 :골·와 먹·더·라.[13] ·일 아·ᄎᆞ·미 니·러·나 머·리 빗·고 ᄂᆞᆾ 싯고 몬져 술 ᄭᅵ·오·ᄂᆞᆫ ·약 먹·고,[14] 혹 효·근 상화 먹·고,[15] :후·에 ·ᄯᅥᆨ 밍·ᄀᆞᆯ·며 양·슉 :고으·며 ·혹 ᄆᆡᆫ ·므·레 양·의 ᄌᆞᆫ둥·과 훙·ᄉᆞ[16] ᄉᆞᆱ·마[17] 먹·고, ᄆᆞᆯ ·ᄐᆞ·고 ·번·당 ·ᄃᆞ·리·고 여·러 노·ᄅᆞᆺ바치·로 ·ᄒᆞ·놀·이거·든[18] 몬져 ·큰 수울 져·제 ·가 안·자·셔 ᄒᆞᆫ:두 량·앳 술 고·기·를 먹·고, 수울 :반·만 :취·ᄒᆞ·야 가·지·고 음심 내·여 놀·애 브ᄅᆞᄂᆞᆫ :사·ᄅᆞ·믜 지·븨 ·가[19] 뎌·긔 ·가[20] ·뎌 三絃子[21] ·ᄩᅳ·고 :거·ᄌᆞ:말 ·ᄒᆞ·ᄂᆞᆫ ·놈·ᄃᆞᆯ·ᄒᆞᆯ[22] ·ᄒᆞ·야 ·ᄒᆞ놀·이·며·셔 :거·즛 여·러 ·적 브르지·죠·ᄃᆡ[23] ":샤싄 공·ᄌᆞ·하[24] 일즈시 ·손 여·러 :쳔량 내:여 ·ᄡᅳ·쇼·셔" ·ᄒᆞ·야·든 그 :쳔·이 ·뎌 노·ᄅᆞᆺ·ᄒᆞ·ᄂᆞᆫ ·노·ᄆᆡ ᄆᆞᅀᆞᆷ·대·로 ·ᄡᅳ거·든 저·ᄂᆞᆫ :얼운다·이[25] :졍·면 :좌·애 안·자 ·어·딘

---

13) '이·베 머·검·즉 ᄒᆞ·니·로 :골·와 먹·더·라'는 원문 '揀口兒喫'의 직역으로 "입에 맞는 것으로 가려서 먹다"의 뜻. 주1 참조.

14) '술 ᄭᅵ·오·ᄂᆞᆫ ·약'는 원문 '醒酒湯'의 직역임. "술 깨게 하는 약을 먹고"임. '醒酒湯'에 대해서는 주2 참조.

15) '효·근 상화 먹·고'는 원문 '點心'의 풀이로 "작은 만두(饅頭)를 먹고"임. '點心'에 대해서는 주3 참조.

16) '훙·ᄉᆞ'는 원문 '胸子'의 표음. "가슴 살"을 말함. <老諺>에서는 '가슴을'임.

17) 'ᄆᆡᆫ ·므·레 ~ ᄉᆞᆱ·마'는 '白煮'의 풀이로 "양념을 전혀 하지 않은 맨 물에 삶아서"의 뜻. 주4 참조.

18) '·ᄒᆞ·놀·이거·든'은 '·ᄒᆞ·놀·이-(弄) + -거·든(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놀리거든, 조롱하거든"의 뜻.

19) '놀·애 브ᄅᆞᄂᆞᆫ :사·ᄅᆞ·믜 지·븨 ·가'는 원문 '唱的人家裏去'의 직역으로 "가기(歌妓)의 집으로 가서"의 뜻. 주5 참조.

20) '뎌·긔 ·가'는 원문 '到那裏'의 직역으로 "그곳에 도착해서"의 뜻.

21) '三絃子'에 대해서는 주6 참조.

22) ':거·ᄌᆞ:말 ·ᄒᆞ·ᄂᆞᆫ ·놈·ᄃᆞᆯ·ᄒᆞᆯ'은 원문 '謊厮們'의 직역으로 "거짓말하는 놈들을, 바람잡이들을"의 뜻. 주7 참조.

23) ':거·즛 여·러 ·적 브르지·죠·ᄃᆡ'는 "거짓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되"의 뜻.

24) ':샤싄 공·ᄌᆞ·하'는 ':샤싄(舍人) + 공·ᄌᆞ(公子) + -·하(존칭호격)'의 형태구성으로 "나으리 공자님이여"의 뜻.

남신·인 :양·으·로26) ᄒᆞ·고 잇거·든 ·더 ·놈ᄃᆞᆯ·ᄒᆞᆫ 은 가·져·셔 간:대·로 ᄡᅳ·고 듕간·애 :반·이·나 ·ᄀᆞ·려내·여27) 제 :겨·집·과 아·ᄒᆡ 이받ᄂᆞ니 ᄒᆞᆫ 나·래 나죄 도의·도·록 ·나·올 저·긔 다ᄃᆞ·란 ᄀᆞ·장 :져·거·ᅀᅡ ·서·너 량 은·을 ·ᄡᅳ·ᄂᆞ니 :후·에 지·븨 ᄡᅳᆯ ·거·시 :점·졈 :업·서 :사·ᄅᆞᆷ, ᄆᆞ·쇼, 가직, 금은 ·긔·명·을 :다 ·ᄑᆞ·ᄂᆞ외·며28) 던·디·며 집·ᄃᆞᆯ 볼모 ·드·리·니 ·모·매 니·블 것·도 :업·스·며 이·베 머·글 것·도 :업·스·니 노ᄅᆞᆺ·ᄒᆞ·던 그 ·놈·ᄃᆞᆯ·히 노의·여 ᄒᆞ나·토 ·긔·수ᄒᆞ리29) ·업·서 ·이·제 관원 조·차 ᄃᆞᆫ·녀 ᄆᆞ·ᄅᆞᆯ 자·바 아·직 :아·ᄆᆞ려·나 ·옷 :덥·고·져 ·밥 ·비브ᄅᆞ·고·져 ·ᄒᆞ·ᄂᆞ니라.

(老諺) 제95화 후에 집의 ᄡᅳᆯ 거시 점졈 업서

밥 먹글 제ᄂᆞᆫ 입에 먹검즉ᄒᆞᆫ 거슬 ᄀᆞᆯᄒᆞ여30) 먹더라. 일ᄅᆞᆫ 아ᄎᆞᄆᆡ 니러나 머리 빗고 ᄂᆞᆾ 싯고 몬져 술ᄭᆡ오ᄂᆞᆫ 탕을 먹고 혹 효근 상화 먹고 후에 ᄯᅥᆨ ᄆᆡᆼᄀᆞᆯ며 羊肉 고으며 혹 ᄆᆡᆫ믈에 양의 존등과 가슴을 ᄉᆞᆯ마 먹고 안마31) ᄐᆞ고 반당 ᄃᆞ리고 여러 노ᄅᆞᆺ바치로 놀이ᄒᆞ거든32) 몬져 큰 술져제 가 안자셔 ᄒᆞᆫ두 냥엣 술 고기를 먹거 술을 반만 취ᄒᆞ여 가지고 淫心을 내여 놀애 브르ᄂᆞᆫ 사ᄅᆞᆷ의 집의 가 녀긔 가셔33) 더 줄품뉴34) ᄩᅳ고 거즛말 ᄒᆞᄂᆞᆫ 놈들로 ᄒᆞ여 놀이ᄒᆞ며셔 거즛 여러 소의로 브르되 "샤의공지야 일즉기 손 여러 돈35) ᄡᅳ라" ᄒᆞ여든 그 錢物을 더 노ᄅᆞᆺᄒᆞᄂᆞᆫ 놈들의 ᄆᆞᄋᆞᆷ대로 ᄡᅳ게 ᄒᆞ고

25) ':얼운다·이'는 "어른답게, 점잖게"의 뜻.
26) '남신·인 :양·으·로'는 "사내인 것처럼"의 뜻. '남신'은 "남진, 사내"를 말함. '남신·인 :양·으·로 ᄒᆞ·고 잇거·든'은 원문 '做好漢'의 언해임.
27) '·ᄀᆞ·려내·여'는 원문 '剋落了'의 언해로 "깍아내여"의 뜻.
28) '·ᄑᆞ·ᄂᆞ외·며'는 "거듭해서 팔며, 계속해서 팔며"의 뜻.
29) '·긔·수ᄒᆞ리'는 "상종할 사람"을 말함.
30) <飜老>에서는 ':골·와'임.
31) <飜老>에서는 'ᄆᆞᆯ'임.
32) <飜老>에서는 '·ᄒᆞ·놀·이거·든'임.
33) <飜老>에서는 '뎌·긔 ·가'임.
34) <飜老>에서는 '三絃子'임.
35) <飜老>에서는 '쳔량 내:여'임.

저ᄂᆞᆫ 그저 얼운다이 정면으로 안자36) 어딘 남진 톄ᄒᆞ거든37) 더 놈ᄃᆞᆯᄒᆞᆫ 은을 가져서 간대로 ᄡᅳ고 듕간애 반이나 ᄀᆞᆯ여내여 제 겨집과 ᄌᆞ식을 치니38) ᄒᆞᆫ 날애 나조ᄒᆡ 다ᄃᆞ라 나오매 미치ᄂᆞᆫ39) ᄀᆞ장 져거야 서너 량 은을 ᄡᅳᄂᆞ니 후에 집의 ᄡᅳᆯ 거시 점졈 업서 사ᄅᆞᆷ, 마쇼, 가직, 금은 긔명을 다 ᄑᆞᆯ며40) 던디며 집을 볼모 드리니 몸애 니블 것도 업ᄉᆞ며 입에 먹을 것도 업ᄉᆞ니 노ᄅᆞᆺᄒᆞ던 그놈들히 노의여 ᄒᆞ나토 긔수ᄒᆞ리 업서 이제ᄂᆞᆫ 관원을 조차 ᄃᆞᆫ녀 ᄆᆞᆯ을 잡아 아직 아므려나 옷 덥고 밥 비브르고져 ᄒᆞᄂᆞ니라.

(現代譯) 제95화 나중에는 집에 쓸 것이 점점 없어져

밥을 먹는 것도 입에 맞는 것으로 가려서 먹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은 후에 먼저 술을 깨기 위하여 해장국(醒酒湯)을 먹거나, 혹은 간식을 조금 먹는다. 그 다음에 밀가루로 떡(餠)을 만들고 양고기를 고아 먹거나 또는 양의 등심과 안심을 맨 물에 삶아서 먹는다. 다음에 말을 타고, 친구들 데리고 여러 왈짜들에게 부추김을 당하여 먼저 큰 술 시장에 가서 앉아서 한두 냥의 술과 고기를 먹는다. 반쯤 취하여 음심(淫心)을 내어 홍등가(紅燈街)로 들어간다. 거기에 가면 삼현금을 타고 바람잡이들에게 희롱 당하며 아첨으로 계속해서 "나으리 공자님이시여! 일찍이 개시하시고 돈을 내어 쓰십시오"하거든 그 돈은 저 왈짜들의 마음대로 쓰는데 본인은 점잖게 정면의 자리에 앉아 좋은 사내인 척 하고 있거든 그 놈들은 은자를 가져가서 멋대로 쓰고 중간에 반을 챙겨 내어 제 놈의 마누라와 아이를 양육하기도 한다. 하루에 저녁이 되어서 나올 적에 이르면 적어야 서너 냥 은자를 쓰니 나중에는 집에 쓸 것이 점점 없어져

36) <飜老>에서는 ':졍·면 :좌·애 안·자'임.
37) <飜老>에서는 '남신·인 :양·으·로 ᄒᆞ·고 잇거·든'임.
38) <飜老>에서는 '이받ᄂᆞ니'임.
39) <飜老>에서는 '다ᄃᆞ·란'임.
40) <飜老>에서는 '·ᄑᆞ·ᄂᆞ외·며'임.

서 종이나 가축, 가구, 금은의 식기까지 계속 팔고 논과 밭, 저택도 저당잡힌다. 몸에 입을 것도 없고 입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그 왈짜패 놈들은 다시는 한 놈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와서는 관원을 따라다니며 말을 잡아 마부가 되어 겨우 아무렇게나 옷을 덥고 밥을 배불리 먹고자 하는 것이다.

6. 귀국을 향하여

이 장은 중국인 왕씨가 탁주(涿州)로 장사하러 떠나고 그 사이에 고려인들은 가져온 물품 중에 아직 처분을 하지 못한 인삼과 모시, 베를 팔면서 돌아갈 때에 가져갈 물품을 고른다. 마침 그때 탁주(涿州)에서 돌아온 왕씨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팔 물건을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인 친구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原文 제96화 涿州賣去

[漢] 我買這貨物,[1] 要涿州賣去. 這幾日爲請親眷筵席, 又爲病疾耽閣, 不曾去的. 我如今去也. 火伴, 你落後好坐的着. 我到那裏, 賣了貨物便來.

[高] 你好去着. 我賣了這人蔘, 毛施布時, 不揀幾日, 好歹等你來. 咱商量買迴去的貨物. 你是必 早來.

飜老 제96화 涿州로 풀라 가다

[漢] ·내 ·이 ·황·호[2]·앳 것·돌 ·사 涿州·로[3] ·풀·라 :가·려 ·ᄒᆞ다·니 요조·솜 아·숨 ·청ᄒᆞ·야 이바·디·ᄒᆞ·노·라 ᄒᆞ·며 ·ᄯᅩ :병·오·로 머·므·러 가·디 :몯ᄒᆞ·얏다·니 :내 ·이·제 ·가·노·라. 동·뫼·야[4]! 너·는 ·ᄢᅥ·디·여셔 됴·히

1) '貨物'은 "여러 가지 상품"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71~79화에서 중국인이 샀던 양(羊), 비단 등을 말한다.
2) '·황·호'는 "한어 황화(荒貨)의 차용어, 화물(貨物)"을 말함.
3) '涿州·로'의 '涿州'에 대하여는 제70화 주1 참조.
4) '동·뫼·야'는 원문 '火伴'의 풀이로 "친구야, 동무야"의 뜻.

안잣거라5). ·내 뎌·긔 ·가 ·황·호 ·풀·오 ·즉·재 :오·마.

[高] :네 :됴·히 ·니·거·라. ·내 ·이 싄숨 모시·뵈 ·풀·면 :아·모 ·나·리라 :업·시 모·로·매 너·를 기·들·워·사 ·우·리 도·라 갈 황·호 사·기·를 :의·론:호·리·니, :네 모·로·매 일즈시6) ·오·나·라.

老諺 제96화 涿州로 풀라 가다

[漢] 내 이 황호엣 것들 사 涿州로 풀라 가려 ᄒ더니 요즈음7) 권당8) 청ᄒ여 이바디ᄒ며 ᄯ 병으로 머믈어 가디 못ᄒ엿더니 내 이제 가노라. 벗아9)! 너는 뻐뎌 됴히 안자시라. 내 뎌긔가 황호 풀고 즉시 오마.

[高] 네 됴히 가라.10) 내 이 人蔘과 모시뵈 풀면 아므 날이라 업시 모로매 너를 기ᄃ려셔 우리 도라갈 貨物11) 사기를 의논ᄒ리니 네 모로미 일12) 오라.13)

現代譯 제96화 이제 涿州로

[중국인] 나는 이 상품들을 사서, 탁주(涿州)로 팔러 가려고 했는데, 요즘 친척을 초청하여 연회를 하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머물러 가지 못하였더니 이제 가겠소.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뒤에 남아서 잘들 있으시오. 나도 저쪽에 갔다가 상품을 팔고 바로 돌아오리다.

[고려인] 당신 잘 가시오. 나는 이 인삼과 모시 베를 팔면 아무 날이나 상

5) '됴·히 안잣거라'는 원문 '好坐的'의 직역으로 "잘 쉬고 있어라"의 뜻.
6) '일즈시'는 '일즛(早) + -이(부사형)'의 형태구성으로 "일찍이"의 뜻.
7) <飜老>에서는 '요조·솜'임.
8) <飜老>에서는 '아·솜'임.
9) <飜老>에서는 '동·뫼·야'임.
10) <飜老>에서는 '·니·거·라'임.
11) <飜老>에서는 '황·호'임.
12) <飜老>에서는 '일즈시'임.
13) <飜老>에서는 '·오·나 ·라'임.

관없이 당신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돌아갈 때에 가져갈 상품 사기를 의논하고 싶으니 당신은 꼭 일찍 오시오.

原文 제97화 賣人蔘

—店主人家, 引着幾箇鋪家1)來, 商量人蔘價錢2)—

[客] 這蔘是好麽? 將些樣蔘來我看.

[高] 這蔘是新羅蔘.3)

[客] 4)也着中.

[高] 你說甚麽話? 這蔘絶高, 怎麽做着中的看?

—牙家說—

[牙] 你兩家不須折辨5)高低.6) 如今時價五錢一斤, 有甚麽商量?

[客] 你這蔘多少斤重?

[高] 我這蔘一百一十斤, 你稱如何?

1) '鋪家'는 객인(客人-가게를 갖고 있지 않은 상인, 즉 행상인)에 대하여 "점포(店鋪)를 갖고 있는 상인(商人)"을 말한다.
2) 원래 이 부분은 장면을 설정하는 내용이었으나 <飜老>에서는 이 부분도 대화의 장면으로 상정하고 "店主人家○뎜쥬싄하 /引着幾箇鋪家來 ○전 사롬 여러흘 ᄃ려 오라 /商量人蔘価錢 ○싄숨쌉 의론ᄒ져"로 풀이하였다. 번역자의 한어(漢語) 실력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3) '新羅蔘'은 "고려인삼의 일종"이다. 고려인삼과 신라삼에 대하여는 제56화 주2를 참조한다.
4) <飜老>에서는 '這蔘是新羅蔘也 ○·이 심·은 新羅ㅅ 심·이·라 着中 ○듕:품·이·로·다'와 같이 원문을 띄어 썼으나 이것은 '這蔘是新羅蔘, 也着中'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역시 번역자의 한어(漢語)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5) '折辨'의 '辨'은 '辯'이라고 써야 올바른 것이지만, 통용된다. "말다툼하다, 또는 변명(辨明)하다"의 뜻을 갖는데 여기서는 '말다툼하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高低'는 "좋고 나쁨"의 뜻이다. 『동서상(董西廂)』(권1) 「풍취하엽(風吹荷葉)」에 "好弱高低且按捺—좋고 나쁨은 일단 놔두고—"라는 예가 있다.

[客] 我的是官稱, 放着[7]印子[8]裏, 誰敢使私稱[9]?

[高] 這價錢一定也. 我只要上等官銀, 見要銀子, 不賒.

[客] 怎那般說? 銀子與你好的, 買貨物的, 那裏便與見銀? 須要限幾日.

[牙] 你兩家休爭. 限十箇日頭, 還足價錢.

[高] 這般時, 依着牙家話.

[客] 這蔘稱了, 只有一百斤. 你說一百一十斤, 那一十斤, 却在那裏?

[高] 我家裏稱了一百一十斤. 你這稱大, 因此上, 折了十斤.

[客] 那裏稱大? 這蔘你來時節有些濕, 如今乾了, 因此上, 折了這十斤.

[牙] 這蔘做了五分兒分了, 一箇人二十斤家, 每一斤五錢, 二十斤該十兩, 通計五十兩.

(飜 老) 제97화 싄숨쌉 의론ᄒᆞ져

—:뎜·쥬싄·하! :젼 ·사·롬[10] 여·러·흘 ᄃᆞ·려 ·오·라. 싄숨·쌉 :의·론

7) '放着'은 <原老>에서는 '放著'이었는데 "제대로 있다"는 뜻이다. 원대(元代)의 잡극(雜劇) 등에서는 '現放著'로 나타난다. <原老>의 '著'는 <飜老>에서는 일률적으로 '着'으로 바뀌었다.

8) '印子'는 "저울에 찍힌 관아의 공인(公認)을 표시하는 인장(印章)"을 말한다. 『원전장(元典章)』「형부(刑部)」(권19) '잡금(雜禁)'의 '곡두칭척아인(斛斗秤尺牙人)' 조에 "민간의 저울 등이 법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제(官製)의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교감균평(較勘均平)하여 일체(一體)에 인낙(印烙)을 정리(釘裏)하여, 본가(本價)를 정립(定立)함"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의 '印烙'이 바로 이 '印子'에 해당될 것이다. 원대(元代)의 동추(銅權-저울의 分銅)의 출토품은 다수 알려져 있으며, 『중국고대도량형도집(中國古代度量衡圖集)』에도 두 예가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 내몽고에서 출토된 것에는 한자로 '元貞 元年 大都路造', '三十五斤秤'라는 제조 연대와 제조지, 그리고 저울의 크기를 새겨놓았고, 파스파 문자로 '斤半錘', 위구르, 몽골, 페르시아 文字로 각각 '三十五斤秤', '斤半錘'라고 음각(陰刻)되어 있다. 원정(元貞) 원년(元年)은 서기 1295년이며 이 분동(分銅)에 의하면 한 근(斤)은 585.5그램으로 환산된다.

9) '私稱'은 <原老>에서는 '私秤'이었다. '私秤'은 "민간인이 제멋대로 만든 저울"을 말한다. 『원전장(元典章)』「형부(刑部)」(권19) '잡금(雜禁)'의 '금사곡두칭척(禁私斛斗秤尺)'에 사평(私枰)의 제조를 금지하는 금령(禁令)이 보인다.

10) ':젼 ·사·롬'은 원문 '鋪家'를 풀이한 것으로 "점(店) 사람, 점포(店鋪)가 있는 상

ᄒᆞ:져.[11]—

[客] ·이 [12]심·이 :됴·ᄒᆞ·냐? 본 볼[13] 심 가·져 ·오·라. ·내 ·보·와지·라.

[高] ·이 심·은 新羅ㅅ 심·이·라.

[客] 듕:품·이·로·다.

[高] :네 므·슴 :마·를 니ᄅᆞᄂᆞᆫ·다? ·이 심·이 ᄀᆞ·장 :됴·ᄒᆞ·니 :엇·디 듕·품·오·로 ·보·ᄂᆞᆫ·다?

—:야·지 닐·오·디—

[牙] 너희 :둘·히 ·굿 구·틔·여 :됴·홈 구·좀 분·간·ᄒᆞ·거·라 :말·라. ·이·제 시·개[14] 닷 ·도·내 ᄒᆞᆫ 근·시·기·니 므·슴 :혜·아·료·미 이시·리·오?

[客] 네 ·이 심·이 ·멋 ·근 므·긔[15]·오?

[高] 내 ·이 심·이 일·빅 ·열 근·이·라. 네 저·우·리 :엇·더ᄒᆞ·뇨?

[客] 내 ·해 구윗저·우리·라.[16] ·인 ·텻ᄂᆞ니[17] ·뉘 아·롬[18] 저·울 ·브·리·료?

[高] ·이·갑·시 ·일·뎡커·다. ·내 :샹·둥·엣 :됴·ᄒᆞᆫ 은·을 바·도·딕 앏·픠·셔 ·즉·재 은·을 ·받고 드·리오·[19]디 아·니 ·호·리·라.

[客] ·엇·디 그·리 니ᄅᆞᄂᆞ·뇨? 은·은 너·를 :됴·ᄒᆞ·니 :주·마커·니·와 ·황·호 살 :사·ᄅᆞ·미 어듸·가 앏·픠·셔 ·즉·재 은·을 :다 주·리·오? 모·로·매 여·러·날 그·슴ᄒᆞ·져.[20]

인(商人)"을 말함.

11) ':의·론ᄒᆞ:져'는 원문 '商量'을 풀이한 것이다. "상담하자, (값을) 흥정하자"의 뜻.

12) '심'은 "인삼(人蔘)"을 말함.

13) '본 볼'은 "견본(見本)"을 말함.

14) '시·개'는 '시가(時價) + -·ㅣ(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시가(時價)가"의 뜻.

15) '므·긔'는 "무게[重]"임.

16) '구윗저·우리·라'는 '구위[官廳] + -ㅅ(사이 ㅅ) +저·울[秤] + -이(서술격조사) + -라(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관아에서 인정한 저울"을 말함.

17) '·인 ·텻ᄂᆞ니'는 '·인(印) + ·티-[押] -어(연결어미) + ㅅ-(在) + -ᄂᆞ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관인을 찍었으니"의 뜻.

18) '아·롬'은 "개인(個人), 사적(私的)인"의 뜻.

19) '드·리오·디'는 원문 '賒'의 풀이로 "외상으로 하지, 나중에 받지"의 뜻.

20) '그·슴ᄒᆞ·져'의 '그·슴ᄒᆞ-'는 "기한하다, 날짜를 정하다"의 뜻.

[牙] 너희 :둘·히 싯·구·디[21] :말·오 열·흘·만 그·슴·ᄒᆞ·야·셔 ·갑·술 ·ᄎᆞ·게 가·폴 거·시·라.

[高] ·이·러커·든 ·야·ᄌᆞ[22]·의 :마·를 조·차 ᄒᆞ·져.

[客] ·이 심·을 ᄃᆞ라[23] ᄒᆞ·니 :다·ᄆᆞᆫ ·일·빅 ·근이로·다. :네 닐·오·ᄃᆡ ·일·빅 ·열 근·이·라 ·ᄒᆞ더·니 그 ·열 근·은 :긔[24] 어·ᄃᆡ 잇ᄂᆞ·뇨?

[高] 내 지·븨·셔 ᄃᆞ·니 ·일·빅 ·열 근·이러·니, 네 ·이 저·우·리 ·크·니 ·이·런 젼·ᄎᆞ·로 ·열 근·이 ·ᄭᅩ도·다.[25]

[客] 어·듸 저·우·리 ·클·고? ·이 심·이 네 올 저·긔 저·저 잇다·가 ·이·제 ᄆᆞᄅᆞ·니 ·이:런 젼·ᄎᆞ·로 ·이 ·열 근·이 ·ᄭᅩ도·다.

[高] ·이 심·을 다·ᄉᆞᆺ 모·긔[26] ᄂᆞᆫ·호·와[27] ᄒᆞ나·히 ·스·므 근·식 ·ᄒᆞ·야 :ᄆᆡ ᄒᆞᆫ 근·에 닷 :돈·식 ᄒᆞ·고 ·스·믈 근·에 ·열 량·식 ᄒᆞ·면 :대·되 :혜·니 :쉰 량·이로다.

老諺 제97화 人蔘 갑슬 의논ᄒᆞ쟈

—뎜 쥬인아! 여러 젼 사ᄅᆞᆷ을 ᄃᆞ려 오라. 人蔘 갑슬[28] 의논ᄒᆞ쟈—

[客] 이 심이 됴ᄒᆞ냐? 본 볼 심 가져오라. 내 보쟈.[29]

[高] 이 심은 新羅ㅅ 심이라.

[客] 듕품이로다.

[高] 네 므슴 말을 니ᄅᆞᄂᆞᆫ다? 이 심이 ᄀᆞ장 됴ᄒᆞ니 엇디 듕품으로 보ᄂᆞᆫ다?

21) '싯·구·디'는 "시끄럽게"의 뜻.
22) '·야·ᄌᆞ'는 "아자(牙子), 중개인, 거간꾼"을 말함.
23) 'ᄃᆞ라'는 "달아, 측량(測量)하여"의 뜻.
24) ':긔'는 "그것이"의 뜻.
25) '·ᄭᅩ도·다'는 "줄었구나, 깎였구나"의 뜻.
26) '모·긔'는 "몫에"의 뜻.
27) 'ᄂᆞᆫ·호·와'는 'ᄂᆞᆫ·호-(分) + -·와(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나누어"의 뜻.
28) <飜老>에서는 'ᅀᅵᆫ숨·ᄡᅡᆸ'임.
29) <飜老>에서는 '·보·와지·라'임.

—즈름이[30] 닐오되—

[牙] 너희 둘히 구틔여 됴홈 구즘을 분변티 말라.[31] 이제 시개 닷 돈에 ᄒᆞᆫ 근식이니 므슴 혜아림이 이시리오?

[客] 네 이 蔘이 몃 근 므긔고?

[高] 내 이 蔘이 일빅 열 근이라. 네 저울이 엇더ᄒᆞ뇨?

[客] 내하는 구윗 저울이라. 인 텻ᄂᆞ니 뉘 감히 아름 저울 ᄡᅳ리오[32]?

[高] 이 갑시 일뎡커다. 내 샹등엣 됴흔 은올 바드되 앏피셔 즉제 은을 밧고 드리오디 아니호리라.

[客] 엇디 그리 니ᄅᆞᄂᆞ뇨? 은은 너를 됴ᄒᆞᆫ 이를 주려니와 황호 사ᄂᆞᆫ 이[33] 어듸 앏피셔 즉제 은을 주리오? 모로미 여러날 그음ᄒᆞ쟈.

[牙] 너희들히 싯구디 말고 열흘만 그음ᄒᆞ야 갑술 ᄎᆞ게 가폴 써시라.

[高] 이러면[34] 즈름의 말대로 ᄒᆞ쟈.

[客] 이 심을 ᄃᆞ니[35] 다만 일빅 근이로다. 네 닐오ᄃᆡ 일빅 열 근이라 ᄒᆞ더니 더 열 근은 ᄯᅩ 어ᄃᆡ 잇ᄂᆞ뇨?

[高] 내 집의셔 ᄃᆞ니 일빅 열 근이러니 네 이 저울이 세니[36] 이런 젼ᄎᆞ로 열 근이 ᄭᅩ도다.

[客] 어듸 저울이 세리오? 이 심이 네 올 제 져기 저젓다가 이제 ᄆᆞᆯ라시니 이런 젼ᄎᆞ로 이 열 ᄯᅩ이[37] ᄭᅩ도다.

[高] 이 심을 다ᄉᆞᆺ 은에[38] ᄂᆞᆫ화[39] ᄒᆞ나히 스므 근식 ᄒᆞ야 ᄆᆡ ᄒᆞᆫ 근에 닷

30) <飜老>에서는 ':야·ᄌᆞ'임.
31) <飜老>에서는 '분·간·ᄒᆞ·거·라 :말·라'임.
32) <飜老>에서는 '·ᄡᅳ·리·료'임.
33) <飜老>에서는 '살 :사·ᄅᆞ·미'임.
34) <飜老>에서는 '·이·러커·든'임.
35) <飜老>에서는 'ᄃᆞ라 ᄒᆞ·니'임.
36) <飜老>에서는 '·크·니'임.
37) 'ᄯᅩ이'는 'ᄭᅳᆫ이'의 탈획으로 보임.
38) <飜老>에서는 '모·긔'임.
39) <飜老>에서는 'ᄂᆞᆫ·호·와'임.

돈식 ᄒᆞ면 스므 근에[40] 열 량이니 대되 혜니 쉰 냥이로다.

現代譯 제97화 인삼을 흥정하다

—여관 주인이 몇 사람의 상인(商人)을 데리고 인삼의 값을 매긴다—

[삼장수] 이 인삼은 좋은가? 본 볼 삼을 가져오시오. 내 보리다.

[고려인] 이 인삼은 신라삼(新羅蔘)이외다.

[삼장수] 중품(中品)이군요.

[고려인] 당신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 인삼은 제일 좋은 것인데 어찌 중품으로 보십니까?

—중개인이 말한다—

[중개인] 당신들 두 분이 구태여 억지로 좋고 나쁨을 분간하려고 마시오, 지금의 시가(時價)로는 다섯 돈에 한 근씩이니 무엇을 헤아릴 것이 있겠어요?

[삼장수] 당신의 이 인삼들은 몇 근이오?

[고려인] 내 이 인삼들은 백열 근(斤)입니다. 당신의 저울은 어떻소?

[삼장수] 내 것은 관청의 저울이오. 관아의 공인(公印)이 찍혀 있소이다. 누가 사사로운 저울을 쓰겠소?

[고려인] 이 값은 이미 정해졌소. 나는 상등(上等)의 좋은 은자를 받되 앞에서 즉시 은자를 받을 것이고 외상은 안 됩니다.

[삼장수]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은자는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만 상품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앞에서 즉시 은자를 모두 주나요? 반드시 며칠을 기한합시다.

[중개인] 당신들 둘 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오. 열흘만을 기한하고 값을 모두 지불할 것이오.

40) <飜老>에서는 '·스·믈 근·에'임.

[고려인] 그렇다면 중개인의 말을 좇읍시다.

[삼장수] 이 인삼을 달아보니 다만 일백 근이군요. 당신이 말하기를 백열 근이라고 하더니 그 열 근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려인] 내가 집에서 달았을 때에는 백열 근이더니 당신의 저울이 세니까 그런 이유로 열 근이 줄었나 봅니다.

[삼장수] 어디 이 저울이 센 것입니까? 이 인삼들은 당신이 올 때에는 젖어 있다가 지금은 말라서 그런 이유로 열 근이 준 것이오.

[중개인] 이 인삼을 다섯 몫으로 나누어서 하나에 스무 근씩 하여 매 한 근에 다섯 돈씩 하면 스무 근에 열 냥씩이니까 모두 헤아리면 쉰 냥이오.

原文 제98화 賣毛施布

—又店主人家, 引將幾箇買毛施布的客人來—

[客] 你這毛施布, 細的價錢, 麤的價錢, 要多少?

[高] 細的上等好布, 要一兩二錢. 麤的要八錢.

[客] 這黃布, 好的多少價錢? 低的多少價錢賣?

[高] 這一等好的一兩. 這一等較低些的七錢家.

[客] 你休胡討價錢, 這布如今見有時價. 我買時, 不是買自穿的, 一發買將去, 要覓些利錢. 我依着如今的價錢, 還你. 這毛施布高的一兩, 低的六錢. 這黃布高的九錢, 低的五錢. 我不 賺你的, 一頓兒還你好銀子.

—牙家說—

[牙] 他們還的價錢是着實的. 你客人們, 遼東新來, 不理會得這着實的價錢. 你休疑惑, 成交了 罷.

[高] 這們時, 價錢依着你. 銀子依的我時, 成交, 依不得我時, 我不賣.

[高] 我這低銀子都不要. 你只饋我一樣的好銀子.

[客] 似你這般都要官銀時, 虧着我.
[高] 待虧你多少? 肯時成交, 不肯時你別處買去.
[客] 這們時, 與你這好銀子買.

飜老 제98화 모시뵈 살 나ᄀᆞ내 혀오라

—ᄯᅩ 뎜 쥬ᅀᅵᆫ하 여러 모시뵈 살 나ᄀᆞ내 혀오라[1]—[2]

[客] 네 ·이 모시·뵈 ·ᄀᆞ·ᄂᆞ·니·옛[3] ·갑·과 :굴·그·니·옛 ·갑:슬 :언·머·옴 받·고·져 ·ᄒᆞ는·다?

[高] ·ᄀᆞ·ᄂᆞᆫ :샹·둥·엣 :됴·ᄒᆞᆫ :뵈·ᄂᆞᆫ ᄒᆞᆫ 량 :두 ·돈 받·고, :굴·그·니·ᄂᆞᆫ 여·듧 :돈 받·고·져 ·ᄒᆞ노·라.

[客] ·이 가·ᄆᆞᆫ ·뵈·예[4] :됴·ᄒᆞ·니·ᄂᆞᆫ ·갑·시 :언·메·며, 사·오나·오·니·ᄂᆞᆫ ·갑:슬 :언·머·예 ·풀·다?

[高] ·이 ᄒᆞᆫ :둥·엣 :됴·ᄒᆞ·니·ᄂᆞᆫ ᄒᆞᆫ 량·이·오, ·이 ᄒᆞᆫ :둥엣 :져·기 ᄂᆞᄌᆞᆨ ᄒᆞ·니·ᄂᆞᆫ[5] :닐·곱 ·돈·식·이·라.

[客] :네 간:대·로 값 ᄭᅬ·오·디[6] :마·라. ·이 ·뵈 ·이·제 번·드·기 시·개[7] 잇 ᄂᆞ·니, ·내 사·도 ·사,[8] ·내 니·블 거·시 아·니·라 ᄒᆞᆷ·ᄭᅴ ·사 가·져 ·가, 리:쳔[9] 얻·고·져 ·ᄒᆞ노·라. ·내 ·이·젯 ·갑·소·로 조·차 너·를 :주리·라.

---

1) '혀오라'는 "끌어 오라"의 뜻.
2) 이것도 장면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고려인의 대화로 보았다. 원래의 의미는 "여관 주인이 다시 모시와 베를 사려는 상인(商人)을 몇 명 데려오다"의 뜻임.
3) '·ᄀᆞ·ᄂᆞ·니·옛'은 '·ᄀᆞ·ᄂᆞᆯ-(細) + -ㄴ(관형사형) + -·이(형식명사) + -·예(처격) + -ㅅ(사이 ㅅ)'의 형태구성이고 "가는 것에의"의 뜻.
4) '가·ᄆᆞᆫ ·뵈·예'는 원문 '黃布'의 풀이나 "검은 베에"의 뜻으로 보통 베보다 "색깔이 진한 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ᄆᆞᆫ ·뵈'가 '·ᄀᆞ·난 ·뵈'라는 해석이 있지만 성조도 다르고 납득하기 어렵다.
5) 'ᄂᆞᄌᆞᆨᄒᆞ·니·ᄂᆞᆫ'은 원문 '低的'을 직역한 것으로 "낮은 것은, 나직한 것은"의 뜻.
6) 'ᄭᅬ·오·디'는 "부르지, 호가(呼價)하지"의 뜻.
7) '시·개'는 '시가(時價) + ㅣ(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시가(時價)가"의 뜻.
8) '·내 사·도 ·사'는 "내가 사지만은 사서 (입을 것이 아니라)"의 뜻.
9) '리:쳔'은 "이전(利錢), 이익(利益)"을 말함.

이 모시·뵈 :됴·ᄒᆞ·니·ᄂᆞᆫ ᄒᆞᆫ 량·이·오 ᄂᆞᄌᆞᆨᄒᆞ·니·ᄂᆞᆫ 엿 :돈 ·이·오, ·이 황·뵈[10] ·됴·ᄒᆞ·니·ᄂᆞᆫ 아홉 :돈·이·오, ·ᄂᆞᄌᆞᆨᄒᆞ·니:ᄂᆞᆫ 닷 :돈·식 ·ᄒᆞ·야, ·내 네 것 드·리우·디 아니·코 ᄒᆞᆷ·ᄢᅴ 너·를 :됴·ᄒᆞᆫ 은 :주·리·라.

—·야지 닐·오·디—

[牙] ·더·의 :주·려 ·ᄒᆞ·ᄂᆞᆫ ·갑·시 ·올·ᄒᆞ·니, 너 나·그·내·돌·ᄒᆞᆫ 료동·으·로·셔 ·처·ᅀᅥᆷ 오·니 ·이 바ᄅᆞᆫ[11] ·갑·ᄉ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 :네 의심 :말·오 홍졍 ᄆᆞ·초·미 므던ᄒᆞ·다.

[高] ·이·러ᄒᆞ면 ·갑·ᄉᆞ·란 너 조·초·려니·와, 은·으·란 내 :말 드·러 ᄒᆞ·면 홍졍 ᄆᆞᆺ·고,[12] 내 :말 좃·디 :몯·ᄒᆞᆯ ·쟈·기·면 ·내 아·니 ·ᄑᆞ로리·라.

[高] ·내 ·이 사·오나·온 은·으·란 :다 :마·다. ·네 :나를 ᄒᆞᆫ가·짓 :됴·ᄒᆞᆫ 은·을 :다·고·려.

[客] :네 ·이·러ᄐᆞ·시 :다 구의나·깃 은·으로 바·ᄃᆞ·면 내게 :셜·웨·라.[13]

[高] 네게 :언·매·나 :셜·우리·오? ·즐·기거·든 홍·졍 ᄆᆞᆺ·고 ·슬:커:든 :네 다ᄅᆞᆫ ·ᄃᆡ 사·라 가·라.

[客] ·이·러·ᄒᆞ·면 너·를 ·이 :됴·ᄒᆞᆫ 은·을 주·고 사·려니·와.

老諺 졔98화 모시뵈 살 나그내 켜오라

—ᄯᅩ 뎜 쥬인아 여러 모시뵈 살 나그내 켜오라.—

[客] 네 이 모시뵈 ᄀᆞ는 이엣 갑과 굴근 이엣 갑슬 언멋식[14] 밧고져 ᄒᆞᄂᆞᆫ 다?

---

10) '황·뵈'는 '황·보(黃布) + ㅣ'의 형태구성으로 "황포(黃布)가"의 뜻.
11) '바ᄅᆞᆫ'은 원문 '着實'의 언해로 "실재의, 바른"의 뜻.
12) 'ᄆᆞᆺ·고'는 'ᄆᆞᆾ·고'의 8종성 받침 규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마치고"의 뜻.
13) ':셜·웨·라'는 ':셜·우-[虧] + -에·라(감탄형 종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손해 본다"의 뜻.
14) <飜老>에서는 ':언·머·옴'임.

[高] ᄀᆞᄂᆞᆫ 上等엣 됴흔 뵈ᄂᆞᆫ ᄒᆞᆫ 냥 두 돈 밧고, 굴근 이ᄂᆞᆫ 여듧 돈 밧고져 ᄒᆞ노라.

[客] 이 가믄 뵈예 됴ᄒᆞ니ᄂᆞᆫ 갑시 언메며 사오나온 이ᄂᆞᆫ 언머 ᄡᅡᆸ세15) ᄑᆞᆯ다?

[高] 이 ᄒᆞᆫ 등엣 됴ᄒᆞᆫ 이ᄂᆞᆫ ᄒᆞᆫ 냥이오, 이 ᄒᆞᆫ 등엣 져기 ᄂᆞ즉ᄒᆞᆫ 이ᄂᆞᆫ16) 닐곱 돈식이라.

[客] 네 간대로 갑 ᄭᅩ오디 말라. 이 뵈 이제 번ᄃᆞ시 時價ㅣ 이시니, 내 사면 이 내 니블 ᄶᅥ시 아니라, ᄒᆞᆷᄢᅴ 사 가져가 리쳔을 엇고져 ᄒᆞ노라. 내 이젯 갑스로조차 너를 주리라. 이 모시뵈 됴ᄒᆞᆫ 이ᄂᆞᆫ ᄒᆞᆫ 냥이오, ᄂᆞ즌 이ᄂᆞᆫ 엿 돈이오, 이 가믄 뵈17) 됴ᄒᆞᆫ 이ᄂᆞᆫ 아홉 돈이오, ᄂᆞ즌 이ᄂᆞᆫ 닷 돈식 ᄒᆞ야, 내 네것 드리오디 아니코 ᄒᆞᆷᄢᅴ 너를 됴흔 은을 주리라.

—즈름이18) 니ᄅᆞ되—

[牙] 뎌의 주려 ᄒᆞᄂᆞᆫ 갑시 올ᄒᆞ니, 너 나그내들흔 료동으로셔 새로 와시니19) 이 바ᄅᆞᆫ 갑슬 아디 못ᄒᆞᄂᆞ니 네 의심 말고 흥졍 ᄆᆞᆺ춤이 무던ᄒᆞ다.

[高] 이러면 갑ᄉᆞᆫ란 너를 조ᄎᆞ려니와, 은으란 내 말대로 ᄒᆞ면 흥졍을 ᄆᆞᆺ고, 내 말대로 아니면 내 ᄑᆞᆯ디 아니리라.

[高] 내 이 사오나온 은으란 다 마다. 네 나ᄅᆞᆯ ᄒᆞᆫ 가지 됴ᄒᆞᆫ 은을 주고려

[客] 네 이러트시 다 구읫나기 은으로 바드면 내게 셜웨라.

[高] 네게 언머나 셜오뇨20)? 즐기거든 흥졍을 ᄒᆞ고21) 슬커든 네 다ᄅᆞᆫ ᄃᆡ 사라 가라.

[客] 이러면 너ᄅᆞᆯ 됴ᄒᆞᆫ 은을 주고 사리라.

---

15) <飜老>에서는 ‘·갑:슬 :언·머·예’임.
16) <飜老>에서는 ‘ᄂᆞᆽᄒᆞ·니·ᄂᆞᆫ’임.
17) <飜老>에서는 ‘황·뵈’임.
18) <飜老>에서는 ‘·야지’임.
19) <飜老>에서는 ‘·처·ᅀᅥᆷ 오·니’임.
20) <飜老>에서는 ‘:셜·우리·오’임.
21) <飜老>에서는 ‘흥·졍 ᄆᆞᆺ·고’임.

現代譯 제98화 모시 베를 살 손님 데려오라

—여관 주인이 다시 모시와 베를 사려는 상인(商人)을 몇 명 데려오다—

[베장수] 당신의 이 촘촘한 모시 베의 값과 성긴 것의 값을 얼마씩 받으려고 합니까?

[고려인] 촘촘한 상등(上等)의 베는 한 냥 두 돈을 받고 성긴 것은 여덟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베장수] 이 황포(黃布)는 좋은 것이 값이 얼마이고 나쁜 것은 값을 얼마면 팔겠소?

[고려인] 이 좋은 등급의 것은 한 냥이고 이 조금 나쁜 등급의 것은 일곱 돈씩입니다.

[베장수] 당신, 엉터리 같은 값을 부르지 마시오. 이 베들은 지금 번듯이 시가(時價)가 있단 말이오. 내가 사도 사서 옷을 해 입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사 가져가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릇이오. 이 모시 베 좋은 것은 한 냥, 이 황포(黃布)도 좋은 것은 아홉 돈이고 낮은 것은 다섯 돈씩 해서 이 값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대신) 당신에게 외상으로 하지 않고 한번에 좋은 은자로 주겠소.

—중개인이 말한다—

[중개인] 이 사람들이 주겠다는 값이 제값입니다. 당신네 나그네들은 요동(遼東)에서 처음 왔으니 이 바른 값을 알지 못하니 당신들은 의심하지 말고 홍정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高] 그렇다면 값은 당신들 쫓겠으나 은자는 내 말을 들어주어야 홍정을 마칠 수 있고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내가 팔지 않겠소.

—물품 대금을 받았다—

[고려인] 나는 이 나쁜 은자들은 모두 싫소. 당신들 나에게 좋은 은자 한 가지만 주시오.

[베장수] 당신이 이렇게 모두 관청 은자로만 받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오.

[고려인] 당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소? 마음에 들면 거래를 마치고 싫으면 당신은 딴 데 사러 가시오.

[베장수]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좋은 은자를 주고 사겠소.

原文 제99화 長短不等

[客] 你這布裏頭, 長短不等. 有勾五十尺的, 也有四十尺的, 也有四十八尺的.

[高] 長短不等, 這布都是地頭[1]織來的. 我又不曾剪了稍子.[2] 兩頭放着印記裏.

[客] 似這一箇布, 經緯[3]都一般, 便是魚子[4]兒也似勻淨的. 似這一等, 經緯不等, 織的又鬆, 却不好.

[高] 買的人, 多少包彈,[5] 急且難着主兒.

1) '地頭'는 "원산지"의 뜻인데 여기서는 "본토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고려(高麗)의 각지에서 베를 짤 때에 그 규격(規格)이 지방마다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稍子'는 "말단(末端)"을 말한다. '초(稍)'는 '초(梢)'라고 쓰는 것이 옳지만, 이 두 자는 통용(通用)된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베의 양끝에 도장을 찍어 잘라내는 부정(不正)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3) '經緯'는 베의 세로실과 가로실을 말하는 것으로 옛말 '씨날'을 말한다. 언해에서는 이 부분을 "似這一等経緯不等 —이 ᄒᆞᆫ 가지ᄂᆞᆫ 시ᄂᆞᆯ히 ᄀᆞᆮ디 아니ᄒᆞ고—"로 되어 있어 '經緯'가 '시ᄂᆞᆯ'로 언해되었다.

4) '魚子'는 견직물(絹織物)의 이름으로 '어자힐(魚子纈)'을 말한다. '힐(纈)'은 무늬를 홀치기로 염색한 것을 말하므로 아마도 이것은 어란(魚卵) 모양의 무늬를 염색한 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唐) 단성식(段成式)의 '조비경(嘲飛卿)'이란 시(詩)에 "원컨대 짙은 붉은색의 어란[魚子深紅]을 염색한[纈] 비단으로 옷을 마르고[裁] 얇은 푸른색의 잠자리[蜻蜓淺碧] 무늬를 가진 깁[綾]을 구(求)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송(宋) 엽정규(葉廷珪)의 『해록쇄사(海錄碎事)』(권5)에 "어자힐(魚子纈), 수파초(水波紗)는 의복(衣服)의 아름다움(美)을 말함"이란 해설이 있다.

[客] 似這等布, 寬時好, 這幾箇布忒窄.

[高] 窄時偏爭甚麽? 也一般賣了.

[客] 你怎麽說那等的話? 寬時, 做衣裳有餘剩, 又容易賣. 窄時做衣裳不勾. 若少些時, 又要這 一等的布零截, 又使一錢銀. 爲這上, 買的人少.

[牙] 要甚麽閑講? 筭了價錢, 看了銀子.

飜老 제99화 댱단이 ᄀᆞᆮ디 아니ᄒᆞ니

[客] 네 ·이 ·뵛 듕·에 댱·단·이[6] ·ᄀᆞᆮ·디 아·니ᄒᆞ·니, :유·여ᄒᆞᆫ :쉰 ·자·도 이시·며, ·ᄯᅩ 마·ᅀᆞᆫ ·쟈·도 이시·며 ·ᄯᅩ 마·ᅀᆞᆫ 여듧 ·자·도 이시·니,

[高] 기·리 ·ᄀᆞᆮ·디 아·니·타. ·이 ·뵈 :다 미·틔·셔[7] ·ᄧᅡ·오·고 ·내 ·ᄯᅩ ·귿[8] 버·히·디 아·니 ·ᄒᆞ·엿·고 ·두 그데 ·보·람 ·두·워[9] 잇ᄂᆞ·니·라.

[客] ·이 ·ᄀᆞ·ᄐᆞᆫ ᄒᆞᆫ ·뵈:ᄂᆞᆫ ·시·ᄂᆞᆯ·히[10] :다 ·ᄀᆞ·ᄐᆞ·여 ·곧 고:기 ·알·ᄀᆞ티[11] 고ᄅᆞ·고 긋·긋· 다[12]커·니와 이 ·ᄒᆞᆫ가·지·ᄂᆞᆫ ·시·ᄂᆞᆯ히 ·ᄀᆞᆮ:디 아·니ᄒᆞ고 ·ᄠᅢᆷ[13]·도 ·ᄯᅩ 얼믜·오 ·ᄯᅩ :됴·티 아니:타.

[高] 살 :사·ᄅᆞᆷ·이·ᅀᅡ 그믄·더·믄[14] :ᄒᆞ·나므라려[15]! 과ᄀᆞᆯ이[16] :님자 :어·도

5) '包彈'은 <原老>에서 '褒彈'으로 되었다. 모두 "헐뜯다, 트집을 잡다"의 뜻이다. 『朴通事』(中)에서도 "駁彈的是買主 —헐뜯는 게 사는 사람—"이라는 예가 있다. <朴覽>(中:7뒤)에는 "여기 '포(褒)'는 '포(包)'로 하는 것이 옳고, 북송(北宋)의 명판관 포승(包拯)이 자주사람을 헐뜯었던 것에서 온 말"이라는 설명이 있다. 제76화 주7 참조.

6) '댱·단·이'는 "장단(長短)이, 길고 짧은 것이"의 뜻.

7) '미·틔·셔'는 원문 '地頭'의 언해로 "원산지"의 뜻인데 여기서는 "(고려) 본토의 것"을 말한다.

8) '·귿'은 "끝"을 말함.

9) '·보·람 ·두·워'는 '印記'의 풀이로 "보람을 두어서, 표시를 두어서"의 뜻.

10) '·시·ᄂᆞᆯ·히'는 원문 '經緯'를 풀이한 것으로 "씨와 날이"의 뜻. 주3 참조.

11) '고:기 ·알·ᄀᆞ티'는 원문 '魚子'를 풀이한 것으로 "어란(魚卵) 모양의 무늬와 같이"의 뜻. 주4 참조.

12) '긋·긋·다'는 원문 '勻淨'의 언해로 "끼끗하다"의 뜻.

13) '·ᄠᅢᆷ'은 옷감을 짤 때에 "올과 올 사이의 틈"을 말함.

14) '그믄·더·믄'은 "그만 저만"의 뜻.

미 어려오니라.

[客] 이 :ᄃᆞᆼ·엣 ·뵈·ᄂᆞᆫ 너:브·니 ·됴·타커·니와 ·이 여러 ·뵈·ᄂᆞᆫ 너므 좁다.

[高] 조:ᄇᆞᆫ·ᄃᆞᆯ :별·히 므·스거·시 ·ᄣᅥ디료17)? ·ᄯᅩ ᄒᆞᆫ가·지·로 ·ᄑᆞᆯ 거·시라.

[客] :네 ·엇·디 그:런 :말 니ᄅᆞᄂᆞᆫ다? 너·브면 ·옷 지:ᅀᅩ매 유여ᄒᆞ며, ·ᄯᅩ :수이 ·ᄑᆞᆯ 거·시어 니와, 조·ᄇᆞ면 옷 지ᅀᅩ·매·도 ᄌᆞ라·디 몯ᄒᆞ·며, ᄒᆞ다·가 ᄂᆞᆮᄇᆞ면 ·ᄯᅩ ·이 ᄒᆞᆫ가·짓 ·뵈 ·ᄠᅳ·니18) :얻·노·라 ᄒᆞ·면 ·ᄯᅩ ᄒᆞᆫ :돈 은·을 ·ᄡᅳ·ᄂᆞ·니 ·이·런 젼·ᄎᆞ·로 살 :사·ᄅᆞ·미 :져·그니·라.

[牙] 므·슴 쇽졀 :업·시 겻·고·료? ·갑·ᄉᆞᆯ :혜·오 은 보·져.

(老諺) 제99화 당단이 ᄀᆞᆮ디 아니ᄒᆞ야

[客] 네 이 뵈 듕에 당단이 ᄀᆞᆮ디 아니ᄒᆞ야 쉰 자 남으니도19) 이시며 ᄯᅩ 마 은 자치도 이시 며 ᄯᅩ 마은 여듧 자치도 이시니,

[高] 당단이20) ᄀᆞᆮ디 아니ᄒᆞ다. 이 뵈ᄂᆞᆫ 다 믿ᄡᅡ히셔21) ᄧᅡ 오고, 내 ᄯᅩ 일즙 긋 버히디 아녓고 두 머리에22) 보람 두엇ᄂᆞ니라.

[客] 이 ᄀᆞᆮ튼 ᄒᆞᆫ 뵈ᄂᆞᆫ ᄡᅵ놀히23) 다 ᄀᆞᆮᄐᆞ여 곳 고기알 ᄀᆞᆮ티 고로고 긋긋ᄒᆞ거니와24) 이 ᄒᆞᆫ 가지 ᄀᆞᆮ트니ᄂᆞᆫ ᄡᅧ놀히 ᄀᆞᆮ디 아니ᄒᆞ고 ᄧᆞᆫ 거시 ᄯᅩ 얼믜여 ᄯᅩ 됴티 아니ᄒᆞ니.

[高] 살 사ᄅᆞᆷ이 ᄀᆞ장25) 희나므라 ᄒᆞᆯ 거시니 과갈이 님쟈 엇기26) 어려오리

15) ':흐·나므라려'는 "타박할 것이로다"의 뜻.
16) '과ᄀᆞᆯ이'는 "급하게, 빨리"의 뜻.
17) '·ᄣᅥ디료'는 "떨어질 것인가"의 뜻.
18) '·ᄠᅳ·니'는 "다른 것, 나머지, 자투리"를 말함. 여기서는 "옷을 지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꼭 같은 것으로 구입할 때의 다른 것"이란 의미다.
19) <飜老>에서는 ':유·여ᄒᆞᆫ :쉰 ·자·도'임.
20) <飜老>에서는 '기·릐'임.
21) <飜老>에서는 '미·틔·셔'임.
22) <飜老>에서는 '·두 그테'임.
23) <飜老>에서는 '·시·놀·히'임.
24) <飜老>에서는 '긋·긋·다커·니와'임.
25) <飜老>에서는 '그믄·더·믄'임.

라.

[客] 이 등 ᄀᆞᆮ튼27) 뵈ᄂᆞᆫ 너브니 됴커니와 이 여러 뵈ᄂᆞᆫ 너모 좁다.

[高] 조브들 독별히 므서시 ᄯᅥ리오28)? ᄯᅩ ᄒᆞᆫ 가지로 ᄑᆞᆯ리라.

[客] 네 엇디 뎌런 말 닐으ᄂᆞᆫ다? 너브면 옷 지으매 남음이 잇고29) ᄯᅩ ᄑᆞᆯ기 쉽거니와30) 조브면 옷 지으애31) ᄌᆞ라디 못ᄒᆞ여 ᄒᆞ다가 져기 모조라면32) ᄯᅩ 이 ᄀᆞ튼 뵈33) ᄯᅳ니언노 라 ᄒᆞ면 ᄯᅩ ᄒᆞᆫ 돈 은을 ᄡᅳᄂᆞ니 이런 젼ᄎᆞ로 살 사ᄅᆞᆷ이 져그니라.

[牙] 므슴아라 졀34) 업시 겻고료. 깁ᄉᆞᆯ 혜고 은을 보쟈.

(現代譯) 제99화 길이가 같지 않으니

[베장수] 당신의 이 베 가운데 길이가 같지 않으니 쉰 자[尺] 넘는 것도 있으며 또 마흔 자[尺]도 있고, 또 마흔여덟 자[尺]인 것도 있소이다.

[고려인]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은 이 베가 모두 본토에서 짜 온 것이라 그렇소이다. 내 또 한 끝자락을 베어내지는 않았고 양쪽 끝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베장수] 이 같은 베는 씨(세로로 된 실)와 날(가로로 된 실)이 모두 같아서 어란(魚卵)의 무늬와 같이 고르고 끼끗하거니와 이쪽 한 가지는 씨와 날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짜임새도 성기고 또 좋지 않습니다.

[고려인] 사는 사람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급하게 임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26) <飜老>에서는 ':어·도미'임.
27) <飜老>에서는 ':ᄃᆞᆼ·엣'임.
28) <飜老>에서는 '·ᄣᅥ디료'임.
29) <飜老>에서는 '유여ᄒᆞ며'임.
30) <飜老>에서는 '·ᄑᆞᆯ 거·시어니와'임.
31) <飜老>에서는 '지ᅀᅩ·매·도'임.
32) <飜老>에서는 'ᄂᆞᆮᄇᆞ면'임.
33) <飜老>에서는 'ᄒᆞᆫ가·짓 ·뵈'임.
34) <飜老>에서는 '쇽졀'임. 아마도 '쇽'의 탈자인 것으로 보임.

[베장수] 이 등급의 베는 폭이 넓어 좋은데, 이쪽의 몇 개는 아주 좁소이다.
[고려인] 좁다고 특별히 뭐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또 한꺼번에 팔 것입니다.
[베장수]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오? 넓으면 옷을 지을 때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 역시 쉽게 팔 수 있지만 좁으면 옷을 만드는 데도 부족합니다. 만일 부족하면 다시 같은 종류 베의 자투리를 얻고자 하면 또 한 돈의 은자를 써야 하니 이런 이유로 살 사람이 적게 됩니다.
[중개인] 무슨 쓸데없이 다투고 있어요? 값을 계산하고 은자를 봅시다.

(原 文) 제100화 毛施布價

[客] 你是牙家, 你筭了着. 該多少?
[牙] 上等毛施布一百疋, 每疋一兩, 共該一百兩. 低的三十匹, 每疋六錢, 共通一十八兩.
[高] 都與好銀子是.
[客] 委實沒許多好銀子. 敢只到的九十兩, 那零的二十八兩, 與你青絲如何?
[牙] 客人看, 這偌多交易, 要甚麼爭競? 這些箇銀子是好青絲. 比官銀一般使.
[高] 這們時, 依着你. 將好青絲來.
[客] 這銀子都看了. 我數將布去.

(飜 老) 제100화 모시 뵈는 언메나 홀 것고?

[客] :네 :아·지어·니1) :네 :헤·라. :언·메·나 홀 것·고?
[牙] :샹·둥·엣 모시·뵈 일·빅 피·론2) :미 흔 피·레 흔 :량·시·기·면 :대·되

1) ':아·지어·니'는 ':아·즈(牙子) + ㅣ(서술격조사) + -어·니(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중개인이니까"의 뜻.

·일·빅 량·이·오, ᄂᆞᆺ갑ᄒᆞ·니 셜·흔 피·론 :미 ·ᄒᆞᆫ 피·레 엿 :돈·시·기·면 :대·되 ·열 여·듧 량·이로소·니.
[高] :다 :됴·ᄒᆞᆫ 은·을 ·주·워·ᅀᅡ ·올ᄒᆞ니·라.
[客] 진·실·로 ·더·리도·록 :만·히 :됴·ᄒᆞᆫ 은·이 :업·세·라. 아·ᄒᆞᆫ 량·이 ·왓·ᄂᆞᆫ ·ᄃᆞᆺᄒᆞ·다. 그 ·ᄠᅳ·니3) 스·므 여·듧 량·으·란 너·롤 :구·품 은4)·을 :주·더 :엇·더ᄒᆞ·뇨?
[牙] 나·그·내여 보라. ·이·리도·록 :만·ᄒᆞᆫ 홍정·애 므·스므·려 싯·구ᄂᆞ·뇨? ·이 은·이 :됴·ᄒᆞᆫ :구·품·이·니 구의나·깃 은 ᄀᆞᆯ·와5) ᄒᆞᆫ 가·지·로 ·ᄡᅳᆯ 거·시·라.
[高] ·이·러ᄒᆞ·면 너·를 조:차 :호·리·라. :됴·ᄒᆞᆫ :구·품은 가·져 ·오·라.
[客] ·이 은 :다 보·과·라. ·나·ᄂᆞᆫ ·뵈 혜·여 가·져 ·가노·라.

(老 諺) 제100화 모시뵈 언머나 ᄒᆞ뇨?

[客] 너는 즈름이니6) 네 혜라. 힉오니 언머나 ᄒᆞ뇨7)?
[牙] 샹등엣 모시뵈 일빅 필은 每 ᄒᆞᆫ 필에 ᄒᆞᆫ 량식 ᄒᆞ니 대되 일빅 량이오, ᄂᆞ존 이8) 셜흔필은 每 ᄒᆞᆫ 필에 엿 돈식 ᄒᆞ니 대되 열 여듧 량이니9)
[客] 다 됴ᄒᆞᆫ 은을 주미10) 올ᄒᆞ니라. 진실로 더대도록11) 만히 됴ᄒᆞᆫ 은이

2) '피·론'은 '필(疋) + -·ᄋᆞᆫ(주제격)'의 형태구성으로 '필(疋)'은 "일정한 길이로 짠 피륙을 세는 단위"이며 광목이나 옥양목 등은 '통'이라고 한다.
3) '·ᄠᅳ·니'는 '·ᄠᅳᆫ[他] + ·이(형식명사)'의 형태구성으로 "다른 것, 나머지, 자투리"의 뜻. 제99화 주18 참조.
4) ':구·품 은'은 '구품은(九品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문 '青絲'의 풀이이므로 "푸른 실을 넣은 구성은(九成銀)"을 말함.
5) 'ᄀᆞᆯ·와'는 'ᄀᆞᆯ오-[比] +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준해서, 대신해서"의 뜻.
6) <飜老>에서는 ':아·지어·니'임.
7) <飜老>에서는 '홀 것고'임.
8) <飜老>에서는 'ᄂᆞᆺ갑ᄒᆞ·니'임.
9) <飜老>에서는 '량이로소니'임.

엳세라. 九十兩이 왓ᄂᆞᆫ ᄃᆞᆺᄒᆞ다. 그 ᄡᅳᄂᆞ니 스믈 여듧 량으란 너롤 구품 은을 주미 엇더ᄒᆞ뇨?

[牙] 나그내아 보라. 이대도록 만ᄒᆞᆫ 흥졍애 므슴아라 구ᄂᆞ뇨12)? 이 은이 됴ᄒᆞᆫ 구품이니 구읫나기 은을 ᄀᆞᆯ와 ᄒᆞᆫ 가지로 ᄡᅳᆯ 것시라.

[高] 이러ᄒᆞ면 네대로13) ᄒᆞ리라. 됴ᄒᆞᆫ 구품은 가져 오라.

[客] 이 은 다 보아다. 나ᄂᆞᆫ 뵈 혜여 가져 가노라.

現代譯 제100화 모시 베의 값은 얼마인가?

[베장수] 당신이 중개인이니 당신이 계산하시오. 얼마나 합니까?

[중개인] 상등(上等)의 모시 베 일백 필(疋)은 한 필에 한 냥씩이면 모두 일백 냥이고, 낮은 것 서른 필(疋)은 한 필에 여섯 돈[錢]씩이면 모두 열여덟 냥(兩)입니다.

[고려인] 모두 좋은 은을 주어야 옳습니다.

[베장수] 정말로 그렇게 많은 좋은 은자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흔 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스물여덟 냥은 당신에게 구품(九品)짜리 은(銀)으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중개인] 나그네 손님, 보시오. 이렇게 큰 거래에 무엇하러 다투겠습니까? 이 은자는 좋은 구품짜리 은이니 관청 은에 준해서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고려인] 그러면 당신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구품 은을 가져오시오.

[베장수] 이 은자를 모두 보았으니 나는 모시 베를 헤아려 가져가겠소.

10) <飜老>에서는 ‘·주·워·사’임.
11) <飜老>에서는 ‘·더·리도·록’임.
12) <飜老>에서는 ‘싯·구ᄂᆞ·뇨’임. ‘싯’이 탈자(脫字)된 것으로 보임.
13) <飜老>에서는 ‘너를 조차’임.

原文 제101화 銀子的眞假

[高] 你且住着. 這銀子裏頭, 眞的假的,1) 我高麗人不識. 你都使了記號着. 牙家眼同看了着. 後頭使不得時, 我只問牙家換.

[牙] 却不"當面看了見數 出門不管退換."

[高] 怎麽說? 你這們慣做買賣的人, 我一等不慣的人根前, 多有欺瞞. 你使着記號着, 大家把 穩.2)

[高] 這一百兩做一包, 這的是一百一十八兩.

[高] 那幾箇客人, 將布子去了. 咱們人蔘價錢, 也都收拾了. 貨物都發落了.

飜老 제101화 이 은(銀)은 진짓 것?

[高] :네 아·직 날회·라. ·이 은 듕·에·셔 진·짓 거·신 ·동 ·거·즛 거·신 ·동 ·우·리 高麗ㅅ :사·ᄅᆞᆷ·이 :아·디 :몯·ᄒᆞ노·니 :네 :다 ·보·람 두·고 :야·ᄌᆞ·와 ·보·ᄂᆞᆫ ·ᄃᆡ 홈ᄭᅴ 보·라. :후·에 ·ᄡᅳ·디 ·몯·ᄒᆞ거·든 ·내 :야·ᄌᆞᄃᆞ·려 무러 밧고리·라.

1) ‘眞的假的’는 모시 베의 대금으로 받은 은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말한다. <原老>에서는 ‘眞假’이었는데 이것은 원대의 지폐인 보초(寶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고려 상인이 받은 은자의 위조 여부를 걱정하여 중개인에게 보증을 구하는 이야기는 제65화에도 보인다. 다만 제65화에서는 그 보증에 즉시 응했었다. 제100화, 제101화에서는 위폐(僞幣)에 관한 대화가 많이 보인다. 이것은 원대(元代)의 종이 돈인 보초(寶鈔)의 위조지폐(僞造紙幣)와 쓸 수 없이 낡은 돈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는데 <飜老>에서는 명대(明代)의 은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2) ‘把穩’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권63) 호삼성(胡三省)의 주(註)에 “지뢰(持牢)는 아직도 남쪽 사람들이 쓰고 있는 ‘파온(把穩)’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설명이 있어 아마도 남방(南方)의 말인 것 같다.

[牙] ·쏘 아·니 :면·당·ᄒᆞ·야·셔[3] 잇ᄂᆞᆫ :수·를 볼 거·시디·위[4] 문·의 나·면 므르·기·를 ·알라[5] ·몯·홀 거·시·라.

[高] 므·스·기·라 니ᄅᆞᄂᆞᆫ·다? :네 ·이·러ᄐᆞ·시 홍졍ᄒᆞ·기 니근 사·ᄅᆞ·미 ·우·리 ᄒᆞᆫ가·짓 닉·디 :몯·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만·히 소·기ᄂᆞ·니, :네 ·보·람 ·두·어·ᅀᅡ :대·되 편안ᄒᆞ·리·라.

[高] ·이 ·일·ᄇᆡᆨ 량·으·란 ᄒᆞᆫ ·ᄡᆞ·매 ᄆᆡᆼ·ᄀᆞᆯ·라. ·이·ᄂᆞᆫ ·일·ᄇᆡᆨ 열 여·듧 량·이로·다.

[高] ·뎌 여·러 나·그·내 ·뵈 가·져 ·니거·다. ·우·리 ᅀᅵᆫ·ᄉᆞᆷ·갑·도 :다 간슈ᄒᆞ·져. ·황·회·ᅀᅡ :다 :디·쳐·ᄒᆞ·야·다커·니·와.

老諺 제101화 이 銀은 진짓 쩟?

[高] 네 아직 날회라. 이 銀ㅅ 듕에 진짓 써신 동 거짓 써신 동 우리 高麗ㅅ 사ᄅᆞᆷ이 아디 못ᄒᆞ니 네 다 보람 두고 즈름과 眼同ᄒᆞ여[6] 보라. 후에 쓰디 못ᄒᆞ거든 내 즈름ᄃᆞ려 무러 밧고리라.

[牙] 쏘 ᄂᆞᆺ출 당ᄒᆞ야셔[7] 잇ᄂᆞᆫ 수을 보디 아니ᄒᆞ엿ᄂᆞ냐[8]? 문에 나면 므르기를 알라 못홀 써시라.

[高] 므서시라[9] 니르ᄂᆞᆫ다? 네 이러ᄐᆞ시 홍졍ᄒᆞ기 니근 사ᄅᆞᆷ이 우리 ᄒᆞᆫ 가

3) ':면·당·ᄒᆞ·야·셔'의 ':면·당·ᄒᆞ-'는 "면당(面當)하다, 얼굴을 맞대다"의 뜻.
4) '디·위'는 "~되, ~지"의 뜻. 따라서 ':수·를 볼 거·시디·위'는 "수(數)를 볼 것이 되"의 의미.
5) '·알라'는 '·말라'의 잘못으로 보임. 이 문장은 원문 '當面看了見數 出門不管退換'의 언해로서 원래의 뜻은 "당면하여서 수를 볼 것이며 문을 나가서는 물을 수가 없다"는 의미의 관용구임.
6) <飜老>에서는 '야·ᄌᆞ·와 ·보·ᄂᆞᆫ ·ᄃᆡ 혼ᄢᅴ'임.
7) <飜老>에서는 ':면·당·ᄒᆞ·야·셔'임.
8) <飜老>에서는 '볼 거·시디·위'임.
9) <飜老>에서는 '므스기라'임.

지 닉디 못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만히 소기ᄂᆞ니, 네 보람 두에야 대되 편안ᄒᆞ리라.

[高] 이 일ᄇᆡᆨ 냥으란 ᄒᆞᆫ 빰에 ᄆᆡᆼ글라. 이는 일ᄇᆡᆨ 열여듧 냥이로다.

[高] 뎌 여러 나그내 뵈 갸져 가거다.[10] 우리 人蔘ㅅ 갑도 다 收拾ᄒᆞ쟈. 황호 다 디쳐 ᄒᆞ여다.

現代譯 제101화 이 은자는 진짜?

[고려인] 당신 잠깐 기다리시오. 이 은자 가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고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소이다. 당신이 보증 서고 중개인도 같이 보시오.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되면 내가 중개인 아저씨에게 물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중개인] 또 "면전에서 헤아려 보았다면 문을 나선 다음에는 무를 수 없다."는 말도 모르시오? 못하겠소.

[고려인] 뭐라고 하셨소? 당신처럼 이렇게 홍정에 익숙한 사람이 우리처럼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자주 속인단 말이오. 당신이 보증을 서 두어야 모두 안심이 되겠소.

—은자를 받고 나서—

[고려인] 이 일백 냥(兩)일랑 한 쌈으로 만드시오. 이것은 일백여덟 냥일세.

—모시 베를 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고려인] 저 몇 명의 베 장수들이 모시 베를 가져갔구나. 우리 인삼 값도 다 정리합시다. 이제 물품을 모두 처분하였구나.

10) <飜老>에서는 '니거다'임.

(原 文) 제102화 買廻貨

[高] 咱們買些甚麼迴貨去時好?

—商量其間, 涿州買賣去來的火伴到來, 相見—

[高] 好麼? 好麼? 賣買稱意麼?

[漢] 托着哥哥們福陰裏, 也有些利錢. 你的貨物都賣了不曾?

[高] 我貨物都賣了. 正要買迴去的貨物, 尋思不定, 恰好你來到.

[漢] 你要買甚麼貨物?

[高] 我知他[1]甚麼好拿去. 大哥你與我擺布着.

[漢] 我曾打聽得, 高麗地面裏賣的貨物, 十分好的, 倒賣不得, 只宜將就的貨物, 倒着主兒快.

[高] 可知, 大哥你說的正是. 我那裏好的歹的不識, 只揀賤的買.

[漢] 正是“宜假不宜眞.”[2]

(飜 老) 제102화 도라가 쌀 황호롤 사다(1)

[高] ·우·리 :져·그·나 므·슴 도·라·가 ·쌀 ·황·호·롤 ·사 가ᅀᅡ :됴홀·고?

—:의·론홀 저·긔 涿州·예 흥졍 녀·러 온 동·뫼 ·오·나·놀 서르 보·고—

1) ‘知他’는 “알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2) 원문 ‘宜假不宜眞’은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원대(元代)에 유행한 성어(成語)다. 원래는 도교(道敎)의 일파(一派)인 전진교(全眞敎)에서 특별히 추앙을 받는 전설적인 선인(仙人) 여동빈(呂洞賓)의 작(作)으로 알려진 시(詩)에 “흙을 반죽하여 香으로 爲함은 事에 因하여, 世間은 假를 좋아하고, 眞을 좋아하지 않는다”(宋 趙與의 時『賓退錄』권1, 또는『全唐詩』권858)고 하였는데『선화유사(宣和遺事)』「전집(前集)」,『황량몽(黃粱夢)』「잡극(雜劇)」1折 ‘일반아(一半兒)’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高] 이·대 이·대,[3] 흥졍·이 ᄠᅳ·데 마·즈·녀?

[漢] 형·님·히 ·덕:분 니·버 ·쏘 리:쳔 :어·도·라. 네 ·황·호 :다 ·ᄑᆞ·냐? :몯 ·ᄒᆞ·얏ᄂᆞ·녀?

[高] ·우·리 ·황·호 :다 ·ᄑᆞᆯ·오, :졍·히 도·라갈 ·황·호 :사·려 ·ᄒᆞ·야, :혜·아·림 ·일·뎡·티 :몯·ᄒᆞ·얏더·니 ·마·치 :됴·히 ·네 올·셔.

[漢] :네 므·슴 ·황·호 :사·려 ·ᄒᆞᄂᆞᆫ·다?

[高] ·내 :몰·래·라. 므·ᄉᆞ거·시 가·져 ·가·디 :됴·홀·고? 형아 :날ᄃᆞ·려 :긔·걸·ᄒᆞ[4]·야·라.

[漢] ·내 :아·릐 드:로·듸 高麗ㅅ짜·해 ·ᄑᆞ·ᄂᆞᆫ ·황·회 ᄀᆞ·장 :됴·ᄒᆞᆫ 거·슨 도ᄅᆞ·혀 ·ᄑᆞ·디 :몯ᄒᆞ·고, :다:믄 :둘·워[5] ·ᄡᆞᆯ ·황·회·ᅀᅡ ·맛·당·ᄒᆞ·야 도ᄅᆞ·혀 :님·자 :어·도·미 ᄲᆞᄅᆞ·다 ·ᄒᆞᄂᆞ:다 그·리어·니.

[高] 형아! 네 닐·오:미 :졍·히 ·올·타. ·우·리 뎌·긔·ᄂᆞᆫ :됴·ᄒᆞᆫ 것 구·즌 것 모·ᄅᆞ·고 :다·믄 :쳔·ᄒᆞᆫ[6] 거·슬 :골·와 ·사·ᄂᆞ·니.

[漢] ·졍·히 ·거·즛 거·슨 ·맛·당ᄒᆞ·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老 諺) 제102화 도라가 쌀 황호롤 사다(1)

[高] 우리 져그나 므슴 도라가 쌀 황호롤 사 가야 됴홀고?

—의논홀 ᄊᆞ이예[7] 涿州에 흥졍ᄒᆞ라 갓쁜[8] 벗이[9] 오나놀 서ᄅᆞ 보고—

[高] 이대 이대, 흥졍이 ᄠᅳ의[10] 마즌가[11]?

3) ‘이·대 이·대’는 “잘, 좋게”의 뜻. 여기서는 “잘 지냈는가”의 뜻.

4) ‘:긔·걸·ᄒᆞ-’는 “분부하다”의 뜻.

5) ‘:둘·워’는 “두루”의 뜻.

6) ‘:쳔·ᄒᆞᆫ’은 “천(賤)한, 값싼”의 뜻.

7) <飜老>에서는 ‘저긔’임.

8) <飜老>에서는 ‘녀·러 온’임.

9) <飜老>에서는 ‘동·뫼’임.

[漢] 형들희 덕분을 닙어 ᄯᅩ 져기 니쳔을 어드롸. 네 황호를 다 ᄑᆞᆫ다[12]? 못ᄒᆞ엿ᄂᆞᆫ다[13]?

[高] 우리 황호 다 ᄑᆞᆯ고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ᄒᆞ여 혜아림을 뎡티[14] 못ᄒᆞ엿ᄃᆞ니 마치 됴히 네 올샤.

[漢] 네 므슴 황호 사려 ᄒᆞᄂᆞᆫ다?

[高] 내 몰래라. 므스 거시 가져가기[15] 됴ᄒᆞᆯ고? 형아! 날ᄃᆞ려 긔걸ᄒᆞ여라.

[漢] 내 일즙[16] 드ᄅᆞ니 高麗ㅅ ᄯᅡᄒᆡ ᄑᆞᄂᆞᆫ 황회 ᄀᆞ장 됴ᄒᆞᆫ 거슨 도로혀 ᄑᆞ디 못ᄒᆞ고 다만 두어라[17] ᄒᆞᆯ 황회아 맛당ᄒᆞ여 도로혀 님자 어듬이 ᄲᆞᄅᆞ다 ᄒᆞᄃᆞ라[18] 그리어니.

[高] 형아! 네 니롬이 정히 올타. 우리 뎌긔ᄂᆞᆫ 됴ᄒᆞᆫ 것 구즌 것 모ᄅᆞ고 다만 쳔ᄒᆞᆫ 거슬 골라 사ᄂᆞ니.

[漢] 정히 거즛 거슨 맛당ᄒᆞ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現代譯) 제102화 돌아가서 팔 물품을 사다(1)

[고려인] 우리 조금이나마 돌아가서 쓸 물품으로 무엇을 사 가야 좋을까?

—상의하고 있을 때에 탁주(涿州)에 장사를 하러 갔었던 친구가 오거늘 서로 보고—

[고려인] 잘 지냈소? 장사는 뜻에 맞았소?

[중국인] 형들 덕분에 또 이익을 얻었네. 당신들의 물품은 모두 팔았는가? 못 팔았는가?

[고려인] 우리 물품도 모두 팔고 마침 돌아가서 팔 물건을 사려고 하여 생각했으나 정하지 못하였더니 마침 형님이 돌아왔소.

[중국인] 자네들은 무슨 물품을 사려고 하는가?

[고려인] 난 모르겠소. 무엇이 가져가기 좋습니까? 형님 나에게 분부하시오.

[중국인] 내가 전에 듣기로는 고려 땅에서 팔리는 물품으로는 너무 좋은 것이 오히려 안 팔리고 다만 두루 쓸 물건이 마땅하여 반대로 살 사람 얻는 것이 빠르다고 하데그려.

[고려인] 형님! 당신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우리네 저쪽에서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모르고 오직 싼 것을 골라 삽니다.

[중국인] 그거야말로 "가짜는 마땅하고 진짜는 마땅치 않다"란 말에 맞는 셈일세.

10) <飜老>에서는 'ᄠᅳ·데'임. <老諺>의 'ᄠᅳ의'는 'ᄠᅳᆮ'의 'ㄷ'이 탈락한 것으로 보임.
11) <飜老>에서는 '마즈녀'임.
12) <飜老>에서는 'ᄑᆞ냐'임.
13) <飜老>에서는 '몯 ᄒᆞ얏ᄂᆞ녀'임.
14) <飜老>에서는 '일뎡티'임.
15) <飜老>에서는 '가져가디'임.
16) <飜老>에서는 '아릐'임.
17) <飜老>에서는 '둘워'임.
18) <飜老>에서는 'ᄒᆞᄂᆞ라'임.

(原文) 제103화 買些零碎的貨物

[漢] 我引着你, 買些零碎的貨物.

[高] 紅纓[1]一百斤, 燒珠兒[2]五百串, 瑪瑙珠兒一百串, 琥珀珠兒一百串, 玉

1) '紅纓'은 "빨간 술"을 말한다. 여기서는 모자 위에 단 '상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明)의 『예부지고(禮部志稿)』(권21) 「연집(宴集)」에 무인(舞人)의 복장을 말하여 "白捲簷氈帽에 塗金의 帽頂, 一撒의 紅纓"이라는 구절이 있어 모자 위에 붉은 술을 단 것을 홍영(紅纓)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호전(水滸傳)』 제3회에도 사진(史進)의 차림을 말하여 "머리에는 하얀 범양전대모(范陽氈大帽)를 쓰고 위에 일찰(一撒)의 홍영(紅纓)이 달려있어"라고 하였다.
2) '燒珠兒'의 '燒珠'는 "구운 구슬"을 말한다. "燒珠-音義云구은구슬 一說消子珠兒 今按燒字審母 消字心母 其音稍似 而深淺不同 消作燒爲是 —소주(燒珠)는 『음의(音義)』에서 말하기를 '구은 구슬'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소자주(消子珠)'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소(燒)'자의 'ㅅ'은 '심모(審母-ㅅ)'이고 '소(消)'자의 'ㅅ'은 '심모(心母-ㅅ)'이어서 발음이 조금 비슷하고 깊고 얕음만 같지 않다. 그러니 소(消)가 소(燒)가 된 것이다—"(『老朴集覽』)라는 설명으로 보아 '유리구

珠兒一百串, 香串[3] 珠兒一百串, 水精珠兒一百串, 珊瑚珠兒一百串, 大針一百帖, 小針一百帖, 鑷兒一百把, 蘇 木[4]一百斤, 氈帽兒一百箇, 桃尖椶帽[5]兒一百箇, 琥珀頂子[6]一百副, 結椶帽兒一百箇, 面粉[7]一百匣, 綿臙脂[8]一百箇, 蠟臙脂一百斤, 牛角盒[9]兒一百箇, 鹿角盒[10]兒一百箇, 繡針一百帖, 棗木梳子一百箇, 黃楊木梳子[11]一百箇, 大篦子[12]一百箇, 密篦

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老覺』의 '消子'는 '硝子'의 잘못일 것이다. 명(明) 고렴(高濂)의 『준생팔전(遵生八箋)』(권8) '염주(念珠)'에 "서번초자소주(西番硝子燒珠)"라는 구절이 있어 원래의 '초자(硝子)'가 '소자(消子)'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3) '香串'은 "향료(香料)로 만든 작은 구슬을 꿴 것"을 말한다. '향주(香珠)'라고도 한다. 원(元) 오징(吳澄)의 '제국문충공신도비(齊國文忠公神道碑)'(『吳文正集』 권64)에 '향관대(香串帶)'가 보인다.

4) '蘇木'은 다목(붉은 빛의 나무, 약재나 염료로 쓰임)의 붉은 속살을 말한다. 파혈(破血)의 효험(効驗)이 있어 통경제 및 외과약(外科藥)으로 쓰인다.

5) '椶帽'는 종려(棕櫚) 나무의 껍질(樹皮)에서 뽑은 섬유(纖維)로 짠 모자를 말한다. 『朴通事』(上)에 '결종모(結椶帽)'라고 되어 있으며 『朴覽』(上9; 1-2)에 '종(椶)'이란 나무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무껍질로 모자를 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 정자(頂子)는 '모자의 꼭지'를 말한다. '딩ᄌ'라고 하였다.

7) '粉'은 앞에 든 '향차분(香搽粉)'이 상품으로 포장된 완성품인 데 대하여 이쪽은 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 '綿臙脂'에 대하여는 『철경록(輟耕錄)』(권11) '채회법(采繪法)'에 홍색(紅色)의 일종으로 '면연지(綿臙脂)'가 보인다. 또 『예부지고(禮部志稿)』(권20)에 황제의 혼례 때에 교환하는 예물로서 "綿臙脂百個, 蠟臙脂二兩"이 등재되었다. 『천공개물(天工開物)』(권3) '연지(燕脂)'조에 "燕脂의 古造法은 紫礦(자광, 식물명)으로 綿을 염색하는 자를 上으로 함"이란 기사가 있어 원래는 사면(絲綿)을 염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 '牛角盒'에 대하여는 명(明) 주왕(周王, 朱橚)의 『보제방(普濟方)』(권392) '小兒의 脾積을 치유함' 조에 "마늘과 '香白芷'를 가루로 하여 '蠟臙脂'에 섞은 膏藥을 배꼽에 바르고, 남아일 경우는 '牛角盒'의 上蓋, 여아일 경우는 下蓋를 덮는다"는 기사가 있다. 약 등을 넣기 위한 상자로 보인다.

10) '鹿頂盒'은 "사슴뿔로 만든 작은 함"을 말한다. 송(宋) 주욱(朱彧)의 『평주가담(萍州可談)』(권2)에 북쪽 땅의 사슴은 중국의 것보다 배 이상 큰 것이 있고, 이 사슴의 뿔을 뿌리에 가깝게 고리와 같이 자르면 속이 공동(空洞)으로 비어 물건을 둘 수 있어 이것을 '녹정합(鹿頂合)'이라고 한다는 기사가 있다. '合'은 '盒'과 같다.

11) '梳子'는 "얼레빗"을 말한다. 옛날에는 빗에 얼레빗과 참빗 등 여러 가지가 있었

子[13]一百箇, 斜皮[14]針筒兒一百箇, 大小刀子共一百副, 雙鞘[15]刀子一十把, 雜使刀子[16]一十把, 割紙細刀子一十把, 裙刀[17]子一十把, 五事兒[18]十副, 象棊十副, 大碁十副, 雙六十副, 茶褐䋫帶[19]一百條, 紫條[20]兒一百條, 壓口荷包[21]一百箇, 剃頭刀子一百把, 剪子一百把, 錐兒一百箇, 秤三十連, 等子十連.[22] 那秤等子都是官做的, 秤竿, 秤錘, 毫星,[23] 秤鉤子[24] 都有.

다. '大篦子'는 "큰 참빗"으로 언해한다.

12) '篦子'의 '篦'는 '篦'의 본자(本字)다. 머리의 비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자(梳子)', 즉 얼레빗보다 촘촘하게 박힌 빗으로 "참빗"을 말한다.

13) '密篦子'는 "촘촘하게 박힌 빗"을 말한다. <原老>에서는 "蟣篦子"이었는데 여기서의 '蟣'는 "서캐"를 말한다. 따라서 "서캐를 빗어 빼내는 참빗"이란 의미이었으나 <飜老>에서는 "빽빽한 密"로 교체하였다.

14) '斜皮'는 "무두질한 가죽"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좋은 양가죽을 말한다.

15) '雙鞘'는 "쌍으로 된 칼집"을 말한다. 원(元) 장지환(張之翰)의 『서엄집(西巖集)』(권8) 「사위진경죽편(謝魏晉卿竹鞭)」에 "三春의 花柳는 雙鞘의 밖, 萬里의 關山은 한 줌의 邊"이라는 구절이 있으나 무엇을 말함인지는 불명확하다. 언해에는 '솽가풀ᄒᆞᆫ 갈'로 되어 있어 "이중 칼집"으로 보인다.

16) '雜使刀子'는 "여러 가지 용도의 칼"이란 뜻이겠지만, '잡사(雜使)'는 또 잡역부(雜役夫)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칼이란 뜻일 수도 있다.

17) '裙刀'는 "여성의 호신용 단도"를 말한다. 『곡강지(曲江池)』 「잡극(雜劇)」 4折에 '압의(壓衣)의 군도(裙刀)'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해(自害)하는 장면이 있다. 언해문에서는 "치맛 허리에 출 갈"로 되었다.

18) '五事兒'는 알 수 없으나 언해문에 "연장 다ᄉᆞᆺ 드려 ᄆᆡᆼᄀᆞᆫ 갈"이란 언해에 따라 "다섯 가지 도구"로 번역하였다.

19) '䋫帶'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큰 띠"의 뜻인데 "선비가 즐겨 사용하는 띠로서 짜서 만든 것도 있다"는 설명이 『老覺』(下4-1)에 있다.

20) '紫條'의 '條'는 "명주로 짠 끈 모양의 띠"를 말한다.

21) '荷包'는 "작은 물건을 넣어 허리나 등에 매다는 주머니 모양의 배낭"을 말한다. 『초목자(草木子)』(권3) 下에 몽고어로 장관(長官)을 의미하는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명하면서 "達魯花는 또 華言의 荷包上의 壓口捺子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壓口捺子'는 배낭의 입구를 묶는 끈일 것이다. '合鉢'이라고 쓴 예도 원(元) 양우(楊瑀) 『산거신화(山居新話)』(권2) 등에 보인다.

22) '等子十連'의 '等子'는 금은(金銀)이나 약(藥) 등과 같이 소량의 것을 달기 위하여 소형으로 만든 정밀한 저울을 말한다. '等'을 '戥'이라고도 쓴다. 또한 '連'은 저울을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이다.

23) '毫星'은 저울대나 자에 표시된 별 모양의 눈금을 말한다. 『문헌통고(文獻通考)』(권33) 「도량형(度量衡)」, 『송사(宋史)』(권68) 「율력지(律曆志)」에 자세히 설명되었다.

(飜老) 제103화 도라 가 뿔 황호롤 사다(2)

[漢] ·내 너 ᄃᆞ·리·고 흑더·근[25] ·황·호 ·사·리·라.

[高] ·상모 ·일·빅 근, 구·운 ·구·술 ·갇·긴[26] ·오·빅 목, 마노 ·갇·긴 ·일:빅 목, :호·박 ·갇·긴 ·일·빅 목, ·옥 ·갇·긴 ·일·빅 목, ·향쥬[27] ·갇·긴 ·일·빅 목, :슈졍 ·갇·긴 ·일·빅 목, 산호 ·갇·긴 ·일빅 목, ·큰 바·놀 ·일·빅 ·빰, :세:침 ·일·빅 ·빰, 족졉·게 ·일·빅 :낫, :다·목 ·일·빅 근, 시·욱 ·갇 ·일·빅 :낫, ·쑈·롣ᄒᆞᆫ 충·갇[28] ·일·빅 ·낫, :호박 딩·ᄌᆞ ·일·빅 ·볼, 충·갇 ·일·빅 :낫, ·분 ·일·빅 :하ᅀᆞ,[29] 소옴 미·론 ·더 ·드·린 연지 ·일·빅 :낫, :미 ·레 든[30] 연지 ·일·빅 근, :쇠 ·쁠·로 ᄒᆞᆫ :면·합·ᄌᆞ[31] ·일·빅 :낫, ·로·각[32] ·으·로 ᄒᆞᆫ :면·합 ·ᄌᆞ ·일·빅 :낫, :슈 ·ᄡᅳ·는 바·놀 ·일·빅 ·빰, ·대·쵸나모 얼·에·빗 ·일·빅 :낫, 황양·목 얼·에·빗 ·일·빅 :낫, :굴·근 춤·빗 ·일·빅 :낫, 칙칙ᄒᆞᆫ[33] ·춤·빗 ·일·빅 :낫, 셔피[34]로 ᄒᆞᆫ 바·놀·통 ·일·빅:낫, :굴·근 햐근 ·갈 뫼·화 ·일·빅 ·볼, 솽가·풀 ᄒᆞᆫ[35] ·갈 ·열 ᄌᆞᄅᆞ, 이러 ·더·러ᄒᆞᆫ

24) '鉤子'는 "갈고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울에 물건을 매달기 위해 붙어 있는 고리를 말한다.
25) '흑더·근'은 "자질구레한"의 뜻. '흑덕-[瑣] + -·은(관형사형)'의 형태구성임.
26) '·갇·긴'은 "갓끈"을 말함.
27) '·향쥬'는 원문 '香串珠'의 풀이이므로 "향쥬(鄕珠), 향기가 나는 구슬"로 보임.
28) '·쑈·롣ᄒᆞᆫ 충·갇'은 원문 '桃尖椶帽兒'의 언해이다. "뾰족하게 생긴 종려나무 섬유로 짠 갓"을 말함.
29) ':하ᅀᆞ'는 '綿臙脂一百箇'의 '箇'를 언해한 것으로 아마도 "盒, 匣"으로 보인다. 다른 예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老諺>에 '일빅 갑'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다.
30) ':미·레 든'은 원문 '蠟臙脂'의 언해로서 아마도 "밀(蜜)에 든"으로 보임.
31) ':면·합·ᄌᆞ'는 "합(盒), 갑(匣)"을 말함.
32) '·로·각'은 "녹각(鹿角), 사슴뿔"을 말함.
33) '칙칙ᄒᆞᆫ'은 "빽빽한, 조밀한"의 뜻.
34) '셔피'는 "사피(斜皮), 무두질한 양가죽"을 말함.
35) '솽가·풀 ᄒᆞᆫ'은 '솽가풀'이라고도 하며 "겹으로 된 꺼풀, 이중 칼집"을 말함. 주15 참조.

·보:로[36] ·뿔 ·갈 ·열 ᄌᆞᄅᆞ, 죠·히 버·힐 ·ᄀᆞ·는 ·갈 ·열 ᄌᆞᄅᆞ, 치맛 허리·예 ·출 ·갈 ·열 ᄌᆞᄅᆞ, 연장 다·ᄉᆞᆺ 드·려 ᄆᆡᆼ·ᄀᆞᆫ ·갈 ·열 ·볼, :쟝·긔 ·열 ·부,[37] 바·독 ·열 ·부, 솽륙[38] ·열 ·부, :감·차할 런·더[39] 일·빅 됴,[40] ᄌᆞ·디 :세·토[41] ·일·빅 됴, 닫·개ᄒᆞᆫ ᄂᆞᄆᆞᆺ[42] ·일·빅 :낫, 머리 갓ᄂᆞᆫ ·갈 ·일·빅 ᄌᆞᄅᆞ,[43] ᄀᆞ·ᅀᅢ 일·빅 ·ᄌᆞᄅᆞ, :솔·옷[44] ·일·빅 :낫, ·큰 저·울 셜·흔 ᄆᆞᄅᆞ,[45] 햐근 저·울 ·열 ᄆᆞᄅᆞ. ·뎌 큰 저·울, 져근 저·울·돌·히 ·다 구의·예·셔 ᄆᆡᆼ·ᄀᆞ니·오 저·욼 ·대, 저·욼 ᄃᆞ·림,[46] 저·욼 ·눈, 저·우·렛 갈궁·쇠[47] :다 잇·다.

(老諺) 제103화 도라 가 뿔 황호롤 사다(2)

[漢] 내 너 ᄃᆞ리고 효근[48] 황호 사리라.

[高] 샹모 一百 斤, 구은 구술 갓긴 五百 목, 마노 갓긴 一百 목, 호박 갓긴 일빅 목, 옥 갓긴 일빅 묵,[49] 향쥬 갓긴 일빅 목, 슈졍 갓긴 일빅 묵, 산

36) '·보:로'는 "쟁기로"를 말함.
37) '·부'는 원문 '副'의 차용으로 보이며 우리말의 "벌"에 해당한다.
38) '솽륙은 "쌍륙(雙六), 주사위"를 말함.
39) ':감·차할 ·런·더'는 ':감·차할(茶褐色) 런·더(帣帶)'를 말하며 "다갈색의 비단 띠"를 말함. 주19 참조. ':감·차할(茶褐色)'은 제72화 주2 참조.
40) '됴'는 한자 '條'를 차용한 것으로 "띠, 실과 같은 것을 세는 단위, 줄기"다.
41) 'ᄌᆞ·디 :세·토'는 '紫條兒'의 언해로 "자주색의 띠, 자색(紫色)의 가늘게 땋은 띠"를 말함. ':세·토'는 "가늘게 땋은 띠". "條 :세·톳 됴, 俗呼條兒 (하략)"『訓蒙字會』(中:11) 참조.
42) 'ᄂᆞᄆᆞᆺ'은 "자루, 배낭"을 말함. '닫·개ᄒᆞᆫ ᄂᆞᄆᆞᆺ'은 원문 '壓口荷包'의 언해로서 "(마구리를) 닫게 한 배낭"을 말함. 주21 참조.
43) 'ᄌᆞᄅᆞ'는 "자루, 칼이나 가위를 세는 단위"를 말함.
44) ':솔·옷'은 "송곳"을 말함.
45) 'ᄆᆞᄅᆞ'는 "마루, 거울을 세는 단위"를 말함.
46) 'ᄃᆞ·림'은 'ᄃᆞ림쇠'로도 스면 "저울의 추(錘)"를 말함.
47) '갈궁·쇠'는 "저울에 다는 물건을 매달기 위한 구자(鉤子), 갈고리"를 말함.
48) <飜老>에서는 '흑더근'임.
49) '묵'은 '목'의 오각으로 보임. 이러한 오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됨.

호 갓긴 일ᄇᆡᆨ 목, 큰 바ᄂᆞᆯ 일ᄇᆡᆨ ᄡᅡᆷ, 셰50) 일ᄇᆡᆨ ᄡᅡ,51) 죠집게 일ᄇᆡᆨ ᄂᆞᆺ, 다목 일ᄇᆡᆨ 근, 시으갓52) 일ᄇᆡᆨ ᄂᆞᆺ, ᄲᅧ롯ᄒᆞᆫ53) 총갓 일ᄇᆡᆨ ᄂᆞᆺ, 호박딩ᄌᆞ 일ᄇᆡᆨ ᄇᆞᆯ, 초으로 ᄆᆡ존 갓54) 일ᄇᆡᆨ ᄂᆞᆺ, 면분55) 일ᄇᆡᆨ 갑,56) 소옴 연지57) 일ᄇᆡᆨ ᄂᆞᆺ, 밀에 드린 연지 일ᄇᆡᆨ 근, 쇠ᄲᅳᆯ로 ᄒᆞᆫ 면합ᄌᆞ 일ᄇᆡᆨ ᄂᆞᆺ, 노각으로 ᄒᆞᆫ 면함ᄌᆞ 일ᄇᆡᆨ ᄂᆞᆺ, 슈 ᄠᅳᄂᆞᆫ 바ᄂᆞᆯ 일ᄇᆡᆨ ᄡᅡᆷ, 대쵸나모 어레빗 일ᄇᆡᆨ ᄂᆞᆺ, 황양묵 어레빗 일ᄇᆡᆨ ᄂᆞᆺ, 굴근 ᄎᆞᆷ빗 일ᄇᆡᆨ ᄂᆞᆺ, 빈58) ᄎᆞᆷ빗 일ᄇᆡᆨ ᄂᆞᆺ, 셔피로 ᄒᆞᆫ 바ᄂᆞᆯ통 일ᄇᆡᆨ ᄂᆞᆺ, 大小59) 刀子60) 대되61) 일가 ᄇᆞᆯ,62) 쌍 가플ᄒᆞᆫ 칼 일ᄇᆡᆨ ᄂᆞᆺ,63) 잡하의64) ᄡᅳᆯ 칼 열 ᄌᆞᄅᆞ, 죠히 버힐 ᄀᆞᄂᆞᆫ 칼 열 ᄌᆞᄅᆞ, 치마 허리에 ᄎᆞᆯ 칼 열 ᄌᆞᄅᆞ, 연장 다ᄉᆞᆺ 드려 ᄆᆡᇰ근 칼 열 ᄇᆞᆯ. 쟝긔 열 부, 바독 열 부, 솽륙 열 부, 감출 아롱ᄃᆡᄌᆞ65) 일ᄇᆡᆨ 오리,66) ᄌᆞ디툐ᄋᆞ67) 일ᄇᆡᆨ 오리, 닷개ᄒᆞᆫ ᄂᆞᄆᆞᆺ 일ᄇᆡᆨ ᄂᆞᆺ, 머리 갓ᄂᆞᆫ 칼 일ᄇᆡᆨ ᄌᆞᄅᆞ, ᄀᆞ애 일ᄇᆡᆨ ᄌᆞᄅᆞ, 송곳68) 일ᄇᆡᆨ ᄂᆞᆺ, 큰 저울 셜흔 ᄆᆞᄅᆞ, 효근 저울 열 ᄆᆞᄅᆞ. 더 큰 저울, 져근 저울이 다 구의예셔 ᄆᆡᇰ근 이오, 저울대, 저 울튜,69) 저울눈, 저울갈구리,70) 다 잇다.

50) <飜老>에서는 '세침'. '침'은 탈자(脫字)로 보임.
51) 'ᄡᅡ'은 'ᄡᅡᆷ'의 'ㅁ'의 탈획(脫劃)으로 보임.
52) <飜老>에서는 '시욱간'임. '시으갓'은 '시욱갓'의 'ㄱ'이 탈획(脫劃)된 것으로 보임.
53) <飜老>에서는 '·ᄲᅧ·롣ᄒᆞᆫ'임.
54) <飜老>에서는 '총갇'임. '초으로 ᄆᆡ존 갓'의 '초으로'는 '총으로'의 'ㅇ' 탈획으로 보임.
55) <飜老>에서는 '분'임.
56) <飜老>에서는 '하ᄉᆞ'임.
57) <飜老>에서는 '소옴 미론 ᄃᆡ 드린 연지'임.
58) <飜老>에서는 '칰칰ᄒᆞᆫ'임.
59) <飜老>에서는 '굴근 햐근'임.
60) <飜老>에서는 '갈'임.
61) <飜老>에서는 '뫼화'임.
62) <飜老>에서는 '일ᄇᆡᆨ 발'임. '일가 ᄇᆞᆯ'은 '일ᄇᆡᆨ 발'의 오각으로 보임.
63) <飜老>에서는 '열 ᄌᆞᄅᆞ'임.
64) <飜老>에서는 '이러더러ᄒᆞᆫ 보로'임.
65) <飜老>에서는 '런ᄃᆡ'임.
66) <飜老>에서는 '됴'임.
67) <飜老>에서는 'ᄌᆞ디 셰토'임.
68) <飜老>에서는 '솔옷'임.
69) <飜老>에서는 '저욼 ᄃᆞ림'임.
70) <飜老>에서는 '저우렛 갈궁쇠임'.

現代譯 제103화 돌아가서 팔 물품을 사다(2)

[중국인] 내 자네들 데리고 자질구레한 물품을 사겠네.

[고려인] 상모(모자의 빨간 술) 일백 근, 도기 구슬로 만든 갓끈 오백 목, 마노구슬(瑪瑙 珠)의 갓끈 일백 목, 호박(琥珀)구슬 갓끈 일백 목, 옥(玉)으로 만든 갓끈 일백 목, 향료구슬(香料珠)의 갓끈 일백 목, 수정구슬(水晶珠)의 갓끈 일백 목, 산호구슬(珊瑚 珠)의 갓끈 일백 목, 큰바늘 일백 쌈, 가는 바늘 일백 쌈, 족집게 일백 개, 소목(蘇木)이 일백 근(斤), 털모자 일백 개, 끝이 뾰족한 종려(棕櫚) 나무 섬유로 짠 모자가 일백 개, 호박(琥珀) 정자(頂子) 일백 벌, 종려(棕櫚) 나무 섬유 갓이 일백 개, 분(粉) 이 일백 갑, 면연지(綿臙脂)가 일백 개, 밀납(蠟)에 든 연지가 일백 근, 소의 뿔로 만든 작은 함이 일백 개, 사슴뿔로 만든 작은 함이 일백 개, 수놓는 바늘이 일백 쌈, 대추나무로 만든 얼레빗이 일백 개, 황양목(黃楊木)으로 만든 얼레빗이 일백 개, 굵은 참빗이 일백 개, 빽빽한 참빗이 일백 개, 무두질한 양가죽으로 만든 바늘 통(針筒)이 일백 개, 크고 작은 칼이 합해서 일백 벌, 이중 칼집의 칼이 열 자루,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열 자루, 종이 자르는 가느다란 칼이 열 자루, 치마 허리에 차는 칼 열 자루, 다섯 가지 도구가 들어간 칼이 열 벌, 장기(將棋)가 열 벌, 바둑 열 벌, 쌍륙 열 벌, 다갈색 비단띠가 일백 줄, 자주색 명주로 짠 띠가 열 줄, 마구리를 맬 수 있는 배낭이 일백 개, 머리 깎는 칼이 일백 자루, 가위가 일백 자루, 송곳 일백 개, 큰 저울 서른 대, 작은 저울 열 대, 저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은 모두 관아에서 만든 것이고 저울대, 저울추, 눈금, 저울의 갈고리가 모두 있네.

原文 제104화 買零碎行貨

[高] 再買些纜木緜一百疋, 織金和素叚子[1]一百疋, 花樣叚子一百疋. 更有小孩兒們, 小鈴兒一 百箇, 馬纓[2]一百顆, 減鐵條環[3]一百箇. 更買些文書,[4] 一部四書,[5] 都是晦庵集註.[6] 又買一 部毛詩,[7] 尙書,[8] 周易,[9] 禮記,[10] 五

---

1) '織金和素叚子'는 언해에서 '금으로 ᄧᆞᆫ니와 밋 민비단'이다. '和'에 대해 '-와 밋'이라고 언해하여 의미가 중복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和素', '和織'이 여러 번 나왔으므로 '織金和素'의 '단자(段子)'로도 볼 수 있다. '和素', '和織'은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아서 미상(未詳)이다.

2) '馬纓'은 "말의 가슴에 달아두는 장식의 술"을 말한다. 당(唐) 한유(韓愈)의 「석정연구(石鼎聯句)」에 "烈士의 膽은 원만함이 戰馬의 纓과 같도다"라는 구절이 있어 장식의 술이 둥그런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條環'은 "허리띠에 매다는 고리"를 말한다. 허리띠에 주머니 등을 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元) 방회(方回) 『속고금고(續古今攷)』(권25) 「새인조수(璽印組綬)」에 "사대부(士大夫), 서민(民庶)이 옥(玉)으로 된 조환(條環)을 귀하게 여기며, …칠보(七寶)의 비도(篦刀,) 편대(便袋), 피혁(皮革)의 주머니를 잡패(雜佩)하여 없는 것이 없지만 모두 고제(古制)는 아님"이라는 구절이 있다.

4) '更買些文書 一部四書都是晦庵集註'를 <飜老>에서는 '更買些文書一部〇·ᄯᅩ 칙 ᄒᆞᆫ ·볼 :사ᄃᆡ 四書都是晦庵集註〇 四書·ᄅᆞᆫ :다 晦庵 :주·내·시·니·ᄅᆞᆯ ᄒᆞ·져'와 같이 '更買些文書 一部, 四書都是晦庵集註'로 띄었으나 이것은 '更買些文書, 一部四書, 都是晦庵集註.'와 같이 구절을 나누어야 한다.

5) '四書'는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말한다. 북송(北宋)의 정이(程頤)가 『예기(禮記)』 가운데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떼어내어 『논어(論語)』, 『맹자(孟子)』에 배치하고 『오경(五經)』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그 주석(註釋)을 썼던 때부터 주자학(朱子學)의 가장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사서(四書)가 인식되어 원대(元代) 이후는 과거 시험과목으로 『오경(五經)』과 더불어 사서가 등장하였다.

6) '晦庵集注'는 주희(朱熹)의 『사서집주(四書集注)』를 말한다. 즉, 『대학장구(大學章句)』, 『중용장구(中庸章句)』, 『논어집주(論語集注)』, 『맹자집주(孟子集注)』 등의 주자(朱子)가 사서(四書)를 주석(註釋)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회암(晦庵)'은 주희의 아호(雅號)다. 중국에서는 원(元)의 황경(皇慶) 3년(1314)에 과거(科擧)가 부활하였고 『사서(四書)』가 시험과목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注)』에 의거할 것으로 정하였다.

7) '毛詩'는 『오경(五經)』의 하나인 『시경(詩經)』을 가리킨다. 한대(漢代)에 모형(毛亨)이 텍스트를 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원대(元代)에는 주자(朱子)

子書,[11] 韓文柳文,[12] 東坡詩,[13] 詩學大成押韻, 君臣 故事,[14] 資治通

의 『시집전(詩集傳)』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과거시험에 있어서의 해석도 그것에 의할 것으로 정하였다.

8) '尙書'는 『오경(五經)』의 하나인 『서경(書經)』을 가리킨다. 원대(元代)에서는 주자(朱子)의 제자인 채침(蔡沈)의 『서집전(書集傳)』이 과거에 사용되었다.

9) '周易'은 『오경(五經)』의 하나인 『역경(易經)』을 가리킨다. 주대(周代)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원대(元代)에서는 정이(程頤)의 『역전(易傳)』과 주자(朱子)의 『주역본의(周易本義)』, 또는 이 둘을 합친 『정주이선생주역전의(程朱二先生周易傳義)』가 과거에 사용되었다.

10) '禮記'는 『오경(五經)』의 하나이다. 원대(元代)의 과거에서는 고주소(古注疏), 즉 한(漢)의 정현주(鄭玄注), 당(唐)의 공여달소(孔穎達疏)가 사용되었으나 오징(吳澄)의 『예기찬언(禮記纂言)』 등의 주석서가 나왔다. 덧붙여 말하면 여기서는 『오경(五經)』 가운데 『춘추(春秋)』가 빠졌다.

11) '五子書'는 제자(諸子)의 서(書)를 다섯 종(種)으로 나누어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찬도호주오자(纂圖互註五子)』(『노자(老子)』, 『장자(莊子)』, 『열자(列子)』, 『순자(荀子)』, 『양자법언(揚子法言)』, 또는 『장자(莊子)』나 『순자(荀子)』 대신에 『중설(中說)』이 들어간 것), 『오자서(五子書)』(『죽자(鬻子)』, 『갈관자(鶡冠子)』, 『자화자(子華子)』, 『이문자(伊文子)』, 『공손용자(公孫龍子)』) 등이 알려져 있으나, 현존의 텍스트는 모두 명대(明代)의 간행본이다. 다만 남송(南宋)의 경정(景定) 元年(1260)에 간행된 『육자서(六子書)』에는 『노자(老子)』, 『장자(莊子)』, 『열자(列子)』, 『순자(荀子)』, 『양자법언(揚子法言)』, 『문중자(文中子)』(『중설(中說)』)가 들어 있으며, 그 중의 오종(五種)을 원대(原隊)에 선택하여 간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12) '韓文柳文'은 당(唐)의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문집(文集)을 말한다. 남송(南宋)의 건안(建安-지금의 福建省 北部)의 출판업자인 위중거(魏仲擧)가 간행한 『오백가주음변창려선생문집(五百家註音辯昌黎先生文集)』과 같이 한문(韓文)과 유문(柳文)을 한 질로 모아놓은 것을 가리킬 것이다.

13) '東坡詩'는 송(宋) 소식(蘇軾)의 시집이다. '동파(東坡)'는 소식(蘇軾)의 호(號)이다. 소동파의 시집으로는 남송(南宋)의 왕십붕(王十朋)의 이름을 관(冠)하는 『왕장원집백가주분류동파선생시(王狀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에 원초(元初)의 유진옹(劉辰翁)이 비점(批點)을 매긴 책이 유명하며 원간본(元刊本)이 많이 남아 있다.

14) '君臣故事'는 군신(君臣)간의 일화(逸話)를 모아서 교훈으로 삼게 한 책을 말한다. 송(宋) 하송(夏竦)의 『문장집(文莊集)』 원서(原序)에 "어명(御命)이 있어 제유(諸儒)에게 군신고사(君臣故事)를 수집하게 함"이란 구절이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책의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서적은 몇 번이나 편찬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일본의 남북(南北) 시대의 오산판(五山版) 『분류합벽도상구해군신고사(分類合璧圖像句解君臣故事)』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가와세이치바(川瀨一馬)의 『오산판의 연구(五山版の研究)』에 의하면 원간본(元刊本), 혹

鑑,[15] 翰院新書,[16] 標題小學,[17] 貞觀政要,[18] 三國誌評話,[19] 這些貨物, 都買了也.

(飜老) 제104화 도라 가 ᄡᅳᆯ 황호ᄅᆞᆯ 사다(3)

[高] ·ᄯᅩ :굴·근 :무·면[20] ·일·빅 필·와, 금으·로 ᄧᆞ니[21]·와 ·밋 ᄆᆡᆫ :비·단 ·일·빅 필·와, 화 둔:비·단[22] 일빅 필·와, ·ᄯᅩ 아·ᄒᆡ·ᄃᆞᆯ:ᄒᆡ 효·ᄀᆞᆫ 방·올 ·일빅 :낫·과, ᄆᆞᆯ 솟동[23] ·일·빅 :낫 과, ·쇠예 ·입·ᄉᆞ혼 ·토환[24] 일·빅 ·나출 사·고, ·ᄯᅩ 칙 ᄒᆞᆫ ·볼 :사ᄃᆡ, 四書[25]·ᄅᆞᆫ :다 晦庵[26] :주·내·시·니·ᄅᆞᆯ ᄒᆞ·져. ᄯᅩ ᄒᆞᆫ·볼 모시, ·샹·셔, 쥬·역, ·례·긔, :오·ᄌᆞ셔, 한문:류 문, 동파시, 시혹 :대·셩·압·운, 군신:고·ᄉᆞ, ᄌᆞ·티통·감, :한원신셔, 표뎨:쇼·혹, 뎡관·졍요, 삼·국·지 평·화,[27] 사·져.

·이 ·황·호·ᄃᆞᆯ 다 ·사·다.

은 조선판(朝鮮版)의 복각(覆刻)이라고 한다. 이 책은 상반부에 삽화(挿花)가 있고 하반부(下半部)에 원문이 들어 있다.

15) '資治通鑑'은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역사서를 말한다. 주(周)의 위열왕(威烈王)부터 오대(五代) 후주(後周)의 세종(世宗)까지 1361년에 이르는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썼다. 전체 294권이나 되는 대작인데 일개 상인(商人)이 살 물건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아마도 그 축소판, 예를 들어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일 것이다.

16) '翰院新書'의 '院'은 '苑'의 잘못. 서간문 작성 시에 필요한 모범문례(模範文例)나 기타의 생활지식을 테마별로 분류한 책이다. 원(元) 원통(元統) 2년(1334)에 간행된 『신편한원신서(新編翰苑新書)』가 북경(北京) 도서관 등에 소장되었다.

17) '標題小學'의 『小學』은 북경도서관 소장의 원간본(元刊本) 『표제주소소학집성(標題注疏小學集成)』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18) '貞觀政要'는 당(唐) 오긍(吳兢)이 편찬한 정치서로서 당(唐) 태종(太宗)의 치적(治績)을 기술한 것이다. 원(元)의 과직(戈直)이 제가(諸家)의 주(註)를 모은 '집론(集論)'이 붙은 텍스트가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금원대(金元代)에 중요한 서적이었고 여진어, 몽고어로 번역된 것이 『금사(金史)』(권99)와 『원사(元史)』(권24)에 기록되었으며 몽고어 번역이 출판되었다는 기사가 『원사(元史)』(권36)에 보인다.

19) '三國志評話'는 중국의 삼국시대를 소재로 한 소설로서 현재 알 수 있는 한 가장 이른 시기의 책이다. 뒤에 나온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내각문고(內閣文庫)에 원(元)의 지치년간(至治年間, 1321~1323)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가 간행한 『지치신간전상평화삼국지(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 3권이 소장되었다. 이 책도 위에는 그림이고 아래는 본문이 들어 있는 삽회본(挿繪本)이다. '平(評)話'는 강담(講談)에 기원을 둔 역사소설을 말한다.

20) ':무·면'은 원문 '木緜'을 말하는 것인데 "무명, 목화실로 짠 옷감"을 말한다.

21) '금으·로 ᄧᆞ니'는 원문 '織金'을 말하는 것으로 "금실을 넣어서 짠 비단"을 말함.

22) '화둔 :비·단'은 원문 '花樣叚子'를 언해한 것으로 '화문 :비·단'의 탈획(脫劃)으로 보인다. '화문(花紋) 비단'은 "꽃 모양의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말함.

(老諺) 제104화 도라 가 ᄡᅳᆯ 황호ᄅᆞᆯ 사다(3)

[高] ᄯᅩ 굴근 목면[28] 일빅 필과[29] 금으로 ᄧᆞ니와 ᄆᆡᆫ 비단 일빅 필과, 화문[30] 비단 일빅 필과, ᄯᅩ 아ᄒᆡ돌희 효근 방올 일빅 낫과, ᄆᆞᆯ 솟동 일빅 낫과, 쇠예 입ᄉᆞ혼 툐환 일빅 낫 출 사고, ᄯᅩ 칙 ᄒᆞᆫ 불을 사되, 四書란 다 晦庵註 낸 이ᄅᆞᆯ ᄒᆞ쟈. ᄯᅩ ᄒᆞᆫ 불 毛詩, 尙書, 周易, 禮記, 五子書과 韓文柳文, 東坡詩, 詩學大成押韻, 君臣故事과 資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誌評話를 사쟈.

이 황호ᄃᆞᆯ 다 사다.

23) 'ᄆᆞᆯ 솟동'은 "말의 가슴걸이(纓)"를 말함. 주2 참조. "纓 긴 영 又 ᄭᅮ리 曰纓兒 又 솟동 曰纓"(『訓蒙字會』 중:12) 참조.

24) '·토환'은 '條環'의 차용으로 "허리띠에 매다는 고리"를 말한다. 주3 참조.

25) '四書'는 주5 참조.

26) '晦庵'은 주6 참조.

27) 이것은 '모시, ·샹·셔, 쥬·역, ·례·긔, :오·ᄌᆞ셔, 한문 :류문, 동파시, 시혹 :대·셩·압·운, 군신:고·ᄉᆞ, ᄌᆞ·티통·감, :한원신셔, 표뎨:쇼·혹, 뎡관·졍요, 삼·국·지 평·화'는 각기 "毛詩, 尙書, 周易, 禮記, 五子書, 韓文柳文, 東坡詩, 詩學大成押韻, 君臣故事, 資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誌評話"를 말한다. 이 각각에 대하여는 주7~19를 참조할 것.

28) <飜老>에서는 '무면'임.

29) <飜老>에서는 '필와'임.

30) <飜老>에서는 '화둔'임.

(現代譯) 제104화 돌아가서 팔 물품을 사다(3)

[고려인] 또 다시 굵은 무명 100필과, 금을 넣어 짠 무늬 없는 비단 일백 필과, 또 아이들 의 작은 방울이 일백 개, 말의 턱 아래 가슴걸이 일백 개, 쇠에 입사(入絲)한 허리띠 고리를 일백 개를 사고, 또 책을 한 벌 사되『사서(四書)』는 모두 회암(晦庵-朱子의 호)이 주(註)를 내신 것으로 삽시다. 또 한 벌『모시(毛詩)』,『상서(尙書)』,『주역(周易)』,『예기(禮記)』,『오자서(五子書)』,『한문유문(韓文柳文)』,『동파시(東坡詩)』,『연원시학압운(淵源詩學押韻)』,『군신고사(君臣故事)』,『자치통감(資治通鑑)』,『한원신서(翰院新書)』,『표제소학(標題小學)』,『정관정요(貞觀政要)』,『삼국지평화(三國志評話)』를 사겠소.

이들 물품을 모두 샀구나.

(原文) 제105화 筭卦

[高] 我揀箇好日頭迴去. 我一發待筭一卦去. 這裏有五虎先生, 最筭的好. 咱們那裏筭去來.

—到那卦鋪裏坐定, 問先生—

[高] 你與我看命.

[五] 你說將年月日生時來.

[高] 我是屬牛[1]兒的, 今年四十也, 七月十七日寅時[2]生.

---

1) '屬牛'는 "소띠에 속한다"는 뜻이다.『老乞大』가 편찬된 것은 원대(元代) 말기(末期)이며 충목왕 2년(丙戌, 1346)에 중국을 여행한 고려인의 저작으로 추정되기 때문에(정광:2002) 주인공이 소띠로서 40세라면 대덕(大德) 5년(1301, 辛丑)생이 된다. 편찬자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주인공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五] 你這八字十分好. 一生不少衣祿,[3] 不受貧. 官星沒有, 只宜做買賣, 出入通達.[4] 今年交大 運[5]丙戌. 已後財帛大聚, 强如已前數倍.

[高] 這們時, 我待近日迴程, 幾日好?

[五] 且住. 我與你選箇好日頭.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是天干,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是地支. 建除[6]滿平定執破危成收開閉, 你只這二十五日起去, 寅時往東迎喜神[7]去, 大吉利. 五分卦錢留下着.

제49화에서는 주인공이 32살로 나타나므로 여기서의 화자는 사촌형의 김(金)이거나 또는 제49화에서 주인공이 나이를 거짓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2) '寅時'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를 말한다.

3) '衣祿'은 의복(衣服)의 운(運)이란 말이지만 보다 넓게는 의식(衣食) 전반을 가리킨다. 요(遼) 야율순(耶律純)의『성명총괄(星命總括)』(권上)에 "삼합공조(三合拱照)하면 一生 衣祿이 모자라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다. 야율순(耶律純)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고려(高麗)에 사신(使臣)으로도 가고 고려의 국사(國師)로부터 '道德星命의 學'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4) '出入通達'은 주로 여행의 무사함을 말하는데 장사에서의 번창을 의미하기도 한다.『설인귀(薛仁貴)』「잡극(雜劇)」4折 '신수령(新水令)'에 "甚的是出入通達-무엇이 '출입통달(出入通達)'이란 말인가"라는 구절이 있고『분아귀(盆兒鬼)』「잡극(雜劇)」1折 '작도기(鵲踏枝)'에 "單注着買賣和合, 出入通達 —장사 번성, 출입통달(出入通達) 틀림없다—"란 대사가 있다.

5) '大運'은 10년을 단위로 하는 운세를 말하고 각각 간지명(干支名)을 붙인다. 그 계산 방법은 생년의 천간(天干)이 음양(陰陽)에 따라 순행(順行)과 역행(逆行)이 결정되며 거기에 태어난 월일(月日)을 기초로 계산하여 운세가 결정된다. 자세한 것을『老覽』(『老覽』下: 4앞)에서『오행정기(五行精紀)』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오행정기(五行精紀)』는 송(宋) 진진손(陳振孫)의『직제서록해제(直齊書錄解題)』(권12)에 "『오행정기(五行精紀)』(34권), 청강향공진사(淸江鄕貢進士) 요중(廖中) 찬(撰), 주(周) 익공(益公)이 이를 위하여 서(序)하였는데 제가삼명(諸家三命)의 설(說)을 모음"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거의 같은 것이 송(宋) 왕정광(王廷光) 등이 주석(註釋)한『낙록자부주(珞琭子賦注)』(권上)에 게재되었다.

6) '建除…'는 十二支와의 대응에 따라 吉凶을 점치는 "建除法"을 말한다.『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 보인다.

7) '喜神'은 옛날에는 星相家들이 '吉神'을 '喜神'이라 하였다. 宋 나라 때는 '畵像'을 속어로 '喜神'이라 하기도 하였다. '喜神'에 대하여『老覽』(하:4뒤)에서는 明 鄺璠(광번)의『편민도찬(便民圖纂)』을 인용하여, '甲己寅卯는 喜, 乙庚辰戌은 强. 丙辛申酉는 上, 戊癸巳亥는 良, 丁壬午未는 好, 此是喜神의 方'이라고 말한다.『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병집(丙集)」에도 '喜神을 찾는 方'이라고 있다.

―各自散了―

飜老 제105화 츄명ᄒᆞ라 가다

[高] ·우·리 :됴·ᄒᆞᆫ ·ᄂᆞᆯ ᄀᆞᆯ·희·어 도·라가·져. :내 이·믜·셔 음양·ᄒᆞ·야[8] 가·고·져 ·ᄒᆞ노·라. 여·긔 잇는 :오·호 션ᄉᆡᆼ이 ᄀᆞ장 츄·명[9] 잘 ·ᄒᆞᄂᆞ·니 ·우·리 더·긔 츄:명ᄒᆞ·라 가·져.

―더 츄:명·ᄒᆞ·ᄂᆞᆫ 져·재 ·가 안·자·셔 션ᄉᆡᆼᄃᆞ려 무·로·ᄃᆡ―

[高] :네 :날 :위·ᄒᆞ·야 ·ᄑᆞᆯ·ᄌᆞ[10] 보·고·려.

[五] 네 난 ·ᄒᆡ :ᄃᆞᆯ ·날 ·ᄣᅢ 니ᄅᆞ·라.

[高] ·내 ·쇼 ·ᄒᆡ[11]로·니 올·히 마·ᅀᆞ니오[12] ·칠·월 ·열 닐·웻 ·날 인시·예 ·나·라.

[五] 네 이 ·팔·ᄌᆞ ᄀᆞ·장 :됴·타. ·일ᄉᆡᆼ·애 ·옷 ·밥·이[13] 난ᄇᆞ·디 아·니ᄒᆞ·고 간난·티[14] 아·니 ᄒᆞ·려니와 벼·슬홀 셩·슈[15]·ᄂᆞᆫ :업·다. 오·직 훙졍:호·미 ·맛·당ᄒᆞ·고 나·드·리 :홈·도 ·훤 출·타[16] 올·히 :대·운[17]·이 :병·슐·에 다ᄃᆞ라 이시·니 ·이:후·애·ᄂᆞᆫ :쳔량·이 :만히 모·다[18] ·이·젼 :수 두고·셔 더으·리로·다.

8) '음양·ᄒᆞ·야'는 "점을 치러"의 뜻.
9) '츄·명'은 "추명(推命), 점(占)"을 말함.
10) '·ᄑᆞᆯ·ᄌᆞ'는 "팔자(八字), 사주팔자, 사람의 운명"을 말함.
11) '쇼ᄒᆡ'는 '쇼(牛) + ᄒᆡ(年)'의 형태 결합으로 "소해에 태어난, 소띠"의 뜻.
12) '마·ᅀᆞ니오'는 '마·ᅀᆞᆫ(四十) + -이오(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며 "마흔 살이고"의 뜻.
13) '·옷 ·밥·이'는 원문 '衣祿'을 직역한 것으로 "의식(衣食)이, 생활이"의 뜻.
14) '간난·티'는 "간난(艱難)하지, 가난하지"의 뜻.
15) '셩·슈'는 "성수(星數), 운수(運數)"를 말함.
16) '·훤출·타'는 "헌칠하다, 막힘이 없고 깨끗하고도 시원하다"의 뜻.
17) ':대·운'은 "대운(大運)"을 말함. 주5 참조.
18) '모·다'는 '몯-(聚) + -·아(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모이어, 모여서"의 뜻.

[高] ·이·러ᄒᆞ·면 ·내 요ᄉᆞ·ᅀᅵ 도로 가·고·쟈 ᄒᆞ·니 며·ᄎᆞᆺ ·나·리[19] :됴ᄒᆞᆫ·고?

[五] 아·직 날회·라. ·내 너 :위·ᄒᆞ·야 :됴·ᄒᆞᆫ ·날 ᄀᆞᆯ·ᄒᆡ요마. '·갑·을:병·뎡:무·긔경신:싐:계'·ᄂᆞᆫ 텬간이오 '·ᄌᆞ·튝인:묘진·ᄉᆞ:오:미신·유·슐·ᄒᆡ'·ᄂᆞᆫ ·디지·라. ':건뎨:만평:뎡집·파위셩슈긔 폐'·예, :네 :이 ·스·므 닷·쇗·날 ·나:가·ᄃᆡ, 인시[20]·예 동:향[21]·ᄒᆞ·야 喜神[22] 마·자 가·면 :대·길ᄒᆞ·리·라. 음양 ·갑·슬 은 ·닷 ·분·만 두·라.

―·각·산·ᄒᆞ·야·다―

老諺 제105화 츄명ᄒᆞ라 가쟈

[高] 우리 됴ᄒᆞᆫ 날 ᄀᆞᆯᄒᆡ여 도라가쟈. 내 임의셔 음양ᄒᆞ여 가고져 ᄒᆞ노라. 여긔 五虎先生이 이시니,[23] ᄀᆞ장 츄명을 잘ᄒᆞᄂᆞ니라. 우리 뎌긔 츄명ᄒᆞ라 가쟈.

―뎌 츄명ᄒᆞᄂᆞᆫ 져제 가 안자셔 先生ᄃᆞ려 무로되―

[高] 네 날 위ᄒᆞ여 필ᄌᆞ[24] 보고려.

[五] 네 난 ᄒᆡ, ᄃᆞᆯ, 대를[25] 니ᄅᆞ라.

[高] 내 쇼ᄒᆡ로니 올히 마은[26]이오 칠월 열 닐웻 날 인시에 낫노라.[27]

19) '며·ᄎᆞᆺ ·나·리'는 '며·ᄎᆞᆯ(幾) + -ㅅ(사이 ㅅ) + ·날(日) + -·이(주격)'의 형태구성으로 사이 ㅅ 앞에서 '며·ᄎᆞᆯ'의 'ㄹ'이 탈락되었다. 이 현상은 이 시대에 매우 왕성하게 일어났다.
20) '인시'는 "인시(寅時),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를 말함.
21) '동:향'은 "동향(東向), 동쪽으로"의 뜻.
22) '喜神'은 주6 참조.
23) <飜老>에서는 '여·긔 잇는 :오·호 션ᄉᆡᆼ이'임.
24) '필ᄌᆞ'는 '팔ᄌᆞ'의 탈획(脫劃)으로 보임.
25) <飜老>에서는 '·ᄣᅢ'임. 'ᄶᅢ'의 오각으로 보임.
26) <飜老>에서는 'ᄆᆞᅀᆞᆫ'임.

[五] 네 이 팔ᄌᆡ ᄀᆞ장 됴타. 一生에 옷 밥이 낫브디 아니ᄒᆞ고 가난티 아니ᄒᆞ려니와 官星[28]이 업스니[29] 오직 買賣ᄒᆞ기[30] 맛당ᄒᆞ고 츄입[31]이 통달ᄒᆞ다.[32] 올히 대운이 丙戌에 다ᄃᆞ라시니[33] 이후에ᄂᆞᆫ 쳔량이 만히 모다 이젼 수도곤[34] 나음이 빈ᄒᆞ다.[35]

[高] 이러면[36] 내 요ᄉᆞ이[37] 도로 가고져 ᄒᆞ니 몃츤 날이 됴ᄒᆞᆫ고?

[五] 아직 날회라. 내 너 위ᄒᆞ여 됴ᄒᆞᆫ 날 ᄀᆞᆯ희쟈.[38]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ᄂᆞᆫ 이 텬간이오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ᄂᆞᆫ 地支라, '建除滿平定執破危成收開閉'예 네 이 스므 닷쇗 날 나가되 인시예 동향ᄒᆞ야 喜神을 마자 가면 대길리ᄒᆞ리라.[39] 음양갑 五分[40]을 두라.

—각각 ᄒᆞ터디쟈—

現代譯 제105화 운수(運數) 보러 가자

[고려인] 내가 이제 점치러 가고자 하네. 이 근처에 계신 오호(五虎) 선생이 운수(運數)를 잘 본다고 하니 우리 거기로 점치러 가보세.

27) <飜老>에서는 '나라'임.
28) <飜老>에서는 '벼ᄉᆞᆯᄒᆞᆯ 셩슈'임.
29) <飜老>에서는 '업다'임.
30) <飜老>에서는 '홍졍호미'임.
31) <飜老>에서는 '나드리 홈'임. '츄입'은 '출입(出入)'의 탈획(脫劃)으로 보임.
32) <飜老>에서는 '훤찰타'임.
33) <飜老>에서는 '다ᄃᆞᄅᆞ 이시니'임.
34) <飜老>에서는 '수 두고셔'임. '수도곤'은 "수보다"의 뜻.
35) <飜老>에서는 '더으리로다'임.
36) <飜老>에서는 '이러ᄒᆞ면'임.
37) <飜老>에서는 '요ᄉᆞᅀᅵ'임.
38) <飜老>에서는 'ᄀᆞᆯ히요마'임.
39) <飜老>에서는 ':대·길ᄒᆞ·리·라'임.
40) <飜老>에서는 '닷분'임.

—그 운수 보는 가게에 가서 앉아서 점쟁이에게 묻는다—

[고려인] 당신 나를 위하여 팔자를 보아 주시오.

[점쟁이] 당신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과 생시를 말씀하시게.

[고려인] 나는 소띠이고, 올해가 마흔입니다. 7월 17일, 인시(寅時)에 태어났소이다.

[점쟁이] 당신의 팔자는 참으로 좋네. 일생 동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나쁘지 않고 가난하지는 않겠지만 벼슬할 운수는 없소. 오직 장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행하는 것도 모두 순조로울 것이오. 금년은 대운(大運)이 병술(丙戌)에 도달하였으니 이후에는 재산이 많이 모아져서 예전보다 몇 배가 더할 것이오.

[고려인] 그렇다면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며칠이 좋겠소?

[점쟁이] 우선 기다리시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날을 골라 주겠네. '갑을병정무기경신 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는 천간(天干)이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 辰巳午未申酉戌亥)'는 지지(地支)일세. '건제만평정집파위성수개폐(建除滿平定執破危 成收開閉)'하면 당신은 스무 닷새에 떠나되 인시(寅時)에 동쪽으로 희신(喜神)을 맞아서 가면 대길(大吉)할 걸세. 복채를 닷 분만 놓으시오.

—각각 헤어진다—

原文 제106화 再見

一到二十五日起程, 辭別那漢兒火伴. 已前盤纏[1]了的火帳,[2] 都筭計明

1) '盤纏'은 "여비"를 말함. 이에 대하여는 제9화 주5를 참조.
2) '火帳'의 '火'는 "동행, 또는 합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장(火帳)'은 "동행끼리 합쳐서 적은 장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금액을 가리킨다. 제17화 이래로

白

[高] 大哥, 我們廻去也, 你好坐的着. 我多多的定害你, 你休怪. 咱們爲人, 四海皆兄弟,[3] 咱們 這般做了數月火伴, 不會面赤. 如今辭別了, 休說後頭再不廝見. 山也有相逢[4]的日頭, 今後 再廝見時, 不是好弟兄那甚磨?

(飜老) 제106화 우리 도라 가노소라

—·스·므 닷·쐣 ·나·리어든[5]—

[高] ·츌힝ᄒᆞ·져. ·뎌 강남[6] 동·모·의게 :하딕ᄒᆞ·져. :이젼에 ·ᄡᅳ·고 ·뎌·근 것ᄃᆞᆯ :다 명:빅·이 :혜·져.

[高] 큰형아! ·우·리 도·라 ·가·노소·라. :네 :됴·히 잇·거·라. ·우·리 네거·긔 :만·히 :해·자 :ᄒᆡ·와·라.[7] :네 허·믈 :말·라. ·우·리 :사·ᄅᆞ·미 ᄃᆞ외·여·셔 :ᄉᆞ·ᄒᆡ :다 형뎨·어·니ᄯᆞ·나. ·우:리 이·러·ᄐᆞ·시 ·두·ᅀᅥ ·ᄃᆞᆯ 동모 지·ᅀᅥ·셔 ᄂᆞᆾ 블기·디 아·니ᄒᆞ·고 ·이·제 여·ᄒᆡ·여[8] ·가 노·니 :후·에 ·다·시 서르 :몯 보·리라 ·ᄒᆞ:야 니ᄅᆞ·디 :말라. :뫼·토 서ᄅᆞ 맛볼[9] ·나·리 잇ᄂᆞ·니 ·일:록[10] 후에 다·시 서르 보·면 :됴·ᄒᆞᆫ 형·뎨 아·녀 므스 거·시리·오?

(老諺) 제106화 우리 도라가노라

—스므 닷쐣 날 다ᄃᆞ르면[11] 起程ᄒᆞ리니[12]—

[高] 뎌 漢ㅅ 벗[13]의게 하딕ᄒᆞ쟈. 이젼의 ᄡᅳ고 뎌근 것들 다 혜기를 明白히 ᄒᆞ쟈.[14]

[高] 큰형아! 우리 도라 가노라.[15] 네 됴히 안자 잇거라. 우리 네게[16] 만히 해자ᄒᆞ과라.[17] 네 허믈 말라. 우리 사ᄅᆞᆷ이 도여셔[18] 四海 다 형뎨어니ᄯᆞ녀. 우리 이러ᄐᆞ시 두어 ᄃᆞᆯ 벗 지어셔 ᄂᆞᆾ 블키디 아니ᄒᆞ엿더니 이제 ᄉᆞ별ᄒᆞ거니와[19] 후에 다시 서르 보디 못ᄒᆞ리라[20] 니르디 말라. 뫼도[21] 서르 맛나는[22] 날이 잇ᄂᆞ니 일록 후에 다시 서ᄅᆞ 보면 ᄒᆞᆫ됴 형뎨 아니랴 므서시리오?[23]

고려 상인들이 대주고 있던 왕객(王客), 즉 같이 동행한 한인(漢人) 상인의 비용을 여기서 모두 정산한 것이 된다.

3) '四海皆兄弟'는 『논어(論語)』「안연편(顔淵編)」에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인 자하(子夏)가 한 말로서 "四海之內皆兄弟也-사해 안은 모두 형제로다-"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4) '山也有相逢'은 "산처럼 부동(不動)한 것도 천변지이(天變地異) 등으로 인하여 꼭 두 산이 하나가 될 날이 있다"는 것으로, 재(再)를 기(期)할 때의 상투(常套)적 표현(表現)이다. 『금전기(金錢記)』「잡극(雜劇)」 2(절(折) [살미(煞尾)]에 "山也有相逢石也穿 —산도 만나고, 돌도 꿰뚫게 된다—"이라고 있고, 또 『동서상(董西廂)』(권8)에 "故人青山喜重期 —故人과 青山은 겹쳐 期함을 기뻐함—"이라고 있는 것도 같은 발상(發想)이다.

5) 이 부분은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었는데 번역자는 대화로 이해하고 그렇게 언해하였다. 이번 역구에서는 <飜老>의 언해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역자와 같이 고려인의 대화로 처리하였다.

6) '강남'은 "강남(江南), 중국"을 말함.

7) ':해·자 :ᄒᆡ·와·라'는 "폐를 끼쳤다, 소비를 시켰다"의 뜻.

8) '여·ᄒᆡ·여'는 "헤어져, 이별하여"의 뜻.

9) '맛볼'은 "만나 볼, 상봉할"의 뜻.

10) '·일:록'은 "이로부터"의 뜻.

11) <飜老>에서는 '나리어든'임.

12) <飜老>에서는 '츌힝하져'임.

13) <飜老>에서는 '강남 동모'임.

14) <飜老>에서는 '명:빅·이 :혜·져'임.

15) <飜老>에서는 '가노소라'임.

16) <飜老>에서는 '거긔'임.

17) <飜老>에서는 '해자ᄒᆡ와라'임.

18) <飜老>에서는 'ᄃᆞ외여셔'임.

19) <飜老>에서는 '여ᄒᆡ여 가노니'임.

20) <飜老>에서는 '몯 보리라'임.

21) <飜老>에서는 '뫼토'임.

22) <飜老>에서는 '맛볼'임.

23) <飜老>에서는 '아녀 므스 거시리오'임.

現代譯 제106화 우리 돌아갑니다.

—스무 닷새 날이 되어—

[고려인] 출발하자. 저기 한인(漢人) 동행에게 하직하자. 이전에 쓰고 적은 것들을 모두 명백하게 계산하자.

—한인 동행에게—

[고려인] 형님, 우리는 돌아갑니다. 형님, 잘 있으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많이 폐를 끼쳤습니다. 당신은 부디 허물하지 마시오.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사해(四海)가 모두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두어 달 동무가 되어서 동행을 했으나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고 이제 헤어져 가지만 후에 다시 서로 못 보리라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산(山)도 서로 만날 날이 있으니 이로부터 다음에 다시 서로 보면 좋은 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老乞大 下—

제3장 원문 각주 색인

㉠

家計 363
可憐見 44
街坊 87, 363
家事 159
家生 269
加五 82
可知 61
揀口 379
間壁 101
秆草 92
羯羊 286
喝風 100
減金 372
敢不中 133
敢 97
鬧口 308
開手 380
箇 64
客人 272
乾按酒 336
乾 119
建除 423
繳計 82
隔話 88
見識 176
絹子 77
結相識 359
更頭 107
經緯 398
繫腰 371
姑舅哥哥 87
高唐 77
高麗地面 57
孤朋狗党 363
高些箇射 332
高低 68, 387
庫車 328
顧眄 359
公公 322
工課 49
空房子 220
控 110
騍馬 252
過賣 202
鍋竈 220
館待 245
官司口舌 359

官長 357
官店 72
罐 159
官尺 303
灌肺 336
攪擾 162
較 345
膠漆 320
口硬 254
勾當 64
口軟馬 254
鉤子 413
裙刀 413
君臣故事 419
弓兵 122
弓箭撒袋 318
弓把 311
近遠 173
根底 48
斤 69
器械 124
氣力 311
吉慶店 226

㉡

那裏 277
那邊 71
那些箇 173
那與 183
耐繁 60
年五歲 271
老娘娘 180
爐裏 202
奴婢 363
老小 180
綾子 77

㉢

茶褐 368
段子 290
端的 298
達達 176
淡飯 151
對句 49
大嫂 111
大運 423
撢肉 339
大紅織金 291
渡江處 179
都賣 226
到的 44
刀 96
倒提雲 376
稻草 92
桃紅雲肩 291
桃花馬 252
東昌 77
東坡詩 420
銅盔 140
頭口 72, 76
頭到明 190
兜頦 308
鈍馬 253
等子十連 413
等候來 44
鐙鞦皮 308

㉣

鑼鍋 320, 357
蠟月 327
兩箇 258

量 151
驢騾大車 329
鹿角樸頭 317
轆轤 127
鹿頂盒 412
鬧裝 372
料 110
樓子車 328
柳葉 317
柳靑膝欄 291
柳靑紵絲 302
六箇人 331
栗色馬 251
肋條 101
綾絹綿子 81
利家 299
立地 247

㉤

馬牽着 356
馬契 272
馬歲 248
馬市 72
磨硯 254
馬纓 418
磨拖 199
饅頭 337
慢窴 77
賣的 311
賣酒 207
脈息 343
綿臙脂 412
面子上的角 312
免帖 53
免打三下 54
面皮 359

明星 196
名聲 362
毛詩 418
毛施 65
帽子 374
沒來由 257
文書 49
迷針箭 317
密笓子 413

㉥

盤問 180
盤子 320
盤纏 77, 359, 427
發落 226
潑男女 363
拔水 127
拔 110
房子 356
放着 388
房親兩姨 87
幇閑 363
房火錢 107
背起 53
背念書 53
排門粉壁 170
拜揖 92
白馬 251
白煮 380
番悔 269
餅 101
步 173
福分 351
不揀怎生 176
不渴睡 190
附帶 354

扶侍 357
不曾 44
浮沉 33
不快 180
粉飾 304
粉 412
分 68
粉湯 336
不當 159
棚 151
肥 101
比甲 368
比及 104
笓子 413
鈚子 317
檳榔丸 344

㊈

寫做書 49
四書 418
些小 48
舍人 380
社長家 162
捨 226
私稱 388
斜皮 413
卸下 312
麝香褐膝欄 291
四花 368
山東 77
山東濟南府 272
酸棗林 122
撒蹶的馬 253
三脚 320
三國志評話 420
三條路 351
三捌兒 332
商量 93
尙書 419
相識人 68
上下厮 248
相合 92
澁 115
生受 165
省的 48
石槽兒 127
騸馬 250
騸 248
說書罷 53
醒酒湯 379
省會 176
細褶 303
洒子 127
細摺 368
蘇木 412
燒餅 202
消痞丸 344
小厮 61
弰兒 312
小人 87
梳子 412
小的 164
燒珠 412
小學 420
小紅 81
騸牛 422
鎖羅靑馬 251
睡覺 193
守口子 179
受禮 211
繡膊馬 251
繡銀條紗 368
熟癩 254
順城門 72
膝欄 368
濕麵 201
艘 124
升 77
是 136
神芎丸 344
新近 176
身己 44
新羅參 233, 387
深靑織金胸背 299
什物 320
十分 101
雙鞘 413

◎

兒馬 250
我先去 193
牙稅 82
牙子 247
鴉靑 82
鵝黃四雲 291
鞍橋子 308
鞍轡 364
眼生馬 253
鴈翅板 308
安樂 44, 349
鞍子 364
鴈爪 377
安置 127
安下 72
安下着 217
央 183
艾葉 317
爺娘 57
夜來 44
兩(냥) 68
羊市角頭 271
兩耳鍋 320
兩姨兄弟 87
羊脂玉 372
魚子 398
如今 43
如法 115
鷰色馬 251
年時 69
劣馬 253
塩瓜 151
營生 363
禮記 419
穢語 87
五明馬 252
五事兒 413
烏犀 372
五軟三下鍋 336
五子書 419
溫克 60
瓦店 71, 92
頑的 61
歪厮纏 176
外路 304
外甥女婿 323
料物 104
料水 111
遼陽 64
辱磨 363
牛角盒 412
藕菜 337
雲南氈 375
元買 269
遠垜子 331
月盡頭 44
由他 156, 332

六箇馬 76
肉案 101
銀褐 308
吟詩 49
衣祿 423
義州 57
李舍 230
二尺 115
人口 363, 380
人叫喚有 332
寅時 44
印信文引 172
印子 388
一斗 69
一發 107
一總 268
一就 65
一統天下 57
一和 111

ⓩ

紫條 413
孳畜頭口 363
資治通鑑 418
嚼子 149
雜使刀子 413
粧孤 380
將功折過 54
張三 272
醬水 104
張 311
將就 354
裁衣尺 303
在下人 357
紵糸 368
羝羊 286
這湯 202
赤根 337
赤馬 251
糴 149
前年 119
纏帶 119
錢物 119, 359
錢本 115
前失的馬 253
痊痾 237
猠皮 377
折辨 387
折本 213
點心 379
(兹+瓦)楪子 320
接風 245
貞觀政要 420
頂子 412
正賊 119
精 111
停 226
整齊 131
定害 159
濟寧府 77
弟兄 87
早起 183
早裏 332
遭兒 136
槽兒平 131
糶 164
羶胡羊 286
條環 418
椶帽 412
鬉眼 372
種火 114
坐的 131
坐車兒 328
做客 156
主見 57
主顧生活 320
主兒 226
周易 419
住坐 271
重意 151
衆親眷 322
蒸餅 336
脊 68
地頭 81, 398
只是 61
知他 44, 408
直沽 85
直身 303
眞的假的 405
迭不得 104
疾快 100

ⓩ

車網子 328
茶飯 151
車廂 328
車轅 328
差 124
車梯 328
車釧 328
車鐧 328
竄到 332
竄行的馬 253
咱 57
參 193
唱的人家 380
菜玉 372
天靑紵絲 374
天靑胸背 291
天平地平 263
撤簽 53
簽筒 53
粘 307
靑羅 367
靑馬 248
靑白馬 252
淸水 304
體例 88
草料 76
貂鼠 374
初一日 43
稍子 398
草店 206
僦倸 380
鞦 307
麤倂 315
出入通達 423
出疹子 237
驟面間 151
七月初頭 236

ⓚ

快 96

ⓣ

他不肯 97
打水 136
打火 100
托 303
涿州 284
脫脫灑食 336
脫套換套 367
搭胡 367
太医 343

土搭的橋 146
土黃馬 251
通滾 82
通布裹 320
嚏噴來 237
団擅湯 336

㉬

罷, 罷 263
芭籬門 231
把穩 405
怕 93
破臉馬 252
板褶 369
板鞔 146
便當 72
編細 311
平人 119
布價 68
舖家 387
捕盜官 122
鋪陳 356
包彈 311, 399
瓢兒 140
風刃 97
鞁了 146
匹 81

㉭

下馬處 356
下飯 101
下上豆子 97
荷葉鍋 320
夏店 168
下處 196
荷包 413
學堂 49
學文書 48
學長 61
韓文柳文 419
漢兒言語 48
翰院新書 420
閑坐的 322
汗替 308
合口 213
海帶 337
害風 261
行動 218
行不得 354
響樸頭 317
香油 104
許多 97
虛請 323
弦子 380
兄弟們 236
好去者 146
好生 61
毫星 413
胡 151
衚衕 136
虎爪 317
紅纓 411
紅漆匙 320
貨物 385
火伴 64
花押 54
火帳 427
和草 131
花搭步 253
環眼馬 253
換錢 213
還 257
豁鼻馬 252
黃馬 251
謊廝 380
黃樺弓 311
孈子 236
懷駒馬 253
廻性 311
晦庵集注 418
後晌 217
休小了 332
黑馬 251
黑鬃馬 251
興兒 159
興 151
喜神 423
喜鵲兒噪 237
粆糖 337
脿 226
帣帶 413

제4장 언해문 각주 색인

㉠

:가·개 152
:가·듸·여 94
가·라 간·쟈 ·ᄉᆞ·족·빅 255
가·라ᄆᆞᆯ 255
가·ᄅᆞᆫ ·뵈·예 394
가·ᄂᆞᆫ ·뵈 83
가·ᄉᆞ:며·디 131
가ᄅᆞ ·ᄢᅡ 375
가리·운ᄆᆞᆯ 254
가맛 우ᄒᆞᆯ 105
·가 ·셔·실 285
·가·ᄉᆞᆷ거·리 309
·각·산ᄒᆞᆯ 339
간:대·로 152
간:대·옛 :말 94
간·쟈ᄆᆞᆯ 255
간난·티 424
간난ᄒᆞᆫ 116
간슈ᄒᆞ·고 358
·갇 377
·갇·긴 414
·갈갈이 372
갈궁·쇠 415
갈·믈 355
감·ᄌᆞ 340
:감·차·할 370
:감·차할 련·ᄃᆡ 415
:감·찰 ·스·편 문 :비·단 294
갓·고·로 377
갓어·치 310
갓 125
강남 428
갸·품 377
거:싀 123
거·ᅀᅳ 116
거리살 318
게 ·와 120
:경·미·오 70
고 280
·고 378
고·디시·근 257
·고·라ᄆᆞᆯ 255
고·래 125
·고·로 294
:고·리 137
·고 ·뻔 ᄆᆞᆯ 255
고·재 313

고돌·개 309
곡도숑 370
·골·치 120
골·회·눈·이 255
곳 사·관 373
공·골몰 252
과·ᄒᆞ- 294
과골이 400
구:쉿·터·히 144
구:의 120
구·렁몰 252
·구·름 여슷·곰문 370
:구·셔·렛 ·의·글 360
구·ᄌᆞ·씌 372
구·ᄌᆞ 180
구위좋·과 360
구으·러·디·거·늘 123
구으·리혀·료 137
구의로 171
구윗 ·자·호·로·ᄂᆞᆫ 304
구윗·옥·애 125
:구·품 은 403
:굵·고 ·곳 다ᄅᆞᆫ :실 295
·굽 ·ᄀᆞ·리·ᄂᆞᆫ 몰 256
궁더둥·개 318
:권·ᄌᆞ 160
그·려·도 157
그른·더·믄 399
그·슴ᄒᆞ·져 389
그·ᄉᆡ·고 355
그:제어·니 281
·그·제어·니 278
그즈니 357
그·처시·니 234
근드·거 333
·글 399
글·월 벗값 갑 277
글어:내·여 120
글커·든 98
긁싯고 105
금·션 377
금·토환 372
금으·로 ᄢᅵᆫ니 420
·긋 131, 227
긋·긋·다 399
:긔 390
:긔·걸·ᄒᆞ- 409
·긔·수ᄒᆞ리 382
·기·들·워 125
기·르·마 224
·기·르마 굴·에·돌·히 365
기·ᄅᆞ·맛·가·지 309
기·ᄅᆞ·매 309
기·은 ᄶᅡ·해 357
기·우·로 333
기·ᄌᆞ피 377
기조·치 329
:깁·과 고·로 79
·깃·ᄀᆞ·쌧 120
·ᄀᆞ·ᄂᆞᆫ :시·리 214
·ᄀᆞ·ᄂᆞᆫ 주·룸 뎐·릭 369
·ᄀᆞ·ᄂᆞᆫ 주·룸·도 304
·ᄀᆞ·려내·여 382
:ᄀᆞ·새 264
ᄀᆞᄉᆞ:마·ᄂᆞᆫ 180
ᄀᆞᄉᆞ:말·오 277
·ᄀᆞᆫ ·틴 :외 208
ᄀᆞᆯᄂᆞ·녀 62
ᄀᆞᆯ·라 194
ᄀᆞᆯ·와 403
ᄀᆞᆯ·외거·니·와 62
ᄀᆞᆯ·외ᄂᆞ·니 62
ᄀᆞᆯ·외·ᄂᆞᆫ 몰 255
ᄀᆞᆯ·이·오 70
ᄀᆞᆯ·히여 300
ᄀᆞᆺ가·ᄒᆞ·ᄂᆞᆫ 112
ᄀᆞᆺ거·다 340

㉡

·나가·니어·늘 177
나·니·라 281
나·니거·니 231
·나·ᄂᆞᆫ 105
나죄 54
남지·니 141
·납·폐 :권ᄒᆞ·니 338
내 ·해 266
너르씬 가·마 321
너옷 94
:널문 231
널·이·패이·다 197
널·이ᄉᆞ·오·더 163
:네 :님·자·읫 269
:네 ᄃᆞ·로·니 108
네 ·하:가 174
녀·교·더 360
·녀·기·의 365
녀·러 ·오·나시·니 200
녀·러울 116
녀·르·메 184
녀느 152
년·구ᄒᆞ·기 51
년 ·더 74
년·근 79
넚ᄀᆞ 339
녑·발·치 340
·녑·발·치 102
:넷 쥬인 지·비·니 93
노고 357
노·연·네 357
노·론비·체 천화:봉문·ᄒᆞ·욘 :비·단 293
노론 ·차·할 편:비·단 294
노·ᄅᆞᆺᄒᆞ·며 364
노의·여 365
노의 165
노·호·로 128
노·ᄒᆞᆫ 378
鹿角·오·로 밍·ᄀᆞᆫ 고도·리 318
:논·던 78
:논·힐·훠 184
:눌 ·ᄒᆞ·야 269
·늘그·시·니 181
늣·도고·나 168
·니·건 ·히 69
니·기 ᄃᆞᆫ·니·디 65
니·르·리 273
니부·려 ·ᄒᆞ·ᄂᆞᆫ 299
니:천 83, 299
닐·옴·도 57
:님:자 227
ᄂᆞ·리우·라 345
ᄂᆞ므·새 208
ᄂᆞ몯 415
ᄂᆞᆫ·호·와 390
·놀·씨 294
ᄂᆞᆺ가온 은 266
ᄂᆞᆺ갓 360

㉢

다대 177
·다·티 285
다·하 185
·다·하 263
다·함 62
다·혼·셔 309
·다홍 :비·단 378

·다홍비·체 ·금 ·드·려 ·뽄 :비·단 293
·닫·티 160
달·호·리 221
:담·박ᄒᆞᆫ 325
당시·론 73, 157
당시·예 284
당츄·ᄌᆞ 339
대·가ᄒᆞᆫ·디 191
:대·되 78
·대·오 318
:대·운 424
:대·육 340
댓무수 152, 339
댱 312
댱:개로·니 163
댱·단·이 399
댱:샤·댱 163
댱샹 352
더그·레 369
더·뎌 두·고·셔 333
더·브사·라 355
더디ᄂᆞ니·라 112
:던·져 333
데·우·라 208
뎌 녀·긔 73
뎌 :뎜·이 93
뎌러·로 194
뎐:염·ᄒᆞ야 280
:뎐피 훠 377
뎐·회 116, 184
:뎜·고ᄒᆞ·야 339
뎨 ·가 73
뎨 73
·뎃 140
도·다:내·디 227
도·마 우·희 102
도화쟘·불몰 255
도홍비·체 엿·게·예 ·구·룸문ᄒᆞ·고 년 ·뒨 :쇼·화문ᄒᆞᆫ :비·단 293
·독·벼·리 116
돈 :쉰·시·기·니 108
돈피 ᄉᆞ:염 375
돈피털 375
:돌구·싀 128
:돌·셩 313
돌·여 니러 112
돗 112, 224
동:향 425
동·모 ·ᄒᆞ·야 358
동·뫼·야 385
동·셩 :ᄉᆞ·촌 형·뎨 324
동싱 324
동화 339
동·힉 141
:되·벋 79
되야·기 239
됴 415
됴뎡·이 58
:됴·호·모·로 69
:됴·홈 구·주므·란 274
:두 번 137
·두·워 ·두·워 108, 188
두으·리 309
두의·저티·며 105
두의티·기·옷 128
:둘·우·며 355
:둘·워 215, 409
:둥피 309
둥신 273
:뒤돈·뇨·미 143
드·레 128
드르 375
드·리오·디 389
듣보·라 227

디·우 288
디·위 406
디·쳐 284
:디·쳐·ᄒᆞ·야·도 229
디·튼 류·황비·체 :ᄉᆞ운문ᄒᆞᆫ :비·단 293
디·튼 ·야·청 직금·흉·븨ᄒᆞᆫ :비·단 299
디·튼 ·초·록·비·체 :ᄉᆞ·계·화문ᄒᆞᆫ ·비단 293
디죵·ᄒᆞ·야 125
·딕녕·옷·곳 305
·딕·쉴션·븨 54
·딥지·즘 112
ᄃᆞ라 390
ᄃᆞ·럼 415
돌마·기 375
·돌·애 309
·ᄃᆞᆰ·댱 338
·ᄃᆡ·후ᄒᆞ·게 358
ᄃᆞᆫ·를·디·면 360
ᄃᆡ고·리 345

㉣

·례 받·조 211
·례·수 211
:례·지 340
·로·각 414
로 ·오·시·오 369
로·왜 294
:류·엽:전 318
:류청비·쳇 무릅도·리·로 문ᄒᆞᆫ :비·단 292
륙·촌 형·뎨 324
리:천 394
·립신 352
릐·려·기 181
:링·므·레 345

㉤

:마·다 246
마ᄅᆞᆷ·와 :혜·니 83
마·초·온 ·셩·녕 321
마·ᄉᆞ니오 424
마ᄉᆞ·리 120
마촘셔 174
마·함 150, 310
:말·소·른 58
:말·숨 ᄌᆞ·슴 89
·맛값 199
맛바·다 137
맛볼 429
맛ᄃᆞ리니 274
:매 ᄃᆞᆼ비·쳇 ·차·할 :힉·마문 :비·단 294
머·검·즉 ᄒᆞ·니 345
머·구·듸 203
머·규·마 188
머·규믈 227
머:믈·울 300
머·믈울·가 194
며·츳 ·나·리 425
:면·당·ᄒᆞ·야·셔 406
면듀 369
:면·합·ᄌᆞ 414
명·빅·이 281
모·긔 390
모·다 94, 424
모·도·라 204
모시뵈 66
몯젓 버·늬 116
몰 ᄃᆞ·라 오·니·가 88
:몰·ᄒᆞ·얏ᄂᆞ녀 105
·몸 얼구·레 304
뫼·화 83

무·러지·라 115
무러 267
:무·면 420
무·은 140
무적 120
무희·워 329
:뭇져·주고·ᅀᅡ 181
믈 285
·믈 364
·뭇 94
므·긔 389
므더·니 280
므던ᄒᆞ·니 117, 134
므·스·기신·고 269
므즉 174
·믈기·리 137
믈·어·디·여 116
믓·갑·시 83
믓고·기 339
·믜·혀 281
믠紗 369
:미·레 든 414
미·론 377
미·틔 ·치 305
미·티·셔 399
미처 ·가 123
믿마·기 309
:밀 378
밋·디 105
:밋·뷔 225
밋ᄶᅡ·해·셔 82
ᄆᆞᄅᆞ 415
ᄆᆞᄅᆞ·니 203
ᄆᆞ·쇼 쉬·워 73
ᄆᆞᅀᆞᆷ 노·하 116
ᄆᆞ·ᄎᆞ·리로·다 105
ᄆᆞ·ᄎᆞᆷ ᄀᆞᆯ·와 165
ᄆᆞᆫ그ᅀᅳ·디 199
ᄆᆞᆯ ·아·ᄌᆞ·미 112
ᄆᆞᆯ아자비 :겨·집 239
ᄆᆞᆯ아ᄌᆞ·바·님 239
ᄆᆞᆯ 솟동 421
ᄆᆞᆯ·이 닐·어 98
ᄆᆞᆯ외·여 177
ᄆᆞᆺ·고 51, 395
:ᄆᆡ 78
ᄆᆡᆫ ·바·ᄇᆞᆯ 152

ⓑ

바·ᄂᆞ·질 ·자·호·로·ᄂᆞᆫ 304
:바·ᄃᆞᆯ 329
바ᄅᆞᆫ 395
·바·ᄌᆞ문 231
바·품 은 214
바·횟 밧ᄃᆞᆯ·이 329
:발 304
·발·마 :보- 305
발·아딘 321
·발 지·달 ·ᄡᅳ·고 357
밧·괴일 184
버·므·러 177
버·믈·가 144
:번·븨·의 360
·법·다·이 116
베·텨 137
벼·ᄃᆞᆯ 320
·벼·로 358
·벽 140
·벽드·르문·엣 369
:베·ᄂᆞᆫ ᄆᆞᆯ 256
:보긔 346
·보·람 두·라 267
·보·람 ·두·워 399
·보:로 415
·보·왜 93
보·피·ᄒᆞ·ᄂᆞᆫ 364
·복 345
·복·과 ·분 352
본 ᄇᆞᆯ 389
:봇 니·핀 활 312
·뵈 :댱·을 357
·뵈·쟐·의 266
·뵈 ·ᄧᅳᆺ ᄀᆞᆯ·와 285
·뵛ᄑᆞᆯ·ᄃᆞᆯ·홀 284
·부 415
·부·치 339
부희여ᄒᆞᆫ 370
부ᄒᆞ·락 텀ᄒᆞ·락 345
·분·외 378
:분·외·로 112
:뷘 ·바·비 153
:뷘 방 221
브·려·셔 93
·브·리·여·ᅀᅡ 74
·블 디·더 98
·블 무드·쇼·셔 115
·블 혀·니 193
비·게 370
비·레 83
:빌·식 185
·븨피 340
빈·소·미 238
ᄇᆞ·려 227
ᄇᆞᄅᆞ·매 112
ᄇᆞᄅᆞᆷ·놀·ᄋᆞ·티 98
ᄇᆞᄅᆞᆷ마·시·려 101
ᄇᆡ·화지·라 137
·ᄇᆡᆨ 기·ᄌᆞ피 휘 377
·ᄢᅧ·디·기 273
·ᄢᅧ디료 400
·ᄠᅩ·로 273
·ᄠᅳ:미 173
·ᄠᆞ·니 264, 400, 403
·ᄠᆞᆫ :쳔 131
·ᄡᅥᆷ·즉ᄒᆞᆫ·디 221
:ᄢᅬ·여 123
·ᄡᅡᆨ비·체 ·벽·드·르문 :비·단 294
·ᄡᅳ·노·니 58
·ᄡᆞᆯ 밧·고·라 165
·ᄡᆞᆯ 밧·고·와 150
ᄢᅦ 나·ᄃᆞᆯ며 365
·ᄢᅦ·혀 ᄡᅳ·고 269
ᄣᅳ·려 355
·ᄧᆞᆷ 399
·ᄣᅡ 노·하 105

ⓢ

사·ᄃᆞᆫ·짓 324
사·라신 350
사·ᄅᆞᆯ :일 364
·사·리 264
:사·ᄅᆞᆷ :네·헤 108
사·와 294
사·ᄉᆞᆯ 54
사탕 340
사·ᄒᆞ ·ᄂᆞᆫ 98
사·ᄒᆞᆯ·료 98
삭삭ᄒᆞᆫ ·ᄡᅧᆺ·근 339
산·초립 122
삿·기 빈 ᄆᆞᆯ 255
·삿·대 318
상홧 소·해 340
상자·리:젼 174
·상화 339
새배 50, 112, 339
:새·벼·리 196

:샤신 공·ᄌᆞ·하 381
:샤·향비·쳇 ·스란문 ·비·단 293
:서 ·긊 골ᄋᆡ 108
서·러 ·보·아지·라 112
서러 128
서우니 224
설엇·노·라 198
설·픠·에 373
:섯·ᄃᆞ리·니 329
:세 가·롯 길헤 가·온·ᄃᆡ ·둔·닐 거시·라 352
:셔·디 259
·셔보·조 318
:셔·울 273
:셔울 200
셔·품·쓰·기 51
셔피 414
·셕 ·바굴·에 309
·션·ᄒᆞᆫ 249
셜·아몰 255
:셜·웨·라 263, 395
:셩·녕 321
:셩·명·은 125
셩·슈 424
:셩 ᄉᆡᄅᆞᆫ 288
소·니·론 양 157
소옴· 둘 79
:솔 333
:솔·오·ᄌᆞᆫ 378
:솔·옷 415
솽가·폴 ᄒᆞᆫ 414
솽륙 제103화 주38
솽 훠 415
쇠ᄂᆞ·래브·튼몰 255
쇼·빙 203
:쇼홍·믈 :드·려 83
쇼히 424
·쇽·졀:업·시 120
·술 193, 321
술·웟·통 329
술·웟방 170
술 ·풀·리·여 208
·쉬 273
쉬·요·믈 128
:슈구ᄒᆞ·고 227
:슈·질 노ᄒᆞᆫ 369
·스·디 345
·스·면 339
·시 54
시·개 389, 395
·시·놀·히 399
시·딕갑·스·로 273
시·란ᄒᆞᆫ 370
시·론 66
시·욱 375
시·욱 청·은 377
시·뎨·엿 365
·시·푼은 273
:실 ·ᄀᆞ·ᄂᆞᆫ 266
심 389
싯·구·기 214
싯·구·디 390
·ᄉᆞ겨·넷 365
ᄉᆞ랑·ᄒᆞ·ᄂᆞᆫ·다 265
:ᄉᆞ·졀조·초 369
:ᄉᆞ·뎨 89
ᄉᆞᆯ·이·여 181
ᄉᆞᆷ셩 :별 194
ᄉᆡᆼ션·탕 338
ᄉᆡᆼ앙 345
·ᄭᅳ도·다 390
·ᄭᅱ와·다 194
·ᄧᅡᆺ:님·자 120
·ᄯᅳᆫ 몰 256
·ᄯᅩ·리 사·회 324
·ᄲᅡᆷ어·치 310
·ᄲᅡ·론ᄒᆞᆫ 총·간 414
·슉홍비·체 너·츨·모·란문ᄒᆞᆫ :비·단 293
ᄢᅬ·오ᄂᆞ·닌 288
ᄢᅬ·오·디 394
ᄢᅬ·오리·오 305
ᄡᆞᆯ애 357
ᄢᅢ·혀·니 55
·ᄡᅧ·쇼·ᄃᆡ 171
·ᄡᅧ쇼·미 238
ᄡᆞᆫ 365
ᄉᆡᆫ가·의 150

◎

아·귀 :센 몰 256
아·니 ·ᄒᆞᆫ 105
아·니 머·리 208
아·니 완츌ᄒᆞ·고 352
아·니·완·츌·ᄒᆞ·거·든 165
아·니·완ᄒᆞᆫ 116
아·랫 ·번·당 340
아·리 ·쇠 시·르 321
아·롬 389
:아·리 55
:아·리두·곤 116
:아·리 ·치·와 147
:아·ᄆᆞ라·나 :마·나 188
·아몰 255
아·븨 누의 어·믜 ·오라·비게·셔 난 형·뎨 324
아·븨 동ᄉᆡᆼ 누의 남진 324
아·ᅀᅵ·오 88
·아·ᅀᆞ·미라·니 231
아·ᅀᆞ·믜 98
아ᅀᆞ 아자·븨 :겨·집 324
아ᅀᆞ 아자비 :겨·집 238
아ᅀᆞ 아ᄌᆞ·바·님 238
아ᅀᆞ·돌·히 238
아·ᅀᆞᆷ 88
아·질·게몰 254
아질게양 287
:아·지어·니 402
아·쳐·라 181
아·촌·ᄯᆞᆯ 324
악·대몰 254
악·대양 287
앉·깁 83
안·자시·라 132
:안·롱 357
·알라 407
앏 거·티·ᄂᆞᆫ 몰 256
앏·픠 :길 116
암·그·렷더·라 239
앗가·ᅀᅡ 45
·애 ·ᄯᅩ 93
·야·투·로 사 369
·야·ᄌᆞ 390
·야·청 로 369
·야투·루비·쳇 ·벽ᄃᆞ·르혜 운문·ᄒᆞ·욘 :비·단 292
·야청 83
·약·돌 105
羊져·제 231
양지·옥 373
양·지 177
·어·디로·니 360
어·득ᄒᆞᆫ 199
어리·워 365
어·린 ·노·믜 365
어·린 :사·ᄅᆞ·미 350
·어·머·리 305
어믜 :겨·집 동ᄉᆡᆼ 243

·어·믜 ·오·라·비 사·회 324
·어믜 ·오라·븨 :겨·집 324
:어·엿·비 46
어·위·다 144
어·위·오 116
:얼운다·이 382
:에·도·디 360
여·투·워 323
여·희·여 428
:연류:황비체 ·붇곳문ᄒᆞᆫ :비·단 293
·연·야투·루비·체 텬화·의 팔·보 ·ᄢᅵᄒᆞᆫ 문·앳 :비·단 292
年終·애 86
:연·초·록·비체 ·보·샹화문·ᄒᆞ·욘 :비·단 292
열가·온 128
·열닷·쇄·만 73
·열 ᄒᆞᆫ :낫 ᄆᆞ·리·니 97
엿 ·맔 콩·과 97
:예 295
옛 191
:오경 112
:오·경두·에 108
·오·나·라! ·오·나·라 115
오·놀우·터 138
오·ᄂᆞᆳ바·ᄆᆡ 73
오·ᄂᆡ 313
오·랑 224, 150, 309
오류·마 254
·옥·쇠비·체 :굴·근 ᄢᅦ·구·룸문·ᄒᆞ·욘 :비 단 293
옴·ᄑᆞᆯ 161
·옷 ·밥·이 424
:외 339
:외·방 치 305
외·오니·란 54
요제예 177
:용·심·ᄒᆞ·야 352
:울·고도·리 319
워즈런즈러니 373
:유·뮈 238
은홍비·체 효·근 ᄧᅧᆫ·곳문ᄒᆞᆫ :비·단 293
:음·식 ·ᄑᆞᆯ·리·야 204
음양·ᄒᆞ·야 424
·읍·ᄒᆞ·노이·다 93, 170
·의·뎡·ᄒᆞ·야 273
:의·론 94
:의·론ᄒᆞ:져 389
의빙ᄒᆞ·야 273
이·대 147, 237
이·대 이·대 93, 128, 409
:이·력 50
이·맛·감 153
·이·맛·감 287
이·바 288
이바·디 334
이받·논 246
이·삭·딕·녕 369
:이·셩:ᄉᆞ·촌 형 242
·이 ·ᄣᅢ 188
·이 아·ᄒᆡ 165
·이·우지·라 88
이·웃·짓 365
·인 마·ᄌᆞᆫ 273
:인방 153
인시 425
인 ·텬 ·글·워·를 173
·일 116
·일뎡ᄒᆞ져 218
일·뎡ᄒᆞᆫ 261
·일:록 429
·일·빅 ·보 174
:일 ·아·ᄂᆞᆫ 176
일·엇·다 333

일즈시 386
일·호·믈 73
·입·ᄉᆞ·ᄒᆞ·욘 365, 373
·입 힐·후·리·오 214
잇·기 137
잇ᄀᆞ·젓 190

㉨

자·바:쇼·마 143
자·새 228
자·ᅀᅢ 128
잘 :건·ᄂᆞᆫ ᄆᆞᆯ 255
잡드·러 355
·잡효·근것:젼 174
·잣 안·해 199
장·뷔 345
:장·실·ᄒᆞᆫ 249
:장·ᄒᆞᆫ 125
:재·게 169
재·리:오 177
:쟈·가·ᅀᅡ 140
쟝·망ᄒᆞ·라 281
저 ·ᄒᆞ·야 .177
저·치·디 184
저·티 62
저프·리오 125
저·헤·라 144
·제 98
:제 70
제·대·로 두·라 151
제·므·레 미·론 ·훤 :깁 295
·져 321
·져·로 105
져·므·니 134
져·제 227
:젼동 333
:젼메·워 373
:젼 ·사·ᄅᆞᆷ 388
:젼·이 78
:젼ᄒᆞ·니 339
졀·다ᄆᆞᆯ 254
졀·다와·대ᄆᆞᆯ 273
졈·그·러 170
:졍·졔·티 132
:졍·졔ᄒᆞᆫ·가 339
·조·차· 가 160
조·ᄎᆞᆫ 102
·조·ᄒᆞᆫ 93
좃·뎝·히·라 94
즁·편 339
:쥘·동·이 313
쥬리·울 309
:쥬·변 :몯·ᄒᆞᆯ 350
·쥬신짓 197
·쥬신·하 180
즈늑즈느기 255
즈르미 263
즈릆·갑 83
즈·ᅀᅳ·메·ᅀᅡ 238
즈·습·ᄒᆞ·야 174
즌 국슈 203
즘·겟 73
지·달 165
지·즑 225
지·페딘 ᄆᆞᆯ 256
지·후리·라 316
·직금·흉·븨:예 300
·직금ᄒᆞᆫ 300
·짐 브·리·왓다·가 208
·짓 거·시·니 98
짓글·휴·믈 333
짓글·히·디· 264
·ᄌᆞ·가·미 310

ᄌᆞ·디 :셰·토 415
ᄌᆞ·래 304
ᄌᆞᄅᆞ 415
·ᄌᆞ·치·임 238
·좀·디 128

ⓒ

·차·반 102, 153
챵 378
:쳐·니·라 120
:쳔량 85
:쳔·을 234
:쳔·ᄒᆞᆫ 409
·첫 ·그·투·로 269
·쳥ᄒᆞ뇌 238
·초·록비·체 :버·리 미화 버·므·러 잇·ᄂᆞᆫ 문·읫 :비·단 293
·초당 190
:촌·애 ·가 125
총나못 375
총·이 ᄆᆞ·리 248
총ᄉᆞ무 373
츄·마뎔 255
츄·명 424
츄심·ᄒᆞ·라 178
ᄎᆞ·게 273
ᄎᆞ·긔 사뎝·시 321
·ᄎᆞ·리로·다 333
:치·옥 373
칙칙ᄒᆞᆫ 414

ⓚ

·큰 형·님 44

ⓣ

탕 204
:탕·쇠 340
텰조·쳐 ·ᄃᆞ·려 ·ᄧᅳᆫ :비·단 370
·텨 져·주·니 120
텬쳥비·쳇 ·흉·븨ᄒᆞᆫ :비·단 292
·텰쳥총·이 255
·토환 421
투투·멋 339
·팀 바다 214
·ᄐᆞ·록 273

ⓟ

:포·믈·돌 86
·푸·에 292
푼·ᄌᆞ 294
푼·ᄌᆞᆺ·긔 300
푼·ᄌᆞᆺ:긔 305
피·론 403
·ᄑᆞ·ᄂᆞ외·며 382
ᄑᆞᆫ:류·쳥 로 369
ᄑᆞᆯ·독애 125
ᄑᆞᆯ오 69
·ᄑᆞᆯ·오·져 66
·ᄑᆞᆯ·ᄌᆞ 424

ⓗ

하·나·한 98
:하·뎜 199
:하ᄉᆞ 414
한 ·돗ᄒᆞ니 207
:한ᄡᅡ·해 65
·한 :양 300
·할·옷 369
·할어·치 310
·해 234, 266
:해·자 :히·와·라 428
·하·츄·에 237
·향쥬 414
허·믈 :마·ᄅᆞ쇼·셔 147
허·텨 112
헤왇·고 208
혀:긔·우·ᄂᆞᆫ 83
혀오라 395
형·님·이·로·괴·여 93
:혜:어·든 170
·호·와 잇·고 377
:화로 204
화·살 연장 125
화둔 :비·단 420
활 브·리우·라 313
황·뵈 395
·황·호 385
효·근 83
훅더·근 414
훠 377
·휜츌·타 424
흉·ᄉᆞ 381
흉·ᄌᆞ 340
흉ᄯᅩᆼ·여 364
:ᄒᆞ·나·므·라ᄂᆞ·다 313
:ᄒᆞ·나므라려 400
홍졍바·치 298
홍졍ᄀᆞᄉᆞ·믈 285
홍졍ᄀᆞ숨 79
:회무·로 370
·힘 313
·ᄒᆞ·놀·이거·든 381
·ᄒᆞ·다·가 54
·ᄒᆞ·ᄆᆞ·시 316
·ᄒᆞ·야 105
·ᄒᆞ·야ᄇᆞ·리·디 98
ᄒᆞᆫ ·곧 116
ᄒᆞᆫ :뎡·도 267
ᄒᆞᆫ :등·엣 69
ᄒᆞᆫ 무쇠 ·벽 129
ᄒᆞᆫ·미 78
ᄒᆞᆫ ·볼 369
ᄒᆞᆫ 오·럿 141
ᄒᆞᆫ 짓 246
ᄒᆞᆯ·롤 325
·히·야 150
·히·야디·리로·다 280
·히·야 ᄇᆞ·리·고 55
:히·여·곰 191
·힌 로 369
·힌 싱:깁 295

지은이 정 광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박사.
『역학서 연구』(제이앤씨),
『역주노걸대』(김영사) 등 논저 다수.

감 수 양오진(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00대 한글 문화유산 45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초판 1쇄 발행 2006년 2월 25일

지은이 정 광
펴낸이 이재선
펴낸곳 신구문화사

출판등록 1968년 6월 10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29-1
전화 02-735-4461~5
팩스 02-732-4838
e-mail kkk33@korea.com
©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ISBN 89-7668-127-4 93710
ISBN. 89-7668-120-7(세트)

값 24,000원
*지은이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 사업'의 결과물로 이루어졌습니다.